

# 제41회 한말연구학회 전국학술대회

일시 : 2015년 2월 6일(금요일)  
장소 : 건국대학교 상허연구관(제1 발표장:123호, 제2 발표장:107호)  
주제 : 음성상징과 한국어의 의성·의태어  
주최 : 한말연구학회

개회식(제1 발표장)			사회: 최홍열(강원대)		
09:30 ~ 10:00	등록 및 접수				
10:00 ~ 10:20	개회 및 학회장 인사		이근영(한말연구학회 회장)		:
제1부	<제1 분과> 주제발표 : 음성상징과 한국어의 의성·의태어		제1 발표장	사회: 최홍열(강원대)	
10:20 ~ 11:00	한국어의 의성어와 의태어의 차이 연구 발표: 박동근(건국대)		토론: 김양진(경희대)		
11:00 ~ 11:40	"연세 현대한국어사전"의 흉내말 처리에 대한 연구 발표: 황은하(배재대)		토론: 김한샘(연세대)		
11:40 ~ 12:20	의성의태어의 사전 처리에 대하여-교체형 의성의태어의 뜻풀이와 참고 어휘 제시 방식을 중심으로- 발표: 손달임(코리아텍)		토론: 장영숙(강릉원주대)		
점심 : 12:20~13:30					
제2부	특 강		제1 발표장	사회: 허원욱(건국대)	
13:30 ~ 14:20	한국어 상징어의 연구 방법론과 전문사전 편찬		김홍범(한남대)		
휴식 : 14:20~14:30					
제3부	<제2 분과> 한국어 교육		<제3 분과> 국어 문법		
	제1 발표장	사회: 전정미(상명대)	제2 발표장	사회: 허재영(단국대)	
14:30 ~ 15:10	문법범주를 활용한 한국어교육 문법 항목 선정-부정법, 퍼동법을 중심으로- 발표: 김용경(경동대) 토론: 강남욱(호서대)		'부사-서술어' 구성의 형성 원인 및 유형 연구-'잘, 못, 잘못'을 중심으로- 발표: 조민정(연세대) 토론: 김건희(서원대)		
15:10 ~ 15:50	의성어·의태어를 활용한 한국어 발음 교육 방안-평음, 격음, 경음을 중심으로- 발표: 김효신(한국외대) 토론: 고경민(선문대)		1음절 한자어의 문법화 양상에 대하여 발표: 여채려(경희대) 토론: 최대희(건국대)		
15:50 ~ 16:30	외국인 학습자들의 글쓰기 오류 현상-중국어 고급학습자들의 글쓰기 실태를 중심으로- 발표: 박해란(건국대) 토론: 김주희(경기대)		한국어 인간 지칭 명사의 어휘장 발표: 김병건(춘천교대) 토론: 이민우(경희대)		
휴식 : 16:30~16:40					
제4부	<제4 분과> 음운		<제5 분과> 국어학사와 국어사		
	제1 발표장	사회: 이현희(안양대)	제2 발표장	사회: 한성일(경원대)	
16:40 ~ 17:20	한·중 의성어의 음성상징 대조 발표: 장언청(하북경무대) 토론: 최영미(경동대)		신경준, <鄕井書> '훈민정음도해'의 정음 문자관에 대하여 발표: 김슬옹(워싱턴글로벌대) 토론: 김상태(청주대)		
17:20 ~ 18:00	현대국어 한자어의 어두 경음화 현상 연구 발표: 한명숙(안양대) 토론: 홍미주(경북대)		연결어미, 종결어미에 나타난 '-오-'·'-이'형태 제고- 발표: 정수현(건국대) 토론: 안신혜(건국대)		
< 폐회 >					

# 차 례

## 【제1 분과】

박동근(건국대)	한국어의 의성어와 의태어의 차이 연구	7
김양진(경희대)	토론	29
황은하(배재대)	“연세 현대한국어사전”의 흉내말 처리 연구	32
김한샘(연세대)	토론	46
손달업(코리아텍)	의성의태어의 사전 처리에 대하여-교체형 의성의태어의 뜻풀이와	
	참고 어휘 제시 방식을 중심으로-	48
장영숙(강릉원주대)	토론	69

## 【특 강】

김홍범(한남대)	한국어 상징어의 연구 방법론과 전문사전 편찬	73
----------	--------------------------	----

## 【제2 분과】

김용경(경동대)	문법범주를 활용한 한국어교육 문법 항목 선정-부정법, 피동법을 중심으로-	105
강남옥(호서대)	토론	123
김효진(한국외대)	의성어·의태어를 활용한 한국어 발음 교육 방안-평음, 격음, 경음을 중심으로-	126
고경민(선문대)	토론	133
박혜란(건국대)	외국인 학습자들의 글쓰기 오류 현상-중국인 고급학습자들의 글쓰기 실태를 중심으로-	135
김주희(경기대)	토론	149

## 【제3 분과】

조민정(연세대)	‘부사-서술어’ 구성의 형성 원인 및 유형 연구-‘잘, 못, 잘못’을 중심으로-	153
김건희(서원대)	토론	173
여채려(경희대)	1음절 한자어 문법화 양상에 대하여	175
최대회(건국대)	토론	187
김병건(춘천교대)	한국어 인간 지칭 명사의 어휘장	190
이민우(경희대)	토론	202

## 【제4 분과】

장언청(하북정무대)	한·중 의성어의 음성상징 대조	207
최영미(경동대)	토론	231
한명숙(안양대)	현대국어 한자어의 어두 경음화 현상 연구	233
홍미주(경북대)	토론	254

## 【제5 분과】

김슬옹(위성탄글로벌대)	신경준, <邸井書> ‘훈민정음도해’의 정음 문자관에 대하여	259
김상태(청주대)	토론	287
정수현(건국대)	연결어미, 종결어미에 나타난 ‘-오-’이형태 재고-	289
안신혜(건국대)	토론	302

# 【 제 1 분 과 】

# 한국어의 의성어와 의태어의 차이 연구

박동근(건국대)

## 차 례

1. 머리말
  2. 어휘 범주로서 의성어와 의태어의 차이
  3. 의성어·의태어의 음운 분포 비교
  4. 의성어·의태어의 형태 비교
  5. 의성어·의태어의 통사적 기능 비교
  6. 맺음말
- 참고문헌

## 1. 머리말

이 연구는 음운·형태·통사 등 국어학의 제 영역에서 한국어 의성어·의태어의 특징을 비교하여 차이점을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다. 일반적으로 한국어의 ‘의성어’는 소리를 흉내 낸 말, ‘의태어’는 소리 이외의 동작이나 상태, 느낌 등을 흉내 낸 말로 정의되는데, 그 수가 적지 않고 모두 고유어이면서 다른 어휘와 구별되는 독특한 특징으로 국어 연구에서 적지 않은 주목을 받았다.

한국어의 의성어와 의태어는 흉내말, 시늉말, (음성)상징어 등으로 통칭하는데<sup>1)</sup> 이는 발생학적으로 의성어와 의태어가 음성상징에 기반하며, 음운, 형태, 통사 등에서 다른 어휘와 구별되는 공통된 특징을 공유하는 동일한 어휘 범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이에 지금까지 한국어의 의성어·의태어 연구 역시 이 둘을 구분하지 않고 같이 논의해 온 것이 일반적이다.

의성어와 의태어에 대한 이러한 연구 태도는 다음과 같이 채완(1997)에 잘 드러나 있다.

(1) 본고에서는 의성어 의태어를 구별하지 않고 함께 묶어서 다루고자 한다. 사실상 의성어 의태어의 구별은 언제나 분명한 것은 아니다. “가슴이 덜컥 내려 앉았다; 병이 덜컥 났다: 문이 덜컥 소리를 내며 잠겼다; 문을 덜컥 잠그고 보니 열쇠가 없었다”에서 ‘덜컥’은 의성어인가, 의태어인가, 문맥에 따라 다르다. **요컨대 우리는 하나하나의 형태에 대하여 의성어인가 의태어인가를 판가를 짓는 일은 쉽지도 않거니와 필요성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특별히 둘을 구별할 필요가 없을 때는 의성어 의태어로서 통칭하며, 일일이 나누어 기술하지 않으려고 한다. (채완, 1997:39-40)

위와 같은 설명이 의성어와 의태어의 구별을 완전히 부정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차이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태도는 앞선 연구에도 대부분 반영되어, 김

1) 이 글에서는 의성어와 의태어를 아우를 때에는 ‘흉내말’이라는 용어를 쓰도록 하겠다.

홍범(1995), 김인화(1995), 김중섭(1995), 이문규(1996), 박동근(1997), 안인숙(2007)과 최근의 손달임(2012)에 이르기까지 상대적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는 박사학위 논문에서도 의성어와 의태어가 구별되어 논의되지 않았다.<sup>2)</sup>

하지만 의성어와 의태어가 모두 음성상징에 기반하는 동일한 범주로 보는 일반적인 정의나 인식과 달리 의태어의 음성상징 실현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며, 비록 의성어와 의태어 모두 음성상징에 기반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의성어는 ‘소리’를 ‘소리’로 옮긴 직접 모방에 의한 것인 데 반해 의태어는 소리 이외의 상태나 동작, 느낌 등을 소리로 옮긴 간접 모방에 의한 것이므로 동일한 절차에 의해 생성된 것이 아니다. 이에 우리가 의성어와 의태어의 성격을 보다 정밀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범주의 공통점에 주목해 왔던 이상으로 차이점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앞서 의성어와 의태어의 차이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았던 채완(1997)은 채완(2003)에 와서 입장의 변화를 보인다.

- (2) 의성어와 의태어는 흔히 하나의 범주로 묶여서 다루어질 만큼 비슷한 점이 많다. 그러나 조목조목 따져 보면 다른 점도 적지 않은데, 이제까지의 연구에서는 의성어와 의태어의 차이가 논의된 적이 거의 없었다. (채완, 2003:71)

채완(2007)에서는 이러한 생각이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 그간 의성어와 의태어가 개념에 대한 명확한 이해 없이 같은 범주로 다루어져 왔으나 차이점이 적지 않으므로 하나의 부류로 뭉뚱그릴 것이 아니라고 보고, 다음과 같이 의성어와 의태어의 차이점을 들었다.

(3) 의성어와 의태어의 차이(채완, 2007)

- ① 의성어는 언어 형식과 의미가 비교적 필연적으로 연합하지만 의태어는 그 연합이 전적으로 자의적이다.
- ② 의태어는 음운 교체와 반복에 의해 새로운 어형을 파생시키지만 의성어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 ③ 의태어는 독특한 어말음에 의해 각운형을 이루지만 의성어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 ④ 의성어는 의태성을 동반하여 의태어로 쉽게 의미가 확장되지만 의태어는 의성어로 확장되지 않는다.

이 글은 이러한 입장에 동의하여 지금까지 크게 관심을 받지 못했던 의성어와 의태어의 차이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는 의성어와 의태어를 한데 묶어 논의함으로써 발견하지 못한 각 범주의 특성을 보다 정밀하게 이해하는 단초가 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채완(2003, 2007)은 의성어와 의태어의 차이점에 처음으로 주목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논의지만 인상 비평적인 분석에 머물러 있어 한계가 없지 않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계량적인 비교가 가능한 것은 이를 수치화하여 구체적인 차이를 밝히고자 한다. 이를 통해 그간 의성어·의태어 연구의 문제점을 다시 짚어 보는 계기가 될 것이다.

---

2) 의성어나 의태어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논의한 연구들은 있으나 비교 연구에는 이르지 못했다.

## 2. 어휘 범주로서 의성어와 의태어의 차이

### 2.1. 의성어·의태어의 정의 차이

홍내말을 의성어와 의태어로 구분한 것은 일찍이 안자산(1922) 『조선문학사 소』의 부편인 ‘조선어원론’에서 찾아 볼 수 있다.

- (4) 寫聲語는 喜怒哀樂의 情이던지 짐승들의 聲이던지 其聲을 흉내하여 言을 作한者라.  
(중략) 상징어는 무성의 사물은 其形狀態度를 形불하게 상징하여 人聲으로 作한 者라”(178쪽)

‘묘성어(寫聲語)’는 지금의 의성어에 ‘상징어’는 지금의 의태어에 대응하는 것인데, 이후 의성어·의태어의 이분적 분석이나 기본 정의는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sup>3)</sup>

#### (5) 의성어와 의태어 정의 비교

- ㄱ. 의성어는 자연의 소리를 본떠서 만든 것이다. 의태어는 대상의 모습을 본떠서 만들어진 것이다.(윤희원, 1993:13-14).
- ㄴ. 음성기호와 개념 사이에 얼마간의 필연적 관계를 가지는 상징어는, 무별성인 자연이나 동물의 소리와 유별성인 사람의 음성 자체가 가지는 청각적인 영상(개념)을 그대로 분절음소로 떼베끼는 소리홍내말과 어떤 상태나 움직임 등의 모양인 시각형상을 청각영상으로 바꾸어 분절음소로 떼베끼는 모양홍내말이 있다(김홍범, 1995).<sup>4)</sup>
- ㄷ. 음성상징어는 의미에 해당하는 감각을 음(혹은 음운)으로 묘사·상징하는 어휘로서 음운교체, 첩용, 접사에 의한 파생 등의 형태적 특성을 갖는다(김인화, 1995:5).
- ㄹ. 의성의태어는 소리나 모양을 언어형식으로 본떠서 표현하되, 그 언어의 음 운체계에 속하는 일정 부류의 자음이나 모음이 교체되어도 의미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고 위양스 차이만 갖는 자립 어휘소이다(신중진, 1998:8).
- ㅁ. 의성어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모든 소리를 지칭하거나 묘사하기 위해 되도록 그 소리에 가까우면서도 해당 언어의 음운과 음절 구조에 맞도록 만들어진 말을 가리킨다. 의태어는 소리가 아닌 것, 즉 비청각적인 감각을 청각인상으로 바꾸어 표현하는 말을 가리킨다(채완, 2003:71-72).
- ㅂ. 의성어: 사물의 소리를 흉내낸 말, 의태어: 사람이나 사물의 모양이나 움직임을 흉내낸 말(『표준국어대사전』, 1999).

(5)의 정의는 모두 의성어와 의태어가 음성상징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정의는 의성어에는 가능하지만 의태어에는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실제 우리말의 의태어 가운데 상당수는 ‘기웃기웃’(←기울다), ‘긁적긁적’(←긁다), ‘들썉들썉’

3) 다만 여기서 묘성어는 ‘매암이, 썩소리, 기럭이’ 외에 ‘불다, 울다, 터지다’와 같은 청각 동사를 포함하며, ‘상징어’는 ‘번적번적, 번개(雷), ‘해(태양)’ 외에 ‘희다, 감앗타, 동글다’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지금의 전형적인 의성어·의태어 보다는 외연이 넓다.

4) 김홍범(1995:2)에서는 상징과 피상징 사이에 상당한 자의성이 존재하는 경우는 상징어의 범주에서 제외하고, 음성상징어만을 상징어로 규정한다 하여 의성어와 의태어 모두 음성상징에 기반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들다)처럼 일반 어휘에서 파생된 것이다. 이들은 동작이나 모습을 모방한 데서 온 것이 아니니 “대상의 모습을 본뒀다”는 의태어의 정의들을 충실히 따른다면 ‘기웃기웃, 굵적굵적, 들썹들썹’은 의태어로 보기 어렵다.

이에 앞선 연구자들은 의성어, 의태어를 판정하는 데 정의와는 별도로 다음과 같이 의성어·의태어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형식적인 기준을 제시하곤 하였다.

(6) 의성어·의태어(흥내말) 판단 기준

- ① 기본의미의 바꿈이 없이 자모 대응으로 말맛의 차이를 갖는다.
- ② 반복형이 부사가 된다.
- ③ ‘-하다, -거리다, -대다, -이다’와 결합하여 동사나 형용사가 된다.
- ④ 주어나 목적어 선택이나 서술어 제약이 높다

(6)에서 ①,②,③,④는 서상규(1993), 김홍범(1995), 김인화(1995)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한 의성어·의태어 판단 기준이다. 그런데 이들이 흥내말의 전형적인 특징임에는 틀림없지만 (6)의 기준이 의성어·의태어의 정의를 충족하는 음성상징의 실현을 증명하는 수단이 되지 못한다. 실제 우리가 전형적인 의성어·의태어로 판단하는 낱말 가운데 적지 않은 수는 (6)의 조건을 두루 충족하지 못한다.

(7) ㄱ. 골골: 병이 오래되거나 몸이 약하여 시름시름 앓는 모양.

ㄴ. 동동: 매우 안타깝거나 추워서 발을 가볍게 자꾸 구르는 모양.

ㄷ. 송골송골: 땀이나 소름, 물방울 따위가 살갗이나 표면에 잘게 많이 돌아나 있는 모양.

ㄹ. 시름시름: 병세가 더 심해지지도 않고 나아지지도 않으면서 오래 끄는 모양.

ㄴ. 야금야금: 무엇을 입 안에 넣고 잇따라 조금씩 먹어 들어가는 모양.

ㅂ. 엉금엉금: 큰 동작으로 느리게 걸거나 기는 모양.

ㅅ. 어슬어슬: 날이 어두워지거나 밝아질 무렵에 둘레가 조금 어두운 모양.

ㅇ. 조곤조곤: 성질이나 태도가 조금 은근하고 끈덕진 모양.

ㅈ. 조마조마: 닥쳐올 일에 대하여 염려가 되어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한 모양.

ㅊ. 췌췌: 햇볕 따위가 몹시 내리쬘는 모양.

ㅋ. 차근차근: 말이나 행동 따위를 아주 찬찬하게 순서에 따라 조리 있게 하는 모양.

ㅌ. 초롱초롱: 눈이 정기가 있고 맑은 모양

ㅍ. 탱글탱글: 탱탱하고 둥글둥글한 모양.

ㅎ. 푸석푸석: 살이 핏기가 없이 부어오른 듯하고 거친 모양.

(7)은 전형적인 의태어이지만 자모 교체에 따른 어감의 차이를 보이는 대응쌍을 갖지 않으며, ‘-거리다/대다’와도 결합하지 못한다. 반복형의 부사이긴 하지만, ‘\*골, \*동\* 문실’ 등 단순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형태론적 과정에 의한 반복형도 아니다. 하지만 (5)의 정의와 (6) 판단 조건을 내린 연구자들도 의성어·의태어 연구에서 (7)과 같은 의태어를 의식적으로 배제한 적은 없는 것 같다.<sup>5)</sup> 사실, 의태어의 ‘소리·의미’ 관련성을 구체적인 증거를 근거로 지지하는 연구자는 많지 않다. 채완(2003:71-81)에서는 의태어는 소리 아닌 시각이

5) 김홍범(1995)에서는 흥내말을 판단하는 데, 흥내말의 개념에 부합되며 앞에서 제시한 흥내말 판단 기준(①,②,③,④) 가운데 2개 이상을 충족하는가를 복합적으로 고려한다고 하였다.

나 미각, 촉각적 대상을 소리로 바꾸는 것으로 지시 대상과 언어 형식 사이에 어떤 동기도 없다고 하였는데, 이는 (5口)에서 의태어를 비청각적인 감각을 청각인상으로 바꾸어 표현하는 말로 정의한 것과 모순이 된다.

이러한 점에서 지금까지 흉내말에 대한 술직함(?) 정의나 흉내말 판단 기준은 제시되지 못한 것 같다. 그것은 흉내말에 대한 언중의 판단이 다분히 심리적인데 이를 형식적인 데서 찾으려 했기 때문이다.<sup>6)</sup> (6)의 흉내말 판단 기준은 흉내말의 일반적인 특징임에는 틀림없지만 이는 흉내말에 대한 연구 결과이며 참고 사항일 뿐 판단 기준으로 삼기 어렵다. 즉 우리가 할 일은 (6)의 형식적 기준을 만족하는 말을 찾기 이전에 (7)의 의태어를 포함하여 우리가 심리적으로 흉내말이라고 인식하는 것들을 포괄할 수 있는 정의를 모색해야 한다. 이에 박동근(1997)에서는 흉내말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내린 바 있다.

- (8) 흉내말은 자연계의 소리를 그와 유사한 음성으로 모방하여 관습화된 ‘소리흉내말’과, 소리 이외의 모양이나 상태를 특정한 음운으로 모방했거나, 모방했다고 인식되는 ‘모양흉내말’을 두루 일컫는 국어의 특수한 낱말군이다(박동근, 1997:4).

(8)이 기존의 정의와 다른 것은 의태어가 사물을 모방한 것뿐만 아니라 “모방했다고 인식하는 것”을 포함한다는 점이다. 이는 의태어가 기본적으로 심리 범주임을 의미한다. 의태어가 음성상징의 실현이라는 기존의 정의를 완전히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sup>7)</sup> 우리가 의태어 범주로 인식하는 것 가운데 상당수는 음성상징과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 2.2. 한국어에서 의성어·의태어의 구성 비율

그렇다면 한국어에는 의성어·의태어가 얼마나 될까? 각각의 구성 비율은 어떠한가? 국어는 매우 방대한 흉내말 자료를 갖고 있다. 손달임(2012)에 따르면 다음 사전에 수록된 흉내말 표제어 수는 아래와 같다.

- (9) 한국어 흉내말의 수(손달임, 2012)  
『표준국어대사전』(국립국어원, 1999) : 9,964개<sup>8)</sup>

6) 채완(1993)에서는 흉내말의 범위를 한정짓기 어려운 것은 그 정의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특히 의태어의 경우 어디까지를 모방이라 할 수 있을지 불분명하며, 모방의 개념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극단적으로는 모든 동사와 형용사가 의태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과연 의태어라는 범주가 필요한지 의심할 수 있다고 보았다.

7) 채완(2003)에서는 “의태어는 소리 아닌 시각이나 미각, 촉각적 대상을 소리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대상과 언어 형식의 관계가 전적으로 자의적이다 (중략) 만일 어떤 두 언어에서 같은 의미의 의태어가 비슷한 음성 형식으로 나타나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우연의 일치나, 차용, 계통적 유사성 중의 하나일 것이다.” 고 하여 의태어의 음성상징성을 강하게 부정하였다. 즉 움직임이나 상태를 청각화해서 소리로 나타낸다는 것은 어떻게 해도 간접적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간접적인 것과 자의적인 것을 동일시하는 것은 다소 과도해 보인다. 언어에서 특정한 감각을 다른 감각으로 대신하는 것은 흔한 일이다. 물리적인 ‘소리’는 청각에 해당하지만 우리는 소리를 ‘빠르다’, ‘느리다’ 처럼 시간 감각으로 인식할 수도 있고, ‘높다, 낮다’ 처럼 공간 감각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동작이나, 느낌, 상태 등을 소리로 상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면, 이때 소리와 의미는 간접적이기는 하나 전적으로 자의적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8) 이 수치는 『표준국어대사전』 편찬용 의성의태어 목록을 참고하여 『표준국어대사전』에 누락된 어휘를 보충하고 어근형태를 포함한 것이다.



『조선어 상징어 사전』(靑山秀夫, 1991)	: 6,540개
『우리말 의성의태·어분류사전』(연변, 1989)	: 4,140개
『우리말 갈래 사전』(박용수, 1995)	: 3,708개
『우리말 분류사전』(남영신, 1992)	: 4,286개 <sup>9)</sup>

사전의 흉내말 목록 수가 서로 다른 것은 흉내말 선정 기준과 목록 수집의 목적 및 자료 수집의 적극성 등에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조선어연구회 편(1997)이나, 연변언어연구소(1982)는 북한어를 기반으로 하므로 표준어형이라 보기 어렵다. 『표준국어대사전』의 9,964개 역시 북한어를 포함한 수이다. 개인 연구로 김홍범(1995)에서는 4,640개의 흉내말을 제시하고 있으며, 손달임(2012)에서는 지금까지 흉내말 목록 중 가장 많은 10,743개를 제시하였다. 손달임(2012)는 『표준국어대사전』과 기존의 의성어 의태어 사전 및 말뭉치를 참고하여 의성어·의태어 목록을 작성하였다. 단어뿐만 아니라 어근과 북한어를 포함하고 있어 앞의 것과 마찬가지로 표준적인 의성어·의태어 목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각각의 연구 목적이나 초점에 따라 의성어·의태어 목록이 달라질 수 있겠으나 편자가 적지 않아, 좀 더 표준적인 목록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다. 무엇보다 『우리말 의성의태·어분류사전』(연변, 1989)을 제외하면 앞서의 연구들은 의성어와 의태어를 구분하지 않아 이중 의성어와 의태어의 구성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표준국어대사전』을 대상으로 한국어의 의성어·의태어의 총 목록을 작성하기로 하였다. 『표준』을 대상으로 한 것은 『큰사전』 이후 국어사전에서 흉내말 표제어의 수는 꾸준히 증가해 왔는데, 『표준』에 이르러 흉내말 표제어 수가 거의 확정되었기 때문이다.<sup>10)</sup>

자료 조사의 수월성과 무엇보다 수작업으로 인한 오류를 줄이기 위해 『표준국어대사전』 CD 판의 DB 파일을 확보하여 의성어·의태어 목록을 추출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먼저 사전 DB에서 부사 17,895개와 감탄사 813개를 자동으로 가려내었다.<sup>11)</sup> 이를 대상으로 1차적으로 고어, 방언, 북한어 및 잘못된 말을 가려내고, ‘-이/히’ 부사 파생어를 걸러내었다. 이후 뜻을풀이를 하나하나 확인해 가며 의성어·의태어를 제외한 나머지 부사와 감탄사를 가려내었다. 이렇게 해서 최종 확보한 현대국어 의성어·의태어의 표준어형 수는 모두 5,683개이다.

이들을 다시 의성어와 의태어로 구분하기 위해 ‘~는 소리’로 풀이되어 있는 ‘의성어’와 ‘~는 모양, ~는 상태, ~는 느낌’ 등으로 풀이되어 있는 의태어로 구분하는 작업을 하였다. 그런데 우리말의 의성어와 의태어 중 상당수는 의성어와 의태어를 겸하는 것들이다. 이러한 말들은 (10)과 같이 국어사전에 ‘~하는 소리. 또는 모양’으로 뜻풀이되어 있다.

(10) ㄱ. 꿀꺽: 액체나 음식물 따위가 목구멍이나 좁은 구멍으로 한꺼번에 많이 넘어가는 소리. 또는 그 모양.

ㄴ. 싹뚱: 연한 물건을 단번에 자르거나 베는 소리. 또는 그 모양.

ㄷ. 뻑: 갑자기 목청을 높여 지르는 소리. 또는 그 모양.

9) 김홍범(1995)에서는 박용수(1989)에는 3,863개를 조선어연구회 편(1971)에는 3,780개를, 연변언어연구소(1982)는 8,286개의 흉내말을 수록하고 있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어 다소 차이를 보인다.

10) 국어사전에서 흉내말 표제의 추가 과정은 박동근(2011) 참조.

11) 의성어·의태어의 품사는 ‘뽀뽀, 동강’ 등 일부 명사를 제외하고 모두 부사와 감탄사에 속한다.

또한 (11)과 같이 하나의 표제어에 의성어와 의태어에 해당하는 뜻풀이가 다의적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도 적지 않다.

(11) ㄱ. 팽팡: ①무겁고 단단한 물체가 잇따라 바닥에 떨어지거나 다른 물체와 부딪쳐 울리는 소리. ④매우 단단하게 굳어지는 모양.

ㄴ. 새록새록: ①새로운 물건이나 일이 잇따라 생기는 모양. ③잠든 어린아이가 숨 쉴 때 나는 소리.

(10)과 같이 사전에 ‘소리’와 ‘모양’을 겸한 의성의태어들은 대부분 소리를 모방한 의성어에서 출발하여 그와 관련된 동작까지 유추한 것으로 보인다.<sup>12)</sup> 이들은 기원상 대부분 의성어로 처리할 만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어서 ‘의성어’와 ‘의태어’와 구분하여 ‘의성의태어’로 부르기로 하겠다.<sup>13)</sup> (11)과 같은 흉내말은 글쓰이의 판단으로는 의성어와 의태어로 구분하여 동형어로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지만 이번 분석에서는 일괄 『표준』의 처리를 따랐다.<sup>14)</sup>

이러한 분류 기준에 따라 『표준』에 수록된 흉내말을 의성어, 의태어, 의성의태어로 구분하여 그 표제어 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2) 한국어의 표준적인 의성어·의태어 수

의성어	: 963개
의태어	: 3,440개
의성의태어	: 1,280개
<hr/>	
모두	: 5,683개

위의 수치는 지금까지 제안된 여러 의성어·의태어 수 가운데 한국어 흉내말의 수를 대표할 만한 가장 전형적인 수라 믿는다.<sup>15)</sup>

의성의태어를 제외하면 한국어의 의태어 수는 의성어 수의 3배를 넘는다. 의성어는 언어 보편적인 것이어서 어느 나라에나 있는 것이지만 의태어의 발달은 상대적으로 미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16)</sup> 이러한 점에서 한국어에서 의태어의 수가 의성어의 수에 비해 월등히 많은 것은 흉내말의 어휘 구성상의 특징이라 할 만하다.

12) 『표준』에서는 의성의태어 처리가 다소 과도해 보이는 것들이 적지 않다. 반면에 『고려대』에서는 이들을 다시 의성어로 돌려놓는 것들이 꽤 있다. 『표준』에서 의성의태어로 처리한 ‘꽤’를 『고려대』에서는 의성어로 처리하였다. 하지만 접어인 ‘꽤꽤’은 『표준』이나 『고려대』 모두 의성의태어로 처리하고 있다. 사전에서 의성어·의태어를 구분하는 문제는 따로 지면을 할애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13) 의성의태어를 의성어와 의태어에서 각각 카운트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으나 본 연구가 ‘의성어’와 ‘의태어’의 전형적인 차이를 비교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중간범주에 해당하는 ‘의성의태어’를 따로 구분하였다.

14) 국어사전에서 의성어·의태어 처리의 비일관성 문제는 다소 심각한 수준이다. 국어사전의 다의어, 동형어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박동근(2014) 참조.

15) 앞으로 자료 분석 과정에서 오류가 발견되면 다소의 가감은 있을 수 있지만 유효 범위 내라고 본다.

16) ‘onomatopoeia’는 영어의 의성어를 가리키는 말인데, 의태어를 칭하는 말이 따로 없어 번역에 애를 먹곤 한다.

### 3. 의성어·의태어의 음운 분포 비교

#### 3.1. 음절 구조 분석

한국어 흉내말의 음운 구조를 통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리의도(1981)와 손달임(2012) 정도가 있을 뿐이다. 리의도(1981)에서는 의성어를 대상으로 상세한 통계 분석이 이루어진 적이 있으나 후속 연구로 기약한 의태어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아쉬움이 있다. 손달임(2012)에서는 의성어와 의태어에 대해 매우 상세한 음운 분석을 수행하였으나 의성어와 의태어를 구분하지 않고 분석하여 차이점을 확인하기 어렵다.

음운 구조는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지만 이 글에서는 시론적 차원에서 흉내말의 음운 구성에서 특징적 첫 음절의 첫 자모와 끝 음절의 마지막 자모의 분포만을 살펴보겠다. 또 앞서 구분한 의성어, 의태어, 의성의태어 가운데 의성의태어를 제외한 의성어와 의태어만 비교하도록 하겠다. 이는 중간범주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의성의태어를 제외하고 전형적인 의성어와 의태어를 비교함으로써 두 범주의 차이를 좀 더 뚜렷이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먼저 의성어와 의태어의 첫 소리의 음운 분포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1> 의성어·의태어의 음운 분포(1) : 첫 소리

어종 자모	의성어		의태어	
	빈도	%	빈도	%
ㄱ	15	1.56	233	6.77
ㄴ	85	8.83	248	7.21
ㄷ	2	0.21	115	3.34
ㄹ	125	12.98	212	6.16
ㅁ	125	12.98	88	2.56
ㅂ		0.00		0.00
ㅅ	8	0.83	119	3.46
ㅇ	73	7.58	375	10.89
ㅈ	80	8.31	233	6.77
ㅊ	22	2.28	254	7.38
ㅋ	18	1.87	123	3.57
ㆁ	127	13.19	570	16.56
ㄷ	24	2.49	76	2.21
ㅌ	40	4.15	141	4.10
ㅍ	17	1.77	195	5.67
ㅑ	61	6.33	15	0.44
ㅕ	80	8.31	37	1.07
ㅖ	29	3.01	114	3.31
ㅗ	32	3.32	292	8.48
모두	963	100%	3,440	100%

의성어의 첫 소리는 ‘모음-ㄷ-ㄷ-ㄱ-ㄷ-ㅌ’ 순이며, 의태어는 ‘모음-ㅂ-ㅅ-ㄱ’ 순으로 상이하  
다. 저빈도 순으로 보면 의성어가 ‘(ㄷ)-ㄴ-ㄱ-ㄱ’ 순인 데 반해, 의태어는 ‘(ㄷ)-ㄱ-ㅌ-ㅅ-  
ㅌ’ 순으로 차이를 보인다.

이를 조음 방법과 조음 위치에 따라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표-2> 조음 방법에 따른 음운 분포(%)

	파열음	마찰음	파찰음	유음	비음	모음
<b>의성어</b>	69.89	7.47	8.41	0	1.04	13.19
<b>의태어</b>	45.18	19.43	11.98	0	6.8	16.56

<표-3> 조음 위치에 따른 음운 분포(%)

	양순음	치음	경구개	연구개	후음	모음
<b>의성어</b>	19.73	38.63	8.41	16.72	3.32	13.19
<b>의태어</b>	24.43	24.08	11.98	14.42	8.48	16.56

조음 방법 면에서 의성어는 의태어에 비해 ‘파열음’의 비율이 뚜렷이 높은 모습을 보인다.  
반면에 의태어는 의성어에 비해 ‘마찰음’, ‘파찰음’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조음 위치상  
으로 의성어는 ‘치음’이 의태어는 ‘양순음’이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다.

<표-4> 예사소리-된소리-거센소리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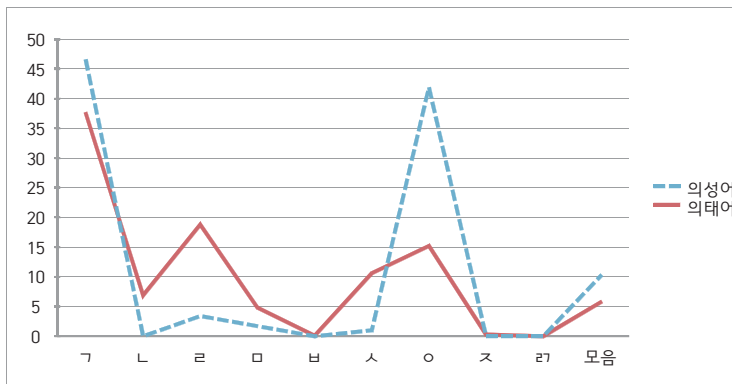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b>의성어</b>	24.61	34.27	19.42
<b>의태어</b>	26.06	20.64	10.49

‘예사소리-된소리-거센소리’ 비율에서는 의성어가 의태어에 비해 ‘된소리’나 ‘거센소리’의  
사용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어두에서 의성어와 의태어의 자모  
빈도는 현격한 것은 아니어서 의성어와 의태어의 특징을 결정하는 데 크게 관여한다고 보  
기 어렵다.

다음은 의성어·의태어의 마지막 음절 끝 소리의 음운 분포를 비교한 것이다.

<표-5> 의성어·의태어의 음운 분포(2) : 끝 소리

어종 자모	의성어		의태어	
	빈도	%	빈도	%
ㄱ	427	46.3	1287	37.4
ㄴ		0.0	238	6.9
ㄷ	31	3.4	648	18.8
ㄹ	16	1.7	166	4.8
ㅂ		0.0	2	0.1
ㅅ	9	1.0	366	10.6
ㅇ	387	41.9	524	15.2
ㅈ		0.0	11	0.3
ㅊ		0.0	1	0.0
모음	93	10.1	197	5.7
모두	963	%	3,440	%



의성어와 의태어는 첫 소리에 비해 끝 소리 자리에서 두드러진 차이를 보여준다. 끝 소리 자리에서 의성어는 ‘ㄱ-ㅇ-ㄷ-ㅅ-모음(ㄴ, ㅂ)’ 순이고, 의태어는 ‘ㄱ-ㄷ-ㅇ-ㅅ-ㄴ-모음-ㄹ-ㅈ-ㅊ-ㅂ-ㄹ’ 순이다. 의성어와 의태어는 어말 종성에서 ‘ㄱ’의 빈도가 가장 높은 점에서 같다. 또 어말 종성으로 7종성 가운데 ‘ㅂ’의 사용이 매우 저조한 것이 특징이다. ㅂ 어말 종성의 의태어로는 ‘허겁지겁’과 ‘형겁지겁’ 단 2개가 있었고, 의성어는 하나도 없었다.<sup>17)</sup> ㅂ 종성 제약은 한국어 의성어·의태어의 공통적인 특징으로 내세를 만하다.

어말 종성의 특징은 특히 의성어에 뚜렷하게 나타난다. ‘ㄴ’과 ‘ㅂ’ 종성은 아예 없으며, ‘ㄷ’이 31개로 3%대인 것을 제외하면 ‘ㄹ’과 ‘ㅅ’도 1% 미만이다. 모음을 제외하면 자음 받

17) 의성어로 볼 수 있는 것으로 ‘쩍쩍’과 ‘쨍쨍’이 있으나 『표준』에서 의성의태어로 처리하고 있어 본 의성어 통계에 잡히지 않았다.

침으로 끝나는 말 가운데 95%가 ‘ㄱ’ 아니면 ‘ㅇ’인 셈이다.<sup>18)</sup>

의성어의 어말 종성이 ‘ㄱ’과 ‘ㅇ’에 집중된다는 것은 의성어·의태어 연구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금까지 자음의 음성상징에 관한 논의는 주로 어말 자음에 집중되어 왔는데, 의성어와 의태어를 구분하여 논의되지 않았다. 하지만 의성어의 경우 어말 자음이 대부분 ‘ㄱ’과 ‘ㅇ’으로 끝난다는 점에서 의성어의 음성상징을 논할 때는 ‘ㄱ’과 ‘ㅇ’의 차이를 밝히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

### 3.2. 자음과 모음 교체

한국어 흉내말의 주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자모 교체에 의해 어감의 차이를 갖는 대응쌍을 갖는 것이다. 이는 의성어·의태어의 전형적인 특징으로 인식되어 온 것이다. 하지만 채완(2003:75)에서는 의태어는 거의 모든 형태가 자모 교체에 의해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 내지만, 의성어는 음상에 따른 음성상징적 교체가 필수적이지 않다고 보아 의성어와 의태어가 자모 교체에서 차이를 보인다고 지적한 바 있다.

- (12) 귀뚜라귀뚜라, 까옥, 깍깍, 꼬꼬깍, 꼬끼오, 꼬꼬꼬꼬, 꿀꿀, 끼룩끼룩, 따옥따옥, 뽕뽕뽕, 뽕뽕, 뽕뽕뽕뽕, 뽕뽕, 부엌, 뽕뽕, 뽕뽕뽕, 쓰르람쓰르람, 야옹, 어흥, 음매, 지지배배, 쾅쾅(동물의 소리), 딸꾹, 웅성웅성(사람의 소리), 따르릉, 부릉부릉, 재깍재깍, 칙칙폭폭(기계의 소리) (채완, 2003:76)

특히 (12)와 같이 동물의 울음소리들은 음운 교체가 거의 없는데, 동물의 울음소리를 표현하는 의성어의 대부분이 음운 교체가 없는 것은 그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였다. 이러한 해석은 경험적으로 매우 적절해 보인다. 실제 전형적이거나 소리의 대상이 구체적인 의성어일수록 음운 교체를 하지 않는 것 같다. 모방의 대상이 구체적일 때 심리적인 어감이 반영되는 자모 교체가 일어날 여지가 적어 보인다.

이를 통계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성어·의태어의 자모 교체 실현 비율을 비교하였다.

<표-6> 어두에서 의성어와 의태어의 자모 교체 비율

교체 유무	어종	의성어		의태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자모 교체가 없는 것		340	35.31	697	20.26
자음 교체만 있는 것		242	25.13	763	22.21
모음 교체를 갖는 것		381	39.56	1980	57.59
모두		963	100	3,440	100.06

18) 손달임(2012)은 한국어 흉내말의 어말 종성 자리에서 ‘ㄱ’의 빈도가 가장 높고 ‘ㅂ’의 빈도가 두 배가 낮다는 것을 처음 통계적으로 제시하였다. 다만 의성어와 의태어를 구분한 통계가 아니어서 각 범주의 특징적인 음운 분포가 회색되는 점이 있다.

ㄱ	ㄴ	ㄷ	ㄹ	ㅂ	ㅅ	ㅇ	ㅈ	ㅇ
4466	556	1630	391	13	702	2206	22	757
41.57%	5.18%	15.17%	3.64%	0.12%	6.53%	20.53%	0.20%	7.05%

분석 결과, 자음 교체와 모음 교체가 모두 일어나지 않는 의성어는 35.31%, 의태어는 20.26%로 의태어에 비해 의성어가 자모 교체형을 갖지 않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우리의 경험적인 판단과도 일치한다. 하지만 의성어·의태어의 자모 교체의 양상이 아주 현격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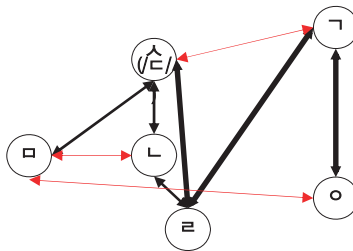
### 3.3. 어말 자음 교체

대개 의성어·의태어의 자음 교체는 어두의 ‘예사소리-된소리-거센소리’의 교체에 주목하였다. 하지만 의성어·의태어의 자음 교체는 어두에서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이 어말에서도 빈번히 일어나며, 이때 자음 교체에 의한 어감 차이를 갖는다.<sup>19)</sup>

(13) 흉내말의 어말 자음 교체에 따른 대응 유형(박동근, 2014)

- ① ㄱ - ㄷ / 반득반득 : 반들반들
- ② ㄱ - ㄹ / 자촉자촉 : 자춤자춤
- ③ ㄱ - ㅅ / 느직느직 : 느깃느깃
- ④ ㄱ - ㅇ / 달각달각 : 달강달강
- ⑤ ㄴ - ㄷ / 굽싹굽싹 : 굽실굽실
- ⑥ ㄴ - ㄹ / 시큰시큰 : 시름시름
- ⑦ ㄴ - ㅅ / 가뽄가뽄 : 가뽏가뽏
- ⑧ ㄷ - ㅅ / 방글방글 : 방긱방긱
- ⑨ ㄹ : ㅅ / 흘끔흘끔 : 흘끗흘끗
- ⑩ ㄹ : ㅇ / 찰람찰람 : 찰랑찰랑

흉내말의 어말 자음 대응 양상은 어두에의 자음 교체와 같은 자질 교체는 아니어서 뚜렷한 교체 원칙을 찾기 어렵다. 하지만 대응 관계가 완전히 무질서한 것은 아니어서 어느 정도 교체의 경향성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림-1> 흉내말의 어말 자음 대응 체계(박동근, 2014)

19) 이를 어감의 차이로 볼지 시각적 차이로 볼지는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 어말 자음 교체 양상과 목록은 김홍범(1995)에서 처음 제시되었으며 박동근(2014)에서 좀 더 정밀하게 검토하였다

<그림-1>에서 실선의 굵기는 어말 자음 교체가 활발한 정도를 나타낸 것인데, ‘ㅅ - ㄹ’이나 ‘ㄱ - ㅇ’처럼 같은 조음 위치 간에 자음 교체가 상대적으로 활발히 일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흉내말의 어말 자음 교체는 ‘ㄱ - ㅇ’ 교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의태어에서 나타난다. 이는 의성어의 어말 자음이 ‘ㄱ’과 ‘ㅇ’에 집중되어 나타나는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 4. 의성어·의태어의 형태 비교

### 4.1. 반복 여부

반복 구성은 의성어·의태어의 대표적인 형태적 특징이다. 하지만 반복형이 의성어·의태어의 필수조건은 아니다.

채완(1997)에서는 소리 중에는 일회적인 것도 있고 반복적인 것도 있으므로 모든 의성어가 반복형을 이루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묘사의 대상이 되는 소리가 반복음을 기본으로 하는 경우는 ‘명명, 짹짹, 뻘뻘, 뻘뻘’ 같이 반복형을 취하고, ‘음매, 꼬끼오’ 같이 외마디로 나는 소리의 부류는 주로 단독형으로 실현된다고 보았다. 또 상황이 단독적인가 반복적인가에 따라 단독형과 반복형이 선택적으로 사용된다고 보았다. 반면에 의태어는 대부분 반복형으로 단순형만 있는 의성어와 다르다고 보았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단순형과 반복형을 선택적으로 취하는 것은 의성어와 의태어의 공통적인 특성이므로 이는 의성어와 의태어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없다. 또 의성어 가운데 단독형만 허용하는<sup>20)</sup> 것은 채완(1997)에서 제시한 ‘음매, 꼬끼오’ 외에 ‘어흥(호랑이 울음소리)’, ‘히잉(말 우는 소리)’ 정도가 다이다. 의태어 역시 단독형만 허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지만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 (14) 단독형만 허용하는 의태어

- ㄱ. 땕: 울리듯 아프고 정신이 흐릿한 느낌.
- ㄴ. 징: 눈물이 어리는 모양.
- ㄷ. 어벌쩍: 제 말이나 행동을 믿게 하려고 말이나 행동을 일부러 슬쩍 어물거려 넘기는 모양.
- ㄹ. 오르르: 추위에 몸을 떠는 모양.
- ㄴ. 찌르르: 물기나 기름기, 윤기 따위가 많이 흘러서 번지르르한 모양.
- ㅂ. 찌그릉: 좀 찌그러질 듯한 모양.
- ㅅ. 휘영청: 달빛 따위가 몹시 밝은 모양.

그러므로 단순형만 허용하는 특징이 의태어와 구분되는 의성어의 특징으로 인정할 만한지는 좀 더 숙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 4.2. 의성어·의태어의 외적 파생

의성어·의태어는 자모 교체에 의한 내적 파생 외에 외현적인 접사와 결합하여 동사나, 부

20) 국어사전을 기준으로 할 때.



사가 되기도 한다. ‘-하다 -거리다, -대다, -이다’와 결합하여 형용사나 동사를 파생하는 것은 흉내말의 외적 파생 중 가장 생산적인 것이다. ‘-하다 -거리다, -대다, -이다’ 파생은 의성어와 의태어에 두루 나타나므로 의성어와 의태어를 구분 짓는 배타적인 특징은 아니다. 흉내말과 결합하는 ‘-하다, -거리다, -대다, -이다’에 대한 앞선 연구는 적지 않으나 의성어와 의태어를 구분하여 논의된 적은 없다.

의성어·의태어에 ‘-거리다/대다, -이다’가 결합하면 동사가 되는 데 반해, ‘-하다’ 결합하면 동사나 형용사가 된다. 이때 ‘-하다’가 의성어와 결합하면 모두 동사가 되는 데 반해 의태어와 결합할 때는 ‘동사’ 또는 ‘형용사’가 된다. [X-하다]의 품사는 선행하는 어근 ‘X’의 ‘동작성/상태성’에 따라 결정되므로 의태어가 [동작성]과 [상태성]으로 구별되는 데 반해 의성어는 모두 [동작성] 자질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5) [의성어+ -하다]<sub>동</sub>

- ㄱ. 개굴개굴 → [개굴개굴-하다]<sub>동</sub>
- ㄴ. 달각달각 → [달각달각-하다]<sub>동</sub>
- ㄷ. 드릉드릉 → [드릉드릉-하다]<sub>동</sub>
- ㄹ. 사각사각 → [사각사각-하다]<sub>동</sub>
- ㅁ. 으적으적 → [으적으적-하다]<sub>동</sub>
- ㅂ. 짹짹짹 → [짹짹짹-하다]<sub>동</sub>

(16) [의태어+ -하다]<sub>동/형</sub>

- ㄱ. 끄덕끄덕 → [끄덕끄덕-하다]<sub>동</sub>
- ㄴ. 뒤뚱뒤뚱 → [뒤뚱뒤뚱-하다]<sub>동</sub>
- ㄷ. 반짝반짝 → [반짝반짝-하다]<sub>동</sub>
- ㄹ. 보송보송 → [보송보송-하다]<sub>형</sub>
- ㅁ. 수북수북 → [수북수북-하다]<sub>형</sub>
- ㅂ. 폭신평신티 → [폭신평신티-하다]<sub>형</sub>

‘-이/히’ 접미사가 흉내말 어근과 결합할 때 의성어와 결합하지 못하는 점도 의태어와 구별되는 특징이다. 박동근(1997)에서는 흉내말 어근과 결합하는 463개 ‘-이/히’ 파생어 목록을 작성했는데, 이중 의태어에 결합하는 것이 424개, 의성의태어에 결합하는 것이 2개였다.

여기서 [X-이/히] 파생형의 의태어(어근) ‘X’와 결합하는 ‘-하다’ 파생형을 검토해 본 결과 다음의 29 예를 제외하고는 모두 ‘-하다’와 결합하여 형용사가 되는 것들이다.

- (17) 길길이, 너넌너넌히, 박박이, 벽벽이, 병싯이, 빙긋이, 빙끗이, 빙싯이, 뽕긋이, 뽕끗이, 뽕싯이, 서붓이, 성긋이, 성끗이, 싱긋이, 쌍긋이, 쌍끗이, 쌍싯이, 썩긋이, 썩끗이, 썩싯이, 자그시, 지그시, 잘쭈잘쭈이, 절쭈이 켓쭈이, 자곡자곡히, 해죽이, 해쭈이

이는 [X-이/히] 파생형에서 흉내말 ‘X’가 의태어에 한정되며 의미적으로 [상태성] 자질을 갖는 다는 것을 의미한다.

### 4.3. 의성어·의태어의 어말 음절(형식) 분포

박동근(1992)에서는 의성어와 의태어 끝음절 가운데에는 보편적인 형태소의 개념으로는 분석하기 어려우나, 일련의 형태와 의미를 가지고 있어 흉내말을 구성하는 형태론적 구성 요소로 파악되는 것이 있는데 이를 ‘상징소’라 정의한 바 있다. 이러한 일련의 끝음절은 주로 의태어에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는 의성어가 단순히 자연계의 소리를 흉내 낸 것인 데 반해 의태어 중 적지 않은 수가 유사 파생의 절차를 거쳐 생성된 것이기 때문에 어말에서 접사 상당 요소를 분석해 낼 수 있는 것이다.

- (18) 가. ‘-글’: 빙빙 / 빙-글 빙-글  
 나. ‘-금’: 살살 / 살-금 살-금  
 다. ‘-꿈’: 짹짹 / 짹-꿈 짹-꿈  
 라. ‘-딱’: 팔팔 / 팔-딱 팔-딱  
 마. ‘-둥’: 기웃기웃 / 기웃-둥 기웃-둥  
 바. ‘-들’: 반반 / 반-들 반-들  
 사. ‘-렁’: 훌훌 / 훌-렁 훌-렁  
 아. ‘-실’: 둥둥 / 둥-실 둥-실  
 자. ‘-적’: 끈끈 / 끈-적 끈-적  
 차. ‘- 짹’: 살살 / 살- 짹 살- 짹

‘상징소’ 설정은 분석 방법에 문제가 제기되기는 하였으나 이후 여러 연구에서 의성어·의태어의 특징적인 요소로 주목 받은 바 있다. 채완(2003:78)은 의태어가 특히 어말에서 일정한 형태를 갖추려는 동기가 강하여 다음과 같이 일정한 형태가 반복되는 각운형이 발달하였다고 보았다.

- (19) 간들간들, 건들건들, 구들구들, 꾸들꾸들, 바들바들, 반들반들, 번들번들, 보들보들, 부들부들, 비들비들, 야들야들, 오들오들, 유들유들, 한들한들, 흔들흔들, 후들후들.

이에 반해 의성어는 일정한 어말음으로 각운형을 구성하는 예들이 많지 않은데 이는 의성어가 대상과의 필연성을 추구하는 동기가 강해 구태어 각운형을 취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의성어와 의태어의 발생 차이는 의성어에 비해 의태어의 경우 끝 음절에 특정 음절의 분포가 높게 나타날 것을 예측하게 한다.

이에 『표준』에서 추출한 의성어·의태어 중 1음절어를 제외한 나머지를 대상으로 어말 음절의 빈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7> 의성어·의태어의 어말 음절 수

	총 목록수	어말 음절 종류	평균
<b>의성어</b>	855	199개	4.29
<b>의태어</b>	3440	389개	8.84

1음절어를 제외한 855개의 의성어 가운데 서로 다른 음절형은 199가지이며, 3440개의

의태어 가운데 어말 음절형은 389가지였다. 전체적인 어말 음절의 종류는 의성어보다 의태어가 많지만 상대적인 비율로 볼 때는 의태어에 특정 음절에 대한 집중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어말 음절의 출현 빈도를 20위까지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8> 어말 음절 빈도

순위	의태어			의성어		
	끝음절	빈도	비율	끝음절	빈도	비율
1	긋	127	3.69	랑	43	5.02
2	글	107	3.11	당	38	4.44
3	실	95	2.76	령	38	4.44
4	적	87	2.53	닥	37	4.32
5	죽	86	2.50	덩	35	4.09
6	작	73	2.12	득	32	3.74
7	끗	73	2.12	턱	31	3.62
8	르	68	1.96	각	30	3.50
9	쭉	61	1.77	각	26	3.04
10	룩	60	1.74	락	26	3.04
11	근	60	1.74	력	23	2.69
12	들	59	1.71	룩	21	2.45
13	쩍	55	1.60	강	17	1.98
14	령	51	1.48	격	17	1.98
15	둥	49	1.42	릉	17	1.98
16	랑	47	1.37	경	16	1.87
17	딱	45	1.30	작	14	1.63
18	덕	45	1.30	등	12	1.40
19	질	42	1.21	득	10	1.16
20	득	42	1.21	적	10	1.16

#### 4.4. 의성어·의태어의 생성

의성어와 의태어는 상대적으로 규범에서 자유로워 형태를 변형하거나 상황에 따라 새로운 의성어나 의태어를 만들어 쓸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창조성에는 정도에 차이가 있어 의성어가 의태어에 비해 새로운 형태를 창조하는 데 훨씬 자유롭다.

새로운 형태의 의성어 사용은 인터넷이나, 소셜, 유아를 대상으로 한 그림책에서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 (19) ㄱ. 고양이가 숨 쉴 때마다 크르릉 거리는데
- ㄴ. 불꽃이 푸시식 소리를 내며 움츠러들 듯
- ㄷ. 드디어 여행갑니다 ㄹㄹㄹㄹ
- ㄹ. 중간고사 끝 너무 좋아. 캉캉캉
- ㅁ. 나도 속을 뻘뻘했다, 뒷곳은 아저씨네, 쫓쫓

특히 만화 등에서 특히 빈번히 사용되는 데 독자의 입장에서 이를 이해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림-2〉 『드래곤 볼』 무수정판 제40권 중

#### 4.3. 의성어·의태어의 품사

잘 알려진 것처럼 의성어·의태어의 전형적인 품사는 부사이다.<sup>21)</sup> ‘뽀뽀’, ‘동강’<sup>22)</sup> 등 일부 명사형 의성어·의태어를 제외하면 부사 이외의 품사로 보는 감탄사만 있다.

『표준』의 처리를 기준으로 보면, 963개의 의성어 가운데 부사는 923개, 감탄사는 40개이다. 의성어의 절대 다수는 부사이지만 감탄사 가운데 의성어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다..<sup>23)</sup>

##### (20) 감탄사 의성어

쉬2, 쉬4, 췌, 시1, 씨4, 아2, 아아1, 아으1, 애햐, 앓1, 어허, 어험1, 억1, 예해, 예햐, 우우2, 움04, 으흠, 음1, 채3, 챗1, 해6, 햐1, 허2, 허허2, 험3, 험햐, 헤02, 호2, 후유1, 휴, 흠2, 흠흠2, 흥3, 형2, 형형2

923개의 부사 가운데 다음의 4개는 부사·감탄사를 겸하는 품사 통용어이다.

##### (21) 부사·감탄사 품사 통용

으아, 으악, 카1, 커1<sup>24)</sup>

의성어의 품사에 부사와 감탄사가 있는 데 반해 의태어는 모두 부사이다. 『표준』의 처리

21) 이에 의성어·의태어를 상정부사라고 부르기도 한다.

22) 『표준』에는 명사 ‘동강’과 부사 ‘동강’이 다른 표제어로 수록되어 있으나 이들은 같은 말에서 기원한 것으로 보인다.

23) 감탄사의 대부분은 발음기관에서 내는 소리이다. 이때 의성어와 일반 감탄사의 구분이 쉽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이 논문에서 의성어를 인정하는 전제 조건은 모방의 대상이 되는 자연계의 소리가 ‘비분절음’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영차’나 ‘이랏’ 등은 본래부터 분절음으로 음성상징에 결과 감탄사가 된 것이라 보기 어렵다. 반면에, ‘후유’와 같은 한숨 소리는 ‘ㅎ, ㄷ, ㅍ’와 같은 분절음으로 발음하지 않고, 유사한 비분절의 한숨 소리를 흉내낸 것이다.

24) 비둘기를 부를 때 내는 ‘구구01’과 ‘꾸꾸’ 역시 부사·감탄사 통용어이지만 감탄사로 쓰일 때는 비분절음으로 실현되는 것을 모방한 것이 아니므로 감탄사의 ‘구구’와 ‘꾸꾸’는 의성어가 아니다.

를 충실하게 따르면 한국어의 의태어는 모두 부사이며<sup>25)</sup> 의성어 역시 대부분 부사이지만 일부 감탄사가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는 사전의 기술 체계를 증시한 『표준』의 품사 처리에 바탕을 둔 것으로 의성어·의태어의 품사 문제는 좀 더 숙고할 필요가 있다. 송문준(1988)은 의성어들이 특별한 문법적인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따라 품사 처리가 다르다는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표-9> 송문준(1988), 소리흥내말의 씨가름에 대하여

	역순 사전	『큰사전』	『대사전』
<b>야옹</b>	느낌 씨	느낌 씨	감탄사
<b>음매</b>	느낌 씨	느낌 씨	부사
<b>꼬끼오</b>	어찌 씨	느낌 씨	부사
<b>명명</b>	어찌 씨	어찌 씨	부사
<b>꿀꿀</b>	어찌 씨	어찌 씨	부사

국어사전에서 의성어의 품사 처리는 일관성이 없었다. 같은 사전에서도 부사와 감탄사의 처리에 일관된 원칙을 발견하기 어렵다. 송문준(1988)에서는 사전에서 의성어 품사 처리의 비일관성을 비판하고, 의성어는 독립어다운 특성을 갖고 있으며 혼자서 완전한 문장을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기본 품사를 감탄사로 설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는 원칙적으로 의성어를 ‘부사’로 처리한 『표준』의 입장과 상반된다. 실제로 의성어가 어두 자리에 와서 독립어로 쓰일 때는 ‘감탄사’의 기능이 더 두드러진 것으로 보인다.

- (22) ㄱ. 철수가 하하 웃었다.  
       ㄴ. 닭이 꼬끼오 울었다.  
       ㄷ. 천둥이 팡 울리다

- (23) ㄱ. 하하, 아무도 나를 이길 수 없다.  
       ㄴ. 꼬끼오, 닭이 새벽을 알린다.  
       ㄷ. 팡! 천둥 소리가 귀를 찢을 듯하다.

(22)와 (23)의 ‘하하’, ‘꼬끼오’, ‘팡’의 품사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일관되게 ‘부사’나 ‘감탄사’ 가운데 하나로 처리하기. 둘째, 부사·감탄사의 품사 통용어로 처리하기. 셋째, 주된 용법에 따라 어휘 개별적으로 ‘감탄사’나 ‘부사’로 처리하는 방법이다. 가장 이상적이며 언어 사실에 충실한 것은 세 번째 방법이지만, 『표준』에서는 첫 번째 그 중에서도 ‘부사’로 처리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25) 의태어 가운데에 ‘가동가동’은 부사·감탄사 통용어이지만 ‘감탄사’로 쓰이는 ‘가동가동’은 특정 행동을 하면서 하는 습관적인 말로 비분절음으로 실현되는 자연음을 모방한 것이 아니므로 의성어가 아니다.

## 5. 의성어·의태어의 통사적 기능 비교

의성어·의태어의 전형적인 품사는 부사이며 문장에서 부사어로 기능한다. 부사어로 기능할 때 피수식어가 제한되는 특징이 있다. 또한 의성어·의태어는 어두에서 독립어로 기능하며, 서술어로 기능하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그런데 의성어는 의태어와 달리 ‘관형어’로 기능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24) ㄱ. 철수는 문을 뿡 소리가 나게 닫았다.

ㄴ. 철수는 문을 소리가 나게 뿡 닫았다.

(25) ㄱ. 민준이는 따르릉 소리에 잠이 잤다.

ㄴ. \*민준이는 소리에 잠이 따르릉 잤다.

ㄷ. 민준이는 자명종 소리에 잠을 잤다.

흥내말의 관형어 기능은 채완(1993, 2003), 박동근(1997)에서 논의된 바 있는데, 채완(1993)에 의하면, (24ㄱ)의 ‘뿡’은 ‘소리’를 수식하는 관형어 위치에 쓰였으나, 흥내말의 전형적인 기능이 서술어를 수식한다는 점에서 (24ㄴ)처럼 ‘닫았다’를 수식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렇다면 (24ㄱ)의 ‘뿡’은 부사어로 기능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25ㄱ)에서 ‘소리’ 앞에 놓인 ‘따르릉’은 (25ㄴ)과 같이 ‘잤다’ 앞으로 이동시킬 수 없다. 그러므로 이때 ‘따르릉’은 (25ㄷ)의 ‘자명종’과 같은 자리에 오는 것으로 관형어로 기능하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하였다.

(26) ㄱ. 푸우, 하고 지산은 길게 담배를 내뿜었다.

ㄴ. 교수는 카카카 하고 유쾌하게 웃었습니다.

ㄷ. 종소리는 처음에 땡 — 하고 한 번 크게 울더니

ㄹ. 자신이 그것을 잡고 흔들며 ㄲㄲㄲㄲ …… 하고 낮은 오열을 터뜨렸다.

또, 채완(1993)에서는 의성어가 자주 인용어로 기능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26)의 의성어는 문장 구조로 볼 때 직접 인용에 해당하며 이때 인용 표지로 ‘하고’와 ‘하는’이 사용되었다고 보았다. (26)의 예문에서 쉼표, 줄표, 말줄임표 같은 문장 부호가 사용되는 것은 화자가 그 소리가 인용된 것이라는 것을 의식하고 있으며, 그것이 화자 자신의 말과 층위가 다른 외부에서 따온 부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표시하기 위한 것으로 보았다. ‘-하고’, ‘-하는’ 등의 인용표지 사용이 의태어에서도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불필요하고 군더더기로 자연스럽지 않다.

‘인용문’과 ‘독립어’로서의 용법은 의태어와 구별되는 의성어의 통사적 특징이라 할 만하다.

## 6. 맺음말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의성어와 의태어의 차이는 대부분 배타적인

차이가 아닌 선호도 차이이다)

		의성어	의태어
범주 차이	모방 주체	• 소리	• 소리 이외의 것(모양, 태도, 느낌)
	음성상징	• 성립의 전제 조건	• 필수적이지 않음
	구성 비율	• 963개	• 3,440개
음운 분포	첫 소리 분포	• 모음-ㄷ-ㄷ-ㄱ-ㄱ-ㅌ-ㅌ 순	• 모음-ㅂ-ㅅ-ㄱ-ㄱ 순
	조음 방법	• 파열음의 상대적인 우세	• 마찰음, 파찰음의 상대적인 우세
	조음 위치	• 양순음 우세	• 치음 우세, 후음 우세
	조음 세기	•	• 된소리, 거센소리 우세
	끝소리 분포	• ㄱ, ㅇ 어말 자음 집중	• ㄱ, ㄹ, ㅇ 고빈도
		• ㄴ, ㅂ 어말 자음 부재	• ㄴ, ㅅ, ㅁ 상대적으로 높음
	어두 자음 교체	• 모, ㅁ 교체 비율 상대적으로 낮음	• ㅂ 어두 자모 교체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어말 자음 교체	• ㄱ-ㅇ 교체 외에 잘 안 나타남	• 자모 교체가 상대적으로 활발함
형태적 특성	반복	• 뚜렷한 차이가 없음(결론 보류)	• 뚜렷한 차이가 없음(결론 보류)
	새말 파생	• [의성어-하다] → 동사	• [의태어-하다] → 동사/형용사
		• [의성어-이/히] 제약	• [의태어-이/히] 생산적(이때 의태어의 의미는 '상태성')
	어말 형식	• 어말 음절(형식)의 집중도 상대적으로 낮음	• 어말 음절(형식)의 집중도 상대적으로 높음
	새말 생성	• 상대적으로 자유로움	• 상대적으로 표준어형을 지키려는 경향이 높음
통사적 기능	품사	• 부사, 감탄사	• 부사
		• 부사어, 독립어, 관형어, 인용어	• 주로 부사어, 독립어

## ■ 참고 문헌

- 김인화(1995), 현대 한국어의 음성상징어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중섭(1995), 한국어 의태어 어원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홍범(2009), 「상징어의 의미 기술 모형 연구」, 『청람어문연구』 38, 청람어문학회, 341 ~ 366쪽.
- 김홍범(1995) 『한국어의 상징어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홍범·이영주(2012) 「상징어의 의미 영역 분류(3) - 감각, 감정, 생각을 나타내는 의태어를 중심으로」, 한말연구31, 한말연구학회, 2012, 145 ~ 171면.
- 김홍범·박동근, 「한국어 상징어 사전 편찬의 실제」, 『사전편찬학 연구』 11-2,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2001, 203-220면.
- 리의도(1981), 한국 의성어의 음운 통계 시론(1), 『국제어문』 2, 국제어문학회, 147-173쪽.
- 박동근(1997), 현대국어 흉내말의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동근(2000), 웃음 표현 흉내말의 의미 기술, 『한글』 247, 한글학회
- 박동근(2004), 구어 흉내말의 계량적 연구, 『한말연구』 15, 한말연구학회
- 박동근(2005), 울음표현 흉내말, 『한글』 267, 한글학회.
- 박동근(2005), 새 울음흉내말의 형태와 음성상징, 『언어학』 41, 한국언어학회.
- 박동근(2006), 내적 변화에 의한 파생과 유표성-흉내말의 홀소리 교체를 중심으로, 『한말연구』 9, 한말연구학회, 95-120쪽.
- 박동근(2007), 동화 텍스트의 흉내말 사용 양상 연구, 『동화와번역』 14, 동화와번역연구소.
- 박동근(2007), 한국어 화자의 음성상징에 대한 인지 실험 - 음높이 상징과 음색 상징을 중심으로, 『한말연구』 21, 한말연구학회.
- 박동근(2008), 한국어 만화 텍스트의 흉내말 사용 양상, 『겨레어문학』 41, 겨레어문학회.
- 박동근(2010), 관용표현의 흉내말 변형 제약, 『겨레어문학』 44, 겨레어문학회.
- 박동근(2011), 국어사전에서 표제어 늘리기와 유령어 문제, 『사전학』 17, 한국사전학회
- 박동근(2011), 동시 텍스트의 흉내말 사용 양상 연구, 『한말연구』 29, 한말연구학회.
- 박동근(2014), 국어사전에서 흉내말의 다의어 동형어 판별, 『겨레어문학』 53, 겨레어문학회
- 박동근(2014), 흉내말의 어말 자음 교체에 대한 기능적 연구, 『한민족문화연구』 47, 한민족문화연구.
- 박주원(2010), 의성의태 용언의 특성과 사전 처리 방향, 『한국사전학』 15, 한국사전학회, 128-164쪽.
- 손달임(2012), 현대국어 의성의태어의 형태와 음운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안인숙(2007), 의성어와 의태어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안자산(1922), 조선어원론 「조선문학사」: 「역대문법대계」 1-25 수록. - 연도 확인
- 이문규(1996), 「현대국어 상징어의 음운·형태론적 연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임규홍(2006), 한국어 첫소리의 [ㄱ]과 [ㄴ] 낱말의 의미 특성 - 소리와 의미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우리말 글』 37, 우리말글학회, 197-227쪽.
- 임규홍(2013), 국어 상징어의 의미 전이 양상, 『언어과학연구』 67, 언어과학회, 223-250쪽.
- 정인승(1938), 「어감 표현상 조선어의 특징인 모음 상대 법칙과 자음 가세법칙」, 『한글』 6-9, 한글학회, 419 ~ 434면.



채완(1993), 의성어, 의태어의 통사와 의미, 『새국어생활』 3-2, 국립국어원.  
채완(1997), 우리말의 의성어와 의태어, 『한글사랑』 제5호, 한글재단, 38-51쪽.  
채완(2006), 의성어와 의태어의 차이, 『새국어생활』 16-4, 국립국어원.

## □ 토론 □

### “한국어의 의성어와 의태어의 차이 연구”에 대한 토론문

김양진(경희대)

한말연구학회에서 또(?) 박동근 선생 발표의 토론을 맡게 되었습니다. 우리말 상징어의 깊은 속내를 오랫동안 고민해 오신 박동근 선생께서 의성어와 의태어의 차이에 대한 연구 발표를 하신다기에 두 말하지 않고 토론을 맡았습니다. 마침 지난 겨울 국어학회에서도 이 주제와 부분적으로 관련된 발표(“중첩의 세 가지 기제”(2014년 국어학회 겨울 전국학술대회))를 한 바가 있어서 제가 해결하지 못한 어려움이 어떻게 극복되었을까 하는 궁금증도 있었습니다.

의성의태어 전체 목록을 대상으로 한 목록 작업의 어려움은 이 논문의 앞부분에서 지적한 것처럼 연구자마다 혹은 연구 주제마다 상이한 목록들(현저한 차이를 보이는..)을 제시하고 있는 점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논문은 이러한 어려움을 <표준국어대사전>의 목록 작업을 바탕으로 극복하고 그 결과에 기초하여 한국어의 의성어와 의태어의 차이를 음운, 형태, 통사기능을 중심으로 살펴본 것입니다.

이 논문에서 지적한 이러한 차이들은 대개 수작업 기반의 통계 처리를 거친 것이기 때문에 매우 정밀하고 설득력 있는 수치들로 제시되어 있어서 앞으로 이 분야의 연구에서 좋은 기초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문에서는 여전히 제가 기대하고 있던 의성어와 의태어의 근본적인 차이를 보이기보다는 통계치를 기반에 둔 기술적 진술에 멈추고 있는 듯하여 아쉬움이 남습니다. 혹시 저의 문제 제기가 이 논문의 기술적 진술들이 의성어와 의태어의 차이에 대한 원론적 내용에 접근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 하여 몇 가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덧붙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1. 우선 이 논문(6쪽)에서는 의성의태어의 목록 작업과 관련하여, 『표준』에 이르러 흥내말 표제어 수가 거의 확정되었다고 보고 (12)에서 의성어, 의태어, 의성의태어가 각각 963개, 3,440개, 1,280개로 수치화되었음을 제시하면서 이를 한국어 흥내말의 수를 대표할 만한 가장 전형적인 수라 믿는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몇 7~8년 사이에 겨레말 대사전이 편찬되는 과정에 『표준』에 등재되지 않는 많은 표제어들이 수집되는 과정에서 상당수의 의성의태어들이 포함되었고(예, 우두럭투두럭, 우물럭... 우주주하다, 옥닥지르다, 울분근거리다, ...) 연구자가 제외하였지만 『조선말대사전』에 <북한말>로 기술된 많은 의성의태어라든지 여전히 국어사전에 포함되지 못한 방언으로부터 상경한 수많은 의성의태어들이 사전 등재를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흥내말 표제어 수의 확정’이라는 개념 자체는 좀더 조심스럽게 접근할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에서는 약 60,000여개의 음성상징어 목록을 제공하고 있는데(북한어, 방언 등 제외) 이 밖에 한자계 의성의태어 130여개(우왕좌왕(右往左往), 주저주저(躊躇躊躇), 총총(愴愴)... 등 각종 외래어에서 기원하였으나 이미 어원의식을 상실하고 고유어화한 의성의태어의 사례들은 어떻게 처리되나

요?

2. 위의 문제는 이를 바탕으로 산출한 “한국어의 의태어 수는 의성어 수의 3배를 넘는다”는 설명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게 합니다. 의성어의 어휘 목록 선정은 매우 자의적(自意的)<sup>1)</sup>이고 우연적이며 비체계적이어서 바람소리와 학울음소리, 닭 우는 소리와 개 짖는 소리를 모두 나타낼 수 있는 훈민정음의 음성 상징 표기에 대한 무한 가능성을 고려할 때, 그 수는 무한하게 늘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연계의 무한한 소리를 나타내는 의성어는 수를 나타내는 단어와 함께 단일 어휘 범주로는 가장 많은 단어가 포함될 성격의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비해서 의태어는 자연계의 동작을 나타내는 단어이기는 하나 일정한 언어적 약속에 구속되어서 한정적 목록을 넘어서기 어려운 개념적 한계가 있을 터인데 국어사전 특히 『표준』의 선정 목록만을 대상으로 “한국어 의태어의 수가 의성어 수의 3배를 넘는다”고 진술하게 되는 것은 언어적 진실(즉 한국어의 특성)에 부합하지 못한 서술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보충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3. 이 논문에서는 또 한국어 의성어·의태어의 공통적인 음운 특징으로 ‘ㄴ 종성 제약’(10쪽)을 내세울 만하다고 보았는데, ‘ 짹짹, 짹짹’ 이외에도 ‘답답, 갑갑’ 등 의성의태어의 범주에 들어오는 단어들 중에도 ‘ㄴ’이 받침으로 선정되는 단어 목록은 좀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초성에서 ‘ㄱ, ㄷ, ㄴ, ㄷ’에 비해 ‘ㄴ, ㄷ, ㄷ, ㄷ’로 시작하는 단어의 수가 적다는 것이 우연적 선호의 문제일 뿐 한국어의 어두음소 제약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때 (즉 ‘ㄷ’이 제약되는 것을 두음제약이라고 하는 것과 비교할 때) 이를 우연성 이외의 어떤 음운적 제약으로 부를 수 있을 것인지 보충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4. 이 논문의 3절, 의성어와 의태어의 형태 비교에서는 ①‘반복성 여부’는 의성어, 의태어 구별 기준으로 적당하지 못하고 ②동사성만을 지니기 때문에 ‘-이/히’ 파생에 제약이 있는 의성어에 비해 의태어는 형용성을 지니는 경우가 포함되고 따라서 ‘-이/히’의 외적 파생을 허용하며 ③어말 음절이 다양한 의성어에 비해 의태어는 어말 음절이 특정 음절에 제한되며 ④단어의 생산성에서 의성어가 의태어에 비해 높고 ⑤의태어는 부사에 한정되지만 의성어는 부사 이외에 감탄사가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결론적으로 의성어가 의태어에 비해 생산적이고(음절 구성을 포함하여) 의성어는 동사성을 지니며 부사나 감탄사로 실현되는데 비해 의태어는 동사성과 형용사성을 지니는데 품사로는 부사만이 허용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관찰적 기술은 반드시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왜 의성어는 동사성을 지니며 의태어는 동사성과 형용사성을 지닐 수 있는가? 그것이 말해 주는 바는 무엇인가? 왜 의성어는 부사 이외에도 감탄사로도 나타날 수 있는데 의태어는 그렇지 못하는가? 그것이 말해 주는 바는 무엇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답이 이 논문에는 충분히 제시되어 있지 못합니다. 관찰적 기술의 정밀성이 의미가 있으려면 그 정밀성의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데 활용될 수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5. 의성어와 의태어의 통사적 기능 차이로는 의성어가 의태어와 달리 관형어적 기능을 지닌다는 것인데 ‘반짝 세일’이라든지 ‘뒤뚱 오리’, ‘칼칼 부대찌개/토크’ 따위의 임시어들을 고려할 때 이를 통사적 기능 차이로 할 수 있을 것인지 궁금합니다.

1) 『표준』에는 ‘자의적(自意的)’도 단어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 『표준』의 ‘표준성’의 문제 중 하나이다.

6. 끝으로 의성어와 의태어 모두 중첩(반복)이 필수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고 하였지만 자연의 소리를 단순 모방하는 의성어에 비해 지속성과 연속성을 전제로 하는 의태어가 중첩(반복)이 좀더 발달해 있을 듯한데 이에 대해 보충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 “연세 현대한국어사전”의 흉내말 처리 연구

황은하(배재대)

## 차 례

1. 들어가는 말
  2. 거시구조 : 표제어의 선정
  3. 미시구조 : 흉내말 표제어의 하위 정보
  4. 나오는 말
- 참고문헌

## 1. 들어가는 말

### - 연구 목적

- 이 연구는 『연세 현대한국어사전』(이하 <연세 현대>라고 줄여서 씀.)의 흉내말 처리 지침에 대한 소개와 논의를 통해, 국어사전의 바람직한 흉내말의 처리 방법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이를 위해 <연세 현대>의 거시구조에서 미시구조에 이르기까지 실제 사례를 들어 흉내말 처리의 전체적인 모습을 소개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논의하도록 한다.

### - 연구의 필요성

- 흉내말은 사람이나 사물의 소리, 모양, 움직임, 상태 또는 느낌 등을 흉내 낸 말로,
  - ◆ 어원을 놓고 볼 때 거의 대부분이 순우리말로 되어 있음.
  - ◆ 자모음의 교체로 어감을 달리하는 대응쌍들과 어휘 체계를 이룸.
  - ◆ ‘-거리다, -대다, -이다, -하다’ 등 접미사 파생을 통해 많은 용언을 만들어 냄.
- ⇒ 흉내말의 발달은 한국어 어휘의 특징을 논할 때 반드시 거론되는 중요한 특징의 하나로, 국어 사전에서 특히 정확하고 정밀하게 기술되어 널리, 그리고 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 그러나 흉내말은 위와 같은 어휘 특성상 같은 계열의 흉내말을 기계적으로 대응해 낼 수 있는 덕분에 사전 표제어에서 누락되는 경우는 적은 반면에, 언어 현실과는 다르게 실제 사용되지 않는 말까지 사전에 수록되는 문제점들이 지적되었으며, 관련 어휘의 수가 많아서 관련 어휘 정보를 정확히 기술하고 유의어 간의 의미 정보를 정확히 변별하여 기술하기 어려운 점도 있음.
- ⇒ 실제로 그간의 흉내말의 사전 처리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적지 않은 문제점들이 보고됨.

#### - 거시구조에 관한 선행 연구

- 김홍범(1994), 김홍범(1998), 김홍범, 박동근(2001), 박동근(2011) 등
  - ◆ 흉내말의 범주 설정
    - 조어적 특징이 아닌 음성 상징 여부, 충분한 경험을 가진 연구자의 직관
  - ◆ 흉내말의 표제어 선정
    - 일정한 객관적 원칙의 부재
    - 언어 현실과 달리 사전 편찬상의 기술 체계만 고려한, ‘유령어(ghost word)’ 수록: ‘방실’ 계열, ‘방글’ 계열……
    - 1음절 반복형의 경우, 3음절 이상 반복의 표제어 누락 문제: 하하하, 줄줄줄……
  - ◆ 동형어와 다의어의 구분 기준
    - 자모음 교체를 기준으로 제안함.

#### - 미시구조에 관한 선행 연구

- 김홍범(1994), 김홍범(1998), 김홍범(2000), 신중진(2001) 등
  - ◆ 흉내말의 형태소 분석에 대한 오류 보고
  - ◆ 파생어 형성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 지적
  - ◆ 흉내말의 씨가름에 대한 오류 보고
  - ◆ 정확한 의미 정보 기술을 위한 논의
    - 의미 정보 기술의 기본 원칙, 동형어와 다의어의 구분 기준, 유의 관계에 있는 흉내말의 변별, 흉내말의 쓰임과 제약 관계 제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함.
    - 의미론적 측면에서만뿐만 아니라 문법적인 정보를 통해 유의 관계에 있는 흉내말을 변별해야 한다고 주장함.

#### - 선행연구 요약

- 국어사전보다는 흉내말 전문사전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고, 국어사전 처리 지침에 대한 논의는 신중진(2001)뿐.
- 사전 처리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한 제시가 주를 이룸. 현실적 적용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기존의 여러 문제점의 해결 방안으로 말뭉치에 기반한 흉내말 처리를 제안함.

#### - 본 연구의 구성

- <연세 현대>의 말뭉치에 기반한 흉내말의 처리의 전체적인 방향을 2장의 거시구조에 대한 것과 3장의 미시구조에 대한 것으로 나누어 기술할 것. 4장은 나오는 말로 본 연구에 대한 요약과 남은 과제에 대해 기술할 것.

## 2. 거시구조: 표제어의 선정

#### - 사전의 거시구조란

- 사전을 구성하는 표제어의 선정과 배열에 관한 것으로, 사전의 성격, 편찬 방향 등에

따라 달라짐.

- 대사전은 해당 언어의 모든 어휘를 하나도 빠짐없이 낱낱이 수록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면,
- 중사전의 경우에는 일정 규모의 어휘를 어떤 기준의 따라 선별하여 수록할 것인가 하는 또 다른 과제에 직면하게 됨.

#### - <연세 현대> 개요

- “순수 국어 사전을 지향하는 <연세 한국어 사전>(이하 <연세 사전>)의 정신을 따르되, 표제어 5만 개의 <연세 사전>과 달리, <연세 현대>는 약 12만 개의 표제어를 가지는 중사전이다. 따라서 1945년 광복 이후부터 오늘날까지의 우리의 말과 글에서 쓰인 모든 일반 어휘를 망라하여, 살아 있는 어휘와 문법의 역사를 기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이익환, 안의경, 2005).
- 이를 위해 표제어 선정에서 용례 기술에 이르기까지 1945년 이후에 생성된 텍스트 중심으로 약 1억 7천만 어절(문어와 구어의 비율은 약 95:5)의 말뭉치를 활용함.

#### - <연세 현대>의 흉내말 표제어 구성에 대한 논의

- 표제어 선정의 기본 원칙
- 동형어와 다의어의 구분
- 세 번 이상 중첩형의 표제어 선정 기준

### 2.1. 표제어 선정의 원칙

#### - <연세 현대>의 지침

- (1) 1945년부터 2005년까지의 말뭉치에 나타나는 현대 국어의 어휘를 대상으로 한다.
- (2) 일상 생활에 많이 쓰이는 일상어(글말/입말)를 주 대상으로 중사전에 맞는 어휘를 선택한다.
- (3) 빈도가 높지 않더라도 중·고교 공통 교과 과정에서 출현하는 어휘는 표제어로 선정한다. 예) 하루, 두습, 사릅, 나릅..., 오동(독립선언문에 나옴)
- (4) 일반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속된말과 비어도 말뭉치에 근거하여 빈도수에 따라 사전에 올린다. 예) 개새끼/짱...
- (5) 우리 사전은 표준어만을 수록하는 표준어 사전이 아니므로, 기존 사전들에서 ‘방언’으로 수록된 단어들 가운데서 일반인들에게도 널리 알려지고, 또 널리 쓰이고 있는, 이른바 ‘통용어’라고 할 수 있는 단어들을 표제어로 올린다. 이를 제외한 방언은 올리지 않는다.
- (6) 우리 사전에서는 말뭉치에 나타나는 빈도가 높은 파생어, 합성어들을 표제어로 선정하여 구체적인 사용법을 보인다. 예) 주말농장/가족관계..., 반짝거리다/관계하다...

#### - 흉내말 표제어 선정에 관한 지침

- 기준을 따로 제시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일반 표제어의 선정 기준을 동일하게 따르

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음.

- 즉 기계적으로 체계를 맞추기보다는 “말뭉치에 나타나는”, “일상생활에 많이 쓰이는” 어휘를 대상으로 수록함.

#### - 흉내말 표제어 선정의 절차

- 말뭉치 빈도 자료와 기존 사전들을 대상으로 표제어 후보 목록을 작성함.
- 후보 목록에 대해 일일이 말뭉치 용례 검색을 통해 실제 사용 여부를 검토함.
- 빈도가 낮은 경우에 한해서는 네이버<sup>1)</sup> 등 포털 사이트 검색을 통해 한번 더 실제 사용 여부를 검증함.  
⇒ 앞선 연구들에서 누누이 지적되었던 실제 사용하지 않고, 이론적으로만 존재하는 흉내말들을 걸러낼 수 있었음.

#### - <연세 현대>의 흉내말 표제어 수록 결과

- 전체 규모: ?개
- “방글” 계열의 예<sup>2)</sup>: 말뭉치 검증과 인터넷 용례 검증을 통해 이 중에 실제 사용되는 일부만 사전에 표제어로 올림.
- 또, 어휘론적으로 빈칸이 없는 흉내말<sup>3)</sup>(박동근, 1995)의 경우에도 일일이 말뭉치 검증을 통해 선별적으로 올림.

#### - 말뭉치에 기반한 흉내말 표제어 선정 방법에 대한 토론

- 일상 생활에 쓰이지 않는 ‘유령어’를 걸러내는 데 효율적임은 의심할 나위가 없으나, 김홍범·박동근(2011)에서처럼 “말뭉치에 출현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낱말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 ◆ 저빈도의 흉내말이 표제어에서 누락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음.
  - ◆ 모어 화자의 직관에는 있지만 실제 용례는 찾기 어려운 흉내말을 사전에서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계속되어야 할 것임.

## 2.2. 세 번 이상 반복되는 중첩형의 표제어 선정 기준

#### - <연세 현대>의 지침

- 동일한 형태가 세 번 이상 반복되는 중첩형 흉내말의 경우, 두 번 반복된 것과 의미와 용례의 쓰임이 특히 다를 때와 혹은 의미는 비슷하더라도 용례가 매우 많을 경우에만 표제어로 올린다.

#### - <연세 현대>에 표제어로 수록한 사례: ‘하하하’

- 웃음소리 ‘하’ 중첩형의 말뭉치 빈도: 하하(5,052회), 하하하(3,055회), 하하하하(600

1) 용례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네이버에서 검색되는 출판도서, 신문 기사 용례를 중심으로 검토함.  
2) 박동근(2011)에서 지정한 것과 같이 “방글” 계열의 흉내말은 기존 사전에 대한 답습과 기계적인 대응으로 최근에는 사전에 100개까지 수록됨.  
3) 박동근(1995)에서 제시한 빈칸 없는 소리 흉내말은 ‘달가닥’ 계열, ‘보드득’ 계열, ‘잘그랑’ 계열, ‘잘가닥’ 계열 등이 있으며, 모양 흉내말에는 ‘반둥반둥’ 계열, ‘반들반들’ 계열, ‘발딱’ 계열, ‘종종’ 계열 등이 있다.



회), 하X5회 중첩형(50), 하X6회 중첩형(7회), 하X7회 중첩형(2회), 하X9회 중첩형(1회)

- 품사가 모두 부사이고 의미도 크게 다를 바 없으나, ‘하하’와 ‘하하하’가 모두 제 뜻으로 많은 용례를 보이기 때문에 각각 표제어로 올림. ‘하하하하’는 ‘하하하’와 의미적 쓰임이 다르지 않아 빈도가 높은 편이지만 수록하지 않음.

<p><b>하하</b> 부사</p> <p>입을 크게 벌리고 웃는 소리를 나타낸다.¶ “그러면 그만큼 더 마시면 되겠네요. <b>하하.</b>” 주인이 웃자 나머지 사람들도 따라 웃었다. ¶대수는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면 전에 없이 큰 소리로 &lt;키워드&gt;하하&lt;/키워드&gt; 웃기도 하였다. (……)</p>	<p>㉠ 흉내말 ㉡ 히히 ㉢ 하하거리다, 하하대다 표현: 하하 웃다</p>
---	---

<p><b>하하하</b> 부사</p> <p>입을 크게 벌리고 마음껏 웃어 대는 소리를 나타낸다.¶ 사내는 어이없다는 듯이 <b>하하하</b> 소리 높여 웃었다. ¶<b>하하하</b>…… 그 분이 가고 난 다음 내무반에서는 폭소가 터졌다. (……)</p>	<p>㉢ 흉내말</p>
---	--------------

⇒ 실제로 <연세 현대>에 수록된 1음절의 3회 이상 반복되는 중첩형 흉내말 표제어는 극소수임.

### 2.3. 동형어와 다의어의 구분

#### - <연세 현대>의 지침 - 다의어의 구분

- 우선, 의미의 관련성이 큰 의성어와 의태어, 또는 관련 파생어의 경우 다의어로 처리함. 예를 들어, ‘푸드득’, ‘보글보글’과 같이 어떤 현상의 소리와 그 소리가 날 때의 모습을 같이 표현하는 경우는 한 개의 표제어 안에서 처리함.

<p><b>보글보글</b> 부사</p> <p>① 적은 양의 액체가 작은 그릇 속에서 세게 끓는 소리나 모양을 나타낸다. ¶상 한가운데 신선로가 <b>보글보글</b> 끓고 있었다.(……)</p> <p>②거품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모양이나 소리를 나타낸다.¶막 따라 온 맥주 잔에서 하얀 거품이 <b>보글보글</b> 피어 올랐다.(……)</p>	<p>㉠ 흉내말 ㉡ 부글부글 ㉢ 뽀글뽀글 ㉣ 보글보글하다 표현: 보글보글 끓다</p>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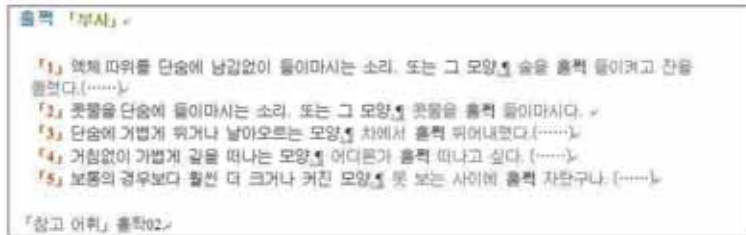
#### - <연세 현대>의 지침 - 동형어의 구분

- 의미의 관련이 없으면서 소리를 나타내고 모습도 나타내는 경우는 동형어로 처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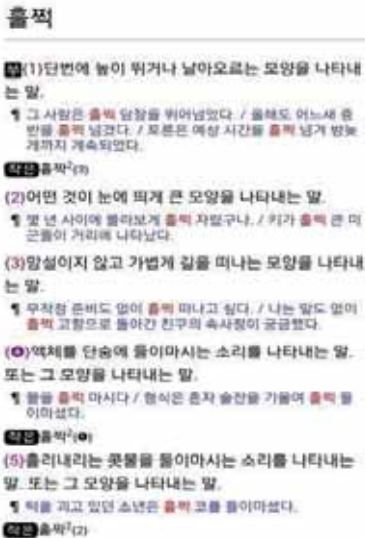
아래에 ‘홀쩍’은 기존 사전들과 달리<sup>4)5)</sup> 의미가 서로 다른 동형어로 처리함.

<p><b>홀쩍<sup>1</sup></b> 부사</p> <p>①한 번에 가볍게 뛰거나 날아오르는 모양을 나타낸다.  <b>¶</b>그는 곧장 후원의 담을 홀쩍 뛰어넘었다.(……)</p> <p>②(키가) 늘씬하게 큰 모양을 나타낸다. <b>¶</b>그녀는 뼈대가 굵고 키가 홀쩍 커서 사내같이 걸걸한 데가 있는 여자였다.(……)</p> <p>③어떤 기준을 많이 넘긴 모양을 나타낸다. <b>¶</b>새벽에 네시가 홀쩍 넘어서 잠이 든 우리 가족은 아침밥을 거를 수밖에 없었다.(……)</p>	<p><b>㉔</b> 흥내말</p> <p>표현: 홀쩍 뛰어넘다</p> <p>표현: 키가 홀쩍 크다</p> <p>표현: 홀쩍 넘다, 홀쩍 넘기다</p>
--	---

4) “표준국어대사전”은 “홀쩍”을 다음과 같이 다의어로 처리하고 있다.



5) “고려대 한국어사전”도 “홀쩍”을 다음과 같이 다의어로 처리하고 있다.



<p><b>홀쩍<sup>2</sup></b> 부사</p> <p>① 콧물을 한 번에 들이마시는 소리나 모양을 나타낸다.  <b>¶</b>나는 코를 홀쩍 들이마시고 나서, 어머니의 눈치를 힐끔힐끔 살피며 대답했다.(……)</p> <p>② 물 따위를 한 번에 남김없이 들이마시는 소리나 모양을 나타낸다. <b>¶</b>그는 잔에 남아 있는 술을 홀쩍 마신 다음에 빈 잔을 내게 내밀고 술을 채워 주었다.(……)</p>	<p>㉔ 홀쩍 ㉕ 흉내말 ㉖ 홀쩍거리다, 홀쩍대다, 홀쩍이다</p> <p>표현: 코를 홀쩍 들이마시다</p> <p>표현: 홀쩍 들이마시다, 홀쩍 마시다</p>
<p><b>홀쩍<sup>3</sup></b> 부사</p> <p>망설이지 않고 거침없이 떠나는 모양을 나타낸다. <b>¶</b>별은 어딘가로 멀리 홀쩍 떠나고 싶었다.(……)</p>	<p>㉗ 흉내말</p> <p>표현: 홀쩍 떠나다</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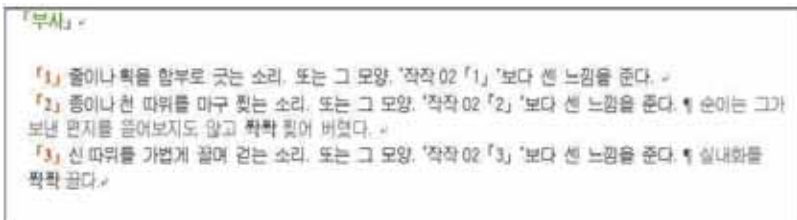
- <연세 현대>의 동형어와 다의어의 구분 기준에 대한 토론

- “의미의 관련” 여부를 동형어와 다의어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으나, 의미 관련 여부에 대해 개별 사전 편찬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음. 따라서 같은 계열의 흉내말이면서도 작업자에 따라 동형어와 다의어로 다르게 처리된 경우도 발견되어 최종 수정 단계에 바로잡음.
- 선행 연구들을 참조하여, 의미의 관련성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상세화할 필요가 있음.

- 김홍범(1994)의 동형어와 다의어 구분 기준의 적용 가능성

- 자음과 모음의 교체를 기준으로 제한함.
- 자모음 교체 대응쌍이 저빈도 어휘로 말뭉치에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음
  - ◆ <표준>에서 동형어로 처리된 ‘ 짹짹’의 예: “ 짹짹!”<sup>6)</sup>의 어린말을 ‘작작’으로 제시하는데, “ 짹짹1”의 의 의미로 쓰인 어린말 ‘작작’은 말뭉치에서 용례가 확인되지 않아 의미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
- ⇒ 이 경우, 다시 공은 “언어적 직관이 풍부한 소수의 흉내말 연구자”에게로 넘어가는 수밖에 없게 됨.

6) <표준>에서는 ‘ 짹짹1’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 3. 미시구조: 흉내말 표제어의 하위 정보

#### - 사전의 미시구조

- 사전에서 각각의 표제어를 구성하는 하위 정보 항목의 구성을 말함.
- <연세 현대>에서 흉내말의 미시구조는 다양한 정보 항목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에 기존의 사전들과 다른 특징을 보이는 참고, 관련 어휘, 의미, 용례 등 네 가지 정보 항목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함.

#### 3.1. 참고 정보

##### - <연세 현대>의 “참고” 정보

- 뜻풀이 외에 표제어를 설명할 수 있는 보충적인 내용, 백과사전적 정보를 따로 제시하기 위한 정보 항목임.
- 흉내말의 경우, 품사 정보는 부사로 주지만, 의미와 기능상 일반부사와 접속부사와는 다른 어휘군임을 두드러지게 보이기 위해 참고 정보에 “흉내말”임을 특별히 밝히고 있음.
- ◆ ‘하하’의 사전 원고 참조.

#### 3.2. 관련 어휘 정보

##### - 관련 어휘 정보

- 사전에 표제어로 등재된 단어들은 의미적으로 체계나 구조를 형성하는데, 바로 이를 보이기 위한 미시구조 항목.

##### - <연세 현대>의 관련 어휘 정보

- 계열관계: 유의어, 반의어, 관련어, 준말, 본디말, 큰말, 작은말, 센말, 어린말, 파생어, 가뻐라, 이상 11개.
- 통합관계: 표현, 이상 1개.  
⇒ 모두 난외에 제시

##### - <연세 현대>의 흉내말의 관련 어휘 정보

- 계열 관계: 유의어, 큰말, 작은말, 센말, 어린말, 준말, 본디말, 관련어, 파생어
- 통합 관계: 표현  
⇒ 큰말, 작은말, 센말, 어린말과 표현 정보에 대해서만 자세히 살펴보도록 함.

#### 3.2.1. 큰말, 작은말, 센말, 어린말

##### - 큰말, 작은말, 센말, 어린말 정보

- 의미론적으로 유의 관계의 일종으로 볼 수도 있으나 한국어 어휘의 특성상 자음과 모음 교체로 의미가 같거나 비슷하지만 어감의 차이를 보이는 단어들간의 관계를 나타내기 위함.

- 특히 흉내말은 자모음 교체를 통해 뜻은 비슷하거나 같은데 어감의 차이가 있는 다른 흉내말들과 함께 하나의 어휘 체계를 이루며, 그 어감의 차이를 밝혀 주기 위해 필요함.

#### - <연세 현대>의 큰말, 작은말, 센말, 어린말 정보

- 이론적으로 가능한 쌍과 말뭉치를 비롯한 실제 생활에서 쓰이는 것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말뭉치를 기준으로 실제 쓰이는 어휘들만을 선별하여 표제어로 올리고, 이론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단어들을 큰말과 센말에서 보여 주되, 이들을 표제어로 올리지는 않음.
- 단,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 용례가 전혀 없는 것은 표제어라인에서도 보여 주지 않음. 그리고 이러한 올림말들은 가능한 한 동일한 사람이 처리하도록 함.
  - ◆ 예) 가득하다 ○큰그득하다 ○센가득하다
  - ⇒ ‘그득하다’는 이론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단어이므로 센말 정보를 주지만, 실제 생활에서 쓰이지 않고, 말뭉치에도 나타나지 않으므로 우리 사전에서는 이를 표제어에 올리지 않고 관련 어휘 정보도 주지 않음.
  - ⇒ 언어 현실을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나, 저빈도 흉내말은 같은 계열 흉내말의 어휘 관계에서조차 찾아볼 수 없는 문제를 남김.
- 큰말/작은말, 센말/어린말의 범위는 자음이나 모음이 두 번 이상 교체된 것은 포함하지 않음.
  - ◆ 가득하다 ㉠그득하다 ㉡가득하다
  - ◆ 그득하다 ㉢가득하다 (o)  
그득하다 ㉣가득하다 ㉤가득하다 (x)
- <표준>과 달리 ‘거센말’과 ‘센말’을 구분하지 않고 ‘센말’로 묶어서 처리함.
  - ◆ 하나의 흉내말에 대응하는 ‘거센말’과 ‘센말’이 모두 있는 경우, 함께 “센말”에 제시함.
  - ⇒ 다만, 해당 ‘거센말’(또는 ‘센말’)이 표제어가 되는 경우, 표제어가 된 ‘거센말’과 ‘센말’의 관계를 보일 정보 항목이 없음. 현재는 유의어로 처리하여 모순을 보임.
    - 달각 ㉠덜각 ㉡달각, 달각, 딸각
    - 달각 ㉢달각 ㉣덜각 ㉤달각, 딸각
  - ⇒ 또, 흉내말의 단순형과 중첩형 간의 관계의 끈은 어떤 항목에서도 제시되지 않고 있는 점도 개선되어야 할 것임.
  - ⇒ 전자사전 출판이 대세가 되면서, 이제 더 이상 지면의 제약을 받지 않아도 되고, 제시 방법도 종이사전에 비해 훨씬 다양한 점을 감안하면, 어떻게 하면 다양한 어휘관계를 누락 없이 보일지를 고민해야 할 단계가 아닐까.

### 3.2.2. 파생어 정보

#### - <연세 현대>의 파생어 정보

- 빈도가 높은 파생어, 합성어들을 표제어로 선정하여 그들의 구체적인 사용법을 보임. 이와 같이 구성 요소의 본래 의미나 통사적 특성으로부터 추출할 수 없는 특성을 가지는 ‘-되다’, ‘-하다’를 비롯한 복합어 구성을 표제어로 올림.

- ‘한 단어 한 표제어’ 원칙에 따라 파생어들을 하나의 표제어로 올림. 단, 말뭉치에서 고빈도로 나타나는 파생어에 한함. 따라서 ‘-되다’, ‘-하다’, ‘-이/히’, ‘-적(的)’, ‘-거리다’, ‘-대다’, ‘-이다’, ‘-롭다’, ‘-스럽다’, ‘-답다’, ‘-장이’, ‘-질’, ‘-보’, 꺾•사동 접미사 등이 결합한 고빈도 파생어를 표제어로 올림.

#### - <연세 현대>의 흉내말의 파생어 정보

- ‘의성•의태 부사 + 거리다/대다/이다/하다’를 제시함
- ‘부사 + 거리다/대다/이다/하다’ 각각이 독자적인 단어로서의 쓰임을 보이면 독립된 표제어로 올려주고, 가짜라 항목에서 ‘~~ㄹ~~ 부사’라는 정보를 줌. 해당 부사에서는 ‘부사 + 거리다, 부사 + 대다, 부사 + 이다, 부사 + 하다’로 파생될 수 있음을 정보로 줌.
  - ◆ 반짝 ㉞ 반짝거리다, 반짝대다, 반짝이다, 반짝하다
  - ◆ 반짝거리다 ~~ㄹ~~ 반짝
- 파생어를 만들 때 이론적으로는 모든 조합이 가능하지만, 실제 그러한 형태가 말뭉치에 나타나지 않고, 원고 작성자의 직관으로도 이상하다고 판별되면 표제어로 올리 지 않음. 즉, 표제어 간의 대칭성이나 균형성을 고려하기 위해 말뭉치에 나타나지 않는 표제어를 인위적으로 올리 지 않음.
- ‘반짝반짝’처럼 2음절의 중첩형에 대해서는 ‘-거리다, -대다, -이다’ 파생어를 제외하고 ‘-하다’ 파생어만 제시함.
  - ⇒ 박주원(2010)에 따르면 이와 같은 2음절의 중첩형 흉내말 용언 파생어는 “실제 언어 생활에서, 특히 구어에서 꽤 사용되고 있으며, 소설에서도 다음과 같은 용례를 찾아볼 수 있다.” 이를 사전에 수록하지 않을 이유는 없지 않을까?

### 3.2.3. 표현 정보

#### - <연세 현대>의 표현 정보

- 말뭉치에서 자주 나타나는 비유적, 문학적 표현이나 함께 빈번하게 쓰이는, 언어를 포함하는 구 결합 형태.
- 사전을 기능에 따라 이해용 사전과 표현용 사전으로 나눈다면, 사전의 표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장치임.

#### - <연세 현대>의 흉내말의 표현 정보

- 많은 흉내말은 의미적 특성상 특정 용언과만 결합하거나 또는 특정 용언과 보다 자주 결합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용례에서도 보이지만 ‘표현’ 항목에 제시하여 표현 용도로 사전을 찾는 학습자들에게 도움을 주도록 함. 특히 의미항목이 여러 개인 다의어인 경우에는 표현 정보를 통해 의미항목간의 차이를 명시적으로 보일 수 있음.
  - ◆ 텅 ㉞ 텅 비다
  - ◆ 가우똥 ㉞ 머리를 가우똥 기울이다

### 3.3. 의미 정보

#### - <연세 현대>의 부사 뜻풀이 지침

- 모든 부사는 부사꼴로 뜻풀이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매우: 보통의 정도를 훨씬 더 넘게.

#### - <연세 현대>의 흉내말 뜻풀이

- 흉내말의 경우에도 다른 부사와 마찬가지로 부사로 풀이하되, 부사형으로 풀이하기 어려운 경우는 '~는 모양/소리/느낌을 나타낸다'로 뜻풀이를 함.
- ◆ 부사형 풀이

<p><b>기웃기웃</b> 부사</p> <p>①(무엇을 찾거나 보려고) 몸이나 고개를 이쪽저쪽으로 조금씩 기울여, 슬쩍슬쩍 넘겨다보아. ¶대문 밖에서 동회의 직원 두셋이 <b>기웃기웃</b> 고개를 안으로 들이밀고는 주인을 찾고 있었다.(……)</p> <p>②(해가) 서쪽으로 조금씩 기울어져, 거의 저물어. ¶우리는 해가 서산으로 <b>기웃기웃</b> 넘어갈 때야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도착했다.(……)</p>	<p>㉓ 흉내말 ㉔가웃가웃 ㉕기웃기웃㉖기웃기웃하다</p> <p>표현: 해가 기웃기웃 넘어가다</p>
--	---

- ◆ '~는 모양/소리/느낌을 나타낸다.'형 풀이
  - ⇒ 단, '~ 모양/소리를 나타낸다'로 풀이하지 않을 경우, 흉내말의 특성이 잘 드러나지 않는 것 같다는 우려도 있음. 사용자 대상 조사 연구가 필요할 듯.
- 같은 계열의 흉내말에 대해 풀이를 기계적으로 일치시키지 않고, 용례에 근거해 표현되는 대상을 보다 구체화하거나 의미의 차이를 보이도록 노력함.
  - ⇒ 기존 사전들에서는 같은 어기의 흉내말의 의미를 그대로 계승하여 풀이하는 것이 일반적임. 또는 같은 계열 흉내말의 말의 풀이에 사용된 메타언어를 각각 큰말과 작은말, 센말과 여린말로 구분해서 사용해 주는 정도임.
  - ⇒ 그러나 같은 계열의 흉내말이라 할지라도 관련 어휘 사이에 정도가 다르게 의미의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같은 계열의 흉내말, 흉내말과 파생어의 뜻풀이를 기계적으로 되풀이하지 않고, 말뭉치에서 추출한 용례를 충분히 검토하여 의미 차이를 가능한 한 뜻풀이에 반영하도록 함.
- 큰말과 작은말, 센말과 여린말의 어감의 차이를 구분하기 위해 뜻풀이 어휘에 상응하는 작은말을 포함시키기보다는 쉬운 말을 사용함.
  - ◆ <표준> 기우뚱: ...기울어지는 모양. 가우뚱: .....가울어지는 모양.
  - ⇒ 뜻풀이는 설명하는 말이니만큼 쉽고 논리적으로 하는 기본 원칙을 따름. 어감의 차이는 관련 어휘 정보로 대신할 수 있음.

### 3.4. 용례

#### - <연세 현대>의 용례 수록 지침

- 모든 표제어에 대해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에서 개발한 1억 7천만 어절 말뭉치

에서 추출된 용례를 세 개 이상 올린다.

#### 4. 나오는 말

..



## ■ 참고문헌

### 1. 논문

- 강현화(1999), 부사의 사전적 처리에 대하여, 『언어정보와 사전편찬』 제9집.
- 김영선(2004), 「한국어 전자 사전의 부사 목록 구축과 문제점」, 『언어과학』 제11권 2호, pp.39-61.
- 김홍범(1993), 상징어의 형태와 의미구조 분석, 『언세어문학』 제25집.
- 김홍범(1993), 한국어 상징어 전문 사전의 대조 분석, 『원우론집』 제20집.
- 김홍범(1998), 한국어 상징어 사전의 편찬 방안, 『한글』 239.
- 김홍범(2000), 국어 사전 의미 정보 기술의 실재와 문제-상징 부사류를 중심으로, 『한말연구』 제7호
- 김홍범(2007), “상징어 사전”에서 관용어 처리 문제, 『언어정보와 사전편찬』 제9집.
- 김홍범(2008), 상징어의 의미 기술 모형 연구, 『청람어문교육 38집』, pp.341-366.
- 김홍범·박동근(2001), 신문 기사 제목에 쓰인 상징어의 분석, 『배달말』 제29호.
- 김홍범·박동근(2001), 한국어 상징어 사전 편찬의 실제, 『언어정보와 사전편찬』 제11집.
- 김홍범·박동근(2013), 일상생활에서 명사로 쓰이는 상징어의 활용 양상, 『나라사랑』 122집.
- 김홍범·이영주(2009), 상징어의 의미 영역 분류 연구(1)-소리 상징어를 중심으로, 『한말연구』, 24권.
- 김홍범·이영주(2011), 상징어의 의미 영역 분류 연구(2)-사람과 관련하여 쓰이는 의태어를 중심으로, 『한국사전학』 제11호.
- 김홍범·(2012), 상징어의 의미 영역 분류 연구(3)-감각, 감정, 생각을 나타내는 의태어를 중심으로-, 『한말연구』 31권.
- 남지순(2003), 한국어 부사 전자사전의 어휘 구성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한국어학』 제21호.
- 박동근(1994), -하다 -대다 -거리다 -이다 연구1-흥내말과의 형태통어론적 특성에 따른 결합규칙, 『建國大學校 大學院 論文集』 제38집
- 박동근(1994), -하다 -대다 -거리다 -이다 연구-흥내말과의 의미 특성에 따른 결합 규칙, 『建國大學校 大學院 論文集』 제39집.
- 박동근(1995), 흥내말 체계의 빈칸 연구, 『한말연구』 제1호.
- 박동근(1997), 흥내말의 낱말 만들기, 『한글』 236.
- 박동근(1999), 한국어 흥내말의 의미 구조 연구, 『建國語文學』 제23·24합집.
- 박동근(2000), 웃음표현 흥내말의 의미 기술 연구, 『한글』 247.
- 박동근(2004), 구어 흥내말의 계량적 연구, 『한말연구』 제15호.
- 박동근(2005), 울음표현 흥내말의 연구, 『한글』 267.
- 박동근(2005), 중사전 표제어 선정의 문제점, 『한말연구』 제17호.
- 박동근(2011), 국어사전의 표제어 늘리기와 ‘유령어’ 범주의 문제, 『한국사전학』 제17호, pp.106-143.
- 박동근(2013), 한국어 흥내말의 관련어망 설계를 위한 기초 연구, 『반교어문연구』 제35집.
- 박주원(2010), 의성의태 용언의 특성과 사전 처리 방향, 『한국사전학』 제15호, pp.128-164.
- 서정옥(1993), 국어 시늉말(의성의태어) 사전 편찬의 한 방안, 『계명어문학』 제8집.

손달임(2012), 현대국어 의성의태어의 형태와 음운 연구, 『』  
신중진(2001), 의성의태어의 사전 처리와 그 방향-국립국어연구원의 표준국어대사전을 중심으로, 『冠嶽語文研究』 第26輯, pp.265-291.  
안의정·황은하(2010), 『연세 현대한국어사전』의 표제어 목록 구성의 이론과 실제, 『한국사전학』 제15호.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연세 현대한국어사전』 편찬 지침.  
이익환·안의정(2005), 『연세 현대한국어사전』 편찬 프로젝트, 『한국어전학』 제9호.

## 2. 사전류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2009), 『고려대 한국어사전』 애플리케이션.  
국립국어원(1999), 『표준국어대사전』 웹사이트.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1998), 『연세 한국어학습사전』.

## □ 토론 □

# “『연세 현대한국어사전』의 흉내말 처리 연구”에 대한 토론문

김한샘(연세대)

‘흉내말’이라는 부류에 대한 『연세 현대한국어사전』의 처리에 대해 거시 구조와 미시 구조의 측면에서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발표문이었습니다. 『연세』가 완성된 사전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학회를 통해 쟁점이 될 만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발표문에 언급된 몇 가지 주제에 대해 소소한 의견을 보태며 발표자에게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하겠습니다.

## 1. 표제어 선정

### 1) 표제어 선정과 말뭉치 빈도

발표문에 의하면 『연세』의 흉내말 표제어 선정은 전적으로 빈도에 기대는 것 같으면 서도 빈도가 낮은 표제어의 사용 여부를 검증하여 수록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기존 사전에 실린 빈도가 낮은 흉내말도 포함되었다는 것인데 『연세』의 표제어가 12만 어휘 규모이기 때문에 사용 여부를 기준으로 흉내말을 포함할 경우 전체 표제어에 비해 상당히 높은 비율의 흉내말을 등재하게 된다는 문제가 예상됩니다. 그런데 예로 드신 ‘방글’을 포함하는 어휘의 수록 여부를 살펴보면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방글, 방글거리다, 방글대다, 방글방글, 방글방글하다’를 등재한 데에 비해 『연세』에서는 ‘방글거리다, 방글방글’의 두 가지만 표제어로 삼았습니다. 실례를 보면 사전의 규모에 맞게 고빈도의 어휘가 추려진 것이나 ‘방글, 방글대다, 방글방글하다’와 같은 어휘가 꽤 흔히 사용되는 흉내말과 흉내말의 파생어이기 때문에 빈도가 낮은 표제어의 사용 여부를 검증하여 수록하였다고 한 표제어 선정의 절차와 상충됩니다. 『연세』에서 활용한 1억 7천만 말뭉치의 일반적인 표제어 선정 빈도 경계는 어느 정도인지, 이를 흉내말 표제어 선정에 그대로 적용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 2) 중첩형 표제어의 선정과 기술

다른 사전과 달리 실제 언어 사용 양상을 반영하여 3회 이상 음절이 반복되는 중첩형 흉내말 표제어를 올린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극소수라고 표현한 이런 부류의 표제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선정하였는지 궁금합니다. 흔히 떠올릴 수 있는 ‘ 짹짹’, ‘허허허’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예를 들어 주시는 것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하’와 ‘허허’, ‘하하’와 ‘하하하’ 등을 변별적으로 기술하는 것이 어려웠을 듯인데 이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이 있었다면 소개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

7) 이하 『연세』로 표기함.

### 3) 동형어와 다의어 구분

『연세』의 동형어 구분 지침에 대한 기술에 ‘의미의 관련이 없다’라는 표현과 ‘의미가 서로 다르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에 대해 세심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다의어로 기술했다면 각각의 센스는 의미가 다르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예로 드신 ‘홀쩍’의 처리는 재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동형어로 기술된 홀쩍1, 홀쩍2, 홀쩍3은 의미의 관점에서 볼 때 ‘이동’이라는 의미를 공유하고, 김홍범(1994)의 자음과 모음 교체 가능성을 기준으로 살펴보아도 작은말인 ‘홀쩍’과의 대응 관계가 성립하기 때 문입니다.

## 2. 관련 어휘 정보

계열 관계 기술에서 ‘거센말’을 추가하는 문제와 2음절 중첩형 흉내말 용언 파생어를 수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어 기술 체계의 완성도와 실제 언어 사용 양상의 반영이라는 측면에서 발표자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 3. 의미 정보

‘~는 모양/소리/느낌을 나타낸다’로 풀이하지 않으면 흉내말의 특성이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부사형 풀이를 ‘~는 모양/소리/느낌을 나타낸다’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흉내말의 품사 범주가 부사라는 것은 예문과 표현 정보를 풍부하게 제시함으로써 드러낼 수 있습니다.

# 의성의태어의 사전 처리에 대하여

-교체형 의성의태어의 뜻풀이와 참고 어휘 제시 방식을 중심으로-

손달임(코리아텍)

## 차 례

1. 들어가며
  2. 동음이의어와 다의어의 구분에 관한 문제
  3. 동음이의어와 다의어의 뜻풀이 및 관련 어휘에 대한 문제
  4. 맺음말
- 참고문헌

## 1. 들어가며

이 글에서는 기존 사전에서 의성의태어를 어떻게 제시하고 기술하고 있는지를 몇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의성의태어의 관련어 처리의 방향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것은 내적 변화와 관련된 의미의 문제이다. 특히 자음과 모음의 교체에 의해 만들어진 의성의태어 어휘들을 사전에서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 그리고 관련 어휘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국어의 의성의태어에는 자음 및 모음 교체에 의해 만들어진 단어군이 있고, 이들 관련어들은 대체로 기본 의미는 유지한 채 어감의 차이를 나타낸다<sup>1)</sup>. 사전에서

1) 의성의태어를 비롯하여 감각어에는 자모음 교체를 통해 어감 차이를 드러내는 방식이 잘 나타나는 데, 초기 연구에서는 이를 음성 상정의 차원에서 다루었다. 자모음 교체에 의한 대립쌍들을 단어 형성의 차원에서 논의하기 시작한 것은 송철의(1994)이다. 이 연구에서는 자모음 교체를 통한 단어 쌍 중에는 어감 차이 이상의 의미차를 보이는 것들이 있고, 또한 이들이 상보적 분포를 보이는 것도 아니라는 것, 그리고 ‘파랗다:퍼렇다’, ‘파랗다:시퍼렇다’의 관계에서 볼 수 있듯이 자모음 교체에 의한 대립쌍들의 관계가 접사에 의한 파생어와의 관계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들어 자모음 교체에 의한 대립을 단어 형성의 관점, 특히 내적 파생의 관점에서 보고자 하였다. 박동근(2006)도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송정근(2005), 최형용(2005, 2007)은 자모음 교체에 의해 새로운 단어가 형성된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이를 파생의 일종이 아닌 독자적 단어 형성 기제로 설정해야 한다고 본다. 합성이나 파생은 그것이 실질적 의미를 갖는 형태소의 결합이건 실질형태소에 접사가 결합한 것이건 둘 이상의 요소가 결합한 것을 말하는데, 국어에는 무엇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것이 아닌 단어들이 존재하며 이들을 위해서는 이분법적 단어 형성 체계로는 불충분하다는 것이다. 특히 최형용(2003-)에서는 ‘형식적인 증감’이 아닌 ‘형식적 변화’를 기준으로 하면 국어의 단어 형성 체계는 달라질 수 있다고 하였다. 즉 내부 구조를 갖는 단어 부류들은 ‘형식적 변화에 의한 단어’와 ‘형식적 무변화에 의한 단어’로 양분되고, 내적 변화어는 ‘형식적 변화에 의한 단어(교체, 증가, 감소)’ 중 ‘교체’의 범주에 속하고 연변화어는 ‘형식적 무변화에 의한 단어’에 속하게 된다고 하였다. 최형용(2007)은 내적변화를 겪은 단어들 간의 상호 관계를 하스켈마트(2002)의 단어-기반 모형으로 설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언급하였고, 졸고(2012)에서는 내적 변화를 보이는 의성의태어들의 상호 관계를 도식화하였다.

도 자음과 모음의 차이에 따라 어감의 차이를 나타내는 말들을 같은 계열로 보고 뜻풀이 내용, 형식, 분할 등을 일괄되게 처리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계열의 어휘군에 속하는 단어들을 ‘관련 어휘’로 제시한다. 이와 관련된 지침 및 예를 『표준국어대사전』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2)</sup>.

(1) 14-2-2. 뜻풀이 방식

1. 기본 뜻풀이는 같은 계열(큰말 계열, 작은말 계열)로 묶일 수 있는 말 중에서 가장 어린말에서 한다.
- 1) ‘큰말 계열’과 ‘작은말 계열’로 나누는 것은 모음의 교체에 따른 어감의 차이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 3) ‘큰말 계열’과 ‘작은말 계열’은 같은 형식으로 뜻풀이하되, 각 계열 간에 의미 차가 드러날 수 있도록 뜻풀이를 한다.

**반작** ㉠ ① 작은 빛이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모양. ② ……

「참고 어휘」 반작01;반작01;반작;반작01.

**반쩍** ㉠ ① 큰 빛이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모양. ② ……

「참고 어휘」 반쩍01;반작;반작;반작01.

**쑈** ㉠ ① 안으로 깊이 들어가거나 밖으로 불룩하게 나온 모양. ② ……

**쑈** ㉠ ① 안으로 깊이 들어가거나 밖으로 불룩하게 나온 모양. ② ……

2. 같은 계열(큰말 계열, 작은말 계열)에 속하는, 기본 표제어(가장 어린말, 또는 널리 쓰이는 선�말이나 거센말) 이외의 표제어들은 기본 표제어의 뜻풀이를 반복한 다음 어감의 차이를 나타내는 표현을 써서 기본 표제어와의 어감의 차이를 살려 보여 준다. ‘○○-대다’는 ‘○○-거리다’와 동의어 처리하므로 어감의 차이를 보여 주지 않는다.

**잘가닥** ㉠ ① 작고 단단한 물건이 서로 맞부딪칠 때 나는 소리. 또는 그 모양. ② ……

「준」 잘각.

「참고 어휘」 잘가닥;잘가닥01;절거덕;잘가닥;잘까닥;잘까닥;잘가닥;잘가닥;잘가닥;잘가닥;잘가닥.

**잘까닥** ㉠ ① 작고 단단한 물건이 서로 맞부딪칠 때 나는 소리. 또는 그 모양. ‘잘가닥’보다 센 느낌을 준다. ② …… 「준」 잘각.

**잘가닥** ㉠ ① 작고 단단한 물건이 서로 맞부딪칠 때 나는 소리. 또는 그 모양. ‘잘까닥’보다 거센 느낌을 준다. ② …… 「준」 잘각.

3. 하나의 기본 표제어에 대하여 선�말, 거센말이 여러 개 있는 경우, 기본 표제어 이외의 표제어들은 기본 표제어의 뜻풀이를 반복한 다음 어감의 차이를 나타내는 표현을 써서 기본 표제어와의 어감의 차이를 보여 준다. 이때, ‘조금 센, 센, 아주 센’이나 ‘조금 거센, 거센, 아주 거센’과 같은 어감의 차이는 각 계열(선�말 계열, 거센말 계열)에 속하는 표제어들을 첫음절의 자음, 둘째 음절의 자음 순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세고 거센’ 느낌을 주는 말들은 ‘조금, 아주’와 같은 세분된 어감의 차이를 제시하지 않는다.

**잘가닥** ㉠ ① 작고 단단한 물건이 서로 맞부딪칠 때 나는 소리. 또는 그 모양. ② ……

**잘까닥** ㉠ ① 작고 단단한 물건이 서로 맞부딪칠 때 나는 소리. 또는 그 모양. ‘잘가닥’보다

2) 『표준국어대사전』 편찬 지침은 국립국어원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지침의 내용과 《표준국어대사전》의 실제 내용은 많이 다르다. 이에 본고에서는 편찬 지침의 기술 내용을 그대로 가져오되 예시 자료는 실제 사전의 기술 내용에 맞게 (형식적인 부분들) 일부 수정하였다.

다 조금 센 느낌을 준다. ② ……

**잘가다** ㉠ 작고 단단한 물건이 서로 맞부딪칠 때 나는 소리. 또는 그 모양. ‘잘가다’보다 조금 거센 느낌을 준다. ② ……

- 같은 어휘군 내 대응 단어들의 대응 뜻풀이의 변별

1) 큰말 계열과 작은말 계열의 경우

<sup>1.89</sup> 큰말 계열과 작은말 계열은 그 뜻풀이에서 의미상의 차이를 분명히 밝혀주어야 한다. 그러나 의미상의 차이를 밝히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일하게 뜻풀이한다.

<sup>1.89</sup> ‘작은말/큰말’의 차이를 나타내는 형용사의 예 : 작은/큰, 약한/강한, 맑은/탁한, 가벼운/무거운, 밝은/어두운, 예리한/둔한, 얇은/두터운, 빠른/느린, 옅은/짙은, 쏘/매우

위의 지침에서 볼 수 있듯이 모음 교체에 의한 어감 차이는 ‘작은/큰, 약한/강한, 맑은/탁한, 가벼운/무거운, 밝은/어두운, 예리한/둔한, 얇은/두터운, 빠른/느린, 옅은/짙은, 쏘/매우’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드러내거나 ‘불룩하게/불룩하게, 보드랍게/부드럽게’ 등의 대립쌍을 사용하여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자음 교체에 의한 어감의 차이는 ‘여린/센/거센’ 등의 표현을 통해 보여준다. 어감 차이를 나타내는 표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뜻풀이는 동일한 형식이나 내용을 취한다. 같은 어휘군 내 단어들은 뜻풀이에서 일관성 및 체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처리하고 있다. 이러한 처리 방식은 자모음 교체에 의한 대립을 보이는 일련의 단어군들이 의미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것, 특히 기본 의미는 다르지 않고 어감에서 차이를 보인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관련 지침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2) 14-2-2. 뜻풀이 방식

- 같은 어휘군 내 단어들의 뜻풀이 일관성

1) 뜻풀이 내용의 일관성

술술 ㉠ ① … ② 가는 비나 눈이 계속 가볍게(→잇따라 가볍게) 내리는 모양. ③ … ④ … ⑤ … ⑥ …

술술 ㉠ ① … ② 가는 비가 계속 가볍게 내리는 모양. ③ … ④ … ⑤ … ⑥ … ⑦ …  
⇒ 술술 ㉠ ① … ② 가는 비나 눈이 계속 가볍게(→잇따라 가볍게) 내리는 모양. ③ … ④ … ⑤ … ⑥ … ⑦ …

<sup>1.89</sup> ‘술술’이나 ‘술술’ 모두 용례에 가는 비뿐만 아니라 눈이 내리는 모양을 나타낼 때도 사용되는 것이 나타나므로 ‘술술’의 뜻풀이를 ‘술술’과 같이 처리한다.

2) 뜻풀이 분할의 일관성

술술 ㉠ ① … ② … ③ … ④ 얹히거나 쌓이었던 일들이 쉽게 잘 풀리는 모양. ⑤ 얹힌 실이나 끈 따위가 쉽게 잘 풀리는 모양. ⑥ … ⑦ … ⑧ … ⑨ …

술술 ㉠ ① … ② … ③ … ④ … ⑤ 얹혔던 실이나 일 따위가 쉽게 잘 풀리는 모양.  
⇒ 술술 ㉠ ① … ② … ③ … ④ 얹히거나 쌓이었던 일들이 쉽게 풀리는 모양. ⑤ 얹힌 실이나 끈 따위가 쉽게 잘 풀리는 모양. ⑥ …

①② ‘실’이 풀리는 것과 ‘일’이 풀리는 것은 모두 ‘풀리다’라는 동사를 사용하지만, 이때 ‘풀리다’는 서로 다른 의미이므로 (‘풀다’의 뜻풀이 참조) 분할하여 뜻풀이한다. ‘술술’과 ‘쭈쭈’에서도 ‘실’이 풀리는 것과 ‘일’이 풀리는 것을 각기 분할하여 뜻풀이한다.

동일 어휘군에 속하는 단어들의 뜻풀이를 참조하여 그 내용이나 분할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즉 ‘작은/큰, 약한/강한……’ 등의 형용사나 ‘가볍다/거볍다, 부드럽다/보드랍다’ 등의 표현을 일종의 의미 자질처럼 이용하여 같은 어휘군에 속하는 각 단어 간의 미세한 의미차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자음 교체형에 대해서는 기본 표제어의 뜻풀이를 그대로 반복하고 ‘~의 센말/거센말/여린말’ 등의 표현을 통해 어감 차이를 반영한다. 위의 지침 및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같은 계열의 단어들이 보여주는 미세한 의미차, 어감의 차이를 잘 나타낼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한 체계적인 뜻풀이를 지향하고 있다.

그런데 동일 어휘군에 속하는 단어들 사이에는 어감 차 이상의 의미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있다<sup>3)</sup>. 다음의 예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 (3) ㄱ. 오늘 아침 쌀쌀, 기온 뚝... 내일 아침까지 반짝 한파  
 ㄴ. 오늘 아침 \*쭈쭈, 기온 ?뚝... 내일 아침까지 \*번쩍/\*반작/\*뻥작/뻥작 한파

(4) ‘쌀쌀’, ‘뚝’, ‘반짝’의 뜻풀이와 관련어 정보

ㄱ. 『표준국어대사전』

- 쌀쌀04: ‘쌀쌀하다①(날씨나 바람 따위가 음산하고 상당히 차갑다 ②사람의 성질이나 태도가 정다운 맛이 없고 차갑다.)’의 어근.  
 「비」 냉랭하다(冷冷-); 「2」 냉담하다 「1」; 「2」 냉심하다(冷心-); 「2」 냉정하다01(冷情-).  
 「참고 어휘」 쓸쓸하다.  
 ①외롭고 적적하다. ②날씨가 으스스하고 음산하다.
- 뚝02: ④성적이나 순위 따위가 두드러지게 떨어지는 모양.  
 「참고 어휘」 뚝02.
- 반작: ④물건이나 사람, 일 따위가 빨리 없어지거나 끝나는 모양.  
 ⑥무엇이 순간적으로 분명하게 보이는 모양.  
 「참고 어휘」 반작01;번쩍01;뻥작;뻥작01.

ㄴ.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 쌀쌀하다: ①(날씨나 바람이)춥게 느껴질 정도로 차다.  
 [큰 말] 쓸쓸하다1② [유의어] 냉랭하다 (冷冷--)  
 ②(사람이나 그 품성)정답지 않고 차다.  
 [유의어] 냉정하다2, 매물차다①, 매정하다2, 몽충하다1①
- 뚝2: ④어떤 수치나 순위 따위가 두드러지게 떨어지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4).

3) 송철의(1992)에서도 의성의태어가 아니면서 자모음 교체에 의한 대립을 보이는 예를 중 ‘얇다/얇다, 얇다/열다’와 같은 예들은 어감 차이 이상의 의미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얇다/얇다’의 경우 ‘얇다’가 ‘웃음 따위가 보일 듯 말 듯 은근하다’의 의미로 쓰일 때에는 ‘\*얇은 미소’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음성상징에 의한 대립쌍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최형용(2007:396)에서도 ‘날씨가 따뜻하다/??날씨가 뜨뜻하다’를 예로 들어 ‘따뜻하다/뜨뜻하다’가 의미 차이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음을 언급하였다.

4)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에 의하면 ‘뚝2’가 ④의 의미로 쓰일 때에는 ‘뚝2’나 ‘뚝3’이 작은 말로 기능



- 반쪽: ⑤사람이나 물건, 일 따위가 빨리 없어지거나 끝나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

[큰 말] 반쪽2⑤ [센말] 반쪽1⑤

ㄷ. 『연세대』

- 쌀쌀(하다): ①(날씨가) 싸늘하게 느껴질 정도로 차다.  
②(성질이나 태도가) 정다운 데가 없고 차다.
- 똑4: ② 어떤 수준에서 갑자기 두드러지게 떨어지는 모양을 나타냄.
- 반쪽1: ② (어떤 모습이나 현상이) 순간적으로 잠깐 나타나는 모양을 나타냄.

‘쌀쌀(하다)’는 ‘온도의 낮음’과 관련되지만 ‘쓸쓸(하다)’는 절대적인 수치보다는 ‘날씨가 흐리고 으스스함’과 관련된다. 사전에서는 ‘쌀쌀하다’의 관련 어휘로 ‘쓸쓸하다’를 제시하고 있지만 (3)에서 보듯이 교체가 불가능하다. ‘수치가 떨어짐’을 의미를 포함하는 ‘똑02’는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똑02’와 관련 어휘로 제시하고 있으나, ‘똑02’의 뜻풀이에는 ‘수치의 급감’에 대한 내용이 없다. ‘소식이 똑 끊어지다’, ‘쌀이 똑 떨어지다’ 등의 예에서 보이는 ‘갑자기 그침’, ‘다 쓰고 없음’ 등의 의미만을 제시하고 있다. 위의 예 (3)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온이 똑 떨어지다’는 표현은 자연스럽지 못하다. ‘반쪽’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빛이 빛나는 모양’, ‘정신이나 생각이 맑아지거나 갑자기 떠오르는 모양’을 의미할 때에는 ‘반쪽’으로 대치 가능하지만 ‘어떠한 일이나 현상 따위가 빨리 없어지거나 끝나는 모양’을 의미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이러한 예들은 동음이의어나 다의어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동일한 형태를 가진 어휘 항목이 동음이의어인지 다의어인지를 판정할 때 의미적 연관성이나 서술어와의 어울림, 파생의 양상 등을 고려하게 된다. 그런데 의성의태어의 경우 자모음 교체나 반복에 의해 새로운 어휘를 만들어낸다는 특성이 있고, 따라서 동음이의어와 다의어를 판정할 때 교체나 반복의 양상이 동일한지가 또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형태가 동일하고 여러 가지 뜻으로 기능하는 의성의태어를 기존 사전에서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뜻풀이 방식, 의미 배열 방법, 관련 어휘 제시 방법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의성의태어를 처리하는 기준이 ‘의미와 형태’라는 기준에서 적절한지 검토하고 앞으로의 사전 기술에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도록 할 것이다.

## 2. 동음이의어와 다의어의 구분에 관한 문제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의성의태어에서 동일한 형태의 의미 관계가 이의 관계인지 다의 관계인지를 판별할 때 자모음 교체, 반복, ‘-거리다/대다/하다’에 의한 파생의 양상이 기준이 될 수 있다<sup>5)</sup>. 예를 들어 ‘쌀쌀’의 경우를 다시 보면 『표준국어대사전』과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에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 있다<sup>6)</sup>.

---

하지 않는다.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에서는 다의어의 참고 어휘를 각각의 뜻풀이에서 개별적으로 제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즉 ‘똑2’가 ‘계속되던 것이 그치는 모양’을 뜻할 때에는 ‘딱, 똑’으로 교체 가능하고, ‘다 써서 하나도 없는 모양’을 뜻할 때에는 ‘똑’으로 교체 가능한 것으로 기술되고 있다. 그리고 ‘수치가 떨어지는 모양’, ‘거리가 떨어져 있는 모양’을 뜻할 때에는 교체 가능한 대립쌍이 없는 것으로 기술되고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다의어의 참고 어휘를 뜻풀이 뒤에 일괄적으로 한 번 제시하는 것과는 차이를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하도록 하겠다.

5) 의성의태어에서 교체나 반복의 양상이 동음이의어와 다의어를 판별하는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논의는 김홍범(1994, 1998) 등에서 자세히 논의된 바 있다.

(5) 『표준국어대사전』

ㄱ. 찰찰01

- ① 넓은 그릇의 물 따위가 천천히 고루 끓는 모양. ‘찰찰01 「1」 ’보다 센 느낌을 준다.  
 ② 온돌방이 뭉근하게 고루 더운 모양. ‘찰찰01 「2」 ’보다 센 느낌을 준다.  
 ③ 작은 벌레 따위가 가볍게 기어가는 모양. ‘찰찰01 「3」 ’보다 센 느낌을 준다.  
 ④ 머리를 천천히 살살살레 흔드는 모양. ‘찰찰01 「5」 ’보다 센 느낌을 준다.

ㄴ. 찰찰03

배가 조금씩 쓰리며 아픈 모양. ‘찰찰03’보다 센 느낌을 준다.

ㄷ. 찰찰04

‘찰찰하다(① 날씨가 바람 따위가 음산하고 상당히 차갑다 ②사람의 성질이나 태도가 정다운 맛이 없고 차갑다.)’의 어근.

ㄹ. 찰찰02

‘찰찰거리다(① 잇따라 가볍게 이리저리 기어 다니다. ② 머리를 계속해서 가볍게 흔들다)’의 어근

찰찰01	찰찰01, 설설01, 찰찰01
찰찰03	찰찰03
찰찰04	쓸쓸
찰찰02	찰찰04, 설설02, 찰찰02

(6)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ㄱ. 찰찰1

- ① 머리를 빠르고 작게 좌우로 자주 흔드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  
 [큰 말]찰찰1① [여린 말]찰찰2①  
 ② 작은 벌레 따위가 이리저리 마구 기어다니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  
 [큰 말]찰찰1② [여린 말]찰찰2②

ㄴ. 찰찰2

- ①그릇에 담긴 액체 따위가 세게 고루 끓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  
 [큰 말]찰찰2① [여린 말]찰찰4①  
 ②온돌방이 뭉근하게 고루 매우 따뜻한 모양을 나타내는 말.  
 [큰 말]찰찰2② [여린 말]찰찰4②

ㄷ. 찰찰3

배가 조금씩 정도가 좀 심하게 쓰리고 아픈 모양을 나타내는 말.

6) 『연세대 한국어사전』에서는 ‘찰찰맏다’ 와 ‘찰찰하다’ 만 표제어로 제시하고 있다.

[큰 말]쓸쓸 [어린 말]살살3

ㄹ. 쌀쌀하다1

①(날씨나 바람이)춥게 느껴질 정도로 차다.

[큰 말] 쓸쓸하다1② [유의어] 냉랭하다 (冷冷--)②

②(사람이나 그 품성이)정답지 않고 차다.

[유의어] 냉정하다2, 매몰차다①, 매정하다2, 몰정하다, 몽충하다1①

ㅁ. 쌀쌀하다2

(뱃속이) 좀 쓰리고 아프다.

쌀쌀1	살살2, 썰썰1
쌀쌀2	썰썰2, 살살4
쌀쌀3	쓸쓸, 살살3
쌀쌀하다1	쓸쓸하다1
쌀쌀하다2	

(5ㄱ)과 (5ㄴ), (6ㄱ), (6ㄴ)과 (6ㄷ)의 뜻풀이와 참고 어휘를 비교해 보면 ‘배가 아픈 모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쌀쌀(5ㄴ), (6ㄷ)’은 ‘썰썰’로 대체할 수 없다. ‘살살’ (또는 ‘쓸쓸’)로만 대체할 수 있다. 즉 대체 가능한 교체형의 종류가 다르므로 두 사전에서 모두 동음이의어로 처리하고 있는 것이다. 관련된 지침을 보이면 아래와 같다.

(7) 동음이의어와 다의어의 판단 기준

1. 동음이의어인 경우

가) 어원적으로나 어사 발달 면에서 관련이 있을 수 있으나 공식적으로 특별한 의미적 관계가 없을 경우

쌀쌀<sup>1</sup> ㉠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모양. 쌀쌀<sup>2</sup> ㉡ 차가운 감촉.

나) 형태적 과정 양상이 다를 경우

쌀쌀1은 ‘살살, 썰썰, 쓸쓸, 쌀쌀, 썰썰’의 음운 교체와 ‘-거리다/대다’의 접사 과정 가능.

그러나 쌀쌀2는 ‘쌀쌀, 썰썰’의 음운 교체를 보이며 어기의 단독 사용 불가.

2. 다의어인 경우

가) 의미 전이에 의해 분화된 경우(표현하는 감각이 다르더라도 다의어 처리)

바글 ㉠ ① 사람이나 동물이 많이 모여 웅성대는 모양. ② 물이 끓는 소리.

<sup>158</sup> 북적거리고 들끓는다는, 의미의 공통된 부분이 있음.

나) 형태적 과정 양상이 동일한 경우

다) 음운 교체에 의한 소어휘군의 일부만이 다른 감각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경우

<sup>159</sup> 물체의 꼬인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배배’나 ‘비비’는 사람의 성격을 표현하는 데에도 사용. 그러나 ‘배배, 비비’는 시각 음성 상징어로만 사용<sup>7)</sup>.

이처럼 교체의 양상이 분명히 다른 경우는 동음이의어로 처리하는 데 문제가 없다<sup>8)</sup>. 하지만 교체의 양상이 동일하지만 사전에 따라 동음이의어와 다의어로 처리하는 관점에 차이를 보이는 경우도 있다. (5ㄱ)과 (6ㄱ),(6ㄴ)을 보자. 이들 어휘의 교체 양상은 동일하다. 그런데 (5)에서는 이들의 의미를 다의 관계로 파악하고 있고 (6)에서는 이의 관계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5)의 처리 방식은 (5ㄱ)의 ①②와 ③④의 관계가 의미적 유연성을 갖는다고 본 것인데 ‘의미적 유연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다. ①과②의 관계, ③과 ④의 관계도 각각 의미 전이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게다가 (5ㄴ)에서는 ③④의 의미로 쓰이는 ‘쌀쌀’이 ‘쌀쌀거리다’로 파생된 경우를 보여주는데, ①②의 의미일 때에는 이러한 파생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7)에서 제시한 ‘형태적 파생 양상이 동일한 경우’의 기준에도 맞지 않아 보인다. 또 다른 예를 보자.

(8) 『표준국어대사전』

ㄱ. 바작바작

- ①물기가 적은 물건을 잇따라 썰거나 뿜는 소리. 또는 그 모양.
  - ②물기가 적은 물건이 타들어 가는 소리. 또는 그 모양.
  - ③진땀이 나는 모양.
  - ④마음이 매우 안타깝게 죄어드는 모양.
  - ⑤열이 심하거나 몹시 초조하여 입 안이나 입술이 자꾸 마르는 모양.
- 「참고 어휘」 버적버적; ~~빠작빠작~~.

ㄴ. 바작바작

- ①물기가 자꾸 매우 마르거나 좋아불거나 타 버리는 모양.
- ②자꾸 매우 가까이 달라붙거나 세게 죄는 모양.
- ③매우 거침새 없이 자꾸 늘거나 주는 모양.
- ④자꾸 매우 긴장하거나 험주는 모양.
- ⑤몸이 자꾸 매우 마르는 모양.

7) ‘배배/비비/빠빠/빠빠’의 실제 기술 내용은 지침의 설명과 차이를 보인다.

8) 이때 교체의 양상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대립 짝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A의 의미일 때에는 대립 짝이 있으나 B의 의미일 때에는 대립 짝이 없는 경우, 다시 말해 대치 가능 여부가 다른 경우에, 무조건 동음이의어로 처리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5ㄴ)나 (6ㄴ)의 ‘쌀쌀하다’는 ‘날씨가 온도, 기온’의 의미일 때에는 ‘쭈쭈하다’로 대치 가능하지만 ‘정절이나 태도’의 의미일 때에는 그렇지 않다. 하지만 이들의 의미 관계를 기본 의미에서 확장된 것으로 파악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다고 본다. ‘차갑다’의 다의어 처리와도 맥을 같이 한다고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의 규정을 참고할 수 있다.

13. 동음이의어와 다의어 판정 : 같은 어휘군에 속한 단어들간의 비교대조 후 판정한다.

쭈쭈<sup>1</sup> ㉠ 바람이 보드랍고 가볍게 부는 모양. ‘술술’ 보다 센 느낌을 준다.

쭈쭈<sup>2</sup> ㉡ 모르는 사이에 쑥쑥 들어가거나 빠져나오는 모양.

⇒ 쭈쭈 ㉠ 바람이 보드랍고 가볍게 부는 모양. ‘술술<sup>1</sup>’ 보다 센 느낌을 준다. .... ③

[북] 날이 모르게 아주 살그머니 들어가거나 빠져나오는 모양.

<sup>8)</sup> ‘쭈쭈’은 바람이 부는 모양과 관련되고 ‘쭈쭈’는 사람의 행동과 관련되므로 동음이의어로 볼 수 있지만, ‘술술, 술술’의 뜻풀이와 비교해 보았을 때, 동음이의어보다는 다의어로 판정하는 것이 타당할 듯.

⑥무슨 일을 자꾸 매우 거침새 없이 빨리 마무리는 모양.

⑦매우 세차게 자꾸 우기는 모양.

「참고 어휘」 버적버적;빠작빠작.

(9)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ㄱ. 바작바작

①마음이 안타까워 죄어드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

[큰 말] 버적버적③ [센 말] 빠작빠작①

②마른 물건이 타들어 가는 소리를 나타내는 말. 또는 그 모양을 나타내는 말

[큰 말] 버적버적① [센 말] 빠작빠작③

③마른 물건을 계속 씹거나 뺏는 소리를 나타내는 말.

[큰 말] 버적버적② [센 말] 빠작빠작② ……

ㄴ. 바작바작

① 물기가 자꾸 마르거나 좋아들거나 타 버리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

[큰 말] 버적버적 ② [센 말] 빠작빠작 ③ [여린 말] 바작바작 ③

② 가까이 달라붙게 자꾸 밀착하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

[큰 말] 버적버적 ④ [센 말] 빠작빠작 ② ……

‘바작바작’은 ‘물기가 없어 마르거나 타들어가는 것’ 정도의 기본 의미를 가진다. ‘물건’에 대한 것부터 ‘신체나 심리’에 관한 것까지 의미의 확장을 보인다. 두 사전에서는 모두 관련 어휘로 ‘버적버적’과 ‘빠작빠작’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바작바작’이 (ㄱ-②)의 의미를 나타낼 때에는 ‘바작바작(①)’과 의미적으로 관련이 있어 보인다. 즉 (ㄱ-②)의 의미에 한해서 ‘바작바작-빠작빠작’의 관계를 자음 교체에 의한 대립쌍으로 볼 수도 있다(10ㄱ). 그러나 ‘바작바작’이 ⑤⑥⑦의 의미를 나타낼 때에는 ‘바작바작’과 대립쌍을 이루지 못하고 ‘빠작빠작’과 대립쌍을 이룬다(10ㄴ, ㄷ, ㄹ). 그러므로 ‘바작바작’은 ‘버적버적-빠작빠작’과의 관계 뿐만 아니라 ‘빠작빠작’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바작바작’ 계열 어휘군의 의미 기술이나 관련 어휘 제시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10) ㄱ. 입이 바작바작/바작바작 타들어간다.

ㄴ. 몸이 바작바작/\*바작바작/빠작빠작 마른다.

ㄷ. 일을 바작바작/\*바작바작/빠작빠작 서둘러서 끝냈다.

ㄹ. 자기가 옳다고 바작바작/바작바작/빠작빠작 우긴다.

그런가 하면 ‘바작바작’이 ①의 의미를 나타낼 때에는 ‘바작바작’과 대립쌍을 이루지 못하고 ‘빠작빠작’과 대립쌍을 이룬다(11ㄱ). ‘바작바작①’은 ‘바삭바삭③’과 의미적 관련성을 보이며 문맥에 따라 대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11ㄷ). 따라서 ‘바삭바삭-바작바작’의 관계도 자음 교체에 의한 대립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11) ㄱ. 강정이 잘되어 씹을 때마다 빠작빠작/바작바작 소리가 난다.

ㄴ. 녀석은 과자를 한 움큼 입 안에 넣더니 빠작빠작/바작바작 금세 먹어 치웠다.

ㄷ. 과자 부스러기를 바작바작/바삭바삭 소리를 내며 먹었다.

(12) ㄱ. 바삭바삭 『표준국어대사전』

- ① 가랑잎이나 마른 검불 따위의 잘 마른 물건을 잇따라 가볍게 밟는 소리. 또는 그 모양.
- ② 보송보송한 물건이 잇따라 가볍게 바스르지거나 깨지는 소리. 또는 그 모양.
- ③ 단단하고 부스러지기 쉬운 물건을 잇따라 깨무는 소리. 또는 그 모양.

「본」 「1」 「2」 「3」 바사삭바사삭 「1」 「2」 「3」.

「참고 어휘」 바삭바삭②; 버석버석; 빠삭빠삭; 파삭파삭.

ㄴ. 바삭바삭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 ① 마른잎이나 가랑잎 따위를 잇따라 가볍게 밟을 때 나는 소리를 나타내는 말.  
[큰 말] 버석버석① [거센 말] 파삭파삭① [참고어] 바사삭바사삭①  
[센 말] 바삭바삭2①, 빠삭빠삭2
- ② 단단하고 부스러지기 쉬운 물건을 잇따라 가볍게 깨물 때 나는 소리를 나타내는 말.  
[거센 말] 파삭파삭② [참고어] 바사삭바사삭③  
[센 말] 바삭바삭2②, 빠삭빠삭1
- ③ 말라서 물기가 없는 물건이 잇따라 가볍게 바스르지거나 깨지는 소리를 나타내는 말.  
[큰 말] 버석버석②, 부석부석2 [거센 말] 파삭파삭③  
[참고어] 바사삭바사삭②, 보삭보삭1 [센 말] 바삭바삭2③, 빠삭빠삭③

‘바삭바삭’ 계열의 어휘군이 보이는 관련성을 의미 관계, 교체 의 양상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기존 사전에서 다의 관계로 제시한 각각의 의미별로 교체 양상이 다르다면 동음이의어로 처리할 수는 없는지, 다의어로 본다고 하더라도 각각의 의미를 배열하는 방식이나 관련 어휘를 제시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 3. 동음이의어와 다의어의 뜻풀이 및 관련 어휘에 대한 문제

#### 3.1. 뜻풀이 방식 및 의미 배열의 문제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뜻풀이 내용과 형식, 뜻풀이 분할 방식의 일관성 및 체계성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다의어의 경우 뜻풀이의 분할에서도 같은 어휘군 내 단어들의 관계를 고려하고 있다. 아래의 예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13) ‘술술’ 계열 어휘의 사전 기술: 『표준국어대사전』

- ㄱ. 술술: ① 물이나 가루 따위가 틈이나 구멍으로 조금씩 가볍게 새어 나오는 모양. ②바람이 보드랍게 부는 모양. ③가는 비나 눈이 잇따라 가볍게 내리는 모양. ④말이나 글이 막힘없이 잘 나오거나 써지는 모양. ⑤엷힌 실이나 끈 따위가 쉽게 잘 풀려 나오는 모양. ⑥엷히거나 쌓이었던 일들이 쉽게 잘 풀리는 모양. ⑦냄새나 가는 연기 따위가 가볍게 풍기거나 피어오르는 모양. ⑧재미가 은근히 나는 모양. ㉠ 신혼 재미가 술술 나다. 「참고 어휘」 술술; 술술01.
- ㄴ. 술술: ① 물이나 가루 따위가 틈이나 구멍으로 조금씩 가볍게 새어 나오는 모양. ②바람 이 부드럽게 부는 모양. ③가는 비나 눈이 잇따라 가볍게 내리는 모양. ④말이나 글이 막힘없이 잘 나오거나 써지는 모양. ⑤엷힌 실이나 끈 따위가 쉽게 잘 풀려 나오는 모양. ⑥엷히거나

쌓이었던 일들이 쉽게 잘 풀리는 모양. 「참고 어휘」 술술; 쓸쓸01.

- 디. 쓸쓸01: ① 물이나 가루 따위가 틈이나 구멍으로 조금씩 가볍게 새어 나오는 모양. ‘술술①’보다 센 느낌을 준다. ②바람이 보드랍게 부는 모양. ‘술술②’보다 센 느낌을 준다. ③가는 비나 눈이 잇따라 가볍게 내리는 모양. ‘술술③’보다 센 느낌을 준다. ④말이나 글이 막힘없이 잘 나오거나 써지는 모양. ‘술술④’보다 센 느낌을 준다. ⑤엷힌 실이나 끈 따위가 쉽게 잘 풀려 나오는 모양. ‘술술⑤’보다 센 느낌을 준다. ⑥엷히거나 쌓였던 일들이 쉽게 잘 풀리는 모양. ‘술술⑥’보다 센 느낌을 준다. ⑦뽕새나 가는 연기 따위가 가볍게 풍기거나 피어 오르는 모양. ‘술술⑦’보다 센 느낌을 준다. ⑧재미가 은근히 나는 모양. ‘술술⑧’보다 센 느낌을 준다.

쓸쓸02: ‘쓸쓸하다(품질이나 수준, 정도 따위가 웬만하여 괜찮거나 기대 이상이다.)’의 어근<sup>9)</sup>. 「참고 어휘」 쓸쓸하다.

- 리. 쓸쓸: ① 물이나 가루 따위가 틈이나 구멍으로 조금씩 거볍게 새어 나오는 모양. ‘술술①’보다 센 느낌을 준다. ②바람이 부드럽게 부는 모양. ‘술술②’보다 센 느낌을 준다. ③가는 비나 눈이 잇따라 거볍게 내리는 모양. ‘술술③’보다 센 느낌을 준다. ④ 말이나 글이 막힘없이 잘 나오거나 써지는 모양. ‘술술④’보다 센 느낌을 준다. ⑤ 엷힌 실이나 끈 따위가 쉽게 잘 풀려 나오는 모양. ‘술술⑤’보다 센 느낌을 준다. ⑥엷히거나 쌓였던 일들이 쉽게 잘 풀리는 모양. ‘술술⑥’보다 센 느낌을 준다.

뿐만 아니라 의성의태어가 다의어일 때 뜻풀이를 배열하는 방식에서도 같은 어휘군 내 단어들의 관계를 고려하고 있다. 다의어의 의미 배열에 관련된 지침 내용은 아래와 같다.

#### (13) 같은 어휘군 내 단어들의 뜻풀이 배열

- 1) 1음절 반복형의 부사만 있는 경우(여린말·센말만 존재)
  - 가) 어휘군 공통 뜻풀이 혹은 가장 많이 공통되는 뜻풀이
  - 나) 다른 계열의 대응어와 공통되는 뜻풀이
  - 다) 작은말 계열과 공통되는 뜻풀이
  - 라) 남한어 특수 뜻풀이
  - 마) 북한어 뜻풀이

예) ‘술술, 술술, 쓸쓸’ 공통 뜻풀이 → ‘술술, 술술, 쓸쓸’의 공통 뜻풀이 → ‘술술, 술술’의 공통 뜻풀이 → 특수 뜻풀이 → 북한어 뜻풀이

(12)의 예에서 보듯이 ‘술술’ 계열 어휘군의 공통 뜻풀이(①~⑤)를 먼저 제시하고, ‘술술’과 ‘쓸쓸’에서만 확인되는 의미를 마지막에 제시한다. 그런데 이러한 뜻풀이 방식에 의하면

9) ‘쓸쓸 02’는 ‘수입이 쓸쓸하다/음식 솜씨가 쓸쓸하다/그는 구내매점으로 쓸쓸한 재미를 보았다.’ 등의 용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쓸쓸01’의 ⑧과 관련 깊어 보이지만 ‘-하다’ 결합형으로만 쓰인다는 점에서 ‘쓸쓸01’과 동음이의어로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표준국어대사전』).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에서는 ‘쓸쓸하다’의 뜻을 ‘①(재미나 이익이)만만하지 않을 정도로 많다 ②(무엇이나 그 수준이)어지간하여 쓸 만하다’로 풀이하고 ‘쓸쓸’을 상위어로 제시하고 있다. ‘쓸쓸’의 여러 가지 의미 중에서 ‘재미나 즐거움 따위가 은근히 꽤 나는 모양’을 사용 빈도가 가장 높은 뜻으로 보여주고 있다.

‘술술’과 ‘쫄쫄’, ‘술술’과 ‘쫄쫄’은 ‘여림/썸’의 어감 차이만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즉 자음 교체에 의한 대립쌍들이 대치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⑦이나 ⑧의 의미일 때에는 ‘쫄쫄’로는 대치 가능하지만 ‘술술’로 대치하기는 어렵고(14ㄱ), (14ㄴ)에서처럼 ‘소문이나 기대감이 슬며시 일어나는 모양’을 뜻할 때 ‘술술’이나 ‘쫄쫄’로 대치하기 어려워 보인다.

- (14) ㄱ. 내가 낸 아이디어로 형님 사업이 재미를 술술/\*술술/쫄쫄 보게 되었다.  
 ㄴ. 연에게에서는 두 사람의 열애설이 술술/\*술술/\*쫄쫄 흘러나왔다.

즉 같은 계열의 어휘라고 하더라도 어감의 차이, 혹은 그 이상의 미세한 의미 차이 때문에 사용 영역에서 차이를 보이거나 자모음 교체형으로의 대치 가능성에서 차이를 보인다. 그러므로 의성의태어가 다의어일 때 자모음 교체가 갖는 의미 기능에 대해서는 뜻풀이 형식이나 내용뿐만 아니라 관련 어휘(특히 참고 어휘)에 대한 정보를 통해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다음 절에서는 의성의태어의 참고 어휘 제시 방식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 3.2. 참고 어휘의 범주 및 참고 어휘 제시 방법에 관한 문제

#### 3.2.1. 자모음 교체에 의한 ‘참고 어휘’의 범주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관련 어휘를 ① 동의어 ② 본말, 준말, 비슷한말, 반대말, 높임말, 낮춤말 ③참고 어휘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참고 어휘는 어떤 표제어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말로, ‘썸말, 거썸말, 큰말, 작은말’ 등 느낌이 다른 의성의태어와 자음교체형(썸말이나 거썸말은 아니지만 자음의 차이에 따라 그 의미가 미세하게 달라지는 경우), 모음교체형(큰말이나 작은말은 아니지만 모음의 차이에 따라 그 의미가 미세하게 달라지는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때 자모음 교체에 의해 ‘여림/썸/거썸’, ‘큼/작음’의 어감 차이 또는 미세한 의미 차이를 나타내는 ‘참고 어휘’의 범주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의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관련된 지침은 다음과 같다.

#### (15) 참고 어휘의 유형

9. 참고 어휘에는 아래 유형이 포함된다.

##### 5) 느낌이 다른 의성의태어 :

잘가닥 「부」 뜻풀이. 「참」 잘까닥·잘카닥·잘까닥·잘까닥·잘까닥·잘까닥·잘까닥·잘까닥·잘가닥·잘까닥·잘까닥; 절거덕.

절거덕 「부」 뜻풀이. 「참」 절꺼덕·절커덕·절거덕·절꺼덕·절꺼덕·절꺼덕·절거덕·절꺼덕·절거덕; 잘가닥.

##### 6) 모음이나 자음의 차이에 따라 그 의미가 미세하게 달라지는 경우

고-것 「참」 요것·조것; 그것.

그-만 「부」 뜻풀이. 「참」 이만; 고만.

그-만하다 「행」 뜻풀이. 「참」 이만하다·저만하다; 고만하다.

우들-우들 「부」 뜻풀이. 「참」 오들오들; 부들부들.

#### (16) 의성·의태어의 참고 어휘

1. 의성 의태어나 자모음 교체를 보이는 표제어의 참고 어휘에는 ‘썸말, 거썸말, 큰말, 작은말’, 자음교체형(썸말이나 거썸말은 아니지만 자음의 차이에 따라 그 의미가 미세하게 달라지는 경우), 모음교체형



(큰말이나 작은말은 아니지만 모음의 차이에 따라 그 의미가 미세하게 달라지는 경우)을 제시한다.

1) ‘센말, 거센말; 큰말/작은말; 모음교체형’이 제시된 경우

강장 ㉸ 강짱·강창; 경정; 강줄.

2) ‘큰말; 자음교체형’이 제시된 경우

아뽕싸 ㉸ 뽕풀이, ㉸ 어뽕싸;하뽕싸.

3) ‘큰말; 모음교체형’이 제시된 경우

호드득 ㉸ 후드득; 화드득.

4) 모음교체형만 제시된 경우

응아-웅아 ㉸ 응애응애.

‘여린 말’과 ‘센 말/거센 말’은 자음의 교체에 따른 어감의 차이를 기준으로 한 것이고, ‘큰말 계열’과 ‘작은말 계열’로 나누는 것은 모음의 교체에 따른 어감의 차이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이때 교체되는 자음과 모음의 예를 부분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7) 교체되는 자음과 모음

교체되는 모음		실례
작은말 계열	큰말 계열	
아	어	아으:어으, 가들가들:거들거들, 상글상글:성글성글
아	우	바들바들:부들부들
아	으	아으:으으, 가득가득:그득그득, 날름:늘름
아	이	자긔:지긔, 작신작신:직신직신
아아	어어	아아:어어, 까딱:깨딱
아아	우어	말랑말랑:물렁물렁, 말캉말캉:물컹물컹
아아	으어	간닥간닥:근덕근덕, 갈쌍갈쌍:글쌍글쌍
아아	이어	질갈질갈:질경질경
아애	으에	간땡간땡:근땡근땡
아오	어우	간둥간둥:건둥건둥
아오	이우	질쑹질쑹:질쑤질쑤

자음	여린소리	원소리	거센소리
ㄱ	ㄱ	ㄲ	ㅋ
ㄷ	ㄷ	ㄸ	ㅌ
ㅂ	ㅂ	ㅃ	ㅍ
ㅅ	ㅅ	ㅆ	
ㅈ	ㅈ	ㅉ	ㅊ

위의 표에서 보듯이 모음 교체는 대체로 양성모음과 음성 모음의 대립, 저모음과 고모음의 대립을 통해 ‘크고 작음’의 어감 차이를 보여준다. 그리고 자음 교체는 장애음 계열에서 ‘평음-경음-격음’의 대립을 통해 ‘여리고 세고 거센’의 어감 차이를 보여준다. 그런데 이러한 대립 관계 외에도 자음과 모음의 대립을 통해 어감 차이를 보이는 예들이 있다. (16)의 지침에서 말하는 ‘자음교체형(센말이나 거센말은 아니지만 자음의 차이에 따라 그 의미가 미세하게 달라지는 경우), 모음교체형(큰말이나 작은말은 아니지만 모음의 차이에 따라 그 의미가 미세하게 달라지는 경우)’이 그것이다. 의성의태어는 아니지만 ‘아빨쌔:하빨쌔’에서는 ‘ㅇ:ㅎ’의 자음 교체를 보여주고, ‘호드득:화드득’에서는 ‘ㅇ:ㅏ’의 모음 교체를 보여준다. 의성의태어에서도 이처럼 뜻풀이가 매우 유사하고 자음이나 모음 하나만 차이가 나는 교체형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이들의 관계는 참고 어휘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대표적인 예를 몇 가지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7) ㄱ. 쌓아 놓은 책들이 살긔/셀긔거린다.

ㄴ. 막걸리 한 잔에 짬 김치 한 조각을 아삭아삭/와삭와삭 씹어 먹은 뒤……

(17ㄱ)에서 ‘살긔’와 ‘셀긔’은 모두 ‘실긔’의 작은 말로 의미적 관련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에서는 ‘살긔’와 ‘셀긔’을 모두 ‘실긔’의 작은 말로 처리하고 뜻풀이도 동일하게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살긔’와 ‘셀긔’이 ‘실긔’보다 ‘약간’ 혹은 ‘조금’의 정도 차이를 가짐을 보여주고 있다. ‘실긔’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살긔’와 ‘셀긔’이 작은 말임을 참고 어휘로 보여주고 있으나, ‘살긔’와 ‘셀긔’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보를 주지 않고 있다. ‘살긔’와 ‘실긔’의 어감 차이나 ‘살긔’와 ‘셀긔’의 어감 차이가 다르지 않으므로 사전에서는 ‘셀긔’에 대해서도 관련어 정보 제공해야 한다.

	『표준국어대사전』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살긔	물체가 한쪽으로 <u>약간</u> 비틀어지거나 기울어지는 모양.	「참고 어휘」 살긔:셀긔.	물체가 한쪽으로 <u>약간</u> 비틀어지거나 기울어지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	[큰 말] 실긔 [참고어] 셀긔 [센 말] 썰긔
실긔	물체가 한쪽으로 비틀어지거나 기울어지는 모양.	살긔:셀긔:썰긔.	물체가 한쪽으로 비틀어지거나 기울어지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	[작은 말] 살긔, 셀긔 [센 말] 썰긔
셀긔	물체가 한쪽으로 <u>조금</u> 비틀어지거나 기울어지는 모양	살긔:썰긔.	물체가 한쪽으로 <u>약간</u> 비틀어지거나 기울어지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	[큰 말] 실긔 [참고어] 살긔 [센 말] 썰긔

(17ㄴ)의 ‘아삭아삭’과 ‘와삭와삭’에 대해서는 두 사전의 뜻풀이 방식이나 참고 어휘 제시 방식이 크게 다르지 않다. 모음 교체에 의한 어감 차이를 ‘아삭아삭-아석아석’, ‘와삭와삭-위석위석’과 같이 ‘양성모음-음성모음’의 대립으로만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17ㄴ)의 예나 아래의 표에서 보듯이 ‘아삭아삭’과 ‘와삭와삭’은 의미나 교체 가능성을 기준으로 했을 때 관련어가 아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이 둘의 관계도 참고 어휘 정보로 제시하고

‘아삭아삭’ 계열어의 범주를 재정비해야 할 것이다.

	『표준국어대사전』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아삭 아삭	① 연하고 싱싱한 과일 이나 채소 따위를 보드 랍게 베어 물 때 자꾸 나는 소리. ② 단단하고 깨지기 쉬 운 물건이 가볍게 부서 질 때 자꾸 나는 소리. ③ 마른풀이나 가랑잎 따위를 가볍게 스칠 때 자꾸 나는 소리.	「본말」 아사삭아사삭. 「참고 어휘」 아쌉아쌉; 어석어석.	① 연하고 싱싱한 과일이나 채소 따위를 자꾸 가볍게 베 어 물 때 나는 소리를 나타 내는 말. ② 단단하고 깨지기 쉬운 물 건이 가볍게 자꾸 부서질 때 나는 소리를 나타내는 말.	[큰 말] 어석어석 [참고어] 아사삭아사삭 [센 말] 아쌉아쌉
와삭 와삭	① 마른 가랑잎이나 얇 고 뽀뽀한 물건이 자꾸 서로 스치거나 바스르 지는 소리. ② 과일이나 과자 따위 를 자꾸 베어 무는 소 리.	「본말」 와사삭와사삭. 「참고 어휘」 와쌉와쌉; 위석위석.	① 마른잎이나 얇고 뽀뽀한 물건이 서로 자꾸 가볍게 스 치거나 부스러지는 소리를 나타내는 말. ② 연하고 싱싱한 과일이나 채소 따위를 자꾸 베어 무는 소리를 나타내는 말.	[큰 말] 위석위석 [참고어] 와사삭와사삭 [센 말] 와쌉와쌉

(18) ㄱ. 속닥속닥-속삭속삭

영희가 순이에게 귓속말로 무엇을 묻자, 순이는 영희에게 속닥속닥/속삭속삭 대답했다.

ㄴ. 와삭와삭-와작와작

무를 와삭와삭/와작와작 씹어 먹었다.

ㄷ. 펄떡펄떡-펼쩍펼쩍

송이가 펄떡펄떡/펼쩍펼쩍 뛰어올랐다.

(18)의 예들은 초성 위치에서의 ‘평음-경음-격음’의 대립 관계와는 무관하다<sup>10)11)</sup>. 이때의 자음 교체는 ‘ㄷ-ㅌ’, ‘ㄷ-ㅈ’, ‘ㅌ-ㅈ’ 등의 대립 관계를 보인다. ‘평음-경음-격음’의 대립이

10) 김홍범(1995)에서는 (18)의 예에 대해 음절의 초성 자음이 교체된 경우이지만 동일한 서열(ordre)이 아닌 자음 교체라 하여 평음-경음-격음의 대립을 이루는 자음 교체와 구분하고 있다. 김홍범(1995)에서는 자음 교체가 ‘평음-경음-격음’의 대립을 보이는 것이든 그 외의 대립(동일한 서열이 아닌 자음 교체)을 보이는 것이든 모두 음소 대립으로 이해하였다. 줄고(2012)에서도 ‘평음-경음-격음’의 대립이 아닌 다른 부류의 자음 대립을 보이는 단어쌍들을 관련어로 다룰 수 있음을 논의한 바 있다. 박동근(2013:174-175)에서는 ‘문덕문덕:문적문적, 민둥민둥:민송민송, 속닥속닥:속삭속삭, 펄떡펄떡:펼쩍펼쩍, 근심근심:근질근질’ 등은 음직임의 대상이나 모양이 유사하여 사전의 뜻풀이에 큰 차이가 없고 어원적으로 같은 말에서 파생된 것이므로 ‘예사소리:원소리:거센소리’의 자음 교체를 보이는 말들이 갖는 어감상의 차이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따라서 관련어로 묶을 수 있다고 하였다.

11) (18)의 교체형들은 다시 ‘평음-경음-격음’의 자음 교체 및 ‘ㄷ-ㅌ’, ‘ㄷ-ㅈ’ 등의 모음 교체를 보여 준다. 그런데 다음의 예에서 보듯이 (18)의 교체형들은 ‘평음-경음-격음’의 자음 교체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모음 교체의 양상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다음의 예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 1) ㄱ. 속닥속닥-속닥속닥, 속삭속삭-속삭속삭  
ㄴ. 와삭와삭-와쌉와쌉, 와작와작-와쌉와쌉
- 2) ㄱ. 속닥속닥-속덕속덕, 속삭속삭-속석속석  
ㄴ. 와삭와삭-위석위석, 와작와작-우적우적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이 동일한 계열 내의 자음 간에서 발생 유형을 달리 하는 것이라면, (18)의 자음 교체는 조음 위치가 같은 자음 간에서 조음 방법을 달리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8ㄱ)의 ‘속닥속닥’에서 1음절 초성 자음을 경음으로 교체한 ‘쑹닥쑹닥’은 ‘긴장성’ 자질에 ‘센 어감’이 엮힌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속닥속닥’과 ‘속삭속삭’의 관계는 이와 다르다. (18)의 예들은 ‘설정성’ 자음 간 ‘마찰음:파찰음:파열음’의 대립도 의미나 파생 관계를 고려할 때 참고 어휘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즉 이들 단어들은 자음 교체에 의한 대립 관계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18ㄱ)의 ‘속삭속삭-속닥속닥’에서는 설정 마찰음 ‘ㅅ’과 설정 파열음 ‘ㄷ’이 대립 관계를 보여 준다. 그런데 자음이 교체되어도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함’이라는 어의는 변하지 않고, 미세한 의미 차이를 보인다. (18ㄴ)의 ‘와삭와삭-와작와작’에서도 2음절 초성이 ‘ㅅ’에서 ‘ㅈ’으로 교체될 때 ‘물체를 씹는 소리, 또는 모양’이라는 어의는 변하지 않았으나, 물체를 씹는 행위의 ‘강도’ 또는 ‘세기’, 혹은 ‘씹는 물체의 강도나 질감’ 등에서 미세한 의미 차이를 보인다.

	『표준국어대사전』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속닥 속닥	①남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작은 목소리로 은밀하게 자꾸 이야기하는 소리. 또는 그 모양. ② 『북한어』 종이나 천 따위를 조금 작게 자꾸 베는 소리. 또는 그 모양.	「참고어휘」 속덕속덕; 쑹닥쑹닥.	남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작은 목소리로 은밀하게 자꾸 이야기하는 소리를 나타내는 말. 또는 그 모양을 나타내는 말.	[큰 말] 속덕속덕 [센 말] 쑹닥쑹닥
속삭 속삭	① 남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나지막한 목소리로 자꾸 가만가만 이야기하는 소리. 또는 그 모양. ② 물건이 자꾸 가볍게 스치는 소리. 또는 그 모양.		나지막한 목소리로 자꾸 정답게 이야기하는 소리를 나타내는 말. 또는 그 모양을 나타내는 말.	

	『표준국어대사전』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와삭 와삭	①마른 가랑잎이나 얇고 뻗뻗한 물건이 자꾸 서로 스치거나 바스르러지는 소리. ②과일이나 과자 따위를 자꾸 베어 무는 소리.	「본」 와사삭와사삭 「참고 여취」 와썹와썹; 위석위석.	①마른잎이나 얇고 뻗뻗한 물건이 서로 자꾸 가볍게 스치거나 부스르러지는 소리를 나타내는 말. ②연하고 싱싱한 과일이나 채소 따위를 자꾸 베어 무는 소리를 나타내는 말.	[큰 말] 위석위석 [참고어] 와사삭와사삭 [센 말] 와썹와썹
와작 와작	①감치나 무 따위의 조금 단단한 물체를 자꾸 마구 깨물어 씹을 때 나는 소리. 또는 그 모양. ② 단단한 물체가 잇따라 부서지거나 무너질 때 나는 소리. 또는 그 모양.	「본」 와자작와자작 「참고 여취」 와썹와썹; 우적우적.	①조금 단단한 것을 자꾸 마구 씹는 소리를 나타내는 말. 또는 그 모양을 나타내는 말. ②단단한 물체가 잇따라 부서지거나 무너지는 소리를 나타내는 말. 또는 그 모양을 나타내는 말.	[큰 말] 우적우적 [참고어] 와자작와자작 [센 말] 와썹와썹

	『표준국어대사전』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팔딱 팔딱	①자꾸 크고 탄력 있게 뛰는 모양. ②심장이나 맥이 자꾸 크게 뛰는 모양. ③ …… ④ …… ⑤ ……	「참고 여취」 팔딱팔딱	①크고 탄력 있게 자꾸 뛰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 ②맥이나 심장이 매우 거칠고 크게 자꾸 뛰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	[작은 말] 팔딱팔딱 [센 말] 벌떡벌떡 뿔떡뿔떡
팔쩍 팔쩍	① 문이나 두껍 따위를 자꾸 급작스럽게 여는 모양. ② 급자기 가볍고 힘 있게 자꾸 날아오르거나 뛰어오르는 모양.	「참고 여취」 팔쩍팔쩍	①갑자기 크고 힘있게 자꾸 뛰어오르거나 날아오르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 ②문이나 두껍 따위를 갑자기 자꾸 열어젖히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	[작은 말] 팔쩍팔쩍

(19) ㄱ. 잘카닥잘카닥-잘카당잘카당  
 ㄴ. 노근노근-노글노글-노긋노긋

(20) ㄱ. 알록알록-알록달록  
 ㄴ. 우글우글-부글부글

(19ㄱ)은 박동근(2013:175~177)에서 ‘어말 자음 교체’로 다룬 것들이다. 여기에 속하는 어휘들로는 ‘달각달각:달강달강, 굵싹굵싹:굵실굵실, 시큰시큰:시큼시큼, 가뿐가뿐:가뽀가뽀, 터덜터덜:터덕터덕, 방글방글:방긋방긋, 해끔해끔:해끗해끗’ 등이 있다. 박동근(2013)에 의하면 어말 종성 위치에서 자음이 교체하는 경우 중에서도 특히 ‘ㄱ’과 ‘ㅇ’의 교체가 가장 광범위하게 일어나며, 소리흥내말에서 ‘ㄱ’ 종성에 비해 ‘ㅇ’ 종성이 유효적으로 [울리는] 속성을 더 갖는다. 사전의 기술 내용을 확인해 보면 ‘잘카닥’과 ‘잘카당’은 각각 ‘(작은 물체가) 가볍게 맞부딪치는 소리’와 ‘(작은 물체가) 가볍게 맞부딪쳐 울리는 소리’로 풀이되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예들을 사전에서 관련 어휘로 처리하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굽신굽신’과 ‘굽실굽실’을 동의어로 처리하고 있고, ‘달각달각:달강달강’, ‘해끔해끔:해깨해깨’ 등은 ‘부딪히는:부딪쳐 울리는’, ‘하얏고 깨끗한:하얀’과 같이 한쪽에만 유표적 표현을 의미 자질처럼 사용하여 뜻풀이를 하고 있다. ‘방글방글:방긋방긋’은 앞에서 확인했던 ‘살긋:셀긋’의 뜻풀이와 마찬가지로 ‘조금:약간’의 어휘로 의미를 구분하고 있다. ‘굽신굽신’과 ‘굽실굽실’을 동의어로 처리함으로써 관련 어휘로 묶고 있지만 그 외의 단어쪽에 대해서는 관련어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이들 어휘 부류가 대략적인 기본 의미는 공유하되 미세한 의미 차이를 나타낼 때 자음의 교체에 의한 차이를 관련어 정보로 제공해야 할 것이다.

(19ㄴ)의 ‘노글노글, 노근노근, 노긋노긋’은 『표준국어대사전』의 ‘비슷한 말’ 처리 지침에서 가져온 예이다. 해당 지침에서는 “‘노글노글, 노근노근, 노긋노긋’의 경우와 같이 뜻풀이가 서로 매우 유사하고 형태상 받침의 차이만 있는 경우에도 이들을 서로 비슷한말로 인정하지 않는다. 각기 뜻풀이를 달리 처리하고 관계를 밝히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실제 뜻풀이 이에 대해 신중진(2001:285~286)에서는 “의미적 관련성만 높여 놓고 관련어 정보를 삭제한 것은 사전 편찬 원칙의 오류로밖에 볼 수 없다.”고 하였다.<sup>12)</sup> 아래의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노글노글-노근노근-노긋노긋’은 모두 ‘촉촉함, 마르지 않음, 부드러움’ 등의 의미를 공통적으로 나타내며 형태적 유사성도 보인다. 따라서 이들의 관련성을 참고 어휘로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sup>13)</sup>.

12) 박동근(1999:381-382)에서도 ‘노글노글-노긋노긋’, ‘반들반들-반똥반똥’처럼 ㄴ과 ㄷ을 각각 끝소리로 갖는 흉내말에 대해 논의하였다. ㄴ을 끝소리로 갖는 흉내말은 그 동작이 완전한 형태를 갖추고 있음을 의미하는데 ㄷ으로 끝나는 흉내말은 그러한 동작이나 상태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은 듯하게’ 정도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인식된다고 하였다. 그래서 ‘까칠까칠’에 대해 ‘까칫까칫’은 ‘까칠한 듯하다’나 ‘조금 까칠까칠하다’ 정도의 의미로 이해되며 ‘노글노글’과 ‘노긋노긋’도 마찬가지로 하였다. 이러한 부류로 ‘가불가불/가뭇가뭇’, ‘반들반들/반똥반똥’, ‘지글지글/지긋지긋’ 등을 제시하였는데 이들 어휘 관계에서 ‘ㄴ’에 대한 ‘ㄷ’의 의미는 [똥함]이라고 하였다.

13) ‘노글노글②’과 ‘노긋노긋②’의 의미는 대체로 같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의 교체 양상은 다른 것으로 보인다. ‘노글노글②’은 ‘나글나글’로 교체될 수 없으나 ‘노긋노긋②’은 ‘나긋나긋’과 교체 가능하며 모음의 종류에 따른 어감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있도록 한다면 독자들이 관련어 체계에 대해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의성의태어가 다의어일 때, 즉 한 표제어에 뜻풀이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 뜻풀이의 마지막 부분에서 참고 어휘를 한 번 보여주는 방식을 취한다 (13)의 예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은 각각의 뜻풀이 항목마다 참고 어휘를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표준국어대사전』의 참고 어휘에는 어께 번호 정보까지만 제공되지만,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의 참고 어휘에는 하나의 표제어에 해당하는 뜻풀이 번호 정보까지 제공된다. (6ㄴ), (9ㄷ), (12ㄴ)의 예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12) ㄴ. 바삭바삭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 ① 마른잎이나 가랑잎 따위를 잇따라 가볍게 밟을 때 나는 소리를 나타내는 말.

[큰 말] 버석버석① [거센 말] 파삭파삭① [참고어] 바사삭바사삭①

[센 말] 바삭바삭2①, 빠삭빠삭2

- ② 단단하고 부스러지기 쉬운 물건을 잇따라 가볍게 깨물 때 나는 소리를 나타내는 말.

[거센 말] 파삭파삭② [참고어] 바사삭바사삭③

[센 말] 바삭바삭2②, 빠삭빠삭1

- ③ 말라서 물기가 없는 물건이 잇따라 가볍게 바스러지거나 깨지는 소리를 나타내는 말.

[큰 말] 버석버석②, 부석부석2 [거센 말] 파삭파삭③

[참고어] 바사삭바사삭②, 보삭보삭1 [센 말] 바삭바삭2③, 빠삭빠삭③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에서는 ‘바삭바삭’에서 3개의 뜻풀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중 ③의 의미일 때에는 ‘버석버석’이나 ‘부석부석’으로 교체 가능하지만 ①의 의미일 때에는 모음 교체형 ‘버석버석’과만 의미적 관련성을 보이며 ②의 의미일 때에는 의미적 관련성을 보이는 모음 교체형이 없다. 이처럼 의성의태어가 다의어일 때 각각의 뜻마다 관련어 체계가 다른 경우가 있으므로, 한 표제어에 뜻풀이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뜻마다 관련어를 별도로 제시하는 것이 의미 관계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 4. 맺음말

..

## ■ 참고문헌

- 김신희(2009), 국어사전의 다의어의 기술에 대하여, 언어사실과 관점 23, 153-184.
- 김홍범(1994), 한국어의 상징어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홍범(1998), 상징어의 의미 기술 모형 연구, 청람어문교육 38, 341-366.
- 김홍범(1998), 한국어 상징어 사전의 편찬 방안, 한글 239, 137-160.
- 박동근(1995), 흉내말 체계의 ‘빈칸’ 연구, 한말연구1, 103-138.
- 박동근(1999), 한국어 흉내말의 의미 구조 연구, 건국어문학 23-24 합집, 363-388.
- 박동근(2006), 내적변화에 의한 파생과 유표성, 한말연구 19, 95-120.
- 박동근(2010), 관용표현의 의미 구조와 흉내말 변형 제약, 겨레어문학 44, 179-199.
- 박동근(2013), 한국어 흉내말의 관련어망 설계를 위한 기초 연구, 반교어문연구 35, 165-192.
- 박창원(1993), 현대국어 의성의태어의 형태와 음운, 새국어생활 3-2, 16-53.
- 손달임(2012), 의성의태어의 내적 변화에 대하여, 형태론집담회 발표문.
- 송정근(2005), 미각형용사의 형태론, 형태론7-2, 303-324.
- 송정근(2007), 현대국어 감각형용사의 형태론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송정근(2009), 고유어 복합어근 범주 설정에 대하여, 어문연구 37-3, 145-167.
- 송철의(1992), 국어의 파생어 형성 연구, 태학사.
- 신중진(1998), 현대국어 의성의태어 연구, 국어연구 154.
- 신중진(2001), 의성의태어의 사전 처리와 그 방향, 관악어문연구 26, 265-291.
- 이은섭(2007), 형식이 삭감된 단위의 형태론적 정체성, 형태론 9-1, 93-113.
- 이희자(2000), 용언의 동음이의어의 설정 기준에 대하여, 새국어생활 10-1, 85-116.
- 임지룡(2009), 다의어의 관점과 의미 확장의 분류 기준, 한국어 의미학 28, 193-226.
- 조남호(1993), 국어 사전에서의 의성 의태어 처리, 새국어생활 3-2, 73-91.
- 채 완(1986), 국어 어순의 연구, 탑출판사.
- 채 완(2003), 한국어의 의성어와 의태어, 서울대학교 출판부.
- 최형용(2003가), 국어 단어의 형태와 통사, 태학사.
- 최형용(2003나), ‘줄임말’과 통사적 결합어, 국어국문학 135, 191-220.
- 최형용(2007), 한국어 형태론의 유형론-하스켈마트(2002), Understanding Morphology를 중심으로, 형태론 9-2, 61-78.
- 최형용(2009), 국어의 비접사 부사 형성에 대하여, 정신문화연구 32-1, 3-26.
- 하스켈마트(2002), Understanding Morphology, London:Arnold.

## □ 토론 □

### “의성의태어의 사전 처리에 대하여-교체형 의성의태어의 뜻풀이와 참고 어휘 제시 방식을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장영숙(강릉원주대)

이 논문은 기존 사전에 나타난 의성의태어의 뜻풀이와 참고 어휘 제시 방식을 고찰해 보고 교체형 의성의태어들의 사전 처리 방식이 일부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해 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교체형 의성의태어의 일관성 있는 사전 처리를 기 위해 합니다. 저는 여기서 몇 가지 궁금한 것을 질문하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할까 합니다.

첫째, 주로 <표준국어대사전>(이하 <표준>)의 뜻풀이와 참고 어휘 제시 방식의 문제점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함께 다루었던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이하 <고려대>)의 뜻풀이와 참고 어휘 제시 방식에는 문제점이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둘째, 이 논문에서는 <고려대>의 처리 방식에 찬성하는 부분이 많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고려대>의 교체형 의성의태어의 뜻풀이와 의미 배열 방식 그리고 참고 어휘 제시 방법처럼 처리한다는 뜻이지요?

셋째, 2장의 (7)에서 <표준>의 동음이의어와 다의어의 판단 기준은 ‘형태적 파생 양상’의 같고 다름에 따라 동음어와 다의어로 구분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표제어의 여러 의미들이 서로 관련성이 없을 때 ‘형태적 파생 양상’의 동일 여부에 따라 동음이의어와 다의어를 구분하는 부차적인 기준인 듯합니다. 그런데 이 논문에서 ‘형태적 파생 양상’의 동일 여부로 동음이의어와 다의어의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것이 주관적인 성향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의미적 관련성’ 여부보다 더 중점을 두고 있는 듯합니다. 그렇다면 이 논문에서는 (12)에 제시된 ‘바삭바삭’ 계열의 어휘군을 ‘의미적 관련성’과 ‘형태적 파생 양상(교체 양상)’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다의어로 처리할 것인지 동음이의어로 처리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12)에서 ‘바삭바삭’의 의미 중 교체 양상이 다른 (12ㄱ③)과 (12ㄴ②)는 다른 의미들과의 관련성이 있습니다. 의미적 연관성을 찾을 수 있으므로 (12)에 제시된 것처럼 다의어로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교체 양상의 차이를 들어 동음이의어로 처리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넷째, 31.에서 다의어인 의성의태어의 뜻풀이 방식 및 의미 배열의 문제를 다루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표준>의 뜻풀이와 배열 방식을 소개할 뿐, 다의어인 의성의태어의 차모음 교체가 갖는 의미 기능이 어떻게 뜻풀이에 영향을 미치며 어떤 의미 배열 방식을 보이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섯째, 3.2.1.의 첫 단락에서 “‘참고 어휘’의 범주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의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하면서 <표준>의 참고 어휘의 유형을 소개하였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이 ‘참고 어휘’ 즉 ‘관련 어휘’의 범위가 어디인지, 달리 말한다면 사전을 새로 만들 경우 관련 어휘 정보를 어디까지 표기할 것입니까?

# 【 특 강 】

# 한국어 상징어의 연구 방법론과 전문사전 편찬

김홍범(한남대)

## 차 례

1. 의미 기술의 일관성을 위한 의미기술 모형의 개발
  2. 상징어 의미 영역의 재분류를 위한 방법론
  3. 유의관계 상징어의 의미와 용법의 변별
  4. 상징어 연구의 활용 방안과 과제
- 참고문헌

### 1. 의미 기술의 일관성을 위한 의미기술 모형의 개발

이 글은 상징어의 구조적 특성과 의미 기술을 중심으로 상징어에 관한 글쓰이의 연구 성과를 소개하고 상징어의 의미영역 분류를 통해 상징어 전문사전을 편찬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상징어의 발달은 한국어의 대표적인 어휘적 특성 가운데 하나이다. 국립국어원에서 발간된 표준국어대사전의 울림말 수는 대략 38만 여개에 이르는데, 이 가운데 한자어와 외래어·비표준어를 제외한 순우리말의 수는 약 6만 내외이다. 한국어에는 약 5천여 개의 상징어(의성어·의태어)가 있으며, 과생어까지 고려하면 약 1만 5천 개가 넘는다. 이는 순우리말 5개 가운데 하나는 상징어인 셈이다. 한국어의 상징어는 수적으로 풍부할 뿐만 아니라 모두 고유어이면서 음운, 형태, 의미 면에서 체계적인 모습을 보인다. 한국어 상징어의 가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한국어는 상징어가 매우 발달하였다. 표준적인 상징어의 수만 해도 5천 개에 이른다. 이는 한국어와 더불어 상징어가 발달했다고 하는 일본어의 의성어·의태어 수가 2천 500개 내외라는 점과 비교해 보더라도 월등히 많은 수이다.
- 2) 상징어는 한자어나 외래어가 범하지 못한 우리의 고유한 어휘 범주이다.
- 3) 현대국어는 한국어의 특징적인 모음조화 현상이 많이 사라졌으나, 상징어에는 여전히 그 모습이 뚜렷히 남아있습니다.
- 4) 상징어는 단순형과 반복형의 대립 및 다양한 새말을 만드는데 기초 재료가 된다. 예를 들어 ‘반들반들-하다, 바글-거리다, 반짝-이다, 부슬-비, 피꼬리, 꿀-돼지, 뭉게-구름’과 같이 상징어를 어근으로 하는 말을 포함하면 15,000여 개에 이른다.
- 5) 상징어는 텍스트의 종류(장르) 따라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글쓰이가 한국어 상징어 전문사전 편찬을 위해 지속적으로 진행해온 연구 주제를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1) 한국어 상징어의 문법적 특성(음운, 형태, 통사, 의미) 분석.
- 2) 상징어 의미 기술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제시.
- 3) 표제어 선정을 위해 동형어와 다의어의 구별 기준 확보.
- 4) 기존 사전의 한계를 보완한 의미영역 분류체계 제시.
- 5) 유의관계에 있는 상징어의 의미와 용법의 변별.
- 6) 교육적 차원의 활용을 위해 상징어를 활용한 탐구학습 자료 개발.

한국어 상징어의 일반적인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1> 한국어 상징어의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	보기
① 기본의미의 바꿈이 없이 홀당소리 대응으로 말뚝의 차이를 갖는다.	동실동실/동실동실, 반짝반짝/뽀짝뽀짝
② 반복형이 어찌씨가 된다.	강충강충, 덜덜, 바들바들, 경경
③ ‘-하다, -거리다, -대다, -이다’와 결합하여 풀이씨가 된다.	반들반들하다, 번쩍거리다/대다, 꿈쩍이다
④ 입자말과 부립말 선택이나, 풀이말 수식에 제약이 높다	고개(머리)를 끄적이다. 갑작 놀라다/뒹 비다.
⑤ 어찌씨로 쓰일 경우, 풀이말과의 사이에 ‘하고, 하니, 하게’ 따위의 형식이 같이 쓰일 수 있다.	톡하고 떨어지다. 땅하고 소리가 나다. 땀 하니 달려가다.
⑥ 말뿌리가 그대로 풀이씨가 되거나, 되풀이꼴로도 쓰인다.	흔들다/흔들흔들, 더듬다/더듬더듬
⑦ 말뿌리에 뒷가지 ‘-알다/알다’가 붙어 파생어로 그림씨를 만드는 경우가 있다.	간지럽다/간질간질, 어지럽다/어질어질, 시끄럽다/시끌시끌
⑧ 부사어로서 기능하지만 텍스트에 따라 서술성을 가진다.	날씨는 풍풍, 증시는 후끈
⑨ 언어가 표현하는 여러 의미 중 감각을 그 의미 내용으로 하는 어휘 군이다.	따르릉(청각), 반짝(시각), 따끔(촉각), 퀘퀘(후각), 씹쓸(미각), 답답(심각)

상징어의 의미 기술을 위해 우선 일차적으로 국어사전의 뜻을 비교한다. 이를 위해 사전의 규모나 편찬 방법, 상징어 전문성을 고려하여 <표준국어대사전>, <연세한국어사전>, <우리말의성의태어사전>, <고려대한국어대사전>을 비교 사전으로 선정하기로 한다. 뜻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들 사전에서 상징어를 가려내어 사전별 상징어 목록을 작성하여 비교한다. 각각 구축한 상징어 목록을 비교하기 위해 파일을 하나로 묶고 정렬을 하되, 다의어나 동형어 처리가 사전마다 다르므로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 <큰말>, <작은말>,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의 짝들도 함께 모아 의미를 비교한다. <우리말 큰사전>, <조선말 의성어 의태어 사전> <국어대사전> 등의 사전도 분석하였지만 앞으로는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고자 한다. 우리말의 일반적 특징 중 비중 있는 지위를 가지고 있는 상징어를 대상으로 한 전문 사전이 북한과 연변 그리고 일본에서는 출판되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출판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아쉬운 점이다. 상징어 연구를 진행해 오면서 많은 해결 과제

가 얹히고실킨 복잡한 어휘 범주라는 사실을 확인 하였다. 하나하나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지만 결코 서두를 작업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연구 성과를 집약해 나아가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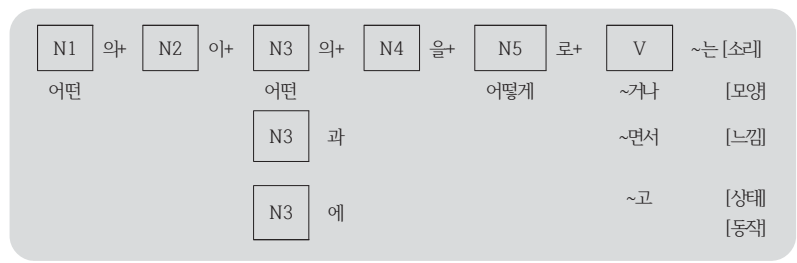
먼저 국어사전의 표제어에 대한 뜻풀이의 차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표-2> 국어사전의 ‘반짝’ 표제어 비교

사전	비교
표준국어대사전	<p>반짝1 ㉠작은 빛이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모양. ㉡갑날이 반짝 빛났다./어둠 속에서 불빛이 반짝 빛났다. ㉢정신이 갑자기 맑아지는 모양. ㉣정신이 반짝 들었다./잠이 반짝 깨다/술이 반짝 깨다/머리가 아절하면서도 정신은 반짝 났다. &lt;염상섭, 삼대&gt;/별안간 땡땡 소리와 함께 발등에 물을 뿌리고 물차가 지나가니 그는 비로소 산 듯이 정신기가 반짝 난다. &lt;김유정, 땡땡&gt; ㉤어떤 생각이 갑자기 머리에 떠오르는 모양. ㉥해결책이 반짝 떠오르다/고향 생각이 반짝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물건이나 사람, 일 따위가 빨리 없어지거나 끝나는 모양. ㉧날이 반짝 개었다가 이내 다시 비가 흠뻑렸다. ㉨마음이 끌려 귀가 갑자기 뜨이는 모양. ㉩귀가 반짝 뜨이다. ㉪무엇이 순간적으로 분명하게 보이는 모양. ㉫잠을 자지 않고 밤을 지내는 모양. ㉬삼경에 들어온 해적이 날 셀 때에 비로소 물러가서 성안에서 군사나 백성 할 것 없이 하룻밤을 반짝 새우게 되었다. &lt;홍명희, 임궫정&gt; (참)반짝1; 반짝; 뻥작; 뻥작1; 뻥작1.</p> <p>반짝2 ㉠물건을 아주 가볍게 들어 올리는 모양. ㉡그는 어린애를 반짝 안아서 차에 태웠다./그 노인은 무거운 썰가마니를 반짝 들어 올렸다. ㉢물건의 끝이 갑자기 높이 들리는 모양. ㉣몸의 한 부분을 갑자기 위로 들어 올리는 모양. ㉤손을 반짝 들다/아이들은 고개를 반짝 들고 칠판을 쳐다보았다. ㉥눈을 갑자기 크게 뜨는 모양. ㉦그는 처음 듣는 소리라는 듯이 반짝 눈을 뜨며 나를 쳐다보았다. (참)뻥작2; 뻥작2.</p>
연세한국어사전	<p>반짝 ㉠ (빛 따위가) 갑자기 잠깐 빛나거나 환하게 비추는 모양을 나타냄. ㉡어머니의 눈이 반짝 빛나는가 싶더니 이내 눈물이 고이기 직전의 습기 머금은 눈빛이 되었다. ㉢ (어떤 모습이나 현상) 순간적으로 잠깐 나타나는 모양을 나타냄. ㉣예전에 으레 그랬듯이 한 며칠 저렇게 반짝 설쳐대다가 제풀에 꺾어지고 말 것이다. ㉤갑자기 정신이 들거나 어떤 생각이 떠오르거나 마음이 끌리는 모양을 나타냄. ㉥를 허둥지둥하던 나는 그 순간 정신이 반짝 들었다. ㉦갑ัด된 눈을 갑자기 뜨는 모양을 나타냄. ㉧그녀는 반짝 눈을 떴다. ㉨무엇을 아주 가볍고 빠르게 눈을 들어올리거나 쳐드는 모양을 나타냄. ㉩어육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얼굴을 반짝 들었다. &lt;근&gt;뻥작, &lt;센&gt;뻥작, &lt;여&gt;반작, &lt;과&gt;반짝거리다. 반짝대다. 반짝이다. 반짝하다. &lt;흥&gt;. ㉪&lt;참&gt;주로 ‘빛나다’와 함께 쓰임.</p>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p>반짝1 ㉠작은 빛이 잠깐 조금 세계 빛나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 ㉡햇빛을 받은 석촌이의 안경테가 반짝 빛이 났다./ 어둠 속에서 불빛이 반짝 빛났다./ 두꺼운 안경 속에서 그의 작은 눈동자가 반짝 빛났다. &lt;큰말&gt;뻥작2 ㉢&lt;센말&gt;뻥작 ㉣갑자기 정신이 들거나 맑아지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 ㉤차가운 냉수를 한 잔 들이켜고 나자 그는 비로소 정신이 반짝 드는 듯싶었다. &lt;큰말&gt;뻥작2 ㉥&lt;센말&gt;뻥작 ㉦어떤 생각이 갑자기 머리에 떠오르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 ㉧현수에게 좋은 생각이 반짝 떠올랐다. &lt;큰말&gt;뻥작2 ㉨&lt;센말&gt;뻥작 ㉩마음이 끌려 눈이나 귀 따위가 갑자기 뜨이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 ㉪덕호는 땅인자에게 땅을 되돌려 준다는 소리에 귀가 반짝 났었다. &lt;큰말&gt;뻥작2 ㉫&lt;센말&gt;뻥작 ㉬사람이나 물건, 일 따위가 빨리 없어지거나 끝나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 ㉭일부 연애인들은 반짝 시정자의 주목을 받다가 어느새 사라지곤 한다. &lt;큰말&gt;뻥작2 ㉮&lt;센말&gt;뻥작 ㉯무엇이 순간적으로 분명하게 보이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 &lt;큰말&gt;뻥작2 ㉰&lt;센말&gt;뻥작 ㉱</p> <p>반짝2 ㉠몸의 한 부분을 갑자기 위로 아주 가볍게 드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 ㉡영수가 손을 반짝 들었다./ 그녀는 얼굴을 반짝 쳐들고 우리를 말끄러미 바라보았다./ 어른 두루마기에 파묻혔던 계집애가 고개를 반짝 든다. &lt;큰말&gt; 뻥작1 ㉢물건 따위를 가볍게 들어올리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 ㉣할머니는 알고 있는 나를 반짝 들어 올렸다./ 김 씨는 썰가마니를 반짝 들어서 땅에 부러 놓았다. &lt;큰말&gt;뻥작1 ㉤③눈을 갑자기 크게 뜨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 ㉥③수혜가 반짝 눈을 떴다./ 토끼가 불빛에 놀라 눈을 반짝 뜨고 있었다. &lt;큰말&gt;뻥작1 ㉦</p>
우리말의성 의태어사전	<p>반짝 ㉠ (빛이) 갑자기 잠깐동안 빛나는 모양. /그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시작하자 학생들의 눈동자가 ~ 빛난다. ㉡ (무엇을) 가볍고 빠르게 쳐들어올리는 모양. // 얼굴을 ~ 쳐들다. 「뻥작, 뻥작」</p>

여러 종류의 국어사전에 등재된 상정어를 모두 모아 뜻풀이를 비교해 본 결과 표제어에

대한 의미기술의 모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글쓰이는 앞선 연구에서 상징어의 의미 기술 모형으로 다음과 같은 틀을 제안하였다<sup>1)</sup>. 이 모형 틀에 대한 검증을 걸쳐, 의미 영역을 구분하는 기초 자료로 삼을 것이다.



위의 모형에서 ‘N1+ 의’, ‘N3+ 의’, ‘N5+ 로’는 표제어에 대한 의미 정보의 기술 내용이며, ‘N2+ 이’, ‘N4+ 을’, ‘어떻게 V’는 표제어에 대한 의미 정보이기도 하지만, 상징어의 의미 영역 분류 체계에 관여하는 구성 요소(의미 영역 범주)이다.

<조선말의성태어분류사전>의 의성어를 의미 기술 모형에 의해 정리하면 828개의 N2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중 중복되는 어휘를 빼면 129개의 어휘로 정리할 수 있다. 나머지 상징어들은 주어가 생략되거나 목적어가 주요 의미 정보가 되는 어휘들이다. 다음의 표는 그 예를 보여준다.<sup>2)</sup>

<표-3> 의성어의 의미 기술 모형 적용 예시

표제어	N1+ 의	N2+ 이	N3+ 의과에	N4+ 을	N5+ 로, 어떻게	기본형 v	v1	v2
딱	단단한	물건이				부러지다	부러질 때 나는	
퐁당	크고 무거운	동물이	깊은 물속에			뛰어들다	뛰어들 때 나는	
퀵퀵	많은 양의	물이		좁은 데를	세차게	쏟아지다	쏟아져	흐르는
절커덕	단단한	물체가			세게	부딪치다	맞부딪치는	
침범		사람이	물 속에			뛰어들다	뛰어들어	잠길때 나는
맹그랑	작은	쇠불이 같은 것이			세게	부딪치다	부딪치면서	울려나는
쫓르륵	적은	액체가			매우 빠르게	흐르다	흐르다가	뗏는
빽	질기고 얇은	종이 같은 것이			아무지게	찢어지다	찢어지는	
굉		폭발물 같은 것이				터지다	터질 때	울리는

<표-3>에서 보듯이 의성어의 경우 N2의 종류는 구체적인 대상을 지칭하는 경우보다는

1) 김홍범(2008) 참조.  
2) 김홍범(2010)에서는 2116개 의성어 전체를 분석한 결과를 소개하고 있다.



포괄적인 개념 ‘물건, 동물, 사람, 액체, -것’ 등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일정한 기준이나 일관성이 없어 상징어의 의미 기술이 여러 면에서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의태어의 경우에는 이러한 의미 기술의 양상이 더 복잡해진다. 의태어의 의미 기술은 N5 항목과 V항목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의성어에 비해 N5항목과 V항목이 다양하고 복잡하여 의미 기술을 할 때 타당한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의태어는 주로 사용되는 ‘상황(~때)’을 설명하는 의미 기술이 많아 이에 대한 항목을 따로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V항목의 서술어를 분류할 때 대등한 지위로 서술되어 있는 경우(~거나, 혹은)는 비교적 의미 항목 기술에 있어도 체계적으로 정리가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의태어는 서술어를 분류(V1, V2, V3)하는 것이 쉽지 않다. 예를 들어 <표 4>에서 보듯이 ‘버둥버둥’은 ‘눅거나 앉거나 매달려서 팔다리를 함부로 내저으며 몸을 자꾸 움직이는 모양’으로 기술한다. 상황 기술과 더불어 ‘~며 ~는’처럼 2개 이상의 서술어로 의미를 기술할 때는 적합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즉 어떤 서술어를 중심 서술어로 볼 것인가의 문제에 대한

<표-4> 의태어의 의미 기술 모형의 적용 예시

표제어	N1+의 어떤	N2+이	N3+의 어떤	N4+을	N5+로, 어떻게	v1	v2	상황(~때)
버둥버둥				팔다리를	함부로	내저으며	(몸을 자꾸) 움직이는	눅거나 앉거나 매달려서
확자그르		여럿이				지컬이며	떠들어대거나	소문이 욱자하게 퍼져 떠들썩한
비틀비틀					이리 저리 쓰러질듯이	비틀거리며	(걸음을 옮)겨 다디는	몸을 바로 가누지 못하고
무춤			하던	동작을	갑자기	멈추는		놀라거나 또는 어색한 느낌이 있을 때
꿈틀			몸의	한 부분을		꼬부리거나	비틀며	움직이는

상징어의 가장 두드러진 문법적 특성 가운데 하나가 다른 문장 성분과의 어울림에서 제약이 크다는 것이다. 주어, 목적어, 서술어와 어울림이 제약이 크다는 점을 활용하여 엑셀 프로그램으로 <표-4>와 같이 분석하면 상징어의 의미영역을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사람을 나타내는 2639개의 상징어를 엑셀 프로그램으로 분석한 결과 주어 항목에는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았다. ‘성별, 나이, 신체부의, 사람 수’와 관련된 정보가 대표적이다. 목적어 항목에는 ‘몸 전체, 몸의 일부’를 지칭하는 신체와 관련 있는 단어와 신체를 이용한 다양한 움직임을 나타내는 단어가 분포되었다. 부사어 항목의 단어는 1733개인데 중복되는 단어를 제외하면 모두 298개로 정리된다. 부사어 항목은 일정한 기준에 의해 유형화하는 것이 쉽지 않다. 다른 항목에 비해 여러 개의 단어가 복합적으로 나열되어 의미가 한 가지로 집약되지 않기 때문이다. 서술어 항목에 나타나는 기본 서술어 1800 여개는 대부분 표제어의 상위 항목과 연관성이 높다. 표제어의 뜻을 풀이를 해체하여 서술어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상위 항목을 재분류할 필요성이 발견되었고 재분류한 결과는 <표-13>과 같다.

## 2. 상징어 의미 영역의 재분류를 위한 방법론

먼저 의미 영역을 분류해 놓은 유일한 선행 연구인 ‘조선말의성의태어분류사전’의 분류 내용을 소개하고, 이 분류에 대한 수정, 보완 작업의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표-5> 「조선말의성의태어분류사전」의 소리 상징어 항목

분류 유형			단어 수	
의 성 어	I. 사람과 관련하여 쓰이는 의성어	1. 사람의 코, 혀, 후두, 입에서 나는 소리	279	519
		2. 사람이 움직일 때 나는 소리	240	
	II. 동물과 관련하여 쓰이는 의성어	1. 동물의 코, 입에서 나는 소리	197	326
		2. 동물이 움직일 때 나는 소리	129	
	III. 기구, 기계, 악기 등과 쓰이는 의성어	1. 기구, 기계와 관련된 소리	104	154
		2. 악기 소리	50	
	IV. 고체와 관련하여 쓰이는 의성어	1. 굴러갈 때 나는 소리	31	930
		2. 맞닿거나 부딪칠 때 나는 소리	355	
		3. 달라붙거나 들어붙는 소리	52	
		4. 마찰할 때 나는 소리	60	
		5. 무너지거나 흩어질 때 나는 소리	14	
		6. 문풍지가 떨 때 나는 소리	2	
		7. 물체가 공기를 가르고 나갈 때 나는 소리	4	
		8. 물체가 바람을 일으키는 소리	4	
		9. 물체가 물에 떨어질 때 나는 소리	51	
		10. 바닥에 떨어질 때 나는 소리	56	
		11. 부러지거나 끊어질 때 나는 소리	64	
		12. 부서지거나 깨질 때 나는 소리	52	
		13. 베어질 때 나는 소리	7	
		14. 쏘아붙거나 탈 때 나는 소리	35	
		15. 종이나 깃발, 나뭇잎 같은 것이 바람에 날릴 때 나는 소리	13	
		16. 종잇장이나 책장을 넘길 때 나는 소리	8	
		17. 터지거나 튀거나 뚫어질 때 나는 소리	44	
		18. 흔들리는 소리	14	
		19. 쪼개지거나 찢어질 때 나는 소리	48	
		20. 율러이 나는 소리	16	
	V. 기체와 관련하여 쓰이는 의성어	1. 막혔던 가스가 공기가 터져나올 때 나는 소리	13	37
		2. 바람이 불어칠 때 나는 소리	14	
	VI. 액체와 관련하여 쓰이는 의성어	3. 바람이 쇠줄, 전깃줄에 부딪칠 때 나는 소리	10	150
1. 가는 줄기로 뿜치는 소리		4		
2. 거품 같은 것이 일어날 때 나는 소리		7		
3. 그릇 안의 액체가 흔들릴 때 나는 소리		12		
4. 물 같은 것이 단단한 물체에 부딪치는 소리		19		
5. 물 같은 것이 흐르는 소리		44		
6. 물결을 이루며 흔들릴 때 나는 소리		12		
7. 끓을 때 나는 소리		28		
8. 떨어질 때 나는 소리	24			
총 단어 수			2,116	

<표-5>는 「조선말의성의태어분류사전」에서 소리 상징어(의성어) 분류항목을 정리한 것이다. 분류 사전은 의미 유형별로 단어들을 분류하고 각 유형마다 유사한 단어들을 함께 배열함으로써 특정한 단어의 의미 파악은 물론 유사한 단어들까지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그러나 <표-7>의 ‘IV. 고체와 관련하여 쓰이는 의성어’에서 볼 수 있듯이 유형별로 소리 상징어들을 분류한

것이 아니라, 소리가 나는 방법에 따라 단순 나열식에 그치고 있다. 또 같은 소리 상징어가 다른 하위 항목에 분류되어 의미 기술에 일관성이 없고, 같은 단어를 여러 번 설명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따라서 분류 체계에 관여하는 구성 요소(의미 영역 범주)별로 정리를 한 후 각 항목별 특징과 의미 기술의 문제점을 파악한 후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표-6> 「조선말의성의태어분류사전」의 의태어 항목

분류 유형			단어수	
I. 사람과 관련하여 쓰이는 의태어	1. 감각, 감정, 생각을 나타내거나 심리, 정신 상태를 나타내는 의태어	1) 가슴이 울렁이는 모양 2) 감정이 폭발하는 모양 3) 기나, 숨 같은 것이 막히는 모양 4) 기억이나 의식이 떠오르거나 떠오르지 않는 모양 5) 긴장한 모양 6) 놀란 모양 7) 눈에 무엇이 보이는 모양 8) 눈곱이 생기는 모양 9) 두렵거나 정그림거나 호젓한 모양 10) 마음이 움직이는 모양 11) 맛이 나는 모양 12) 성을 내는 모양 13) 생각하는 모양 16) 생각이 떠오르거나 잘 떠오르지 않는 모양 17) 토할 것 같은 모양 18) 흥겨운 모양 19) 아픈 모양 20) 애라는 모양	340	2,639
	2. 움직임을 나타내는 의태어	1) 고개, 머리, 목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의태어 2) 눈, 코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의태어 3) 혀, 입, 입술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의태어 4) 몸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의태어 5) 맥박이나 심장이 뛰는 모양 6) 발이나 다리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의태어 7) 손이나 팔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의태어 8) 팔다리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의태어 9) 근육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의태어 10) 자거나 조는 모양을 나타내는 의태어 11) 기타	1,650	
	3. 동작이나 행동의 상태를 나타내는 의태어	1) 경솔하게 행동하는 모양 2) 게걸스럽게 행동하는 모양 3) 느리게 행동하는 모양 4) 동작을 멈추는 모양 5) 동작이 굼은 모양 6) 동작(행동)이 매우 갑작스러운 모양 7) 동작이 빠르다 모양 9) 방향없이 헤매는 모양 10)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모양 11) 힘들이지 않고 가볍게 행동하는 모양	107	
	4. 사람의 모습을 나타내는 의태어	1) 가슴, 어깨, 팔 다리 같은 것이 벌어져있는 모양 2) 길거나 둥그스름한 모양 3) 멀쑥하고 시원스레 생긴 모양 4) 눈알이 생기있거나 생기없는 모양 5) 몸이 가늘고 키 크거나 다리 긴 모양 6) 살이 빠지고 여윈 모양 7) 살이 찌거나 부어오른 모양 8) 머리털이나 수염같은 것이 나 있는 모양 9) 얼굴빛이 변하는 모양 10) 얼굴이나 살갗에 주름이 간 모양 11) 얇은 모양 12) 입이 벌췌한 모양 13) 기타	124	
	5. 사람의 노력, 성미, 태도, 표정, 품성 같은 것을 나타내는 의태어	1) 견디거나 버티거나 참는 모양 2) 거만스럽게 뽐내는 모양 3) 고스란히 발을 새우는 모양 4) 기를 쓰거나 기운을 쓰는 모양 5) 기세 좋게 해나가는 모양 6) 기한이나 일을 자꾸 미루는 모양 7) 기운이 없는 모양 8) 게으름을 부리는 모양 9) 귀찮게 구는 모양 10) 날뛰거나 달려드는 모양 11) 등척스러운 모양 12) 달라붙거나 들어붙는 모양	418	

		13) 돈이나 물건 같은 것을 주거나 받거나 쓰는 모양 14) 많이 모여있는 모양 15) 땅살이는 모양 16) 물가집이나 태도가 태연스럽거나 얌전한 모양 17) 못된 장난을 하는 모양 18) 못마땅한 태도나 표정을 나타내는 모양 19) 물건을 흔들리는 모양 20) 사귀는 사이가 가깝지 않은 모양 21) 사있거나 앉아있는 모양 22) 성질이 검질긴 모양 23) 성질이 늘어지거나 수더분하거나 시원스러운 모양 24) 성질이 번덕스러운 모양 25) 성질이 찬찬한 모양 26) 실속없이 근소리만 치는 모양 27) 하는 일이 없이 놀기만 하는 모양 28) 깨우는 모양 29) 꾸준히 하거나 시키는 대로 하는 모양 30) 땅이 돌아거나 흐르는 모양 31) 뻘뻘스러운 모양 32) 약빠른 모양 33) 어물거리넘기는 모양 34) 우기는 모양 35) 일같은 것을 대충대충하는 모양 36) 일같은 것이 잘되어나가거나 손쉽게 처리되는 모양 37) 일을 급하게 해나가는 모양 38) 일을 제때에 처리해나가는 모양 39) 일을 제때에 처리하지 못하고 몽개는 모양 40) 애를 쓰는 모양 41) 기타		
--	--	--	--	--

<표-6>은 「조선말의성의태어분류사전」에서 ‘I. 사람과 관련하여 쓰이는 의태어’의 하위 항목을 정리한 것이다. <표-6>에서도 분류 유형의 일관성이나 체계성을 찾아볼 수 없다. ‘2. 움직임을 나타내는 의태어’의 하위 항목만 살펴보다라도 ‘고개, 머리, 목’, ‘눈, 코’, ‘혀, 입, 입술’, ‘몸’, ‘맥박, 심장’, ‘발, 다리’, ‘손, 팔’, ‘팔다리’, ‘근육’, ‘자거나 조는 모양’ 항목이 나열되어 있을 뿐, 분류의 일관성이나 기준, 순서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이들 항목을 해체하여 일정한 분류 기준에 근거하여 항목들을 재분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기초 작업으로 분류 사전의 의태어들을 다음에 제시하는 상징어의 의미 기술 모형에 따라 분석하였다. 모형에 의해 기술 내용을 항목별로 분석하면 각 상징어들의 의미 변별 요소들을 계량적으로 비교·분석할 수 있어 의태어 의미 기술 방법의 문제점과 해결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 2.1. 기존 사전의 해체 방법론

기존의 「우리말 의성의태어 분류사전」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검토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기초 작업을 수행하였다. 먼저 필자는 기존의 「우리말 의성의태어 분류사전」을 표제어마다 6자리의 숫자로 정보를 표시하면서 컴퓨터에 입력한 후 표제어를 자모순으로 재배열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확보하였다.<sup>3)</sup>

3) 표제어 옆에 제시한 숫자의 해석은 다음과 같다. 의성어는 1, 의태어는 2로 분류하여 앞에서부터 첫째 자리에 숫자로 나타내고, 제일 큰 분류인 로마숫자는 둘째 자리에, 그 다음 분류인 아라비아 숫자는 셋째 자리에, 그 다음 분류인 반음표 숫자는 넷째 자리에, 그 다음 묶음표 숫자는 다섯째 자리에, 마지막으로 동그라미 숫자는 여섯째 자리에 숫자로 의미 영역 정보를 표시하였다.

〈표-7〉 표제어의 의미 영역 정보

표제어	의미 정보	표제어	의미 정보
가닥가닥	2.4.1.4	가뭇가뭇	2.4.2.2
가닥가닥	2.4.3.2	가뽀가뽀	2.4.2.2
가드락가드락	2.1.5.2	가뽏가뽏	2.4.2.2
가득	2.4.1.10	가치작가치작	2.4.1.5
가득	2.5.3.1	가칠가칠	2.4.2.3
가득가득	2.4.1.10	가칫가칫	2.1.1.8.0
가득가득	2.5.3.1	간댕간댕	2.4.1.48.4
가든가든	2.1.1.10.4	간댕간댕	2.10.19
가들가들	2.1.3.1	간드랑간드랑	2.4.1.48.4
가뚝	2.4.1.10	간드랑간드랑	2.10.19
가뚝	2.5.3.1	간들간들	2.4.1.48.4
가뚝가뚝	2.4.1.10	간들간들	2.10.19
가뚝가뚝	2.5.3.1	간질간질	2.1.1.8.1
가뜩가뜩	2.1.4.13	간질간질	2.1.1.10.2
가뜩가뜩	2.4.2.2	갈기갈기	2.4.1.53
가뜩가뜩	2.1.1.10.4	갈래갈래	2.4.1.53
가랑가랑	2.2.1.2.3	갈쌍갈쌍	2.2.1.2.3
가랑가랑	2.5.3.1	갈쌍갈쌍	2.1.2.2.5
가랑가랑	1.1.1.9	갈팡질팡	2.1.3.8
가랑가랑	1.2.1.3	갈팡질팡	2.1.2.6.4
가랑가랑	1.2.1.3	값작값작	2.2.1.3.9
가랑가랑	1.4.1	값죽값죽	2.2.1.3.9
가랑가랑	2.1.2.2.5	값값	2.7.1
가랑가랑	2.1.2.3.13.2	값값	2.10.20
가랑가랑	2.2.1.3.6	값값	2.1.1.4
가르랑	1.1.1.9	값숨값숨	2.9.4
가르랑가르랑	2.2.1.3.6	값실값실	2.4.1.57.4
가르랑가르랑	1.1.1.9	값실값실	2.9.4
가르랑가르랑	1.2.1.3	값실값실	2.1.1.7
가르랑가르랑	2.1.2.3.13.2	값작값작	2.9.3
가물가물	2.4.1.57.	강동강동	2.1.2.6.7.1
가물가물	2.9.2	강동강동	2.1.3.1
가물가물	2.1.1.4	강똥강똥	2.1.3.1
가뭇가뭇	2.9.4	강똥강똥	2.1.2.6.7.1
가분가분	2.4.2.2	강종강종	2.1.2.6.7.3
가불가불	2.1.5.28	개굴개굴	1.2.1.8.3
가불가불	2.9.2	개신개신	2.1.5.40

위의 자료는 ‘표제어의 의미 영역 정보’ 자료 중의 1쪽을 제시한 것인데, 이 자료를 보면 모두 7,656개의 표제어가 각각 어떠한 의미 항목을 가지고 있으며 어떠한 의미 영역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다.<sup>4)</sup> 위에서 제시한 〈표-7〉의 자료를 바탕으로 각 표제어의 빈도수(의미 항목의 수)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추출할 수 있다.

4) 하나의 상정어가 여러 의미 항목을 가지고 있을 때 이를 동형어로 처리할 것인지 다의어로 처리할 것인지의 판단은 김홍범(1994)의 판별기준에 따른다.

<표-8> 표제어의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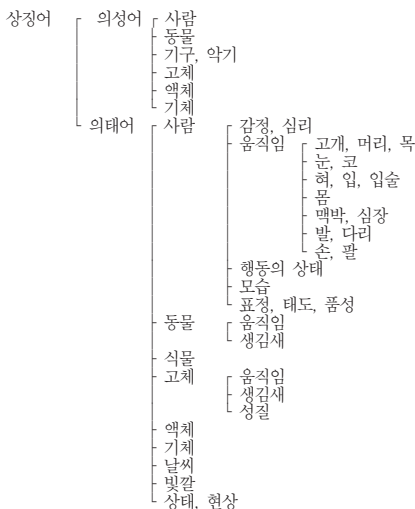
표제어	빈도(의미 항목 수)	표제어	빈도(의미 항목 수)
쪽	17	홀딱홀딱	9
짝	16	홀떡	9
쪽쪽	15	홀떡홀떡	9
쭈	15	홀홀	9
쪽쪽	15	회회	9
짝짝	14	바시시	8
쪽	14	바쌈	8
딱딱	13	바쌈바쌈	8
발딱발딱	13	버적버적	8
벌떡벌떡	13	벅벅	8
툭	13	벌걱벌걱	8
툭툭	13	부시시	8
푹푹	13	삭삭	8
딱	12	와그르르	8
빨딱빨딱	12	조르르	8
푹	12	줄줄	8
뚝뚝	11	주르르	8
벌걱벌걱	11	줄줄	8
뽕뽕	11	쩍	8
탁	11	쩍쩍	8
툭	11	쭈르르	8
툭툭	11	쩍	8
가랑가랑	10	찰찰	8
뚝	10	쿵쿵	8
바작바작	10	탈쌈	8
박박	10	탈쌈	8
훅훅	10	탈쌈탈쌈	8
등실등실	9	광광	8
뚝뚝	9	퐁퐁	8
번쩍	9	픽픽	8
번쩍번쩍	9	휘휘	8
빠작빠작	9	획	8
사르르	9	그렁그렁	7
우적우적	9	꼭꼭	7
찌찌	9	땅땅	7
탁탁	9	명명	7
탈쌈탈쌈	9	무려무려	7
평평	9	바작	7
푹푹	9	바작바작	7
평평	9	발각	7
홀딱	9	부르르	7

위의 자료를 보면 7,656개의 표제어가 3,589개로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개별 상징어의 여러 의미 항목과 동형어를 하나의 표제어로 통합했기 때문이다. 가장 많은 의미 항목을 가지고 있는 상징어는 ‘쪽’으로 17의 빈도를 보이며 전체의 47.2%에 해당하는

1,686개는 빈도 1이며, 28.3%에 해당하는 1,017개는 빈도 2로 나타난다. 주목할 만한 점은 ‘폭’의 모음 바꾸기형태 ‘폭’(빈도12)과 되풀이형태 ‘폭폭’(빈도13), ‘폭폭’(빈도19)의 빈도가 각각 다르게 나타나는 사실이다. 이러한 결과는 상징어의 문법적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sup>5)</sup>

이제 앞에서 제시한 기초 자료를 근거로 거시 구조의 문제를 살펴보기로 하자. 「우리말 의성·의태어 분류사전」에서는 전체 상징어를 800여개의 의미 영역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한계를 보이고 있다.

먼저 여섯 단계의 분류에서 동일한 단계의 의미 영역들이 같은 층위에 있지 않다는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사람, 동물, 식물, 고체, 액체, 기체, 날씨 등은 같은 층위로 분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층위가 다른 종개념과 횡개념이 서로 섞여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류 원칙 때문에 사전을 활용하고자 할 때 필요한 분류 항목을 찾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찾고자 하는 필요한 정보가 다른 분류 항목에 중복되어 나타나는지의 여부도 확인하기가 어렵다. 이 사전의 분류 체계를 간략히 보이면 다음과 같다.<sup>6)</sup>



위의 의미 영역 분류를 세밀히 관찰하면 하위분류 단계에서는 한 의미 영역에 대체로 하나의 의미 항목을 제시하고 있으나, 어떤 경우에는 한 의미 영역에 여러 의미를 묶어놓은 것들도 있는 것으로 보아 분류의 일관성이 없어 보인다. 예를 들어 사람의 웃는 모양에 대한 하위분류에서 ‘경망하게 웃거나 교활하게 웃거나 비웃는 모양’을 나타내는 상징어를 묶은 것은 잘못된 분석이다. 사람의 손이나 팔의 움직임에 대한 하위분류에서도 ‘그림을 그리

5) 이러한 사실은 하나의 상징어에 대한 차모음 바꾸기형태와 되풀이형태의 의미 항목이 단순 대응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김홍범(1994) 참조.

6) 800여개의 의미 영역을 모두 제시하지 않고 분류 방식만을 보이기로 한다.

거나 글을 쓰거나 글을 긋는 모양'을 동일한 의미 영역에서 처리하고 있는 것 등은 수정되어야 한다.

## 2.2. 의미영역의 재분류 체계 시안

<표-9>의 목록 중에서 '1. 감각, 감정, 생각을 나타내거나 심리, 정신 상태를 나타내는 의태어'와 '5. 사람의 노력, 성미, 태도, 표정, 품성 같은 것을 나타내는 의태어'는 모양을 본 딴 말이 아니므로 엄밀하게 말하면 의태어가 아니다. 본 연구자가 의성어, 의태어라는 용어를 배제하고 상징어라는 용어를 쓰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다. 먼저 <표-9>의 '1. 감각, 감정, 생각을 나타내거나 심리, 정신 상태를 나타내는 의태어'를 글쓴이가 감각, 감정, 인지로 나누어서 재분류한 결과를 표로 보이면 <표-9>와 같다.

<표-9> '1. 감각, 감정, 생각을 나타내거나 심리, 정신 상태를 나타내는 의태어'

I. 사람과 관련하여 쓰이는 의태어		개수
1. 감각, 감정, 생각을 나타내거나 심리, 정신 상태를 나타내는 의태어		
1) 가슴이 울렁이는 모양		16
2) 감정이 북받치는 모양		8
3) 가나 슬같은 것이 막히는 모양		12
4) 기억이나 의식이 떠오르거나 떠오르지 않는 모양		17
5) 긴장한 모양		4
6) 놀라는 모양		8
7) 눈에 무엇이 보이는 모양		19
8) 느낌이 생기는 모양	(1) 간지럽거나 근지러운 느낌이 나는 모양	6
	(2) 거뻐한 느낌이 있는 모양	2
	(3) 굼거나 굼어 시장한 모양	5
	(4) 무엇이 썩히는 것 같은 느낌이 나는 모양	5
	(5) 사느란(서느런) 느낌을 받는 모양	8
	(6) 소화되지 않아 속이 불편함을 느끼는 모양	3
	(7) 깔끄럽거나 깔끄러운 느낌이 있는 모양	7
	(8) 따끈하거나 뜨끈한 느낌이 있는 모양	3
	(9) 뼈마디같은 곳이 시큰한 느낌이 나는 모양	6
	(10) 어떤 느낌이 떠오르는 모양	7
	(11) 기타	6
9) 두렵거나 징그럽거나 호젓한 모양		11
10) 마음이 움직이는 모양	(1) 마음이 격하게(심하게) 움직이는 모양	4
	(2) 마음이 들떠서 움직이는 모양	8
	(3) 마음이 몹시 쫓여드는 모양	7
	(4) 마음이 상쾌하거나 후련한 모양	10
	(5) 기타	9
11) 맛이 나는 모양		10
12) 성을 내는 모양		31
13) 생각하는 모양		2
14) 생각이 떠오르거나 잘 떠오르지 않는 모양		27
15) 정신상태가 어떠한 모양		27
16) 차갑거나 추운 모양		13
17) 토할거 같은 모양		3
18) 흥겨운 모양		3
19) 아픈 모양	(1) 자릿한 모양	4
	(2) 아픈 모양	23
20) 애타는 모양		5
합계		339



<표-10> '감각, 감정, 인지'에 의한 하위 항목 분류

	‘1. 감각, 감정, 생각을 나타내거나 심리, 정신 상태를 나타내는 의태어’		표제어 <sup>7)</sup>
감각	7)눈에 무엇이 보이는 모양		감실감실, 사물사물, 피끗, 힐끗, 회뜩, 아른아른, 알썩알썩, 언뜻언뜻, 얼른얼른
	8)느낌이 생기는 모양	(1)간지럽거나 근지러운 느낌이 나는 모양	간질간질, 그닐그닐, 사물사물, 스멀스멀
		(2)거뿔한 느낌이 있는 모양	거뿔거뿔, 거뿔거뿔
		(3)끓거나 끓어 시창한 모양	출출, 출출, 꿀딱, 꿀딱꿀딱, 쭈쭈
		(4)무엇이 썩히는 것 같은 느낌이 나는 모양	살강살강, 설경설경, 설렁설렁, 썩강썩강, 썩렁썩렁
		(5)사느란(서느린) 느낌을 받는 모양	산득, 산득산득, 산뚝, 산뚝산뚝, 선득, 선득선득, 선뚝, 선뚝선뚝
		(6)소화되지 않아 속이 불편함을 느끼는 모양	느긋느긋, 몽글, 몽글몽글
		(7)칼끄럽거나 깔끄러운 느낌이 있는 모양	가칫가칫, 까질까질, 까끌까끌, 꺼슬꺼슬
		(8)따끈하거나 뜨끈한 느낌이 있는 모양	따끈따끈, 뜨끈뜨끈, 뜨끔뜨끔
		(9)빠따같은 곳이 시큰한 느낌이 나는 모양	시근시근, 시금시금, 시르시르, 시름시름, 새근새근, 새근새근
		(11)기타	무럭무럭, 무뚝무뚝, 문뚝, 문뚝문뚝
	11)맛이 나는 모양		비릿비릿, 시금시금, 시름시름, 새름새름, 뿌터뿌터, 아릿아릿, 얼근얼근
	16)차갑거나 추운 모양		아스스, 아슬아슬, 오삭오삭, 아쭈, 오스스, 오쭈, 오슬오슬, 오스스, 오스스
	17)토할거 같은 모양		메슥메슥, 울렁울렁, 왕랑왕랑
	19)아픈 모양	(1)자뺏한 모양	자르르, 지르르, 짜르르, 쪼르르
		(2)아픈 모양	살살, 시름시름, 자글자글, 자근자근, 저뚱저뚱, 지근지근, 필필, 꺾꺾꺾꺾, 꺾꺾, 따끔따끔, 육신육신
	감정	1)가슴이 울렁이는 모양	
2)감정이 북받치는 모양		몽글, 몽글몽글, 울럭, 울럭울럭, 왕각	
3)기나 숨같은 것이 막히는 모양		각, 각각, 콕, 콕콕, 탁, 탁탁, 툇, 툇툇, 콕, 콕, 콕, 콕	
5)긴장한 모양		바쭉, 바쭉바쭉, 바쭉, 바쭉바쭉	
6)놀라는 모양		쭈쭈, 흠칫, 흠칫흠칫, 캄캄, 캄캄캄캄, 끄끄	
9)두렵거나 징그럽거나 호젓한 모양		섬뜩섬뜩, 쭈뼛, 지긋지긋, 아쭈, 오쭈, 으쭈	
10)마음이 움직이는 모양		(1)마음이 격하게(심하게) 움직이는 모양	더덕, 부글부글, 쟁, 욱
		(2)마음이 들떠서 움직이는 모양	간질간질, 단쭈단쭈, 들쭈들쭈, 들쭈들쭈, 싱숭생숭, 휘영휘영, 끄덕
		(3)마음이 몹시 죄어드는 모양	바글바글, 바작바작, 보글보글, 자글자글, 빠작빠작
		(4)마음이 상쾌하거나 후련한 모양	가든가든, 가든가든, 거든거든, 거든거든, 산뜻산뜻, 탁, 툇, 흐뭇흐뭇, 확
		(5)기타	비틀비틀, 지긋지긋, 허비적허비적, 후비적후비적, 휘영휘영, 간질간질, 끄덕, 딱, 멍멍
12)성을 내는 모양		발각, 발각발각, 발각, 발근, 브르르, 볼록, 팔딱, 퍼르르, 푸들푸들, 푸르르, 뽕뽕뽕뽕, 쟁쟁, 와락	
18)흥겨운 모양		흥성흥성, 흥성흥성, 아기가기	
20)에타는 모양		바질바질, 부질부질, 조뿔조뿔, 빠질빠질, 뽕질뽕질	

7) <표-10>의 '표제어'는 사전에서 대표적인 표제어들을 제시하였다.

인지	4)기억이나 의식이 떠오르거나 떠오르지 않는 모양		가물가물,감감,거물거물,피끗,획,깜빡,깜빡깜빡,아뽕아뽕,아리송아리송,알쏭달쏭
	8)느낌이 생기는 모양	(10)어떤 느낌이 떠오르는 모양	무럭무럭,무뚝,무뚝무뚝,문득,문득문득
	13)생각하는 모양		곰곰,더듬더듬
	14)생각이 떠오르거나 잘 떠오르지 않는 모양		무럭무럭,무뚝,문득,문득문득,빈쩍,빈쩍,과뜩,과뜩,편뜩,편뜩,피끗,알쏭달쏭,웅송당송
	15)정신상태가 어떠한 모양		말똥말똥,덜똥덜똥,민숭민숭,덴숭덴숭,빈쩍,빈쩍,평,평<그르르>,평평,평,까물까물,또랑또랑,뿌터뿌터,아뜩아뜩,아쩔아쩔,어리마리,어쩔어쩔,오락가락

‘감각, 감정, 생각을 나타내거나 심리, 정신 상태를 나타내는 상징어’의 하위 항목에 속한 표제어들은 인간의 감정과 관련된 상징어이므로, 체계적이고 일관된 기준을 적용시켜 분류하기가 어렵다. 모양을 떠베끼거나 소리를 흉내낸 것들이 아닌 ‘~하는 느낌’의 상징어들이 많은데 인간의 심리, 감정 등은 단순하게 정리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감각, 감정, 인지’ 영역을 기준으로 재분류를 했다. 감각’은 ‘자극’을 전제로 하는 외부 세계에 대한 반응이라면 ‘감정’은 경험주가 ‘감각’을 통해 경험하게 된 대상에 대해 느끼는 감정 상태를 의미한다. 즉 ‘자극’을 받고 이를 인식하는 부분이 ‘감각’ 영역에 해당하며, ‘감각’을 통해 받아들이는 이후에 이어지는 주관적 인식은 ‘감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인지’는 ‘자극’을 받아들일 때 감각적 차원을 넘어서 대상 또는 현상을 내면화하는 인간의 정신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다. 단순한 자극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주관적인 가치 판단이 개입되는 것으로 머릿속에 경험으로 축적되어 있다가 재생되는 과정도 포함하기 때문이다.

다음은 <표-6>의 목록 중에서 ‘5. 사람의 노력, 성미, 태도, 표정, 품성 같은 것을 나타내는 의태어’의 문제점을 분석한 후 이를 하위 유형 별로 재분류한 결과를 보인 것이다.

<표-11> ‘5. 사람의 노력, 성미, 태도, 표정, 품성 같은 것을 나타내는 의태어’의 유형<sup>8)</sup>

본성/감성	내면/외면	개인/상호	예문	유형
본성	내면	개인	▪ 신철이는 차근차근 무엇이트든 잘 하니까 주부역을 맡았다.	A
		상호	▪ 그 아이는 고분고분 말을 잘 듣는 편이다.	B
	외면	개인	▪ 무얼 꾸물꾸물하느라고 안 나오니?	C
		상호	▪ 아이고, 저 등글등글하고 끈덕진 사람, 나 아주 년덜머리가 났소.	D
감성	내면	개인	▪ 과제 내 준 지가 언제테 아직도 미적미적하고 있니?	E
		상호	▪ 친했던 친구도 자주 안 만나면 서먹서먹해진다.	F
	외면	개인	▪ 가족이 있어서 힘이 불끈불끈 솟아요.	G
		상호	▪ 꼬마는 엄마에게 치근치근 귀찮게 매달렸다.	H

8) 임지선(2012) 참조.

<표-12> '5. 사람의 노력, 성미, 태도, 표정, 품성 같은 것을 나타내는 의태어'의 재분류<sup>9)</sup>

유형	기존사전의 분류	재분류
A	1. 건디거나 버티거나 참는 모양	1. 감정, 아픔 따위를 억누르고 참는 모양
	23. 성질이 늘어지거나 수더분하거나 시원스러운 모양	23. 성질이 여유 있는 모양
	25. 성질이 완만한 모양	25. 성질이 꼼꼼하고 자상한 모양
	35. 일 같은 것을 대충대충 하는 모양	35. 일 같은 것을 적당히 하는 모양
B	22. 성질이 검질긴 모양	22. 성질이 끈덕지고 질긴 모양
	29. 꾸준하 하거나 시키는 대로 하는 모양	29. 순순히 따르는 모양
C	7. 기운이 없는 모양	7. 기운이 없는 모양
	16. 몸가짐이나 태도가 태연스럽거나 얌전한 모양	16. 몸가짐이나 태도가 태연스럽거나 얌전한 모양
	8. 게으름을 부리는 모양	8. 일부터 열심히 일하지 않는 모양
D	27. 하는 일이 없이 놀기만 하는 모양	27. 하는 일이 없이 놀기만 하는 모양
	2. 거만스럽게 뽐내는 모양	2. 남을 업신여기며 뽐내는 모양
	11. 능청스러운 모양	11. 엉뚱한 마음을 숨기고 천연덕스러운 모양
	26. 실속없이 큰소리만 치는 모양	26. 실속 없이 큰소리만 치는 모양
	31. 뻔뻔스러운 모양	31. 염치없이 태연한 모양
	32. 약빠른 모양	32. 약빠른 모양
E	5. 기세 좋게 해 나가는 모양	5. 기세 좋게 빨리 해 나가는 모양 (≡ 37.일을 급하게 해나가는 모양)
	37.일을 급하게 해나가는 모양	
	24. 성질이 변덕스러운 모양	24. 성질이 욱하는 모양
	38. 일을 제빠르게 처리해 나가는 모양	38. 일을 제빠르게 처리해 나가는 모양
	40. 애를 쓰는 모양	40. 마음을 다하여 무엇을 이루려고 힘쓰는 모양
F	6. 기한이나 일을 자꾸 미루는 모양	6. 기한이나 일을 자꾸 미루고 몽개는 모양 (≡ 39. 일을 제때에 처리하지 못하고 몽개는 모양)
	39. 일을 제때에 처리하지 못하고 몽개는 모양	
	15. 망설이는 모양	15. 싹뻗 결정하지 못하고 주저하는 모양
	33. 어물거리 넘기는 모양	33. 어물거리 넘기는 모양
	20. 사귀는 사이가 가깝지 않는 모양	20. 사귀는 사이가 가깝지 않는 모양
G	4-(1) 기를 쓰거나 기운을 쓰는 모양	4. 기를 쓰거나 기운을 쓰는 모양
	4-(2) 기운을 쓰거나 힘을 주는 모양	
H	9. 귀찮게 구는 모양	9. 귀찮게 구는 모양
	17. 못된 장난을 하는 모양	17. 못된 장난을 하는 모양
	18. 못마땅한 태도나 표정을 나타내는 모양	18. 마음에 들지 않아 좋지 않은 태도나 표정을 나타내는 모양
	28. 까부는 모양	28. 까부는 모양

9) 사람의 성품을 나타내는 상징어들 중에서 하위항목 10가지-㉠ 물건을 흘리는 모양, ㉡ 날뛰거나 달려드는 모양, ㉢ 달라붙거나 들어붙는 모양, ㉣ 돈이나 물건 같은 것을 주거나 받거나 (할 때) 쓰는 모양, ㉤ 고스란히 밤을 새우는 모양, ㉥ 많이 모여 있는 모양, ㉦ 서 있거나 앉아 있는 모양, ㉧ 땀이 돌아거나 흐르는 모양, ㉨ 일 같은 것이 잘 되어 나가거나 손쉽게 처리되는 모양, ㉩ 기타-는 기존 사전의 다른 의미영역으로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여 제외한 후 분류하였다.

먼저, 본성과 감성으로 큰 분류를 하고 본성과 감성을 다시 내면과 외면으로, 내면과 외면을 각각 개인과 상호로 분류한 다음 의미가 비슷한 하위항목을 묶어서 새로운 항목 분류 방안을 제시하였다. 상징어에서 제외시킨 의미영역은 모두 10개이며, 나머지 31개의 의미영역 중에서 2개는 각각 변별이 어려운 비슷한 영역으로 다시 모아 총 29개의 의미영역으로 분류하였다.

상징어와 상징어를 의미영역별로 묶은 의미자질을 통해 본성과 감성으로 분류하였다. 본성이란 그 사람 고유의 성품이나 성향을 나타낸다. 감성이란 어떤 상황이나 일이 생겼을 때 반응하는 사람의 모습을 떠베낀 상징어를 말하는 것으로 문맥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본성과 감성으로 분류한 다음에 다시 외면과 내면으로 분류하였다. 외면과 내면의 분류 기준은 '시각적으로 떠베깁이 가능한가, 그렇지 않은가'로 하였다. 시각적 떠베깁이 가능하면 외면, 그렇지 않은 경우 내면으로 분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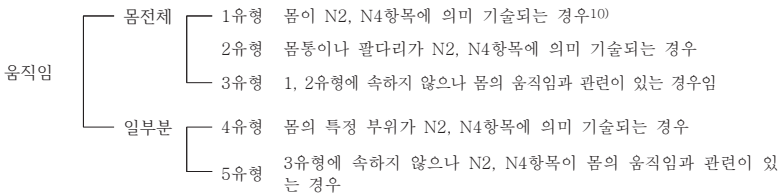
본성 중에서 시각적 떠베깁이 가능하면 외면으로, 그렇지 않으면 내면으로, 감성 중에서 시각적 떠베깁이 가능하면 외면으로, 그렇지 않으면 내면으로 분류하였다.

본성과 감성, 그리고 다시 외면과 내면으로 분류한 다음 그것을 다시 각각 개인과 상호로 세분화하였다. 개인이란 상대나 대상이 없어도 나타날 수 있는 단독적 장면에 쓰이는 것이고 상호란 상대나 혹은 대상이 있는 상관적 장면에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표-6>의 목록 중에서 '2.움직임을 나타내는 의태어'의 분류를 다음과 같이 보완하고자 한다.

<표-13> 움직임을 나타내는 의태어 재분류

	기존 사전의 분류 체계	재분류
2.움직임을 나타내는 의태어	1) 고개, 머리, 목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의태어	1) 머리(얼굴, 고개, 목)
	2) 눈, 코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의태어	2) 눈(눈알, 눈물)
	3) 혀, 입, 입술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의태어	3) 코
	4) 몸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의태어	4) 입(혀, 입술)
	5) 맥박이나 심장이 뛰는 모양	8) 몸의 움직임
	6) 발이나 다리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의태어	7) 신체 기관(심장, 맥박, 근육)
	7) 손이나 팔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의태어	6) 다리(발)의 움직임
	8) 팔다리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의태어	5) 팔(손)의 움직임
	9) 근육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의태어	8) 몸의 움직임
	10) 자거나 조는 모양을 나타내는 의태어	7) 신체 기관(심장, 맥박, 근육)
	11) 기타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들로 따로 분류함.
	몸 전체 : 4), 8) 항목	몸 전체 : 8) 항목
	일부분 : 1), 2), 3), 5), 6), 7), 9) 항목	일부분 : 1)~7) 항목



움직임을 나타내는 의태어를 위와 같이 하위분류한 결과 그 유형 별 특징은 다음과 같다.

1유형은 몸 전체의 움직임과 관련이 있는 경우로, N2나 N4에 ‘몸’이라는 단어가 의미 자질로 서술된다. 2유형은 몸 전체의 움직임을 나타내기는 하지만 특정 신체 부분이 강조 되는 경우를 말한다<sup>11)</sup>. 3유형은 몸 전체의 움직임과 관련이 있으나 N2, N4 항목에 ‘몸(팔다리)’가 기술되지 않는다. 이 유형은 신체의 움직임을 통해 목적성이 있는 활동을 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4유형은 신체 일부분의 움직임과 관련된 것으로 눈, 머리, 코, 입 처럼 특정 신체 부분이 N2나 N4 항목에 서술되는 경우를 말한다. 5유형은 4유형과 마찬가지로 신체 일부분의 움직임과 관련이 있으나 주로 ‘눈, 코, 입, 몸’의 목적성 있는 활동과 관련된다. 4유형과의 차이점은 특정 신체 부분을 움직이지만 N2, N4 항목에 신체의 특정 부위가 서술되지 않는다. 이것은 신체의 움직임에 대한 의미 기술이 아니라 ‘신체’의 움직임을 통해 일상생활의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3. 유의관계 상징어의 의미와 용법의 변별

#### 3.1. 구조적 유의관계에 있는 상징어의 변별

상징어의 의미를 기술하는데 특별히 고려하여야 할 핵심적인 문제는 다음의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자모음 바꾸기 형태이면서 유사한 의미를 갖는 상징어들에 대한 ‘일관성’ 있는 의미 기술을 위해서 어떤 기준을 세워야 하느냐 하는 점이다. 둘째, 자모음 바꾸기 형태가 아니면서 유사한 의미를 갖는 상징어들에 대한 ‘변별력’ 있는 의미 기술을 위해서는 어떤 방법론을 마련해야 하느냐 하는 점이다.

예를 들어, 한국어 상징어 중에서 자모음 바꾸기 형태에 의해 형성된 유사한 의미의 상징어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달각’류를 들 수 있다. 다음 <표 14>에서 볼 수 있듯이 ‘달각’과 관련된 어휘는 그 수가 70여개에 이르고 1음절과 2음절 소리 바탕뿐만 아니라 확장 형태도 대응 체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상징어에 나타날 수 있는 자모음 바꾸기 형태의 거의 모든 유형이 ‘달각’류에 포함된다. 따라서 ‘달각’류의 의미 정보 기술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이러한 유형에 해당하는 전체 상징어의 의미 기술에서 일관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10) 상위 항목에 기술된 내용을 전체로 생략된 표제어들도 포함한다.

11) 단순히 몸의 일부로서가 아니라 몸통이나 팔다리를 동시에 움직여 몸 전체의 움직임과 관련이 있는 경우 이를 모방한 의태어를 지칭한다. 예를 들어 ‘춤을 추다, 버둥거리다’ 등의 단어들이 있다. 1유형과의 경계가 모호한 부분이 있지만 특정 기관만 움직이거나 몸 전체의 움직임과는 다른 의미 영역을 설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2유형으로 따로 분류하였다.

<표-14> ‘달각’류 상징어의 자·모음 교체 형태

첫째 음절 소리바탕	둘째 음절 소리바탕	양성모음 계열			음성모음 계열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예사소리		달각	달각	달각	덜걱	덜걱	덜걱
된소리		딸각	딸각	딸각	덜걱	덜걱	덜걱
거센소리		탈각	탈각	탈각	덜걱	덜걱	덜걱
예사소리		달강	달강	달강	덜경	덜경	덜경
된소리		딸강	딸강	딸강	덜경	덜경	덜경
거센소리		탈강	탈강	탈강	덜경	덜경	덜경
예사소리		달가닥	달가닥	달카닥	덜기덕	덜꺼덕	덜커덕
된소리		딸가닥	딸까닥	딸카닥	덜기덕	덜꺼덕	덜커덕
거센소리		탈가닥	탈까닥	탈카닥	덜기덕	덜꺼덕	덜커덕
예사소리		달가당	달까당	달카당	덜기당	덜꺼당	덜커당
된소리		딸가당	딸까당	딸카당	덜기당	덜꺼당	덜커당
거센소리		탈가당	탈까당	탈카당	덜기당	덜꺼당	덜커당

이에 대한 <표준국어대사전의> 뜻을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ㄱ. 달각 : ‘달가닥’의 준말.  
 ㄴ. 달가닥 : 작고 단단한 물건이 맞부딪치는 소리.

<표준>에서는 ‘달가닥’에 대해 ‘달각’을 준말로 처리하고 따로 의미를 기술하고 있지 않은데 (동의어 처리), 상징어의 일반적인 특성으로 볼 때, 오히려 ‘달가닥’이 확장된 형태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무엇보다 이들의 의미를 같은 것으로 처리한 것은 상징어의 성격상 적절하지 않다.

- (2) ㄱ. 달가닥: 작고 단단한 물건이 맞부딪치는 소리.  
 ㄴ. 딸가닥: 작고 단단한 물건이 맞부딪치는 소리. ‘달가닥’보다 센 느낌을 준다.  
 ㄷ. 탈가닥: 작고 단단한 물건이 맞부딪치는 소리. ‘달가닥’보다 아주 거센 느낌을 준다.  
 ㄹ. 달까닥: 작고 단단한 물건이 맞부딪치는 소리. ‘달가닥’보다 조금 센 느낌을 준다.  
 ㅁ. 딸까닥: 작고 단단한 물건이 맞부딪치는 소리. ‘달가닥’보다 아주 센 느낌을 준다.

<표준>에서는 자음 교체형의 뜻풀이에 차이가 없다. 다만 어감의 차이를 부연함으로써 동의어로서의 처리를 피하고 있다. 그런데, 정순가·리기원(1984 : 245)에서 지적했듯이 ‘거센 말’, ‘센말’ 등은 관련 낱말의 정보로 제시해 주는 것이 그 자체가 뜻풀이가 되지 않는 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우리는 형태가 다르면 의미가 다르다는 도상성 원리에 따라 모든 상징어는 서로 다르게 뜻풀이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상징어의 의미 기술 원리를 제안하였다.

1. 달각: 작고 단단한 물체가 [ **힘없이** ] 부딪칠 때 나는 소리
2. 딸각: 작고 단단한 물체가 [ **힘없이 순간적으로** ] 부딪칠 때 나는 소리
3. 탈각: 작고 단단한 물체가 [ **쫌 거세게** ] 부딪칠 때 나는 소리

- |                                    |           |   |             |
|------------------------------------|-----------|---|-------------|
| 4. 딸각: 작고 단단한 물체가 [ <b>좁</b>       | <b>세계</b> | ] | 부딪칠 때 나는 소리 |
| 5. 딸각: 작고 단단한 물체가 [ <b>순간적으로 좁</b> | <b>세계</b> | ] | 부딪칠 때 나는 소리 |
| 6. 딸각: 작고 단단한 물체가 [ <b>아주</b>      | <b>세계</b> | ] | 부딪칠 때 나는 소리 |
| 7. 딸각: 작고 단단한 물체가 [ <b>거</b>       | <b>세계</b> | ] | 부딪칠 때 나는 소리 |
| 8. 딸각: 작고 단단한 물체가 [ <b>거</b>       | <b>세계</b> | ] | 부딪칠 때 나는 소리 |
| 9. 딸각: 작고 단단한 물체가 [ <b>아주</b>      | <b>세계</b> | ] | 부딪칠 때 나는 소리 |

### 3.2. 유사한 형태로 유의관계에 있는 상징어의 변별

한국어의 상징어에는 의미적으로 매우 밀접한 유의적 관계에 있는 어휘군들이 있다. 다음 <표 15>의 상징어들은 모두 [떠는 모양]을 흉내낸 상징어들이다. 기존의 국어사전에서는 이들에 대한 의미 변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떠는 모양의 의미를 변별하기 위해, '적용범위, 함축, 동작의 크기/지속성' 등의 변별 기준을 제안하여 <표-15>와 같이 의미 변별을 시도하였다. 상징어의 의미는 구조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상징어들에 대한 체계적인 의미 기술 외에, 다음과 같이 의미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상징어들을 변별하기 위해 상대적 가치에 대한 변별 자질 설치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표-15> ‘떠는 모양’을 나타내는 상징어의 의미와 용법

자질 단어	적용범위/용법	함축	동작의 크기 /지속성	관계말 (관용어/파생어)
덜덜	신체의 부분(턱, 이, 다리)	물리적 원인(추위)	큼/지속적	
달달	신체의 부분(턱, 이, 다리)	물리적 원인(추위)	작음/속적	
벌벌	신체의 전체	심리적 원인(무서움)	큼/지속적	벌벌떨다, 벌벌기다
발발	신체의 전체	심리적 원인(무서움)	작음/지속적	발발떨다, 발발기다
부들부들	신체의 부분, 전체	심리적 원인(분함/무서움)	큼/지속적	
바들바들	신체의 부분, 전체	심리적 원인(무서움) 물리적 원인(추위)	작음/지속적	
부르르	신체의 부분, 전체	심리적 원인 (분함)	큼/순간적	
바르르	신체의 부분, 전체	심리적 원인(무서움) 물리적 원인(추위)	작음/순간적	
파르르	신체의 부분 / -인성명사 (얇고, 가벼운 부분) (목소리, 나뭇잎)	심리적 원인(무서움) 물리적 원인(추위)	작음/순간적	주로 ‘떨리다’와 함께 쓰임
후들후들	신체의 부분 (다리)	심리적 원인(무서움) 물리적 원인(피로)	큼/지속적	후들후들거리다
화들화들	신체의 부분, 전체	심리적 원인(무서움) 물리적 원인(피로)	아주큼/지속적	화들화들거리다
우들우들	신체의 부분, 전체	심리적 원인(무서움) 물리적 원인(추위)	큼/지속적	
오들오들	신체의 부분, 전체	심리적 원인(무서움) 물리적 원인(추위)	작음/지속적	
와들와들	신체의 부분, 전체	심리적 원인(무서움) 물리적 원인(추위)	아주큼/지속적	

### 3.3. 동일한 의미영역에 있는 상징어의 변별

상징어는 <표-16>과 같이 동일한 의미 영역에 있는 단어들이 많기 때문에 의미를 변별하는 것이 쉽지 않다.<sup>12)</sup>

<표-16> 육식육신/저릿저릿/짜르르/지끈지끈 (감각-19)아픈 모양

표제어	표준국어대사전	연세한국어사전	고려대한국어사전	조선말의성의태어사전
육신육신	2.머리나 상처 따위가 자꾸 쑤시는 듯이 아픈 느낌.	몸에 탈이 난 데나 상처가 자꾸 쑤사듯이 아픈 모양을 나타냄.	2.머리나 상처 따위가 자꾸 쑤시는 듯 아픈 모양	몸의 탈난 데가 조금씩 자꾸 쑤시는 듯이 아픈 모양
저릿저릿	1. 매우 뜨는 자꾸 저린 듯한 느낌. 2. 심리적 자극을 받아 마음이 순간적으로 매우 흥분되고 떨리는 듯한 느낌.		1.피가 잘 돌지 못하여 몸시 감각이 무디고 자꾸 세게 아린 느낌 2. 심리적으로 자극을 받아 마음이 몸시 흥분되고 떨리는 느낌	살이나 뼈마디가 쑥쑥 쑤시는 듯이 자꾸 아픈 모양
짜르르	1.뼈마디나 몸의 일부가 조금 자린 느낌. '자르르'보다 센 느낌을 준다. 2.움직임이나 열, 전기 따위가 한 지점에서 주위로 조금 빠르게 퍼져 나가는 모양.		뼈마디나 몸의 일부에 찌릿한 느낌이 일어나는 모양	뼈마디나 몸의 일부가 조금 찌릿한 모양
지끈지끈	머리가 자꾸 쑤시듯 아픈 모양. '지근지근'보다 센 느낌을 준다.	머리나 몸의 일부가 계속하여 쑤시 듯이 아픈 모양을 나타냄.	몸이나 머리가 자꾸 몸시 쑤시듯 크게 아픈 모양	머리가 몸시 지근지근 아픈 모양

\*저리다 ㉮ 1. 뼈마디나 몸의 일부가 오래 눌려서 피가 잘 통하지 못하여 감각이 둔하고 아리다. 2. 뼈마디나 몸의 일부가 쑥쑥 쑤시듯이 아프다. 3. 가슴이나 마음 따위가 못 견딜 정도로 아프다.

\*쑤시다 ㉮ 신체 일부가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아픈 느낌이 들다.<sup>13)</sup>

ㄱ. 몸이 [육식육신/\*저릿저릿/\*짜르르/\*지끈지끈] 쑤시다.

ㄱ'. 골치가 지끈지끈 쑤시다.

ㄴ. 손발은 [\*육식육신/\*저릿저릿/\*짜르르/\*지끈지끈] 벌써 힘이 없는 듯하다.

ㄷ. 술이 목을 타고 [\*육식육신/\*저릿저릿/\*짜르르/\*지끈지끈] 흘러내리는 것이 느껴진다.

ㄹ. 그는 화영이의 부드러운 목소리를 듣자 갑자기 가슴이 [\*육식육신/\*저릿저릿/\*짜르르/\*지끈지끈] 울렸다.

ㄱ~ㄹ의 ‘육식육신’, ‘저릿저릿’, ‘짜르르’, ‘지끈지끈’은 ‘쑤시다’, ‘저리다’와 같이 통증을 표현하는 서술어와 어울린다. 「표준국어대사전」의 기술을 보면 ‘쑤시다’는 ‘찌르는 것처럼 아픈 느낌’, ‘저리다’는 ‘감각이 둔해지고 아린 느낌’이다. ㄱ, ㄱ’를 보면 ‘육식육신’과 ‘지끈지끈’의 서술어는 ‘쑤시다’가 어울리며, ㄴ~ㄹ에서 ‘저릿저릿’, ‘짜르르’는 ‘저리다’의 서술어로 기술된다. 또한 ㄱ과 ㄱ’은 둘다 서술어 ‘쑤시다’로 기술되지만, 주어가 ‘몸의 일부’, ‘머

12) 이영주(2015)에서는 동일한 의미영역에 있는 상징어를 변별하는 연구가 진행 중이다.

13)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리'에 따라 쓰임이 달라진다. ㄴ과 ㄷ의 '저릿저릿', '짜르르'는 주로 '저리다' 서술어와 호응하며 주어는 '뻐'나 '신체 일부'가 쓰인다. '저릿저릿'과 '짜르르'의 차이점은 「표준국어대사전」 '짜르르'의 '2. 움직임이나 열, 전기 따위가 한 지점에서 주위로 조금 빠르게 퍼져 나가는 모양'처럼 확장된 의미 내용이 반영된다. 다시 말하면 ㄴ의 '저릿저릿'은 주로 신체 내부의 통증을 표현하지만, '짜르르'는 신체 내부의 통증 외에 ㄹ처럼 심리적인 상황을 빗대어 표현하기도 한다.

<표-17> 감감/가물가물/깜빡깜빡(인지-4) 기억이나 의식이 떠오르거나 떠오르지 않는 모양

표제어	표준국어대사전	고려대한국어사전	연세한국어사전	조선말의성의태어사전
감감	1.멀어서 아득한 모양. 2.어떤 사실을 전혀 모르거나 잊은 모양. '깜깜'보다 여린 느낌을 준다.	1.대답이나 소식 따위가 전혀 없는 상태 2.어떤 일을 잊고 있거나 전혀 모르는 모양		어떤 일을 전혀 모르거나 잊어버린 모양
가물가물	3.의식이나 기억이 조금 희미해져서 정신이 자꾸 있는 듯 없는 듯 하는 모양.	1.의식이나 기억이 조금 흐릿해져서 정신이 약간 드는 듯 마는 듯 하는 모양	3. 희미하게 생각이 들 듯 말 듯한 모양을 나타냄.	의식이 약하고 희미하여 기억이나 정신이 흐리터분한 모양
깜빡깜빡	3.기억이나 의식 따위가 잠깐씩 자꾸 흐려지는 모양. '깜박깜박'보다 센 느낌을 준다.	2.기억이나 의식 따위가 잠깐씩 자꾸 아주 흐릿해지는 모양.	3. 정신이 거듭 잠시 동안 몹시 흐려지는 모양. 기억이 잠시 동안 없어지곤 하는 모양을 나타냄.	기억이나 의식 같은 것이 잠깐동안씩 자꾸 흐려지는 모양

- ㄱ. 친구가 군대에 간 줄은 [감감/\*가물가물/\*깜빡깜빡] 모르고 있었다.  
 ㄴ. 정수는 정신이 [\*감감/가물가물/깜빡깜빡] 흐려져서 아무런 생각도 할 수가 없었다.  
 ㄷ. 그녀에 대한 기억이 [\*감감/가물가물/\*깜빡깜빡] 날 듯 하면서도 나지 않는다.  
 ㄹ. 요새는 손자의 이름도 [\*감감/\*가물가물/깜빡깜빡] 잊곤 한다.

ㄱ~ㄹ의 '감감', '가물가물', '깜빡깜빡'은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 상태를 나타낸다. ㄱ의 '감감'은 '어떤 일을 전혀 모르거나 잊은 모양'으로 '친구가 군대에 간 사실'이 명사구(명사절)로 목적어 자리에 온다. 반면에 ㄴ의 '가물가물'과 '깜빡깜빡'은 '의식'이나 '특정한 기억'처럼 구체적인 주어에 한정되어 쓰인다. ㄷ과 ㄹ에서 '가물가물', '깜빡깜빡'은 둘 다 기억이 나긴 하지만 흐릿한 상태임을 나타내는데, ㄹ의 '깜빡깜빡'은 잠깐씩 기억이 나지 않은 상태로 순간간격을 의미 자질로 ㄷ의 '가물가물'과는 변별이 된다. 또한 '가물가물'은 기억이 나는 상태를 기준으로 흐릿함을 의미하는 반면, '깜빡깜빡'은 기억을 잊어버린 순간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이 다르다. 그러나 좀 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의미 변별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 4. 상징어 연구의 활용 방안과 과제

한국어의 어휘적 특성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점은 다른 어떤 언어보다도 상징어가 발달되어 있다는 점이다. 한국어의 이런 특성은 우리말 표현을 다채롭고 생동감 있게 하는 표현 효과를 나타내며 국어의 조어 기능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제까지 상징어 연구는 음운, 형태, 통사, 의미론적 관점에서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으나, 상징어가 한국어에서 차지하는 기능부담량에 비해서는 중요도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면이 있다. 앞으로 한국어 상징어에 대한 총체적인 연구가 마무리된다면 국어 어휘범주로서 상징어에 대한 체계적인 기술에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국어 조어론 분야와 품사론 분야의 정밀한 문법 기술에도 기여할 것이다. 상징어의 개별 의미 분석을 전제로 한 의미 영역의 분류는 다른 언어에도 만족할 만한 성과물이 없다. 이런 점에서 이 글의 궁극적 목표인 한국어 상징어의 의미영역 분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개별언어학로서 한국어학의 발전에도 기여도가 있다고 본다. 한국어의 큰 특징 가운데 하나인 상징어를 대상으로 한 상징어 전문 사전이 북한, 연변, 일본에서는 이미 출판되었지만 정작 한국에는 아직 전문사전이 없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이번 연구가 마무리 되면 비로소 한국어 상징어 전문사전의 출판이 가능할 것이다.

개별 상징어의 의미 분석과 의미 갈래 연구는 상징어의 의미 영역 분류 사전 편찬 작업의 토대가 될 것이며, 우리말의 아름다움과 문학적 표현 효과를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분야에도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실제로 외국인들은 상징어의 쓰임과 용법을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 제법 한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는 한국어 학습자도 상징어에 대한 활용은 피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이유는 상징어에 대한 뜻풀이 정보만 갖고는 상징어를 제대로 사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별 상징어의 쓰임의 제약 정보 제공과 낱말망을 통한 어휘 교육은 효율적인 학습 전략이다. 또 기존의 국어사전의 표제어 중 상징어에 대한 세밀한 정보를 보완함으로써 국어사전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에도 기여하게 된다.

한국어 상징어의 다양한 문법적, 의미론적 특성을 파악한 결과는 문법교육에 활용할 수 있다. 한국어 상징어의 어휘 내적·외적 관계는 다른 어휘에 비해 체계적이고 규칙적으로 발달해 있어, 한국어의 어휘 구조에 대한 체계적인 특성을 이해하는 데에 좋은 자료가 된다. 그러므로 학교 교육에서 탐구학습의 대상을 문법범주에 국한시키지 않고,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상징어 자료를 탐구학습에 활용함으로써 탐구학습의 자료 개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상징어에 대한 학문적 연구 결과가 교육현장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하여야 하며, 학문과 교육현장의 연계성에 대한 이와 같은 관심은 문법 교육의 유용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한국어 상징어의 유의관계에 대한 분석적 연구방법은 국어 어휘의 유의어 변별에도 도움을 줄 것이며, 중등학교의 어휘교육과 국어사전을 활용한 수업에도 활용될 수 있다.

■ 참고문헌

1. 논문

- 강우순(1999), “만화에 나타난 의태어 분석”,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999 여름학술대회 발표요지.
- 강우순(1999), “시사만화에 나타난 의태어의 기능 연구”, 1999 한국어교육 9차 학회 발표 모음,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강현규(1968), “음성상징과 sense 및 meaning 분화에 의한 어휘 확장 연구”, 『국어교육』 11, 한국국어교육연구회, 124-150쪽.
- 강현규(1992), “Sonagraph의 formant 비교에 의한 한국어 자음·모음의 음성상징 고찰”, 『어학연구』 창간호, 공주대학교 어학연구소.
- 권기양(1977), “Some notes on Reduplication in Korean.”, 『언어학』 21, 한국언어학회, 5-20쪽.
- 권희상(2001), “음성상징과 언어 기원”, 『언어연구』 17-2, 한국현대언어학회, 5-38쪽.
- 권희상(2005), “언어의 도상성”, 『언어연구』 21-1, 한국현대언어학회, 1-33쪽.
- 김강출(1998), “-거리다, -대다에 대한 일고찰”, 『국민어문연구』 6, 국민대 국어국문학연구회, 1-16쪽.
- 김강출(1999), “상징어의 통사론적 특성에 대하여”, 『국민어문연구』 7, 국민대 국어국문학연구회, 1-20쪽.
- 김강출(2001), “의태어의 어원적 분석에 대한 시론”, 『국어 연구의 이론과 실제』, 이광호 교수 회갑기념 논총 간행위원회 편, 태학사.
- 김규철(1999), “한국어 작은말 큰말에 나타난 음성상징자질에 대하여”, 『육사논문집』 55, 육군사관학교, 217-242쪽.
- 김규철(1999), “‘빙글:빙글’에 나타난 도상성에 대하여”, 『오늘의 문법, 우리를 어디로』, 한신문화사, 129-144쪽.
- 김계곤(1970), “현대 국어 꾸밈씨의 합성법”, 『한글』 146호, 한글학회, 333-364쪽.
- 김계곤(1983), “현대 국어의 조어법 연구 - ‘하다’ 따위 풀이씨의 됴됨이”, 『한글』 221, 한글학회, 73-94쪽.
- 김광해(1982), “자음교체에 의한 어휘분화 현상에 대하여”, 『국어교육』 42, 한국국어교육연구회, 137-161쪽.
- 김동소(1986), “디르크 휠들링그著 [한국어 의성.의태어 연구]”, 『국어국문학』 95, 국어국문학회.
- 김명희(1969), “한국시에 나타난 의성어의 음성상징체계”, 『한국어문학연구』 9, 이화여자대학교, 91-127쪽.
- 김문기(1996), “시늉말 만들기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33, 부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쪽145-151쪽.
- 김미옥(2004), “초등학교 국어과 흥내말 지도 방안”, 『어문학교육』 28, 한국어문교육학회, 39-75쪽.
- 김민정(2001), “蔓橫淸類 의태, 의성어의 변모와 수용 양상”, 『성균어문연구』 36, 성균관대학교 어문학회, 39-91쪽.

- 김병순·조진관(2000), “광고 언어의 음성상징에 대한 연구”, 『논문집』 24, 인덕대학교, 115-125쪽.
- 김봉모(2006), “김정환 소설의 묘사적 어휘 연구”, 『한국문학논총』 43, 한국문학회, 291-319쪽.
- 김석득(1995), “우리말의 상징성 연구 - 음소 상징어와 음소 상징을 가진 말/말맛/파생, 합성 문제”, 『한글』 229, 한글학회, 81-132쪽.
- 김영희(1975), “한국어의 거듭상”, 『한글』 156, 한글학회, 253-272쪽.
- 김종택(1968), “상징어의 연구”, 『논문집』 3, 대구교육대학, 77-87쪽.
- 김중섭(1996), “한국어 의태어의 어원 연구 방법론”, 『고향논집』 17, 경희대학교, 9-31쪽
- 김중섭(1997), “한국어 신체 관련 의태어 형성 연구”, 『경희어문학』 17, 경희대학교, 107-127쪽.
- 김중섭(1997), “유음중복 의태어의 의미 구조 연구”, 『논문집』 26, 경희대학교, 259-273쪽.
- 김중섭(1998), “유음중복 의태어의 의미 구조 연구”, 『어원연구』 1, 한국어원학회, 127-145쪽.
- 김중섭(2001),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의성어·의태어 교육 방법 연구”, 『한국문화연구』 4, 경희대학교 민속학연구소, 177-194쪽.
- 김지홍(1986), “몇 어형성 접미사에 대하여 - 특히 ‘-이다-, -대다, -거리다, -하다, -Ø’의 관련을 중심으로”, 『백록어문』 창간호, 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 국어교육연구회, 55-81쪽.
- 김진해(2001), “상징부사의 의미 기술 연구 -‘딱’을 중심으로”, 『한말연구』 9, 한말연구학회, 77-101쪽.
- 김진해(2003), “상징부사의 비서술성에 대한 연구”, 『한국어학』 19, 한국어학회, 91-112쪽.
- 김진해(2005), “한국어 의성, 의태어의 범주화와 능격성 연구”, 『어문연구』 33, 한국어문교육연구회, 83-102쪽.
- 김진해(2006), “사건 의미론적 관점에서 본 상징부사의 서술성 해석”, 『담화와 인지』 13-3, 담화인지언어학회, 1-23쪽.
- 김창식(1985), “접용어의 구조적 양상”, 『문학과 언어』 6, 문학과 언어연구회, 3-18쪽.
- 김태자(1963), “춘향전에 나타난 의성어 의태어에 대한 소고”, 『청성문학』 3, 숙명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 김현자(1984), “청록과 시에 나타난 의성·의태어 연구”, 『이화어문논집』 7,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어문연구소, 29-55쪽.
- 김홍범(1994), “한국어 상징어의 문법적 특성”, 『우리말 연구』 1, 우리말학회, 139-173 쪽.
- 김홍범(1995), “한국어 상징어의 통사의미론적 연구”, 『애산학보』 17, 애산학회, 33-70쪽.
- 김홍범(1995), “한국어의 상징어 연구 - 형태론적 특성을 중심으로”, 『한글』 228, 한글학회, 219-257쪽.
- 김홍범(1996), “한국어 상징어의 음운론적 특성”, 『한국말 교육』 7, 국제한국어교육학회, 31-53쪽.
- 김홍범(1998), “한국어의 상징어 연구”, 『새국어교육』, 한국 국어교육 연구회, 103-127쪽.
- 김홍범(1998), “한국어 상징어 사전의 편찬 방안”, 『한글』 239, 한글학회, 137-159쪽.
- 김홍범·박동근(2001) “신문 기사 제목에 쓰인 상징어의 분석”, 『배달말』 29, 배달말학회, 53-70쪽.

- 김홍범·박동근(2001) “한국어 상징어 사전편찬의 실제”, 『사전편찬학 연구』 11-2,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 203~220쪽.
- 김홍범(2002), “상징어의 의미 영역 분류 사전 편찬 방안”, 『한말연구』 11, 한말연구학회, 133~154쪽.
- 김홍범(2007), “상징어 사전에서 관용어 처리 문제”, 『한말연구』 21, 한말연구학회, 29~45쪽.
- 김홍범(2008), “상징어의 의미 기술 모형 연구”, 『청람어문교육』 38, 청람어문교육학회, 341~366쪽.
- 김홍범(2009), “상징어를 활용한 탐구학습”, 『국어교육연구』 44, 국어교육학회, 281~300쪽.
- 김홍범·이영주(2009), “상징어의 의미 영역 분류 연구(1)－소리 상징어를 중심으로”, 『한말연구』 24, 한말연구학회, 81~114쪽.
- 김홍범·이영주(2011), “상징어의 의미 영역 분류 연구(2)－사람과 관련하여 쓰이는 의태어를 중심으로”, 『한국사전학회』 18, 한국사전학회, 39~72쪽.
- 김홍범·이영주(2012), “상징어의 의미 영역 분류 연구(3)－감각, 감정, 생각을 나타내는 의태어를 중심으로”, 『한말연구』 31, 한말연구학회, 145~171쪽.
- 남종현(1993), “중세국어의 의성의태어”, 『새국어생활』 3-2, 국립국어연구원, 93~115쪽.
- 리의도(1981), “한국 의성어의 음운 통계 시론 (I)”, 『국제어문』 2, 국제어문연구회, 147~173쪽.
- 목정수·연제훈(2000), “상징부사(의성·의태어)의 서술성과 기능동사”, 『한국어학』 12, 한국어학회, 89~118쪽.
- 박동근(1983), “유음첨어의 형태구조 연구”, 『논문집』 1, 전주대학교 교육학부, 67~79쪽.
- 박동근(1992), “‘상징소’에 대하여”, 『한국어의 토씨와 씨끝』, 서광학술자료사.
- 박동근(1995), “흥내말 체계의 ‘빈칸’ 연구”, 『한말연구』 1, 한말연구모임, 103~138쪽.
- 박동근(1997), “흥내말의 낱말 만들기”, 『한글』 236, 한글학회, 137~160쪽.
- 박동근(1999), “한국어 흥내말의 의미 구조 연구”, 『건국어문학』 23~24, 건국대학교 국어국문학연구회, 363~388쪽.
- 박동근(2000), “웃음표현 흥내말의 의미 기술”, 『한글』 247, 한글학회, 159~189쪽.
- 박동근(2004), “구어 흥내말의 계량적 연구”, 『한말연구』 15, 한말연구학회, 167~186쪽.
- 박동근(2005), “울음표현 흥내말의 연구”, 『한글』 267, 한글학회, 141~175쪽.
- 박동근(2005), “새 울음 흥내말의 형태와 음성상징”, 『언어학』 41, 한국언어학회, 101~126쪽.
- 박동근(2007), “동화 텍스트의 흥내말 사용 양상”, 『동화와번역』 14, 동화와번역연구소, 97~125쪽.
- 박동근(2007), “한국어 화자의 음성상징에 대한 인지 실험 - 음높이 상징과 음색 상징을 중심으로”, 『한말연구』 21, 한말연구학회, 67~86쪽.
- 박동근(2008), “만화 텍스트의 흥내말 사용 양상”, 『겨레어문학』 41, 겨레어문학회, 33~58쪽.
- 박동근(2010), “관용표현의 의미 구조와 흥내말 변형 제약”, 『겨레어문학』 44, 겨레어문학회, 179~199쪽.
- 박동근(2011), “동시 텍스트의 흥내말 사용 양상 연구”, 『한말연구』 29, 한말연구학회,

97~117쪽.

- 박동근(2012), “한국어 교육에서 흉내말 교육에 대한 연구사적 분석”, 『문법교육』 17, 한국문법교육학회, 67~96쪽.
- 박동근(2013), “한국어 흉내말의 관련어망 설계를 위한 기초 연구”, 『반교어문』 35, 반교어문학회, 165~193쪽.
- 박동근(2014), “흉내말의 어말 자음 교체에 대한 기능적 연구”, 『한민족문화연구』 47, 한민족문화학회, 159~193쪽.
- 박동근(2014), “국어사전에서 흉내말의 다의어·동형어 판별 기준”, 『겨레어문학』 53, 겨레어문학회, 237~261쪽.
- 박은애(2008.), “의성어와 그 번역에 대하여”, 『중국조선어문』 2008년 제6호, 길림성민족사무위원회, 29~33쪽.
- 박은용(1959), “Altai 어족에 나타난 모음상징에 대하여”, 『어문학』 4, 어문학회, 38~59쪽.
- 박창원(1993), “현대 국어 의성 의태어의 형태와 음운”, 『새국어생활』 3-2, 국립국어연구원, 16~53쪽.
- 박철주(2007), “신조 의태어의 실태와 문제”, 『한국어학』 35, 어문학회, 305~333쪽.
- 배현숙(2006),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의 의성어·의태어 교수법”, 『이중학언어학』 31, 이중언어학회, 97~121쪽.
- 서상규(1993), “현대 한국어의 시능말의 문법적 기능에 대한 연구 - 풀이말과의 결합관계를 중심으로”, 『朝鮮學報』 149, 朝鮮學會
- 서상규(1995), “음직씨의 시능말 취하기”, 『대동문화연구』 30, 성균관대학교, 391~410쪽.
- 서정옥(1994), “국어 시능말(의성·의태어) 사전 편찬의 한 방안”, 『계명어문학』 8, 계명어문학회, 23~36쪽.
- 성기옥(1993), “의성어 · 의태어의 시적 위상과 기능”, 『새국어생활』 3-2, 국립국어연구원, 116~133쪽.
- 손남익(1998), “국어 상징부사어의 공기어 제약”, 『한국어 의미학』 3, 한국어의미학회, 119~134쪽.
- 송문준(1988), “소리흉내말의 씨가름에 대하여”, 『한글』 200, 한글학회, 139~163쪽.
- 손용주(1996), “우리말 색상어의 의미 상징성에 대하여”, 『어문학』 54, 한국어문학회, 127~146쪽.
- 손용주(1997), “현대국어 음소교체 색상어의 형태론적 유형”, 『대국어문론총』 15, 대국어문학회, 83~104쪽.
- 신중진(1999), “의성어의 조어원리와 단어형성 참여 양상”, 『형태론』 1-1, 도서출판 박이정, 61~73쪽.
- 신중진(2001), “의성의태어 사전 처리와 그 방향 - 국립국어연구원의 <표준국어대사전>을 중심으로”, 『관악어문연구』 26,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65~291쪽.
- 신현숙(1986), “의미분석의 방법과 실제”, 한신문화사, 1986.
- 안인숙(2006), “상징어의 통시적 연구 - 변화 양상을 중심으로”, 『어문논집』 34, 중앙어문학회, 105~123쪽.
- 안인숙(2007), “상징어의 형태·의미 연구”, 『어문논집』 36, 중앙어문학회, 5~43쪽.
- 안인숙(2008), “의성 의태어의 공기 관계”, 『어문논집』 38, 중앙어문학회, 57~93쪽.
- 양은순(2002), “출판문화에 나타난 의성/의태어가 청각장애의 어휘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

- 한 연구”, 『재활복지』 6-1, 한국장애인재활협회 부설재활연구소, 68-94쪽.
- 양태영(2000), “시사만화 텍스트의 언어학적 분석”, 『한국어 의미학』 6, 139~169쪽
- 양현숙(1995), “흥내말의 형태 구조 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어휘 지도 방안 : 1,2학년 국어과 교과서(제6차)를 중심으로”, 『국어교육연구』 10, 춘천교육대학교 국어교육학회, 191~216쪽.
- 엄용남(2004), “한국어의 음성상징성과 리듬”, 계명대학교 개교 50주년 국제한국학 학술대회.
- 엄용남(2006), “음성상징어의 어휘적 구조와 특징”, 『인문과학연구』 11, 가톨릭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03~122쪽.
- 연규동(2003), “조음 위치에 따른 우리말 배열사전 편찬을 위한 기초적 연구-의성어 의태어를 중심으로”, 『언어연구』 23, 서울대학교, 1~30쪽.
- 연규석(2007), “터키어에서의 오노마토피어 개념과 정의”, 『중동연구』 25-2,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동연구소, 431~459쪽.
- 왕진봉(2007), “한국어 의태어의 특성”, 『동방학술논단』, 總第3期 2007年 第1期 (2006年 3月), 124~130쪽.
- 우인혜(1990), “시능 부사의 구문론적 제약”, 『한국학 논집』 17, 한양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85~350쪽.
- 윤병달(2000), “의미의 조밀성과 음의 도상성”, 『언어연구』 16, 한국현대언어학회, 61~80쪽.
- 윤석민(2002), “의미 현상과 비의미론적 정보 : 웃음 상징어의 의미 기술을 중심으로”, 『텍스트언어학』 12, 한국텍스트언어학회, 21~68쪽.
- 윤효식(1986), “번역에서의 의성의태어 처리”, 『중국조선어문』 1986년 2월호, 길림성민족사무위원회, 46~48쪽.
- 윤희원(1993), “의성어 · 의태어의 개념과 정의”, 『새국어생활』 3-2, 국립국어연구원, 3~15쪽.
- 이경호(2007), “양상부사 '슬슬'의 의미 분석”, 『한국어 의미학』 23, 한국어 의미학회, 99~131쪽.
- 이극로(1938), “사전 주해난”, 『한글』 6-7, 한글학회, 332~345쪽.
- 이근수(1971), “모음의 의미교체 범주 -중기국어를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54, 국어국문학회, 93~132쪽.
- 이문규(1996), “음운교체와 상징어의 어감분화”, 『어문학』 57, 한국어문학회, 173~198쪽.
- 이문규(1996), “상징어의 형태 확장”, 『한글』 234, 한글학회, 43~68쪽.
- 이민우(2005), “상징부사의 의미적 특성에 대한 연구 -거리다.대다/이다/하다'와의 결합관계를 중심으로”, 『어문연구』 33, 한국어문교육연구회, 59~82쪽.
- 이승녕(1954), “음성상징론”, 『서울대 문리대학보』, 2-2,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학생회, 12~20쪽.
- 이승녕(1958), “음성상징재론”, 『서울대 문리대학보』, 7-1,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학생회, 9~15쪽.
- 이승녕(1978), “국어 음성상징론에 대하여-특히 중세어 모음의 음색 순위의 재구와 대립의 체계를 주로하여”, 『언어』 3-3, 한국언어학회, 1~18쪽.
- 이영길(2001), “음성상징어 연구”, 『인문논총』 8, 창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55~67쪽.

- 이영길(2002), “음소상징 연구”, 『현대영미어문』 20-1, 현대영미어문학회, 249~266쪽.
- 이영길(2002), “한국어 단음절 상징어의 음소상징 연구”, 『현대영미어문』 20-3, 현대영미어문학회, 11~27쪽.
- 이영석(1994), “한국어 상징음의 모음조화: 비단선적 음운론적 분석”, 『언어학』 16, 한국언어학회, 121~138쪽.
- 이영주(2006), 유의어 지도 방법 연구, 한남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은지(2008), “최근세국어의 상징어 연구-신소설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어학』 38, 247~268쪽.
- 이은지(2008), “신소설의 상징어 연구(2)”, 『언어정보와 사전편찬』 22,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109~135쪽.
- 이훈종(1987), “의성 의태어의 표현의 묘미”, 『국어생활』 10, 국어연구소, 107~113쪽.
- 임규홍(2006), “한국어 첫소리 [口]과 [ㅂ] 낱말의 의미 특성”, 『우리말글』 37, 우리말글학회, 197~227쪽.
- 임지선(2012), 한국어 상징어 교육을 위한 의미영역 분류 방안, 한남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장성균(1938), “조선말의 풍부성”, 『한글』 6-9, 한글학회, 26~28쪽.
- 전명실(2008), “조선어 의성어의 어음-형태론적 특성에 대한 고찰”, 『중국조선어문』 2008년 제1호, 길림성민족사무원위원회, 20~26쪽.
- 전범중(1991), “의태어에 관한 일고찰”, 『대신대학 논문집』, 11, 대신대학교, 3~18쪽.
- 전정례(1973), “한국현대시의 감각어연구 -상징어, 색채어를 중심으로”, 『선청어문』 4, 서울사대 국어교육과, 105~115쪽.
- 정두환(1999), “Sound Symbolism and Morpheme(음성상징과 형태소의 관계)”, 『논문집』 9, 경주대학교, 503~527쪽.
- 정승혜(1997), “국어의 중첩에 대한 이론적 설명”, 『한국어학의 이해와 전망』, 박이정, 319~342쪽.
- 정영엽(1962), “홍부전에 나타난 의성, 의태어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연구』 4, 이화여자대학교, 201~215쪽.
- 정인승(1938), “어감 표현상 조선어의 특징인 모음 상태 법칙과 자음 가세법칙”, 『한글』 6-9, 한글학회, 10~25쪽.
- 정철(1970), “음성의 감정 표현의 기능의 근거”, 『어문논총』 4-5, 경북대학교, 71~78쪽.
- 정철주(1986), “국어의 첩어의 분석 -의성·의태어를 중심으로”, 계명어문학 2, 계명어문학회, 65~87쪽.
- 조규설(1958), “첩용부사의 고찰”, 『어문학』 3, 어문학회, 71~95쪽.
- 조규설(1958), “첩용부사의 음상징”, 『국어국문학 연구』 2, 청주대학교, 71~95쪽.
- 조남호(1993), “국어 사전에서의 의성 의태어 처리”, 『새국어생활』 3-2, 국립국어연구원, 73~92쪽.
- 조재수(2000), “국어연구원의 <표준국어대사전>과 맞춤법 : 시늉말 뿌리에 ‘-이’가 붙어서 된 명사 적기”, 『한말글연구』 6, 한말글연구회, 18~21쪽.
- 조창균(2003), “상징어의 어휘적 정보와 활용-초등학생용 읽을거리의 계량 연구”, 『국어교육』 110, 한국어교육학회, 149~179쪽.
- 조창균(2005), “의성어 의태어, 무엇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언어학』 13-3, 대한언어



- 학회, 61~85쪽.
- 주경희(2007.12), “교과학적 변환의 필요성과 방법-의성어 의태어를 중심으로”, 『배달말』 41, 배달말학회, 255~278쪽.
- 주경희(2007.12), “교사용 지도서 내용 구성 방법-의성어 의태어를 중심으로”, 『국어교육학연구』 30, 539~564쪽.
- 채완(1987), “국어 음성상징론의 몇 문제”, 『국어학』 16, 국어학회, 277~300쪽.
- 채완(2000), “국어 의성어 의태어 연구의 몇 문제”, 『진단학보』 89, 진단학회, 207~221쪽.
- 채완(1993), “의성어·의태어의 통사와 의미”, 『새국어생활』 3-2, 국립국어연구원, 54~72쪽.
- 채완(2000), “시조와 판소리 사설의 의성어 연구”, 『한민족문화연구』 7, 한민족문화학회, 17~34쪽.
- 채완(2001), “19세기 국어의 의태어에 대한 고찰”, 『인문과학연구』 9, 동덕여자대학교, 5~25쪽.
- 채완(2002), “의성어 의태어의 텍스트별 특성”, 『국어국문학』 132, 국어국문학회, 121~151쪽.
- 채완(2006), “의성어와 의태어의 차이”, 『새국어생활』 16-4, 국립국어원, 125~131쪽.
- 채진수(1974), “형용사의 음상에 대하여”, 『어문논총』 창간호, 청주대학교 국어국문학회, 73~89쪽.
- 최기호(1999), “한국어와 몽골어, 만주어의 계통 연구-의성어 의태어”, 『몽골학』 8, 한국몽골학회, 97~124쪽.
- 최동진(1997), “시냇물씨씨의 구조와 특성”, 『국어국문학』 34, 부산대학교, 319~338쪽.
- 최용환(1997.12), “상징어의 통사적 정보에 대한 해석”, 『배달말』 22, 배달말학회, 101~120쪽.
- 홍승우(1982), “언어는 단순히 자의적 체계인가?”, 『논문집』 15, 한국외국어대학교, 359~377.
- 황규삼(2005), “문헌에 나타난 동물의 울음소리에 대한 일고찰-중음적 용법의 의성어를 중심으로”, 『동아시아고대학』 12, 동아시아고대학회, 141~167쪽.
- 青山秀夫(1972), “現代朝鮮語の擬聲語”, 『朝鮮學報』 65, 朝鮮學會, 167~256쪽.
- 青山秀夫(1974), “朝鮮語の派生擬態語試考”, 『朝鮮學報』 72, 朝鮮學會, 187~268쪽.
- 青山秀夫(1992), 象徵語の 一部の 派生接尾辭について, 『朝鮮學報』 145, 朝鮮學會, 25~32쪽.
- 櫻井恵子(2003), “擬音語・擬態語の習得に關する研究 :OPIのレベル判定との對應を中心に”, 『일본학보』 54, 한국일본학회, 139~150쪽.
- 澤田信恵(1998), “日本語・韓國語における 擬音語(擬聲語・擬態語)の音韻的比較”, 『동일어문연구』 13, 동덕일어일문학회, 21~37쪽.
- 澤田信恵(2004), “日本語と韓國語の感覺オノマトベ語彙の意味分析 -觸覺を表すオノマトベを中心に”, 『일본학보』 61, 한국일본학회, 137~139쪽.
- 澤田信恵(2005), “日本語・韓國語の「かたさ」を表すオノマトベの意味分析 - シンタグラマティックな側面から”, 『일본학보』 64, 한국일본학회, 59~73쪽.
- 澤田信恵(2005), “「やわらかさ」を表す日韓擬態語の意味分析 -語が持つ意味を中心に”, 『일본학보』 65, 한국일본학회, 119~131쪽.

- 澤田信恵(2008), “日本語,韓國語の「觸覺」を表す擬態語の意味領域の考察”, 『일본학보』 76, 한국일본학회, 45~55쪽.
- 澤田信恵(2007), “日本語,韓國語「濕り氣,水分」を表す擬態語のプロトタイプの考察”, 『일본학보』 70, 한국일본학회, 69~81쪽.
- 上田崇仁(1998), “引用構文と擬聲語擬態語の位置づけに關する一考察”, 『일본어문학』 5, 일본어문학회, 75~91쪽.
- 矢野謙一(1997), “單音節擬聲擬態語の主要部と共感覺”, 『문학·언어학논집』 4-2, 熊本学園大学, 67~86쪽.
- 篠田隆治(1937), “小學校普通學校 國語讀本中の擬聲語・擬態語に就いて [一]”, 『朝鮮の教育研究』 919, 朝鮮初等教育研究會, 22~27쪽.
- 馬仲可(2005), “韓漢‘模倣語(흉내말)’比較研究”, 『중국학논총』 19, 한국중국문화학회, 57~77쪽.
- 伊東真美(2009), “韓国語のオノマトペと接尾辞の關係”, 『일본학 연구』 26,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471~490쪽.

## 2. 사전류, 어휘 모음집

- 박용수(1989), 『우리말 갈래 사전』, 한길사.
- 손낙범(1978), 『한일·관용어 사전』, 국제대학 인문과학 연구소.
- 연변언어연구소(1982), 『조선말 의성 의태어 분류 사전』, 연변인민출판사.
- 이기원(2007), 『한국어의 의성어와 의태어』, 한국문화사.
- 조선어연구회(1971), 『조선말 의성어 의태어 사전』, 學友書房, 東京.
- 青山秀夫(1990), 『朝鮮語象徴語辭典』, 大學書林, 東京.

## 【 제 2 분 과 】

# 문법범주를 활용한 한국어교육 문법 항목 선정

-부정법, 피동법을 중심으로-

김용경(경동대)

## 차 례

1. 머리말
  2. 문법범주를 활용한 문법 항목 설정의  
필요성과 기준 설정
  3. 부정법에서의 문법 항목 선정
  4. 피동법에서의 문법 항목 선정
  5. 맺음말
- 참고문헌

## 1. 머리말

1960년대 이후 교수법에서는 언어가 실제로 사용되는 맥락을 중시하는 기능 중심, 의미 중심의 교육이 강조되었다. 이 중 대표적인 교수법이 의사소통식 교수법과 과제중심 교수법이다. 현재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도 가장 많이 활용되는 의사소통식 교수법은 문법을 가능하면 교육하지 않으며, 교육하더라도 자연스러운 상황을 통하여 제시하며 학습자가 스스로 터득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이유로 명시적인 문법 교수의 무용론이 제기되기도 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지나치게 유창성만을 강조하는 방식으로는 모국어 화자와 같은 유창한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시키기가 어렵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sup>1)</sup> 오히려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라도 문법 교육이 체계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제열(2001)에서는 한국어 교육에서의 문법 체계를 국어 교육과 분리하여 보고 기능 중심의 문법 범주 항목과 의미 중심 문법 범주 항목, 그리고 기초 문법 요소를 포함시킨 문법 체계를 제시하고 있다. 우형식(2010)에서는 의미·기능적 요인과 한국어의 교착적 성격을 고려하여 체계를 세우고자 했다. 이와 함께 언어학에서 축적된 이론을 한국어 문법 교육에 적용시켜 보고자 한 연구도 있다. 허용(2008)에서는 한국어 교육에서의 대조언어학의 의의와 한계점을 분명히 인식하여 한국어 교육 문법 체계를 세울 때, 대조언어학의 차원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보편성’과 ‘유표성’의 개념을 도입하여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 있다. 송재목(2011)에서는 언어유형론적 분석을 통해 문법현상에 대한 패턴과 변수를 파악하게 되면 특정언어의 차이점과 공통점만을 보여주는 대조언어학에 의한 ‘주관적인 이해’가 아니라 한국어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하였다.

1) 외국의 연구 중, Higgs and Clifford(1982), J. Frodsen(1988), Ellis(1991), Brown(1994) 등이 국내에 소개되었고, 국내에서도 김정숙(1998), 김유정(1998), 김제열(2001), 김재욱(2003), 성기철(2002), 주세형(2005), 박동호(2007), 허용(2008), 강현화(2009), 민현식(2009), 김용경(2011, 2014) 등 다수의 연구가 문법 교육의 효용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실제 교육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적절한 문법 항목들을 선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문법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학습 내용이 되는 문법의 단위를 잘 구분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문법 항목은 단일한 것도 있고, 복잡한 것도 있다. 또 보편적이고 기본적인어서 우선적으로 가르쳐야 할 항목이 있고, 부차적이거나 덜 중요한 것이어서 나중에 가르쳐야 할 항목들도 있다. 특히 의사소통 능력이 중심이 되면서 가르쳐야 할 문법 항목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적절한 문법 항목의 선택이 더욱 중요하다.

성기철(2002:150-154)에서는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문법 또는 문법 요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문법 요소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심도 있게 다루어지지 않았다고 비판하면서 체계적인 문법 요소 선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문법 요소를 선정할 때에는 ‘사용 빈도’와 ‘중요도’가 가장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렇지만 문법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선정하고 있지는 않다.

김유정(1998:29~31)에서는 통일된 문법 항목을 선정하는 것이 왜 필요한가를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문법 항목을 선정할 때에 유의할 점과 문법 항목을 단계적으로 제시할 때 고려할 점을 각각 네 가지씩 들고 있다.<sup>2)</sup> 그러나 이 연구도 문법 항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고 있다.

민현식(2009)에서는 문법 요소의 위계화 논의는 문법 내적 논리의 토대 위에서 외적 변수에 따라 위계화의 조정 작업을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존에 출간된 국내외의 교재를 비교하면서 음운(문자, 표기, 발음), 문장 영역(조사, 비종결어미, 종결어미, 높임법, 피사동법)의 위계화를 비교적 세밀하게 논하고 있다. 다만, 세부 문법 요소의 위계화 기준이 분명하지 않다.

김제열(2001)에서는 기존에 국어학에서 사용하는 문법 범주 구분과 다른 한국어 교육 문법 체계가 다시 수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1급 문법 항목을 선정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분류 기준으로 사용된 기능과 의미는 한 문법 항목이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이어서 이 기준으로 명백하게 구분하기는 어렵다. 또 문법 체계를 하위분류하는 과정에서 분류 기준이 명료하지 못하고 분류된 하위 항목이 서로 겹치는 경우도 있다.

한송화(2006)에서는 Graham(1996)에서 제안한 논의를 바탕으로 형태와 의미보다는 기능 중심의 문법 체계를 제안하였다. 그리고 ‘개념 나타내기, 메시지 만들기, 메시지로 화자의 태도 나타내기, 메시지 복합하기, 텍스트 및 담화 구성하기’ 등의 다섯 가지 상위 범주 기능으로 구분하였다. 이 연구는 의사소통 기능을 중시한다는 측면에서는 새로운 시도로 보이나 교사나 학습자들이 이러한 문법 체계를 쉽게 받아들일지는 의문이다.

이상에서 많은 연구들이 한국어 교육 문법 체계를 구축하려고 노력해 왔으며, 구체적인 문법 항목을 어떻게 선정하고 배열할 것인가를 고민해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필자는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한국어 교육 문법 체계를 세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왔고, 이러한 체계 아래 실제 교육 현장에서 다루어질 문법 항목을 잘 선정하고 배열할 수 있는 문제를 논의해 왔다.

이 연구는 이 중에서 문법 항목을 선정하는 기준을 세워보고, 문법범주들을 활용하여 부정

2) 문법 항목을 선정할 때에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국어 문법 체계 속에서 국어의 전체적인 구조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둘째는 문법 목록의 자료 조사는 국어사전과 문법서, 실제 자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모든 문법 요소들이 다루어질 필요는 없다. 넷째, 언어학적 지식이 요구된다. 문법 항목을 단계적으로 제시할 때 고려할 내용으로는 1)사용 빈도, 2) 난이도, 3)일반화 가능성, 4) 학습자의 기대 문법 등을 들고 있다.

법과 피동법을 실현하는 문법 요소들을 직접하게 선정하고 배열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 2. 문법범주를 활용한 문법 항목 설정의 필요성과 기준 설정<sup>3)</sup>

### 2.1. 문법 항목 설정의 필요성

전통적으로 국어문법론은 그 연구대상을 형태론과 통사론으로 각기 구별하여 설명해 왔다. 이 중에서 형태론은 형태론적 구성을 이루는 과정을 연구하고, 형태소, 단어 등이 연구의 대상이 된다. 통사론은 형태론적 구성이 통사론적 구성을 이루는 과정을 연구하고, 구, 절, 문장 등이 연구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연구 방법론은 형태 중심으로 설명될 수밖에 없으며, 공통되는 기능이 발견되는 형태가 있으면 형태소 분석을 통해 각각의 형태에 맞는 기능에 따라 문법범주를 설정한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어미나 조사의 형태나 구조 등을 파악하기 위해 형태소 중심의 분석이 이루어지면서 문법 요소를 쪼개서 보려는 경향이 많았다. 이와는 다르게 한국어 교육 문법에서는 형태보다는 사회적 맥락이나 언어적 담화 맥락을 파악하기 위해서 문법 요소의 의미와 기능을 중시하고 있다. 따라서 문법 단위를 분석적으로 파악하기보다는 같은 의미나 기능을 실현할 때는 통합적으로 제시하려는 경향이 강하다.<sup>4)5)</sup>

그런데 문법범주를 활용하면 문법 항목을 이렇게 분석적으로 배열하지 않아도 된다. 문법범주를 활용하면 형태론적 구성으로 이루어진 문법 요소나 통사론적 구성으로 이루어진 문법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한국어 교육 문법 체계를 제시할 수 있다.<sup>6)</sup>

사동법을 예로 들어 설명해 보기로 한다. 한국어의 사동법을 실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먼저, 어휘적으로 실현하는 방법으로 ‘시키다’, ‘보내다’ 등이 있다. 다음은 파생적 방법이 있다. 동사나 형용사에 ‘-이-, -히-, -리-, -기-, -우-, -구-, -추-’ 등의 접미사를 결합하는 방법이다. 마지막으로는 통사적 방법이 있다. ‘-게 하-’, ‘-게 만들-’, ‘-도록 하-’, ‘-도록 만들-’ 등이 있다.

- 3) 문법범주를 활용한 한국어교육 문법 체계나 교육 문법 항목 설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김용경(2011, 2014)에서 이미 제시한 바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연구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간략하게 제시하기로 하겠다.
- 4) 최영환(1991:5)에서는 국어 피동에 대한 논의를 할 때, 피동을 표현하는 문법범주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하면서, 피동이란 전적으로 의미를 중심으로 한 개념이라고 한 바 있다.
- 5) 성기철(2002:156)에서 ‘문법 형태 또는 여기에 준하는 것은 분석적인 방법보다는 종합적인 방법으로 이해시키는 것이 효율적이다. 때로는 다소 불합리하다 하더라도, 교육의 효율을 위해서는 그러한 방법을 원용할 수 있다.’ -을 수 있다, -어야 한다, ‘-어도 좋다, 추정’의 -을 것이- ‘등은 그 일부의 예이다.’ 라고 하였다. 김유정(1998:27)에서 ‘는 바람에’ (예상하지 못한 이유)와 같은 유형은 ‘는’의 관형사형 어미와 ‘바람’이라는 어휘적 의미의 다양함과 ‘-에’라는 원인적 조사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문법 요소들을 따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단일한 특정 유형으로 가르치는 것이 학습자 중심 교수에 기여하게 된다.’ 고 하였다.
- 6) 민현식(2002:118-9)에서는 ‘국어의 피사동 구성은 어근의 어종이 고유어인가 아니면 한자어인가에 따라 달리 선택한다는 점에서 어중에 따른 특성을 고려해 기술하는 접근법이 필요하다. <공간 생략> 문법식들이나 한국어 교재들에서는 이들을 통합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개별적, 분산적 현상으로만 처리하고 있어 국어의 피동이나 사동 범주에 대해 복잡하다는 인상만을 주고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접근을 차단하고 있다.’ 고 하였다.

(1) 사동법의 실현 방법

- ㄱ. 어휘적 방법 : 동사에 의하여(시키다, 보내다 등)
- ㄴ. 파생적 방법 : 사동접미사에 의하여(‘-이-, -히-, -리-, -기-, -우-, -구-, -추-’)
- ㄷ. 통사적 방법 : 통사론적 구성에 의하여(‘-게 하-’, ‘-게 만들-’, ‘-도록 하-’, ‘-도록 만들-’ 등)

위와 같이 사동법을 실현하는 형태론적, 통사론적 방법은 물론이고 어휘적 방법으로 실현되는 문법 항목을 동시에 고려하여 선정하고 이를 위계화할 수 있다.

이러한 문법 범주를 바탕으로 한 문법 항목 선정은 의향법, 높임법, 시제법, 사동법, 피동법, 부정법, 강조법, 격, 수 등으로 계속 확대할 수 있다. 또 ‘의향법’, ‘높임법’, ‘격’ 등, 그 실현하는 문법범주의 범위가 넓고 실현되는 문법 요소가 많을 때에는 이를 쉽게 하위 범주로 나눌 수도 있다. 즉, 의향법의 경우, 서술법, 의문법, 명령법, 청유법 등으로 다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서술법은 다시 평서법, 약속법, 감탄법 등으로 하위 구분하여 이를 설명할 수도 있다. 높임법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청자높임법, 주체높임법, 객체높임법 등으로 하위 구분하여 설명하면 된다.

(2) 의향법의 하위 범주

- ㄱ. 서술법 : 평서법, 약속법, 감탄법
- ㄴ. 의문법
- ㄷ. 명령법
- ㄹ. 청유법

(3) 높임법의 하위 범주

- ㄱ. 청자높임법
- ㄴ. 주체높임법
- ㄷ. 객체높임법

문법범주를 활용하면 다양한 층위의 문법 요소들을 같은 범주에서 다루게 되는데, 이들은 그 실현 방법에 따라 의미나 기능, 실제 사용상의 맥락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게 되므로 보다 체계적으로 문법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먼저, 실현방법에 따라 문법 요소들의 의미 차이가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사동법을 실현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동사에 사동접미사를 결합하는 방식과 통사론적 구성에 의한 방식이 있다. 그런데 이들의 실현 방법에 따라 그 의미 차이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 (4) ㄱ. 어머니가 아이에게 우유를 먹였다.
- ㄴ. 어머니는 아이에게 우유를 먹게 하였다.

일반적으로 사동은 직접사동과 간접사동으로 분류할 수가 있다. 그런데 (4ㄱ)처럼 파생적 사동법으로 실현된 문장은 직접 사동과 간접 사동의 의미 해석이 모두 가능하다. 그러나 (4

ㄴ)처럼 통사적 방법으로 실현된 문장은 간접사동의 의미로만 해석이 가능하다. 만약, 이 둘을 하나의 문법범주가 아닌 각각의 문형으로 설명하고 끝나게 된다면 그 의미 차이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데 실패하고 말 것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아동 학습자가 아닌 성인 학습자들은 외국어의 구조를 규칙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보다 효과적인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문법범주 체계 내에서 각각의 문법 요소를 이해하게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이와 같은 방법은 문법 요소 간의 통사적 제약도 쉽게 설명할 수 있다.

- (5) ㄱ. 나는 약을 안 먹어요.  
 ㄴ. \*저 사람은 안 멋있다.  
 ㄷ. 나는 약을 먹지 않아요.  
 ㄹ. \*거기는 가지 않아라.  
 ㅁ. 우리는 더 이상 만나지 말자.

(5ㄴ)처럼 부정 부사 ‘안’을 사용하는 부정법은 ‘멋있다, 아름답다, 깨끗하다, 사랑거리다’ 등의 어휘들과는 결합이 제약된다. 또 ‘-지 아니하다’는 서술문과 의문문에만 쓰이는 제약이 있기 때문에 명령문이나 청유문에서는 (5ㄷ)처럼 ‘-지 말다’를 사용해야만 한다. 또 같은 부정법을 실현하는 부사인 ‘아니(안)’과 ‘못’을 개별적으로 교육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한국어의 부정법을 실현하는 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이들이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문법 관념의 친숙성을 들 수 있다. 현대 한국어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문법범주는 의항법, 높임법, 시제법, 사동법, 피동법, 부정법, 강조법, 격 등이 있으며, 한국어 문법에서는 잘 실현되지 않는 성, 수, 인칭 등도 있다. 같은 언어라도 시기에 따라 그 실현 방법이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문법범주는 모든 언어에서 실현되어 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개념을 활용한다면 외국인 학습자들에게도 매우 친근하게 느껴질 수 있다.<sup>7)</sup> 그리고 대조언어학적으로나 언어유형론적으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sup>8)</sup>

## 2.2. 문법 항목 선정의 기준과 단계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문법 항목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교육 목표와 체계가 분명해야 한다. 그런데 목표와 체계를 세우는 일도 쉽지 않다. 박동호(2007:161)에서는 한국어 문법의 체계와 관련된 연구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국어 문법과 한국어 문법의 체계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입장과 인정하는 입장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하였다.<sup>9)</sup> 또 체계 차이를 인정하고 한국어 문법 체계를 새롭게 세우고자 하는 연구들도 형태와 의미, 기능을

7) 김제열(2001:98)에서도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는 국어 문법 연구에서 섬세하게 분류된 범주 구분이 어렵고 추상적인 용어를 가져오는 것보다는 일반적인 인식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 범주에서 새로운 문법범주의 구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

8) 대조언어학적인 방법으로 학습자의 오류 현상을 설명하려는 시도가 있는데 언어에 따라 다르게 실현되는 문법범주를 살펴보고 이의 실현 양상을 살펴본다면 한국어의 문법적 특징을 보다 확실히 알 게 될 것이다.

9) 여기에서 성기철(2002), 민현식(2002)는 두 문법 사이의 체계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백봉자(1990, 2001), 김제열(2001), 서정수(2002), 허용 외(2005), 국립국어원(2005), 한송화(2006)는 두 문법 사이의 체계 차이를 인정하고 있다고 하였다.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하나 구체적인 방법은 서로 다르다. 이들도 한국어교육 문법 목표를 추상적으로 제시하는데 그치거나 일부 단계만을 제시하는데 그치는 경우가 많다. 또 목표에 따른 문법 체계나 문법 항목 제시도 앞의 상황과 비슷하다.<sup>10)</sup>

이 연구에서는 우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은 모국어 화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국어 문법과는 달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어 문법에서는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국어 또는 국어 문법에 대한 지식, 국어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교육 목표에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어 문법에서는 유창한 의사소통 능력 신장을 위한 문법 교육이 목표가 된다. 그리고 이러한 문법 교육을 체계화하기 위하여 문법범주론을 활용하기로 한다.<sup>11)</sup>

다음은 문법 항목의 기준을 정하는 일이다.

김유정(1998:30~31)에서는 문법 항목을 선정할 때에 유의할 점으로 다음 네 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는 국어 문법 체계 속에서 국어의 전체적인 구조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둘째는 문법 목록의 자료 조사는 국어사전과 문법서, 실제 자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모든 문법 요소들이 다루어질 필요는 없다. 넷째, 언어학적 지식이 요구된다.

성기철(2002:152-154)에서는 문법 항목 선정에서 고려해야 할 기준으로 두 가지를 들고 있다. 최우선으로는 ‘사용 빈도’이고 다음으로는 ‘의사 소통상의 중요도’이다.

이 연구에서는 문법범주론을 활용하여 각각의 문법 범주를 실현하는 항목을 모두 제시하기 때문에 위의 방법과는 다르게 항목을 제시하게 된다. 가령, 예문 1)에서와 같이 모든 층위에서 실현되고 있는 사동범 요소들을 먼저 제시한다. 그리고 이 문법 항목들이 교재에서 활용될 수 있는 정도의 양과 지도 순서는 단계별로 제시하고자 한다.

문법 항목을 선정한 다음에는 이것을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따른다. 외국인 학습자가 이러한 문법 항목을 자기 수준에 따라 선별하여 학습하기는 어렵다. 사전에 교과 과정에서 문법 항목들이 단계적으로 제시되어 선후 학습이 체계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기철(2002:153-4)에서는 다섯 가지의 고려 사항을 들고 있다. 첫째, 일상의 사용 빈도이다. 둘째, 학습상의 난이도이다. 셋째, (내용상의) 연계성이 있어야 한다. 넷째, 지도상의 체계성이 있어야 한다. 다섯째, 규칙적 현상이 불규칙적 현상에 우선해야 한다. 김유정(1988:31-32)에서는 문법 항목의 단계를 정할 때 다음 네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1)사용 빈도, 2)난이도, 3)일반화 가능성, 4)학습자의 기대 문법 등이다. 김제열(2002:110)에서도 비슷한 견해를 제시하고 있는데, ‘난이도’와 ‘일반화 가능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해영(2004:60)에서는 1)빈도, 2)분포 범위, 3)학습의 용이성, 4)학습자의 필요도 등이 한국어 교육용 문법 항목을 선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점이라고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앞선 연구들에서 제시하고 있는 ‘난이도’와 ‘사용 빈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는 각 층위별 문법 항목에서의 ‘무표성’과 ‘유표성’의 대비를 통한 순위도 고려하게 될 것이다.<sup>12)</sup>

10) 성기철(2002:140)에서는 외국어 교육이 지향하는 문법 교육의 목표를 여섯 가지로 제시하였으나 문법 체계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김유정(1998)에서도 문법 항목 선정과 단계화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후속 논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 주었으나 구체적인 항목 제시나 단계별로 항목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민현식(2002)에서도 일부 분야에 해당된 문법 요소를 위계화 하고 있는데 다른 논문에서도 비슷한 설정이다.

11) 지금까지 연구자는 이러한 거시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문법범주를 하위범주별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12) 지금까지 문법 교육의 체계를 설정하거나 문법 항목을 선정하고 이를 단계별로 구분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한결같이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설정할 근거가 부족하거나 이를 뒷받침한 자료가 부

‘난이도’와 ‘사용 빈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될 자료는 국립국어원(2003)<sup>13)</sup>이 활용될 것이다. 이 자료는 학습용 어휘 6,000여 개를 난이도에 따라 A, B, C 등급으로 나누고 있으며 빈도 순위도 제시하고 있는데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선정된 것은 아니지만, 여러 한국어교육 전문가가 참여하여 선정한 결과이므로 이를 존중하기로 한다. 따라서 비교 대상이 된 두 개 이상의 문법 항목이 모두 A등급에 해당한다면 이들은 빈도에 따라 제시 순서가 결정될 것이다.

이와 함께 국립국어원에서 2010년에 발행한 ‘국제 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 개발’ 보고 서도 참고하기로 하였다. 여기에서는 언어지식 영역 중, 문법 영역의 학습 내용을 총 7급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는데 각 급수별 지도해야 할 문법 내용이 제시되고 있다. 또 국립국어교육원에서 시행하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은 총 6단계로 나누어서 등급별 평가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참고하기로 한다.

다음 기준으로는 일반화 가능성이 높은 항목을 먼저 제시한다. 즉 무표적인 항목은 그렇지 않은 항목, 즉 유효적인 항목보다 먼저 제시할 필요가 있다. 피동법을 실현하는 통사적 방법에는 ‘-게 되-’ 구성과 ‘-어/아 지-’ 구성이 있는데 능동문을 피동문으로 변형시키는 과정에서 ‘-게 되-’ 구성이 덜 제약적이므로 이를 먼저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문법 항목이 제시될 때에는 층위별로 선정 기준을 달리할 수도 있으며, 때로는 다른 층위를 고려하여 제시할 수도 있다.

### 3. 부정법에서의 문법 항목 선정

#### 3.1. 부정법의 실현 양상

일반적으로 언어 내용을 부정하는 문법 기능을 ‘부정’이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부정’의 기능을 실현하는 문법범주를 ‘부정법’이라 한다.<sup>14)</sup> 각각의 문법 요소를 교육하기 전에 부정법을 실현하는 모든 요소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현대 국어에서 한국어 부정법은 여러 층위에서 실현되고 있다. 우선, 어휘적인 방법으로 실현된 것이 있다. ‘없다, 아니다, 못하다’ 등이 그 예이다. 다음은 파생적 방법으로 실현된 것이다. 부정 접두사로 실현되는 것인데, ‘비(非)-, 미(未)-, 몰(沒)-, 불(不)-, 무(無)-, 막(莫)-’ 등이 있다. 다음은 통사적 방법으로 실현된 것이다. 여기에는 다시 부정 부사 ‘아니, 못’ 뒤에 용언이 결합하는 방식이거나 보조적 연결어미 ‘-지’ 뒤에 ‘아니하다, 못하다, 말다’가 결합하는 방식이다.

조함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은 모국어 화자와는 언어 수준이나 학습자의 시대 문법이 전혀 다르다. 따라서 모국어 화자를 대상으로 한 국어 말뭉치를 활용하여 빈도수나 난이도, 기대 문법 항목의 기준을 세우는 일은 객관성과 거리가 있다. 또 **복합적인** 문법 항목의 경우는 말뭉치 자료에서 제외된 것이 많기 때문에 연구자의 직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

13) 국립국어원(2003)에서는 5,965개의 어휘를 빈도수를 고려하여 1~3단계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는데, 1단계는 982개, 2단계는 2,111개, 3단계는 2,872개를 제시하였다.

14) 박형우(2003:378)에서 ‘부정의 의미는 의미론적으로는 긍정문과 모순의 관계를 보이는 의미 작용을 뜻하며, 명제 논리적 입장에서선 문장의 진리치를 바꾸는 기능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담화 기능적, 즉 화용론적 측면에서는 청자의 잘못된 믿음을 수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청자의 질문에 대하여 부정 응답을 함으로써 청자의 신정보가 부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고 하여 부정의 의미를 담화기능적 차원에까지 확대하고 있다.

이상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부정법 실현 방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6) 부정법 실현 방법

- ㄱ. 어휘적 방법: 없다, 아니다, 못하다<sup>15)</sup>
- ㄴ. 파생적 방법: ‘비(非)-, 미(未)-, 몰(沒)-, 불(不)-, 무(無)-, 막(莫)-’<sup>16)</sup>
- ㄷ. 통사적 방법: ㉠ ‘아니(안)+ 동사/형용사’, ‘못+ 동사/형용사’
  - ㉡ ‘-지 아니하다’, ‘-지 못하다’
  - ㉢ ‘-지 말다’

부정법이 실현된 문장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7) 어휘적인 방법으로 실현된 부정문의 예

- ㄱ. 오늘은 회의가 없다.
- ㄴ. 그 사람은 화가가 아니다.
- ㄷ. 음식 맛이 예전보다 못하다.

(7)에서 ‘없다’, ‘아니다’, ‘못하다’는 문장 속에서 부정의 의미를 실현하고 있다.

(8) 파생적 방법으로 실현된 부정문의 예

- ㄱ. 판매권의 독점은 비민주적이다.
- ㄴ. 미완성한 원고를 집으로 들고 왔다.
- ㄷ. 나는 그의 몰염치한 행동에 화가 났다.
- ㄹ. 이번 판정은 너무 불공정하다.
- ㅁ. 그는 여자들에게는 다소 무감각한 편이다.
- ㅂ.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네가 사과해라.

(8)에서 접사 ‘비(非)-, 미(未)-, 몰(沒)-, 불(不)-, 무(無)-, 막(莫)-’ 등은 다른 어휘와 결합하여 부정의 의미를 실현하고 있다.

(9) 통사적 방법으로 실현된 부정문의 예

- ㄱ. 선생님은 이곳에 안 왔어요.

---

15) ‘없다’는 ‘있다’, ‘아니다’는 ‘이다’, ‘알다’는 ‘모르다’와 부정 관계를 가진다. 그런데 ‘있다’와 ‘아니다’는 부정부사나 부정의 보조 용언에 의한 부정 표현이 성립되지 않는다. 반면에 ‘알다’는 ‘-지 못하다’에 의한 부정이 가능하다. 허재영(19887)에서도 ‘부정’의 개념에서 ‘모순관계’는 필수요건인데, ‘모르다’는 ‘알다’와 반의관계에 있어 부정어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이유로 ‘없다’와 ‘아니다’는 부정법을 실현하는 문법 항목으로 선정하고, ‘모르다’는 선정하지 않았다. 또 부정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의, 전혀, 결코, 그다지, 일체, 별로 등’과 같은 부사도 부정법이라는 문법범주 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여기서는 문장에서 서술어로 활용되는 것으로만 한정하여 논의를 전개하기로 하였다.

16) 박형우(2003)에서는 부정문을 어휘론적 부정문과 통사적 부정문으로 나누고 있으며, ‘죽다, 없다, 모르다’ 등 모순 관계의 설정이 가능한 여러 용언이 서술어로 쓰인 문장과 ‘비-, 몰-, 미- 등’의 모순 접두사의 결합에 의해 형성된 단어들도 서술어로 쓰인 경우에는 부정문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하여 부정법의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 ㄴ. 저는 술을 못 마십니다.
- ㄷ. 놀이터에는 가지 않았어요.
- ㄹ. 몸이 아파서 출석하지 못했어요.
- ㅁ. 위험한 곳에는 절대 가지 마라.

(9ㄱ)에서는 ‘아니(안)’ 뒤에 ‘동사’가 결합되어 있고, (9ㄴ)에서는 ‘못’ 뒤에 ‘동사’가 결합되어 있고, (9ㄷ)에서는 연결어미 ‘-지’에 ‘아니(안)하다’가 결합되어 있고, (9ㄹ)에서는 연결어미 ‘-지’에 ‘못하다’가 결합되어 있고, 9ㅁ)에서는 연결어미 ‘-지’ 뒤에 ‘말다’가 결합되어 있는데 모두 부정의 의미를 실현하고 있다.

### 3.2. 수준별 문법 항목의 배열

먼저, 어휘적 층위에서 실현되는 ‘없다, 아니다, 못하다’이다. 국립국어원(2003)에서는 ‘없다, 아니다, 못하다’를 모두 한국어 1단계에서 지도해야 할 어휘 항목에 포함시키고 있다. 따라서 교재의 단원 순서에 따라 적절히 배치하면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한국어 초급의 1, 2과에서 ‘자기 소개하기’와 ‘질문에 대답하기’가 제시되는 것을 고려하여 ‘아니다’라는 어휘를 먼저 제시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물건의 위치 말하기’ 등도 초급의 시작부에 제시되므로 ‘없다’를 다음으로 제시할 수 있다. ‘못하다’는 ‘동사’, ‘형용사’의 빈도 순위가 서로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데 같이 제시할 때에는 통사적 방법인 ‘-지 못하다’와 비슷한 순서로 제시하는 것이 좋다.<sup>17)</sup>

부정을 실현하는 문법 요소를 제시할 때는 긍정을 나타내는 것과 비교하면서 설명하는 것이 좋다.

- (10) ㄱ. 그는 사람이다.
- ㄴ. 그는 사람이 아니다.

(10ㄴ)처럼, ‘아니다’가 쓰여서 부정문이 되면 문장의 구조에도 큰 변화가 온다. ‘아니다’가 쓰인 (10ㄴ)은 복문이 되어 서술절에서 ‘사람이’가 주어가 되고 ‘아니다’는 이를 부정하게 된다.

그러나 ‘없다’의 경우 이러한 문장의 구조에는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 ‘있다’ 대신에 ‘없다’가 쓰여도 서술절의 주술 관계는 그대로 유지된다.

- (11) ㄱ. 그는 집이 있다.
- ㄴ. 그는 집이 없다.

‘못하다’도 ‘없다’와 같이 문장의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

- (12) ㄱ. 나는 어제 시험공부를 했다.
- ㄴ. 나는 어제 시험공부를 못했다.

17) 국립국어원(2003)에서 ‘없다’는 빈도 순위가 10위, ‘아니다’는 16위, ‘못하다’는 동사가 495위, 형용사가 3927위로 제시되었고, 보조 용언 ‘못하다’는 57위로 제시되었다.

다음으로는 ‘부정 접두사’에 의해 실현되는 부정법이다. 이들은 모두 한자어에 파생어라는 공통점이 있다. 국립국어원(2003)에서 제시한 한국어 학습용 어휘에 따르면, 제1 단계에서는 형용사 ‘미안하다’ 1개가 제시되었고, 제2 단계에서 명사 ‘부족(不足), 불만(不滿), 불안(不安), 미래(未來), 부사 ‘무조건(無條件), 형용사 ‘부족(不足)하다, 불가능(不可能)하다, 불편(不便)하다, 불안(不安)하다, 불행(不幸)하다’, 동사 ‘무시(無視)하다’ 등 11개가 제시되었다.<sup>18)</sup> 그러나 3단계에 이르면 총 30개의 ‘부정 접두사’가 포함된 어휘가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2단계에서는 개별 어휘 단위로 그 의미를 설명할 수 있으나 3단계에 이르면 ‘불(不)-, 무(無)-, 미(未)-, 비(非)-’가 결합한 단어를 함께 묶어서 부정 접두사의 특성을 함께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 그밖에 ‘몰(沒)-, 막(莫)-’ 등은 6,000개의 어휘 안에는 포함되고 있지 않으며, 빈도나, 난이도, 학습의 용이성, 학습자의 필요도를 고려하면 고급 과정에서 다루는 것이 좋다.

부정 접두사와 관련해서는 단어별로 각각의 예를 들면서 그 의미만을 제시하는 것이 좋다. 부정 접두사와 결합하는 명사나 용언 등의 의미와 결합 특성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초·중급 단계에 있는 학습자들에게는 오히려 혼란스럽게 만들 가능성이 더 높다. ‘불-’은 ‘않다’의 의미, ‘무-’는 ‘없다’의 의미, ‘미-’는 ‘아직 않다’의 의미, ‘비-’는 ‘아니다’의 의미를 갖는 접두사로 소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통사적 방법에 의해서 실현되는 부정법이다. 한국어의 부정법은 주로 통사적 방법에 의해 실현된다. 통사적 방법으로 실현된 문형들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제시할 수 있다.

먼저, 첫 번째 ‘아니(안)’ 뒤에 ‘동사/형용사’가 결합한 문형과 보조적 연결어미 ‘-지’ 다음에 ‘아니(안)’을 결합한 경우이다. 이들의 문형 제시 순서는 ‘-지 아니하다(않다)’를 먼저 제시하고 다음으로 ‘아니(안) + 동사/형용사’를 제시하는 것이 낫다. 그 이유는 ‘-지 아니하다’ 형식이 ‘아니(안) + 동사/형용사’보다 통사적 제약이 적어서 초급자에게 설명하기가 쉽다.

(13) ㄱ. 그는 동참모임에서 노래하지 않았다.

ㄴ. \*그는 동참모임에서 안 노래하였다.

(13ㄴ)과 같이 ‘안(아니)’은 ‘노래하다, 생각하다, 빗나가다, 공부하다, 아름답다’ 등의 용언 앞에서는 결합되지 않는다.

두 번째 ‘못’ 뒤에 ‘동사/형용사’가 결합한 문형과 보조적 연결어미 ‘-지’ 다음에 ‘못하다’가 결합한 경우이다. ‘못’ 뒤나 ‘-지 못하다’ 앞에는 보통 동사만이 온다. 그러나 일부 형용사 ‘만족하다, 깨끗하다’ 등은 ‘-지 못하다’와 결합할 수 있지만, ‘못’ 뒤에서는 결합하지 못한다. 따라서 ‘-지 못하다’를 먼저 제시하고 다음으로 ‘못+ 동사/형용사’를 제시하는 것이 낫다.

(14) ㄱ. 그는 결과에 만족하지 못했다.

18) 부정 접두사가 포함된 일부 단어들의 빈도 순위를 살펴보면, ‘부족’은 1869위, ‘부족하다’는 1243위, ‘불가능하다’는 3003위, ‘무조건’은 2313위, ‘무시하다’는 2051위, ‘무의미하다’는 6224위, ‘미만’은 6230위, ‘미흡’은 5009위위로 제시되었다.

ㄴ. \*그는 결과에 못 만족했다.

(14ㄴ)과 같이 일부 형용사 ‘만족하다, 깨끗하다’ 등은 ‘-지 못하다’와 결합할 수 있지만, ‘못’ 뒤에서는 결합하지 못한다. 따라서 보다 제약이 적은 ‘-지 못하다’를 먼저 제시하는 것이 초급자에게 좋다.

‘-지 말다’의 경우는 ‘-지 아니하다’ 다음에 제시할 수 있다. ‘-지 아니하다’가 평서문과 의문문에 쓰이는 것과 대비하여 ‘-지 말다’가 명령문과 청유문에 쓰이고 있음을 함께 설명해 주는 것이 좋다. 다른 통사적 문법 항목을 다룬 후에 제시할 수 있다. 2급에서 다룰 수 있다.<sup>19)</sup>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 층위에서 실현되는 피동 표현들을 정리하여 학습 단계에 따라 배열하면 다음과 같다.

#### (15) 층위에 따른 부정법의 실현과 항목 배열

실현 층위		어휘적	과생적	통사적
초급	1	없다, 아니다		-지 아니하다 -지 못하다
	2	못하다		아니(안)+동사/형용사 못+동사/형용사 -지 말다
중급	3		불(不)-, 무(無)-,	
	4		미(未)-, 비(非)-	
고급	5		몰(沒)-, 막(莫)-	
	6			

## 4. 피동법에서의 문법 항목 선정

### 4.1. 피동법의 실현 양상

피동법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최현배(1971:420)는 ‘월의 입자가 스스로 제힘으로 그 움직임을 하지 아니하고, 남의 힘을 입어서, 그 움직임을 하는 것을 나타내는 움직씨’라고 하였다. 권제일(2012:377)은 ‘어떤 동작이, 주어로 나타난 사람이나 사물이 제 힘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행위에 의해서 되는 동작을 피동이라 하는데, 이러한 피동 표현의 문법범주를 피동법’이라고 하였다. 최영환(1991:6)은 피동의 개념을 보다 확대하여 ‘문장의 주어가 스스로 동작하거나 상태를 변화시키지 않고, 주어 외부에 있는 원인<sup>20)</sup>에 의하여 그러한 동작이나 상태의 변화를 겪게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문법범주를 실현하는 의미나 기능을 보다 중요하게 생각하여 권제일(2012)의 피동법과 최영환(1991)의 피동 개념에 따라 논의를 전개하기로 한다.

19) 국립국어원(2010:285-287)에서는 ‘-지 아니하다’, ‘-지 못하다’, ‘-지 말다’를 모두 초급 문법 문형으로 제시하고 있다.

20) 이러한 외부적 원인은 명시적일 수도 있고 때로는 문맥에 의해 추측될 수 있거나, 전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였다.

한국어에서 피동법은 다양한 층위에서 실현될 수 있다.

우선, 어휘적인 방법으로 실현된 것이 있다. ‘동작성 명사-이/가’에 결합하는 ‘되다’, ‘동작성 명사-을/를’에 결합하는 ‘받다’, ‘당하다’, ‘가르치다’에 대비되는 ‘배우다’, ‘때리다’에 대비되는 ‘맞다’ 등이 있다.<sup>21)</sup> 또 ‘동작성 명사-을/를 당하다/받다’가 합성동사로 어휘화한 것이 포함된다.

다음은 파생적인 방법으로 실현된 것이다. 이는 동사에 ‘-이-’, ‘-히-’, ‘-리-’, ‘-기-’ 등을 결합하여 실현한다. 다음은 통사적 방법으로 실현된 것이다.

통사적 방법은 보조적 연결어미 뒤에 보조 용언이 결합하는 형태로 실현된다. ‘-어/아 지-’와 ‘-게 되-’가 있다.

이상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피동법 실현 방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6) 피동법의 실현 방법

- ㄱ. 어휘적 방법: 동사에 의하여(‘동작성 명사-이/가+ 되다’, ‘동작성 명사-을/를+ 받다/당하다’, ‘맞다’, ‘배우다’, ‘동작성 명사+ -받-/ -당하-/ -되-’ 등)
- ㄴ. 파생적 방법: 피동접미사에 의하여(‘-이-, -히-, -리-, -기-’)
- ㄷ. 통사적 방법: 통사론적 구성에 의하여(‘-어/아 지-’, ‘-게 되-’)

피동법이 실현된 문장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17) 어휘적인 방법으로 실현된 피동문의 예

- ㄱ. 범인이 경찰에게 체포가 되었다.
- ㄴ. 그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았다.
- ㄷ. 그 사람에게 참을 수 없는 모욕을 당했다.
- ㄹ. 동네 강패에게 얼굴을 맞았다.
- ㅁ. 학원에서 운전 기술을 배웠다.

(17)에서 ‘되다’, ‘당하다’, ‘받다’, ‘맞다’, ‘배우다’ 등은 문장 속에서 피동의 의미를 실현하고 있다.

#### (18) 파생적인 방법으로 실현된 피동문의 예

- ㄱ. 쌀에 돌이 섞였다.
- ㄴ. 소에게 얼굴을 받혔다.
- ㄷ. 뱀에게 손을 물렸다.
- ㄹ. 아이가 엄마에게 안겼다.

(18ㄱ)에서는 능동사인 ‘섞다’에 피동접미사 ‘-이-’가, (18ㄴ)에서는 ‘받다’에 피동접미사 ‘-히-’가, (18ㄷ)에서는 ‘물다’에 피동접미사 ‘-리-’가, (18ㄹ)에서는 ‘안다’에 피동접미사 ‘-기-’가 각각 결합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문장 속에서 피동의 의미를 실현하고 있다.

21) 배회임(1988:6)에서는 ‘맞다’나 ‘배우다’는 문법적 정표로 피동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대립적 어휘 자체가 갖는 피동적 해석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의미상으로도 피동의 의미를 갖는 것은 포함하고자 한다.

(19) 통사적인 방법으로 실현된 피동문의 예

ㄱ. 신맛이 느껴진다.

ㄴ. 한국에서 공부하게 되었다.

(19ㄱ)에서는 연결어미 ‘-어/아’에 보조동사 ‘지다’가 결합되어 있고, (19ㄴ)에서는 연결어미 ‘-게’에 보조동사 ‘되다’가 결합되어 있는데 모두 피동의 의미를 실현하고 있다.

#### 4.2. 수준별 문법 항목의 배열

다음에서는 피동법을 실현하는 다양한 층위의 요소들을 한국어 교육 문법 체계 안에서 어떻게 체계화하고 학습 수준에 따라 배열할 것인지를 다루어 보기로 하겠다.

먼저, 어휘적 방법으로 실현된 피동 표현들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어휘적 방법으로 실현된 것에는 ‘되다, 받다, 당하다, 맞다, 배우다’ 등이 있는데 이들은 어휘 등급에 따라 배열할 수 있다.

(20) ㄱ. 이제 어른이 되었다.

ㄴ. 공부가 잘 안 된다.

국립국어원(2003)에 의하면, ‘N-이/가 되다’는 6,000개의 어휘 중, A등급 어휘에 해당하며, 빈도순위는 5위에 해당하므로 1급에서 어휘를 제시할 수 있다. (20ㄴ)은 부정 표현과 함께 실현된 예이다.

(21) ㄱ. 선생님께 선물을 받았다.

ㄴ. 선생님께 책을 받았다.

(21)에 사용된 ‘받다’는 A등급 어휘에 해당하며, 빈도순위가 47위로 2급에 해당하는 어휘이다.

(22) ㄱ. 친구에게 놀림을 당했다.

ㄴ. 이웃에게 모욕을 당했다.

(22)에 사용된 ‘당하다’는 C등급 어휘에 해당하며, 빈도순위는 675위에 해당한다. 피동 표현이지만 단어도가 높은 단어이므로 중급 수준 이상에서 제시할 수 있다. 다만, 피동 표현을 함께 설명하고자 할 때에는 ‘받다’를 설명할 때 같이 제시할 수도 있다.<sup>22)</sup>

(23) ㄱ. 선생님께 한국어를 배웠요.

ㄴ. 어제 한글을 배웠어요.

---

22) ‘받다’와 ‘당하다’가 피동을 실현할 때에는 반드시 앞에 ‘동작성 명사-을/를’ 수반해야 함을 함께 설명해야 한다.



(23)에 사용된 ‘배우다’는 A등급 어휘에 해당하며, 빈도순위는 441위에 해당한다. 학습자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에 있으므로 피동 표현이지만 빠른 시기에 배우게 된다. 초급 수준에서도 비교적 이른 시기에 학습할 수 있도록 배열한다.

(24) ㄱ. 길을 가다가 돌에 맞았어요.

ㄴ. 동생과 싸우다가 아버지한테 회초리로 매를 맞았어요.

(24)에 사용된 ‘맞다’는 B등급 어휘에 해당하며, 빈도순위는 1,639위에 해당한다. 이 단어의 상대어인 ‘때리다’는 C등급 어휘로 분류되고 있다. 3급에서 제시할 수 있다.

(25) ㄱ. 범인이 경찰에게 체포되었다.

ㄴ. 그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주목받았다.

ㄷ. 그 제안은 다른 사람들에게 거절당했다.

예문 (20), (21), (22)에서 사용된 ‘동작성 명사-을/를 되다/받다/당하다’의 통사론적 구성은 예문 (25)와 같이 하나의 어휘로 실현될 수도 있다. 이러한 피동 표현은 ‘-되/받/당하-’의 앞에서 실현되는 동작성 명사의 난이도에 따라 다르게 제시될 수 있다. 이들 피동 표현을 함께 설명하기 위해서는 난이도가 유사한 어휘를 사용하여 중급 수준에서 함께 제시하는 것이 좋다.<sup>23)</sup>

다음은 파생적 방법으로 실현된 피동 표현들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26) ㄱ. 이제 숲이 조금씩 보인다.

ㄴ. 범인이 경찰에게 잡혔다.

ㄷ. 슬픈 노래로 나를 울렸다.

ㄹ. 아이가 엄마에게 안겼다.

예문 (26)에 사용된 ‘보이다’, ‘잡히다’, ‘울리다’, ‘안기다’에는 사동의 의미를 실현하는 사동접미사 ‘-이-, -히-, -리-, -기-’가 실현되고 있다. 그런데 사동접미사가 실현되는 용언은 매우 제한되어 있다. 우선, 형용사와 결합할 수가 없다. 이와 함께 아주 제한된 타동사나 자동사에 결합할 수 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타동사는 파생적 피동법이 실현되지 않는다.

(27) ㄱ. 수여동사: 주다, 드리다, 바치다

ㄴ. 수혜동사: 얻다, 읽다, 찾다, 돕다, 입다, 사다

ㄷ. 경험동사: 알다, 배우다, 바라다, 느끼다

ㄹ. 대칭동사: 만나다, 닮다, 싸우다

ㅁ. ‘하다’ 파생어: 사랑하다, 조사하다, 좋아하다, 슬퍼하다

ㅂ. ‘이다’ 파생어: 반짝이다, 펴럭이다, 굵적이다, 속삭이다

이와 함께 파생접미사가 실현되는 피동문은 능동문과 의미상 같을 지라도 문장 성분의 배

23) 피동 표현은 자주 사용되는 문법범주이므로 쉬운 어휘는 초급에서 다루고 형태·통사적 피동 표현은 중급에서 다루주는 것이 좋다.

열이 달라진다. 한국어의 피동문에서는 능동 표현의 주어를 다른 문장성분으로 이동시키고 새로운 주어를 선택하게 된다.

- (28) ㄱ. 사냥꾼이 토끼를 잡았다.  
      ㄴ. 토끼가 사냥꾼에게 잡혔다.

(28ㄱ)에서의 동작주인 ‘사냥꾼’은 피동문인 (28ㄴ)에서는 부사어의 자리로 이동하게 되고, (28ㄱ)에서 피동작주인 ‘토끼’가 (28ㄴ)에서는 주어의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이처럼 파생적 방법으로 피동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동사에 파생접미사를 결합시킬 뿐만 아니라 문장 성분을 이동시켜야 하는 복잡한 과정이 뒤따르게 되므로 한국어 학습자에게는 파생적 사동법을 쉽게 이해시키기가 어렵다. 따라서 파생적 피동법은 중급 수준 이상에서 문법 항목을 배열하는 것이 좋다.<sup>24)</sup> 그런데 네 개의 접미사에서는 역사적으로 전통성을 갖는 ‘-이-’가 우선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sup>25)</sup>

다음은 통사적 방법으로 실현된 피동 표현들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 (29) ㄱ. 새로운 법이 국회에서 만들어졌다.  
      ㄴ. 나는 김치를 잘 먹게 되었다.

(29ㄱ)에서는 연결어미 ‘-어/아’에 보조동사 ‘지다’가, (29ㄴ)에서는 연결어미 ‘-게’에 보조동사 ‘되다’가 결합하여 피동법을 실현하고 있다. ‘-어/아 지-’ 구성은 보통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고, ‘-게 되-’ 구성은 ‘상태변화의 과정을 나타낸다. 이러한 통사적 피동법은 파생적 피동법에 비해 제약이 적어서 가장 활발하게 실현되고 있다. 피동문인 (29)는 능동문인 (30)에서 파생되었다. 통사적 방법은 파생적 방법에 비해 통사의미적 제약이 매우 적어서 현대 국어에서는 가장 보편적으로 실현되는 피동법이다.

- (30) ㄱ. 국회가 새로운 법을 만들었다.  
      ㄴ. 나는 김치를 잘 먹었다.

그런데 예문 (29)에서 실현된 두 통사적 방법은 그 실현 과정이 조금 다르다. (29ㄱ)에서는 ‘-어/아 지다’의 실현과 함께 능동문의 문장 성분도 이동하고 있으나, (29ㄴ)의 경우는 능동문의 문장 성분이 이동하지 않고, 형태론적 구성인 ‘먹다’가 통사론적 구성인 ‘먹게 되었다’로 실현되고 있다. 따라서 ‘-어/아 지-’ 구성보다 ‘-게 되-’ 구성의 제약이 덜하다. 이는 ‘-게 되-’ 구성이 일반화 가능성이 높고 더 ‘무표적’이란 것을 내포한다.

다음으로 고려할 것은 파생적 방법과 통사적 방법으로 실현되고 있는 문법 항목들의 배열 순서이다. ‘일반화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가장 무표적이고, 기본적인 것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sup>26)</sup> 그런데 현대 국어에서 통사의미적 제약이 적으면서 가장 많이 실현되고 있는

24) 국립국어원(2010:167, 168)에서는 피동법을 3급과 4급에서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 중, 3급에서는 ‘3. 장형 피동의 형태를 이해하고 바르게 사용한다. 5. 피동법을 안다.’가 제시되었고, 4급에서는 ‘2. 피동법을 사용한다.’가 제시되었다. 또 기존의 한국어능력시험(TOPIK)의 항목별 평가 기준에서도 ‘어휘문법’ 영역의 3급에서 피동법의 사용 능력이 제시되었다.

25) 김용경(1995)에서는 10세기까지 피동법은 ‘-이-’만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후에 ‘-히-’ 등의 접미사가 나타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방법은 통사적 방법이다. 따라서 이 두 가지 방법 중에서는 통사적 방법이 먼저 제시되어야 한다. 학습 단계가 낮은 한국어 학습자들에게는 예외적인 내용이 보다 적은 항목부터 가르치는 것이 좋다. 따라서 통사적 방법으로 실현된 ‘-어/아 지’와 ‘-게 되-’ 구성을 파생적 방법보다 먼저 제시하는 편이 낫다.

이와 함께, 두 통사론적 구성 중에서도 ‘-게 되-’ 구성은 문장 성문의 이동이 없고 통사의미적 제약이 적어서 대부분의 동사에 결합할 수 있다. 따라서 ‘-게 되-’ 구성은 2급 후반에서도 제시가 가능하다. ‘-아/어 지-’ 구성은 3급 초반에 제시하고 파생적 접미사에 의한 피동법은 3급 후반 또는 4급 초반에 제시할 수 있다.<sup>27)</sup>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 층위에서 피동법을 실현하는 문법 항목들을 정리하여 학습 단계에 따라 배열하면 다음과 같다.

(31) 피동법을 실현하는 문법 항목의 단계적 배열

실현 층위		어휘적	파생적	통사적
초급	1	동작성 명사-이/가+되다		
	2	동작성 명사-을/를+판다		‘-게 되-
		동작성 명사-을/를+배우다		
		동작성 명사-을/를+맞다		
중급	3	동작성 명사-을/를+당하다	‘-이-, -히-, -리-, -기-’	-어/아 지-
		동작성 명사+-반-		
		동작성 명사+-당하-		
	4	동작성 명사+-되-		

## 5. 맺음말

..

26) 김유정(1998:34) 참고

27) 국립국어원(2010:292)에서는 ‘-게 되다’를 초급 문법 항목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어 지다’는 초급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도 제시했듯이 피동법은 중급 단계에서 제시하고 있으므로 주로 3, 4에서 피동법을 실현하는 문법 항목들이 제시되어야 한다.

## ■ 참고문헌

- 강현화(2009), 최신 문법교수 이론의 경향과 한국어교육에의 적용, 문법 교육 11, 1-27, 한국문법교육학회.
- 국립국어원(2003), 한국어 학습용 어휘 선정 결과 보고서, 국립국어원.
- 국립국어원(2005),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문법1, 커뮤니케이션북스.
- 국립국어원(2010), 국제 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 개발(연구 책임자: 김중섭), 국립국어원
- 국립국어원(2010), 국제 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 개발, 국립국어원.
- 권재일(1992), 한국어 통사론, 민음사.
- 권재일(2012), 한국어 문법론, 태학사.
- 김석득(1971), 한국어 부정법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53, 369-380, 국어국문학회.
- 김용경(1995), 피동법과 사동법의 역사적 상관성 연구, 건국어문학 19-20합집, 건국대학교 국어어문학연구회.
- 김용경(2011), 문법범주를 활용한 한국어 문법 교육 방안 연구, 사회언어학 제19권 2호, 131-150, 한국사회언어학회.
- 김용경(2014), 피동법에서의 한국어교육 문법 항목 선정, 한국어 연구의 새로운 모색, 박이정.
- 김유정(1998),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 교육-문법 항목 선정과 단계화를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19-1, 19-38,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김재옥(2003),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 교육-한국어 교육 문법의 제시 원리와 체계를 중심으로-, 이종언어학 제22호, 163-179, 이종언어학회.
- 김정숙(1998), 숙달도 배양을 위한 한국어 교육 원리 및 모형, 이종언어학 15집, 103-118, 이종언어학회.
- 김제열(2001), 한국어 교육에서 기초 문법 항목의 선정과 배열 연구, 한국어교육 22-1, 93-12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김종록(2008), 외국인을 위한 표준 한국어 문법, 박이정출판사.
- 김혜령(2009), ‘몰(沒)-’, ‘무(無)-’, ‘미(未)-’, ‘불(不)-’, ‘비(非)-’계 접두 파생어와 어기의 의미 관계, 한국사전학 14, 111-138, 한국사전학회.
- 민현식(2009), 한국어교육용 문법 요소의 위계화에 대하여, 국어교육연구 23, 61-130,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 박동호(2007), 한국어 문법의 체계와 교육내용 구축 방안, 이종언어학 34, 159-184, 이종언어학회.
- 박형우(2003), 부정문의 유형 분류, 청람어문교육 26, 375-405, 청람어문교육학회.
- 배희임(1988), 국어피동연구,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백봉자(1990),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 동방학지 71-72합본, 629-644, 동방학지.
- 백봉자(2001),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문법, 한국어교육 12(2), 302-33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서정수(2002),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을 위한 새 문법 체계,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27, 1-47,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 성기철(2002),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 교육, 국어교육 107, 135-161, 한국어교육학회.
- 송재목(2011), 한국어에 대한 언어유형론적 연구와 한국어교육,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제21차

- 국제학술대회 발표문, 311-319,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신창순(1982), 국어부정법연구, 언어 7(1), 241-255, 한국언어학회.
- 우형식(2008), "없다"의 용법과 부정 표현의 양상, 배달말 43, 179-208, 배달말학회.
- 우형식(2010), 한국어 교육 문법의 체계와 내용 범주, 우리말연구 26, 235-266, 우리말학회.
- 이혜영(2004), 한국어교육에서의 문법교육, 제1차 KOREAN 교육 국제 학술토론회 발표논문집 : 외국어로서의 KOREAN 교육의 과제와 발전 방향, 57-65,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어문학연구소.
- 주세형(2005), 통합적 문법 교육 내용 설계-‘의미를 구성하는 문법 지식’을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제27호, 203-226, 이중언어학회.
- 최영환(1991), 피동의 개념과 문법 범주, 한국국어교육연구회 논문집 43, 1-24, 한국어교육학회.
- 최현배(1971), 우리말본, 정음사.
- 한송화(2009),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서의 문법 교육 방법론, 문법 교육 10, 369-395, 한국문법교육학회.
- 허용(2008), 한국어교육에서의 대조언어학과 보편문법의 필요성 연구, 이중언어학 36호, 1-24, 이중언어학회.
- 허재영(1998), 부정법의 개념과 그 연구 방법, 1998 한말연구학회 여름 정기 학술연구 발표회 자료, 3-19, 한말연구학회.
- 허재영(2002), 부정문의 통시적 연구, 역락.
- Brown, H. Douglas(1994), Teaching by Principles, Prentice-hall Inc.
- Ellis(1991), Instructed second language acquisition: learning in the classroom, Oxford.

## □ 토론 □

### “문법범주를 활용한 한국어교육 문법 항목 선정-부정법, 피동법을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강남옥(호서대)

김용경 선생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발표를 들으면서 국어 문법론 전반에서 꾸준한 연구 성과를 내어 오시고 동시에 한국어교육의 현장에서 교사를 양성하고 외국인 학생을 지도해 오신 선생님께서 오랫동안 고민해 오신 문제에 대한 해답과 의견 제시를 꺼내어 놓으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어를 연구하고, 또 학습과 습득의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고 분석해야 하는 입장에서 있는 사람이라면, 문법이라는 차원에서 포착할 수 있는 정돈된 질서를 학습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입력해 주고 싶은 연구자적 열망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성인으로서 제2언어나 외국어를 배우다는 것은 상당히 구체적인 문법적 인지와 문법화라는 지적 작용이 개입하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성인 학습자의 인지적인 문법의 개입을 방해나 감시, 억제에 방향이 아닌 문법화, 내재화, 습득의 방향으로 자연스러운 끌고 가는 방안은 과연 있는 것일까, 그것은 어떻게 구현이 될까 하는 의문이 당연히 생기게 됩니다. 토론자인 저 역시 연구자적 사명을 가지고 규명하고 싶은 과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발표자께서는 흔히 말하는 부정, 높임, 시제, 양태, 피사동 등의 문법 범주를 상위 기준으로 하고, 여기에 학습자를 위한 교육적 제시, 즉 배열의 순서를 기존의 기준 자료를 참조로 삼아 빈도를 기준으로 삼는 것을 하나의 방법론으로 제시하셨습니다. 여러 면에서 흥미로웠고,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연구자로서 발표문의 거의 매 페이지마다 여쭙어 보고 싶은 것이 가득하였습니다. 부족하지만 저 또한 한국어 문법 표현 항목의 제시 순서와 단계에 대해 고민해 왔고, 또 몇 가지 방법론을 제시해 온 사람으로서 오늘 토론자로 지정해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함께 경청해 주신 청중 여러분의 궁금함을 대신한다는 뜻으로 오늘 지정된 토론자의 소임을 하고자 합니다.

발표의 내용 중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수많은 것들 중에서 그래도 제가 선생님과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을 최대한 추려 아래의 세 가지로 요약해 보았습니다.

첫째, 학습 제시 순서에 있어 문법적(통사적) 제약이 유표적이라는 것을 먼저 내세워야 하는지, 증립적이라는 것이 무표적이라는 것을 앞세워야 하는지 선생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저는 선생님의 발표 중에서 ‘안’ 부정문의 수준별 제시 방법에 해당하는 3.2.에서 이러한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문 (13)을 전후하여 선생님께서는 통사적 제약이 적은 ‘-지 않다’ 부정문을 통사적 제약을 가진 ‘아니(안)’보다 먼저 제시하는 것이 낫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변형문법에서 말하는 기저형의 측면이라든지, 또는 언어유형론적인 관점에서 볼 때 ‘아니(안)’은 ‘-지 않다’보다 더 무표적이라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용언 앞에, 주로 주어 뒤에 부정표현(negation)을 놓는 것이 훨씬 더 증립적이고 언어직관에 있어 더 자연스럽다는 말인데, 이는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유아가 ‘안’ 부정문에 훨씬 더 익숙해진 후에 ‘-지 않다’를 쓰는 사례로도 공감이 되리라 싶습니다.

관련되는 사항이 될지 모르겠으나, 저는 일전에 연구를 하면서 한국어 학습자의 조사 {-이/가}와 {-은/는}의 문법적 입력과 습득의 양상을 종단적으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판단으로는 제약이 많고 유표성이 있는 {-은/는}이 습득이 어려울 것으로 가설을 삼을 수 있겠으나, 연구 결과 실제로는 {-이/가}의 오류가 고급이 될 때까지 꾸준히 나타나면서 습득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무표적인 것이 갖게 되는 일부 제약을 터득하는 것이 주의 깊게 입력 받은 유표적인 항목을 익숙하게 쓰는 것보다 더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알려준다고 봅니다. 즉, 제 생각으로는 ‘아니(안)’과 ‘-지 않다’의 항목 제시 순서에 있어 ‘아니(안)’이 선행하는 것이 맞고, 일어날 수 있는 오류의 양상과 생산 시기를 파악하여 적절한 시점에 다시 제시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여겨지는데 발표자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둘째, 어휘적 문법 항목과 구문형 문법 항목을 문법 범주의 동일성이라는 테두리로 묶는 것이 학습자의 입장에서 자연스럽게 수용이 될 수 있는가의 문제에 대해 선생님의 의견을 청하고자 합니다. 발표문에서는 ‘불-, 무-, 미-, 비-’와 ‘아니(안)’, ‘못’, ‘-지 않다’ 등을 부정의 문법 범주로 묶어서 논의한 후, 여기에 대한 문법 항목과 급별 제시 순서에 대해서 논의했고, 피동의 경우 역시 ‘-이(가) 되다’, ‘-을(를) 당하다’와 ‘-이-', ‘-히-', ‘-게 되다’, ‘-아/어지다’를 같은 범주로 엮어서 논의했습니다. 영어의 예로 들자면 ‘ab-’, ‘-less’, ‘not’ 등을 같이 설정하고 ‘make/become sth/sbd V/A’와 ‘-ize’, ‘be + p.p.’ 등을 함께 다루는 셈입니다.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이들은 ‘부정법’과 ‘피동법’을 실현하는 기능을 지닌 문법적 요소들로 엮을 수 있는 부분이 되나, 학습자의 입장에서는 이들은 매우 하나의 문법 기능으로 인지되기 어렵고 개별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도 여겨집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한국어를 외국어로서 학습하는 경우 교수 단위로서 문법 항목에 대해 신중하고 치밀한 검토와 분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목표어의 ‘문법 체계’와 목표어 표현(말이든 글이든)을 위해 요구되는 ‘(문장 성립 요건으로서의) 문법’을 아는 것은 그 위계가 다른 것은 아닌가 하는 견해도 제기될 수 있다고 봅니다. 동시에 이것이 형태-어휘적으로 구사가 되는지 또는 이러한 것들이 결합된 구문 형태로 구사가 되는지에 따라라도 학습자의 습득 전략이나 양상은 상이할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 발표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셋째, 어떻게 보면 참 답이 안 나는 질문일 수도 있을 텐데, 학습자를 위한 문법 항목의 배치에서 빈도나 급별 목록의 신빙성을 어디까지로 보아야 하며, 또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선생님의 견해를 여쭙어 보고 싶습니다. 발표에서는 국립국어원의 한국어 등급별 어휘 목록(2003)과 국제 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2010, 2011)을 기준으로 삼으셨는데, 전자의 어휘 목록은 현대 한국어 말뭉치를 단순 빈도 정렬한 후 일부 고유명사를 보정 어휘로 넣어 A, B, C로 그룹화한 것으로 외국어 숙달도의 정의로부터 상당히 거리가 있는 구분이고, 후자는 연구에서도 이미 밝힌 바(2011:35-37) 문법 항목의 등급화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는 ① 빈도, ② (문법적) 복잡도, ③ 학습자의 난이도, ④ 활용성, ⑤ 교수-학습의 용이성, ⑥ 기타(언어 간 대조를 통한 난이도 평정, 나선형 계열화, 유형별 위계화(범주별), 유사 의미의 문법 항목에 대한 통합 위계화 등등)의 기준에 대해 결국 현재로서는 ⑤번의 방법밖에는 적용할 수 없었던 배열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 우리 학계에서 국가 표준형이라고 믿고 있는 것은 실상 지금까지 나온 교재 중복도와 이를 바탕으로 한 TOPIK 등급의 재배치에 그치고 그 이상의 객관성은 획득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한국어 문법의 교육적 위계화를 위해서는 기초 연구의 성과를 앞으로 기대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학습자 말뭉치라든지 한국어의 문법적 구문이 지닌 복잡도를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는 등 지금까지 누적해 온 국어학의 성과를 바탕으로 아직 파고들어가지 못했던 부분을 한국어교육학의 견지에서 꾸준히 천착하고 해석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앞으로 선생님께서 진행하실 연구 방향이 다채롭고 흥미로울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됩니다.

토론자의 이해 수준이 일천하고, 또 본 토론문 준비에 시간상의 제약이 있어 제대로 된 질의를 드리지 못하고 발표자의 노고에 누를 끼치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덕분에 많이 공부했고, 한국어 문법 범주의 교육적 접근에 대해 의미 있는 통찰을 얻었습니다. 선생님의 연구가 앞으로도 순조롭게 뻗어 나가실 수 있기를 고대하며, 연구 논의를 제대로 짚어내지 못한 질의 사항은 전적으로 토론자가 연구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결과이니 너그럽이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성어·의태어를 활용한 한국어 발음 교육 방안

-평음, 격음, 경음을 중심으로-

김효신(한국외대)

## 차 례

1. 서론
2. 연구의 설계
3. 의성어·의태어를 통한 발음지도
4. 결론

## 1. 서론

외국어 학습에서 초급 학습자들이 먼저 접하는 것은 소리와 글자이다. 학습하는 외국어의 소리와 글자를 하나로 인식하고 모국어 화자와 유사하게 발음하여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는 언어 학습에서 가장 기초적인 단계일 뿐만 아니라 고급 단계에 이르기까지 학습자에게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하다. 모국어 화자 정도의 발화를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교육 내용과 시간 등을 고려하여 교육현장에서는 의사소통을 방해하지 않는 정도를 목표로 정하고 있다.

한국어 자음 학습에서 대부분의 학습자들이 가장 어렵게 느끼는 부분은 초성 자음인 평음, 격음, 경음의 구별이다. 허용(2103)에 따르면 영어권 학습자의 오류는 주로 'ㄷ'를 'ㅌ'로 발음하고, 'ㅂ'를 'ㅍ'로 발음하게 되는데 이는 무성 장애음이 모두 초성에서 격음으로 발음되기 때문에 한국어 발음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또한 일본어권 학습자들은 평음을 격음으로, 중국어권 학습자들은 평음에 해당하는 음이 없어 한국어의 발음을 경음이나 격음으로 발음하는 오류가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보았다.

국제음성기호(International phonetic Alphabet, IPA)에 의하면 자음의 발음이 가능한 조음의 위치가 10여 곳인데 한국어의 경우는 5곳이다. 이는 영어나 중국어 등의 언어보다 1~3개가 적다. 예컨대 학습자에게 초성 자음인 평음, 격음, 경음을 구별하고 제대로 발화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본고에서는 학습자가 유창한 발화의 생성과 수용을 위해 의성어와 의태어를 활용하여 발음 교육에 적용해 보고자 한다. 특히나 학습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초성 자음인 평음, 격음, 경음의 구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제시 순서를 선정하도록 하겠다. 음운 체계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듣기, 발음, 받아쓰기의 오류를 의성어·의태어를 이용하여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의 예를 들어 보고자 한다.

## 2. 연구의 설계

먼저 어두 자음 대립쌍에 관한 실험을 통해 학습자들이 가장 분별하기 힘든 자음들을 살펴보고 의성어·의태어를 이용하여 교육한 실험군과 그렇지 않은 통제군이 차이를 분석해 보고자한다.

H 대학교의 언어 교육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테스트를 실시하였다.

### 2.1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학습자들은 10주간의 정규과정에서 한국어를 학습하는 학생으로 1급 학생의 경우는 3단계로 나누어져있다. 하반의 경우는 자모 교육을 5일간 진행하며, 중반과 상반의 경우는 발음 교육을 3일간 진행하며 학습자가 어려워하는 발음 등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 (1) 2013년 2학기

장소: H대학교의 언어 교육원

대상: 1급 학생

인원: 108명

학습기간: 0개월 ~ 1년

시험 일시: 10주의 교육과정 중, 4주차 목요일

#### (2) 2013년 3학기

장소: H대학교의 언어 교육원

대상: 1급 학생

인원: 104명

학습기간: 0개월 ~ 1년

시험 일시: 10주의 교육과정 중, 4주차 목요일

#### (3) 2013년 4학기

장소: H대학교의 언어 교육원

대상: 1급 학생

인원: 51명

학습기간: 0개월 ~ 1년

시험 일시: 10주의 교육과정 중, 4주차 목요일

#### (4) 2014년 1학기

장소: H대학교의 언어 교육원

대상: 1급 학생

인원: 명

학습기간: 0개월 ~ 1년

시험 일시: 10주의 교육과정 중, 4주차 목요일

(5) 2014년 2학기

장소: H대학교의 언어 교육원

대상: 1급 학생

인원: 명

학습기간: 0개월 ~ 1년

시험 일시: 10주의 교육과정 중, 4주차 목요일

학습자 발음테스트는 2013년 2학기부터 실시해 왔으며 발음 판별 테스트를 통해 학습자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 진행되어 왔다. 그리고 학습자의 발음 판별 테스트 용지는 아래와 같다.<sup>1)</sup>

★ 다음을 잘 듣고 맞는 것에 표시(V)하십시오.

1급 _____ 반 이름: _____ 나라: _____											
[1] <input type="checkbox"/> 우리	<input type="checkbox"/> 오리	<input type="checkbox"/> 어리	[16] <input type="checkbox"/> 아로	<input type="checkbox"/> 호로	<input type="checkbox"/> 파로						
[2] <input type="checkbox"/> 이거	<input type="checkbox"/> 이구	<input type="checkbox"/> 이고	[17] <input type="checkbox"/> 바빠	<input type="checkbox"/> 바바	<input type="checkbox"/> 바작						
[3] <input type="checkbox"/> 지노	<input type="checkbox"/> 지닉	<input type="checkbox"/> 지누	[18] <input type="checkbox"/> 그빠	<input type="checkbox"/> 그바	<input type="checkbox"/> 그작						
[4] <input type="checkbox"/> 디오	<input type="checkbox"/> 디오	<input type="checkbox"/> 티오	[19] <input type="checkbox"/> 자기	<input type="checkbox"/> 자기	<input type="checkbox"/> 차기						
[5] <input type="checkbox"/> 이탈	<input type="checkbox"/> 이탈	<input type="checkbox"/> 이탈	[20] <input type="checkbox"/> 오자	<input type="checkbox"/> 오자	<input type="checkbox"/> 오자						
[6] <input type="checkbox"/> 소다	<input type="checkbox"/> 소다	<input type="checkbox"/> 소락	[21] <input type="checkbox"/> 거치	<input type="checkbox"/> 거치	<input type="checkbox"/> 거치						
[7] <input type="checkbox"/> 가토	<input type="checkbox"/> 가토	<input type="checkbox"/> 가토	[22] <input type="checkbox"/> 그조	<input type="checkbox"/> 그조	<input type="checkbox"/> 그조						
[8] <input type="checkbox"/> 카라	<input type="checkbox"/> 카라	<input type="checkbox"/> 카라	[23] <input type="checkbox"/> 차뿐	<input type="checkbox"/> 차뿐	<input type="checkbox"/> 차뿐						
[9] <input type="checkbox"/> 가요	<input type="checkbox"/> 카요	<input type="checkbox"/> 카요	[24] <input type="checkbox"/> 과연	<input type="checkbox"/> 과연	<input type="checkbox"/> 과연						
[10] <input type="checkbox"/> 잔카	<input type="checkbox"/> 잔카	<input type="checkbox"/> 잔카	[25] <input type="checkbox"/> 공도	<input type="checkbox"/> 공도	<input type="checkbox"/> 공도						
[11] <input type="checkbox"/> 시고	<input type="checkbox"/> 시고	<input type="checkbox"/> 시고	[26] <input type="checkbox"/> 설과	<input type="checkbox"/> 설과	<input type="checkbox"/> 설과						
[12] <input type="checkbox"/> 시야	<input type="checkbox"/> 시야	<input type="checkbox"/> 시야	[27] <input type="checkbox"/> 차얏	<input type="checkbox"/> 차얏	<input type="checkbox"/> 차얏						
[13] <input type="checkbox"/> 소리	<input type="checkbox"/> 소리	<input type="checkbox"/> 소리	[28] <input type="checkbox"/> 여말	<input type="checkbox"/> 여말	<input type="checkbox"/> 여말						
[14] <input type="checkbox"/> 거빠	<input type="checkbox"/> 거빠	<input type="checkbox"/> 거빠	[29] <input type="checkbox"/> 꽃 주세요	<input type="checkbox"/> 꽃 주세요	<input type="checkbox"/> 꽃 주세요						
[15] <input type="checkbox"/> 복리	<input type="checkbox"/> 복리	<input type="checkbox"/> 복리	[30] <input type="checkbox"/> 차를 쉬어요?	<input type="checkbox"/> 차를 쉬어요?	<input type="checkbox"/> 차를 쉬어요?						

<참고 자료1> 발음 판별 테스트

위의 발음 판별 테스트는 초성 자음만 판단하기 위한 평가는 아니며 모음 및 자음, 대표 받침을 잘 판별하는지 확인하는 시험으로 진행되었다. 한 문항 당 2번씩 들려주고 해당되는 발음에 표시를 하여 제출하였다. 평가 자료는 2014년 4학기에 실험반과 통제반으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평가 자료는 첫음절 자음과 두 번째 음절의 자음을 모두 평가하였고 듣기 녹음 자료는 한국어 강사<sup>2)</sup>가 발화한 음성을 녹음하여 평가 자료로 활용하였다. 녹음 자료는 연

1) 2014년 통계 자료는 아직 분석 중에 있어 본 발표에 넣지 않았다.

구자의 지시에 따라 고성능 녹음기(SONY)에 녹음하도록 하였고 피험자들이 들은 단어를 선정할 시간을 고려하여 약 3초간의 휴지를 두도록 하였다.

## 2.2 결과 분석

1급 학습자의 등급별 결과는 아래와 같다.

* 2013년 2학기				* 2013년 3학기				* 2013년 4학기				
등급	반	평균 정답률	등급별 평균 정답률	등급	반	평균 정답률	등급별 평균 정답률	등급	반	평균 정답률	등급별 평균 정답률	
상	1H	0.77	0.75	상	1H	0.91	0.90	상	1D	0.74	0.75	
	1I	0.72			1I	0.90			1E	0.76		
중	1C	0.74	0.70	중	1C	0.89	0.88	중	1C	0.68	0.68	
	1F	0.66			1F	0.84			1A	0.69	0.69	
	1G	0.75			1G	0.92		하	1B	0.68		
	1J	0.63		하	1A	0.84	0.85	하 평균 정답률		0.71		
하	1A	0.74	0.74		1B	0.87						
	1B	0.79			1D	0.89						
	1D	0.75			1E	0.81						
	1E	0.70	하 평균 정답률		0.87							
하 평균 정답률		0.73										

<참고 자료2> 등급별 결과

H대학 언어교육원의 1급은 3단계로 나누어져 있다. 하반은 자모부터 교육이 시작되는 반이며 중반과 상반은 말하기 교재 1과부터 진행해 나간다. 하지만 10주 과정 중 3일은 학습자들의 발음 교정에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2013년 2학기는 24개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3학기도 24개국, 4학기는 19개국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2013년 4학기에 정답률이 80% 아래인 경우는 아래와 같다.

2) 출신지: 서울. 성별: 여, 나이 38세, 직업: 한국어 강사

문항 번호	문항내용	정답	평균 정답률
5	이달, 이딸, 이탈	이달	0.63
7	가또, 가토, 가도	가도	0.73
8	기리, 끼리, 키리	끼리	0.75
9	가요, 카요, 까요	가요	0.75
10	진까, 진카, 진가	진카	0.69
12	시아, 쉬야, 썬야	썬야	0.41
14	거썬, 거시, 거치	거시	0.45
15	비리, 빠리, 피리	비리	0.53
17	바빠, 바바, 바과	바과	0.59
19	자기, 찌기, 차기	자기	0.39
20	오짜, 오자, 오차	오차	0.69
22	그조, 그쑤, 그조	그쑤	0.65

<참고 자료3> 평·경·격 테스트 결과

위의 결과를 보면 정답률이 매우 낮은 것 문항은 12, 14, 19번이다. 12번과 14번의 경우, 오답을 보면 모두 'ㅅ' 또는 'ㅆ'으로 답변하였다. 이는 학습자에게 'ㅅ', 'ㅆ' 구별이 매우 어려움 보여 주는 예라 할 수 있겠다. 중국어권은 70%가 'ㅆ'을 'ㅅ'로 인식하였고, 영어권 학습자들도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19번의 경우는 평음 'ㅈ'를 판단하는 테스트인데, 학습자들은 답안으로 대부분 '차기'로 표시하였다. 19번과 동일하게 'ㅈ'를 구별하는 테스트인 21번 문항은 정답률이 84%이다. 21번 문항은 '거지'로 2음절에 목표 항목을 판단하는 테스트로 이 결과에 무엇이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 3. 의성어·의태어를 통한 발음지도

#### 3.1 의성어·의태어의 특징

의성어·의태어는 외국인 학습자의 오류를 개선할 수 있는 이점들이 많다. 모국어 화자에게는 의성어·의태어를 들을 때 그 의미를 짐작케 하는데, 그 음과 의미사이에 필연성이 있다.

또한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의성어·의태어는 문화적인 기반을 바탕으로 생긴 것으로 사람들의 감정이 그대로 표현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TV나 웹툰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한국어는 다른 언어에 비해 의성어·의태어가 매우 풍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의성어·의태어를 사용하는 경우,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의성어·의태어는 형태적 특징에 있어서 반복형(ABAB형)이 많아 한국어 리듬 감에 발음 연습에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다. 특히나 경음, 격음형의 형태가 많고 모음 교체로 음감의 차이도 나타내 이를 인지시키는 데에도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3.2 의성어·의태어를 이용한 한국어 발음 지도

Dalton & Seidlhofer(2004)에서는 발음교육에 대해 두 가지 접근법을 제시하였다. 그 하나는 '직관적-모방적 접근법', '분석적-언어적 접근법'으로 '직관적-모방적 접근법'은 학습자에게 목표어의 소리와 리듬을 모방하고 듣고 따라하여 학습자의 발음이 향상된다는 것을 전

제로 하고 있다. '분석적-언어적 접근법'은 음성기호, 조음 기술, 발생기관 등 소리 생성에 도움이 되는 정보와 자료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명확하게 목표어를 들어 주고 주의를 기울이게 하는 접근법이다.

초급 단계의 학습자들에게는 '직관적-모방적 접근법'을 통해 원어민 발음을 노출시켜 발음 교육을 진행하도록 한다. 이는 다양한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기에 '분석적-언어적 접근법'이 발음교육 상황에 맞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너무 많은 정보는 학습을 방해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평음, 격음, 경음 교육이 끝난 후에 최소 대립쌍을 통해 최소 대립어 소리를 구별하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한다. 듣기 방법으로는 Rivers가 제시한 단계별 듣기 교육으로, 1단계는 음소의 구별, 단어나 문장, 구 등의 구별로 나누어 연습을 진행한다.

2단계는 받아쓰기로 교사의 발화를 학습자가 들으면서 그 소리를 문자화 시키는 단계이다. 전통적으로 언어 교육에 있어 받아쓰기는 언어실력을 통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여겨져 왔다. 또한 음소의 구별, 철자 확인 등 듣기의 통합적인 수단으로 여겨져 왔다. 받아쓰기는 듣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문맥상황을 통해 제대로 듣지 못하는 단어를 이해하는 훈련에 있어 효과적이다. 또한 철자 테스트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활용이 가능하며 이는 학습자의 어휘 수준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 3.3 의성어·의태어 발음교육 목록 선정

학습자에게 어려움을 일으키는 평음, 격음, 경음을 잘 듣고, 제대로 발음하고, 바르게 받아 쓸 수 있도록 의성어·의태어 목록을 선정하도록 하겠다.

최희정·이경은<sup>3)</sup>의 한국어 교육용 의성어·의태어 151개 어휘 리스트로 발음 교육을 진행하고자 한다. 교재에서 제시된 의성어·의태어의 어휘양이 매우 부족하고, 초급에서는 주로 의성어 정도만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151개의 교육용 목록은 '사람', '사물', '자연', '동물' 등으로 의미별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의성어·의태어를 따로 구별하지 않고 제시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의미 인지가 쉬운 의성어를 먼저 교육 자료로 사용하고, 이후에 의태어를 이용하고자 한다.

### 3.4 의성어·의태어 발음교육 방법

#### 3.4.1 소리의 구별

1) 자음을 듣고 같은 소리면 O, 다른 소리면 X

2) 듣고 따라하기

대표 자음만 그림으로 보여 주고 단어 따라 읽기

3) 듣고 그림 카드와 글자 카드 고르기

'꼬끼오'를 들었을 때는 '닭'의 그림과 '꼬끼오' 단어를 찾아 내기

#### 3.4.2 받아쓰기

1) 듣고 어두 자음 쓰기

교사가 단어를 말하면 모음만 있는 쓰기 자료에 그 발음을 듣고 자음을 구별하여 쓴다.

3) 한국어언어문화교육학회 11차 전국학술대회 발표문

교사가 기본 모음을 써 두어도 좋고 모음이 있는 종이를 주고 쓰게 해도 된다.

#### **3.4.3. 듣고 말하기**

- 1) 교사의 발화를 잘 듣고 따라 말하기
- 2) 그림 보고 말하기; 그림을 보고 그 그림에 어울리는 의성어·의태어를 말하기

#### **4. 결론**

..

## □ 토론 □

### “의성어·의태어를 활용한 한국어 발음 교육 방안-평음, 격음, 경음을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고경민(선문대)

이 연구는 초급 학습자에게 특히 중요한 한국어발음교육을 의성어와 의태어를 활용해 교육 방안으로 제시한 연구입니다. 초급 단계에서 고쳐지지 않는 발음은 화석화되어 중급 이후의 과정에서 고치기 어렵고,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어 유창성의 기준에 발음이 상당히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발표문이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고, 토론자 또한 발음교육에 정통한 연구자가 아니기에 한국어교사의 입장에서 궁금한 몇 가지를 질문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첫째, 2장은 전체 연구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연구 설계 및 방법에 대한 부분입니다. 통계 자료가 아직 분석중이라고 하셔서 분석 내용에 대한 질의는 다음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참고 자료?로 제시한 ‘발음 판별 테스트’에 대한 논의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인 학습자의 받침 문제, 중국인 학습자의 평음 발음 등은 이미 다른 논의에서 충분히 진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자가 제시하신 발음 판별 테스트는 어떤 기준을 바탕으로 구성된 것인지요? 이는 연구자가 3장에서 논의할 내용과도 깊은 관련이 있으며, 이러한 테스트지가 잘못될 경우 전체 연구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연구자께서 발음 판별 테스트지를 어떻게 구성하신 기준이나 원리 등이 있으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문항 내용에서 제시한 어휘는 소리를 구별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해도 유의미한 어휘로 선정하는 것이 학습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둘째, 전체 테스트 결과는 알 수 없기에 <표3>에 제시한 내용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19번에 제시한 ‘자기’에 대한 ‘차기’ 응답이 높다는 것은 20번과 21번(표에 없음), 22번과 비교해 볼 때 어두자음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영향을 주었을 수도 있고, 21번의 경우 두 번째 음절의 ‘ㅈ’이 유성음화 환경이기에 정답률에 영향을 주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표3에서 제시한 테스트 결과가 의성어 의태어를 활용해 교육 방안을 제시하는 데 어떤 영향을 주었으며, 이 결과를 어떻게 활용해서 논의를 이어갈 것인지 연구자의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발표문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2장에서 3장으로의 논의의 진행을 발표자만으로도 이해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셋째, 의성어 의태어를 이용한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어발음교육은 이연진(2005), 김은경(2006), 윤은미(2008) 등에서도 논의가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본 연구의 핵심이 3장에 있는 만큼 의성어·의태어를 이용한 교육 방안 중 연구자께서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신 교



육 내용과 방법 등을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그에 해당하는 근거를 함께 말씀해 주신다면 실제 한국어교육 현장에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외국인 학습자들의 글쓰기 오류 현상

-중국인 고급학습자들의 글쓰기 실태를 중심으로-

박혜란(건국대)

## 차 례

1. 들어가는 말
  2. 글쓰기 교육의 실태 조사
  3. 고급 학습자들의 글쓰기에 나타난 오류 실태
  4. 글쓰기에 지도방안에 대한 대안
  5. 나가며
- 참고문헌

### 1. 들어가는 말

한국어 학습자들이 한국어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은 글쓰기에 대한 어려움이다.<sup>1)</sup> 한국어 학습자들이 배우는 과목은 평가의 편의성을 위해 편의상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로 나뉘어 있다. 네 개의 과목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각 과목은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과목의 학습이 더 어렵다는 것이 잘 와 닿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네 개의 과목 사이에는 학습자들이 느끼는 학습에 대한 경중이 분명히 존재한다.

‘말하기’의 경우 담화 상황에 반언어, 비언어적 특징이 함께 내포되어 학습자의 말하기 능력을 보완해준다. 또한 ‘읽기’와 ‘듣기’의 주된 목적이 내용 파악인데 단어와 문법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면 내용 파악에 큰 어려움은 없다. 반면, 글쓰기는 오롯이 본인 스스로의 생각과 쓰기 실력이 바탕이 되어야하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받는 부담감은 다른 과목에 비해 높을 수밖에 없다. 또한 학습자가 문장을 만들어서 표현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말하기’와 비교했을 때 ‘글쓰기’는 문장에서 필요로 하는 문장 구성 성분을 갖추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어순에 맞게 구성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야하기 때문에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부담감은 실제 평가 결과로 이어져있기 때문에 눈에 확연히 드러나게 된다.<sup>2)</sup>

학습자들이 글쓰기에 대해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토로함에 따라 그동안 연구자들도 한국어 학습자들의 글쓰기 오류를 언어권별, 학습 단계별 등으로 나누어 다양하게 연구해 왔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오류분석은 주로 작문에 나타난 조사, 어미 등이 그 연구 대상이 되어 왔으며, 김미옥(1994, 2002), 민진영(2002)등의 연구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지

1) 외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과목과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 약 68%의 학생들이 쓰기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그 이유에 대해서는 ‘문법의 방대함과 맞춤법의 실수, 동사 활용에 대한 어려움’ 등을 언급하였다.

2) 실제 평가과정을 거치면 다른 과목에 비해 ‘쓰기’ 평가 점수가 낮게 나오는 경향이 많으며, 현재 개정된 TOPIK의 경우도 ‘읽기’, ‘듣기’와 비교해 ‘쓰기’ 점수가 낮게 나타나는 편이다.

금까지 이루어진 대부분의 연구들은 초급 단계 학습자의 오류에 집중되어 있거나, 특정 문법이나 어휘 오류를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초급 단계 학습자들의 오류에 대한 선행연구가 다양한 이유는, 중·고급 학습자들에 비해 초급 단계 학습자들이 다양한 변인에 영향을 받아 글쓰기 상황에서 나타나는 오류가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한국어 학습을 한 기간이 길어질수록 오류의 종류와 빈도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미옥(2002:536)에 따르면, 급이 올라갈수록 학습자가 산출한 총 어절 수는 증가하는 반면 오류율은 점차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김미옥(2002)에서는 출신 국가별에 따른 오류 빈도를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 중국어권의 오류가 가장 높았으며 이에 각별한 관심과 지도방법이 요구된다고 기술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급 단계를 수강하고 있는 중국인 학습자들의 글쓰기에서 나타나는 오류의 유형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학습자들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지도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 2. 글쓰기 교육의 실태 조사

### 2.1. 연구 대상

연구 대상은 2013년 건국대학교 언어교육원에서 한국어를 수강중인 중국인 학습자가 연구대상이 되었다. 이들은 모두 1년 이상 한국어를 학습한 학생들로 단계별로는 5급에 해당되며 고급으로 분류된다. 고급에 해당하는 학습자들 중 5급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조사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이들이 중급에서 고급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이기는 하나 비교적 안정적인 오류양상을 보일 것이라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연구대상의 학생들이 재학 중인 건국대학교의 언어교육원의 5급은 글쓰기에 집중을 하고 있으며, 이는 급별 목표에도 명시되어 있다. 그 목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분야 등의 주제를 다루며 구어 상황과 문어 상황에 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말하거나 글을 쓴다.
- 뉴스를 듣고 요약해서 발표를 하거나 보고서 작성을 통해 논리적인 글을 써 본다.

이는 고급학생으로서 뛰어난 글쓰기 능력을 고취시켜야 된다는 것을 주지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쓰기 능력 함양에 중점을 둔 교육과정 상의 학습자들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이들은 모두 중국인 학습자로, 총 24명이 연구대상이 되었다.<sup>3)</sup>

### 2.2. 연구 자료

본고에서는 5급에 재학 중인 중국인 학습자 24명의 ‘쓰기’ 시험, 총 48편을 연구 자료로

3) 더 많은 학습자를 연구 대상으로 하여 더 많은 글쓰기 자료를 연구 자료로 삼는다면 더욱 타당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어떤 오류가 더 많은 빈도로 나타나는지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글쓰기 상에서 나타나는 오류의 종류를 알아보고 그 오류들을 줄일 수 있는 교수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연구 대상의 숫자에는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삼는다. 시험은 2회에 걸쳐 시행되었으며 각각의 주제는 ‘환경 문제’와 ‘부의 양극화’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쓰는 주장하는 글이다. 5급에서 한 학기 동안 이루어지는 쓰기 활동은 신문을 읽고 요약하기, 주장하는 글쓰기 등이 있다. 하지만 많은 양의 쓰기 자료가 있음에도 연구 자료로 삼지 않은 이유는 시험을 제외한 다른 글쓰기는 순수하게 학습자 본인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쓰기라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다른 글쓰기들은 보통 과제형식이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인터넷이나 다른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작성을 한다. 반면 시험은 제한된 시간 안에 다른 도움 없이 본인의 능력만으로 써야한다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연구 자료에 제일 적합하다고 생각하였다.<sup>4)</sup>

### 2.3.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다음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다.

첫째, 학습자들이 글쓰기 중 어느 부분을 어렵다고 생각하는 지 먼저 사전 조사를 실시하였다. 학기가 시작할 때 학습자들에게 한국어 학습에 있어 힘들다고 생각하는 과목이 무엇인지를 조사하였고, 어떤 부분이 학습을 어렵게 만드는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둘째, 학생들의 글쓰기 자료를 모아 오류 분석을 하였다. 오류는 문장 구성상에서 나타나는 문법 오류<sup>5)</sup>들로만 한정하였다. 학습자들이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사용한 문법과 표현은 오류에서 제외하였다. 학습자들의 글쓰기 상에서 나타나는 오류를 모두 정리한 후 같은 성격의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단, 실수와 오류를 구별하기 위해 2회 이상 나타난 경우를 오류로 한정하였다.

셋째, 오류의 유형을 분류한 후 사전조사에서 나타난 학습자들의 요구사항에 따른 교수-학습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 2.4. 오류 분석 결과

한국어 학습자들의 쓰기 자료 48편을 분석한 결과 총 1,155개 문장, 10,397 어절 중 462어절에 걸쳐 오류가 나타났다.<sup>6)</sup> 오류 중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난 것은 단어차원에서는 조사 오류와 어미오류, 맞춤법 오류, 시제 오류가 나타났고 문장차원에서는 주술구조 호응의 불일치와 성분생략, 어순의 뒤바뀜 등이 나타났다.

이러한 오류의 종류는 초급 학습자들의 오류에 비해 그 종류와 빈도가 현저히 낮게 나타남을 보여준다. 각각의 빈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 외국어 교육에 있어서 학습자의 오류를 파악하고 분석하기 위해서는 ‘실수’와 ‘오류’의 구별이 중요하다. ‘실수’란 규칙적이지 않고 언어능력의 부족에서 기인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오류’는 나름의 규칙성이 있으며 학습자 스스로 깨닫고 수정하기 어려우며 언어능력의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다.

‘실수’와 ‘오류’를 구별할 때 연구자의 주관의 깊이 개입하고 있기 때문에 구별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연구 자료인 ‘시험’의 경우 시간에 쫓겨 학습자가 평소 하지 않은 ‘실수’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실수’와 ‘오류’를 잘 파악하여야 했다. 본고에서는 학습자가 2번 이상 실수 한 것을 나름의 규칙이 나타난 것으로 보아 오류로 보았다.

5) 본고에서 오류는 문장차원과 단어차원으로 나누었다. 문장 안에서 나타나는 오류로는 호응의 불일치와 성분 생략, 어순의 뒤바뀜으로 분류하였고, 단어 안에서 나타나는 오류로는 조사오류, 어미오류, 맞춤법 오류, 시제오류, 불규칙 오류, 사·패동오류, 숫자 혼란으로 인한 오류 등으로 분류하였다.

6) 오류의 횟수가 적게 나타난 이유 중 하나는 주석 4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회 이상 나타나는 경우만을 오류로 인정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표-1> 오류의 종류에 따른 빈도

범주	오류 종류	빈도수
단어차원	조사 오류	25%
	어미 오류	23%
	맞춤법 오류	14%
	시제 오류	8%
	기타	6%
문장차원	호응의 불일치	12%
	성분생략	9%
	어순의 뒤바뀜	2%

### 3. 고급 학습자들의 글쓰기에 나타난 오류 실태

#### 3.1. 단어 차원

단어차원에서 나타나는 오류는 조사 오류, 어미 오류, 맞춤법오류, 시제오류, 불규칙오류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설명은 가장 많은 오류가 나타난 순서대로 설명하고자 한다.

##### 3.1.1. 조사

한국어에서 조사는 그 기능이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 학습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이다. 특히, 모국어에 조사가 존재하지 않는 학습자들은 조사의 사용에 큰 오류를 보인다. 그 중 대표적인 예가 중국인 학습자들과 영어권 학습자들인데 이들이 사용하는 언어에는 조사의 개념이 없다보니 한국어 학습상황에서 조사로 인해 겪는 어려움은 꽤 크다고 할 수 있다. 김미옥(2002)에서는 조사 사용에 대한 중국인 학습자의 오류율은 한국어 과정 전 단계에 걸쳐 다른 오류들이 비례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본고의 조사에서도 다른 오류들에 비해 조사 오류가 제일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조사 오류의 유형은 잘못 표기된 경우와 사용되어야 할 자리에서 사용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조사가 2개 이상 사용된 경우로 나타났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조사 오류의 유형을 오표기, 생략, 첨가로 구분하였다.

##### (1) 오표기

- a. 여러 원인\*을(이) 있지만 제일 심각한 것은 인류생활이기 때문이다.
- b. 또한 몸의 화학물질때문에 몸의 균형\*을(이) 깨져서 체력이 좋지 않다.
- c. 과학\*을(이) 발달해서 연구를 많이 발생했다.
- d. 생활중에 플라스틱\*을(이) 필요하는 분야는 여러 분야있다.
- e. 처음에는 사람들의 재산은 정부\*의(가) 정체\*가(을) 어떻게 실시하느냐에 달려있었다.
- f. 정부와 사회는 관심이(\*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sup>7)</sup>

a~d는 주격조사 ‘-이/가’자리에 목적격 조사 ‘-을/를’이 오표기 된 예이다. a의 ‘있다’는 형용사이고, b, c, d의 ‘깨지다’와 ‘발달하다’, ‘필요하다’는 자동사이므로 주격조사 ‘-이/가’가 필요한데 이것 대신 목적격 조사가 사용된 것이다.

e~f는 목적격 조사 ‘-을/를’이 들어가야 할 자리에 주격조사 ‘-이/가’가 들어간 것이다. e의 경우 정확한 문장은 ‘정부가 정책을 어떻게 실시하느냐’이다. 그런데 위의 예문과 같이 두 군데에서 조사가 오표기 됨을 알 수 있다. ‘실시하다’는 타동사이므로 ‘-이/가 -을/를’을 실시하다’의 형태로 쓰여야 하는데 이를 무시한 채 사용된 것이다. f도 이와 마찬가지로 ‘가지다’가 타동사이므로 ‘-을/를’이 필요한데 주격조사가 대신 사용된 것이다.

g. 환경 호르몬\*이(은) 사람\*을(에게) 비해할 뿐만 아니라 동물\*도(에게도) 비해가 있다.

h. 많은 가게는 경제능력\*은(이) 부족할 뿐더러 기업도 경제 문제가 생긴 것으로 나타난다.

위의 g~h는 주격조사 ‘-이/가’와 보조사 ‘-은/는’이 교체되어 사용된 예이다. 이 둘의 오표기는 초급에서부터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오류 현상으로 고급학습자들에게서도 나타나는 오류이다. g는 뒤의 문장에도 오류가 나타나는데 이를 올바른 문장으로 고칠 경우 ‘환경호르몬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동물들에게도 피해를 준다’로 고쳐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야기의 초점이 뒷부분에 있을 경우 보조사 ‘-은/는’을 사용하는데 g의 경우 사람과 동물 모두 피해를 입는다는 것이 초점이 되므로 보조사를 쓰는 것이 옳바르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h의 경우 일반적으로 주격조사가 두 번 나오게 될 때 처음 주어에는 ‘은/는’을 쓰고 그 다음 주어에 ‘-이/가’를 쓴다. 따라서 ‘많은 가게는 경제능력이 부족할뿐더러’로 써야 한다.

i. 건강에도 좋기 위해서 라면처럼 음식을 안 먹고 플리스틱\*을(의) 사용기간이 줄어야 한다.

j. 환경 호르몬\*에(이) 몸에 들어간다

i는 관형격 조사 ‘-의’대신 목적격 조사 ‘-을’이 오표기 된 것이다. 관형격 조사 ‘-의’의 경우 초·중급의 경우 부사격조사 ‘-에’와 발음이 헛갈려 ‘-의’가 ‘-에’로 오표기 된 경우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그런데 i의 경우 목적격 조사로 오표기되었는데, 이러한 오표기는 한 학생의 글쓰기에서만 나타났다.

j는 주격 조사 ‘-이/가’대신 부사격 조사 ‘-에’가 오표기된 것이다. 보편적으로 초급 글쓰기에서는 ‘-에’는 ‘-에서’와 많이 혼동되어 오표기가 일어난다. 그런데 j에서는 ‘들어가다’동사 앞에 ‘-이/가’와 ‘-에’ 모두 쓸 수 있으므로 이러한 혼동에서 비롯하여 잘못된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

## (2) 생략

생략은 조사를 사용하지 않는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 겪는 문제점 중에 하나이다. 학습자들은 실제 조사라는 체계가 머릿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발화나 글쓰기를 할 때 한번 자국의

- 7) 예문은 학생들의 문장을 직접 옮겨 적은 것으로 오류가 일어난 부분은 괄호를 넣어 수정하였고, 다른 오류가 일어난 부분은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적었다.

언어로 번역한 후 사용하는데, 이 과정을 거치면서 조사가 생략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조사의 생략은 주격조사와 목적격 조사의 생략빈도가 높은 편이었다.

- a. 환경 호르몬으로 인해 사람에게 가장 \*영향(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 b. 건강에도 좋지 위해서 라면처럼 음식을 안 먹고 \*플라스틱(플라스틱의) 사용기간이 줄여야 한다

a의 경우 문장 성분도 생략되었고, 조사도 생략되었다. b는 관형격 조사 '-의'가 사용되어야 하는데 생략된 예이다. 실제 조사 생략은 불규칙적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학습자들의 언어체계에서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중국어에는 조사가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조사를 사용해야 할에도 생략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 (3) 첨가

첨가는 조사가 두 번 이상 연달아 사용된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경우도 학습자들의 쓰기에서 종종 나타나는 현상이다.

- a. 게다가 암\*율이(이) 생길 수도 있다
- b.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부의 양극화 문제\*가도(가) 심하다
- c. 학교에 졸업한 후에 몇년동안 일해서 자동차나 집\*이도(도) 살지 않으니만큼 결혼하지 않다
- d. 공장에서 화석 연료를 많이 사용해서 공기\*가도(가) 오염을 심각해지고 있다.

a~d는 함께 사용할 수 없는 조사들이 함께 나타난 것이다. 일반적으로 보조사의 경우 다른 조사에 결합하여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초급에서 교수가 되는데 학생들이 이러한 부분을 인지하지 못하고 조사를 첨가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a는 b~d에서 나타난 첨가와는 조금 다른 성격으로 첨가된 것이다. a는 주격조사와 목적격조사가 함께 사용된 예로 고급학습자들에게서 거의 보이지 않는 오류였다. b~d는 초급학습자들에게서도 많이 나타나는 예인데 바로 보조사 '도'가 다른 조사와 함께 사용되는 것이다. 이러한 오류는 학생들이 조사사용에 대한 규칙들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조사의 대부분은 초급에서 그 의미와 사용 규칙을 배우게 된다. 그런데 고급학습자들의 글쓰기에서도 조사 오류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조사를 사용하지 않는 모국어의 영향으로 나타나는 오류이거나 오류 수정 후 개선 교육에 큰 중점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악순환으로 보인다.

#### 3.1.2. 어미 오류

조사 오류 다음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어미 오류이다. 한국어는 어미의 쓰임 자체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상당수의 학습자들이 많은 오류를 범하는 경향을 보인다. 문법과 표현을 배울수록 어미의 사용은 확대되기 때문에 어미 오류도 학습자의 수준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오류이다.

본고에서는 어미 오류를 연결어미, 전성어미, 종결어미로 분류하였다.

- a. 생활중에 플라스틱을 \*필요하는(필요한) 분야는 여러 분야있다.
- b. 그렇지만 우리 \*먹은(먹는) 식품은 점점 나빠진다.

a~b는 관형형 어미에서 나타나는 오류의 예이다. 관형사형 어미는 품사와 시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a와 b는 모두 현재형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경우이며, 각각 형용사와 동사라는 차이점이 있다. 형용사의 경우 ‘-(으)ㄴ’을 써야 하며, 동사의 경우 ‘-는’을 써야 하는데 학습자들의 경우 품사에 따른 어미사용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 오류가 나타나거나 문장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과거, 현재, 미래 중 어느 형으로 사용해야 할지 헷갈리기 때문에 오류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a의 경우도 ‘필요하다’가 형용사인데, 잘못된 품사 인식으로 인해 동사처럼 사용된 것이다.

- c. 이런 화학물질들은 환경호르몬으로 \*일킨다(일킨는다)
- d. 환경 호르몬은 우리몸에 나쁜 영향이 있을 뿐더러 이제는 사회문제가 \*되다.(된다)
- e. 부의 양극화 상황이 많아지면 사회가 병화하지 \*않다.(않는다)
- f. 환경 호르몬을 줄이기 위해 우리 생활에서 일회용품을 전혀 사용하지 \*않다.(않는다)
- g. 돈이 어떻게 증가하지는 \*모른다.(모른다)
- h. 그리고 사회에서 국민을 위해서 집을 구하면 빈부별로 가격이 \*다른다.(다르다)
- I. 자녀가 학교에 안 오고 일찌 일이 해서 생활 수준이 좋지 \*않은다.(않다)
- j. 병소에 우리는 시간이 없기는 몰라도 범라면등의 식품을 \*먹지 마자.(먹지 말자)

c~j는 종결어미에서 나타나는 오류들이다. 한국어의 종결어미는 문장을 끝맺는 방식에 따라 평서형, 의문형, 명령형, 청유형으로 나뉘는데 학습자들이 이러한 문장의 다름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류가 종종 나타나기도 한다. 또한 종결어미에서 오류가 나타나는 이유는 바로 한국어에서 종결어미가 격식체와 비격식체로 나뉘면서 그 체계가 복잡해졌기 때문이다. 실제 초급에서 ‘-(스)ㄴ니다’와 ‘-아/어/해요’를 배우는데 이 경우 초급수준에서 오류가 많이 나타나며 중급급의 경우는 서술문에서 오류가 많이 나타난다. 중급 이상 학생들의 글쓰기는 서술문을 사용하기 때문에 c~j에서 나타나는 오류들은 모두 서술문에서 나타난 오류이다. 서술문 또한 평서형, 의문형, 명령형, 청유형으로 나뉘며 과거, 현재, 미래, 동사, 형용사, 명사의 조건들에 의해 체계가 형성이 되므로 학생들이 이러한 체계를 인식하고 사용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일 것이다. 위의 오류들은 이러한 체계상 혼란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위의 예문은 모두 현재시제로 사용되었다. 그런데 c~g는 동사이므로 ‘-(ㄴ)ㄴ다’가 사용되어야 하며 h~i는 형용사이므로 ‘-다’가 사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j는 부정형을 갖는 종결어미이므로 ‘-지 말자’가 사용되어야 한다.

- k. 그런 원인 때문에 범죄율이 \*높아지다고 생각한다.(높아진다고 생각한다)

k은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상황에서 나타난 간접화법 오류이다. 중국어에는 간접화법이 없으므로 학습자들이 처음 간접화법을 배울 때 매우 어렵힌다. 간접화법 또한 문장의 중



류와 시제에 따라 복잡한 체계를 갖고 있으므로 학습자들이 많은 오류문장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학습자들이 간접화법을 사용하며 오류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반해 k에서 오류가 나타난 이유는 어미 사용 체계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인한 오류로 보인다.

고급 학습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미 사용에서 오류가 나타나는 이유는 학습자들이 배우는 문법과 표현의 양이 방대해지고, 그 안에서 규칙이라 생각되는 체계가 복잡해지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이정희(2003)에서는 중국 단계의 학습자들이 한국어를 습득해 가는 과정에서 초급 단계의 학습자들보다 오류율이 약간 더 높게 나타났다고 언급하며 이 원인을 한국어 사용에서 보이는 다양한 실험에 의해 나타난 결과라고 하였다.

### 3.1.3. 맞춤법 오류

맞춤법 오류는 한국 사람들에게서도 자주 나타나는 오류이다. 한국어의 경우 발음과 표기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국어가 모국어인 화자들도 많이 틀리며 어려워한다. 모국어 화자들도 어려워하는 부분이니만큼 학습자들도 맞춤법에서 큰 어려움을 느낀다. 이는 학습상황에서 교수자의 조력이 크게 작용하기보다 학습자 본인이 정확하게 외워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압박감이 작용해서라 생각된다.

맞춤법에서 나타나는 오류는 음운체계에서 기인한 발음의 유사성에 대한 오류와 단순 실수가 반복되어 나타나는 오류로 나누어 살펴 보았다.

#### (1) 음운의 유사성에서 기인한 오류

- a. 예를 들어 이제부터 \*분리스거(분리수거)를 잘해야 한다.
- b. 공기가 나빠져서 비가 나쁜 \*물질(물질)을 가지고 온다.
- c. 입에 침이 마르게 \*칭천(칭찬)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 d. 정부가 세금을 내는 법이 바뀔 \*빌요(필요)가 있다.
- e. 사람들이 생활은 \*편리해진데반내(편리해진 데 반해) 환경 \*호르문(호르몬)의 피해가 최근 더 심해졌다.
- f. 정부가 개인소득세를 보내는 방법을 더 \*작은쪽(작은쪽)으로 잘 \*새우면(세우면) 좋을 것 같다.
- g. 부의 양극화 상황이 많아지면 사회가 \*병화(변화)하지 않다.

위의 예들은 발음의 유사성에서 기인한 오류이다. a~c의 오류는 모음 ‘ㅛ~ㅛ’, ‘ㅛ~ㅛ’의 유사성으로 인해 나타난 오류이다. 중국인 학습자들의 경우 특히 ‘ㅛ~ㅛ’, ‘ㅛ~ㅛ’ 발음 구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러한 어려움이 쓰기에까지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다. d는 예사소리와 거센소리의 유사성으로 인해 학생들이 잘못 표기를 한 것이다. e의 경우 ‘편리해진데 반해’가 맞는 표기인데 이 경우 소리나는대로 사용한 것을 볼 수 있다. f는 2개의 오류가 나타나는데 하나는 ‘ㄷ’와 ‘ㅈ’의 유사성으로 인한 오류이고 하나는 ‘세우는’을 ‘새우는’으로 사용하였는데 ‘ㄱ’과 ‘ㅈ’의 발음의 유사성으로 인해 나타난 오류이다. g는 ‘변화’를 ‘병화’로 잘못 표기한 것인데 이 경우 잘못 발음하는 것을 그대로 표기에 반영한 것이다.

## (2) 단순 실수로 인한 오류

- a. 환경 호르몬을 줄이기 위해 우리 생활에서 일회용품을 \*전혀(전혀) 사용하지 않다.
- b. 생활 중에 \*플리스틱(플라스틱)을 필요하는 분야는 여러 분야있다.
- c. 우리 생활하면서 아침이나 \*적녁(저녁)이나 할 것 없이
- d. \*프라스틱(플라스틱)에 담은 음식이나 ~~ 환경 호르몬이 많이 \*싸인다.(썰인다)

a~d의 예들은 뚜렷한 규칙성없이 단순 실수로 나타난 맞춤법 오류들이다. a의 경우 ‘전혀’를 ‘전혀’로 b는 ‘플라스틱’을 ‘플리스틱’으로 사용하였고 c는 ‘저녁’을 ‘적녁’으로 잘못 표기한 것이다. c의 경우 뒤 음절의 종성에서 사용된 ‘ㄱ’이 앞 음절의 종성에서도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d의 문장에서는 ‘플라스틱’과 ‘썰다’의 오류가 나타나는데 ‘플라스틱’의 경우 자주 접하는 단어가 아닌 관계로 단어의 정확성이 떨어진 것이며, ‘썰다’의 ‘ㅎ’발음이 되지 않아 발음나대로 적힌 것으로 생각된다.

맞춤법 오류의 유무는 학습자들의 정확성에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오류들보다 학습자 본인의 의지와 꼼꼼함에 좌우된다고 본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맞춤법 오류에 대한 원인을 학습자의 정확성이 떨어지기 때문만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교수자들은 이에 대한 학습방안을 마련해 내야 한다.

### 3.1.4. 시제 오류

한국어의 시제는 문장 안의 종결형과 관형사형, 연결형에서 나타난다. 오류 양상은 과거 시제, 현재시제, 미래시제를 뒤섞어 사용된 경우들이 있었다. 시제 오류의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 a. 대부분 국가는 이런 양극화 상황을 쉽게 볼 수 \*있었다.(있다)
- b. 환경 호르몬은 인류의 성호르몬과 \*비슷했기(비슷하기) 때문에 아이가 잘 성장할 수 없을 수도 있다.
- c. 우리는 호르몬을 \*줄일 수 있기 위해서(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한다.
- d. 새로운 발명품의 \*등장하기(등장했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이 편리해지고 있지만 환경 호르몬의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다.
- e. 이것은 옛날에 \*없지만(없었지만) 지금 이것이 있지 않고서야 살 수 없는 정도로 필요한 것이다.
- f. 운동하지 않으면 환경 호르몬은 운동하고 있는 사람보다 더 빨리 몸에 \*들어갔다.(들어간다./들어갈 것이다.)

a~b는 현재시제로 사용해야 하는데 과거 시제로 잘못 사용한 예이다. a는 종결어미에서 오류가 나타났으며 b는 연결어미에서 오류가 나타났다. c에서 사용된 ‘-기 위해서’의 문법 특징을 살펴보면 미래 시제와 함께 사용할 수 없는데 학습자가 이러한 특징을 간과한 채 미래의 의미가 들어있는 문법 ‘-(으)르 수 있다’와 함께 사용하였다. c의 오류는 학습자가 문법이 갖고 있는 제약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 생각한다.

d~e는 과거시제로 사용해야 하는데 현재시제로 잘못 사용한 것이다. e는 ‘옛날’이 과거를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현재시제를 사용하여 오류를 일으킨 것이다. f는 미래시제나 현재시제를 사용해야 하는데 과거시제를 사용한 예이다. 선행절에 ‘~으면’이 옳으로 후행하는 문장이 과거로 표기될 수 없는데 이를 무시하고 과거로 사용한 것이다. 이는 호응의 오류에도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시제 오류에 대한 빈도는 규칙성없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였으며, 다른 오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빈도로 나타났다. 이는 학습자들의 한국어 사용 능력이 높아지고 방대한 문법의 습득을 통해 다양한 문장을 만들어내는 연습을 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 3.2. 문장 차원

### 3.2.1. 호응의 불일치

호응은 선행절의 조건이 후행절에 영향을 주어 특정한 말이나 문법이 뒤따라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호응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문장의 의미가 매우 어색해지며 의미가 잘못 전달될 수도 있다. 특히 말하는 사람의 태도가 드러나는 특정 부사에는 반드시 호응해야 하는 표현들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 한국어의 특징이다. 예를 들어 ‘전혀, 결코’등의 부사어는 부정표현과 호응해야 하며 ‘만약, 만일’등의 부사어는 ‘-으면’의 가정의 뜻을 나타내는 것과 호응을 이루어야 한다.

- a. 앞으로 아이의 몸이 안 좋으면 우리 사회발전은 \*어려운 것 같다.(어려울 것이다.)
- b. 이런 식품을 먹지 않으면 \*우리 건강에 보호하는 것은 좋다.(우리의 건강이 보호받을 것이다.)
- c. 부의 양극화가 나타나게 된 이유의 하나는 어렸을 때부터 받아 온 교육 내용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 d. 부의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 세금의 제도를 바꿀 것이다.
- e. 수입은 나라마다 물건을 사고 팔는 의미이다.

a와 b는 선행하는 ‘-으면’과 어색함을 이룬다. 예문 a의 경우 후행절에 과거시제를 사용한 추측표현이 들어갔으므로 비문이 된다. 따라서 a는 ‘아이의 몸이 안 좋으면 우리 사회(의)발전이 어려울 것이다’로 수정해야 한다. b는 같은 추측표현을 사용하여야 하는데 앞의 조사오류도 나타나므로 확실한 비문으로 인식된다. 따라서 ‘이런 식품을 먹지 않으면 우리 건강이 보호받을 것이다’로 수정해야 한다.

c는 선행절에서 ‘이유’의 하나’이라고 하며 이유를 언급하고 있는데 후행절에서 자신의 생각만 언급하고 이유를 나타내는 문법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비문이 되었다. 이 경우 ‘-기 때문이다’를 사용하면 선행절과 호응을 이룬다. 즉, ‘-교육 내용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로 수정해야 한다. 예문 d는 ‘-기 위해서 -(으)ㄹ 것이다’의 호응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후행절의 주어가 학습자 자신이 아니기 때문에 1인칭 의지를 나타내는 ‘-(으)ㄹ 것이다’는 사용할 수 없게 되며 이로 인해 비문이 된다. 따라서 ‘(정부는) 세금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로 수정하여야 한다.

### 3.2.2. 생략

문장에서 생략된 부분을 살펴보면 조사 생략이 가장 많았으며 문장성분이 생략된 경우도 있었다. 발화상황에서는 조사나 문장성분이 생략이 되어도 의미전달에 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으나 글쓰기에서는 작은 것 하나라도 생략되면 문장에 어색함을 주고 이는 크게 의미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조사의 생략은 단어 차원의 오류에서 다루었으므로 본 장에서는 다루지 않았다. 본 장의 생략에서는 어절단위의 생략을 다루도록 한다.

- a. 환경 호르몬으로 인해 사람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 b. 대중 교통을 많이 이용하고 멀지 않으면 \*걸어서 (가는 것도) 건강에도 좋다.
- c. 수입이 많은 사람에게는 세금을 많이 내 달라고 하고 수입이 작은 사람은 세금이 \*적다는(적게 내는) 제도다.
- d. 부의 양극화가 \*나타나게(나타나게 된/나타난) 이유를 먼저 분석한다.

예문 a~d는 문장에서 생략된 부분들이 있는 비문으로 생략된 부분들은 문장의 의미를 어색하고 불분명하게 만든다. 생략에 있어 규칙은 보이지 않았다.

### 3.2.3. 어순의 뒤바뀔

한국어의 어순은 뒤바뀌는 경우에도 조사가 함께 쓰이기 때문에 의미변화가 크게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학습자들이 이런 어순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또한 고급학습자들의 경우 한국어 사용에 익숙해진 단계이기 때문에 한국어의 기본적인 구조인 S+O+V에서 오류가 나타나지는 않는다. 하지만 부사의 경우 특정성분만을 수식하는 경우는 자리의 이동이 자유롭지 않은데, 학습자들이 이 위치를 잘못 파악하여 오류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 또한 문장이 길어짐에 따라 구나 절의 순서가 뒤바뀌어서 어색해지는 경우도 있다.

- a. \*일상 생활에서 우리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 이제부터 환경 호르몬을 줄이기 위해서 행동을 시작해야 한다
- b. 그리고 \*가공식품도 ↔ 예뻐는 없었지만 우리 생활에 새로 등장해서 우리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다
- c. 부의 양극화가 나타나게 된 \*여러개 ↔ 이유가 있다.

a~c의 문장은 어순의 뒤바뀔이 있는 예문들이다. b와 c문장은 발화 상황에서는 문맥적으로 어색함이 없이 통용될 수 있지만 쓰기에서는 그러한 융통성이 없으므로 정확한 어순에 맞게 문장을 만들어야 한다.

정확한 어순으로 글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문장을 접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 교수자들은 학습자들이 많은 문장을 접하며 문장 생성능력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 4. 글쓰기에 지도방안에 대한 대안

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급 학습자의 오류는 유형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학습자의 오류수정에 대한 피드백은 단순히 첨삭에만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학습자마다 나타나는 오류는 다양한데 이러한 오류를 모두 짚어줄 수 있는 것은 현 교육상황에서 첨삭이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연 첨삭이 학습자들의 오류 수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따라서 학습자들의 글쓰기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 효과적인 교수-학습방법이 반드시 수립되어야 한다.

### 4.1. 쓰기 지도 방안에 대한 제안

현 교육상황에서 교수자들이 인지하며 실행할 수 있는 쓰기 지도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수자는 학생들의 오류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이를 알려야한다. 대부분의 교사들은 학습자의 글쓰기에서 오류를 발견하였을 때 직접 수정을 통하여 피드백만 해 주고 그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는다. 학생들 또한 자신의 글쓰기에 대한 피드백을 받은 후 적극적으로 수정하려 하지 않는다. 따라서 교수자는 학생 개개인의 오류를 정확히 인지하고 학습자에게 이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하여 학습자가 확실히 수정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교수자가 피드백을 주면 학습자가 이에 주의를 기울이고 수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일한 오류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 고급학습자의 경우 오류가 어느 정도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에 수정이 용이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오류를 확실히 인식할 수 있도록 교수자는 개별적으로 학습자에게 오류사항을 전달해야 한다.

둘째, 학습자가 스스로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오류수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오류를 인지하고 그것을 고치려 하는 의지이다. 그렇지 않다면 오류는 계속 반복될 것이다. 초급학습자들의 경우에는 한국어 능력을 쌓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재검토를 통한 오류 수정이 불가능하지만 중·고급학습자들은 그동안의 한국어 지식을 바탕으로 자신의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자신의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재검토 과정에서 본인의 오류를 충분히 인지하고 수정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 본 연구자의 경우 중고급 학습자들과 교포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재검토 과정을 갖고 고쳐쓰기를 해 본 결과, 상당수의 학습자들이 자신의 오류를 발견하고 수정하였으며 이것은 더 나아가 오류를 줄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셋째, 쓰기 클리닉을 따로 만들어야 한다. 한국어능력시험 등을 위한 대비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재 학습 현장에서는 ‘쓰기’만을 위한 수업이 거의 없거나 있다하더라도 거의 미비한 수준이 그친다. 다시 말해 수업시간에는 쓰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적다는 것이다. 사실, 수업시간에 쓰기를 하려면 교수자의 설명이 끝난 후에 학습자들이 직접 글쓰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필요해 실제 수업에서 글쓰기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따라서 수업에서는 보통 교수자의 간단한 설명이 끝난 후 글쓰기는 숙제로 해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쓰기 클리닉을 따로 만들어서 운영해야 한다.

넷째, 기존의 교육방법을 바꿔야 한다. 현재 수업현장에서 위에서 나타난 오류 수정에 대한 교육들은 미비하다. 단어차원의 경우 목표문법을 배우고 연습하고 복습하는 과정에서 오

류가 나타나므로 그에 대한 피드백은 바로 받아볼 수 있다. 하지만 문장차원의 경우 어떤 성분이 빠졌는지, 꼭 있어야 하는지, 어떤 문형으로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재교육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실제 고급학습자들에게 필요한 쓰기 교육은 문장구성 능력의 고취이다. 따라서 기존 교육 방법을 수정하여 고급학습자들의 요구에 맞는 교육방법을 행해야 할 것이다.

## 5. 나가며

최근 대학이나 대학원 진학을 목적으로 한 학문목적 학습자가 증가하면서 학습자들의 쓰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원활한 의사소통능력을 목표로 하고 있는 현재의 실정에서 쓰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은 실정이다. 또한 초급에서 말하기의 유창성을 강조하는 추세이다 보니 발화상황에서 나타나는 오류들은 크게 문제 삼지 않고 있고, 이러한 오류들이 자연스럽게 쓰기에 반영이 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 때문에 초급학습자들이 중급, 고급으로 올라가는데도 상대적으로 쓰기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숙달도가 고급인 중국인 학습자들이 쓰기에서 범하는 오류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쓰기 수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 대상 인원이 적기 때문에 본고의 결과를 보편적인 결과로 보기는 힘들 수도 있다. 하지만 본고의 연구 목적이 오류 빈도수를 측정하는 것이 아닌, 고급학습자들의 오류 양상과 그에 따른 학습 방법을 알아보고자 한 것이기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으리라 생각된다.

한국어를 학습하고 표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학습자들의 오류는 학습자와 교수자 모두에게 새로운 교육 방안을 마련해 나갈 수 있게 만드는 귀중한 지표가 된다. 학습자가 본인의 오류를 통해 문제점을 정확히 인지한다면 한국어 사용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교수자는 학습자의 옆에서 오류의 원인을 살피고 수정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주는 조력자의 역할을 잘 해야 된다. 또한 이를 교수-학습과정에 반영하여 수준에 맞는 교육방법을 고안해 낸다면 더욱 효과적인 한국어 수업이 이루어질 것이다.

■ 참고문헌

- 국립국어원(2005),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1』, 서울 : 커뮤니케이션북스
- 국립국어원(2005),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2』, 서울 :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미옥(1994), 한국어 학습에 나타난 오류 분석, 『한국말 교육』 5,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김미옥(2002), 학습 단계에 따른 한국어 학습자 오류의 통계적 분석,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27,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 김유정(2005),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오류분석의 기준, 『한국어교육』,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김지우(2009),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조사 생략 오류 분석과 교육방안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호정(2007), 한국어 쓰기 교육의 원리와 교육 방안 탐색, 『국어교육학 연구』 제30집.
- 민진영(2002), 한국어 고급 학습자의 조사 오류 분석,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병운(2008), 중국인 학습자의 오류 경향 분석. 『우리말연구』 23집.
- 이정희(2003), 『한국어 학습자의 오류 연구』, 서울: 도서출판 박이정.
- 허용 외(2005),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 개론』, 서울: 도서출판 박이정.

## □ 토론 □

### “외국인 학습자의 글쓰기 오류 현상”에 대한 토론문

김주희(경기대)

박해란 선생님의 논의는 외국인 학습자의 오류 현상을 살피고 지도 방안을 모색하려는 점에서선 앞선 연구들과 차별성을 갖지는 않지만 특정 국가, 고급 학습자, 글쓰기 영역에서의 문법 오류로 한정하여 논의를 전개하려는 것은 차별성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 논의가 앞선 연구들과 많은 차별성을 갖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 학습자들의 쓰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가 다양한 방향에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에 공감하면서 함께 이야기해 보고 싶은 논의거리를 덧붙입니다.

1. 오류 분석에 있어서 오류의 원인을 밝히는 것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학습자마다 서로 다른 성격, 성장환경, 모국어의 표현 능력 등은 오류를 만들어내는 주요한 요소입니다. 선생님께서 연구 대상으로 삼은 학습자들은 앞선 연구에서 대상이 되었던 학습자들과 어떤 차별성을 갖는지 궁금합니다.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에 대한 어휘, 문법 관련 오류들은 앞선 연구들과 다르지 않아서 이 연구를 바탕으로 지도 방안을 모색한다면 앞선 연구들과 차별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구 대상자들의 오류 현상에 대한 분석을 제외하고 지도 방안에 집중하여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어떨지 발표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2. 발표자는 단어 차원과 문장 차원으로 오류의 종류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어 차원의 조사의 오류는 초급 학습자에게는 물론 고급 학습자에게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유형의 오류를 수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연구 대상자들이 다니는 교육원의 교재나 교수 방법은 어떨지, 그 방법은 효과적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3. 발표자는 글쓰기에 대한 대안으로 4가지를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대안들을 살펴보면 당위적인 내용들이어서 특별한 것을 찾을 수 없습니다. 교수자가 개별적으로 학습자에게 오류 사항을 전달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 생각이 됩니다. 학습자가 스스로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글쓰기의 중요한 부분이며 쓰기 클리닉에 관련된 부분도 많은 곳에서 논의가 있어 왔고 실제로 진행되는 곳도 있습니다. 발표자가 제시한 대안의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4. 글쓰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문장 구성 능력을 갖는 것입니다. 갈래별 글쓰기를 잘 하기 위해서는 진술 방식에 대한 교육도 필요합니다. 고급학습자들이 요구하는 교육방법은 무엇인지, 그것은 논의된 것이 있는지 궁금하며 발표자께서 구상하고 있는 쓰기 교육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듣고 싶습니다.



발표자의 논의를 통해 특정 국가의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필요한 언어 기능별 지도 방안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질의 응답을 통해 더 발전적인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 제 3 분 과 】



# ‘부사-서술어’구성의 형성 원인 및 유형 연구

-‘잘, 못, 잘못’을 중심으로-

조민정(연세대)

## 차 례

1. 들어가는 말
  2. ‘부사 + 동사’구성의 처리 방안
  3. 합성어에서 ‘잘, 못’의 기능
  4. 맺음말
- 참고문헌

## 1. 들어가는 말

### 1.1. 연구목적

부사는 주로 서술어 앞에서 그 뒤의 서술어를 수식하지만, 때로는 관형사, 부사 앞에서 그것을 수식하고, 드물기는 하지만 구나 절을 수식하기도 한다. 그러한 부사 중 ‘잘, 못, 잘못’과 같은 단어들은 학교 문법에서 문장 전체가 아닌 특정 성분을 수식한다 하여 성분부사로 분류되었으며, 양태부사와 함께 양태 부사로 분류되어 왔다.<sup>1)</sup> 성분부사 중에서도 ‘잘, 못, 잘못’은 특히 서술어의 모양과 상태를 수식하면서 동시에 그 명제에 대한 화자의 뜻을 드러내기도 한다. 예컨대, ‘그는 자식을 모두 **잘 키웠다**’에서 ‘잘’이 ‘키우다’를 수식할 뿐만 아니라 ‘자식을 키우는 그의 행위’에 대한 긍정적 입장 및 태도(평가)를 드러내기도 한다.

‘잘’이 쓰인 실제 용례를 보면, ‘잘’의 의미가 같지 않음을 볼 수 있다. ‘다른 사람에게 **잘 해 주는** 만큼 그 사람도 너에게 그만큼 **잘 해 줄** 것이다’에서 ‘잘’은 “**친절히, 성의껏**.”이란 뜻을 나타내는데, 그것은 ‘잘’이 ‘하다/해 주다’와 결합할 때 갖게 된 의미이고, ‘두다, 키우다’와 결합할 때는 ‘**옳고 훌륭하게**’라는 의미는 갖는다. 그렇다면 ‘잘’의 의미가 후행어의 영

1) 최현배(1961:596)에서 ‘잘, 못’은 모양어찌개로 분류되는데, 그것은 그 뒤의 서술어의 속이 되는 일의 들어나는 모양을 꾸미는 어찌씨로, 이에는 바로 그 내용을 보이는 것과 건너로 그 형식만을 보이는 것이 있는데, 바로 모양어찌씨는 그것이 속모양을 드러내는 ‘잘, 못, 각중에, 급작이, 빨리, 가만히’ 등과, 겉모양을 드러내는 ‘덩텅, 탕탕, 번쩍번쩍’ 등으로 다시 분류된다. 반면 서정수(2005:129-131)에 따르면 동작의 배경인 자리나 시간을 한정하는 부사류어들과는 달리, 동작의 양상을 여러모로 한정하는 구실을 한다 하여 ‘과정부사류어’로 지칭하며, 과정부사류어는 다시 ‘동태, 수단, 까닭, 자격, 상태’ 등으로 재분류되는데, 그러한 부사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1) ㄱ. 동태부사류어: 동작의 양상이나 모습 표시. 잘, 못, 빨리, 갑자기 따위  
ㄴ. 수단 부사류어: 동작의 기구 방법 따위 표시. 칼로, 기차로, 손으로 따위  
ㄷ. 까닭 부사류어: 동작의 원인이나 이유 표시. 병으로  
ㄹ. 자격 부사류어: 동작자의 신분이나 태도 표시. 친구로서, 학생으로서 따위  
ㅁ. 상태 부사류어: 동작의 상대 표시. 철수와 싸우다.

향으로 결정된다고(‘잘 해 주다’) 할 수 있다. 그뿐 아니라 ‘잘’이 선·후행어와의 결합의 긴밀도에서도 양상이 같지 않은데, 그것을 아래에서 볼 수 있다.

- (1) ㄱ. 바깥 풍경이 **잘 보이지** 않아 길게 늘어뜨린 커튼을 찼혔다.
- ㄴ. 이것 보시오. 내가 이래 배도 한때는 **잘 나가는** 사람이었다유.
- ㄷ. 같이 거처하는 여러 동무들은 모두가 **잘사는** 부호의 딸들만 같아 보였다.<표준국어대사전>

‘잘’은 (1ㄱ)에서는 어떠한 서술어와도 결합할 수 있지만, (1ㄴ)에서 ‘잘’이 ‘나간다’와만 결합하여 서술어와 결합 제약을 가질 뿐만 아니라 ‘잘’이 생략되면 비문이 되고, ‘안, 못’과 같은 다른 부사와 교체될 수 없는 특성을 가진다. 더욱이 (1ㄷ)에서는 ‘잘살다’가 형태적으로 긴밀한 하나의 단위를 이루고 제3의 의미를 가진 합성어로 쓰이고 있다.

위에서 ‘잘’은 문장에서 세 가지, 즉 생략되어도 문법적인 수의적 성분과(1ㄱ), 생략되면 문장이 비문이 되는 긴밀하면서도 제약적인 결합 구성 요소(1ㄴ)<sup>2)</sup>, 더 나아가 합성어를 만드는 구성 요소(1ㄷ)로 사용되고 있다.

그렇지만 전통문법에서 이들을 후행하는 서술어를 수식하는 기능에만 의거하여 품사로는 수식언의 하나인 부사어로 다루어 왔고, 문장에서는 없어도 되는 수의적 성분으로만 처리하였다. 다른 논의에서 (1ㄴ)처럼 두 단어가 긴밀하면서도 제약적인 결합 구성을 이루며 특별한 의미를 나타내는 결합에 대해 ‘숙어, 관용어, 연어’ 등으로 지칭하였고<sup>3)</sup>, 이희자(2005:412)는 ‘통사적 연어’로, 임근석(2005:286)은 ‘어휘적 연어’로 각기 다른 유형으로 분류한 것도 문제이다. 뿐만 아니라 ‘잘’이 통사적으로 개방적인 구성부터 합성어의 구성 요소처럼 폐쇄적인 구성을 이루는 것의 원인과 이들이 문장에서 가진 다양한 기능을 밝히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리하여 본고는 부사와 서술어의 결합이 자유로운 것부터 자유롭지 못한 유형까지 다양한데, 그러한 유형의 공통점과 더불어 차이점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을 설명할 것이다. 또한 ‘부사+서술어’ 구성이 결합하는 선·후행어와의 관계, 교체 및 생략 검증, 그리고 의미 변이 및 제3의 의미 파생을 기준으로 다시 수의적인 성분으로서 부사와 동사가 이루는 개방적인 구성, 필수적인 논항과 서술어가 이루는 긴밀한 구성, 부사와 서술어가 이루는 합성어처럼 폐쇄적인 구성으로 분류될 수 있음을 논의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 1.2. 연구 대상 및 방법

부사는 문장에서 필히 요구되는 필수 성분은 아니지만<sup>4)</sup>, 그러한 부사에 중 일부 부사어는 성분 수식보다는 서술어 간의 의미를 구분하는(명세화) 데 중요한 것이 있다. 예를 들면,

- 2) 이것이 긴밀하여 하나의 단위로 기능한다는 측면에서 본고는 어휘적 연어라고 본다. 이들이 단일한 구성이라고 보는 근거는 2.2를 참고하라.
- 3) 특별한 의미를 나타내는 어절 결합에 대해 ‘구를 이루는 어절의 결합이 그 뜻에 있어서 개개 낱말이 가지는 뜻의 합과는 전혀 다른 제3의 뜻을 가지는 것’이라 하여 ‘관용어, 숙어, idiom, 연어’로 명명한 바 있다.
- 4) ‘삼다, 넣다, 변하다’ 같은 특정 서술어가 요구하는 ‘NP<sub>3</sub>으로/에’ 등은 부사어임에도 생략되면 문장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아 필수적인 부사어로 다루어져 왔다.

‘방법’을 나타내는 부사어(성분과 명사) ‘느리게, 빠르게’가 ‘건다’와 ‘달리다’의 의미를 구분하는 것을 볼 수 있다(예문 (12) 참조). 이 때 방법(방식)은 부사어와<sup>5)</sup>, 명사<sup>6)</sup>뿐만 아니라, ‘잘’과 같은 부사를 통해 실현되기도 한다. 그런데 이때 ‘잘’이 중의적으로 쓰일 수 있다.

- (2) ㄱ. 내가 영어를 잘 배웠다.  
 ㄴ. 내가 영어를 더 잘 배웠다.  
 ㄷ. 내가 영어를 마침 잘 배웠다.

‘잘’은 ‘우수하게’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2ㄴ), ‘다행히’라는 뜻으로 해석되는(2ㄷ) 중의성을 가진다. 그러한 중의성이 ‘더’와 ‘마침’이라는 선행어에 의해 해소되고 있다. 이처럼 두 요소가 통사적으로 긴밀한 구성을 이루면서 해당 단어의 의미가 결합하는 요소에 의해 달라지는 것을 ‘숙어, 연어’외의 개념으로 설명하려고 한 논의들이 있다(자세한 것은 2.1.을 참고하라).

‘잘’이 중의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잘+서술어’구성의 긴밀도가 동일하지 않다. 그 중 ‘잘’이 생략되거나 ‘안’처럼 다른 부사와 교체될 수 있는 것이 있는 반면 생략이나 교체를 허용하지 않는 구성이 있음을 (3)에서 볼 수 있다.

- (3) ㄱ. 칼이 잘/()혹 나가 손을 다쳤다.<sup>7)</sup>  
 ㄴ. 그는 안 나가는 칼을 들고 다락으로 올라가 간 다음 다시 부엌으로 내려왔다.  
 (4) ㄱ. 이것 보시오. 내가 이래 배도 한때는 잘 나가는 사람이었다우.  
 ㄴ. \*이것 보시오. 내가 이래 배도 한때는 나가는 사람이었다우.

위 (3ㄱ)에서 ‘잘’이 생략될 수 있으며 ‘안’으로 교체되어도 문법적인 반면 (4ㄱ)에서 ‘잘’은 ‘안’으로 교체될 수 없고, ‘잘’이 생략되면 비문이 되거나 원래 문장이 전하고자 하는 뜻이 드러나지 않는다. 위에서 ‘잘’이 이루는 결합 구성의 긴밀도에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잘’이 통사적으로 긴밀하면서도 제약적인 구성을 이루는 그 밖의 경우를 (5)에서도 볼 수 있다.

- (5) ㄱ. 떡이나 엿가락을 하나라도 더 얻어먹으려면 통님에게 잘 보여야 했다. ⇨ ?\*  
 떡이나 엿가락을 하나라도 더 얻어먹으려면 통님에게 보여야 했다.  
 ㄴ. 좀 잘 봐주시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 ?\*좀 봐주시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잘 보이다’는 “마음에 들다. 좋게 보이다”란 뜻을 가지는데, ‘잘’이 생략된 ‘떡이나 엿가락을 하나라도 더 얻어먹으려면 통님에게 보여야 했다’는 비문이 되거나 본래 문장과 다

5) 행위를 언급할 때 그것이 이루어질 때 구체적인가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가에 따라 ‘방법’과 ‘방식’으로 분화될 수 있다. 예컨대, ‘이번에는 사고치지 말고 내가 시킨 일 제대로 잘 해!’에서 ‘데대로, 잘’은 ‘방법’이라고 보다는 ‘방식’에 가깝다. 그러나 구체적인 도구나 행동에 의한 것은 ‘방법’으로 볼 수 있다.  
 6) ‘속성제배, 억제제배, 직파제배’와 같은 합성어에서 ‘속성, 억제, 직파’ 등은 방법을 나타내는 명사가 이들 합성어의 의미를 구분하고 있다.  
 7) 나가다2. [주로 ‘잘, 안’ 등의 부사와 함께 써서]날 달린 도구나 연장이 잘 들다.(1이 나가다, 1: 대배, 날, 칼) 본고에서 제시하는 어휘는 <표준국어대사전>의 뜻풀이임을 밝히며 이후의 논의에서 출처가 다를 경우에만 그 출처를 밝히도록 한다.

른 뜻을 전한다. ‘잘 봐주다’가 쓰인 문장과 ‘잘’이 생략된 문장의 뜻이 동일하지 않고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에서 더 나아가 ‘잘’이 단일한 합성어를 만드는 것을 (6)에서 볼 수 있다.

(6) 잘나가다, 잘나다, 잘되다, 잘빠지다, 잘살다, 잘생기다, 잘하다, 잘해야...

‘잘’ 이외에도 ‘못, 잘못’과 같은 성분부사 역시 그러한 쓰임을 가지는 것을 아래에서 볼 수 있다.

(7) ㄱ. 아직 아홉 시도 못 되었으니 잠시 앉았다 가도 괜찮겠지.

ㄴ. 못 한다고 야단이더니 곧잘 해내네.

ㄷ. 자식이 못되기를 바라는 부모는 이 세상에 없을 것이다.

(8) 못나다, 못되다, 못마땅하다, 못미덥다, 못살다, 못생기다, 못서다, 못쓰다, 못하다

(9) ㄱ. 소년은 길을 잘못 들어서 한참 헤맸다./심판은 규칙을 잘못 적용하여 비난을 받았다.

ㄴ. 그를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난다.

ㄷ. 나한테 잘못 보이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ㄹ. 삼촌은 사기꾼에게 잘못 걸려들어 재산을 다 날렸다.

(10) 잘못되다, 잘못하다, 잘못살다, 잘못짚다

이렇듯 ‘부사+서술어’ 구성이 자유로운 것(7ㄱ, 9ㄱ)부터 자유롭지 못한 결합 구성(7ㄴ-ㄷ, 9ㄴ-ㄷ)까지 다양한데, 그 유형이야 어떻든 이들이 생겨나게 된 배경은 이들이 모두 ‘습관적으로 자주 사용되는 말의 사용’에서 만들어진 현상들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통사적인 측면에서 이 구성이 서술어 바로 앞에서 선행하며 꾸며주는 성분과 서술어가 자주 결합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기인하고, 의미적인 측면에서 그 결합이 특정 상황에서 자주 반복되어 사용되면서 다른 의미를 획득한 측면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그렇다면 ‘습관적으로 자주 사용되는① 말의 사용②’이 어떠한 구성들을 만드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가 실제 언어 사용 양상을 토대로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sup>8)</sup>

## 2. ‘부사 + 동사’구성의 처리 방안

### 2.1. 소위 ‘관용구’에 대한 제 논의

두 어휘 이상이 통사적으로 자주 출현할 뿐만 아니라 의미적으로도 본래 요소의 합과 다른 의미를 갖는 구성이 구 차원에서 이루는 것을 ‘관용구’라 하고, 문장 차원에서는 ‘관용문’으로 지칭하였다(이희자, 2005:414). 명칭이야 어떻든 본래 요소의 합과 다른 의미를 갖는

8) 이희자(2005:413)에서도 ‘습관적 말의 사용’으로 명명한 바 있다.

것이 특징인 구성의 형태를 고려할 때 ‘그림의 떡’과 같은 NP+NP유형, ‘먹여 살리다’와 같은 V+V유형, ‘하루가 멀다하게’와 같은 부사구로 이루어진 것들이 있다. 여기서는 그 중 ‘ADV+V’구조를 이루는 ‘잘, 못+서술어’유형을 연구 대상으로 고찰한다. ‘잘, 못’은 부사어 중 사용빈도가 상위권에 속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맥과 발화 상황에서 높은 빈도로 사용되고 있다. 이들은 본래 문어에서 쓰이던 것이 ‘습관적으로 자주 사용되는’구어로 그 쓰임이 확대되면서 획득하게 된 특성을 가지는데, 앞선 논의들에서 그러한 점에 주목하지 않은 관계로 본 논의의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많은 논의에서 편의상 두 단어가 긴밀하면서도 제약적인 결합 구조를 이루며 특별한 의미를 나타내는 구성을 나름의 기준에 따라 분류하였고, 그것을 다양한 명칭으로 지칭하였는데, 그것을 보이면 아래 <표-1>과 같다.

<표-1> 가칭 ‘관용구, 관용문’에 대한 명명<sup>9)</sup>

연구자	명칭	뜻
최 현 배 (1929)	이은말	여러 낱말이 모여서 한 겹진한 뜻을 나타내되 아직 온전한 생각을 나타내는 것이 되지 못한 것
이 회 자 (1995)	의미적 언어 / 통사적 언어	의미적 언어: ‘뒤가 풀리다, 애가 서다, 입이 무겁다’ 처럼 습관적으로 굳어져서 쓰이게 된 것들 중 구성 요소의 합으로 일정한 뜻을 전달하기는 하지만, 결국 그 요소들의 전의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것. 통사적 언어: ‘물구나무를 서다’ 처럼 다른 구조에서는 전혀 쓰이지 않는 통사적인 결합이 습관적으로 굳어져서 쓰이게 된 것
홍 제 성 (1995)	언어	규칙적인 통사관계에 의해 구성되는 했으나, 어휘적 차원에서 특별히 긴밀하고 제한적인 결합관계를 보이는 두 단어의 연쇄. 두 통사위치에서의 분포의 개방성이나 의미해석의 투명성, 합성성의 면에서, 자유로운 속어 표현이나 합성어의 중간 정도의 성격을 보이는 것.
강 현 화 (1998)	언어	말뭉치에 나타나는 어휘 항목의 긴밀하고 고정적인 공기 관계를 말하며 통어적 구성으로 두 구성요소가 긴밀한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속어도 포함됨.
이 동 혁 (1998)	언어	특수한 단어끼리의 관습적으로 결합하여 긴밀한 구 결합체를 이루되, 구성 단위 중 적어도 하나가 기본 의미가 아닌 비유적 의미로 쓰이는 것
윤 준 태 (1999)	언어	표본 중 명사와 동사가 높은 빈도로 공기하는 쌍이며, 이들은 임의적이지만 기대 이상으로 자주 발생하는 특징을 가짐.
김 진 해 (2000)	언어	특정 어휘가 다른 어휘를 요구함으로 발생하는 어휘소들간의 제한적 공기 관계로 이들은 ‘선택의 단일 방향성, 심리적 현저성, 특정 의미 관련성, 구조 변형의 의미 의존성, 경계의 모호성, 특정 언어집단 의존성’ 을 특징으로 가짐.
임 준 석 (2005)	협의의 언어	협의의 언어를 4가지 기준-① 언어핵과 언어변의 어휘적 특성이 다름, ② 언어의 구성요소들이 강한 인접성을 가짐, ③ 언어핵이 언어변을 선택할 때의 특성이 다름, ④ 전체 구성이 하나의 문법소적 기능을 수행하거나 언어변에 의해 언어핵의 문법적 기능이 제한되는 점-으로 문법적 어휘와 어휘적 언어로 구분함

9) 김진해(2000:34)와 앞선 논의를 토대로 재구성함.



위 논의 중 긴밀하면서 제약적인 결합 구성이 이루어지는 방식에 의해 다시 세분한 논의는 이희자(1995)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희자(1995)는 그 내적구조의 특성, 구성 요소들 사이의 의미상의 관련성의 긴밀도, 어휘화의 정도에 따라, 어휘화된 정도가 가장 높고 긴밀도에 있어서도 가장 높고 내구성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특성을 보이는 것을 ‘숙어’라 하고 그 밖의 것은 ‘언어’라 한 바 있다. 그리고 김진해(2000:29)에서 “언어는 구성요소의 의미 반영 면에서는 자유결합과 가깝고, 빈도수나 심리적 현저성 면에서는 관용어에 가깝다.”고 한 바 있다. 그렇지만 ‘잘살다’를 숙어로 볼 수 없고, 의미 반영이 자유결합과 가깝다고 볼 수 없는 등 분류된 항목에 대한 설명에 문제가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 다루는 ‘잘, 못’과 같은 부사의 경우 그것이 이루는 ‘잘 먹다(자유결합형)’부터 ‘잘 해주다(선택제약형)’, ‘잘 나가다, 잘 봐주다(어휘적 구성형)’, ‘잘살다, 못살다(합성어유형)’까지 다양한 유형을 보이는 까닭에 ‘의미적 언어’ 혹은 ‘형태적 언어, 통사적 언어, 어휘적 언어’ 등 그 명칭을 무엇으로 명명하든 한 가지 범주로 묶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 더욱이 ‘잘 봐주다’가 이희자(1995)에 따르면 ‘형태적 언어’로 분류되고, 임근석(2005)에 따르면 ‘어휘적 언어’로 분류되는 등 연구자에 따라 다른 유형으로 분류되는 문제도 있다.

그리하여 본고는 이러한 구성의 긴밀도뿐만 아니라 의미 파생에서도 다른 것을 생략, 어순 교체, 관계화, 어휘 교체 등을 토대로 고찰한다. 더불어 그러한 원인이 ‘습관적으로 자주 사용되는① 말의 사용②’에 있다고 보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말뭉치에서의 출현 빈도, 서술어의 의미 변화 등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 2.2. 필수 논항의 하나인 부사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이들 부사들은 특정 성분을 수식하지만, 문장에서 필수 성분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반면 ‘삼다, 자르다’ 같은 서술어가 요구하는 ‘NP<sub>3</sub>으로/에’ 등은 생략되면 문장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아 필수적인 부사어로 다루어져 왔다.

- (11) ㄱ. 나는 그 학생을 제자로 삼았다. (남기심 외, 2011: 245 재인용)  
 ㄴ. 복수는 나무를 톱으로 잘랐다. (허웅, 1984: 234 재인용)

- (11)' ㄱ. \*나는 그 학생을 삼았다.  
 ㄴ. ?\*복수는 나무를 잘랐다.

위 ‘제자로, 톱으로’는 서술어가 요구하는 것으로 문장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성분임을 그것이 생략된 (11')가 비문인 것으로 알 수 있다. ‘삼다, 자르다’와 같은 서술어는 주어와 목적어 이외에 다른 성분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관계로 불완전동사(불완전 자동사와 타동사를 아우르는 명칭)로 명명하기도 했다. 즉 김민수(1982)에서는 자동사 중에서 주어 이외에 다른 성분을 요구하는 ‘되다’와 같은 동사나 주어, 목적어 외에 또 다른 성분을 필요로 하는 ‘삼다’와 같은 타동사를 각각 불완전자동사, 불완전타동사라 하였으며 형용사 중에서 주어 이외에 성분을 필요로 하는 것을 불완전형용사라 지칭한 바 있다.

그렇지만 서술어가 요구하는 특정 논항에 대한 이러한 입장은 ‘불완전자동사’는 주어만을 요구하고 ‘불완전타동사’는 주어와 목적어만을 요구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명칭이 가진 부적절함과 더불어 각 서술어마다 다른 성분을 요구하는 현상을 설명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로 남기심·고영근(2011:252)에서는 서술어가 요구하는 성분을 자리라 하고 주어만을 요구하는 것은 한 자리, 주어와 목적어 혹은 주어와 보어를 요구하는 것은 두 자리 서술어 등으로 지칭하고 있다.

그런데 특정 서술어가 반드시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방법 및 방식’을 나타내는 부사어가 서술어들의 의미를 구분하는 데 필수적인 것처럼 보인다.<sup>10)</sup> 아래 예문을 살펴보자.

- (12) ㄱ. 걷다<sup>ㄴ</sup> 발을 번갈아 떼며 느리게 옮기다  
 ㄴ. 달리다 <sup>ㄴ</sup> 발을 번갈아 떼며 빠르게 움직이다.

위 (12)의 ‘걷다’와 ‘달리다’를 구분하는 요소는 해당 어휘에 포함되어 있는 ‘느리게, 빠르게’이다. 이 때 ‘느리게, 빠르게’는 ‘걷다’와 ‘달리다’의 의미를 성분 분석하여 얻은 의미자질 가운데 하나이다. 이 밖에 방법 혹은 방식은 주로 부사를 통해 실현되는 것을 앞의 예문(1)에서도 본 바 있다.

예문 (1)에서 ‘잘 나가다, 잘살다’에서 ‘잘’이 쓰인 문장과 ‘잘’이 생략된 문장의 뜻이 같지 않다. 두 문장의 의미가 서로 다르다면, 이 경우 ‘잘’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수의적 성분으로만 보기 어렵다. 이 경우 ‘잘’이 ‘엇길로, 달걀 모양으로(예문 13)’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닌가 가정해 볼 수 있다.

- (13) ㄱ. 이야기가 엇길로 나갔군요.<sup>11)</sup>  
 ㄴ. 선생님은 달걀 모양으로 생긴 상자에서 술병을 꺼내었다.

- (13) ㄱ. \*이야기가 나갔군요.  
 ㄴ. 선생님은 생긴 상자에서 술병을 꺼내었다.

(13)에서 ‘엇길로, 달걀 모양으로’를 생략한 (13')는 비문일 뿐만 아니라 그 뜻을 알 수 없다. 그리하여 학교 문법을 포함한 많은 논의에서 이들 성분들을 ‘나가다, 생기다’가 요구하는 필수적인 성분으로 필수부사어라고 지칭하였다. 그렇다면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잘 나가다’의 ‘잘’ 역시 필수부사어로 볼 수 있는 게 아닐까? 기능적 측면에서 ‘잘’과 유사한 ‘더’를 통해 이러한 가능성을 좀 더 논의해 보자.

- (14) 쉬었다 하자는 아이들의 아우성에 선생님은 딱 한 페이지만 더 **나가고** 쉬자고 하셨다.<sup>12)</sup>  
 (14)' 쉬었다 하자는 아이들의 아우성에 선생님은 딱 한 페이지만 **나가고** 쉬자고 하

10) ‘방법’을 나타내는 부사어뿐만 아니라 명사도 의미 변별 기능을 하는데, 기존의 논의에서 그것에 대해 다루어지지 않은 감이 있다.

11) ‘나가다’는 사전에서 ‘(엇길로) 나가다. 잘못된 길로 빗나가다.(1이 엇길로 나가다.)’로 풀이되어 있다.

12) 나가다1. 일이나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다.(‘1이 [부] 나가다’로도 쓰인다.)

었다.

(14)가 (14')보다 강조의 뜻이 있기는 하지만 (14)와 '더'를 생략한 (14')는 의미상 유사하다. 그렇지만 아래의 '잘(도)'을 포함한 '쩔쩔'이 쓰인 문장과 그것이 생략된 문장은 그 뜻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15) ㄱ. 회사 출근하는 사람이 넥타이를 잘 **매야** 무시당하는 거 아니야. 다시 매라. ⇨ 회사 출근하는 사람이 넥타이를 **매야** 무시당하는 거 아니야. 다시 매라.<드라마 미생 4회>

ㄴ. 얼씨구, 잘도 **넘어간다**. ⇨ 얼씨구, **넘어간다**.

ㄷ. 이런 피차의 관계에서 신세 지는 쪽이 쩔쩔 **떨**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 이런 피차의 관계에서 신세 지는 쪽이 **떨**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위에서 '잘, 잘도'와 '쩔쩔'을 생략한 문장은 본래 그것이 쓰인 문장과 뜻이 전혀 다르다. 즉 '잘, 잘도, 찔쩔'이 생략된 문장에서 화자가 전하고자 하는 의미를 찾을 수는 없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들 부사어들이 서술어가 요구하는 필수 성분일 수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을 포함한 각 사전에서 필수 논항은 서술어의 격률 정보에서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사전에서 이들 부사에 대한 정보를 서술어의 뜻풀이 앞의 괄호 혹은 각괄호 안에 제시하고 있다(예문 (16) 참조).

(16) ㄱ. [주로 '쩔쩔', '절절', '설설' 같은 부사와 함께 써서] 아주 어렵고 곤란한 상황에 처하거나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모르다.(1이 매다 1: 사람명사)

ㄴ. 넘어가다: ['잘'과 같은 부사와 함께 써서] (노래 등이) 막힘이 없이 잘 불리어 지다.(1이 넘어가다)

이러한 기술 방식은 '잘, 찔쩔' 등이 문장에서 필수적인 성분이 아닌 어휘적 결합 제약의 하나로 보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이들을 서술어의 논항으로 보지 않고 있음을 뜻한다. 반면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나가다'를 처리함에 있어 "(엇길로) 나가다, 잘못된 길로 빗나가다"는 '1이 엇길로 나가다'로, "일이나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다"는 '1이 [부사] 나가다'로 기술하여 부사를 필수논항으로 처리하고 있다. 그렇지만 부사를 필수 논항으로 격률 정보에 제시하는 방법이 다른 표제어에는 적용되지 않는 등 기술의 일관성에 문제가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잘'이 동일한 서술어와 쓰이지만 뜻과 더불어 서술어와의 긴밀도에서 차이를 보이는 예문을 통해 좀 더 논의해 보자.

(17) ㄱ. 나뭇결이 고와 대패가 잘 **나간다**.

ㄴ. **느**나뭇결이 고와 대패가 **나간다**.

ㄷ. 나무가 물을 머금었는지 톱날이 안 **나가** 손을 다쳤다.

(18) ㄱ. 이것 보시오. 내가 이래 봐도 한때는 잘 **나가**는 사람이었다우.

- ㄴ. ?\*이것 보시오. 내가 이래 배도 한때는 **나가는** 사람이었다우.  
 ㄷ. \*이것 보시오. 내가 이래 배도 한때는 **안 나가는** 사람이었다우.

‘잘 나가다’가 대패 혹은 연장의 속성을 기술할 경우에는 ‘잘’이 생략되어도 문법적임을 (17ㄴ)에서 볼 수 있다. 그리고 ‘안’으로 교체된 (17ㄷ)이 ‘잘 나가다’와 반대의 의미- 즉 ‘연장이 잘 들지 않다’처럼 구성 요소의 함으로 형성된-를 갖는다. 그렇지만 그 구성이 사람을 기술할 경우, ‘잘’이 생략되면 비문이 되거나 다른 뜻으로 해석된다. 즉 (18ㄴ)은 ‘한 때 어느 직장이나 일터에 나가다’로 먼저 해석되며 이때 ‘나가다’는 “출근하거나 직장에 다니다”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더 나아가 ‘잘’이 ‘안’으로 교체되면 비문이 된다(18ㄷ). 이를 통해 ‘잘 나가다’가 ‘나무, 대패’를 서술할 때는 그 구성이 느슨한 ‘통사적 구성’으로 볼 수 있는 반면 ‘사람’을 기술할 때는 긴밀하고 제약적인 구성으로 볼 수 있다. 이때 ‘잘 나가다’는 통사적 구성에서 긴밀하고 제약적인 구성으로 나아가면서 본래의 뜻에서 번져간 변이의미를 가지게 된 것이다. 이와 유사한 예 중 하나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 (19) ㄱ. 참, 장사는 **잘 되고** 있지? 올해 농사가 그럭저럭 **됐다**마는 농사 **잘 되면** 뭐 하나?<sup>13)</sup>

ㄴ. 천장에 걸려 있는 형광등의 수명이 **다 됐다**는지 자꾸 깜박거렸다.<sup>14)</sup>

- (19') ㄱ. ?\*참, 장사는 **되고** 있지? 올해 농사가 **됐다**마는 농사 **되면** 뭐 하나?

ㄴ. \*천장에 걸려 있는 형광등의 수명이 **됐는지** 자꾸 깜박거렸다.

(19ㄱ)의 ‘되다’가 ‘잘, 제대로’와 함께 ‘(일이나 사업 같은 것이)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거나 진행되다.’라는 의미를 가진다. 이 경우 선행하는 부사어를 생략한 (19ㄱ')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거나 진행되다’는 뜻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19ㄴ)도 마찬가지이다.

어휘적 연결 구성이 더 긴밀하게 결합될 뿐만 아니라 더 자주 사용되면 한 단어(합성어가)가 될 수 있는데, 아래가 바로 그 경우이다.

- (20) ㄱ. 같이 거처하는 여러 동물들은 모두가 **잘사는** 부호의 딸들만 같아 보였다.

ㄴ. 같이 거처하는 여러 동물들은 모두가 **못사는/\*안사는** 집의 딸들만 같아 보였다.

위에서 ‘잘, 못’은 합성어의 어기로 ‘살다’와 함께 합성동사를 이루고 있다. 이 경우 이들은 서술어의 논항이 아닌 어기로 단어 형성에 참여하고 있다. 부사가 단어 즉 파생어 및 합성어를 만드는데 어기로 참여하는 유형은 다양하다(39).

지금까지 이들 부사들은 서술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논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서술어라는 특정 성분과 긴밀한 구성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인해 논항으로 처리할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이들을 서술어의 논항으로 처리할 것인지 혹은 서술어의 어휘적 결합 제약으로 처리할 것인지 그 방안을 논항의 생략 및 교체를 통해 좀 더 논의해 보자.

13) 되다. [주로 ‘잘’, ‘제대로’, ‘그럭저럭’, ‘다’ 같은 부사와 함께 써서](일이나 사업 같은 것이)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거나 진행되다. 변성하다.

14) 다 되다: (수명이) 거의 없어지거나 끝나다(1이 다 되다.)

### 2.3. 부사의 처리 방안 - 교체와 의미과생을 중심으로

(21) ㄱ. 나는 책/영화/신문/사람/사건을 보았다/읽었다.

ㄴ. 선생님은 그 학생을 제자로/수제로/인제로 보았다.

위 (21)에서 ‘책, 영화, 신문’ 등은 서술어인 ‘보다, 읽다’의 대상에 해당한다. 그래서 그 대상이 ‘보거나 읽을 수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 목적어 논항에 올 수 있다. 이 말은 ‘책’ 대신 다른 대상으로 교체가 자유로움을 뜻한다. 반면 (21ㄴ)에서 ‘제자로’는 서술어가 직접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을 제자로’ 전체를 서술어가 요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때 ‘학생을’과 ‘제자로’는 주술관계를 이룬다. 이들(학생, 제자)이 주술관계를 이루기 때문에 ‘제자로(수제로, 인제로)’가 다른 성분과 어순이 교체되지 않고, 관계화를 허용하지 않음을 많은 논의에서 밝힌 바 있다. 그렇지만 앞선 논의들에서 위와 양상이 다른 (22)를 다루지는 않았다.

(22) ㄱ. 그 사태를 그대로 보았다가는 큰 코 다칠 것입니다.

ㄴ. 자동차 보험 회사들이 지난 분기 엄청난 적자를 보았다. 이대로 나가면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것이다.

(22) ㄱ.\*그 사태를 보았다가는 큰 코 다칠 것입니다.

ㄴ. 자동차 보험 회사들이 지난 분기 엄청난 적자를 보았다. 나가면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것이다.

위 (22ㄱ)에서 ‘그대로’를 생략한 (22\*)은 비문이다. 이를 토대로 ‘그대로’ 역시 서술어가 ‘사태’와 함께 요구하는 논항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사태’와 ‘그대로’가 주술관계를 이룰 수 있고, ‘그대로’가 ‘사태’를 서술하고 있는가? 일견 ‘사태가 그대로이다’가 주술관계를 맺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대로’가 사태의 상태나 양상에 대한 어떤 것도 기술하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두 어휘가 주술관계를 형성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이 경우 ‘그대로’가 선행하는 문장과 연결하면서 그 명제 내용을 대용하는 것은 아닐까 가정해 볼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는 유사한 ‘이대로’의 쓰임(22ㄴ)에서 찾을 수 있다. 표면적으로 (22ㄴ)에서 ‘이대로’는 선행하는 문장과 후행하는 문장을 연결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이대로’는 문장들 간의 연결성을 위해 꼭 있어야 하는 요소이다. ‘그대로’가 선행하는 문장과 연결하면서 선행 문장을 대용하는 것을 (22\*)에서 볼 수 있다.

(22) ㄱ. 정부는 경제 상태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그 사태를 그대로(그런 시각으로) 보았다가는 큰 코 다칠 것입니다.

ㄴ. 자동차 보험 회사들이 지난 분기 엄청난 적자를 보았다. 적자를 본 방식으로 나가면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위 (22)에서 ‘사태’와 ‘그대로’, ‘보험 회사’와 ‘이대로’는 주술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그대로, 이대로’가 생략되면 비문이 되고 문장의 뜻을 알 수 없는 이유로 ‘그대로, 이대로’ 역시 문장에서 꼭 있어야 하는 필수 요소이다. 그렇지만 이들은 선행

문의 전체를 가정해 만든 (22")를 통해 볼 때 서술어가 직접 요구하는 논항으로 설정하기는 어렵고, 단락의 응집성을 위해 필요한 요소로 보인다. 이러한 처리는 통사 단위를 넘는 이유로 본고에서는 더 이상 깊게 논의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들 부사와 달리 ‘잘’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 (23) ㄱ. 회사 출근하는 사람이 넥타이를 잘/제대로 매야 무시당하는 거 아니야. 다시 매라  
 ㄴ. 이런 피자의 관계에서 신세지는 쪽이 쩔쩔 났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위 (23ㄱ)에서 ‘잘’은 ‘제대로’와 교체될 수 있다. 그러나 그 밖의 부사와 교체되는 것은 아니다. 이 문장에서 ‘잘 매야’는 ‘매는 행위를 알맞게 해라’가 아니라 ‘용모를 단정하게 해야 한다’는 번거간 뜻을 전한다. 그리고 그러한 의미 변화를 유발한 요소는 서술어보다는 ‘잘’에서 찾을 수 있다.

앞에서 ‘잘’은 서술어를 수식하면서 또한 서술어가 기술하는 행위에 대한 양상과 태도도 드러낸다고 한 바 있다. 즉 화자는 ‘잘 매다’가 기술하는 직접적인 행위에서 확장된 의미를 유추하는 과정에서 뜻이 확장된 것이다. 즉 ‘넥타이를 보기 좋게 매다’라는 본래 표현에서 ‘넥타이를 포함한 옷매무시 전반을 넘어 용모까지 단정하게 하라’로 그 의미가 확장된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잘 매다’가 전하는 비유적 의미는 ‘잘’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이것은 문장에서 꼭 있어야 하는 논항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21)에서 보듯이 비슷한 성질의 것과 교체되거나 생략될 수 있는데(상황에서 추론이 가능하기 때문에 생략될 수 있다.), 이들 부사들은 생략될 수도, 다른 것과 교체될 수도 없는 특징을 보인다.

이들이 서술어와 긴밀하고 제약적인 구성을 이루는 요소로 문장에서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는 논항이지만 일반적인 논항과 성격을 달리하고 특정 서술어가 요구한다는 측면에서 ‘어휘적 연어’처럼 특정한 명칭으로 명명할 수도 있다(이러한 개념 정의 및 명칭에 대한 기준, 특징 등은 이후의 논의에서 다루기로 한다.).

이들 부사들이 서술어와 함께 통사적 구성과, 긴밀하고 제약적인 구성(어휘적 연어)뿐만 아니라 서술어와 함께 합성동사 및 형용사를 생산적으로 만드는 특징을 보이는데, 아래에서는 그 배경(이유)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3. 합성어에서 ‘잘, 못’의 기능

#### 3.1. 관용문의 일부로 녹아든 부사의 유형 및 기능

아래에서 ‘가다’는 이동이나 움직임의 의미와 함께 (24ㄴ)에서는 ‘생기다’라는 다른 의미를 전한다.

- (24) ㄱ. 그는 일을 마치고 일찍 갔다(떠나다).  
 ㄴ. 그 일 때문에 독립국가<sub>NP1</sub>가 체면에 손상<sub>NP2</sub>이 갔다(생기다).

(24) ㄱ. 일을 마치고 일찍 갔다, 그는.

ㄴ. \*독립국가가 손상이 체면에 갔다.

(25) ㄱ. 일을 마치고 일찍 갔어.

ㄴ. \*그 일 때문에 독립국가가 체면에 갔다.

(24ㄱ)의 ‘가다’는 주어의 행위(‘이동’)를 기술하고, 주어의 의미역은 **행동주**이며, 이 경우 ‘이동’이라는 의미는 서술어만으로 도출되는 것을 주어가 생략된 (25ㄱ)이 문법적인 것에서 볼 수 있다. 이 경우 ‘가다’는 자유어순을 허용한다(24ㄱ). 그러나 (24ㄴ)에서 보듯이 ‘가다’가 사람명사가 아닌 ‘손상, 구김’과 같은 [-행위자성]을 갖는 단어와 함께 ‘생기다’라는 다른 의미를 전하는데, 이때 ‘생기다’라는 의미는 서술어만이 아닌 서술어와 ‘손상’이라는 논항과의 결합에서 나온다는 것을 ‘손상’의 생략 검증으로 알 수 있다(25ㄴ). 이 때 ‘손상’이 ‘손상’이처럼 주격조사를 취하고 있지만 그 의미역은 대상(theme)역으로 볼 수 있고, 이 경우 문장은 자유어순에 제약을 보인다. 어순제약에 대한 이유는 여러 가지로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손상이 가다’ 전체 구성이 변이의미를 만들기 때문에 ‘손상’이 생략되면 ‘생기다’라는 의미가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이동할 수 없는 관계로 자유어순에 제약을 보이는 것이다.<sup>15)</sup>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또 다른 증거로 ‘독립국가(NP<sub>1</sub>)’는 관계화를 허용하는 반면 ‘손상(NP<sub>2</sub>)’은 관계화를 허용하지 않는 것을 들 수 있다(26ㄴ’)

(26) ㄱ. 일을 마치고 일찍 간 그.

ㄴ. 체면에 손상이 간 독립국가.

ㄴ’. \*독립국가가 체면에 간 손상.

특정 낱말과의 통어적 공기 관계에 의해 변이의미의 획득이 가능함은 남기심(1995:175)에서도 볼 수 있다.<sup>16)</sup> 위의 ‘가다’의 변이의미는 ‘금, 손상, 흠집...’과 같은 명사와 함께만 들어지며, 그 의미로 사용될 때 선행하는 명사와 ‘가다’가 긴밀하고 제약적인 구성을 이루어 하나의 단위로 기능한 것이다.

위와 마찬가지로 아래 유형들은 ‘NP<sub>1</sub>에 NP<sub>2</sub>이/가 V’와 ‘NP<sub>1</sub>에 NP<sub>2</sub>을/를 V’와 같은 비기본 격틀로 실현되고 있으며, 이들은 의미적으로 긴밀한 하나의 단위처럼 통사적으로 이동이나 다른 변형을 허용하지 않는다. 즉 어순 교체와 관계화를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이들이 긴밀한 구성임을 판단할 수 있다.

(27) ㄱ. 개발에 땀이 나다, 턱에 숨이 달다, 가슴에 멍이 들다, 눈에 흙이 들어가다, 간에 불이 붙다, 입에 곰팡이가 슬다 등

ㄴ. 두 손에 떡을 들다, 얼굴에 먹칠을 하다, 얼굴에 철판을 깔다, 가슴에 못을 박다, 얼굴에 침을 뱉다, 목에 거미줄을 치다 등

15) 그 전체 구성이 ‘체면’에 처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6) 남기심(1995)은 특정한 낱말과의 공기 관계 외에 ① 그러한 공기 관계를 이루기 위한 일정한 문법 형태를 띠고 있을 때라는 조건과 ② 특정한 문법적 위치에 나타날 때라는 두 가지 조건이 더 있어야 하는 것으로 보았다.

(27) ㄱ. \*땀이 개발에 나다, 숨이 턱에 닿다, 멍이 가슴에 들다, 흙이 눈에 들어가다...,  
 ㄴ. \*땀을 두 손에 들다, 먹칠을 얼굴에 하다, 철판을 얼굴에 깔다, 못을 가슴에 박다...,

(27)의 어순을 교제한 (27')는 비문이 되거나 본래 구조와 다른 의미를 가진다. 결과적으로 위의 부사어는 주어 혹은 목적어와 어순 교체를 허용하지 않는다. 이뿐만 아니라 이 말들은 관계화 변형에서 후행 명사와 다른 양상을 보인다.

(28) ㄱ. ?\*개발에 난 땀, ?\*턱에 닿은 숨, ?\*가슴에 든 멍, ?\*눈에 들어간 흙...,  
 ㄴ. ?\*두 손에 든 땀, 얼굴에 한 먹칠, 얼굴에 깎 철판, 가슴에 박은 못...,

(29) ㄱ. \*땀이 난 개발, \*숨이 닿은 턱, \*멍이 든 가슴, \*흙이 들어간 눈..  
 ㄴ. \*땀을 든 두 손, \*먹칠을 한 얼굴, \*철판을 깎 얼굴, \*못을 박은 가슴...

즉 (28ㄱ)에서 ‘땀, 숨, 멍, 흙’과 (28ㄴ)의 ‘목, 두 손, 얼굴, 가슴’ 등이 관계화를 한 문장이 문법적으로 관계화를 허용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지만 (28ㄱ)은 당초 (27ㄱ)이 아닌 (27'ㄱ)의 ‘땀, 숨, 멍, 흙’ 등을, (28ㄴ)은 (27ㄴ)이 아닌 (27'ㄴ)의 ‘땀, 먹칠, 철판, 못’을 관계화한 것이다. 이 경우 (28ㄱ, ㄴ)의 ‘개발에 난 땀, 가슴에 든 멍’ 등은 글자 그대로의 의미의 함에 의해 파악될 수 있는 뜻이다. (28ㄴ)의 ‘땀, 먹칠, 철판, 못’ 역시 비유적 의미가 아닌 글자 그대로의 의미로 해석된다.

결과적으로 이들 부사어들은 후행하는 성분과 의미적으로 긴밀한 하나의 단위를 이룬다. 이런 이유로 앞선 연구에서 이들을 ‘관용문, 연어’ 등으로 지칭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사어가 함성용언을 활발히 만드는 이유가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의 기능과 함성용언의 생산성이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는지가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서술어의 의미구조에 어떻게 포함될 수 있을 것인지 역시 설명되어야 한다.

문장에서 부사어는 주로 ‘도구, 방법, 장소’의 의미역을 가진다. 이러한 부사어가 서술어 혹은 문장의 의미를 변별하는 데 관여한다면 그것은 서술어의 의미구조에 포함되어야 한다(조민정, 2013:89). 뿐만 아니라 그것이 생략되면 문장이 비문이 되는 것처럼 문장에서 꼭 필요한 성분이라면 그것은 논항의 하나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기존 사건에서 서술어의 의미 변별에서 필수적인 부사를 논항이 아닌 뜻풀이에서 부가 정보로만 기술하였다(예문 (16) 참조).

그런데 논항의 의미역은 (Jeckendoff, 1992; Haegeman, 1992; Weibelbutb, 1995)에 따르면 서술어와의 긴밀도에 따라 위계를 가지는데, 그 위계는 ‘대상> 도구> 방법> 장소’ 순이다.<sup>17)</sup> 또한 Tomlin(1986:4)의 ‘동사-목적어 결합성의 원리’에 의하면 타동사의 경우 목

17) 도구(instrument)로는 ‘칼, 총’과 같은 것이 해당되고, ‘방법(method)’은 행위의 방식을 나타내는데, 예컨대, ‘건다, 달리다’의 차이는 기본적으로 ‘빠르게, 느리게’에 의해 구분된다. 이 경우 ‘빠르게, 느리게’ 등이 ‘방법’에 해당된다. ‘방법’을 서술어의 논항(필수논항)으로 설정하고, 의미역을 할당하는 것의 문제는 부사가 ‘방식(방법)’을 주로 나타내고 기존의 논의에서 ‘부사’를 서술어의 논항으로 설정한 경우가 많지 않다는 것과 함께 ‘방법’의 경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가 여전히 설명되어야 한다. 의미역을 다른 논의(Jeckendoff, 1992; Haegeman, 1992; Weibelbutb, 1995)에서 의미역의 유형과 명칭은 다양하며, 본고의 주제와 직접 관련이 없는 관계로 참고



적어는 주어보다 서술어와 거리가 가깝고, 부사어는 목적어보다 서술어와 거리가 가까워 ‘주어-동사’는 합성어가 될 수 없지만, ‘목적어-동사, 부사어-동사’는 합성어가 될 수 있다. 이때 부사가 서술어와의 거리가 가까운 것은 그것이 주로 서술어를 수식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성분보다 서술어 가까이 위치하기 때문이다.<sup>18)</sup>

반면 ‘개발에 땀이 나다’처럼 부사어가 주어보다 앞서는 경우 그것은 기본의미가 아닌 변이의미로 쓰인 경우이다. 이때 ‘부사어-주어-서술어’와 ‘부사어-목적어-서술어’가 긴밀히 결합하여 변이의미를 만든 것이다. 그래서 부사어와 주어가, 부사어와 목적어의 어순이 교체되지 않으며, 주어나 목적어가 관계화를 허용하지 않는다. 이때 부사어와 주어, 부사어와 목적어는 더 이상 그 구성에서 분리할 수 없는 성분이다. 부사어와 서술어가 함께 쓰여 제3의 의미를 가지는 경우를 더 보이면 아래와 같다.

- (30) ㄱ. 머릿속에 그리다, 계산에 넣다, 입에 담다, 등에 대다, 머리에 두다, 하늘에 맡기다, 손에 쥐다, 엉덩이 밑에 깔다 (부사어-타동사)  
 ㄴ. 귀에 쟁쟁하다 (부사어-형용사)  
 ㄷ. 구렁텅이에 빠지다, 그물에 걸리다, 손에 꼽히다, 바닥에 떨어지다, 발길에 채이다 등 (부사어-자동사)
- (30)' ㄱ. \*그린 머릿속, \*넣은 계산, \*담은 입, \*둔 머리, \*맡긴 하늘...  
 ㄴ. \*쟁쟁한 귀  
 ㄷ. \*빠진 구렁텅이, \*걸린 그물, \*꼽힌 손, \*떨어진 바닥, \*채인 발길...

### 3.2. 복합어에서 부사의 기능 및 유형

이제 ‘부사-서술어’ 합성어 간의 의미를 구별(변별)하는 데 결정적인 요소는 서술어일까? 아니면 서술어 앞에 선행하는 어기인 부사일까? 먼저, 합성명사의 하나인 ‘N<sub>1</sub>사각형’에서 어떠한 요소가 의미를 결정하는 데에 관여하는지 사전에서의 뜻풀이를 토대로 살펴보자.

- (31) ㄱ. 정사각형: 변의 길이와 내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사각형  
 ㄴ. 직사각형: 네 각이 모두 직각인 사각형

(31)의 핵 명사인 ‘사각형’은 이들 합성어의 유형을 결정짓고 있다. 그리고 ‘정사각형’과 ‘직사각형’의 이름은 밑줄 친 부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밑줄 친 부분은 바로 선행하는 ‘N<sub>1</sub>’인 ‘정’과 ‘직’이다. 이때 ‘정’과 ‘직’은 합성어 전체 의미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선행 어기(N<sub>1</sub>)가 합성어의 의미를 변별하는 데 중요함을 아래의 ‘경작’ 합성어에서도 볼 수 있다.

문헌 목록에서 제시하지 않았다.

18) ‘동사-목적어 결합성의 원리’란 타동사와 목적어의 응집력이 주어와의 응집력보다 통사적, 의미론적으로 더 크다는 원리이다. 이 원리는 동사가 의미상의 빈칸을 채울 때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보편적인 원리가 문장에 적용되는 것인데, 이것은 문장뿐만 아니라 단어 형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최형용(2006 : 261~262)에서도 타동사가 행위주와 결합하여 단어를 이루지 않는 원인을 ‘동사-목적어 결합성의 원리’로 설명한 바 있다.

(32) ㄱ. 경작: 땅을 갈아서 농사를 지음.

ㄴ. 사면경작: 몹시 비탈진 땅을 이용하여 농사를 짓는 일.

ㄷ. 계단^경작: 비탈진 땅에 계단 모양으로 층층이 논밭을 만들어 하는 경작.

ㄹ. 공동^경작: 둘 이상의 농가나 마을 전체가 논이나 밭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함께 농사짓는 일.<sup>19)</sup>

위 (32ㄱ)에서 보듯이, ‘경작’은 단일한 뜻을 가지고 있고, ‘경작’을 핵으로 하는 합성어는 ‘짓는 일(행위)’ 혹은 ‘심어 가꾸는 일’이라는 뜻을 가진다. 그렇지만 이들 합성어 간의 의미 변별, 즉 ‘짓는 방식’은 선행하는 어기에 의해 결정된다. 지금까지 ‘N<sub>1</sub>사각형’과 ‘N<sub>1</sub>경작’ 합성어 간의 의미 변별에서 중요한 요소는 핵인 명사가 아니라 핵 명사에 선행하는 어기 N<sub>1</sub>인 것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윌리엄스가 처음 제기한 것으로 상징어를 핵으로 하는 명사 파생과 합성에서 상징어는 항상 접사나 다른 밑말에 선행(왼쪽)하고, 파생어나 합성어의 품사(전체 범주)를 결정하는 것(형식)은 오른쪽에 위치한다고 한다고 했는데(Williams, 1981: 275-6), 실제 한국어에서도 그러한 규칙이 적용됨을 아래에서 볼 수 있다.

(33) ㄱ. 꿀꿀이, 똥똥이, 썩썩이; 덩벙이, 부엌이, 오뎅이…. (파생어)

ㄴ. 멍멍개, 통통걸음, 끈끈물; 시들병, 흔들바위, 얼룩소(합성어)<sup>20)</sup>

위에서 선행 어기인 상징어가 해당 단어들의 의미를 구분하는 데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면 아래의 (34)에는 시간과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가 그러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34 ㄱ)의 파생어와 (34 ㄴ)의 합성어에서 시간과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 혹은 부사어에서 조사가 생략된 채 선행 어기로 단어 형성에 참여하고 있다.

(34) ㄱ. 가을걸이, 감옥살이, 개구멍받이, 귀걸이, 머리쓰개, 명석말이, 방패막이, 손잡이, 앞차기 등 (고광주, 2001:80-81에서 재인용)

ㄴ. 거울삼다, 남다르다, 눈실다, 번개갈다.

(34) ㄱ. 가을(에) 걸이, 감옥(에) 살이, 귀(에) 걸이, 머리(에) 쓰개, 명석(으로) 말이, 방패(로) 막이, 손(에/으로) 잡이, 앞(으로) 차기 등

ㄴ. 거울(로) 삼다, 남(과) 다르다, 눈(에) 실다, 번개(와) 갈다.

위 (34)에서 생략된 조사를 재구해 보이면 (34')와 같다. 서술어가 자신의 논항인 부사어에서 부사격조사를 생략하고, 새말을 만든 것으로, 이러한 방법은 ‘N+V’구성의 합성용언을 만드는 데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자동사 V가 핵이 되고, 자신의 논항인 명사와 함께 합성어를 만든 것으로<sup>21)</sup>, ‘겁없다, 자신없다, 배고프다, 끝나다, 조각나다, 손부끄럽다, 동트

19) 예문 (31, 32)는 조민정(2013:94-96)에서 재인용함.

20) 예문 (33)은 김홍범·박동근(2013:128-130)에서 재인용함.

21) 이렇게 N<sub>1</sub>+N<sub>2</sub> 구성의 합성어에서 N<sub>2</sub>가 핵이 되고, N<sub>1</sub>이 논항이 되는 것이 특이한 양상은 아니다. 최경봉(1998)은 합성어를 포함한 N<sub>1</sub>N<sub>2</sub>의 구구성의 의미 결합 관계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N<sub>1</sub>N<sub>2</sub> 구성을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논항 관계 구성이다. 즉 동사가 자신의 논항을 취하듯 뒤에 있는 명사가 자신의 논항으로 앞의 명사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다, 멍들다'가 있다(35). 모두 자동사와 자신의 논항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자동사와 마찬가지로 타동사가 자신의 목적어 논항과 결합하여 합성어를 만든 것으로 '교정보다, 궁상떨다, 길들이다, 끝맺다, 꿈꾸다, 담쌓다, 손쓰다, 수놓다, 편짜다' 등등이 있다(36). 이때 '교정, 궁상, 길, 끝, 꿈, 담, 손, 수, 편'은 서술어인 'V'의 목적어 논항에 해당한다.

- (35) ㄱ. 겁없다, 자신없다, 배고프다, 끝나다, 조각나다, 손부끄럽다, 동트다, 멍들다  
 ㄴ. 겁(이)없다, 자신(이)없다, 배(가)고프다, 조각(이)나다, 손(이)부끄럽다, 동(이)트다, 멍(이)들다

- (36) ㄱ. 교정보다, 궁상떨다, 길들이다, 끝맺다, 꿈꾸다, 담쌓다, 손쓰다, 수놓다, 편짜다  
 ㄴ. 교정(을)보다, 궁상(을)떨다, 길(을)들이다, 끝(을)맺다, 꿈(을)꾸다, 담(을)쌓다, 손(을)쓰다, 수(를)놓다, 편(을)짜다

즉 통사적 구성인 'N이/가+V'에서 주격조사를, 'N을/를+V'에서 목적격조사가 탈락되어 합성어를 이룬 것이다. 이렇게 용언이 자신의 논항 명사와 결합하여 합성어를 이루는 것은 일반적인 양상이다.

위의 (34)에서 서술어의 논항인 부사와 서술어가 함께 새말을 만든 것과 달리 아래 (37)에서 서술어를 수식하는 성분부사와 서술어가 함께 합성어를 만드는 것을 볼 수 있다.

- (37) ㄱ. 마구잡이, 내리닫이, 거저먹기, 새로쓰기, 거둬남 등  
 ㄴ. 마구: 아무렇게나 함부로. ㄹ[글씨]를 마구 써서 알아보기 힘들다.  
 ㄷ. 내리: 잇따라 계속. ㄹ[그들은] 딸만 내리 셋을 낳았다./내리 짓누른다.  
 ㄹ. 거저: 아무런 노력이나 대가 없이. ㄹ[땅을] 거저 주다니? 세상에 어디 공짜가 있던 말이나!  
 ㅁ. 새로: 위에서 아래의 방향으로. 또는 아래로 길게. ㄹ[봉의] 눈이 새로 치켜지면 서 쿵구멍이 벌통벌통하다가 이내 커다란 호통을 질러 버린다.  
 ㅂ. 거둬: 어떤 일을 되풀이하여. ㄹ[그는] 음식이 맛있다며 거둬 감탄하는 표정을 지었다.22)<고광주, 2001:80-81에서 재인용>

위의 '마구, 내리, 거저, 새로, 거둬'는 서술어가 기술하는 사태의 방식을 드러내는 부사들이다. 이들이 서술어와 함께 자주 쓰이면서 새로운 뜻을 전하다가 더 나아가 서술어와 함께 합성어를 만든 것이다. 즉 이들이 높은 빈도로 사용되면서, 서술어와 긴밀한 구성을 이루면서 다른 의미를 파생하고 그것이 합성어가 된 경우이다. 그렇지만 '마구, 내리, 거저, 새로, 거둬'이 만든 합성어는 (37)을 제외하면 그리 많지 않은 반면 '잘, 못, 잘못'은 다양한 서술어와 함께 합성어를 만들고 있다.

22)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마구'는 (21)에 제시한 뜻 외에도 "몹시 세차게. 아주 심하게"라는 뜻을 더 가지고, '내리'는 "위에서 아래로"와 "사정없이 마구"라는 뜻을, '거저'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빈손으로"라는 뜻을 더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뜻이 (26)의 단어의 뜻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여 본문에서 제시하지 않음을 밝힌다.

### 3.3. ‘잘, 못’합성어의 높은 생산성과 그 배경

머리라는 개념은 윌리엄스(Williams, 1981)에서 도입된 것으로 복합어에서 그 낱말의 오른편 요소가 머리가 된다고 한다. 이는 대개 복합어의 오른쪽 요소가 그 복합어의 범주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우측 머리어 규칙’(righthand head rule)에 따르면, 복합어의 오른쪽 요소가 그 복합어의 범주를 결정하며 선행하는 어기를 선택하는 하위범주화 틀을 갖고 있다. 성분부사와 동사 혹은 형용사가 이루는 아래의 합성어에서도 합성어의 품사를 결정짓는 것은 합성어의 우측에 위치한 서술어이다. 이렇게 볼 때 Williams(1981)의 주장은 한국어에서 성분부사와 동사·형용사가 만드는 합성어의 구조를 설명하는데 여전히 유효하다고 하겠다.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진 합성어들 간의 차이를 결정하는 요소는 왼쪽의 어기이다. 즉, 잘, 못’으로 만들어진 합성어에서 선행하는 부사가 해당 어휘들 간의 차이를 결정하는 것을 볼 수 있다.

- (38) ㄱ. 잘되다, 잘살다, 잘생기다  
 ㄴ. 못되다, 못살다, 못생기다

‘잘’과 ‘못’으로 만들어진 합성어는 (38)을 포함해 상당히 많음을 아래의 예에서 확인할 수 있다.

- (39) ㄱ. 잘 계열: 잘나가다, 잘되다, 잘 보이다, 잘 빠지다, 잘빠지다, 잘살다, 잘생기다  
 ㄴ. 못 계열: 못나다, 못되다, 못마땅하다, 못미덥다, 못살다, 못생기다, 못서다, 못쓰다, 못하다  
 ㄷ. 잘못 계열: 잘못되다, 잘못하다, 잘못살다, 잘못짚다
- (40) ㄱ. 잘 계열: 잘나가다, 잘나다, 잘되다, 잘빠지다, 잘살다, 잘생기다, 잘하다, 잘해아  
 ㄴ. 못 계열: 못나다, 못되다, 못마땅하다, 못마땅히, 못미덥다, 못미처, 못살다, 못생기다, 못쓰다, 못지않다, 못하다  
 ㄷ. 잘못 계열: 잘못되다, 잘못하다<연세 현대한국어사전>

위 합성어에서 서술어가 합성어의 범주를 결정하고, 그것이 선행하는 형식(어기)을 결정하는 하위범주화 틀을 가진다는 Williams의 주장이 타당하다면, ‘잘, 못, 잘못’은 서술어가 하위범주화(선택)하는 성분이다. 그렇게 본다면 이들 부사들은 서술어의 논항으로 볼 수 있지만, 모든 서술어가 아니라 특정 서술어가 하위범주화 한다는 점에서 여타의 논항과 다른 점이다.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이들 부사들이 특정 서술어와 결합하여 변이의미를 만들면서 일상적인 구어에서 자주 사용된다고 했다. 이는 이들이 행위나 사태의 모양을 드러내면서 동시에 화자가 그 사태나 행위에 대해 가지는 태도를 드러내기 때문에 문어를 포함 구어에서도 자주 사용된 것이다. 이런 배경(즉 높은 빈도로 사용되어) 속에서 ‘잘, 못, 잘못-서술어’ 합성어가 활발히 만들어지게 되어 높은 생산성을 보인 것이다. 그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으로 언어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부사로 ‘막’이 있는데, 그것은 다양한 서술어와

함께 합성어를 만든다. 그것을 보이면 아래 (41)과 같다.

(41) ㄱ. 막. (일부 동사 앞에 붙어) ‘주저없이’, ‘함부로’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㉑ 막가다/막거르다/막벌다/막보다/막살다.

ㄴ. 막 계열: 막가다, 막거르다, 막걸다, 막굴러먹다, 막깍기하다, 막깍다, 막깍이하다, 막노동하다, 막놀다, 막되다, 막론하다, 막말하다, 막물다, 막벌다, 막벌이하다, 막베다, 막보다, 막살다, 막살이하다, 막서다 외

#### 4. 맺음말

지금까지 ‘부사-서술어’ 구성이 자유결합부터 공고한 결합까지 다양한 유형이 있음을 관계화, 어순교체, 생략, 그리고 제3의 의미과생으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게 된 배경에는 먼저, 통사적인 측면에서 부사가 서술어 바로 앞에서 선행하며 수식하는 성분과 서술어가 자주 결합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기인함을 보았다. 다음으로, 의미적인 측면에서 그 결합이 특정 상황에서 자주 반복되어 사용되면서 다른 의미를 획득한 것을 들 수 있다. 즉 습관적으로 자주 사용되면서 개방적인 구성이 긴밀하고 제약적인 구성으로 나아갔다고 하겠다. 이어 이러한 구성이 제3의 의미를 가지면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면서 한 단어 즉 합성어를 이룬 것으로 보았다.

## ■ 참고문헌

- 김민수(1982), 『문법』, 어문각.
- 김진해(2000), 『연구 연구』, 한국문화사.
- 김홍범·박동근(2001), “신문기사 제목에 쓰인 상징어의 분석”, 『배달말』 29, 배달말학회, 53~70쪽.
- 김홍범·박동근(2013), “일상생활에서 명사로 쓰이는 상징어의 활용 양상”, 『나라사랑』 122, 외솔회, 117-138쪽.
- 남기심·고영근(2011), 『표준국어문법론(개정판)』, 탐출판사.
- 박동근(2000), “웃음표현 흉내말의 연구”, 『한글』 247, 한글학회, 159~189쪽.
- 박동근(2004), “구어 흉내말의 계량적 연구”, 『한말연구』 15, 한말연구학회, 167~186쪽.
- 박동근(2005), “울음표현 흉내말의 연구”, 『한글』 267, 한글학회, 쪽.
- 박동근(2006), “내적변화에 의한 파생과 유표성”, 『한말연구』 19, 한말연구학회, 91~116쪽.
- 서상규(1993), “현대 한국어의 시능말의 문법적 기능에 대한 연구 - 풀이말과의 결합 관계를 중심으로”, 『조선학보』 149, 조선어연구회, 63~192쪽.
- 서상규(1991), “정도부사에 대한 국어학사적인 조명과 그 분류에 대해”, 『연세어문학』 48, 219~267쪽.
- 손남익(1995), 『국어부사연구』, 박이정.
- 이희자(1995), “현대국어 관용구의 결합 관계 고찰”, 『대동문화연구』 30,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411-444쪽.
- 임근석(2005), “문법적 언어의 개념 정립을 위하여”, 『형태론』 7, 도서출판 박이정, 277-301쪽.
- 임근석(2008), “문법적 언어와 문법화의 관계”, 『국어학』 51, 국어학회, 115-147쪽.
- 조남호(1993), “국어 사전에서의 의성 의태어 처리”, 『새국어생활』 3-2, 국립국어연구원.
- 채 완(2003), 『한국어의 의성어와 의태어』, 서울대학교 출판부.
- 최경봉(1999), 『국어 명사의 의미 연구』, 태학사.
- 최현배(1961, 1989), 『우리말본: 세 번째 고침』, 정음문화사.
- 최형용(2006), “합성어 형성과 어순”, 『국어국문학』 143, 국어국문학회, 235-271쪽.
- 허 웅(1985), 『국어 음운론』, 샘문화사.
- Asher, N.(2011), *Lexical Meaning in Context*,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enson, M. et al(1986), *The BBI combinatory Dictionary of English: a guide to word combinations*, Benjamins.
- Bolinger, D.(1977), *Meaning and Form*. London: Longman Group.
- Fündling, D.(1985), 『한국어 의성, 의태어 연구 - 음성상징에 관한 구조 및 의미론적 고찰』, 탐출판사.
- Langacker, R. W.(1987), *Foundations of Cognitive Grammar voll*, 김종도역(1998), 박이정.
- Sinclair, J.(1991), *Corpus, concordance, colloc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 Tomlin, R. S.(1986), *Basic Word Order*, Croom Helm: Kent.
- Ullmann, S.(1957), *The Principle of Semantics*, Glasgow: Jackson and Oxford: Basil Blackwell.

Williams, E.(1981), “On the notion ‘lexically related’ and ‘head of word’”, *Linguistic Inquiry* 12·2, 245-274쪽.

## □ 토론 □

### “‘부사-서술어’ 구성의 형성 원인 및 유형 연구-‘잘, 못, 잘못’을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김건희(서원대)

이 논문에서는 다양한 ‘부사-서술어’ 구성에 대해 그 유형을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세밀한 기반 연구를 하였고 이를 토대로 이들 구성이 ‘언어’, ‘합성어’ 등의 언어단위(범주)와 관련이 있음을 설명적으로 제시하여 향후 언어단위 형성 연구에 큰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논지가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 몇 가지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1>

‘부사-서술어’ 구성이 자유로운 것부터 자유롭지 못한 결합 구성까지 다양한데 그 유형과는 상관없이 이들이 생겨나게 된 배경은 ‘습관적으로 자주 사용되는 말의 사용’에서 만들어진 현상이라고 제시했는데(p.4) 논문의 자세한 유형 분석에 비해 그 생성에 대한 배경 설명은 너무 느슨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 <2>

‘잘 나가다’가 ‘나무, 대패’를 서술할 때는 느슨한 ‘통사적 구성’으로 볼 수 있는 반면 ‘사랑’을 기술할 때는 긴밀하고 제약적인 구성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긴밀한 통사적 구성’은 ‘부사-서술어’ 구성 관계가 아닌 ‘주어’(대패가 잘 나가다, 사람이 잘 나가다)와의 긴밀성으로 생각되어 결국 ‘잘 나가다’ 유형은 ‘부사-서술어’ 관계뿐만 아니라 ‘주어’에 대한 것도 고려되어야 하는 유형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 <3>

‘잘’과 ‘못’으로 만들어진 합성어를 (38), (39), (40)에 걸쳐 제시해 주셨는데

(38) ㄱ. 잘되다, 잘살다, 잘생기다

ㄴ. 못되다, 못살다, 못생기다

또 다른 차원에서 보면 서술어를 중심으로 아래와 같이 파악이 됩니다.

나다 : 잘나다, 못나다

되다 : 잘되다, 못되다

살다 : 잘살다, 못살다

생기다 : 잘생기다, 못생기다



이렇게 관점을 바꿔 볼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는 것은 물론 ‘부사-서술어’ 구성에서 서술어가 범주를 결정한다는 것은 제시하셨지만 전반적인 논의가 ‘잘, 못’에 대해서만 집중하고 ‘서술어’의 역할에 대해서는 너무 간략하게 제시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히려 최근 ‘잘생기다’가 ‘잘생겼다(-었-, 결합)’로 현재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 ‘생기다, 되다’가 상태 상황을 나타낼 때의 활용 양상에서 기인된 것으로 설명하는 일련의 논의들이 있는데 이를 보면 ‘서술어’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간과할 수 없고 특히 ‘특정 서술어가 하위범주화한다는(p.17)’ 언급도 하셨는데 그렇다면 왜 특정 서술어가 이러한 부사와 결합되는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4>

‘생략이 되면 비문이 되는 긴밀하면서도 제약적인 결합 구성 요소’(잘 나가다)를 ‘어휘적 언어’로 보았는데 이러한 ‘어휘적 언어’와 ‘통사적 언어’, ‘합성어’의 차이를 좀 더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휘적 언어’가 아닌 ‘합성어’로 본 ‘잘살다’는 특히 <표준국어대사전>을 표시했는데 ‘어휘적 언어’로 본 ‘잘나가다’도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된 단어(‘사회적으로 계속 성공하다’)입니다. 또한 논문에서처럼 띄어쓰기한 형태(잘 나가다)로 제시하면 ‘통사적 구성’의 ‘통사적 언어’와도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명확히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1음절 한자어 문법화 양상에 대하여

여채러(경희대)

## 차 례

1. 서론
  2. 1음절 한자어의 문법화 양상
  3. 반문법화와 탈문법화
  4. 결론
- 참고문헌

## 1. 서론

본고는 통시적과 공시적 관점에서 1음절 한자어 문법화 과정을 거치면서 그 기능과 의미가 어떠한 변화 양상이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고립어인 중국어의 단어를 가리키는 한자어는 본래 1음절 자립어가 가장 기본적인 단어 구성이나 한국어에 들어와서는 한국어의 문법 체계를 맞추어 대부분 원래 지니던 중국어 문법적 특성을 상실하여 단독으로 자립적인 단어를 이루지 못하고 단어 내적으로 구적 특성을 지닌다. 즉, 형태·통사적인 변화는 한국어 1음절 한자어가 문법화를 겪게 된 애초의 원인이 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자면 역사적으로 ‘인금’ 혹은 ‘왕의 종친·외척 및 공신에게 내리던 작위’를 의미하는 ‘군(君)’은 ‘대군(大君), 왕자군(王子君)’처럼 명사의 용법으로 쓰인다. 그러나 성이나 이름 뒤에 붙이면 ‘김철수 군, 이 군, 민수 군’에서 보듯이 단어가 아닌 구를 형성하는 요소가 되었고 ‘친구나 아랫사람을 친근하게 부르는 말’라는 문법적 의미로 전화되어 의존명사의 용법으로 쓰이게 되었다. 이와 같이 성이나 이름의 뒤에 붙여 ‘그 사람을 높여 부르는 말’라는 용법으로 쓰이면 통사적 구조에 의한 문법적 기능을 획득하게 된 예는 또 ‘공(公), 양(嬢), 웅(翁), 씨(氏)’ 등 1음절 존칭 한자어를 수 있다.

- (1) ㄱ. 공(公) : 김 공, 이 공, 김철수 공  
    ㄴ. 양(嬢) : 이 양, 이영희 양, 영희 양  
    ㄷ. 웅(翁) : 김 웅, 강봉수 웅  
    ㄹ. 씨(氏) : 김 씨, 길동 씨, 홍길동 씨

그 중에서 (1ㄷ)의 ‘웅(翁)’과 (1ㄹ)의 ‘씨(氏)’는 ‘제3인칭을 높이는’ 대명사의 용법이 쓰이기도 하고 (1ㄴ)의 씨(氏)는 “같은 성(姓)의 계통을 표시하는 말”이라는 명사의 용법도 유지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웅(翁)’과 ‘씨(氏)’의 의존명사 용법은 문법화를 겪은 것이고 ‘공(公)’과 ‘양(嬢)’은 단지 한국어화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다음(1)’와 같이 성이나 이름이 아닌 다른 요소와 결합할 때 혹은 휴지(띄어쓰기)가 없어져 단어로 형성되면 (1)의 1음절 한자어의 기능을 접사로 변화하게 된다.<sup>1)</sup>

- (1) ㄱ. 공(公) : 목면공, 충무공, 태사공  
 ㄴ. 양(孃) : 교환양, 안내양.  
 ㄷ. 웅(翁) : 백두웅, 주인웅  
 ㄹ. 씨(氏) : 박씨 부인, 최씨 문중, 회빈 장씨

‘군(君)’과 (1)의 1음절 한자어가 ‘그 사람’을 대접할 때 높여 쓰는 것이므로 성 혹은 이름과 결합하는 용법을 제일 먼저 쓰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군(君)’과 달리 (1)의 1음절 한자어가 (1)’과 같은 환경에서 특정 부류의 선행요소에 대한 강한 의존성을 지니면서 선행요소에 의하여 의미도 변화하여 기능상 의존명사에서 접미사로 변화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양(孃)’의 의존명사 용법과 접미사 용법을 비교해 보면 ‘결혼하지 않은 여자’에 대한 높임 기능에서 의미가 확장되어 ‘그 일을 직업으로 가진 여자’에 대한 지칭으로 변화하는 것은 기능의 차이이고 의미상 큰 차이가 없으며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법화 과정에서 원래 가지던 어휘적 의미와 달라지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다.

- (2) ① 명사 : ㄱ. 선생님 댁, 뉘 댁  
 ㄴ. 동생의 댁, 김철수의 댁, 댁의 남편  
 ② 접미사 : ㄱ. 오라버니댁, 처남댁, 철수댁  
 ㄴ. 안성댁, 광주댁, 상주댁

(1)과 달리 ‘댁(宅)’의 문법화 과정은 명사에서 접사로 변화하는 것이다. ‘댁(宅)’은 명사로 쓰일 때 ‘남의 집을 높여 쓰는 말’(2-①ㄴ)과 ‘남의 아내를 대접하여 쓰는 말’을 뜻하고 접미사로 쓰일 때 (2)처럼 ‘아내’ 혹은 ‘결혼한 여자’를 의미하는데, (2-②ㄴ)의 문법적 의미는 선행요소에 의하여 (2-②ㄱ)에서 파생되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②ㄱ)은 형태·통사적인 구조변화로 (2-①ㄴ)에서 접미사화된 것으로 보는지 아니면 (2-①ㄱ)에서 의미 변화를 거쳐 접미사화된 것으로 보는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이처럼 1음절 한자어의 문법화 유형은 대체로 A:’N → Nb’(명사→의존명사), B:’N → Af’(명사→접사), C:’Nb → Af’(의존명사→접사), 또는 D:’N → Nb → Af’(명사→의존명사→접사)로 나뉘어 볼 수 있는데, 본고는 그 중에서 유형 B:’N → Af’(명사→접사)를 연구대상으로 삼으며 이 유형에서 나타난 어휘적 의미와 문법적 의미에 대한 연관성, 즉, 의미변화의 정도가 어떠한지, 문법화 과정에서 어떤 의미가 우선적으로 문법 기능을 실현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본고는 접사화에 있어서 접미사화만을 논의하였다. 한자어 어근들은 한국어에서 독립성을 지니지 못하는 의존적인 어근의 자격으로 사용되므로 한자어 접사와 혼동을 일으키기 쉽다. 특히 한자어 접사는 유사한 의존형식의 성격을 지니는 한자어 어근과 동일한 어휘 의미를 갖는 경우가 많아서 해당 요소가 접사인지 어근인지에 대한 경계가 모호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현재까지 한자 접미사의 설정 기준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어 왔으나 아직 보편적으로 확립된 한국어 한자 접미사의 설정 기준이 제시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나마 연구자들마다 서로 다른 기준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아서 한자어 접미사 목록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인다.(여채러, 2015:1) 본고에서는 이 가운데에서 1음절 한자어가 문법화 과정에서 나타내는 변화상을 보일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별도의 접미사 판별 기준을 두지 않고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라 1음절 한자어의 접사성을 인정하기로 한다.

## 2. 1음절 한자어의 문법화 양상

잘 알려져 있다시피 문법화(grammaticalization)란 어떤 언어적 요소가 문법적 요소, 즉 문법 기능을 담당하는 언어 요소로 변화하는 것을 가리키며 형식적으로 나타내면 'L → G'이다.<sup>2)</sup> 1음절 한자어가 한국어에서 문법화하는 유형 중에는 형태의 변화 없이 구를 형성하는 요소가 되는 의존명사화와 다른 형태소와 결합하여 새로운 어근이나 단어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접미사화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Croft(1990)에서는 문법화 과정 중에서 한 어휘항목이 형태·통사적 변화를 겪으면 음운적 변화와 기능적 변화도 일어나고 이를 기능의 문법화에 있어서 의미상실(desemanticization)이라고도 하는데, 그 의미가 약화되거나 소실되는 현상도 동반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sup>3)</sup> 따라서 서론에서 언급하였듯이 형태·통사적 구조의 변화는 의미변화가 일어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으며 형태·통사적 구조에 의한 의미변화가 일어나면 문법화가 되었다고 이해될 수 있다. 서론에서 살펴보았던 (1)'의 문법화 과정 중에서 나타난 의미가 큰 차이가 없는 것을 고려하면 문법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의미 변화에 있어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음을 볼 수 있다.

2) 논의의 편의성을 위해 '어휘적 요소'와 '문법적 요소'를 각각 'linguistic element'과 'grammatical element'의 어두자음 'L'과 'G'로 약칭하기로 했다. 다음의 사용된 어두자음도 마찬가지이다. 현대 문법학론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문법화의 정의는 Kurylowicz(1975)에 의한 것인데, “한 형태소가 어휘적 지위에서 문법적 지위로, 또는 파생형에서 굴절형으로의 변화처럼 될 문법적인 것에서 더 문법적인 것으로 범위가 증가되는 현상 "Grammaticalization consists in the increase of the range of a morpheme advancing from a lexical to a grammatical or from a less grammatical to a more grammatical status, e.g. from a derivative formant to an inflectional one." (Kurylowicz 1975: 52)”이라고 것이다(이성하, 1998:23). Croft(1990)에서는 “문법화는 어휘적 단어가 문법적 요소로 변화하는 과정Grammaticalization is the process by which full lexical items become grammatical morphemes.(Croft, 1990:230)”이라고 정의하였고 Hopper & Traugott(1993)에서는 명사, 동사, 형용사와 같은 어휘항목(lexical items)이 전치사, 접속사, 대명사와 같은 기능어(function words)의 문법적 특징을 지니게 되면 그 형태를 “문법화되었다”라고 하였으며 ‘실사(實辭)(content item) > 문법적 단어(grammatical word) > 접어(clitic) > 굴절접사(inflexional affix)’라는 문법성의 연속변이를 있다고 제시하였다. 문법화에 대한 한국내 학자들의 정의는 이전 시기의 연구에서 ‘허사화(虛辭化)’로 사용해 왔다. ‘허사화’에 대한 한국에서의 본격적인 논의는 유창돈(1962)에서 이루어졌다. 그 논의에서는 “일정한 의미를 가지고 쓰이던 실사가 타 어사의 뒤에 연결되어 선행어사의 영향하에 들어가게 될 때, 그로 인하여 본래의 어의가 희박해 내지 소실되며 선행어사의 기능부인 허사로 변하는 현상”을 ‘허사화’로 정의하고 있다. 이태영(1989)에서는 실질 형태소가 의존 형태소로 변하는 현상이라고 하였다. 안주호(1997)에서는 한국어 명사를 연구 대상으로 자립적 어휘소가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형태로 바뀌는 현상이라고 기술하였는데 ‘의존명사화 단계 > 접어화 단계 > 어미·조사·접미사화 단계’ 세 가지 단계를 설명하고 있었다. 고영진(1997)에서는 “독립한 자립적인 낱말로 쓰이던 것이 그 자질을 잃어버리고 의존적인 어휘 혹은 문법적인 요소로 변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최형용(1997)에서는 ‘문법화’는 먼저 ‘문법 범주화’와 ‘문법 형태화’로 나뉘어 보았는데, ‘문법 형태화’에 있어서 ‘한 어휘형태소가 문법형태소로, 또는 문법형태소가 더 문법적인 것으로 변화하는 전형적인 문법화 특징 이외에 ‘어휘 형태소가 의미의 분화 혹은 의미의 축소로 다른 어휘형태소로 바뀌는 현상도 제시하였다.

3) Phonological, morphosyntactic and functional (semantic/pragmatic) changes are correlated: if a lexical item undergoes a certain kind of morphosyntactic change, it implies corresponding functional and phonological changes(Croft, 1990:230). The most important functional grammaticalization process is called desemanticization. This is the process by which lexical meanings of grammatical items. The term ‘desemanticization’ implies that the process involves a loss of meaning(Croft, 1990:236).

- (3)  $\neg, S_0 \rightarrow S_0'$   
 $\neg, S_0 \rightarrow S_1$

(3-1)의 경우에는 ‘S<sub>0</sub>’는 원래 가지던 기본적 의미이고 ‘S<sub>0</sub>’은 ‘S<sub>0</sub>’와 연관성이 있는 약화된 의미를 말한다. ‘S<sub>1</sub>’는 ‘S<sub>0</sub>’의 의미역에서 벗어나 다른 의미를 가리키는 것이다. 의미에 의한 기능 변화에 대해 안주호(1997)에서 ‘어휘의미와 문법적의미의 정도성의 차이’로 논의한 바 있다. 다음에 문법화 각 유형별로 그러한 의미 변화에 해당하는 1음절 한자어(서론에서 언급하였던 인정 한자어 이외에)를 정리해 보면 다음 <표-1>과 같다.

<표-1> 1음절 한자어의 의존명사화와 접사미화

유형 (범주 변화)		해당 한자어	용례
기능	의미		
N → Nb	S <sub>0</sub> ↓ S <sub>0</sub> '	간(間)	一間 <u>한 간</u> , <동해 上:35> 1)서울과 부산 <u>간</u> 야간열차. 2)부모와 자식 <u>간</u> 에도 예의를 지켜야 한다.
		등(等)	생가 또는 주요 활동지 <u>등</u> 에 지금까지 대통령을 지낸 40명의 기념편이 서있다. 1) 울산, 구미, 창원 <u>등</u> 과 같은 공업 도시. 2) 복구 프로그램을 <u>설치</u> 하는 등 <u>건급</u> 조치를 취했다
		번(番)	<u>번</u> 을 서다. 둘째 <u>번</u> .
		시(時),	시가 언제인가? / <u>시</u> 매진 공사. 1) 정각 <u>열 시</u> 에 만남시다. 2) 비행 <u>시</u> 에는 휴대 전화를 사용하면 안 된다.
		식(式)	식을 거행하겠으니 내빈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농담 <u>식</u> 으로 말하면 믿음이 가지 않는다.
		중(中)	1) 이번 시험 문제의 난이도가 <u>좋은</u> 걸 것이다. 2) 티셔츠를 사러 가서 동생은 소, 나는 <u>중</u> 을 샀다. 1) 식사 <u>중</u> / 여행하던 <u>중</u> 에 만난 사람 2) 대학 재학 <u>중</u> 에 입대하다. 3)오늘 내일 <u>중</u> 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편(便)	약자의 편에 서다. / 지지하는 편과 반대하는 편으로 갈라졌다. 1) 지는 편에서 밥을 사기로 했다. 2) 아직은 여유가 좀 있는 편이다
	S <sub>0</sub> ↓ S <sub>1</sub>	법(法)	<u>법</u> 을 어기다/ <u>법</u> 을 제정하다/ <u>법</u> 을 준수하다. 1) 공부하는 <u>법</u> 2) 그는 아무리 늦게 일어나도 아침밥을 <u>거르</u> 는 <u>법</u> 이 없다. 3) 달이 차면 해가 기우는 <u>법</u> 이지요. 4) 그 말을 들으니 또 <u>그런 법</u> 도 하네요.
		수(數)	가포물 <u>수</u> 에 <u>꼭</u> 게 <u>호리</u> 라. (歸還足數) <杜 初 上:61> 실상 군량이 긴급하야 <u>엇지</u> <u>할 수 업</u> 는 <u>적</u> 의 박무득이 <u>하야</u> <u>하</u> 는 <u>거</u> 죄라. <易言,4,054a>
		양(樣)	珠魔法王이 罪이 약으로 詳考하야 <1447석보,09:038b> 1) 너를 <u>좋아</u> 하는 <u>양</u> 친절을 베풀고 있다. 2) 고시를 <u>불</u> <u>양</u> 이면 각오를 단단히 해라.
		차(次)	既據所次하야 既논 하마 하논 쓰디라 據는 브를씨라 <u>次</u> 논 次第 해어 <1459월석,서,005a> 1) 그들은 선생님 댁을 수십 차 방문했다. 2) 브르 <u>논</u> <u>츠</u> 의 멀니 보니 혼 사람이 염염히 물 우희서 브람을 쓰라 비로<1758종덕,중,033b> / 잠이 막 <u>들려</u> 던 <u>차</u> 에 전화가 왔다.

N → Af	S <sub>0</sub> ↓ S <sub>0</sub> '	체(體)	아직 體로 體를 새어 부텃 知體를 열오 <1459월석,11.024a>
			항고 스스로 體흔 체항고 스스로 가득흔 체항니 <1884관오,006a>
		간(間)	보고도 못 본 체 판전을 부리다
			들젧 간의 와 혼숨 자고 쏜 드러가 금고<번박 상:52-53>
		상(上)	이들간, 한 달간, 대장간, 외양간
			1) 지구 상의 생물.
		족(族)	2) 상으로 등급이 매겨진 집은 다섯 가호밖에 되지 않았다.
			關係上, 美觀上,  통신상
		구(口)	다 난 氏族과 일홈패 잇느니 氏는 姓이오 族은 아스미라 <1461등 엄,03.075a>
			滿洲族, 제미族, 週末族
		금(金)	和合은 身과 口와 意와 戒와 見과 利왜니 身和는 혼덕 住호미오 口和는 淨 업수미오 <1465원각,10.하3,2:031b>
			通風口, 非常口, 賣票口
		가(價)	돈이 아니라 금을 주어도 아무도 그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契約金, 獎學金, 祝賀金
		증(症)	價賤 감 혼하다. <11748동문,하.026b>
			告示價, 上限價, 小賣價
S <sub>0</sub> ↓ S <sub>1</sub>	S <sub>0</sub> ↓ S <sub>1</sub>	왕(王)	내가 남포에 가던 전날 밤에는 그 증이 더욱 심하였다.
			궁금症, 답답症, 갑갑症
		수(手)	王이 百官 뵈호시고 百官은 온 그위니 한 臣下를 니르니라 이 뻐 < 1447석보,03:006b>
			發明王, 싸움王, 貯蓄王
		고(高)	수가 높다. / 수를 얹다. / 내가 한 수 가르쳐 주지.
			射擊手, 交換手, 起舞踊手
		차(次)	天의 高홀과 星辰의 遠홀이나 전실로 그 故를 求하면 天歲의 日至를 可 히 坐하야 <1590명자,08,020a>
			生産高, 輸出高, 販賣高

<표-1>의 1음절 한자어가 의존명사화한 경우는 본고에서 자세히 논의되지 않는다. 이는 의존명사화가 의미변화에 있어 접미사화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예시한 것 뿐이다. 의미 변화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는 현대국어에 와서도 ‘등(等), 번(番), 시(時), 식(式), 중(中), 편(便)’ 등의 용법은 대부분 ‘[ ] X’의 구조에서 의존적으로 쓰여 문법적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은 여전히 한자어라는 인식을 보여준다. 반면에 원래 자립적으로 쓰이던 ‘법(法), 수(數), 양(樣), 차(次), 체(體)’ 등 같은 한자어는 근대국어에 오면서 ‘[ ]ㄴ/는 법(이다)’, ‘[ ]ㄴ 수 (없다)’, ‘[ ]ㄴ 양이면’, ‘[ ]ㄴ/는/던 차’ 등 구조에서 의존적으로 쓰임에 따라 고유어 의존명사처럼 문법적 의미로 확장되었음을 볼 수 있다.<sup>4)</sup>

이에 비해 명사가 접미사화된 경우는 통사적 구조가 아닌 단어를 형성하는 요소로서 어기에 대한 상관관계에 의한 의미변화가 일어난다. 다음으로 이에 대해 유형별로 자세히 논의하겠다.

## 2.1 ‘수(手)’ 류

이상규(2000:81)에서는 <주어, 무엇이> “합성어의 구성 성분으로 쓰이는 어근의 의미와 는 유연성이 사라졌고, 그 뜻으로는 단어의 끝음절에만 올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접미사로 볼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한 바 있다. 이에 의하면 어떤 한자어가 접미 위치 환경에서 의미 확장되었다가 그 확장된 의미로 문법적 기능을 획득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의 예를 보자.

4) 한자어 의존명사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안주호(1997)를 참고할 것.

- (4) ㄱ. 수기(手技), 수결(手決), 수동(手動)  
       ㄱ'. 실수(失手), 거수(舉手), 상수(上手)  
       ㄱ". 가수(歌手), 선수(選手), 투수(投手)  
       ㄴ. 수공업(手工業), 수신호(手信號), 수화물(手貨物)  
       ㄴ'. 사격수(射擊手), 교환수(交換手), 무용수(舞踊手)

‘수(手)’의 경우에는 ‘손’의 뜻도 있고 ‘사람’의 뜻도 있는데 ‘손’은 기본적 의미이고 ‘사람’은 파생된 의미로 이해된다.<sup>5)</sup> (4ㄱ)에서 보듯이 2음절 단어 경우에는 ‘수(手)’는 단어 끝음절에 위치한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을 의미하기도 하고 ‘손’을 뜻할 때도 있다. 그러나 (4ㄴ, ㄴ') 3음절 복합어, ‘2음절+1음절’ 혹은 ‘1음절+2음절’의 경우에는 2음절 어기의 접미 위치에 있어야만 ‘그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표현될 수 있다. 이 의미로 단어의 접미 위치에 고정하여 특정 부류의 어기와 결합을 통해 새로운 파생 어휘가 형성된다는 점에서 ‘S<sub>0</sub> → S<sub>1</sub>’라는 의미변화를 겪은 것은 접미사의 용법으로 쓰이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계열의 1음절 한자어를 또 다음 <표-2>와 같이 들 수 있다.

<표-2> 파생 의미가 접미 위치에 고정화된 접미사

한자	기본 의미	용례	문법화	
			파생 의미	용례
가(家)	집, 가족	國家, 家庭	그것에 능한 사람	作家, 小說家
왕(王)	인금	王子, 大王	일정한 분야나 범위 안에서 으뜸이 되는 사람이나 동물	發明王, 貯蓄王
통(通)	통하다	通話, 流通	정통한 사람	外交通, 消息通
파(派)	물가래, 분배하다	學派, 派遣	어떤 생각이나 행동의 특성을 가진 사람	所信派, 學究派
책(責)	책임, 요구하다	責任, 問責	책임을 맡은 사람	募集責, 組織責

<표-2>에서 보듯이 마찬가지로 ‘가(家), 왕(王), 통(通), 파(派), 책(責)’이 기본적 의미와 연관성이 없는 의미로 쓰일 때, 즉 ‘사람’의 뜻이 나타날 때 접미 위치에 고정하여 접미사의 용법을 얻게 되었음 볼 수 있다.

## 2.2. ‘상(上)’ 류

‘S<sub>0</sub> → S<sub>1</sub>’의 경우와 달리 ‘S<sub>0</sub> → S<sub>0</sub>’의 1음절 한자어는 원래 의미를 바탕으로 확장되기 때문에 어휘에 있는 위치가 고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문법화의 양상이 다른 접미 다음의 예를 통해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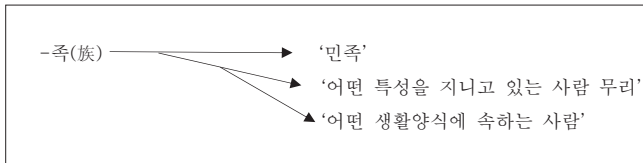
5) 김양진(2005)에서는 이러한 기본적 의미와 구별된 의미를 ‘변별적 어휘의미’로 보았다. 이 논의에서는 “단독형만으로는 자신의 의미를 나타내 주지 못하고 그 자체로 의미를 드러낸다기보다는 어기와 관계 혹은 유관한 단어방에서의 의미 변별력에 따라 드러난다는 점에서 이러한 종류의 형태소가 지니는 의미를 단순한 ‘고정적 어휘의미’와 구별하여 ‘변별적 어휘의미’로 구별해 볼 수 있다.”라고 보았다.

- (5) ㄱ. 상(上): 관계상, 미관상, 통신상  
       ㄴ. 구(口): 통풍구, 비상구, 매표구  
       ㄷ. 족(族): 만주족, 제비족, 주말족

(5)의 예들은 의미 변화에서 큰 정도성 차이가 없지만 점차 유사한 인접범주의 의미로 확산하고 있는 추이를 보여준다. 즉, (5ㄱ)는 ‘물리적 공간’에서 ‘심리적 공간’으로<sup>6)</sup>, (5ㄴ) ‘구체적인 실체’에서 점차 ‘추상화된 것’으로, (5ㄷ)는 ‘객관적인 것’에서 ‘주관적인 것’으로 은유적으로 확장되어 간다. 그 중에서 특히 ‘족(族)’의 의미 변화는 단계적으로 문법적 의미로 움직이는 양상을 보인다.

- (6) ㄱ. 여진족(女眞族), 만주족(滿洲族), 흉노족(匈奴族)  
       ㄴ. 양채족(羊柴族), 장발족(長髮族), 제비족(제비族)  
       ㄷ. 개미족(개미族), 엄지족(엄지族), 주말족(週末族)

(6ㄱ)은 ‘족(族)’에 대한 최초의 의미인 ‘민족’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엄밀히 말하자면 아직 어휘의미 단계에 있다. (6ㄴ)과 (6ㄷ)은 이런 ‘같은 혈통 혹은 거래’의 한정적 의미에서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는 사람 무리’의 의미로 확장되었다. 즉 선행어기가 ‘민족’의 특성에서 벗어나 다른 사회적인 특성을 가지게 되었다. 더 깊이 분석해 보면 모두 신어인 (6ㄴ)과 (6ㄷ)의 차이도 보인다. (6ㄷ)은 (6ㄴ)의 의미가 확장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변화를 겪게 된 것으로 나타난다. (6ㄷ)의 단어들은 (6ㄴ)보다 ‘그런 행위 특성으로 어떤 생활양식에 속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사회의 어떤 변화도 반영하고 있다. 이 단계에서 ‘족(族)’의 의미 변화와 문법적 기능이 현저히 드러나게 되었으며 접미사로서의 지위도 굳어지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 ‘족(族)’은 자체로는 이런 의미를 지니지 못하나 특정 부류의 어기에 의하여 획득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족(族)’의 의미 범주 변화는 다음과 같이 도식화해 볼 수 있다.



<그림-1> ‘족(族)’의 의미 범주 변화

### 2.3. ‘가(價)’ 류

위에서 살펴보았던 ‘상(上), 구(口), 족(族)’과 달리 ‘가(價)’와 ‘증(症)’의 경우에는 어휘적 의미와 문법적 의미가 같은 것으로 보인다. 즉, ‘가(價)’와 ‘증(症)’이 명사 용법과 접미사 용법으로 쓰일 때 나타나는 의미가 동일하다. 그러나 앞에 언급한 Croft(1990)에서처럼 문법화 과정 중에서 한 어휘항목이 형태·통사적 변화를 겪으면 음운적 변화도 함께 일어난다는

6) 안주호(1997:72)에서 논의한 ‘의미의 확장의 한 방향’에 따라 ‘상(上)’은 ‘물리적 공간’과 ‘심리적 공간’의 중간단계에 ‘시간적 공간’도 있다. 하(下)도 ‘상(上)’과 같은 은유적 과정을 겪었다.



논의도 있다. 다음과 같이 ‘가(價)’와 ‘증(症)’이 접미사 용법으로 쓰일 때 항상 경음화되는 것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 (7) ㄱ. 가(價) [까]: 수매가(收買價), 균일가(均一價), 상한가(上限價)
- ㄴ. 권(圈) [뀐]: 대기권(大氣圈), 문화권(文化圈), 통근권(通勤圈)
- ㄷ. 권(券) [뀐]: 우대권(優待券), 할인권(割引券), 입장권(入場券)
- ㄹ. 권(權) [뀐]: 소유권(所有權), 투표권(投票權), 평등권(平等權)
- ㅁ. 증(症) [쥔]: 건조증(乾燥症), 궁금증(宮金症), 담담증(담담症)

접미 위치에 나타난 고정화된 문법적 의미로 문법화된의 ‘수(手)’류 한자어와 은유적 의미 확장으로 문법화된 ‘족(族)’류 한자어와 달리 (7)의 1음절 한자어의 경우에 어휘적 의미와 문법적 의미의 정도성 차이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있으며 원래 뜻을 가지고 접미사 용법으로 쓸 때 경음화가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다. 이 경음화가 일어난 환경은 폐쇄음 뒤나 ‘ㄹ’뒤 등 규칙적인 경음화 조건 혹은 ‘ㅅ’의 개입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경음화의 실현 원인을 무엇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가능하나 적어도 일반적인 접사의 결합과는 다른 언어 현상이 게재해 있음을 가정할 수 있다. 경음화를 통해 명사적 어근의 기능과 접미사의 기능을 구별하게 된 것으로 이해된다. 이런 점에서 경음화가 문법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sup>7)</sup>

## 2.4. ‘왕(王)’ 류

‘금(金)’과 ‘왕(王)’의 경우에 의미 변화에 있어 전자는 ‘S<sub>0</sub> → S<sub>0</sub>’로, 후자는 ‘S<sub>0</sub> → S<sub>1</sub>’로 분류되어 있지만 서론에서 언급하였던 ‘택(宅)’처럼 원래 명사로 쓰일 수 있는 의미에 하나 이상이 있는데, 접미사로 쓰이는 문법적 의미는 그 기본적 의미 S<sub>0</sub>에서 온 것이 아니라 그 기본적 의미와 연관성이 있는 파생 의미 S<sub>0</sub>’ 혹은 S<sub>1</sub>에서 온 것이다. 이에 의해 그 문법화 순서를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다고 본다.

- (8) ㄱ. (명사) S<sub>0</sub> →→→→→ (명사) S<sub>0</sub>’ →→→→→ (접미사) S<sub>0</sub>’
- ㄴ. (명사) S<sub>0</sub> →→→→→ (명사) S<sub>1</sub> →→→→→ (접미사) S<sub>1</sub>

- (8)’ ㄱ. (명사) S<sub>0</sub> →→→→→ (접미사) S<sub>0</sub>’ →→→→→ (명사) S<sub>0</sub>’
- ㄴ. (명사) S<sub>0</sub> →→→→→ (접미사) S<sub>1</sub> →→→→→ (명사) S<sub>1</sub>

(8)은 어떤 1음절 한자어가 명사의 용법으로 쓰일 때 기본적 의미S<sub>0</sub> 뿐만 아닌 다른 관련 된 의미S<sub>0</sub>’혹은 다른 연관성이 없는 의미S<sub>1</sub>가 있는데, 파생적 의미로 문법화되어 접미사의 용법으로 쓰이게 된 예이고 (8)’은 1음절 한자어가 S<sub>0</sub>단계에서 문법화를 겪으면서 확장된 문법적 의미가 접미사의 용법으로 쓰였다가 다시 명사로 재어휘화된 예이다. 이를 문법화와 반대 방향으로의 변화라는 점에서 반문법화(Antigrammaticalization)라고 하는데 애초의 문법화 출점을 고려하면 ‘L→G→L’의 변화 단계 때문에 이러한 변화 과정은 탈문법화

7) 여재려(2015)에서 ‘특정 한자형태소의 경음화’를 한자어 접미사의 설정기준의 하나로 논의한 바 있다. 자세히 논의는 여재려(2015:34-43) 참조.

(Degrammaticalization)라고도 한다. 예를 들자면 (3) ‘택(宅)’의 경우에 먼저 (3-①ㄱ)에서 의미 변화를 겪어 접미사화가 된다면 그 접미사화의 문법적 의미로 구에서 자립성을 얻어 (3-①ㄴ)의 용법처럼 쓰게 되었으면 이 과정은 탈문법화로 이해된다. 다음 장에서 이러한 개념에 대해서와 ‘왕(王)’의 문법화 양상을 논의할 것이다.

### 3. 반문법화와 탈문법화

‘반문법화’는 말 그대로 문법화와 반대 방향으로 변화하는 현상이다. 즉, 변화 과정은 문법적 요소에서 어휘적 요소로 변화하는 것이다.<sup>8)</sup> 이러한 논의로는 Haspelmath(2004)<sup>9)</sup>, Idiatov(2008), Norde(2009) 등이 있다. 탈문법화와 반문법화의 관계를 ‘[L→[G→L]]’로 표시할 수 있다. ‘{ }’는 탈문법이고 ‘[ ]’반문법화이다. 한자어의 경우에는 원래 자립적으로 쓰일 수 있는 것을 중세국어에서 찾을 수 있으므로 반문법화에 속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탈문법화의 특징은 (8)에서 보았듯이 접미사 용법으로 쓰이는 문법적 의미가 다시 명사화된 단어의 어휘적 의미가 되었다. 이러한 예를 통해 1음절 한자어의 탈문법화 현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문법화 과정의 검증은 ‘금(金)’과 ‘왕(王)’의 문법화 과정을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1음절 한자어 접미사의 탈문법화를 거쳐 다시 자립성이 있는 명사가 되는 조건은 노명희(2013)에서 논의한 “접미사적 성격을 지니던 요소들이 구를 어기로 취하게 되면서 약간의 자립성을 얻게 되는” 통사적 구조와의 결합과 김양진(2005)과 최윤지(2008)에서 논의한 “음운규칙에 의해 경음화되었다가 일정한 의미를 획득하면서 형태가 재구조화되는” 것이다.<sup>10)</sup>

- (9) ㄱ. 어근: 국왕(國王), 왕자(王子), 왕족(王族)
- ㄴ. 접미사: 발명왕(發明王), 저축왕(貯蓄王), 컴퓨터왕(컴퓨터王)
- ㄷ. 명사: ① 먹는 데는 내가 왕이다.
- ② 사자는 동물의 왕이다.

‘임금’으로 쓰이는 ‘왕(王)’은 단어 내부 다양한 위치에서 쓰일 수 있으나 ‘일정한 분야나 범위 안에서 으뜸이 되는 사람이나 동물’라는 뜻으로 쓰이는 ‘왕(王)’은 ‘왕자(王者)’를 제외하면 (9ㄴ)과 같은 단어의 끝음절에서만 쓰인다. 위의 살펴보았듯이 어떤 한자어가 접미 위치 환경에서 의미 확장되었다가 그 확장된 의미로 문법적 기능을 획득하게 된 것으로 이해된다. 점에서, ‘왕(王)’은 ‘S<sub>0</sub> → S<sub>1</sub>’에서 먼저 접사의 용법을 획득한 것으로 봐야 한다. 접미사 ‘왕(王)’은 특정 문맥에서 형태론적으로 어기와 분리되어 어기와의 사이에 다른 요소(예를 들어 속격 ‘의’)의 삽입 혹은 띄어쓰기라는 휴지로 자립성을 얻게 되어 어휘적인 표현

8) 한국국내 학자들이 대체로 ‘Degrammaticalization’을 ‘역문법화’로 대역하였는데, 영어 접두사 ‘de-’의 의미가 라틴어에서 왔으며 ‘away from’라는 뜻을 고려하면 ‘탈문법화’의 대역어로 봐야 하고 ‘Antigrammaticalization’는 ‘반문법화’로 번역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본고는 ‘Antigrammaticalization’의 번역어는 ‘반문법화’로 하기로 했다.

9) Antigrammaticalization is a morphosyntactic change that is the opposite of grammaticalization in that it "leads from the endpoint to the starting point of a potential grammaticalization and also shows the same intermediate stages" (Haspelmath 2004:27-28).

10) ‘씨, 끈, 끼’의 경음화 및 이에 따른 문법화, 탈문법화 양상에 대해서는 김양진(2005), 최윤지(2008) 등의 일련의 논의와 관련된다.

으로 바꾸게 된 것으로 보인다.

- (10) ㄱ. 어근: 금액(金額), 거금(巨金)  
 ㄴ. 접미사: 금(金): 계약금, 장학금, 축하금  
 ㄷ. 명사: 금 백만원, 금이 비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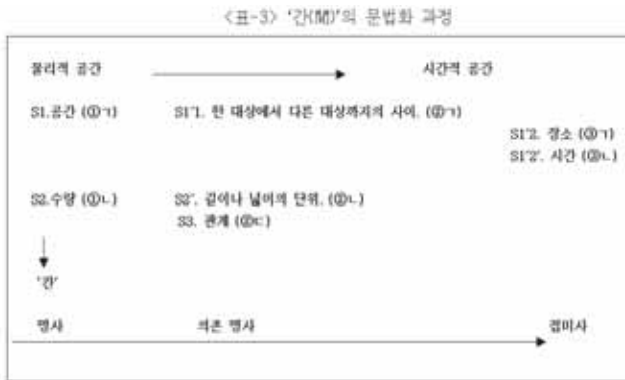
의미 변화에 있어 'S<sub>0</sub> → S<sub>1</sub>'의 '왕(王)'과 달리 '금(金)'은 'S<sub>0</sub> → S<sub>0</sub>'에 속한다. 앞의 살펴보았듯이 기본적 의미에서 유사한 인접법주의 의미로 확산함에 따라 문법적 의미로 움직이는 양상이 있다는 점에서 '금(金)'은 우선 '돈'의 의미로 분화되었다가 접미사의 용법을 쓰게 된 것으로 이해되어야 된다고 본다.

이 밖에 '간(間)'의 역사적 문법화 과정에서도 같은 흐름을 확인해 볼 수 있다.

(11) 간(間)

- ① ㄱ. 안칸 탕죽에 드러가 혼 디위 금고 둘쨏 간의 와 혼숨 자고 쏘 드러가 금고. 《번박 상:52~53》  
 ㄴ. 一間 혼 간 《동해 상:35》  
 ② ㄱ. 서울과 부산 간 야간열차.  
 ㄴ. 한 간은 보통 여섯 자 제곱의 넓이다.  
 ㄷ. 부모와 자식 간에도 예의를 지켜야 한다.  
 ③ ㄱ. 세수간, 정주간, 공양간  
 ㄴ. 이틀간, 한 달간, 10년간

역사적으로 '간(間)'은 (11-①)에서 보았듯이 원래 지니던 '일정한 규칙으로 둘러막아 생긴 공간' (①ㄱ)과 '집의 칸살의 수효를 세는 단위' (①ㄴ)라는 명사의 용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나중에 '간(間)'의 의미가 확장되어 원래 지니던 명사적 용법은 고유어 '칸'에 대체되고 '공간'과 연관성이 있는 확장된 의미는 (11-②)와 같이 의존명사 혹은 (11-③)처럼 접미사로 쓰이게 되었다. '간(間)'의 문법화 과정은 다음 <표-3>과 같이 도식화해 볼 수 있다.



#### 4. 결론

본고는 1음절 한자어 문법화 과정을 거치면서 그 기능과 의미가 어떠한 변화 양상이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다. 문법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의미 변화와 기능의 관계에 있어서 첫째, 의미 변화의 정도성 차이가 크면 문법적 의미의 표현은 고정화된 위치에서 특정 부류의 어기에 대한 의존성이 강해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의미 변화가 은유적 의미 확장이라면 분화된 의미가 점차 문법적 기능에 가까워졌다. 셋째, 의미 변화가 거의 없을 경우에 문법화 과정에서 경음화가 일어나 접미사의 용법으로 쓰이게 되었다.

## ■ 참고문헌

- 유창돈, 「허사와 고구」, 『인문과학』 7, 1962, 1~25.
- 고영진, 『한국어의 문법화 과정』. 서울: 국학자료원. 1997.
- 이성하, 『문법화의 이해』, 서울: 한국문화사, 1998.
- 이태영, 『국어 동사의 문법화 연구』, 서울: 한신문화사, 1988.
- 송기중, 「현대국어 한자어의 구조」, 『한국어문』 1, 199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85.
- 안주호, 『한국어 명사의 문법화 현상 연구』, 서울: 한국문화사, 1997.
- 안주호, 「한국어의 문법화와 역문법화 현상」, 『담화와 인지』 8(2), 담화와 인지학회, 2001, 93~112.
- 안주호, 「한국어에서의 역문법화 현상에 대하여」, 『언어학』 10(4), 대한언어학회, 2002, 23~40.
- 최형용, 「문법화의 한 양상에 대하여」, 『관악어문연구』 22,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1997, 469~489.
- 노명희, 「접미사 부류의 탈문법화 양상」, 『반교어문연구』 35, 2013, 129~164.
- 최윤지, 「자립명사로 발달하는 한자어 파생접미사에 대하여」, 『형태론』 10(2), 박이정, 2008, 319~333.
- 김양진, 「일음절 한자어 어기의 형태론적 재해석」, 『어문논집』 52, 2005, 97~120.
- 서정섭, 「사람 관련 한자어 접미사 연구」, 『국어문학』 46, 2009, 107~130.
- 노명희, 「구에 결합하는 접미한자어의 의미와 기능」, 『한국어 의미학』 13, 한국어의미학회, 2003, 69~95면.
- 여채려, 「한자어 접미사의 설정기준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 Haspelmath, M. On directionality in language change with particular reference to grammaticalization. In Olga Fischer, Muriel Norde, and Harry Perridon (eds.) *Up and Down the Cline: The Nature of Grammaticalization*,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2004. pp. 17-44.
- Idiatov, D. Antigrammaticalization, antimorphologization and the case of Tura. In Elena Seoane, María José López-Couso & (in collaboration with) Teresa Fanego (eds.), *Theoretical and empirical issues in grammaticalization*, Amsterdam: John Benjamins. 2008. pp. 151-169.
- Kurylowicz, Jerzy. The evolution of grammatical categories. *Esquisses linguistiques*. Munich: Wilhelm Fink Verlag, 1975. pp. 38-54.
- Hopper, Paul J. & Elizabeth Closs Traugott. *Grammaticaliz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3.
- Heine B., Claudi U. & Hunnemeyer F. *Grammaticalization: a conceptual framework*.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1.
- Croft, William. *Typology and universals*. Cambridge [England] ;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 □ 토론 □

### “1음절 한자어 문법화 양상에 대하여”에 대한 토론문

최대회(건국대)

이 논문의 목적은 통시적, 공시적 관점에서 1음절 한자어가 문법화 과정을 통해 그 기능과 의미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립어였던 1음절 한자어가 한국어에 유입되면서, 한국어의 문법 체계에 맞춰 어휘적 의미를 가진 자립어가 문법적 의미를 가지는 문법어로 문법화가 진행되었다는 측면에서 연구의 목적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의미 있는 논문을 읽었는데, 선생님의 본질적인 의도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토론자로서 임무를 다하기 위해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1) 한자어의 문법화 유형 중 접사화만을 다루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문법화에 대한 개념 설명을 2장에서 다루고 있고, 일반적인 개념을 제시하면서, 문법화를 결과로 보지 않고, 하나의 과정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논의에서는 의존명사화 과정은 다루지 않고, 접사화 과정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 논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4가지 유형을 다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 접사화의 유형을 ‘수’류, ‘상’류, ‘가’류, ‘왕’류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 이렇게 나누고 있는 기준을 <표1>에서 제시한 의미의 바뀔을 통해 설명하고 있는데, 논의에서 제시하지 않은 한자어(간, 고, 차)도 있습니다. 여기 유형에 포함할 수 없는지, 아니면 포함이 될 수 있는데, 빠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 ‘왕’류는 ‘수’류에서 언급하였는데, 다시 나누고 있습니다. ‘수’류와 차이가 있어 다시 언급하였는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아마 3장의 반문법화를 설명하기 위해 나누어 놓은 것 같은데, 이러한 이유라면, 이 부분은 3장에 포함시켜 설명하는 편이 나을 듯합니다.

- ‘수’류에 설명하고 있는 내용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논문에서 예문 (4)번을 제시하고 다음과 같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 (4) ㄱ. 수기(手技), 수결(手決), 수동(手動)  
      ㄱ'. 실수(失手), 거수(擧手), 상수(上手)  
      ㄱ". 가수(歌手), 선수(選手), 투수(投手)

‘수(手)’의 경우에는 ‘손’의 뜻도 있고 ‘사람’의 뜻도 있는데 ‘손’은 기본적 의미이고 ‘사람’은 파생된 의미로 이해된다. (4ㄱ)에서 보듯이 2음절 단어 경우에는 ‘수(手)’는 단어 끝음절에 위치한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을 의미하기도 하고 ‘손’을 뜻할 때도 있다.

여기에서 (4ㄱ)을 (4로) 수정하는 것이 맞는 듯합니다. 그리고, ‘실수(失手)’는 위의 밑줄 친 설명과 맞지 않은 듯합니다.

- ‘상’류는 의미의 확장(은유)과 관련된 유형입니다. ‘죽’을 대표 유형으로 설정하면 설명이 쉬울 듯한데, ‘상’을 대표 유형으로 설정한 이유가 궁금하고, ‘상’을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의미의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1」보다는 「2」가 더 관련성이 커 보이는데, (5ㄱ)에 관계상, 미관상, 통신상을 예문으로 같이 제시하였는데, 차이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일부 명사 뒤에 붙어))

「1」그것과 관계된 입장' 또는 '그것에 따름'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ㄱ 관계상/미관상/사실상/외관상/절차상.

「2」추상적인 공간에서의 한 위치'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ㄱ 인터넷상/전설상/통신상.

3) 3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반문법화’와 ‘탈문법화’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왕’의 예를 보면, 우리는 이 과정을 흔히 ‘반문법화(역문법화)’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탈문법화’의 개념을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둘의 차이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면 합니다.

4) 논문을 읽으면서, 논 의 전개가 명확하지 않아 이해가 잘 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 첫 페이지에 [한국어의 문법 체계를 맞추어 대부분 원래 지니던 중국어 문법적 특성을 상 실하여 단독으로 자립적인 단어를 이루지 못하고 (1)단어 내적으로 구적 특성을 지닌다. (2)예를 들자면 역사적으로 ‘인금’ 혹은 ‘왕의 종친·외척 및 공신에게 내리던 작위’를 의미하는 ‘군(君)’은 ‘대군(太君), 왕자군(王子君)’처럼 명사의 용법으로 쓰인다.]라고 쓰여 있는데, (1)을 설명하기 위해 (2)의 예를 들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sup>1)</sup>

- 예문(1) 아래 서술된 [그 중에서 (1ㄷ)의 ‘옹(翁)’과 (1ㄹ)의 ‘씨(氏)’는 ‘제3인칭을 높이는 대명사의 용법이 쓰이기도 하고 (1ㄷ)의 씨(氏)는 “같은 성(姓)의 계통을 표시하는 말”이라는 명사의 용법도 유지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옹(翁)’과 ‘씨(氏)’의 의존명사 용법은 문법화를 겪은 것이고 ‘공(公)’과 ‘양(嬢)’은 단지 한국어화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한 부분을 보면, 체언으로 사용된 예가 제시되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제시가 되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며, ‘공(公)’도 대명사로 쓰이고 있는데, ‘옹, 씨’가 ‘공’과 다르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 ‘옹, 씨’와 ‘공’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1) 여기에서 (1)과 (2)는 제가 질문을 위해 임의로 첨가하였습니다.

- 각주2)에 ‘어휘적 요소’를 ‘linguistic element’라고 제시하였는데, ‘lexical element’로 수정하면 좋을 듯합니다.



# 한국어 인간 지칭 명사의 어휘장

김병건(춘천교대)

## 차 례

1. 머리말
  2. 이전 연구 검토
  3. 한국어 인간 지칭 명사 분류 방법
  4. 한국어 인간 지칭 명사 분류 체계
  5. 맺음말
- 참고문헌

## 1. 머리말

한국어의 어휘는 우리가 세상을 인지하는 방식을 보여준다. 이는 개인이 아닌 언어 공동체에 의해 구축되기 때문에 우리의 문화, 즉 우리의 집단적 사고의 일면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열정페이}, {갑질}과 같은 신조어는 우리 사회가 가진 어두운 면과 그것을 극복하려는 문제의식을 보여준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어의 인간 지칭 명사를 의미를 바탕으로 분류해 봄으로써 우리가 인간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소설가}와 같이 [인간]을 그 의미성분으로 가지는 명사를 인간 지칭 명사라고 했다.<sup>1)</sup> 이들은 현실 세계에서 특정한 지시물을 가질 수 있다. [인간]을 의미성분으로 가질 수 있는 어휘는 {소설가}와 같이 개별 인간을 지칭하는 어휘뿐만 아니라 {소설계} 같이 인간이 모인 조직체를 지칭하는 어휘와 {인간}, {사람}, {사회인} 같은 인간 통칭 어휘도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개별 인간을 지칭하는 어휘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연구 대상이 되는 어휘는 우선 김광해(2003)의 1~3등급 어휘 중 [인간]과 관련되는 어휘 790여 개를 뽑았으며, 필요에 따라 몇몇 어휘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확정했다.<sup>2)</sup>

## 2. 이전 연구 검토

그동안 의미를 기준으로 어휘를 분류한 연구들은 적지 않은 편이다. 각 연구들은 나름의

1) { }는 어휘 형태를 표시할 때 사용하며, [ ]는 특정한 의미성분을 나타낼 때 사용하도록 한다.

2) 예를 들어, {추녀}는 김광해(2003)에서 3등급 어휘이지만 관련 어휘인 {추남}, {미남}, {미녀} 등은 4등급 어휘이기 때문에 연구 과정에서 추가되었다. 이렇듯 ‘분포’와 ‘자료의 타당도’를 중심으로 등급 매겨진 이 어휘 목록은 김광해(2003:10~11)에서도 밝혔듯 완벽하지는 않다. 이는 개량적 연구의 한 계이기도 한 듯 보인다. 하지만 빈도수 등으로 평가된 믿을 만한 기초 어휘 목록 관련 연구가 많지 않은 현실에서 이 등급별 어휘 목록은 어휘 연구에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어휘 목록을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연구의 기초 자료로서 손색이 없다.

분류 기준과 방법으로 분류 체계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몇몇은 너무 대별(大別)되어서 각 어휘의 의미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구체성이 부족하거나 분류 체계가 언어 직관과 맞지 않는 문제점 등이 드러나기도 한다.

최경봉(1998, 2001)은 명사의 의미 분류에는 ‘사물의 존재론적 특성’(각 명사가 표현하는 대상이 ‘세계’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뿐만 아니라 ‘분포 제약 관계’와 ‘어휘의 의미구조’도 고려해야 한다고 하며, <그림-1>과 같은 체계를 제시했다.



<그림-1> : 최경봉(1998, 2001)의 분류 체계

최경봉(2001:276-280)은 이러한 명사의 의미 분류체계가 특정한 어휘군이 문맥 내에서 동일한 의미 작용을 한다면 분류 체계의 정보가 언어 현상의 예측과 해석에 이용될 수 있으며, 은유적 의미 확장을 예측하고 이해하는 데에도 활용 가능할 것으로 보았다. 이 생각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그림-1>은 너무 대별된 구체성이 부족한 체계이기 때문에 실제 언어 현상을 예측하는 데 사용하기 어렵다.

- (1) ㄱ. 철수는 매우/아주 부자/천재/미남이다.  
 ㄴ. \*철수는 매우/아주 선생/학생/사람이다.  
 ㄷ. \*철수는 매우/아주 영세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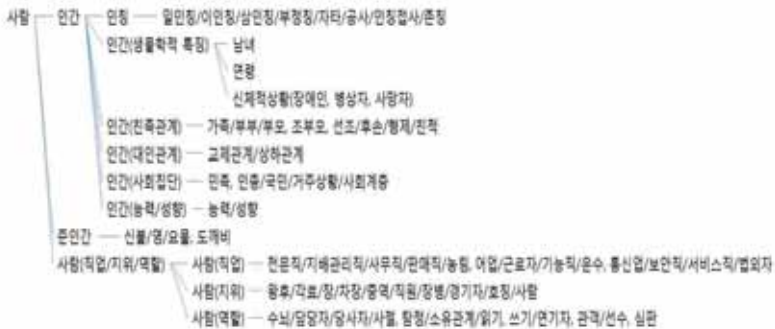
(1ㄱ)의 ‘부자, 천재, 미남’과 (1ㄴ)의 ‘선생, 학생’, ‘사람’은 <그림-1>에서 보면 ‘구성’과 ‘기능’, ‘형상’의 차이를 가진다. (1ㄱ, ㄴ)과 <그림-1>을 바탕으로 한다면 {매우}나 {아주}가 꾸밀 수 있는 명사는 의미 분류체계로는 ‘구성’이어야 한다. 하지만 같은 ‘구성’인 {영세민}은 (1ㄷ)에서 보듯 불가능하다. 이는 분류체계의 구체성 부족에서 오는 문제로, 이로써 보다 상세한 분류 체계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남영신(1994)과 한정환 외(2008)에서 보인 일본어 대계를 한국어에 적용한 의미망 ‘코어넷’

은 보다 상세한 분류체계를 보여준다. 인간에 대한 분류만을 그 예로 보이면 아래와 같다.

- |   |  |
|---|--|
| <p>1. 직업인</p> <p>1-1 전문가, 벼슬아치</p> <p>1-2 단순직업인, 보조자, 관리</p> <p>1-3 연예인, 무당</p> <p>1-4 상인, 경제 주체</p> <p>2. 태도, 능력, 모습별 종류</p> <p>2-1 탐욕과 폭력별 사람 종류</p> <p>2-2 능력별 사람 종류</p> | <p>3. 관계별 시</p> <p>3-1 가족</p> <p>3-2 여지</p> <p>3-3 어른</p> <p>4. 사람 일반</p> <p>5. 대이름씨</p> |
|---|--|

<그림-2> 남영신(1994)의 분류 체계



<그림-3> 한정환 외(2008:17-20)의 분류 체계

이성현(2001)에서는 기존의 의미자질들이 그 수가 적고 표상하는 영역이 넓어 술어의 의미분화에 관계되는 논항 영역을 정확하게 명시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G. Gross의 대상부류 이론을 제안했다. 대상부류 이론은 언어의 전산처리와 자동번역을 위한 언어 기술의 한 방법으로 술어 관점에서 논항으로 무리화할 수 있는 부류를 나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성현(2001:190)에 따르면 대상부류 이론은 '신의미자질'과 '대상부류'라는 두 층위의 의미분석 단위를 기반으로 하는데, '신의미자질'은 기존 의미자질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통사적 기준에 따라 정비, 보완한 결과로서 이때 사용된 통사적 기준이란 각 의미자질의 의미영역을 특징짓는 어휘요소들 간의 결합관계를 말한다. 신의미자질은 논항의미자질과 술어의미자질로 구분된다.

(2) ㄱ. 논항의미자질 : [인물], [동물], [식물], [무생물 구체], [장소], [시간]

ㄴ. 술어의미자질 : [술어인물], [상태], [행위], [사건]

대상부류(object classes)는 신의미자질의 하위부류로서 의미자질로서는 분화와 인식이

불가능했던 세밀한 의미영역을 명시하고, 이 영역을 공유하는 명사들을 포함한다. 이들은 ‘적정술어’(appropriate operators)에 의해 정당화된다. 즉 <음식>은 ‘먹다’, ‘맛있다’, ‘맛없다’ 등과 특징적으로 결합하는 명사들의 집합으로서 이 명사들이 공유하는 의미 영역을 표상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대상부류는 언어내적인 관계(결합관계)를 통해 분류의 기준을 객관화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한국어에서 {국}, {김치}, {밥}과 같은 <음식>의 종류는 각각 ‘끓이다’, ‘담그다’, ‘짓다’와 같은 술어들을 가지게 된다. 그렇다면 {국}, {김치} {밥} 등은 다른 대상부류가 될 것인데 이러한 분류가 우리의 언어적 직관과 맞는지는 좀더 고민해야 할 문제인 듯 보인다.

조평옥 외(1999)에서는 사전 뜻을이를 바탕으로 한국어 명사의 의미계층구조를 설계했다. 뜻풀이의 맨 끝에 있는 핵심어를 표제어의 ‘바로 위 상위어’로 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43트리(tree), 2,443 중간 노드(node), 10,347 단말 노드(terminal node), 깊이(depth) 17의 한국어 명사의 의미계층구조를 설계했다. 예를 들면 {가락국수}의 뜻풀이가 ‘길게 뽑은 국수’라고 한다면 {가락국수}의 상위어는 {국수}가 된다.

이 의미계층구조는 조평옥 외(1999:7-8)에서도 지적되었듯 의미 범주로서 적합하지 않은 것들이 최상위 노드(root node)로 다수 설정되거나(예를 들어 ‘갈음’, ‘어려움’, ‘어울림’ 등), 분류 계층이 달라야 할 ‘가재, 강장동물, 개구리’ 등이 같은 계층에 놓이거나 ‘보, 보자기’처럼 같은 계층으로 분류되어야 할 명사들이 다른 계층으로 분류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견된다. 하지만 이 의미계층구조는 대규모 데이터를 바탕으로 구축된 객관적 형태의 의미계층구조라는 점에서 분명한 의의가 있다.

### 3. 한국어 인간 지칭 명사 분류 방법

본 논문에서는 한국어 인간 지칭 명사의 분류를 위해 『표준국어대사전』의 뜻풀이에서 의미 정보를 추출했다.

사전의 올림말 뜻풀이는 ‘종차+유개념어’로 이루어지는데, 뜻풀이에 이용된 ‘유개념어’는 표제항이 되는 단어의 바로 위 상위개념인 경우가 많다.

(3) ㄱ. {관람객} : 연극, 영화, 운동 경기, 미술품 따위를 구경하는 손님.

ㄴ. {손님} : 손02 [1] 의 높임말.

ㄷ. {손} : 다른 곳에서 찾아온 사람.

본 논문에서는 ‘사람’ 혹은 ‘인간’이라는 유개념어를 가지는 말들을 찾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뜻풀이에서 직접적으로 ‘사람’ 또는 ‘인간’이 드러나지 않아도 상향식으로 탐색해서 연구대상 여부를 판단했다.<sup>3)</sup> 예를 들어, (3ㄱ) ‘관람객’의 유개념어는 ‘손님’이지만, (3ㄴ)에서 보듯 ‘손님’은 ‘손’의 높임말이고, (3ㄷ) ‘손’은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손>손님>관람객’의 위계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관람객}, {손님}, {손}은 모두 인간 지칭 명사로 본 논문의 연구대상이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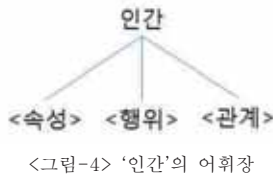
3) 본 논문에서는 상향식(bottom-up)으로 어휘들을 분류했다. 하향식(top-down)은 연구자의 직관의 개입으로 오판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4) ㄱ. {심부름꾼} : 심부름을 하는 사람.

ㄴ. {이야기꾼} : 이야기를 재미있게 잘하는 사람.

ㄷ. {상관} : 직책상 자기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분류를 위해 ‘중차’를 이용했다. (4)의 뜻풀이는 모두 “~하는 사람”의 형식을 가지지만, 그 내용을 보면 조금씩 차이를 알 수 있다. (4ㄱ)의 “심부름을 하다”는 어떤 사람의 <행위>를, (4ㄴ)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잘하다”는 어떤 사람의 특징, 즉 <속성>을, (4ㄷ)의 “직책상 자기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다”는 기준점(‘자기보다’) 없이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 간의 <관계>를 말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간에 대해 인식할 때에는 어떤 행위를 하는, 어떤 특징을 가지는, 어떤 관계 속에 있는 인간으로 대별한다고 할 수 있다. 이 <행위>, <속성>, <관계>는 최상위 노드(root node)인 <인간> 다음의 계층이 된다.



## 4. 한국어 인간 지칭 명사 분류 체계

### 4.1. 인간>속성

‘인간>속성’은 ‘나이, 능력, 외모, 소속, 직업, 직위, 인품, 소유’로 나누어진다.

(5) ㄱ. <나이> {아이} : 나이가 어린 사람.

ㄴ. <능력> {인재} : 재주가 뛰어나게 놀라운 사람.

ㄷ. <외모> {추녀} : 얼굴이 못생긴 여자.

ㄹ. <소속> {단원} : 어떤 단체에 속한 사람.

ㅁ. <직업> {가정부} : 품삯을 받고 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ㅂ. <직위> {교장} : 대학이나 학원을 제외한 각급 학교의 으뜸 직위. 또는 그 직위에 있는 사람.

ㅅ. <인품> {양반} : 젊잖고 예의 바른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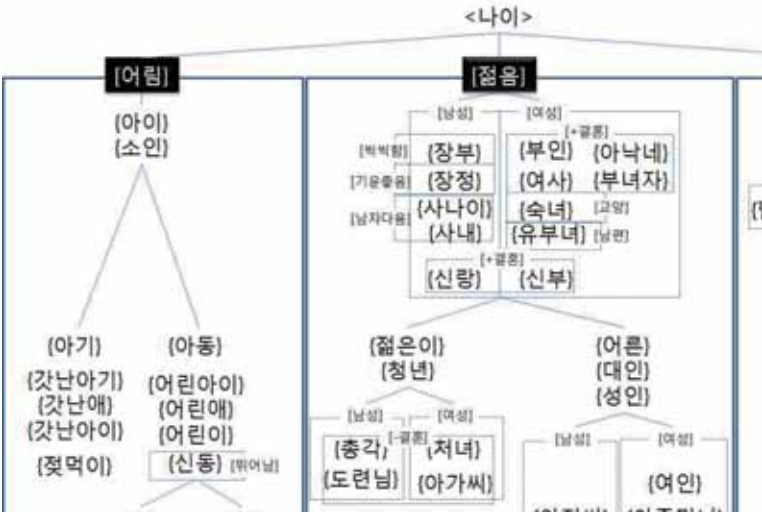
ㅇ. <소유> {실력자} : 실질적인 권력이나 역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

(5ㄱ) <나이>는 노소(老少)에 따른 인간 특징을 말하고, (5ㄴ) <능력>은 어떤 일을 잘하고 못하고에 따른 인간 특징을 말한다. (5ㄷ) <외모>는 사람의 겉모습에 따른 인간 특징을 말하고, (5ㄹ) <소속>은 ‘단원, 당원, 조합원’과 같이 단체 속 소속된 혹은 단체를 구성하는 개인을 일컬을 때 쓰이는 말이다. (5ㅁ) <직업>은 직업명, (5ㅂ) <직위>는 조직 속 위치에 따른 명칭이다. (5ㅅ) <인품>은 사람의 됨됨이를 평가하는 말이며, (5ㅇ) <소유>는 유형의 사물뿐만 아니라 사상·종교·권력 등의 무형의 사물 등을 소유하여 가지게 되는 한 인간

의 특징을 일컬을 때 쓰이는 말이다. 예를 들어 {종교인}은 “종교를 가진 사람.”을 말하며 여기에서의 ‘종교’는 그 사람이 가진 (무형의) 사물이며, 이 사물을 가짐으로써 이 사람은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지속적인 특성을 띠게 된다.

#### 4.1.1. 인간>속성>나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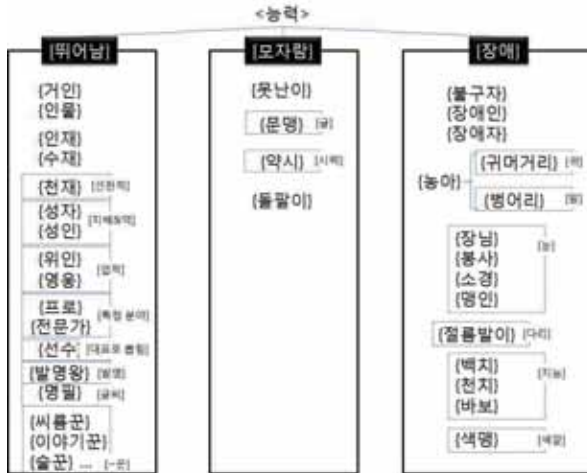
노소(老少)에 따른 어휘들은 다시 [어림], [젊음], [늙음]의 의미성분으로 나누어진다. 이 셋의 의미영역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은 경우도 있다. 때로는 [젊음]이 [어림]을 포함하기도 하고, [젊음]이 [어림]에 대비되어 [늙음]의 의미에 포함되기도 한다. 이는 이들 셋이 서로 상대적인 관점에서 쓰이기도 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어휘의 관점에서는 비교적 명확한데, 이를 보이면 <그림-5>와 같다.



<그림-5> ‘인간>속성>나이’의 어휘장

#### 4.1.2. 인간>속성>능력

‘인간>속성>능력’은 어떤 일에 뛰어나거나, 모자르거나, 특정한 장애를 가진 경우로 다시 나누어진다.



<그림-6> ‘인간>속성>능력’의 어휘장

#### 4.1.3. 인간>속성>외모

‘인간>속성>외모’ 어휘들은 <그림-7>과 같이 부위별로 세분된다.



<그림-7> ‘인간>속성>외모’의 어휘장

#### 4.1.4. 인간>속성>소속·직업·직위

‘인간>속성>직업’은 ‘직책’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분류는 통계청(2007)의 『한국표준직업분류』가 좋은 참고가 된다.<sup>4)</sup>

4) 그 대강을 보이면 아래 표와 같다.



<그림-8> ‘인간>속성>소속·직업·직위’의 어휘장

#### 4.1.5. 인간>속성>인품·소유

‘인간>속성>인품’은 사람의 됨됨이와 관련된 어휘들이며, ‘인간>속성>소유’는 유·무형의 사물 등을 소유하여 가지게 되는 한 인간의 특징을 일컬을 때 쓰이는 어휘들이다.



<그림-9> ‘인간>속성>인품·소유’의 어휘장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1 관리자	5	15	24	77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8	41	153	445
3 사무 종사자	4	9	26	57
4 서비스 종사자	4	10	33	73
5 판매 종사자	3	4	13	38
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3	5	12	29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9	20	73	201
8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9	31	65	235
9 단순노무 종사자	6	12	24	48
A 군인	1	2	3	3
10	52	149	426	1,206



## 4.2. 인간>행위

‘인간>행위’는 ‘지속’되는 행위와 관련된 특성과 ‘단발’로 끝나는 행위와 관련된 특성으로 나눌 수 있다.

### 4.2.1. 인간>행위>지속

인간의 지속되는 행위와 관련된 어휘들은 <행동거지>, <기호>, <거주>, <직무>로 나눌 수 있다. <행동거지>는 {고집쟁이}, {말더듬이}와 같이 특정한 행동을 바탕으로 한 특징적 인간의 지칭으로 긍정적·부정적 행위를 모두 포함하며, <기호>는 특정한 대상을 좋아하는 특징적 인간의 지칭이다. <거주>는 어디에서 살고 있는가에 대한 어휘들로, <나라>, <지역>, <출신>으로 더 나눌 수 있다. <직무>는 말은 일로 주로 직업상 꾸준히 하게 되는 일 모두와 단체에 소속되어 반복적으로 하게 되는 일 모두를 포함한다.



〈그림-10〉 ‘인간>행위>지속’의 어휘장

### 4.2.2. 인간>행위>단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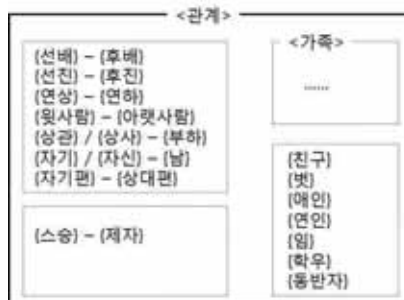
단발성 행위와 관련된 어휘들은 특정 행위를 하는 <행위자>로서의 인간을 지칭하는 어휘와 어떤 행위의 결과로 (일시적으로) 어떤 상태에 놓인 <행위의 결과>로서의 인간을 지칭하는 어휘로 나눌 수 있다. 예를 들어, {관람객}은 “관람하러 찾아온 사람”으로 ‘관람’이라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행위자>로서의 인간을 지칭하지만, {죄인}은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지은 사람”으로 <행위의 결과>로서 얻게 되는 지칭이다.



<그림-11> ‘인간>행위>단발’의 어휘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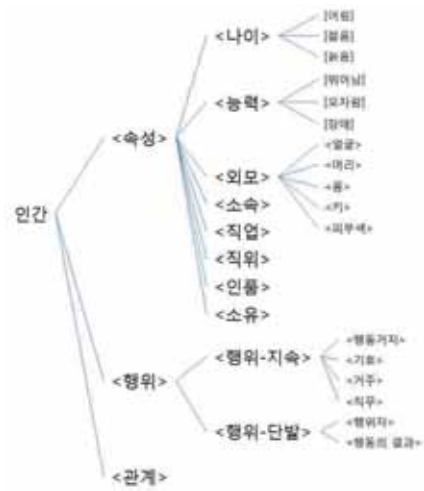
#### 4.3. 인간>관계

‘인간>관계’는 “~보다”, “~의” 등의 기준점 없이 해석할 수 없는 어휘들이다. 대표적으로 <가족>이 있다. {할아버지}, {아버지} 등은 ‘나’라는 기준점 없이 해석될 수 없다. {선배}-{후배}, {선진}-{후진} 등도 선후에 대한 기준이 반드시 필요한 어휘들이며(‘나보다 선배’, ‘그 사람보다 선진’ 등), {친구}, {벗}, {애인}, {연인} 등도 짝이 되는 상대라는 기준점 없이 해석되지 않는다. 즉 이들은 ‘나의 친구’, ‘너의 벗’, ‘친구의 애인’과 같이 해석되기 마련이기 때문에 ‘인간>관계’ 어휘들에 속한다.



<그림-12> ‘인간>관계’의 어휘장

## 5. 맺음말



## ■ 참고문헌

- 김광해(2003), 『등급별 국어교육용 어휘』, 박이정.
- 남영신(1994), 『새로운 우리말 분류 대사전』, 성안당.
- 백용학(1984), 「어휘 의미의 형식화에 관한 의미론적 분석」, 『새한영어영문학』 17, 115-148.
- 유귀열(1986), 「의미의 성분분석에 관한 연구」, 『영미어문학연구』 3, 1-26.
- 윤평현(2008), 『국어의미론』, 역락.
- 이관규(1986), 「어휘 의미의 성분분석 방법-Nida(1975)를 중심으로」, 『한국어문교육』 1, 175-188.
- 이병모(2001), 「명사의 하위 분류에 대하여」, 『한글』 251, 167-201.
- 이성현(2001), 「전자사전 구축을 위한 언어 기술의 한 방법: 대상부류」, 『언어학』 30, 185-206.
- 임지룡(1990), 「의미의 성분분석에 대한 종합적 검토」, 『국어교육연구』 22-1, 101-128.
- 조평옥·안미정·옥철영·이수동(1999), 「사전 뜻풀이말에서 구축한 한국어 명사 의미계층구조」, 『인지과학』 10-4, 1-10.
- 최경봉(1998), 『국어 명사의 의미 연구』, 태학사.
- 최경봉(2001), 「지식기반 구축을 위한 어휘의 의미 분류 -명사의 분류를 중심으로-」, 『담화와 인지』 8-2, 275-303.
- 한정한·고석주·김진혜·이동혁(2008), 『한국어 어휘 의미망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 보고사.
- Nida, E. A. (1975), Componential Analysis of Meaning, The Hague: Mouton. 조항범 역(1990), 『의미분석론』, 탑출판사.

## □ 토론 □

# “한국어 인간 지칭 명사의 어휘장의 흉내말 처리 연구”에 대한 토론문

이민우(경희대)

이 연구는 인간 지칭 명사를 의미를 바탕으로 분류함으로써 인간에 대한 인식 기준과 판단의 일면을 살피고자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연구를 통해 인간의 분류 양상을 정밀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토론자로서의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몇 가지 의문점에 대한 질문으로 토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질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제목과 대상에 대한 질문

이 연구에서 대상으로 삼은 것은 ‘인간 지칭 명사’이며 이는 ‘인간을 의미성분으로 가지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중 개별 인간을 지칭하는 어휘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대상 설정을 꽤 명확하게 한정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인간을 지칭할 수 있는 것과 인간을 의미성분으로 가지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인간을 의미성분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을 지칭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더라도 인간을 지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칭’이라는 기능을 고려한다면 ‘이, 그, 저’와 같이 일반적인 지칭 기능에 이용되는 ‘지칭어’들과 ‘지칭어’로 사용이 가능한 표현들이 포함됩니다. 더 큰 문제는 본질적으로 ‘인간’이라는 자질을 가지고 있는가, 아닌가에 대한 것입니다. 연구자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에 대해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를 ‘돼지’라고 부른다면, 이때 ‘돼지’는 인간 지칭 명사입니까? 그렇다면, 이때 ‘돼지’는 인간을 지칭함으로써 ‘인간’의 의미 자질을 가지게 됩니까? ‘색맹’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색을 구분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이므로 본질적으로 ‘사람’이라는 의미 자질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지만, 그러한 사람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 2. 분류 기준과 방법에 대한 질문

분류 방법을 보면 사전 설명의 종차 기술에 의지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세부 단계의 분류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인간>속성’의 경우 8개로 하위분류하고 있는데, 이들 속성은 어떤 기준에 따른 것입니까? 여기에서 다루지 않은 ‘성별’과 같은 차이는 어떻게 분류될 수 있습니까?

또 분류는 복합적 분류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까? 다의적이지 않은 경우에도 둘 이상의 분류에 속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젓먹이’는 나이와 지속적 행위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

습니다. 중복 분류를 하지 않는다면, 어느 한쪽에 속하도록 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 3. 세부적 분류 내용에 대한 질문

- ‘속성’ 하위 분류의 ‘나이’에 어림과 젊음, 늙음의 3분은 분명히 모호합니다. 특히 젊음은 어림과 늙음을 모두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는 무표적 성분들이 다수 보입니다.
- 능력과 외모에 혼란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볼구나 장애는 외모와 관련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난쟁이, 꼬추, 외다리, 외팔이’ 같은 경우는 외모이면서 장애이기도 합니다.
- 소유와 능력에도 혼란이 생깁니다. 무형의, 추상적 대상을 소유한 것도 소유로 본다면, 능력 또한 소유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또 ‘병자’와 ‘장애자’ 또한 ‘소유’의 관점에서 동일하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 같은 맥락에서 행동과 소유, 능력에도 혼란이 따릅니다. ‘절름발이’는 ‘장애’이지만 또한 ‘행동거지’에 속할 수 있습니다. ‘술꾼, 느림보, 말쑥쟁이’도 마찬가지입니다.
- ‘행위’의 경우 ‘지속’과 ‘단발’의 구분 또한 모호합니다. ‘도둑, 강도’ 등은 행위의 결과로써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지속’과 ‘단발’을 모두 포함합니다. 이처럼 단발성 행위의 결과를 통한 분류는 이해되지만 이들이 지속성 행위와 명확히 구분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거주’나 ‘직무’ 또한 단발성일 수 있습니다. ‘국민, 시민, 빈민, 난민’ 등이 지속적 거주에 따른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또 이들은 ‘소속’이나 ‘직업, 직위’와 구분하기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단골’은 단발성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 ‘관계’는 인간 사이의 관계를 지칭하는 것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관계’의 정의를 짚이 되는 상대나 기준점을 통해 해석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너무 포괄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님 또한 관계어가 되며, 지도자 또한 상대적입니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있어야만 가능하겠죠.

## 【 제 4 분 과 】

# 한·중 의성어의 음성상징 대조

장언청(하북경무대)

## 차 례

1. 서론
  2. 한·중 의성어의 음운 체계 대조
  3. 한·중 의성어의 음성상징 대조
  4. 결론
- 참고문헌

## 1. 서론

중국인들은 한국어의 의성어를 배울 때 중국어와 큰 차이가 없어서 의성어를 쉽게 보는 경향이 강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물론 의성어의 발음이 비슷한 경우도 있다. 두 가지 예를 들어보자. 사람의 웃는 소리를 한국어에서는 ‘하하’로, 중국어에서는 ‘哈哈[haha]’이다. 또 단단한 물체가 바닥에 떨어지거나 다른 물체와 부딪치는 소리를 한국어에는 ‘깡’, 중국어에서는 ‘咣[guāng]’으로 표현한다. 이러한 경우를 제외한 대다수의 의성어는 실제소리를 모방하지만 똑같은 소리를 듣더라도 각 나라의 언어에서는 발음이 다르게 나타난다. 중국 『語言學詞典』에서도 “의성어는 언어에서 자연계 소리를 모방하는 글자이며, 소리를 매우 비슷하게 모방하는 것이 반드시 의성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단지 습관적으로 이렇게 사용하며, 대다수 사람들은 심적으로 비슷하게 느낀다.(象聲詞是指語言中用來摩仿自然界聲音的字,擬聲法不一定把聲音模仿得很像,只是習慣上這樣說,大家心理上也覺得頗像.)”라고 말한다. 예를 들어 언어에 따라 닭 울음소리에 관한 단어는 서로 다르게 인식하고 있으며 단어의 소리도 역시 다르다.

- (1) 한국어: 꼬끼오[kokio],  
중국어: 咯咯[kyky],  
영 어: cock-a-doo-dle-doo[kakəduːldu]

(1)은 닭의 울음소리를 표현하는데 한국어에서는 ‘꼬끼오’로, 중국어에서는 ‘咯咯[kyky]’로 표현한다. 이와 같이 양국의 의성어에서 발음이나 형식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언어의 자의성<sup>1)</sup>이 반영된 것이다. 소쉬르가 말했던 것처럼 언어에서 소리와 의미의 관계는 필연적이지 않다. 그러나 의성어와 일반 어휘는 또 다르다. 의성어는 가능한 한 사물 자체의 소리를 모방에서 만든 단어이기 때문에 의성어의 소리와 의미의 관계는 다른 어휘와 서

1) 소쉬르(1916)는 언어의 특성을 기표(signifiant)와 기의(signifie) 사이에는 아무런 필연적 관계가 없다고 하는 언어의 자의성(arbitrariness)을 설명 바 있었다.



로 비교했을 때 밀접한 관계가 있다. 예(1)를 보면 다른 언어에서 닭 울음소리라는 뜻의 단어는 서로 다르게 인식하고 있으며 단어의 소리도 다르지만 공통된 [k]소리가 있다. 한국어: 꼬꼬오----[kokio], 중국어:咯咯----[kɤkɤ], 영어: cock-a-doo-dle-doo [kakəduːdlu]이다. 따라서 의성어는 언어의 임의성과 유연성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다.

한·중 언어는 계통이 전혀 다르고 음운체계도 달라서<sup>2)</sup> 두 언어의 의성어는 음성상징 측면에서 자기만의 특징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음성상징은 단순히 통계적인 귀납적 결과로 확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소리의 ‘자질’ 대립에 의한 음성상징과 개별 자모가 갖는 절대 음성상징은 서로 다르게 인지되기 때문이다.<sup>3)</sup> 다음은 음성상징의 음운대응 층위와 소리 자체의 성질이 어떻게 실현하는지를 검토하겠다. 또 성조와 형식에 의한 의미 실현까지도 고찰하겠다.

## 2. 한·중 의성어의 음운 체계 대조

### 2.1 한·중 자음 체계 대조

한국어의 자음은 19개가 있고, 중국어의 자음은 22개이다. 22개의 중국어 자음에서 21개만<sup>4)</sup>이 성모(聲母)<sup>5)</sup>역할을 할 수 있다.

<표-1> 한·중 자음의 대비

조음방법	한국어		중국어	
폐쇄음	양순음	ㅂ[p, b], ㅃ[pʰ], ㅍ[pʰ]	양순음	ㅂ[p], ㅍ[pʰ]
	치조음	ㄷ[t, d], ㄸ[tʰ], ㅌ[tʰ]	치조음	ㄷ[t], ㄸ[tʰ]
	연구개음	ㄱ[k, g], ㅋ[kʰ], ㆁ[kʰ]	연구개음	ㄱ[k], ㅋ[kʰ]
파찰음	경구개음	ㅈ[t͡ʃ, d͡ʃ], ㅉ[t͡ʃʰ], ㅊ[t͡ʃʰ]	경구개음	ㄐ[t͡ʃ], ㄑ[t͡ʃʰ]
			권설음	ㄗ[t͡ʃ], ㄘ[t͡ʃʰ]
			치조음	ㄗ[t͡ʃ], ㄘ[t͡ʃʰ]
마찰음	치조음	ㅅ[s], ㅆ[sʰ]	치조음	ㅅ[s]
	성문음	ㅎ[h]	순치음	ㅍ[fʰ]
			경구개음	ㅅ[x]
			권설음	ㅅ[h]
			성문음	ㅎ[x]
유음	치조음	ㄹ[r]	치조설측음	ㄹ[l]
			권설 접근음	ㄹ[z]
비음	양순음	ㅁ[m]	양순음	ㅁ[m]
	치조음	ㄴ[n]	치조음	ㄴ[n]
	연구개음	ㅇ[ŋ]	연구개음	(-ng[ŋ])

2) 뒤에 한·중 자음광 모음의 대비표가 첨부되어 있다.

3) 박동근(2007) 참조.

4) 대부분의 자음 위치는 음절 초에 있어 성모가 되지만 /ng/은 운미(韻尾) 역할만을 하기에 성모로 될 수 없다.

5) 성모란 중국어의 전통적인 음운론에서 한 음절의 시작 음을 성(聲)이라 하고 이 소리를 나타내는 자모를 성모(聲母)라고 한다. 모든 성모는 다 자음이 될 수 있는 반면에 자음이 모두 성모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자음 성모는 21개뿐이다. 어떻게 보면 중국어의 자음은 음소의 특징을 분석하는 데 필요한 용어이고 성모는 음절을 분석하는 데 필요한 용어이다.

음소 하나에 여러 개의 변이음이 있을 수 있다. 이 변이음은 중국어 자음의 기본음과 서로 대응할 수 있다. 예를 들면 /ㄱ/의 경우는 변이음이 [sʰ, c, tʰ, ʃ] 4개이다. 그 중에서 /ㄱ/[c]는 중국어 성모 /x/[ç]와 같은 발음이다. 언어의 음운 체계의 변화에 따라 음소 한 가지의 변이음으로 볼 수도 있고, 하나의 음소로 볼 수도 있는 것이다. 하지만 변이음을 포함해 정리하면 한국어에는 없고 중국어에만 있는 소리가 있다. 한·중 자음 0:1<sup>6)</sup>식 대응으로 대표적인 예로는 권설음zh[tʂ], ch[tʂʰ], sh[ʂ], 순치음/f/ [fʰ]등이 있다. 또 한국어 자음과 중국어 성모를 이런 식으로 계열 대비하면 2:1, 1:1 등의 관계가 더 있다. 두 언어의 자음 체계를 대비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2> 한국어(3계열 가세 대립)와 중국어(2계열 기에 유무 대립)

한국어(3 계열 가세 대립) 예사소리-된소리-거센소리		중국어(2 계열 기에 유무 대립) 불송기(不送氣)음-송기(送氣)음	
양순음	ㅍ [p]	양순음	b[p], [p']
	ㅍㅍ [p']		p[pʰ]
	ㅍㅍ [pʰ]		
치조음	ㄷ [t]	치조음	d[t], [t']
	ㄷㄷ [t']		t[tʰ]
	ㄷㄷ [tʰ]		
연구개음	ㄱ [k]	연구개음	g[k], [k']
	ㄱㅍ [k']		k[kʰ]
	ㄱㅍ [kʰ]		
경구개음	ㅈ [tɕ]	경구개음	j[tɕ]
	ㅈㅈ [tɕ']		q[tɕʰ]
	ㅈㅈ [tɕʰ]		
		권설음	zh[tʂ]
			ch[tʂʰ]
		치조음	z[ts], [tɕ']
			c[tʂʰ]

위 < 표2-2>와 같이 한국어의 폐쇄음과 파찰음은 세 단계로 분류하지만 중국어의 파열음과 파찰음은 두 단계로 분류한다. 중국어 의성어는 ‘예사소리-된소리-거센소리’ 3계열 대립이 존재하지 않고 기(氣)의 유무에 따라 불송기음과 송기음으로 2계열로 구분된다. 따라서 한국어 자음의 3 계열 가세 대립과 중국어 보음의 2 계열 기의 유무 대립에 의한 어감 차이도 나타날 이다. 이것을 다음 절 “3.2 한·중의성어의 음성상징 대비”에서 더 자세히 설명할 것이다.

## 2.2 한·중 모음 체계 대비

한국어 모음을 분류하는 기준은 혀의 높낮이 또는 입의 벌림 정도(개구도)와 혀의 앞뒤 위치, 그리고 입술의 모양이다. 표로 나타내 보면 다음과 같다.<sup>7)</sup>

6) 한국어 자음 대 중국어 보음(輔音)을 말한다.

7) 김홍범(1995)에서도 홀소리의 상대대립을 앞·뒤, 높·낮, 높·낮이+앞·뒤 같은 서열안의 상대적 대립

〈표-3〉 한국어와 중국어 모음 대조표<sup>8)</sup>

	전설모음				중설모음				후설모음			
	평순		원순		평순		원순		평순		원순	
	한	중	한	중	한	중	한	중	한	중	한	중
고모음	ㅣ [i]	i[i]		ü [y]	一 [i]						ㄷ [u]	u[u]
중모음	ㅔ [e]				ㅓ [ə]					e[ɣ]	ㅛ [o]	o[o]
저모음	ㅐ [ɛ]				ㅑ [a]	a[a]						

한국어의 단모음에 대응하는 것이 중국어의 원음(元音)<sup>9)</sup>이다. 중국어 원음은 한국어의 모음과 마찬가지로 혀의 높낮이 또는 입의 벌림 정도(개구도)와 혀의 앞뒤 위치, 그리고 입술의 모양으로 구분할 수 있다. 중국어의 모음은 단모음 6개와 이중모음 9개로 구성되어 있다<sup>10)</sup>. 중국어의 단모음은 ‘i[i], ü[y], u[u], e[ɣ], o[o], a[a]’의 6모음 체계이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4〉 한국어와 중국어 모음 대조표<sup>11)</sup>

구분	한국어		중국어	
고모음	전설모음	ㅣ	전설모음	i,ü
	중설모음	一		
	후설모음	ㄷ	후설모음	u
중모음	전설모음	ㅔ		
	중설모음	ㅓ		
	후설모음	ㅛ	후설모음	o,e
저모음			전설모음	a
	중설모음	ㅑ		

## 2.3 한·중 음절 구성 대비

다음으로 한·중국어의 음절구조를 살펴보겠다. 우선 한국어 음절의 기본적인 구성은 ‘초성+중성+종성’이 된다. 이 기본 음절유형은 세부적인 사정은 배주채(2003:81)에 따르면 다음 〈표-5〉와 같다.

4가지로 유형화 하였다.

8) 김정옥 (2009) 참조

9) 『한어음운학』(漢語音韻學)에서는 원음은 구강의 장애를 받지 않고 나는 탁음이고, 그 외의 것은 모두 보음(輔音)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한국어의 단모음에 대응하는 것을 원음(元音)이라 하고, 자음에 대응하는 것을 보음(輔音)이라고 한다.

10) 중국어의 모음을 분류하는 견해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徐世榮(1993)의 분류에 따라 나누었다.

11) 김정옥 (2009) 참조

<표-5> 한국어 음절구조

음절 유형	예
중성	아, 야, 애, 와, 위, 으
초성+중성	가, 게, 과, 귀, 그
중성+중성	악, 안, 엘, 왕, 윈, 읍
초성+중성+중성	각, 간, 겔, 팡, 켜, 금

<표-5>과 같이 한국어의 자모가 음절을 구성할 때 중성은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초성과 중성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그리고 초성, 중성, 종성은 따로 존재한다.

중국어 한 음절 안의 모음 앞 자음을 **성모(聲母, initial consonant)**라고 말한다. 한자의 음은 **성모(聲母)**, **운모(韻母)**, **성조(聲調)**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자 음절의 시작 부분을 **성모(聲母)**라고 하며 일반적으로 **자음(子音)**으로 통칭된다고 하였다.<sup>12)</sup> 예를 들면, ‘**聲shēng**’의 성모(聲母)는 ‘sh’가 된다.

운모(韻母)는 한자의 음절 중에서 성모(聲母)의 뒷부분을 가리키며, 모음의 개수와 상관없이 모두 **韻母(운모)**라 하고 이를 다시 **韻頭(운두)**, **韻腹(운복)**, **韻尾(운미)**로 나눈다. <sup>13)</sup>운모(韻母) 부분은 최소한 하나 이상의 ‘**元音(모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일부 운모는 자음을 동반하고 있는 것도 있다.

<표-6> 중국어 음절구조

결 합 방 식	예	성모 (聲母)	운모(韻母)				성조 (聲調)
			운두 (韻頭)	운복 (韻腹)	운미 (韻尾)		
		자음	모음	모음	모음이나 자음		성조 종류
영성모	鵝é			e			阳平
	藕ǒ			o	u		上声
	叶yè		i	e			去声
	歪wāi		u	a	i		阴平
	昂áng			a		ng	阳平
	远yuǎn		ü	a		n	上声
자음성 모	笛dí	d		i			阳平
	手shǒu	sh		o	u		上声
	节jié	j	i	e			阳平
	快kuài	k	u	a	i		去声
	钢gāng	g		a		ng	阴平
	宣xuān	x	u	a		n	阴平

12) ‘다음’ (Daum) 중국어사전 참고.

13) ‘다음’ (Daum) 중국어사전 참고.

<표-6>과 같이 중국어 음절에서 ‘성조’와 ‘운복’은 음절을 이루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성모 그리고 운모의 운두와 운미 부분은 상황에 따라 없어도 되는 요소이다. 하나의 운모에는 운복이 반드시 존재하며 운두와 운미는 없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자음은 단독으로 출현할 수 없으며 대부분 음절의 어두에만 나타난다. 음절 운미에 출현할 수 있는 자음은 극히 제한되어 있으며 ‘ng’와 ‘n’ 두 개만 있다. 예를 들면, ‘元yuán’의 성모(聲母)는 ‘y’이고, 운모(韻母)는 ‘uan’인데, ‘uan’은 다시 운두(韻頭)인 ‘u’, 운복(韻腹)인 ‘a’, 운미(韻尾)인 ‘n’으로 나눌 수 있다. 따라서 중국어 음절의 기본적인 모양은 ‘성모+ 운두+ 운복+ 운미’가 된다.

### 3 한·중 의성어의 음성상징 대조

한국어는 음성 상징적 단어가 특히 많은 언어이다. 한국어의 평음은 부드럽고, 따뜻함을 나타내고 경음은 강함을 나타낸다. 격음의 소리는 크고 두꺼운 느낌이다. 정연찬(1999)은 Martin(1962)의 연구에 근거하여 한국어는 자음 [l]은 유연하고, 유동적이고, [k]는 갑작스럽거나 뾰족한 것을 나타내며, [n]은 가벼운 것을 나타낸다고 말했다. 정인승(1938)의 연구에는 한국어는 전설모음은 어감이 작은 느낌이 있으며, 고모음은 어감이 큰 느낌이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金田一春彦의 분석에 근거하여 일본어의 모음 [a]는 크다는 표현과 느린 동작의 표현으로 자주 사용하고, 모음 ‘i’는 정반대의 경향으로 사용한다. 자음 ‘s’는 마찰의 표현으로 사용하고, ‘m’은 유연한 표현으로 사용한다. ‘r’은 미끄러운 표현으로 사용하고, ‘h’, ‘p’는 유창하고 순조롭다는 표현으로 사용한다. ‘k’, ‘t’는 강건한 표현으로 사용되고, 탁음은 둔하고 무겁고 크고 두꺼운 소리를 낸다. 청음은 가볍고 작고 뾰족하고 귀여운 소리를 낸다.

청나라의 陳澧 《東塾讀書記》에서 “聲象乎意”설을 처음으로 만들었다. 그는 “天下事物之象,人目見之,則心有意,意欲達之,則口有声。意者,象乎事物而拘之者也。聲者,象乎意而宣之者也。聲象乎意者,以唇舌口氣象之也。”라고 기재했다. 劉師陪 《原字音篇》에도 이런 종류의 이론이 있다.

비록 일부 언어학자들이 여전히 음성 상징적 이론현상에 대해 의심을 품지만 그러나 우리는 많은 언어에서 음성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어휘가 있다는 것을 찾아냈다. 특히 의성어는 상징의미가 있는 중요 언어 자료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보아하니 의성어를 연구하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다.

#### 3.1 초성에 의한 음성상징 대조

##### 3.1.1 자음 대립에 의한 어감 차이

###### 3.1.1.1 한국어 자음 대립에 의한 어감 차이

정인승(1938)은 최초로 母音相對法則과 子音加勢法則 체계적으로 설명하였다.

<표-7> 자음 가세표(정인승, 1938)

예사어감	ㄱ ㄷ ㄴ ㅅ ㅈ ㄹ ㅇ
센 어감	ㄱ ㄷ ㅈ ㅅ ㅈ
거센 어감	ㄱ ㅌ ㅍ ㅊ ㅎ

다음에는 ‘예사소리-된소리-거센소리’ 즉 자음 가세대립을 세분화하여 ‘예사소리-된소리, 된소리-거센소리, 예사소리-거센소리’ 나눠서 그들에 의한 어감 차이를 살펴보겠다.

[1] ‘예사소리-된소리’에 의한 어감 차이 대비.

(2) ‘구구’, ‘꾸꾸’, ‘咕咕’의 사전적 의미

가. 구구: 닭이나 비둘기 따위가 우는 소리.

나. 꾸꾸: 닭이나 비둘기 따위가 우는 소리. ‘구구’보다 센 느낌을 준다.

다.咕咕[gūgū]: [의성어의태어] 구구, 꾸르륵, 꼬르륵꼬르륵, 쪼록쪼록. [새가 우는 소리 또는 배고플 때 창자에서 나는 소리]<sup>14)</sup>

(3) 가. 닭을 구구하며 불렀다.<sup>15)</sup>

나. 咕咕叫着鸡

(4) 가. 암탉이 계속 꼬꼬 하고 울어 댕다.

나. 老母鸡咕咕地叫个不停.

(3)에서 ‘꾸꾸’는 닭이나 비둘기 따위가 우는 소리이고 ‘구구’보다 더 세게 우는 느낌을 준다. ‘咕’는 ‘구구, 꾸꾸, 꼬꼬’ 등과 대응하는데 ‘구구’보다 강한 느낌인 ‘꾸꾸, 꼬꼬’와 상관없이 다 ‘咕咕’로 표현한다. 위와 같이 한국어 ‘예사소리-된소리’ 대립에 대해 어감차이의 예문과 대응하는 중국어 하나의 의성어의 예문을 제시했다. 한국어에 ‘예사소리-된소리’를 통해 어감차이를 실현할 수 있는 반면에 중국어에는 음운체계 자체가 된소리가 없기 때문에 어감차이가 나타나지 않다.

[2] ‘예사소리- 거센소리’에 의한 어감 차이 대비.

의성어의 경우 ‘예사소리-된소리-거센소리’와 같은 삼원 대립이 그다지 많지 않다. 의성어의 첫소리는 주로 ‘예사소리-된소리’의 대립과 ‘된소리-거센소리’의 대립이다. 한 음절의 초성의 자리에서 나타난 자음이 대개 된소리나 거센소리가 되기 때문이다. 또 자음 대응 규칙에서 나타나는 빈칸 때문에 예사소리- 거센소리 대립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면 거센소리의 자리가 빈칸인 경우는 다음과 같다.

14) 한국 『진명중한사전』(1997)을 참고.

15) 본문의 예문 형식은 항상 ‘가’는 한국어 예문이고 ‘나’는 ‘가’와 대응하는 중국어 번역 예문이다.

<표-8> 거센소리 자리가 빈칸인 경우

예사소리(O)	된소리(O)	거센소리(X)
도글	또글	*토글
바각	빠각	*파각
보글	뽀글	*포글
자글	짜글	*차글
줄줄	쭈쭈	*출출
주룩	쭈룩	*추룩
자글	짜글	*차글

또 예사소리 자리가 빈칸인 경우는 다음과 같다.

<표-9> 예사소리 자리가 빈칸인 경우

예사소리(X)	된소리(O)	거센소리(O)
*꿀꿀	꿀꿀	꿀꿀
*굴굴	꿀꿀	쿨쿨
*꿀랑	꿀랑	꿀랑
*굴렁	꿀렁	쿨렁
*팔팔	팔팔	팔팔
*작작	작작	작작

예사소리 자리와 거센소리가 다 빈칸인 경우는 다음과 같다.

<표-10> 예사소리 자리와 거센소리가 다 빈칸인 경우

예사소리(X)	된소리(O)	거센소리(X)
*가르르	까르르	*카르르
*가옥	까옥	*카옥
*각	깍	*카
*갈갈	깁갈	*갈갈
*걸걸	깎걸	*걸걸
*고고	꼬꼬	*코코
*공공	콩콩	*콩콩
*궁궁	궁궁	*궁궁
*독	독	*툭
*작작	작작	*작작
*죽	죽	*촉
*고르르	꼬르르	*코르르
*구르르	꾸르르	*쿠르르

이 외에도 예사소리 자리와 된소리 자리가 빈칸인 경우, 그리고 예사소리 자리와 거센소리 자리가 빈칸인 경우 등이 있다. 그래서 예사소리와 거센소리 자리의 빈칸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예사소리- 거센소리 대립에 의한 어감차이도 당연히 비교하기 힘들 것이다. 그러나 이 빈칸이 왜 생길까? 박동근(2008)<sup>16)</sup>에서 빈칸이 나타나는 이유를 설명하였다. 첫째는 역사적인 음운체계의 변천과 관련되는 것이며, 둘째는 홀·닿소리가 대응할 때 갖는 의미(말맛) 특성 때문이다.

[3] ‘된소리-거센소리’에 의한 어감 차이 대비.

사건에서는 거센소리 형식인 상징어의 뜻풀이는 항상 “--”<sup>17)</sup>보다 거센 느낌을 준다.”라고 나온다. 정인승(1938)에서는 ‘거센소리’의 의미를 ‘거센 어감’이라 하였는데 이러한 자질이 상징어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5) 가. 병에서 물이 팔팔 쏟아져 나왔다.

나. 从瓶子里哗哗地流出水来。

(6) 가. 팔팔 샘나다.

나. 哗哗像泉水一样涌了出来。

‘팔팔’은 사건에서 “많은 양의 액체가 급히 쏟아져 흐르는 소리.”라고 나온다. ‘팔팔’은 “많은 양의 액체가 급히 쏟아져 흐르는 소리, ‘팔팔’보다 거센 느낌을 준다.”라고 나온다. 하지만 (5), (6)를 보면 예문 상으로 별 차이가 드러나지 않는다.

(7) 가. 옆구리를 꺽 찌르다.

나. 使劲捅了一下腰。

(8) 가. 허리를 손가락으로 쿡 찌르다.

나. 用手指捅了一下腰。

‘꺽’은 가지런하게 힘을 주어 찌르는 모습을 나타내는데, ‘쿡’은 정성 없이 마구 함부로 혹은 장난으로 찌르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쿡’이 ‘꺽’보다 거센 느낌이라 보기는 힘들다.

(9) 가. 따르르릉 따르르릉 딸카닥 여보세요?

나. 丁零零, 丁零零, 咻哒, 喂。

(10) 가. ‘딸카닥 딸카닥’ 맥주 캔 따는 소리가 연달아 들리고 그 중 하나가 눈앞에 척 내밀어진다.

나. 咻哒, 咻哒, 开啤酒罐的声音听到了。

16) 박동근 (2008), P270 참고.

17) ‘--’는 상징어의 바탕 의미를 지시한다.



위의 예문을 비교하면 거센소리를 가진 의성어는 된소리를 가진 의성어대해서는 더 센 어감이 나타나지 않는다. 박동근(2008)은 “‘거센 소리’의 말맛은 ‘거침, 거센, 가지런하지 않음, 성김’ 등을 갖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이 가운데 이들을 포괄 할 수 있는 대표 의미를 잡는다면 ‘거침’을 들 수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하였다.

3.1.1.2 중국어 자음 체계 대립에 의한 어감 차이

한국어 의성어는 ‘자음 가세 법칙’에 의해 예사 어감(예: 감감), 센 어감(예: 째째), 거센 어감(예: 캉캉),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중국어 의성어의 초성은 기(气)에 유무에 따라 불송기음과 송기음의 대립에 의해 어감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표-11> 중국어 불송기(不送氣)음과 송기(送氣)음

<b>불송기음</b>	b[p]	d[t]	g[k]	z[ʈ]	zh[tʂ]	j[ʈʂ]
<b>송기음</b>	p[pʰ]	t[tʰ]	k[kʰ]	c[tʂʰ]	ch[tʂʰ]	q[ʈʂʰ]

위와 같이 중국어 성모체계는 조음방식에 변화에 따라서 b[p] -p[pʰ], d[t] -t[tʰ], g[k] -k[kʰ], z[ʈ] -c[tʂʰ], zh[tʂ] -ch[tʂʰ], j[ʈ] -q[ʈʂʰ]와 같은 불송기음과 송기음의 대립이 이루어진다. 이 ‘불송기음- 송기음’의 2체계 대립은 한국어 자음 3체계대립 ‘(예사소리 + 된소리)-거센소리’와 대응할 수 있다.

<표-12> 한·중 자음의 2:1, 1:1, 0:1 대응

한국어 예사소리-된소리-거센소리	중국어 불송기음-송기음
ㅂ [p]	b[p]
ㅃ [pʰ]	
ㅍ [pʰ]	
ㄷ [t]	d[t]
ㄸ [tʰ]	
ㅌ [tʰ]	
ㄱ [k]	g[k]
ㄲ [kʰ]	
ㅋ [kʰ]	
ㅈ [ʈ]	z[ʈ]
ㅉ [ʈʰ]	
ㅊ [ʈʂ]	
	ch[tʂʰ]
	zh[tʂ]
	j[ʈʂ]
	q[ʈʂʰ]

앞에 말했듯이 중국어 성모체계는 조음방식에 따라 불송기음과 송기음의 대립이 이루어

진다. 따라서 이런 불송기음과 송기음의 대립에 의해 어감을 다르게 표현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중국어 k[kʰ]음은 비교적 딱딱하고, 밝고, 날카로운 소리를 나타낸다. 예를 들면 ‘咔[kʰa]-嘎[ka]’이다.

(11) 가. 나뭇가지를 딱 부러뜨리다.

나. 把树枝嘎[ka]巴折断。

(12) 가. 딱 하는 소리가 나면서 삽자루가 두 동강이 났다

나. 咔[kʰa]吧一声,锹把嘎成了两截。

여기서 “咔 [kʰa]- 嘎[ka]” 무기음과 유기음 대립에 의해 어감 차이가 나는데 咔 [kʰa]는 맑고 嘎[ka]는 좀 무거운 어감이 난 것이다.

(13) 가. 그는 갓 볶아낸 콩을 아작아작 씹어댔다

나. 他吃著剛炒出來的豆子,發出嘎嘣嘎嘣的聲音。

(14) 가. 엄마가 다시 집안에 들어가 콩 두 줌을 꺼내오자 月兒는 아작아작 소리 내며 맛있게 먹었다.

나. 媽媽又進屋抓了兩把豆子,月兒啃得咔嘣咔嘣直響。

(13), (14)의 ‘嘎嘣’과 ‘咔嘣’은 모두 콩과 같은 단단한 음식을 씹을 때 내는 소리로 여기서 반복형으로 쓰여 연속되는 소리를 표현한다. ‘嘎嘣’과 ‘咔嘣’의 뜻이 거의 똑같지만 불송기음 g[k]와 송기음 k[kʰ]의 교체에 의해 어감이 달라진다. 즉 ‘咔嘣’은 ‘嘎嘣’보다 소리가 더 맑고 시원스러운 느낌을 주며 씹은 음식이 더 바삭바삭하고 단단한 인상을 주는 것이다. 다음에 ‘叭[pa]-啪[pʰa]’ 계열 대조이다.

(15) 가. 나뭇가지를 딱 부러뜨리다.

나. 把树枝叭叭折断。

(16) 가. 빵 하는 총소리.

나. 啪的枪声。

(17) 가. 작작 손뼉을 치다.

나. 手掌拍得啪响。

나뭇가지를 부러뜨리는 소리와 총소리는 소리 발생대상이 다르다. 이를 통해 ‘叭[pa]-啪[pʰa]’의 어감 차이를 알 수 있다. ‘叭[pa]’는 작고 맑은 느낌이며 啪[pʰa]는 크고 강한 느낌을 준다. 마찬가지로(18),(19)의 ‘噤/噤/喳喳’와 ‘噤噤/噤噤’는 모두 빠른 목소리로 자꾸 이 야기하는 의성어이고 zh[tʂ]-ch[tʂʰ] 교체에 의해 어감의 차이를 나타낸다. 즉 ‘噤噤/噤噤’보다 말소리가 더 거칠고 어수선한 느낌을 준다고 하겠다.

(18) 가. 선생님의 말씀이 아직 끝나기도 전에 급우들은 벌써 재잘재잘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나. 老师的话还没落音,同学们就叽叽喳喳地说来了。

(19) 가.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수군거리며 엿보고 있었다.

나. 滿院的人立刻跑了出來,一起嘁嘁喳喳地打聽發生了什麼事?

위에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t]은 [d]보다 무겁고, 두꺼운 어감이 있다. 예를 들면 ‘铿’ ‘当’은 모두 금속이 부딪치는 소리이다. 그러나 앞에 것의 소리는 크고, 뒤의 것의 소리는 작다. 즉, 청음은 탁음보다 밝고, 날카롭고, 무디고, 무겁고, 크고, 두꺼운 어감이 있다.

### 3.1.2 의성어 초성의 성질에 의한 어감 차이

발음방법과 소리의 성질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의성어는 약정된 속성이 있다. 단어를 만들 때 의성어의 어음과 모방하는 소리 간에는 일정한 관계가 있다.

<표-13> 초성 성질에 의한 한국어 의성어

갈라짐	박, 벅, 북, 북, 뽅, 뽅, 뽅, 뽅, 바지직, 부지직, 빠지직, 뿌지직, 작, 죽, 죽, 직, 짝, 짝, 쪽, 쪽, 짹, 짹, 켤, 켤, 오지직, 우지직
부서짐	깨드득, 탕강, 탕강, 탕강, 탕강바삭, 바삭, 버석, 버석, 보삭, 보삭, 부서, 부석, 보사삭, 부서석, 뽀사삭, 뽀사삭, 뽀사삭, 뽀사삭, 부서석, 뽀사삭, 뽀사삭, 뽀사삭, 아삭, 아삭, 어석, 어석, 와삭, 와삭, 위석, 위석, 으석, 으석, 아지작, 으지적, 꺾삭, 꺾석, 폭삭, 폭석
끊어짐	딱, 툭, 툭, 탁, 터, 툭, 툭, 아지직, 으지직, 오도둑, 우두둑, 와드득, 오지끈, 우지끈, 와지끈, 쟁강, 쟁강, 쟁강, 쟁강, 자끈, 지끈, 자끈둥, 제각, 제각, 제각, 제각, 꺾, 꺾
무너짐	와르르, 워르르, 오르르, 우르르, 오르를, 와그르르, 워그르르, 오작오작, 우적우적, 오작오작, 우적우적, 와르릉, 우르릉, 오도당오도당, 우두당우두당, 와당당, 우당당
떨어짐	툭, 툭, 쿵, 팡, 쿵, 펑, 잘그렁, 절그렁, 잘그랑, 절그랑, 쟁그랑, 쟁그렁, 쟁그랑, 쟁그렁, 좌르르, 좌르르, 찰그랑, 철그렁, 킁다, 킁다, 쿵, 쿵, 쿵, 쉰, 타드랑, 티드렁, 타랑, 터덜, 탕, 텅, 탁, 터, 툭, 툭, 탈삭, 털썹, 팡, 펑
부딪침	딱, 툭, 툭, 데그럭, 때그라, 때그럭, 대각, 대각, 때각, 때각, 데각, 때각, 또닥또닥, 뚜덕뚜덕, 뚜드럭뚜드럭, 달가닥, 달까닥, 달카닥, 달가닥, 덜거덕, 덜꺼덕, 덜커덕, 덜꺼덕, 덜커덕, 덜거덕, 덜거덕, 덜꺼덕, 달각, 달각, 덜걱, 달그라, 덜그럭, 딸그라, 딸그럭, 왈가당, 월거당, 왈각, 월각, 와각, 위각, 왜각왜각, 왜각왜각, 와드등와드등, 제각, 제각, 제각, 제각, 타달타달, 터덜터덜, 탈탈, 털털, 탕, 텅, 톱, 톱, 타닥타닥, 티덕티덕, 토닥토닥, 투덕투덕, 토드락토드락

<표-13>에서 한국어 의성어의 자음을 정리하면 <표-14>과 같다.

<표-14> 초성 성질에 의한 한국어 의성어의 자음

의미	한국어 초성
부딪치는 소리, 깨지는 소리	ㅂ, ㅃ, ㅍ, ㄷ, ㄸ, ㅌ, ㄱ, ㄲ, ㅋ
마찰, 구름, 둥글게 돌아가는 소리, 가벼운 마찰,	ㅅ, ㅆ, ㅈ ㅊ, ㅍ
동물 소리	ㅁ, ㄴ

### 3.1.2.2 중국어 의성어 초성의 성질에 의한 어감 차이

중국어에도 성모의 성질에 따라 어감 차이가 날 수 있다. 파찰음 [p], [d], [t] 등은 사물이 부딪치는 소리를 모사했다. 예를 들어 ‘咚’, ‘砰’, ‘啪’, ‘搭’, ‘撞’ 등이 있다. 파열음 모두 입김이 새지 않고 강하게 소리를 내는 과정이고, 장점은 뜻을 구별하기 쉽다는 점이다. 그래서 표준어에서 [p], [t], [k], [q], [c], [ch]을 성모로 사용하는 글자는 매우 많으며, 전체 중국어의 단자에서 거의 대다수를 차지한다. 어떤 경우에는 부딪치거나 부딪치고 폭발하는 것이 같다. 이것은 부딪치는 소리의 의성어와 폭발하는 소리의 의성어 간의 경계선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파열음의 소리는 입이 다물어도 바람이 새는 위치를 잘 막지 못해서 기류가 통과할 때 마찰되어 나는 일종의 소리이다. 마찰음[s],[h]을 모사한 마찰 소리, 예를 들어 ‘沙沙’는 바람 불 때의 낙엽 혹은 다른 사물간의 마찰소리를 말한다. 바람 소리 혹은 낙엽이 굴러가는 소리는 모두 [s] 소리가 있다. 예를 들면 ‘瑟瑟’, ‘簌簌’, ‘嘘嘘’ 등이 있다. 그리고 ‘呼’, ‘嗖’, ‘呲’, ‘霍’ 등이 있다. 유음[l]은 사물이 동그랗게 회전하는 소리를 모사했다. 예를 들어 ‘咕噜’, ‘咕噜噜’ 등이 있다. 마청주(马青株,1984)에 의하면, 첫 번째 음절의 자음이 파찰음 ( zh, ch, j, q, z, c )인 쌍음절 단순 의성어에는 두 번째 음절의 자음이 80% 이상이 설측음(边音) ‘ㄹ’이다. 설측음(边音) ‘ㄹ’음절은 대부분의 자음과 대응할 수 있는 만큼 현대 중국어 의성어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최원평, 2004) 위에서 언급한 자연소리는 크게 네 분류로 나눌 수 있다. 아래의 표를 보자.

<표-15>초성 성질에 의한-중국어 의성어 음소와 어소

분류	사용되는 음소	의성 어소
부딪치는 소리	[n],[p],[t], [d]	丁, 当, 咚, 咣, 砰
폭발하는 소리	[p], [d]	叭, 啞, 啪
둥글게 돌아가는 소리	[d], [g], [p]+ [lulu]	骨碌碌, 噜噜, 扑噜噜
마찰 소리	[s], [h], [x]	呲, 沙, 簌, 嘶, 嘘

이 외에 [k]음은 비교적 딱딱하고, 밝고, 날카로운 소리를 나타낸다. 예를 들면 “呲”이다. 청음은 탁음보다 밝고, 날카롭고, 무디고, 무겁고, 크고, 두꺼운 어감이 있다. [t]은 [d]보다

무겁고, 두꺼운 어감이 있다. 예를 들면 ‘铿锵’和 ‘当当’은 모두 금속이 부딪치는 소리이다. 그러나 앞에 것의 소리는 크고, 뒤의 것의 소리는 작다. ‘咚咚’, ‘仓仓’, ‘哐哐’은 악기를 치거나 부딪치는 소리이다. ‘咚咚’은 북을 치는 소리나 문 두드리는 소리로 사용되며, ‘仓仓’은 금속 물체가 부딪치는 소리나 금속 악기를 치는 소리로 사용되며, ‘哐哐’은 물체가 부딪치는 소리로 사용된다. 똑같이 부딪치는 소리도 물체의 재료에 따라 다른 소리를 내며 다른 의성어 소리를 낸다.

위와 같이 한·중 의성어에서 자음의 상징의미는 유사하게 나온다.

<표-16> 초성 성질에 의한 한·중 의성어의 초성 대비

의미	한국어	중국어
부딪치는 소리 깨지는 소리	ㅂ, ㅃ, ㅍ, ㅌ, ㅍ, ㅌ, ㅍ, ㅌ, ㅍ	b, p, d, t, g, k
마찰 소리, 구름, 가벼운 마찰	ㅅ, ㅆ, ㅈ, ㅊ, ㅍ	z, c, zh, ch, j, q f, s, sh, x, h
무너지는 소리	ㅇ, ㄹ	h, l

마찰음을 예를 들면, 자음 ‘s’는 마찰의 표현으로 사용하고, ‘k’, ‘t’는 강건한 표현으로 사용된다. 한·중 의성어의 첫 자음의 상징의미의 유연성을 구체적으로 대응시키면 다음과 같다.

<표-17> 한·중 의성어 자음의 대응

자음 대응	의미
평음↔무기음	작음, 가벼움, 동작이 경쾌함, 불쾌감이 적다.
경음	
격음↔유기음	큼, 무거움, 동작이 둔함, 불쾌감이 많다.

경음의 경우는 언어 환경에 따라 무기음과 대응될 때도 있고, 유기음과 대응될 수도 있다. 그리고 화자의 발화 습관에 따라 자유롭게 대응시킬 때도 있다.

## 3.2 중성에 의한 음성상징 대비

### 3.2.1 한국어 모음 교체에 의한 음성상징

중래의 한국어 의성어 모음에 관한 연구는 양성모음과 음성모음의 대립으로 어감이 다르다는 점에 집중되어 있다. 정인승(1938)에서는 ‘모음상대법칙’으로 불렀는데 넓은 어감과 좁은 어감으로 나눈 2 유형의 모음은 작은 어감과 큰 어감의 대립으로 이루어졌다. 이승녕(1958)에서는 모음의 음상을 모음조화와 일치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누어 파악하는 바, 모음조화가 중요한 대립요인인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어감에서 ‘ㅏ, ㅗ, ㅑ, ㅓ, ㅕ, ㅗ, ㅑ, ㅓ, ㅕ’ 등과 같은 양성모음은 강박계열로, ‘ㅓ, ㅕ, ㅗ, ㅑ, ㅓ, ㅕ, ㅗ, ㅑ, ㅓ, ㅕ’ 등과 같은 음성모음은 관유계열로 보았다. 정인승(1938:10~25)은 ‘모음상대법칙’에 의하여 그 어감

의 차이를 다음의 표와 같이 나타내고 있다.

<표-18> 모음 상대표(정인승:1938)

광협 (廣狹相對)	대소 (大小相對)	작은 어감 (저 모음)	큰 어감 (고 모음)
넓은 어감(전 모음)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ㅓ ㅡ ㅗ ㅕ ㅑ ㅗ ㅕ ㅑ ㅕ ㅕ ㅕ
좁은 어감(후 모음)		ㅓ ㅑ ㅓ	ㅓ ㅕ ㅓ

<표-18>를 보면 모음의 고저 대립으로는 큰 어감과 작은 어감을, 전후 대립으로는 넓은 어감과 좁은 어감을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승녕(1958)에서는 훈민정음 제자해를 원용하였는데, 양성모음은 강박(強迫) 계열로, 음성모음은 관유(寬柔) 계열로 구분하여 모음의 상징의미를 파악하였다.

남풍현(1965)에서는 15세기의 모음에서 음운과 의미의 관계가 규칙적인 대립을 보이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을 직접대립체계와 간접대립체계로 나누어 설명하면서, 양성모음은 경박(輕薄) 계열을, 음성모음은 관유 계열의 어감을 준다고 하였다.

<표-19> 강박계열과 관유계열(남풍현, 1965)

강박계열 :	明, 輕, 小, 銳, 薄, 快, 強, 清
관유계열 :	暗, 重, 大, 鈍, 厚, 慢, 弱, 濁

즉 의성어는 모음의 음양 대립에 의해 미묘하게 어감이 달라진다. 양성모음은 “明, 經, 小, 急, 硬, 密, 整, 速, 銳” 음성모음은 “暗, 重, 大, 緩, 軟, 疏, 散, 迟, 鈍”의 어감을 준다.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20> 한국어 양성모음과 음성모음

양성모음	음성모음	예
ㅏ	ㅓ ㅡ ㅓ ㅕ	달랑: 덜렁, 가득: 그득, 잘잘: 질질
ㅑ	ㅕ ㅓ ㅡ ㅓ	재깍: 제깍, 빼깍: 빼깍
ㅓ	ㅕ	와삭: 위석
ㅕ	ㅕ	꽤: 께
ㅓ	ㅓ, ㅡ	호록: 후록, 호록: 흐록
ㅑ	ㅕ	회회: 휘휘

(20) 가. 아이들은 깔깔 웃었다.

나. 선미가 깔깔 웃었다.

(21) 가. 쓰러진 어머니 옆에서 젖을 먹는 꼬마가 앙앙 울고 있었다.

나. 우리는 서로 부둥켜안고 영영 소리 내어 울었다.

(22) 가. 그들은 머리를 모으고 소곤소곤 상의를 한다.

나. 일각집에서들은 춘광이가 이사를 온 뒤로 수군수군 뒷공론이 많았다.

(23) 가. 무슨 일을 시키면 웅알웅알 불편부터 한다.

나. 덕보는 다리를 절름거리며 웅얼웅얼 지껄었다.

위의 예문들은 사람과 관련된 의성어이다. (20)의 ‘깔깔’과 ‘깔깔’은 양성모음과 음성모음의 교체에 따라 어감이 달라진다. ‘깔깔’은 아이들이 명랑하게 웃는 소리이고 밝고, 가벼운 느낌을 준다. ‘깔깔’은 어른이 시원하게 웃는 소리이다. (21)의 ‘앙앙’과 ‘영영’은 모음교체에 의해 어감의 차이가 나타나고, 둘 다 울음소리이다. (21가)의 ‘앙앙’은 어린아이가 크게 우는 소리를 나타낸다. (21나)의 ‘영영’은 어른이 목 놓아 우는 소리를 나타내고, ‘영영’은 ‘앙앙’보다 소리가 무겁거나, 어둡거나, 더디는 느낌을 준다. (22)의 ‘소곤소곤’과 ‘수군수군’은 모음교체에 의해 어감의 차이가 나타나고, 둘 다 낮은 목소리다. 즉 ‘소곤소곤’은 ‘수군수군’보다 소리가 가볍거나 작은 느낌을 준다. (23)의 ‘웅알웅알’과 ‘웅얼웅얼’은 둘 다 나직한 목소리로 혼자 입속말을 반복적으로 하는 소리로 표현하고 모음 ‘ㅏ-ㅓ’ 교체와 ‘ㅓ-ㅓ’ 교체가 동시에 나타나 어감이 다르다. 즉 ‘웅알웅알’은 입속말을 반복적으로 재깁는 소리로 표현하고, ‘웅얼웅얼’은 입속말을 반복적으로 하는 소리로 표현한다. ‘웅얼웅얼’은 ‘웅알웅알’보다 강하거나 큰 느낌을 준다. 위의 예문들을 보면 사람과 관련된 의성어의 모음상징은 대부분 ‘ㅓ-ㅓ’ 대립과 ‘ㅏ-ㅓ’ 대립에 의해 실현된다.

### 3.2.2 중국어 원음(모음) 개구도에 의한 상징의미

중국어의 운모는 한국어의 모음처럼 정연한 대립체계를 이루지 못하지만 극소수의 의성어는 교체를 통해 어감상의 차이를 표현할 수 있다. 중국어의 운모는 단운모(單韻母), 복운모(複韻母), 비음운모(鼻韻母)로 구성하는데 단운모 중 대표적인 것으로 a[A], o[o], e[ɤ], i[i], u[u], ü[y]가 있다.

<표-21> 중국어 원음(모음)의 고저

	전설모음		중설모음		후설모음	
고모음	평순	원순	평순	원순	평순	원순
고모음	i[i]	[y]				u[u]
중모음					e[ɤ]	o[o]
저모음			a[a]			

의성어의 운모는 큰 특징을 보이지는 않지만 i와 a의 대립으로 상징의미가 달라지는 예들이 있다. 주로 모음 i는 작은 것, 운동이 빠른 것을 나타내고 모음 a, o는 소리가 비교적 큰 것을 나타낸다.<sup>18)</sup>

賈林華(2010)에서 운모는 개구도의 크고 작음에 의해 의미를 다르게 표현할 수 있다고 하였다. 陸慶和(2006)에서는 단운모의 개구도를 ‘a>o>e>i>u>ü’의 순서로 제시하였다. 劉鈞杰(1984)은 운모의 사용은 소리의 대소, 강약을 구별하는 작용을 하는데, 입을 크게 벌리는 운모는 크고 강한 소리를, 입을 작게 벌리는 운모는 작고 약한 소리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즉 단운모 a[A]는 입을 가장 크게 벌리고 보다 크고 강한 소리를 나타내고 어감 상센 느낌을 준다.

(24) 가. 그는 그만 참지 못하고 잔디밭에 앉아 하하 웃기 시작했다.

나. 他忍不住坐在草地上哈哈[haha]地笑起來。

(25) 가. 그의 이야기를 듣고 몇 명의 동료들은 킥킥 웃기 시작했다.

나. 聽了他的故事幾位同事呵呵[həhə]地笑起來。

(26) 가. 하루 종일 굶고 있던 어린아이는 배가 고파 큰 소리로 엉엉 울기 시작한다.

나. 孩子一天沒吃東西,餓得哇哇[wawa]大哭起來。

(27) 가. 秀玉은 엄마의 품에 안겨 엉엉 소리 내어 서럽게 울었다.

나. 秀玉撲在媽媽懷裏嗚嗚[wuwu]地哭了。

(24), (25)의 ‘哈哈’와 ‘呵呵’는 모두 웃는 소리로 단운모 a[A]-e[ə]의 교체에 의해 어감이 달라진다. ‘哈哈’은 입을 크게 벌리고 웃는 소리이고 ‘呵呵’는 입을 작게 오므리고 우는 소리이며 운모 a[A]는 e[ə]에 비해 개구도가 크기 때문에 ‘哈哈’은 ‘呵呵’보다 웃음소리가 더 우렁차고 보다 센 느낌을 준다.

마찬가지로(26),(27)의 ‘哇哇’와 ‘嗚嗚’는 모두 우는 소리로 단운모 a[A]-u[u]의 교체에 의해 어감의 차이가 나타난다. ‘哇哇’는 목을 놓아 크게 우는 소리이고 ‘嗚嗚’는 슬퍼서 우는 소리인데 전자는 후자에 비해 역시 우는 소리가 높고 정도가 강하며 보다 센 느낌을 준다. 이상과 같이 살펴 본 바에 의하여, 우리는 중국어 단운모에서 어감을 분화시키는 자질은 개구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운모에서 나타나는 음성상징은 단운모 외에 같은 수직계열 내에서 위치한 운모도 대립에 의해 어감의 차이를 표현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운모대립 현상은 중국어에서 보편적인 현상이 아니기에 사람과 관련된 의성어에서 한 가지 대립만을 찾을 수 있다.

그런데 다른 언어에서도 개구도에 따라 어감 차이가 나타난 현상이 있다. 金田一春彦의 분석에 근거하여 일본어의 모음 [a]는 크다는 표현과 느린 동작의 표현으로 자주 사용하고, 모음 [i]는 정반대의 경향으로 사용한다.

또는 시피어(1921)의 ‘MAL-MIL’ 테스트는 말소리에 대해 사람들이 느끼는 인상을 실험적으로 조사했다. 예를 들어 한 쌍의 큰 물체와 작은 물체를 상징하고 여기에 임의의 낱말인 MAL과 MIL을 제시하여 피실험자로 하여금 어느 쪽의 물체에 그 이름이 적당한가를 묻

18) 尹智映(2009) 참조



는 것이다. 실험 결과는 응답자의 80%가 [A]를 가진 단어를 큰 물체에 연관시켰다 한다. (채완, 1987). 이는 중국어 화자에게도 대개 일치되는 것으로 보인다.<sup>19)</sup>

### 3.3 종성에 의한 음성상징 대비

#### 3.3.1 한국어 종성에 의한 음성상징

말음에 쓰이는 자음의 역할은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sup>20)</sup>

<표-22> 한국어 발음에 의한 어감 차이

발음	어감	예
ㄱ	짧은 멈춤이 있는 것으로 급한 변화나 딱 끊어지는 어감을 준다.	깍, 짝, 푹, 사각사각, 딱
ㄴ	가벼운 지속과 완만한 멈춤의 어감을 준다	사분사분, 쉼쉼쉼
ㄷ	유동 지속의 어감을 준다	덜덜, 돌돌, 딸딸, 줄줄
ㅁ	완만한 멈춤이 있는 어감을 준다	남남, 삼박삼박
ㅂ	드물게 사용되며 짧게 끊어지는 어감을 준다	쫼쫼, 쫼쫼
ㅅ	끊어지는 느낌이고, “ㄱ”보다는 완만한 느낌을 준다	서붓, 사붓사붓
ㅇ	여운을 남겨서 울리거나 남는 어감을 준다	땡, 꿩꿩, 통탕, 광광

의성어에 쓰이는 말음을 자음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28) /ㄱ/말음

- 가. 그가 손가락으로 딱 소리를 내자 월슨이 종이 한 장을 꺼냈다.  
나. 他打了一个响指,威尔逊便拿出一张纸来.

#### (29) /ㄴ/말음

- 가. 사과를 사각사각 씹어 먹는다.  
나. 可噉可噉地嚼苹果。

#### (30) /ㄷ/말음

- 가. 아기가 쉼쉼 자고 있다  
나. 孩子安静地睡着。

#### (31) /ㄷ/말음

- 가. 콧물이 줄줄 흘러내리다.  
나. 鼻涕直淌

19) 박동근(2008) 참조.

20) 崔元萍(2004) 참고.

(32) /ㄱ/말음

가. 아기가 이유식을 낱냔 먹는다.

나. 孩子叭啦叭啦地吃着断乳食。

(33) /ㄴ/말음

가. 밥 먹을 때 껌껌 소리를 내지 마라.

나. 吃饭的时候不要弄出吧咯声。

(34) /ㅅ/말음

가. 사뭇사뭇 다가오다.

나. 轻手轻脚地走了过来。

(35) /ㅇ/말음

가. 그는 종을 땡 치었다.

나. 他当的敲了钟。

### 3.3.2 중국어 운미에 의한 음성상징

한국어의 받침에 해당하는 운미로 중국어 자음 [n]과 [ŋ]를 동반한 형식을 가지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중국어 외성어는 자음 -ng와 n 자음 운미보다는 모음으로 끝나는 구조가 많다. 중국어 외성어의 자음과 모음은 그가 모방한 소리의 종류와 일정한 대응 관계가 있다. 비음[ŋ]운미는 항상 사물이 부딪치는 소리 혹은 강하게 울리는 소리를 나타낸다. 예를 들면 ‘咚’, ‘叮’, ‘哐’, ‘当’ 등이 있다. 또 [ŋ]음은 연속으로 부딪치는 소리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叮当’, ‘乒乒’, ‘哐当’ 등이 있다.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崔元萍, 2004).

<표-23> 중국어 운미에 의한 어감 차이

자음, 모음	모방의 소리	실제의 예
Ang(비음운미)	금속과 관계가 있는 소리	光当, 梯, 当, diang
Ong(비음운미)	공명이 나는 소리	冬咙, 咕咙, 噗通

(36) 가. 그녀는 찻잔을 들고 차를 꿀꺽꿀꺽 몇 모금 들이마셨다.

나. 她端起一杯茶咕嘟咕嘟地喝了好幾口。

(37) 가. 나는 주전자를 들고 단숨에 벌컥벌컥 그 속에 들어있던 물을 거의 다 마셔버렸다.

나. 我拿起水壺咕咚咕咚一口气喝了大半壺。

(36), (37)의 ‘咕嘟咕嘟’와 ‘咕咚咕咚’은 모두 물 따위를 자꾸 들이켜는 소리로 같은 입 모양 계열에 속하는 단운모 u[u]와 비음운모 ong[un]의 교체에 의해 어감의 차이가 있다. ‘咕咚咕咚’은 ‘咕嘟咕嘟’보다 물을 들이킬 때 속도가 더 빠르고 들이킨 물의 양이 좀 더 많은 느낌을 주고 물 마시는 소리의 여운을 느끼게 한다.

### 3.4 성조에 의한 음성상징 대비

한국어 의성어는 모음이 양성이나 음성이냐에 따라 어감이 다르고, 자음이 평음이냐 경음이냐 격음이냐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정인승(1938)에서 어감 표시에 방식에 대해서 몇 가지를 정리하였다. 어감과 관련된 첫째는 음조(音调)의 차이이다. 같은 말이라도 발음의 고저(高低)를 따라, 장단(长短)을 따라, 강약(强弱)을 따라, 또는 억양(抑揚)의 상이, 음태(音態)의 미추(美丑), 음향의 정탁(淸濁), 등등을 따라 어감(語感)이 달라지는 것이다.

하지만 높낮이가 단어의 뜻을 분화하는 변별적인 기능을 하면 모두 진정한 성조 언어라고 한다. 20세기 기술언어학 시대의 성조론의 대가인 Kenneth L. Pike(1948)에 따라 중세 국어나 현대 국어 성조 방언들을 진정한 성조 언어로 보지 않고, 단어 음조 체계(Word-pitch system)나 구음조 체계(Phrase-pitch system)라고 보거나 일본어처럼 음조 악센트 체계(Phrase accent system)로 보려는 사람들이 있으나, 한국어의 성조 체계를 깊이 있게 연구하면 그러한 유형론적인 분류 속에 한국어를 집어넣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김차균(2004)<sup>21)</sup>에서는 한국어의 성조 방언들도 중국어와 마찬가지로 진정한 성조 언어라고 보았다. 다만 한국어는 성조가 약하든 강하든 모두가 중화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어와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어 성조와 의미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는 매우 드물다. 김차균(1980)에서 성조와 의미, 즉 새로운 정보의 표시 방법과 낱말과 구의 구별에 쓰이는 성조의 기능을 몇 가지 기술했다. 즉 ‘경상도 방언에서 성조는 낱말의 뜻을 구별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전체, 정보 초점, 양화사의 작용 영역, 새로운 정보 등을 표현하기 위하여 이용되기도 하고, 낱말과 구의 구별, 즉 문법적 범주를 표시하는 데도 이용된다.’라고 제시하였다.

중국어 성조는 음절의 고저를 오르내리는 형식이며 단어의 뜻을 분화하는 변별적인 기능도 있다. 중국어 발음의 큰 특징이 바로 성조이다. 중국어 표준말은 네 가지 성조가 있다.<sup>22)</sup> 고대에서 현대까지의 성조 변화의 대응관계에 따라 성조를 阴平, 阳平, 上声, 去声으로 구성된다.<sup>23)</sup> 중국어 의성어는 성조로 소리의 크고 작음, 가볍고 무거움, 많고 적음, 강함과 약함을 나타내기도 한다.

(38) 가. 그의 머리가 팡 벽에 부딪쳤다.

나. 他头部砰(peng)的一声撞到了墙上。

(39) 가. 그는 화가 나서 쿵 주먹으로 책상을 쳤다.

나. 他生气地用拳头砰(peng低平22/ peng降调51)的一声往书桌上一击。

평면 물체에 힘을 가할 때에 나온 소리나 폭발 소리가 일반적으로 자음 ‘p’를 가지는 의성어로 나타낸다. 그래서 머리가 벽에 부딪치는 소리와 주먹으로 책상을 쳐서 나온 소리는 둘 다 ‘peng’로 적는다. 그러나 ‘砰’은 고평조(高平调55)나 저평조(低平调22), 그리고 강조

21) 김차균(2004), p.5-55 참조.

22) 이 밖에도 경성(輕聲)이 있다. 경성은 가볍고 짧게 읽는 성조이고 표시 기호가 없다. 발음을 할 때 경성은 1성과 비슷한데 1성 발음보다 더 짧다.

23) 凡古代是清声母字的, 现代属于阴调; 凡古代浊声母字的, 现代属于阳调。古代平声清声母字, 归入普通话的阴平; 古代平声浊声母字, 归入普通话的阳平; 古代上声和去声字在普通话中大体上也归入上声和去声。

(降調51)로 입을 때 나타나는 소리의 크기가 각각 다르다. 중국어 의성어 중의 A형이나 일부 AB형은 저평조(低平調)나 강조(降調)로 입을 때 큰 소리를 나타낸다. 이에 의해서 우리는 주먹으로 책상을 쳐서 나온 소리는 강하고 크며, 머리가 벽에 부딪치는 소리는 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3.5 兒化(아화)현상에 의한 음성상징 대비

중국어의 兒化(아화)현상은 문자 뒤에 ‘兒’를 붙여 전에 운모를 권설 운모로 변하는 특별한 어음 현상이다.<sup>24)</sup> 兒化(아화)의 방법으로 소리의 작음, 약함 등을 표현하여 어감 차이가 나타난다. 예를 들면 鐘兒[tʰar], 哏兒[pər], 喵兒[miaur], 哏兒[mour] 등이 있다.<sup>25)</sup> 兒化(아화)현상의 작용은 여러 가지 있는데 의성어에 대한 방면에 작음, 적음, 가벼움 등을 표시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서 단어의 어감이 달라질 수도 있다.

(40) 가. 멀리서 비행기 봉봉 소리가 들려왔다.

나. 遠處傳來嗡嗡的飛機聲.

(41) 가. 수풀에 꿀벌 한 마리 웅웅하며 날아온다.

나. 草叢中嗡嗡飛來一只蜜蜂.

중국어에서 비행기와 꿀벌이 날아다니는 소리를 한 단어 ‘嗡嗡’로 표시하지만 두 소리의 크기가 완전히 다르다. 그런데 비행기 소리보다 더 작은 꿀벌의 진동 소리는 ‘嗡嗡’ 뒤에 ‘兒’를 붙여 작은 어감을 표현한다. 이것은 바로 중국어 兒化현상의 작용이다. 그런데 의성어의 ‘兒化현상’은 앞에 설명했던 작용 외에 어음의 편의성을 위해 쓸 때도 있다. 또 다음에 예문을 제시하겠다.

(42) 가. 멀리서 뚝뚝뚝 자동차 경적 소리가 들려왔다.

나. 遠處傳來滴滴嗒嗒兒兒的喇叭聲.

(43) 가. 사탕을 바작바작 씹어 먹는다.

나. 把糖塊咯嘰咯嘰兒兒地嚼著吃.

위의 ‘滴滴嗒嗒兒兒’와 ‘咯嘰咯嘰兒兒’이 ‘兒化現象’이지만 소리의 작음, 약함, 가벼움의 특징은 없고 단지 자동차 경적 소리와 사탕을 씹는 소리를 모방할 때 어음의 편의성을 위해 쓴 것이다(吳秀奇, 2013).

중국어 의성어도 ‘얼화(儿化)’나 성조의 변화나 가볍고 힘 있게 읽기를 통해서 음양 대립과 모음조화를 실현시켜 어감의 차이를 어느 정도로 표현할 수 있다. 다만 이 ‘얼화(儿化)’ 현상은 지역성으로 인하여 대표성이 약하다.

24) 兒化(아화)현상은 중국 방언에서 자주 나온다. 특히 북경말에 있는 단음 의성어가 더 쉽게 兒化(아화)가 된다.

25) 문어체나 정식적인 언어 환경에서 兒化音을 자주 쓰지 않는다.

(44) 가. 胡萬通은 해해 웃었다.

나. 胡萬通嘿嘿兒兒一笑。

(45) 가. 그녀는 멈추지 못하고 깔깔 웃어댔다.

나. 她咯兒咯兒地笑個沒完。

(44), (45)는 웃음소리 ‘嘿嘿’과 ‘咯咯’의 각 글자 뒤에 ‘兒’를 붙여 각각 ‘嘿嘿兒兒’, ‘咯咯兒兒’가 되고 소리의 작음, 가벼움, 약함을 표현한다.

위에 내용과 같이 중국어에서는 단어의 詞性가 혀를 구르는 동작으로 의해 음변 현상을 발생시키는 경우가 많다. 이런 현상이 바로 ‘儿화’ 현상이다. 대표적인 표시는 韵母 뒤에 ‘r’을 붙이는 것이다. ‘r’앞에 음은 역시 한 음절인데 두 글자로 표기한다. 예를 들어, 老-头儿(lao-tour). ‘儿화’음은 어휘의 詞性과 어휘의 의미를 구별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儿화’음은 일반적으로 ‘작고 가벼움’ 등 상태를 표현한다.

한국어는 음절수를 증가하여 단어의 어감이 강하게 혹은 약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 예를 들면 ‘쪽’이 ‘푸욱’으로 변화하거나 ‘쪽’이 ‘꾸욱’으로 변한다. 그러나 중국어는 받침이 없기 때문에 발음을 길게 해서 어감의 강도를 변화시킨다.

그러나 중국어는 받침이 없기 때문에 발음을 길게 해서 어감의 강도를 변화시킨다. 예를 들면 嘯의 발음/ng/을 길게 함으로서 어감을 강하게 할 수 있다.

#### 4. 결론

의성어 음운은 의미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한국어는 소리문자로서 특히 현주하다. 중국어 의성어의 일부에서도 음소의 교체에 따라 음성상징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런데 음운체계가 한국어와 다르기 때문에 음성상징의 표현 방식도 한국어와 다르다.

한국어에는 모음의 대립, 자음의 거세대립 등을 통해 어감의 차이를 구분할 수 하는데, 중국어에서는 성음(聲母)이 불송기음(不送氣音), 송기음(送氣音)에 따라서 어감이 달라진다. 또 한국어에는 모음의 교체 여부에 따라 어감의 차이가 나타난다. 중국어 의성어에는 모음을 발음하는 개구도에 따라 어감 차이가 나타난다. 그리고 한국어 의성어에는 없지만 중국어 의성어는 운모 뒤에 er[a]를 붙여 ‘兒化(얼화)’의 방법으로 작음, 가벼움, 적음, 약함 등의 의미를 표현할 수 있다. 양 언어의 음운적 특징대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상대적 음성상징은 의성어의 음운론적 대응 관계에서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두 언어는 이런 상대적 음성상징을 모두 나타내고 있는데 한국어 의성어가 음운적 현상이 더 많이 나타난다. 예를 들어 모음의 대립, 자음의 거세대립 등이 있다.
- ② 자음 체계의 대립에 의한 어감차이는 한국어 의성어는 ‘예사소리-된소리-거센소리’로 실현되며, 중국어에서는 성음(聲母)의 불송기음(不送氣音)과 송기음(送氣音)의 교체에 의해 어감이 달라진다.
- ③ 한국어에는 모음교체에 의한 어감의 차이가 나타난다. 중국어 의성어에는 원음(모음) 개구도에 따라 어감 차이가 나타난다.
- ④ 절대적 음성상징론, 즉 소리 자체의 성질에 의한 음성상징 측면에서 보면 한-중 의성어

- 는 공통점이 많다. 예를 들면 한·중 의성어에는 자음 ‘s’는 마찰의 표현으로 사용하고, ‘l’은 유동성 있거나 미끄러운 표현으로 사용하고, ‘k’, ‘t’는 강건한 표현으로 사용된다.
- ⑤ 한국어 의성어는 음소의 교체에 따라 어감차이를 나타내는 반면에 중국어 의성어에는 성조와 兒化(아화)현상을 통해서 작음, 가벼움, 적음, 약함 등의 의미를 표현할 수 있다.
- ⑥ 한국어는 음절수를 증가하여 단어의 어감이 강하게 혹은 약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 예를 들면 ‘꼭’이 ‘푸욱’으로 변화하거나 ‘꼭’이 ‘꾸욱’으로 변한다. 그러나 중국어는 발음을 길게 해서 어감의 강도를 변화시킨다.
- ⑦ 한국어 의성어와 중국어 의성어의 음성상징에 있어 ‘반복’은 의미를 실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형태이다.

## ■ 참고 문헌

- 강식진(1995), 『진명한중사전』, 진명출판사.
- 김정옥(2009),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발음 교수 방안 연구 : 한국어와 중국어 모음 체계 대조를 중심으로, 대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 김차균(1980), 성조와 의미『말소리』, 대한음성학회, vol.1.No.-1980, P26-39.
- 김홍범(1995), 한국어의 상징어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남풍현(1965), 15세기 국어의 음성상징 연구, 『국어연구』13, 서울대 국어연구회.
- 디르크 뤼들링그(Dirk Fündling, 1985), 『한국어 의성어의태어 연구』, 탑출판사.
- 박동근(1992), 한국어 상징어의 형태·의미구조연구, 건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동근(1994), ‘-하다, -대다, -거리다, -이다’연구(1)-흥내말과의 형태·통어론적 특성에 따른 결합 규칙, 『대학원 학술논문집』 38, 건국대학교대학원.
- 박동근(1995), 한국어 관용표현의 통사론적 특성 연구, 『建國語文學』[19.20합집(1995), p. 657-682], 건국대학교 국어국문학회
- 박동근(1996), 현대국어 흥내말의 통사의미 특성 연구, 『대학원 학술 논문집』43, 건국대학교 대학원.
- 박동근(1999), 한국어 의성의태어의 의미구조연구, 『건국어문학』 23-24합집, 건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 박동근(2007), 한국어 화자의 음성상징에 대한 인지 실험, 『한말연구』 제21호, 한말 연구학회.
- 박동근(2008), 『한국어 흥내말의 이해』, 역락.
- 변찬수(1994), 한일 양국어의 상징어 의미비교-소리 나지 않는 웃음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尹智映(2009), 현대 중국어 의성어 교육 방안 연구, 韓國外國語大學校 教育大學院 碩士學位請求論文.
- 이문규(1996), 현대국어 상징어의 음운·형태론적 연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승녕(1958), 음성상징 재론, 『서울대 문리대학보』 7-1,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학예부.
- 이영석(1994), 한국어 상징음의 모음조화-비단선적 음운론적 분석, 『언어학』 16, 한국언어학회.
- 임선영(2008), 효과적인 중국어 발음지도법에 관한 연구, 수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정례(2006), 『언어학 특강』, 경진문화사.
- 정인승(1938), 母音相對法則과子音加勢法則,(어감 표현상 조선어의 특징인 모음상대법칙과 자음가세법칙)『한글』 6-9, 한글학회.
- 채완(2003), 『한국어의 의성어와 의태어』, 서울대 출판부.
- 崔元萍(2004), 한-중 의성어 비교연구, 庆尚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贾林华(2010), '从汉英拟声词对比看英语拟声词的名族特点', 华北电力大学学报.
- 刘月华, 潘文娛, 故韓(2006), 『实用现代汉语语法』, 商务印书馆.
- 陸慶和(2006), 『实用对外汉语教学语法』, 北京大学出版社
- 李鏡儿(2007), 『现代汉语拟声词研究』, 学林出版社(『현대 한어 의성사 연구』, 학림출판사)
- Zhang zhen(2009), 한-중 의성어 대조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 토론 □

### “한·중 의성어의 음성상징 대조”에 대한 토론문

최영미(경동대)

이 논문의 목적은 음운의 교체(자음, 모음, 중성, 성조)와 음운현상(얼화 현상)에 따라 한·중 의성어의 의미 실현을 대조하는 것이다. 그 결과로 아래의 사항을 기술하고 있다.

- ① 자음 교체에 따라 한·중 의성어는 말맛이 달라진다는 것은 같지만, 한국어는 평음-격음-된소리의 교체에 따라 의성어의 말맛이 달라지고, 중국어는 불송기음과 송기음의 교체에 따라 의성어의 말맛이 달라진다.
- ② 모음 교체에 따라 한·중 의성어는 말맛이 달라진다는 것은 같지만, 한국어의 의성어는 양성모음과 음성모음에 따라 말맛이 달라지지만, 중국어의 의성어는 개구도에 따라 말맛이 달라진다.
- ③ 중성(어말 자음)에 따라 한·중 의성어는 말맛이 달라진다. 다만, 중국어의 의성어는 운미/n/[n]과 /ng/[ŋ]를 가진 예는 극히 제한적이다.
- ④ 중국어 의성어는 성조에 따라 말맛이 달라진다.
- ⑤ 중국어 의성어는 얼화 현상에 의해서 말맛이 달라진다.

발표자의 논문을 읽으면서 생긴 의문에 대해 질문하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첫째, 초성 성질에 의한 한·중 의성어의 초성 대비를 제시한 <표-15>(최원평 2004)과 <표-16>(필자)을 비교해 보면, 아래 표에서 밑줄을 친 초성을 가진 의성어 자료가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16> 초성 성질에 의한 한·중 의성어의 초성 대비

의미	한국어	중국어
부딪치는 소리 깨지는 소리	ㅂ, ㅃ, ㅍ, ㅌ, ㅍ, ㅌ, ㅍ, ㅌ, ㅍ	b, p, d, t, g, k
마찰 소리, 구름, 가벼운 마찰	ㅈ, ㅉ, ㅊ, ㅅ, ㅆ	<u>z</u> , <u>c</u> , <u>zh</u> , <u>ch</u> , <u>j</u> , <u>q</u> <u>f</u> , <u>s</u> , <u>sh</u> , <u>x</u> , <u>h</u>
무너지는 소리	ㅇ, ㄹ	<u>h</u> , <u>l</u>

둘째, <표-17>을 보면, 자음 교체에 따른 한·중 의성어의 의미 실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듯합니다. “한국어는 평음-격음-된소리의 교체에 따라 의성어의 말맛이 달라지고, 중국어는 불송기음과 송기음의 교체에 따라 의성어의 말맛이 달라진다”는 내용을 반영하면 좋겠습니다.



<표-17> 한·중 의성어 자음의 대응

한국어 의성어	의미 실현	중국어 의성어
평음(달가닥)	작음, 가벼움, 동작이 경쾌함, 불쾌감이 적다.	작고 맑음 불송기음(pa)
경음(딸가닥)	????	
격음(탈가닥)	큘, 무거움, 동작이 둔함, 불 쾌감이 많다.	크고 강함 송기음(p <sup>h</sup> a)

또한, 의미의 실현에서 일관성에 문제가 있는 듯합니다. 한국어 의성어의 경우 의미 실현의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데 중국어의 그렇지 않은 예가 있는 듯합니다. 이에 대한 발표자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송기음(유기음)                      불송기음(무기음)  
 ㅁ[k<sup>h</sup>a]: 맑음                      //    嘎[ka] : 무거운 어감  
 ㅍ[p<sup>h</sup>a]: 크고 강함                //    叭[pa] : 작고 맑음

셋째, (36)과 (37)의 중국 의성어 예문은 적절하지 않은 듯합니다. 왜냐하면 (36)과 (37)은 운미만의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咚'의 韻이 /-ong/인데 /-ung/운으로 된 의성어를 사용해야 할 듯합니다.

(36) 가. 그녀는 찻잔을 들고 차를 꿀꺽꿀꺽 몇 모금 들이마셨다.

나. 她端起一杯茶咕嘟咕嘟地喝了好幾口。

[gūdūgūdū]

(37) 가. 나는 주전자를 들고 단숨에 벌컥벌컥 그 속에 들어있던 물을 거의 다 마셔버렸다.

나. 我拿起水壺咕咚咕咚一口氣喝了大半壺。

[gūdōng]

넷째, 중국어 의성어는 성조에 따라 말맛이 달라진다고 기술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아래의 밑줄 친 필자 기술과 중한사전(중한사전에 보면 'pēng'은 1성으로 일관되게 기술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음성학적 층위(표현적 층위)에서 말맛이 달라지는 듯합니다. 이에 대한 발표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평면 물체에 힘을 가할 때에 나온 소리나 폭발 소리가 일반적으로 자음 ‘p’를 가지는 의성어로 나타낸다. 그래서 머리가 벽에 부딪치는 소리와 주먹으로 책상을 쳐서 나오는 소리는 둘 다 ‘pēng’로 적는다. 그러나 ‘砰’은 고평조(高平調55)나 저평조(低平調22), 그리고 강조(降調51)로 읽을 때 나타나는 소리의 크기가 각각 다르다. 중국어 의성어 중의 A형이나 일부 AB형은 저평조(低平調)나 강조(降調)로 읽을 때 큰 소리를 나타낸다. 이에 의해서 우리는 주먹으로 책상을 쳐서 나온 소리는 강하고 크며, 머리가 벽에 부딪치는 소리는 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현대국어 한자어의 어두 경음화 현상 연구

한명숙(안양대)

## 차 례

1. 머리말
  2. 한자어의 어두 경음화 실태
  3. 한자어 어두 경음화의 구조적 기제
  4. 한자어 어두 경음화의 기능
  5. 맺음말
- 참고문헌

## 1. 머리말

이 연구는 현대국어의 한자어를 대상으로 어두 경음화 실태 양상과 그 특징을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다. 어두 경음화 현상이란 본래 어두에서 ‘ㄱ, ㄷ, ㅂ, ㅅ, ㅈ’ 등 평음으로 시작하는 단어가 대응하는 ‘ㄱ, ㄷ, ㅂ, ㅅ, ㅈ’으로 바뀌는 현상으로, 현대국어에서 나타나는 공식적인 교체와 역사적 변천인 통시적인 현상을 아우르는 말이다(한명숙, 2011:3).

현대국어의 어두 경음화 현상을 논한 많은 연구들이 그 원인을 인간 정신의 각박화나 황폐화와 같은 사회언어학적인 문제로 해석하려고 한 바 있으나, 어두 경음화의 통시적 양상을 자세히 살핀 한명숙(2011:150)의 논의에 따르면 현대국어의 어두 경음화 현상은 중세국어 이래 지속적으로 발달해 온 통시적 변화의 연장선 위에 있다.

(1) 불휘 기픈 남근 브르메 아니 뵈썩, 꾯 도코 여름 하느니 <1447용비가, 2장>

‘불휘>뿌리, 꾯>꽃’ 등의 예가 보여 주듯이 어두 경음화 현상은 중세국어 이래 현대국어에 이르기까지 지속되고 있는 통시적 현상이다. 음운사적 관점에서 어두 경음화 현상은 거센소리되기와 더불어 강음화 현상의 하나로 본다. 김형규(1974)는 현재 국어의 적지 않은 낱말들이 강음화의 과정을 밟아 이루어졌으며 현재도 많은 낱말이 강음화의 과정을 걷고 있다고 한 것은 본고의 입장과 같다.

그런데 현대국어에서 관찰되는 어두 경음화 현상은 주로 고유어에 나타난다. 이에 박동근(2000)에서는 한자어의 어두 경음화를 일종의 예외적 현상이라고 보았으며<sup>1)</sup> 이후 이종별 어두 경음화 분포를 제시하고 있는 김유권(2004), 한명숙(2011) 등에서도 어두 경음화

1) 박동근(2000:186)에서 조사한 낱말 가운데, 한자어에서 된소리되기를 보이는 것은 26개로 『연세 한국어 사전』에서 조사한 올림말에서 한자어의 비중이 88.6%인 것을 고려할 때, 말머리의 된소리되기는 주로 토박이말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며, 한자어의 된소리되기는 오히려 예외적인 현상이라고 할 만큼 그 수가 적다는 것을 언급하였다. 또한 한자어에서 된소리되기는 토박이 말에서의 된소리되기보다 최근에 나타나기 시작한 현상으로 보았다.

현상이 주로 고유어에서 나타나는 현상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앞선 연구에서 특별히 한자어의 어두 경음화를 고유어와 구별하여 논의하지 않았다. 하지만 한자어의 어두 경음화가 고유어에 비해 예외적이라고 할 만큼 저조한 것은 오히려 어두 경음화 현상의 성격을 이해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 한자어의 어두 경음화가 저지되는 것은 한자어의 음운적 특성에 기반한다. 즉 고유어와 달리 한국 한자어의 경우 본음이 경음으로 발음되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 한자음의 초성에 오는 장애음은 거의 대부분 평음 또는 격음이다. 한자어 중에서 경음으로 발음되는 것은 ‘꺨(喫), 씨(氏), 쌍(雙)’뿐이다.<sup>2)</sup> 한자어 자체에 경음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아는 한국어 화자들의 경험적 지식은 고유어에 비해 한자어를 경음으로 발음하는 데 자연스럽게 제약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한자어 자체에서 경음으로 발음되는 것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현실 발음에서는 한자어의 어두를 경음화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꺨(喫), 씨(氏), 쌍(雙)’ 역시 중세국어 시기에 평음이었으며 현대어로 오면서 경음으로 굳어진 것이다.<sup>3)</sup> 이러한 모습은 세대별로도 차이를 보여 20대에서 한자어의 어두 경음화 현상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sup>4)</sup> 이는 고유어에서 시작된 어두 경음화 현상이 한자어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이라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자어의 어두 경음화 현상이 단지 예외적인 현상으로 보는 입장을 지양하고 고유어와 구별하여 그 실태와 특성을 살펴으로써 어두 경음화 현상을 좀 더 미시적으로 관찰하고자 한다.

현대국어의 어두 경음화 현상은 모든 어휘에 동일한 정도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다. 한명숙(2013<sup>1)</sup>)에서는 어두 경음화 정도성의 판정 요소로 다섯 가지의 요소를 제시한 바 있다. 첫째, 연구자의 어두 경음화 여부에 대한 판단이다. 둘째, 구어에서 실제 어두 경음화가 실현되는지를 판단하여 목록을 구축하는 방법이다. 셋째, 설문 조사 방법으로 피실험자에게 어두 경음화 실현 여부에 대한 인식을 묻는 것이다. 넷째, 어두 경음화의 판정 기준으로 언중의 표기 현실을 고려한다. 다섯째, 어두 경음화에 대한 수신자(청자)의 수용 태도를 고려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먼저 한자어에서 일어나는 어두 경음화의 목록을 제시하고 영향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방언의 어두 경음화 실태와 비교할 것이다. 한자어 목록은 앞선 연구와 글쓴이의 언어 경험, 그리고 구어에서 어두 경음화 경향을 보이는 목록을 제시한다. 둘째, 100명의 피실험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통해 어두 경음화 실현에 대한 정도성을 살펴보고자 하겠다. 셋째, 어두 경음화에 대한 인식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 인터넷 웹 검색 방법을 활용하여 어두 경음화한 한자어가 표기에는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표기 실태를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자어의 어두 경음이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는지 검토하도록 하겠다.

2) 김양진(2005)에서도 경음으로 발음되는 것이 이외에도 ‘뽕(桴), 뽕(盆), 씨(穢)’ 등이 있으나 이들은 한국 한자음이외라는 한국어에 대한 이두식 표기이므로 거론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3) 북한에서는 ‘惣體(원수)’의 體에 한해서 ‘쑤’로 발음한다.

4) 한명숙(2011<sup>1)</sup>)에서는 대학생 293명의 발표 녹취 자료를 통해 어두 경음화 양상을 살펴본 적이 있다. 글쓴이가 생각하기에 어두 경음화가 실현된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한자어에서도 어두 경음화 양상이 나타났다.

## 2. 한자어의 어두 경음화 실태

### 2.1. 기초적 검토

이 연구는 먼저 현대국어에서 나타나는 한자어의 어두 경음화 목록을 수집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하지만 어두 경음화는 실제 발화인 구어에서 확인 가능한 것이라 총 목록을 작성하는 것은 거의 기대하기 어렵다. 본고에서 제시하는 한자어의 어두 경음화 목록은 앞선 연구들에서 단편적으로 제시되었던 사례들과 글쓰기가 조사한 자료들이다.

그 목록을 제시하면 다음 (2)와 같다.<sup>5)</sup>

- (2) ㄱ. 감방(監房), 건(件), 건수(件數), 계속(繼續), 고물(古物), 과(科), 과대(科代), 과대표(科代表), 과방(科房), 과사무실(科事務室), 과자(菓子), 권투(拳鬪), 급(級), 기(氣), 본(本), 사부(師父), 사이비(似而非), 생고생(生苦生), 생고집(生固執), 생과부(生寡婦), 생과자(生菓子), 생기초(生基礎), 생난리(生亂離), 생맥주(生麥酒), 생방송(生放送), 생병(生病), 생음악(生音樂), 생이별(生離別), 생중계(生中繼), 생즙(生汁), 생지옥(生地獄), 생초보(生初步), 설(說), 성질(性質), 세면대(洗面臺), 세안(洗眼), 소련(蘇聯), 소주(燒酒), 소주병(燒酒瓶), 소주잔(燒酒盞), 수세식(水洗式), 숙맥(菽麥), 자식(子息), 장(長), 저번(這番), 전(錢), 점(點), 제일(第一), 조(條), 졸병(卒兵), 주(週), 중국(中國), 중국어(中國語), 중국인(中國人), 즈(汁), 증(證)
- ㄴ. 가짜(假-), 공돈(空-), 공짜(空-), 본때(本-), 본뜨다(本-), 본받다(本-), 사모님(師母-), 사장님(社長-), 생것(生-), 생고기(生-), 생고무(生-), 생과일(生-), 생굴(生-), 생김치(生-), 생눈(生-), 생니(生-), 생닭(生-), 생담배(生-), 생돈(生-), 생때(生-), 생머리(生-), 생면(生-), 생목숨(生-), 생미역(生-), 생밥(生-), 생사람(生-), 생살(生-), 생소리(生-), 생쌀(生-), 생얼(生-)\*, 생으로(生-), 생트집(生-), 생과(生-), 생판(生-), 세련되다(洗練-),<sup>6)</sup> 종나다(終-)\*, 중국말(中國-), 중국집(中國-), 진하다(津-), 진짜(眞-)

(2)에서 제시한 목록은 한자어에서 어두 경음화가 실현되는 어휘로 총 96개이다. 어종별로 보면 (2)ㄱ은 순수 한자어의 예로 56개이며 수집한 목록의 58.33%에 해당된다. (2)ㄴ은 혼종어의 예로 모두 40개이고 비율은 41.67%이다. 순수 한자어와 혼종어에서 모두 어두 경음화가 실현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순수 한자어와 혼종어를 모두 한자어로 포함하여 논의하겠다.<sup>7)</sup>

어두 경음화 현상을 보이는 어휘들은 지역 방언에서는 어두 경음형으로 실현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앞선 연구에서 지적되었다.<sup>8)</sup> 한자어의 어두 경음화 목록 96개 어휘를 <2007 한민족 언어 정보화 통합 검색 프로그램><sup>9)</sup>을 활용하여 방언에서도 경음화가 나타나고 있는

5) 앞선 연구를 통해 방언에서 어두 경음화가 실현된다고 제시되고 있는 ‘백여우(白-), 시숙(嫗叔), 시누이(嫗-), 시동생(嫗-), 시아주머니(嫗-), 시어머니(嫗-)’ 등의 단어는 본고에서는 제외하였다.

6) ‘세련’이 명사로 있으나 주로 ‘세련되다’의 형태로 상용되므로 혼종어로 분류하였다.

7) 혼종어도 한자어로 포함하는 이유는 한자가 어두 위치에서 어두 경음화가 실현되고 있기 때문이다.

8) 박동근(2000), 김유권(2004), 위진(2008), 한명숙(2011-), 한명숙(2013-), 홍미주(2014) 등에서도 논의되었다.

9) <2007 한민족 언어 정보화 통합 검색 프로그램>은 21세기 세종 계획 3단계인 2007년 사업 결과물로서 다섯 가지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구성된 프로그램은 ‘국어 어문 규정 검색 프로그램, 국어 어휘의 역사 검색

지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는 다음 <표-1>과 같다.

<표-1> 한자어 어두 경음화 목록과 방언과의 관계

표제어	한국 방언
과자(菓子)	까자 <경남><전남>[광양, 완도] 깨자 <전남>[광양] 깨잘 <전남>[광양]
권투(拳鬪)	곤:토 <전남>[담양, 완도] 곤토 <전남> 곤투 <전남><충북><충남>[서천] 권투 <충북>
본(本)	뽨 <전남>[곡성] 뽨 <전남>[담양, 곡성, 해남]<제주>[전역]
소주(燒酒)	쎄주 <경상> 쏘주 <강원><경남><경북><전북><충남><충북><충국>[할빈]<경기> 쎄주 <전남> 씩주 <전북><강원>[강릉] <경남>[거제, 통영]
숙맥(菽麥)	쑉맥 <강원>[강릉] 쑉맥 <전남>[담양, 화순]
줄병(卒兵)	쥬병 <경남>[하동, 고성, 의령] 쥬병 <경남>[함양, 산청, 통영, 거제, 거창(북상), 양산] 쥬빙 <경남>[창녕] 쥬병 <강원>
공짜(空-)	공짜 <평북><강원>[강릉]
본때(本-) <sup>10)</sup>	뽨때 <강원> 뽨때 <경남><경북><함남> 뽨때 <전남>[담양, 광주, 신안]
본뜨다(本-)	뽨뜨다 <전북> 뽨뜨다 <전남>[전역]
본받다(本-)	뽨받다 <경북><전남>[전역]<전북><제주><충남><충북> 뽨본2다 <경남>[울산(울주)]
생것(生-)	쎄것 <전남>[전역]
생트집(生-)	쎄트집 <전남>[전역(구례, 광양, 여수 제외)]
생판(生-)	쎄판 <전남>[전역(구례, 광양, 여수 제외)]
진하다(津-)	쨌허다 <전남>[전역]

프로그램, 한국 방언 검색 프로그램, 문학 작품에 사용된 방언 검색 통합 프로그램, 남북한 언어 비교 사전 검색 프로그램' 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한국 방언 검색 프로그램' 을 통해 방언에서 나타나고 있는 한자어 어두 경음화 목록을 검색하였다.

- 10) '본때(本-)'의 어두 경음화 형태로는 '뽨당머리, 뽨때기, 뽨때기, 뽨때가리' 등 다양한 변이 형태가 있었다. 이외에도 '본뜨다(本-), 본받다(本-)'의 어두 경음화 형태도 다양한 변이 형태가 있었으나 형태적 유사성을 고려하여 관련 형태로만 제시하였다.

조사 결과 96개 어휘 중 방언에서 어두 경음화 실현이 확인된 것은 모두 14개이다. 이중 ‘소주’, ‘본판다’ 등은 여러 지역에서 경음화가 확인된다. <2007 한민족 언어 정보화 통합 검색 프로그램>을 통한 방언의 어두 경음화 실태를 살피는 일은 어두 경음화에 대한 긍정적인 자료만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비교 방법론상 한계가 있다. 하지만 적어도 한자의 어두 경음화가 서울말에만 제한적으로 또는 특수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방언과 서울말의 어두 경음화는 분명히 유기적인 관계에 있으며, 고유어의 경우 방언에서의 어두 경음화 실현이 더욱 활발하여 고유어의 어두 경음화의 발원이 방언(주로 경상, 전라)에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한자어의 어두 경음화 역시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을지는 좀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한자어의 어두 경음화가 주로 젊은 층에서 높은 실현율을 보인다는 점에서 오랜 어두 경음화 과정을 거친 고유어의 어두 경음화와는 다른 확산 경로를 거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2.2. 한자어의 어두 경음화 발음 실태

발화자의 입장에서 어두 경음화는 ‘수의성’과 ‘개별성’을 갖는다. 동일한 단어라도 화자나 세대에 따라 다르게 실현되기도 하며 동일한 화자라도 상황에 따라 원 발음과 어두 경음화한 발음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sup>11)</sup> 즉 어두 경음화는 실현에 정도성을 갖는다. 이 연구에서는 어두 경음화 실현의 정도성을 살펴보기 위해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2.1에서 제시한 어두 경음화 목록 가운데 대학생들이 어두를 경음으로 발음하는 경향이 있다고 판단되는 29개 어휘를 선정하여, 대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어두 경음화 실현에 대한 정도성을 조사하였다. 설문 조사는 2014년 11월 한 달 동안 안양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조사 방법은 설문지를 나누어 주고 각각의 예문을 읽은 후에 본인이 평소 자연스럽게 발음하는 형에 표시하게 하였다. 어두 경음화 현상은 개별 어휘마다 실현 정도가 다르므로 설문 조사 항목에서도 발음을 이분법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즉 항상 평음으로 발음하는 경우와 항상 경음으로 발음하는 경우, 둘 다 발음하는 경우로 구분하고 둘 다 발음하는 경우에는 어느 쪽을 더 자주 사용하는지 표시하도록 하였다.<sup>12)</sup>

조사 결과를 보면 <표-2>와 같다.

11) 이미재(1989), 강희숙(2001), 전해숙(2003), 김유권(2004), 이상녀(2006), 한명숙(2011-), 이은선(2011), 장승혜(2011), 홍미주(2011), 배혜진(2014) 등은 어두 경음화의 방향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러나 조사 지역이나 어휘에 따라 어두 경음화의 방향성에 대해 상이한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12) 설문 조사지의 보기

항목	예문	발음 유형		자주 하는 발음
감방(監房)	감방[감방]에 가두다	①	둘 다	[감방]
	감방[깡방]에 가두다	②		[깡방]

<표-2> 분석 대상 어휘와 한자어의 어두 경음화 실현 비율

어휘	발음 유형	어두 평음 비율(%)	어두 경음 비율(%)	둘 다	
				어두 평음 비율(%)	어두 경음 비율(%)
감방(監房)		0	94	0	6
졸병(卒兵)		2	93	0	5
과(科)		4	92	0	4
숙맥(蓀麥)		5	91	0	4
과대표(科代表)		6	91	0	3
과사무실(科事務室)		6	91	0	3
공돈(空-)		8	87	1	4
소주(燒酒)		4	86	0	10
건수(件數)		10	76	4	10
사이비(似而非)		11	76	2	11
생난리(生亂離)		13	74	2	11
세련되다(洗練-)		13	73	3	11
생고생(生苦生)		17	67	3	13
생머리(生-)		24	65	4	7
공짜(空-)		22	57	9	12
진하다(津-)		21	57	6	16
생맥주(生麥酒)		41	45	7	7
급(級)		28	45	10	17
생때(生-)		44	44	6	6
사부(師父)		56	27	7	10
저번(這番)		55	26	15	4
중국(中國) <sup>13)</sup>		66	23	6	5
제일(第一)		75	12	11	2
조(條)		88	10	2	0
계속(繼續)		81	9	5	5
고물(故物)		92	7	1	0
권투(拳闘)		91	6	2	1
사모님(師母-)		88	4	6	2
본때(本-)		92	2	5	1

설문 목록 중 한자어의 어두 경음화 실현율이 50% 이상인 어휘는 16개, 어두 경음화 실현율이 10% 이상 ~ 50% 미만인 경우는 8개, 어두 경음화 실현율이 10% 미만인 경우는 5개이다. 설문 목록 29개 어휘 모두 두 가지 발음을 한다고 응답했다. 어두 경음화 현상은 화자나 세대에 따라 혹은 상황에 따라 어두 평음이나 어두 경음 중 두 개의 발음을 선택적으로 하게 된다. 이러한 발음의 선택은 거의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

13) 한명숙(2011)에서는 240명을 대상으로 연령별 어두 경음화 실현 비율을 조사하였다. ‘중국(中國)’의 경우는 연령이 높을수록 어두 경음화 현상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과거에 중국을 무시하던 경향이 연세가 있는 분들 발음에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 (3) ㄱ. 어두 경음화 실현 비율 50% 이상 : 감방(監房), 졸병(卒兵), 과(科), 숙맥(菽麥), 과대표(科代表), 과사무실(科事務室), 공돈(空-), 소주(燒酒), 건수(件數), 사이비(似而非), 생난리(生-), 세련되다(洗練-), 생고생(生苦生), 생머리(生-), 공짜(空-), 진하다(津-)
- ㄴ. 어두 경음화 실현 비율 10% 이상~50% 미만 : 생맥주(生麥酒), 급(級), 생떼(生-), 사부(師父), 저번(這番), 중국(中國), 제일(第一), 조(條)
- ㄷ. 어두 경음화 실현 비율 10% 미만 : 계속(繼續), 고물(故物), 권투(拳鬪), 사모님(師母-), 본때(本-)

자연스럽게 발화하는 발음이 어두 경음형 쪽으로 치우쳐 나타난다면 이는 인증들에게 어두 경음화형이 고정화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sup>14)</sup> 설문 조사 결과 ‘감방(監房), 졸병(卒兵), 과(科), 숙맥(菽麥), 과대표(科代表), 과사무실(科事務室)’은 어두 경음화 실현 비율이 90%가 넘어 매우 높은 경음화 정도를 보인다. 김성규 외(2012:161)에서는 어두 경음화 정도가 높을 때 이를 표준 발음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보았는데,<sup>15)</sup> 그 예로 제시한 것이 ‘숙맥(菽麥)’이다. 본 조사에서는 ‘숙맥’을 어두 경음형인 ‘쑥맥’으로만 발음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91%였으며, 본음과 경음을 모두 발음한다고 한 4명의 피실험자도 주로 경음으로 발음한다고 응답하여 실제 95%가 현실 언어에서 어두 경음형인 ‘쑥맥’으로 발음한다고 대답하였다.

본 조사는 어두 경음화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피실험자가 인지하고 있는 자신의 발음형을 답하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하지만 인증이 실제 발음하는 것과 본인의 발음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세련되다(洗練-), 소주(燒酒), 공짜(空-)’ 등은 실제 발음에서 높은 어두 경음화 실현율을 보이며 피실험자 역시 본인이 어두 경음형으로 발음한다고 인지하는 경향이 높았다. 반면에 ‘계속(繼續)’과 ‘제일(第一)’의 어두 경음화 비율이 각각 9%, 12%로 조사되었는데, 대학생들의 발표 수업을 수행한 경험에 따르면 기대치보다 낮게 나타났다.

어두 경음화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방법은 실제 발화를 녹음한 음성 말뭉치를 구축하여 실태를 조사하는 것이지만 웬만한 규모로는 목표 어휘를 제한하기 쉽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 2.3. 한자어의 어두 경음화 표기 실태

발음에 실현된 어두 경음화는 표기에도 영향을 미친다. 현재 ‘주꾸미’나 ‘곰장어’가 표준어이지만 어두 경음화한 /쑥꾸미/ 또는 /쑥장어/로 발음하는 경향이 높으며, 이들은 실제 표기 상에서도 ‘쑥꾸미’, ‘쑥장어’처럼 경음으로 표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sup>16)</sup> 말에 비해 상대적

14) ‘힘이)세다’의 경우는 [세다]로 거의 발음이 굳어진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한명숙(2013-)에서는 ‘세다’의 발음에 대한 수신자의 수용 태도를 35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 있다. ‘세다’의 발음으로 [세다]로 발음하는 것이 청각적으로 자연스럽다고 응답한 수가 99.4%에 달했다.

15) 일반인 발음 실태 조사에서는 어두 경음화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전문가 의견 조사를 실시하면서 어두 경음화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그러나 자세한 논의는 없고 다만 어두 경음화 현상이 현실 발음과 다르다는 지적과 외래어의 발음에서 나타나는 어두 경음화 현상을 논의하면서 복수 표준 발음을 인정하는 원칙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16) 한명숙(2014-)에서는 인터넷 웹 검색을 통해 ‘쑥꾸미’와 ‘쑥꾸미’의 표기 비율을 조사한 바 있다. 연구 결과 ‘쑥꾸미’라고 표기한 경우는 10.15%이고 ‘쑥꾸미’라고 표기한 경우는 89.85%이다.



으로 보수적인 표기까지 경음이 실현된 것은 이 말이 언중들에게 이미 경음형으로 널리 굳어진 것을 보이는 것이다.

즉, 어두 경음화 현상은 발음의 문제이지만 표기는 어두 경음화 현상이 언중들에게 어느 정도로 확산되었는지 보여 주는 지표가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한자어의 어두 경음화 표기 실태를 살펴기 위해 인터넷 웹 검색을 활용하려고 한다.<sup>17)</sup> 여기서 웹 검색을 활용한 연구 방법<sup>18)</sup>은 박동근(2012, 2014), 한명숙(2014ㄴ)의 방법을 따른다. 박동근(2012)에서는 웹의 언어 자원을 언어 사용 실태 조사를 위한 방법론으로, 웹 검색 엔진을 활용하여 어문 규범 오류 실태를 계량적으로 연구하는 방법을 모색하였다. 그리고 박동근(2014)에서는 웹 검색을 이용하여 사이트의 표기 실태를 조사하여 웹의 언어 자원을 활용한 연구의 효용성을 확인하였다. 한명숙(2014ㄴ)에서는 박동근(2012, 2014)의 방법에 따라 네이버의 ‘카페’를 대상으로 현대국어의 어두 경음화 표기 실태와 변화 양상을 조사한 바 있다.

네이버는 국내 검색 엔진 가운데 83.89%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sup>19)</sup> 한명숙(2014ㄴ)에서는 어두 경음화 표기 실태를 네이버 ‘카페’를 대상으로만 점검하였다.<sup>20)</sup> 그러나 대규모의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카페’뿐만 아니라 네티즌이 자신의 관심사를 자유롭게 게시물을 올리는 ‘블로그’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한자어의 어두 경음화 표기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카페’와 ‘블로그’를 대상으로 살펴보았다.

조사 방법은 설문 어휘의 표준 표기와 어두 경음화가 실현된 형태를 네이버에서 각각 검색하여 사용 빈도와 비율을 조사하였다. 검색할 때에는 유사 어휘가 검색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큰따옴표(“ ”)를 사용하였다.<sup>21)</sup> 예를 들어 ‘감방’을 검색한 결과는 <그림-1>과 같다.

17) 웹에 구축된 문서는 대규모 데이터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실시간적으로 끊임없이 구축되고 살아 있는 언어라는 점에서 언어 사용 실태를 파악하기에 유용한 텍스트이다. 한영균·이두행(2014)에서는 웹 문서와 인터넷을 이용하여 연구 목적에 맞도록 정제하고 다듬어 활용할 수 있다면 자료의 부족 때문에 시도하기 어려웠던 연구가 가능해질 것이며 질적으로도 이전과는 다른 연구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하였다.

18) 한영균·이두행(2014:132)에 따르면 웹의 언어 자원을 이용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웹의 언어 자원을 코퍼스 구축에 활용하는 것(Web for Corpus)’ 이고, 다른 하나는 ‘웹의 언어 자원을 직접 언어 연구에 활용하는 것(Web as Corpus)’ 이다. 전자는 수집해야 할 텍스트를 특정하거나 특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텍스트를 수집해 적절한 가공을 거쳐 코퍼스로 구축하는 데에 필요한 기술적·이론적 연구로 상대적으로 비용과 시간을 훨씬 덜 들이면서 대용량의 코퍼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한다. 후자는 연구자가 입력한 키워드를 google 등의 검색 엔진에서 검색해서 검색 결과를 적절히 가공해 용례 색인이나 통계 정보 등을 보여 줄 수 있도록 하는 연구로 코퍼스를 구축하지 않고도 대량의 용례를 얻을 수 있어 언어 연구에 더 쉽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의는 WAC에 해당하는 연구이다.

19) 2015년 현재 인터넷트렌드에 따르면 국내 엔진 검색 엔진 점유 비율은 네이버(Naver)가 83.89%, 다음(Daum)이 13.12%, 구글(GOOGLE)이 1.57%, 줌(ZUM)이 0.95%, 마이크로소프트(MSbing)가 0.41%, 기타 및 나머지 항목 등이다.

20) 한명숙(2014ㄴ:294)에서 ‘네이버 카페’를 대상으로 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웹 생성 기간을 직접 입력하여 검색할 수 있기 때문에 게시물의 생성 날짜가 확실하다. 둘째, 카페는 다양한 사람들이 가입하여 글을 쓰기 때문에 참여자의 폭이 넓다. 셋째, 실제 언어 현실 속에서 사용하는 언중들의 자연스러운 쓰기 실태를 살펴볼 수 있다.

21) 큰따옴표(“ ”)는 목표 어휘를 변형 없이 입력된 순서대로 정확하게 일치하는 단어를 찾도록 하는 연산자이다.



〈그림-1〉 ‘네이버 카페’에서 ‘감방’을 검색한 결과

〈그림-1〉처럼 검색창에 “감방”이라고 큰따옴표로 묶어 검색을 하고 ②에서처럼 ‘카페’를 옵션으로 선택하면 ③과 같은 검색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어 어두 경음 표기인 “감방”을 검색하여 출현 빈도를 조사한다. 같은 방법으로 블로그를 검색하여 사용역에 따른 차이를 조사한다.

2.2에서 조사한 29개의 설문 어휘 가운데 1음절어인 ‘급(級)’ 외에 동형어로 웹 검색에 적절하지 않은 어휘를 제외하고 25개 어휘를 대상으로 한자어의 어두 경음 표기 실태를 살펴본 결과를 보이면 <표-3>과 같다.

<표-3> 설문 어휘와 표기 양상

어휘	출처	어두 평음		어두 경음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숙맥(菽麥)	카페	2,838	27.19	7,600	72.81
	블로그	7,763	34.57	14,690	65.43
	합계	10,601	32.23	22,290	<b>67.77</b>
공돈(空-)	카페	10,442	32.29	21,895	67.71
	블로그	16,707	46.02	19,598	53.98
	합계	27,149	39.55	41,493	<b>60.45</b>
졸병(卒兵)	카페	11,754	39.79	17,786	60.21
	블로그	16,404	52.96	14,568	47.04
	합계	28,158	46.53	32,354	<b>53.47</b>
생난리(生-)	카페	10,257	69.15	4,577	30.85
	블로그	15,379	67.16	7,520	32.84
	합계	25,636	67.94	12,097	<b>32.06</b>
생고생(生苦生)	카페	23,027	74.66	7,814	25.34
	블로그	38,129	77.72	10,933	22.28
	합계	61,156	76.54	18,747	<b>23.46</b>
생떼(生-)	카페	11,015	87.33	1,598	12.67
	블로그	34,243	88.52	4,441	11.48
	합계	45,258	88.23	6,039	<b>11.77</b>
감방(監房)	카페	23,321	81.85	5,172	18.15
	블로그	56,840	94.28	3,447	5.72
	합계	80,161	90.29	8,619	<b>9.71</b>
공짜(空-)	카페	1,193,065	90.00	132,599	10.00
	블로그	1,664,005	91.56	153,479	8.44
	합계	2,857,070	90.90	286,078	<b>9.10</b>

어휘	표기 출처	어두 평음		어두 경음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진하다(津-)	카페	10,276	91.08	1,007	8.92
	블로그	70,466	92.63	5,609	7.37
	합계	80,742	92.43	6,616	<b>7.57</b>
사부(師父)	카페	96,686	92.82	7,477	7.18
	블로그	170,088	94.15	10,573	5.85
	합계	266,774	93.66	18,050	<b>6.34</b>
소주(燒酒)	카페	791,849	93.57	54,400	6.43
	블로그	1,982,987	95.52	93,054	4.48
	합계	2,774,836	94.95	147,454	<b>5.05</b>
사모님(師母-)	카페	162,720	95.65	7,393	4.35
	블로그	321,461	96.66	11,112	3.34
	합계	484,181	96.32	18,505	<b>3.68</b>
건수(件數)	카페	153,267	96.99	4,754	3.01
	블로그	431,457	97.80	9,723	2.20
	합계	584,724	97.58	14,477	<b>2.42</b>
사이비(似而非)	카페	53,982	97.20	1,557	2.80
	블로그	151,495	99.35	997	0.65
	합계	205,477	98.77	2,554	<b>1.23</b>
생머리(生-)	카페	160,867	99.09	1,475	0.91
	블로그	215,511	98.91	2,369	1.09
	합계	376,378	98.99	3,844	<b>1.01</b>
본때(本-)	카페	11,337	99.48	59	0.52
	블로그	15,957	98.85	186	1.15
	합계	27,294	99.11	245	<b>0.89</b>
과사무실(科事務室)	카페	976	99.29	7	0.71
	블로그	1,384	99.14	12	0.86
	합계	2,360	99.20	19	<b>0.80</b>
과대표(科代表)	카페	9,038	99.82	16	0.18
	블로그	6,999	99.53	33	0.47
	합계	16,037	99.70	49	<b>0.30</b>
생맥주(生麥酒)	카페	60,287	99.40	366	0.60
	블로그	341,622	99.77	786	0.23
	합계	401,909	99.71	1,152	<b>0.29</b>
세련(洗練)	카페	616,658	99.61	2,411	0.39
	블로그	2,300,722	99.82	4,174	0.18
	합계	2,917,380	99.77	6,585	<b>0.23</b>
저번(這番)	카페	3,383,635	99.83	5,715	0.17
	블로그	2,856,022	99.88	3,339	0.12
	합계	6,239,657	99.86	9,054	<b>0.14</b>
중국(中國)	카페	2,855,932	99.92	2,321	0.08
	블로그	6,550,338	99.92	4,958	0.08
	합계	9,406,270	99.92	7,279	<b>0.08</b>
권투(拳鬪)	카페	57,727	99.94	36	0.06
	블로그	105,447	99.94	61	0.06
	합계	163,174	99.94	97	<b>0.06</b>
계속(繼續)	카페	14,770,923	99.92	11,568	0.08
	블로그	20,900,346	99.97	6,879	0.03
	합계	35,671,269	99.95	18,447	<b>0.05</b>
제일(第一)	카페	7,598,954	99.96	2,995	0.04
	블로그	13,111,483	99.98	2,849	0.02
	합계	20,710,437	99.97	5,844	<b>0.03</b>

한자어의 어두 경음화 표기 비율을 보면 50% 이상인 어휘는 3개, 어두 경음화 표기 비율이 10% 이상 50% 미만인 경우는 3개, 어두 경음화 표기 비율이 10% 미만인 경우는 19개이다. 25개 조사 어휘 중 한자어의 어두 경음 표기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가 전체 비율의 12%로 한자어의 어두 경음화 발음 실태에 비해 낮은 편에 속한다.<sup>22)</sup>

- (4) ㄱ. 어두 경음 표기 비율 50% 이상 : 숙맥(菽麥), 공돈(空-), 졸병(卒兵)  
 ㄴ. 어두 경음 표기 비율 10% 이상 ~ 50% 미만 : 생난리(生-), 생고생(生苦生), 생떼(生-)  
 ㄷ. 어두 경음 표기 비율 10% 미만 : 감방(監房), 공짜(空-), 진하다(津-), 사부(師父), 소주(燒酒), 사모님(師母-), 건수(件數), 사이비(似而非), 생머리(生-), 본때(本-), 과사무실(科事務室), 과대표(科代表), 생맥주(生麥酒), 세련(洗練), 저번(這番), 중국(中國), 권투(拳闘), 계속(繼續), 제일(第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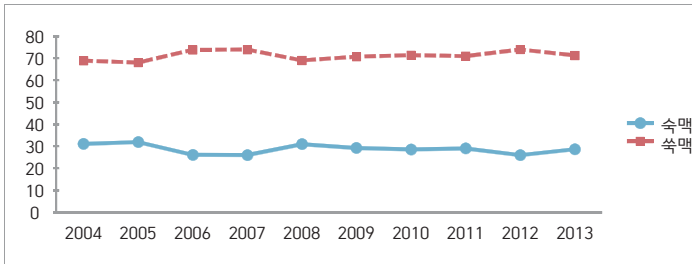
먼저 (4)에서 제시한 어두 경음 표기 비율이 50% 이상인 어휘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이들 한자어의 경음 표기 비율을 보면 ‘숙맥(菽麥)’은 67.77%, ‘공돈(空-)’은 60.45%, ‘졸병(卒兵)’은 53.47%이다. 실제 이들 어휘는 한자어의 어두 경음화 발음 실태에서도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한자어의 어두 경음화 발음 실태를 보면 ‘숙맥(菽麥)’은 91%, ‘공돈(空-)’은 87%, ‘졸병(卒兵)’은 93%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발음이 표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어두 경음화 실현 여부는 1차적으로 발음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되는 어휘들이 맞춤법에 대한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중들이 어두 경음으로 표기하는 비율이 높은 것은 어두 경음화가 굳어진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

어두 경음 표기는 시간에 따른 변화 양상을 참고할 수 있다. 한명숙(2014ㄴ)에서는 개별 어휘를 대상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어두 경음화 표기 양상을 계량적으로 살펴본 바 있다. <표-4>는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 간 ‘숙맥’과 ‘쑥맥’의 표기 추이를 보인 것이다.

<표-4> ‘숙맥’과 ‘쑥맥’의 표기 변화 양상(한명숙, 2014ㄴ:301)

연도	표기	숙맥	%	쑥맥	%
2004		37	31.09	82	68.91
2005		39	31.97	83	68.03
2006		136	26.15	384	73.85
2007		257	26.06	729	73.94
2008		335	30.99	746	69.01
2009		401	29.27	969	70.73
2010		369	28.60	921	71.40
2011		341	29.05	833	70.95
2012		332	26.04	943	73.96
2013		390	28.70	969	71.30
합 계		2,637	28.37	6,659	71.63

22) 2.2에서 한자어의 어두 경음화 발음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가 전체 비율의 55.17%였다. 표기 비율과 발음 실태 비율이 4배 이상의 차이가 나타난다.



<그림-2> ‘숙맥’과 ‘쑥맥’의 표기 선호도 변화 양상

<그림-2>는 지난 10년 간의 표기 변화 양상을 보인 것인데 어두 경음 표기인 ‘쑥맥’이 ‘숙맥’보다 꾸준히 높은 사용 비율을 보인다. 이는 언중들의 인식 속에는 ‘숙맥’ 보다는 ‘쑥맥’의 표기가 훨씬 더 자연스럽게 인지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어두 경음 실현율과 어두 경음 표기율이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어두 경음 표기 비율이 10% 이상 ~ 50% 미만인 어휘로는 ‘생난리(生-), 생고생(生苦生), 생떼(生-)’이다. 생난리(生-)의 어두 경음 표기 비율은 32.06%, ‘생고생(生苦生)’의 어두 경음 표기 비율은 23.46%, ‘생떼(生-)’의 어두 경음 표기 비율은 11.77%이다. 반면에 이들 어휘의 어두 경음화 발음 비율은 ‘생난리(生-)’가 74%, ‘생고생(生苦生)’은 67%, ‘생떼(生-)’는 44%이다.

박동근(2000)에서는 ‘생(生-)’이 어두에서 경음으로 실현되는 경우는 접두사로 [천연적]의 의미 자질을 지닐 때 어두 경음화가 일어난다고 언급하였다. ‘생난리(生-), 생고생(生苦生), 생떼(生-)’는 접두사 ‘생(生-)’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이다. 박동근(2000:188)에서는 ‘생(生-)’의 된소리되기를 형태 규칙으로 (5)와 같이 제시한 바 있다.

$$(5) \quad [ [생(生-)]_{pre} + Root ] \rightarrow [ [쟁-] + Root ]_{[natural]}$$

접두사 ‘생-(生-)’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어휘로 ‘생(生)’의 의미가 [천연적], [날것]의 의미일 때 어두 경음화가 일어난다고 하였다. 그런데 ‘생(生-)’의 의미 자질이 꼭 [천연적]이거나 [날것]일 때만 어두 경음화가 일어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6)의 경우를 살펴보자.

- (6) ㄱ. 생맥주(生麥酒)/쟁맥주, 생머리(生-)/쟁머리, 생김치(生-)/쟁김치  
 ㄴ. 생떼(生-)/쟁떼, 생난리(生-)/쟁난리  
 ㄷ. 생기초(生-)/쟁기초  
 ㄹ. 생부모/\*쟁부모, 생어머니/\*쟁어머니, 생아버지/\*쟁아버지.

(6ㄱ)의 예를 보면 ‘생(生-)’의 의미가 [천연적]이거나 [날것]의 의미를 나타낸다. 그러나 (6ㄴ)의 경우는 ‘생(生-)’의 의미가 (6ㄱ)의 의미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접두사 ‘생-’의 의미를 6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6ㄴ)의 ‘생떼’나 ‘생난리’의 ‘생-’

은 [억지스러운] 또는 [공연환]으로 풀이하고 있다. 『표준』에는 (6ㄷ) ‘생기초’에 해당하는 뜻풀이는 없으나 [완전한] 정도로 풀이할 수 있을 듯하다. (6ㄷ)의 ‘생-’은 『표준』에 [직접적인 혈연 관계]를 더하는 접두사로 풀이하고 있는데, 이때는 어두 경음화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 접두사 ‘생-’이 의미에 따라 어두 경음화가 제약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natural]의 의미에 한정되지는 않는 것 같다.

어두 경음화 표기 비율이 10% 미만인 경우는 ‘감방(監房), 공짜(空-), 진하다(津-), 사부(師父), 소주(燒酒), 사모님(師母-), 건수(件數), 사이비(似而非), 생머리(生-), 본때(本-), 과사무실(科事務室), 과대표(科代表), 생맥주(生麥酒), 세련(洗練), 저번(這番), 중국(中國), 권투(拳鬪), 계속(繼續), 제일(第一)’이다. 이들 어휘는 어두 경음화 표기 비율이 10% 미만인 경우로 한자어의 어두 경음화의 발음이 표기에게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은 어휘들이다. 이처럼 어두 경음화 현상은 개별 어휘마다 정도성이 다르게 실현된다.

‘건수(件數)’의 어두 경음화 표기 비율은 2.42%, ‘과사무실(科事務室)’의 어두 경음화 표기 비율은 0.80%, ‘과대표(科代表)’의 어두 경음화 표기 비율은 0.30%이다. 반면에 이들 어휘의 어두 경음화 발음 비율은 ‘건수(件數)’는 76%, ‘과사무실(科事務室)’은 91%, ‘과대표(科代表)’는 91%이다. 어두 경음화 발음 비율은 70%가 넘지만 표기 비율은 10%로 미만이다. 보통 어두 경음화 발음 비율이 높은 어휘 중 ‘주꾸미, 곰장어, 숙맥’의 경우는 어두 경음 실현 비율도 높게 나타나며 어두 경음 표기 비율도 높은 편이다. 그런데 ‘건수(件數), ‘과사무실(科事務室), ‘과대표(科代表)’는 이와 다르게 나타난다. 이는 언중들이 ‘건(件)’과 ‘과(科)’에 대한 한자 의식이 뚜렷하게 있기 때문이다. 이는 한자에 대한 지식이 있어서 표기에 어두 경음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 3. 한자어 어두 경음화의 구조적 기제<sup>23)</sup>

그렇다면 한자어의 어두 경음화를 유발하는 구조적인 기제는 무엇인가? 우리는 앞에서 방언과의 접촉이 어두 경음을 촉진하는 데 관련이 있다고 보았으나 이는 언어 내적인 원인은 아니다. 한자의 어두 경음화가 모든 한자어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면 거기에는 일정한 언어 내적 원인이 있을 것이라 가정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어두 경음화 현상이 실현되는 위치인 어두는 변동 규칙이 실현되는 환경도 아니고 선행하는 음절도 없어서 음소 배열 제약 등의 음운적 조건이나 형태적 조건을 따지기 어렵다. 따라서 어두 위치에서 경음화가 유발될 수 있는 조건은 어두에서 경음이 실현되는 초성의 종류<sup>24)</sup>나 어두에 오는 한자어의 형태적 특질 정도를 고려할 수 있다.

먼저 어두 초성 자음에 따라 분류해 보면 다음 (7)과 같다.

- (7) ㄱ. 어두 ㄱ : 가짜(假-), 감방(監房), 건(件), 건수(件數), 계속(繼續), 고물(古物), 곤돈(空-), 공짜(空-), 과(科), 과대(科代), 과대표(科代表), 과방(科房), 과사

23) 홍미주(2014)에서는 어두 경음형에 대한 화자들의 언어 태도를 파악하여 어두 경음형 실현의 기제를 논한 바 있다. 본 논의에서는 어두 경음화 현상에 대한 구조적 기제 측면에서 언어 태도는 논하지 않았다.

24) 엄태수(1986)은 어두 경음화 현상이 실현된 어휘들이 첫 음절의 초성과 둘째 음성의 초성이 관련을 맺고 있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cor], [+cor]일 때나 [+cor], [-cor] 또는 [-cor], [+cor]일 때 어두 경음화가 빈번히 발생하고, 순음과 구개음이 연결된 때에는 경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한 위진(2008)에서는 어두 경음화의 음운론적 환경을 어두 경음화가 적용된 자음과 모음을 기준으로 경음화 빈도를 정리하였다.

무실(科事務室), 과자(菓子), 권투(拳鬪), 급(級), 기(氣)

ㄴ, 어두 ㄷ : 본(本), 본때(本-), 본뜨다(本-), 본말다(本-)

ㄷ, 어두 ㅅ : 사모님(師母-), 사부(師父), 사이비(似而非), 사장님(社長-), 생것(生-), 생고기(生-), 생고무(生-), 생고생(生苦生), 생고집(生固執), 생과부(生寡婦), 생과일(生-), 생과자(生菓子), 생굴(生-), 생기초(生基礎), 생김치(生-), 생난리(生亂離), 생눈(生-), 생니(生-), 생닭(生-), 생담배(生-), 생돈(生-), 생때(生-), 생맥주(生麥酒), 생머리(生-), 생면(生-), 생목숨(生-), 생미역(生-), 생밥(生-), 생방송(生放送), 생병(生病), 생사람(生-), 생살(生-), 생소리(生-), 생쌀(生-), 생얼(生-), 생으로(生-), 생음악(生音樂), 생이별(生離別), 생중계(生中繼), 생즙(生汁), 생지옥(生地獄), 생초보(生初步), 생트집(生-), 생과(生-), 생판(生-), 설(說), 성질(性質), 세련되다(洗練-), 세면대(洗面臺), 세안(洗眼), 소련(蘇聯), 소주(燒酒), 소주병(燒酒瓶), 소주잔(燒酒盞), 수세식(水洗式), 속맥(菽麥)

ㄹ, 어두 ㅈ : 자식(子息), 장(長), 저번(這番), 전(錢), 점(點), 제일(第一), 조(條), 졸병(卒兵), 주(週), 종나다(終-)\*, 중국(中國), 중국말(中國-), 중국어(中國語), 중국인(中國人), 중국집(中國-), 줍(汁), 증(證), 진하다(津-), 진짜(眞-)

한자어의 어두 경음화 목록을 어두 초성 자음에 따라 분류해 보니 한자 본음이 ‘ㄱ, ㄷ, ㅅ, ㅈ’으로 시작하는 어휘는 있었으나 ‘ㄷ’으로 시작하는 어휘는 하나도 없었다.

<표-5> 어두 초성 자음에 따른 어두 경음화 빈도

어두	ㄱ	ㄷ	ㄴ	ㅅ	ㅈ
빈도(비율)	17(17.71%)	0(0%)	4(4.17%)	56(58.33%)	19(19.79%)

어두 초성 자음에 따라 분류한 결과 ‘ㅅ(56) > ㅈ(19) > ㄱ(17) > ㄴ(4) > ㄷ(0)’의 순서를 보인다.<sup>25)</sup> 현대국어 한자어 어두 경음화에서 가장 활발히 나타나는 자모는 ‘ㅅ’이다. ‘ㅈ’과 ‘ㄱ’의 경우는 빈도상 별 차이가 없다. ‘ㅅ’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생-(生)’ 접두사와 결합한 말이 다수인 이유도 있으나 ‘생-(生)’ 접두사가 결합하는 말을 하나로 계산하더라도 여전히 가장 수가 많다. 한명숙(2011ㄱ)에서는 한국어의 어두 경음화 현상을 고유어와 한자어 구분 없이 연구한 바 있는데, 이때 어두 경음이 가장 활발히 일어나는 자모 역시 ‘ㅅ’이었다. ‘ㅅ’이 어두 경음을 유발하는 데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박동근(2000)에서는 어두 경음화를 유발하는 형태적 조건으로 다음과 같은 어두 경음화 과정을 제안한 바 있다.

25) 위천(2008)에서는 전남 방언에 나타난 어두 경음화를 통시적·공시적 관점에서 고찰하여 어두 경음화의 발생 시기와 원인, 변화 과정, 적용되는 음운론적 환경을 밝히고자 하였다. 통시적 관점으로는 전남 고문헌에서 어두 경음화된 어휘를 다른 지역 문헌과 비교하였고 공시적 관점으로는 『전남방언사전』에서 어두 경음화된 방언형을 추출하였다. 전남방언에서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나는 어두 경음화 자음을 배열하면 ‘ㄱ>ㅅ>ㅈ>ㄴ>ㄷ’이다. 어두 경음화 현상이 조음 위치가 성대와 가까운 자음일수록 적용되는 빈도가 높다고 보았다.

(8) 학과 → /(학)-과/ →      과  
           1        2            ∅    2

즉 ‘과’가 어두에서 경음화한 것은 ‘학-과’와 같은 음운론적 조건에 의해 ‘과’가 된소리 /과/로 발음되고 뒤에 ‘과’가 어두 위치나 단독으로 쓰일 때도 어중에서 사용되던 습관이 남아 /과/로 굳어져 발음되는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한자어의 어두 경음화는 (8)과 같은 과정을 통해 어두에서 된소리로 실현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예들이 있다.

- (9) ㄱ. 학생-중, 주민-중, 면허-중  
       ㄴ. 간부-급, 거물-급, 경량-급, 고위-급  
       ㄷ. (한) 건당 백 원  
       ㄹ. (일) 점당 백 원

(9ㄱ)의 ‘중(證)’은 반드시 다른 말과 결합할 때 ‘ㅅ’ 삽입을 요구하는 형태로 이들이 단독으로 어두에 올 때에도 ‘ㅅ’ 삽입 특징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9ㄴ)의 ‘급(級)’은 ‘계급’, ‘등급’ 등에서는 경음으로 발음되지 않지만 (9ㄴ)과 같이 앞말과 결합하여 선행하는 명사의 계급이나 등급을 의미할 때는 경음의 /꺄/으로 발음된다. 같은 의미로 어두에 쓰여 ‘우리는 너희와 꺄이 달라’처럼 쓰일 때는 어중에서 쓰이던 발음이 그대로 지속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9ㄷ)의 ‘건(件)’은 의존명사로 쓰일 때 항상 경음화한 ‘꺄’으로 발음된다. 그러므로 앞에 관형어가 생략된 채 사용되더라도 경음화한 형태가 굳어져 어두 경음화형인 /꺄/으로 실현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9ㄹ)의 ‘점(點)’은 ‘일’이나 ‘육’이나 ‘칠’, ‘팔’ 등 ‘ㄹ’ 받침의 수사 뒤에 올 때를 제외하면 평음의 ‘점’으로 발음된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꺄당 얼마’라고 할 때 ‘꺄’는 실제 ‘일 점(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에도 (9ㄷ)의 ‘꺄’과 같은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1음절 한자어의 어두 경음화 현상은 특이성을 보인다. 1음절 한자어로 어두 경음화가 일어나는 것에는 ‘건(件), 꺄(級), 기(氣), 설(說), 장(長), 전(錢), 점(點), 증(證), 조(條), 주(週)’ 등이 있다. 이들 1음절 한자어의 어두 경음화 사용의 일부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 |                |                         |
|----------------|-------------------------|
| (10) ㄱ. 건(件)/꺄 | <b>꺄</b> 당 요금을 받습니다     |
| ㄴ. 설(說)/설      | 그냥 <b>설</b> 한 번 풀어 봤습니다 |
| ㄷ. 전(錢)/꺄      | <b>꺄</b> 이 제일 좋아        |
| ㄹ. 장(長)/꺄      | 그때나 지금이나 지용이 <b>꺄</b>   |
| ㅁ. 증(證)/증      | <b>증</b> 한번 까봐          |

우리말에서 한자어는 주로 2음절의 형태로 사용되며, 상대적으로 1음절 한자어의 사용은 제한적이다. 그런데 한자어 가운데 어두에서 경음화가 일어나면서 1음절 형이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모습이 보인다. (10ㄱ)의 ‘꺄’는 국어사전에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특정한 일이나 사건”을 뜻하는 명사로 풀이되어 있으나, 단독으로 명사로 사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단위를 세는 단위로 의존명사로 기능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1ㄱ)과 같이 어두 경음화한 ‘꺄’는 선행하는 관형어 없이 단독으로 사용된다. (10ㄴ)의 ‘설’(設) 역시 사전에 명사



로 제시되어 있으나 ‘이상한 설/그런 설’처럼 주로 의존명사처럼 쓰이고 단독으로 잘 사용하지 않는다. 반면에 거짓말의 의미로 어두 경음화한 ‘썰’은 독립된 명사로 쓰이며, ‘전’이나 ‘장’, ‘증’도 마찬가지이다. (10ㄷ)의 경우 ‘장(長)’은 어떤 조직체나 부서 단위의 우두머리를 의미한다. 그런데 어두 경음형이 실현된 ‘짱’은 ‘청소년 집단에서 우두머리’를 일컫기도 하고 ‘매우 뛰어나다’라는 의미를 갖는다. 김양진(2005)에서는 한자음 중에서 형태론적 과정에 있는 형태소로 ‘간(間)’, ‘증(證)’, ‘건(件)’, ‘적(的)’을 제시하였는데, 이러한 형태소들이 이미 현대국어에서 형태 재구조화된 것으로 보고 같은 한자를 쓰는 다른 한자어들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별개의 형태소로 보아야 하며 경음 자체를 형태소 표기에 반영해야 한다고 보았다.<sup>26)</sup>

실제 (10)의 한자어들은 본래 의존적인 형태가 자립 형식으로 재구조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sup>27)</sup> 이들이 어두 경음화으로 실현되었을 때 의미 파악에 어려움이 없고 어두 경음형으로 표기하여도 별로 어색하지 않다. 이는 (10)의 1음절 한자어들의 어두 경음화가 꽤 진척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한자어의 어두 경음화와 관련된 형태, 음운적 기제를 살펴보았다. 하지만 여기서 살펴본 어두 경음화를 유발하는 구조적인 기제는 매우 제한적이어서 한자어의 어두 경음화의 대부분을 아우를 수 있는 구조적인 요인을 찾기는 여전히 어렵다.

#### 4. 한자어 어두 경음화의 기능

어두 경음화의 기능에 대한 앞선 논의로는 박동근(2000)과 한명숙(2013ㄴ)이 있다. 박동근(2000)에서는 어두 경음의 의미 기능으로 ‘강조’, ‘비하 또는 부정’, ‘새로운 의미 획득’을 들었고, 한명숙(2013ㄴ)에서 한국어 용언의 어두 경음화 기능으로 ‘의미 기능’, ‘표현 효과의 기능’, ‘어휘화 판단 기능’을 제시하였다. 앞선 연구를 통해 볼 때 어두 경음화의 기능 중 가장 두드러진 것이 의미 기능이다.<sup>28)</sup>

26) 김양진(2005:106)에서 ‘증(證)’은 <드러내어 밝힘>의 서술적 의미를 가질 때나 단순히 <증거>의 의미를 가질 때는 [증]으로 발음되지만 <사실 확인용 표지>의 의미나 <신분 확인용 표>의 의미로 사용될 때에는 [쑹]으로 실현된다고 하였다. 특히 ‘증(證)’이 본인임을 확인하는 ‘신분 확인용 표’ 즉 ID카드의 의미일 때는 [쑹]이 단독형으로 실현되기도 한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김양진(2005:111)에 따르면 ‘우리말에서 한자 ‘건(件)’은 <셀 수 있거나 항목화할 수 있는 것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는 ‘건[건]’과 단순히 <사물(事物)>의 의미를 강조적으로 나타내는 허사 ‘건(件)’으로 나뉘며 전자의 ‘건[건]’은 /건/으로 공식적으로 형태 재구조화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27) (10)의 한자어가 재구조화 과정에 있는 것이라면 ‘끼’는 어두 경음화에 따른 재구조화가 완성된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 ‘끼’의 재구조화 과정으로 박동근(2000)에서는 다음과 같은 예를 제시한 바 있다.

광기(狂氣) → /광-끼/ → 끼  
 객기(客氣) → /객-끼/ → 끼  
 1 2                      0 2

(10)의 보기와 달리 현대 국어에서 명사 ‘끼’는 같은 의미로 평음의 ‘기’가 단독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존형식의 ‘기(氣)’가 명사인 ‘끼’로 재구조화가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안의정(2007:47)에서는 ‘끼’가 기(氣)에서 유래한 것을 회의적으로 보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표준』의 원어 해석을 따른다.

28) 위진(2008)에서도 어두 경음화에 대한 최대의 혜택을 의미로 보고 있다.

## 4.1. 의미 기능

### 4.1.1. [강조]의 의미

한자어의 어두 경음화는 일정한 의미 기능을 수행한다. 이는 어두 경음을 유발하는 언어 내적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이미재(1989ㄴ)에서는 어두 경음화가 긍정적인 방향 극대화는 정확성을 강조한다고 보았다. 박동근(1999)에서도 ‘예사소리:된소리’ 쌍을 이루는 흉내말에서 예사소리의 흉내말에 대해 대응하는 된소리의 흉내말은 [강조]의 의미를 실현한다고 하였다. 한자어의 어두 경음화 목록 가운데 강조의 의미를 실현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11) ㄱ. 생고생(生苦生)/甞고생, 생지옥(生地獄)/甞지옥, 생초보(生初步)/甞초보, 생머리(生-)/甞머리  
ㄴ. 진하다(津-)/甞하다

‘생고생(生-), 생지옥(生-), 생초보(生-)’에 대해 어두 경음화한 ‘甞고생,甞지옥,甞초보,甞머리’는 후행하는 명사의 속성에 대해 원래 의미 보다 친연적이며 낯설음을 강조한다. ‘진하다(津-)’에 대해 ‘甞하다’는 액체의 농도가 더욱 짙음을 강조한다.

### 4.1.2. [부정]의 의미

어두 경음으로 원래 의미보다 부정의 의미가 부각되는 경우가 있다. 부정의 의미 실현은 부정의 의미를 두드러지게 나타낸다는 점에서 [강조]의 의미로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어두 경음에서 의미를 ‘비하하거나 부정적인 의미’를 더하는 경우가 어두 경음화에 따른 뚜렷한 의미 범주를 이루므로 [강조]와 구분한다.

한자어의 어두 경음화 의미 기능 중 ‘강조’의 기능과 ‘부정’의 의미를 구분하기가 힘든 어휘들도 있다.<sup>29)</sup> 그러나 어두 경음화 실현을 통해 원래 어휘가 지니고 있던 의미가 부정적인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 ‘비하하거나 부정적인’ 기능으로 볼 수 있다.

- (12) 감방(監房)/甞방, 고물(古物)/甞물, 고물(古物)/甞물, 사이비(似而非)/甞이비, 사모님(師母-)/甞모님, 중국(中國)/甞국

‘감방’에 대해 ‘甞방’은 본래 의미가 갖는 부정적 속성을 드러내며, ‘고물’에 대해 ‘甞물’은 쓸모 없는 물건이라는 부정적 속성을 드러내며, ‘사이비’나 ‘사모님’, ‘甞국’ 등도 비하적인 의미를 갖는다.

이미재(1989ㄴ)에서는 시집 식구 호칭 가운데 ‘시아머니(嫗-)’가 가장 강하게 경음화 경향을 나타낸 데다가 그것이 비하되면 될수록 더욱 경음화 경향이 강해지는 것은 경음화의 부정적 심리의 반영이라고 하였다. 즉 시어머니의 혹독한 학대나 무정에 대한 간접적 반항의 표현이다. 부정적 방향의 극대화는 ‘점잖지 못하다’든가 은밀한 권위의식과 ‘남성적’이라

29) 한명숙(2013ㄴ)에서는 용언의 어두 경음화의 의미 기능으로 ‘중심 뜻의 강조’ 기능만을 언급하였다. 그 예로 ‘매끼다’와 ‘잘리다’로 설명하였다. 즉 어두 경음형인 ‘매끼다’나 ‘잘리다’에 의해 부정적인 가치가 실현되는 것이라면 평음형으로 사용할 때는 긍정적이거나 중립적인 의미로만 사용되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는 의미 자질을 갖는다고 설명하였다.

#### 4.1.3. [비속]의 의미

경음은 강한 어감으로 비어에 빈번히 쓰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어두 경음화로 부정적인 의미가 강조하는 것이 어느 범위를 넘으면 비속의 의미를 갖게 된다. 이는 새로운 의미를 획득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13) 설(說)/썰, 장(長)/짱, 전(錢)/쩐, 자식(子息)/짜식, \*종나다(終-)/쫄나다

‘설’은 ‘견해, 주의, 학설, 통설’ 따위를 이르는 말이지만 경음화한 ‘썰’은 주로 ‘썰을 풀다’의 형태로 거짓말의 의미로 비속어로 사용된다. ‘쩐’은 돈을 가리키는 말로 째깍은 상황에서 쓸 수 없는 말이다. ‘자식’은 어두 경음화형인 ‘짜식’은 남자를 욕할 때 ‘놈’보다 낮추어 이르는 뜻으로 쓰는 비속어이다. ‘쫄나다’에 대해 ‘쫄나다’는 일이 틀어지다는 뜻의 비속어로 쓰인다.<sup>30)</sup>

#### 4.2. 표현 효과의 기능

한자어의 어두 경음화는 표현 효과의 기능을 수행한다. 오정란(1988)은 어두 경음화 현상을 사회 심리적 기능의 차원에서 심리적인 강화 욕구에 의한 것으로 문명의 진보로 인간의 물질 문명은 급성장하였으나, 정신적인 공허감이 증가하였고 이러한 심리 상태를 표면에 드러내 보이지 않으려는 자기 방어의 노력이 언어 활동시에는 자기 과시 현상으로 나타난 것이라 분석했다. 이처럼 어두 경음화 현상은 대부분 심리적인 실제로 바라보았다. 기본적으로 근대국어 이후의 어두 경음화 현상은 자신의 심리를 표현하기 위한 기능으로 시작되었다.

물론 4.1에서 제시한 의미 기능이 기본적으로 말하는 화자에 따라 표현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발화될 수도 있다. 그러나 모든 한자어의 어두 경음화 현상이 의미 기능을 실현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한자어의 어두 경음화의 기능으로 표현 효과의 기능을 논하고자 한다.

(14) 건(件), 과(科), 과대(科代), 과대표(科代表), 과방(科房), 과사무실(科事務室), 과자(菓子), 권투(拳鬪), 소주(燒酒), 소주병(燒酒瓶), 소주잔(燒酒盞)

(14)에서 제시한 어휘들은 어두 경음화가 실현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의미에 차이가 없는 경우이다. 이러한 것을 ‘표현 효과의 기능’으로 보고자 한다. 박동근(2000:194)에서는 이러한 대부분의 것들이 실체성 이름씨로 일반적으로 정도 자질을 갖지 않기 때문에 강조의 의미를 실현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한 효과적인 의사 전달을 위한 ‘강화’ 현상으로 보았다.

배혜진·이혁화(2010)에서 ‘세다~썰다, 좁다~쪼다, 쉼다~썩다’와 같이 용언에서는 평음과 경음의 대립에 의해 화자가 묘사하는 대상의 물리적 세기 또는 화자의 감정의 정도를 묘사한다고 하였다. 즉 어두 경음화 실현을 통해 화자가 표현하고자 하는 감정이 드러난다. 이현희(2014)에서는 어두 경음화 현상이 구어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평

30) ‘쫄나다’의 본말인 ‘쫄나다’나 ‘썰얼’의 본말인 ‘썰얼’은 실제 존재하는 어형이 아니다. ‘썰얼’의 ‘썰’은 접두사 ‘썰-’ 어두경음형인 ‘썰-’으로 재구조화한 뒤 ‘-얼’과 결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음에 비해 경음이 후두 긴장 등 발음 부담이 큰데도 불구하고 화자는 청각 인상을 분명히 하려는 목적으로 경음화 시켜 발음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처럼 한자어에서 어두 경음화가 실현되어도 의미에 변화가 없는 것들이나 화자의 표현 욕구 혹은 청각 인상을 분명히 하려고 실현하는 어두 경음화는 표현 효과의 기능이다.

## 5. 맺음말

이 연구는 어두 경음화 현상이 주로 고유어에만 나타나고 한자어의 어두 경음화 현상이 예외적인 현상이라는 입장을 지양하고 고유어와 구별하여 한자어의 어두 경음화의 실현 양상과 그 특징을 관찰하였다. 그 이유는 한자어 자체에서 경음으로 발음되는 것이 적지만 현실 발음에서는 한자어의 어두 경음화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국어의 한자어를 대상으로 어두 경음화 실현 양상과 그 특징을 살피기 위해 먼저 한자어에서 일어나는 어두 경음화의 목록을 제시하고 영향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방언의 어두 경음화와 실태를 비교하였다. 그리고 100명의 피실험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를 통해 어두 경음화 실현에 대한 정도성을 살펴보았다. 또한 어두 경음화에 대한 인식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 인터넷 웹 검색 방법을 활용하여 어두 경음화한 한자어가 표기에는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표기 실태를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한자어의 어두 경음이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는지 논의하였다.

이 연구는 한자어만을 대상으로 어두 경음화 현상을 집중적으로 다룬 특화된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한자어 어두 경음화 현상의 정도성에 대한 부분을 발음과 표기 측면에서 명확한 수치를 통해 살폈다. 다만 한자어의 모든 어휘를 발음 실태 조사에서 살피지 못한 한계는 있다.

## ■ 참고문헌

- 강희숙(2001), 언어의 변화와 보존에 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 한국어문학 47, 한국어문학회, 537-564.
- 김성규 외(2012), 표준 발음법 영향 평가, 국립국어원.
- 김양진(2005), 일음절 한자어 어기의 형태론적 재해석, 어문논집 52, 민족어문학회, 97-120.
- 김유권(2004), 경음화 현상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 겨레어문학 32, 겨레어문학회, 1-23.
- 김형규(1974), 한국 방언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 박동근(2000), 말머리에 나타나는 이유 없는 된소리 현상 연구, 언어학 27, 한국언어학회, 179-200.
- 박동근(2012), 웹 검색 엔진을 활용한 어문규범 오류 실태의 계량적 추출 방법, 언어과학연구 63, 언어과학회, 145-170.
- 박동근(2014), 웹 검색 엔진을 이용한 맞춤법 오류의 변화 양상 연구, 문법교육 21, 한국문법교육학회,
- 배혜진(2014), 탈성지역어의 음운론적 변이와 변화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배혜진·이혁화(2010), 대구 지역 어두경음화의 사회언어학적 고찰, 민족문화논총 46,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301-329.
- 안의정(2007), 국어사전에서의 구어 어휘 선정과 기술 방안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엄태수(1986), 현대국어의 경음화 현상에 대한 연구,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엄태수(1998), 현대국어의 경음화 현상에 대한 검토, 국제어문 19, 국제어문학회, 3-17.
- 엄태수(2006), 현대국어 사이시옷 현상의 검토, 국제어문 38, 국제어문학회, 165-200.
- 엄태수(2007), 한자어의 경음화 현상과 어휘부의 어휘 표시, 새국어교육 77, 한국국어교육학회, 467-488.
- 오정란(1988), 경음의 국어사적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위진(2008), 전남 방언에 나타난 어두 경음화, 한국언어문학 65, 한국언어문학회, 111-135.
- 이미재(1989ㄱ), 언어변화에 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미재(1989ㄴ), 어두 경음화에 관한 사회언어학적 고찰, 『논문집』 7, 수원대학교, 61-73.
- 이미향(2006), 한국어 발음 교수를 위한 한자어 음운현상 고찰, 어문학 92, 한국어문학회, 91-115.
- 이은선(2011), 전주 지역어의 어두 경음화 현상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종병(1985), 어문교육에 입각한 한자어의 음운연구, 원광한문학 2, 원광한문학회, 647-677.
- 이현희(2014), 구어성 언어 단위의 설정과 그 유형, 한글 303, 한글학회, 41-76.
- 임석규(2013), 경음화 남은 몇 문제, 국어학 67, 국어학회, 167-193.
- 임현열(2012), 단음절 고유어의 경음화 양상에 대한 연구, 어문논집 50, 중앙어문학회, 121-149.
- 장승혜(2011), 어두 경음화 현상의 사회언어학적 고찰,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혜숙(2003), 강원도 동해안 방언의 사회언어학적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한명숙(2009), 21세기 새말의 경음 실현 양상, 한국어의 어제 그리고 오늘, 역락.
- 한명숙(2011ㄱ), 한국어의 어두 경음화 현상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한명숙(2011ㄴ), 대학생들의 어두 경음화 실현 및 인지 양상 연구, 겨레어문학 46, 겨레어문학회, 329-370.
- 한명숙(2013ㄱ), 어두 경음화 수치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한말연구 32, 한말연구학회, 393-424.
- 한명숙(2013ㄴ), 한국어 용언의 어두 경음화 현상 연구, 겨레어문학 51, 겨레어문학회, 639-672.
- 한명숙(2014ㄱ), 지역 방언의 어두 경음화 연구사, 한국어 연구의 새로운 모색, 박이정.
- 한명숙(2014ㄴ), 현대국어의 어두 경음화 표기 실태 연구, 겨레어문학 53, 겨레어문학회, 289-321.
- 한영균·이두행(2014), 웹 문서와 인터넷을 이용한 현대 한국어 참조 코퍼스의 구축, 어문학 124, 한국어문학회, 129-166.
- 홍미주(2011), 대구 지역어의 음운변이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홍미주(2014), 어두경음화의 실현 양상과 언어 태도에 대한 연구, 사회언어학 22권 1호, 281-307.

## □ 토론 □

### “현대국어 한자어의 어두 경음화 현상 연구”에 대한 토론문

홍미주(경북대)

이 글은 현대국어 한자어의 어두 경음화 실현 양상과 그 특징을 살펴보는 것이 목적입니다. 특히 기존 연구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았던 한자어를 대상으로 하여 어두경음화의 실현 양상을 살펴본 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두경음화 현상에 대한 연구 성과를 꾸준히 내고 있는 한명숙 선생님의 발표를 듣고 궁금한 몇 가지와 의견을 말하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1. ‘한자어의 어두 경음화가 주로 젊은 층에서 높은 실현율을 보인다’(5쪽)고 했는데, 한자어를 대상으로 한 어두 경음화 실현양상에 대한 조사 결과나 선행연구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 본 연구의 목적이 현대 국어 한자어의 어두경음화 실현 양상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연구의 대상은 일상 구어에서 실현되는 화자들의 구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설문조사를 통해 음운 변이를 관찰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주된 관찰과 분석의 대상은 화자들이 발화하는 실제 음운 변이형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연구에서 설문조사를 통해 음운 변이형의 실현양상을 살펴보는 것이 왜 타당한지에 대해 설득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습니다.
3. 설문 조사 대상 어휘가 29개인데, 이 어휘들을 조사 대상으로 선택한 이유가 충분히 설명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두경음화 실현 정도가 어휘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조사 대상으로 어떤 어휘를 선정하느냐에 따라 연구 결과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에서 언급되었던 어휘와 발표자가 조사한 자료((2), 3쪽) 중 ‘대학생들이 어두를 경음으로 발음하는 경향이 있다고 판단되는 29개 어휘를 선정하였다’(5쪽)고 했습니다. (2)에서 제시한 96개 어휘 중 상다수가 접두사 ‘생-’이 결합하는 단어이고, ‘중국’과 결합하여 복합어를 이루는 단어도 다수입니다. (2)의 목록이 과연 어두경음화의 실현 양상을 살펴보기에 적절한 어휘 목록인지 고민해 봐야할 것입니다. 그리고 설문조사의 대상 어휘 29개 중 5개는 접두사 ‘생-(生)’이 결합하는 단어입니다. 동일한 접두사가 결합하는 다수의 단어를 조사 대상으로 삼는 것이 어떤 부분에서 유용한 것인가요?
4. 한자어의 어두 경음화를 유발하는 구조적인 기제에 대해 논의하면서, ‘어두 위치에서

경음화가 유발될 수 있는 조건은 어두에서 경음이 실현되는 초성의 종류나 어두에 오는 한자어의 형태적 특질 정도를 고려할 수 있다.’(13-14쪽)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것 외에 어휘의 사용 빈도는 고려할 수 없지요? 사용 기반 이론(Usage-based)에 근거하여 빈도 효과와 음운론적 현상들의 연관성에 대한 논의들(이봉원2002, 오재혁2006)을 보면, 사용 빈도와 음운현상의 적용에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봉원(2002)에서는 관형사형 -ㄴ 뒤의 경음화를 논의하면서 관형구성의 빈도와 경음 실현 사이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데 이들의 잦은 사용에 의해 구성 내 단위의 결속력이 높아지고 경음화를 유지, 강화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저 또한 어두경음화와 사용 빈도의 관련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본 적은 없지만 사용 빈도를 살펴보면 어두경음화 실현 기제를 다각도로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평소 이 부분에 대한 선생님의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 현대 국어에서 어두 경음화는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등에서 널리 실현되고 있습니다. 고유어와 한자어의 어두 경음화에 대한 논의는 다수 있으나, 외래어를 포함하여 어두 경음화를 논의한 연구는 적은 듯합니다. 평소 외래어의 어두 경음화에 대한 관찰이나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 【 제 5 분 과 】

# 신경준, <邸井書> ‘훈민정음도해’의 정음 문자관에 대하여

김슬옹(위성턴글로벌대)

## 차 례

1. 머리말
  2. 각종 문헌 계보와 내용 구성의 의미
  3. 연구사에 드러난 <운해훈민정음>에 대한 다면 평가
  4. 세종의 정음 문자관
  5. 신경준의 정음 문자관
  6. 맺음말
- 참고문헌
- [붙임] 여암 신경준(旅菴 申景濬)선생 연보

## 1. 머리말

여암 신경준이 1750년(영조 26)에 필사본으로 퍼낸 한문본 <운해 훈민정음>은 그 중요성에 비해 관련 연구는 충분하지는 않다. 국내 발표 단독 논문이 채 이십 편이 안 될 정도이다. 그러나 초기의 “김윤경(1938), <朝鮮文字及語學史>, 조선기념도서출판관, 최현배(1942), <한글갈>, 정음문화사.” 두 저술을 비롯해서 거의 모든 국어학사에서 매우 비중 있게 다룰 만큼 의미나 가치가 충분하게 조명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또한 강신항(1967)에서 현대말로 번역되었고, 박사학위 논문인 배윤덕(1988), 2012년에는 여암 신경준 선생 탄신 30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도 전남순창군에서 열렸을 만큼 연구 기반이 탄실하게 조성되어 왔다. 따라서 이번 발표는 기존의 연구사를 점검해 보고 ‘훈민정음’ 관련 내용의 국어사적 의미를 재정립해 보고자 한다. 특히 세종의 정음 문자관(김슬옹: 2014)에 의해 재조명함으로써 그 의미와 가치를 다시 되새기고자 한다.

최근 이상규(2014)에 의해 필사본 원본이 조명되어 이 책의 원래 제목이 <邸井書>라는 것이 밝혀졌으므로 정식 제목으로는 <저정서>라 부르고 한편으로는 기존 관례대로 <운해훈민정음>이란 제목을 함께 사용하기로 한다.<sup>1)</sup> <운해 훈민정음>이란 제목은 한자음의 ‘운도’를 훈민정음으로 풀어낸 책 내용과도 가장 잘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 잘 드러났듯이 <여암전서>를 비롯하여 여러 문헌에서 ‘韻解書’로 흔히 불렸기 때문이다.

신경준은 숙종 38년인 1712년에 태어나 정조 5년인 1781년에 운명했다. 그의 본관은 ‘고령’이다. 세종이 중용했던 신장의 11대손으로 세종의 정음 정책 연구의 핵심 인물이면서 외국어에 정통한데다 세종의 정음 정책 연구를 주도했던 정음학자 신숙주, 그의 동생인 신

1) 이 발표문을 거의 완성할 당시에 이상규(2014) 논문을 통해 이러한 사정을 알게 되었다. 흔쾌히 자료 복사와 기존 연구 수정에 많은 도움을 주신 이상규 교수께 감사 드린다.

말주의 10대손이라는 특별한 가정사적 의미도 있다.

이밖에 신경준은 세 가지 측면에서 인물사적 의미를 갖는다. 첫째는 인문 지리를 비롯한 다양한 학문에 정통한 융합 학자였다는 점이다. 지금의 시각으로 보면 세종처럼 과학자이면서 인문학자인 통섭학자였다. <저정서>는 통섭학자가 아니거리는 집필이 어려운 책이다. 둘째는 세종의 정음 문자관을 계승한 정음학자라는 점이다. 세종의 정음 문자관이 고스란히 들어 있는 <훈민정음>(1446)의 해례 부분을 보지 못한 상황에서 그런 문자관에 근접한 사유를 전개했다는 것만으로도 이런 평가를 받을 만하다. 핵심 관점(정음관)이 같으므로 해례의 내용과 그의 저술 내용이 일부 다르다고 해서 실증적 관점에서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셋째는 주류 사대부가 아닌 비주류 사대부 학자라는 점이다. 붙임 연보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다양한 관직을 거치기는 했지만 야인 기질로 살아온 내력이 분명하다. 일부에서 영창대군을 지지하던 소북파 계열이라고 하지만 여암이 주로 활동하던 18세기는 소북파가 소멸한 시점이었다. 이런 비주류성 때문에 오히려 주류 사대부들이 연구 대상으로 삼지 않은 분야의 많은 업적을 남겼다고 볼 수 있다. 그의 다음 세대인 정조 시대 주역이었던 대표적인 실학자들인 정약용, 박지원, 박제가 등이 한글 사용 자체를 거부하거나 부정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면 그의 훈민정음 우수성에 대한 극찬이 어떤 시대적 의미를 띠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sup>2)</sup>

<저정서>는 세종의 ‘정음 문자관’을 계승한 것이다. 이 책의 연구 계보를 유창균(1988) 등에서 ‘서경덕→최석정→신경준’ 등으로 잡았으나 세종의 정음 문자관으로 한정한다면 ‘세종→신숙주→최석정→신경준’으로 잡아야 한다. 서경덕은 심소희(2009)에서 밝혔듯이 중국의 정음 이론을 이은 것이지 세종의 정음문자관을 직접 이은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유창균(1988: 228)에서도 이 책은 훈민정음에 대한 단순한 연구가 아니라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했다. 하나는 경세성음의 체계에 따라 훈민정음의 해석을 시도한 것이며 다른 하나는 훈민정음을 이용하여 경세성음의 체계를 이해해 보자는 것이며 중요한 것은 이 책의 성격으로 보아 그 어느 쪽이든 훈민정음의 보편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보았다. 필자는 김슬옹(2014)에서 새롭게 조명된 세종의 정음 문자관을 중심으로 이 책의 맥락적 가치와 역사적 의미를 조명하고자 한다.

## 2. 각종 문헌 계보와 내용 구성의 의미

최근 필사본 원본이 발견(이상규 2014ㄴ)됨에 따라 그간 각종 필사본이나 활자본, 그리고 영인본 계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sup>3)</sup>

2) 김슬옹(2012), 김슬옹(2013ㄴ) 참조.

3) 이 글을 쓰는 과정에서 여러 도서관에 다양한 필사본이 있음을 알았으나 미처 정밀하게 조사하지 못했다.

<표-1> <운해훈민정음> 필사본과 영인본 현황

갈래	시기	소장자/제작자	해제/소개/분석	영인본
필사본	원본(1750)	대구 조모씨 소장	이상규(2014)	없음 *복사본: 이상규(2014)
재필사본	원본 필사본 (재필사 시기, 필사자 모름)	김원근 소장본. 현재 숭실대학교 기 독교박물관 소장	*재필사본은 국립중 앙도서관, 한국학중앙 연구원 등에 여러 본 이 있음	학선재 편집부 영인 (2007). <訓民正音圖 解>. 학선재.
활자본 (새로짜 기본)	재필사본(김원 근 소장) 활자 화	-조선어학회(1937). <훈민정음운해>. 7회 연재(정인본 해제): <한글> 5권 3호 (1937.3월호) - <한 글> 5권 11호 (1937.12월호). -숭실대학교국어국문 학과 편(1987). <운 해훈민정음>. 태학사 (최태영 해제).		조선어학회: 1938); 대 제각(1985). 한양대학 교부설국학연구원 영인 (1974). <訓民正音韻解/ 諺文志>. 한양대학교부 설국학연구원 (강신항 해제).
아래한글 본(가로 짜기)	필사본 원본, 재필사본, 활 자본 대조	김슬옹		

필사본 원본의 서지 정보는 이상규(2014)에서 핵심만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 (1) 오침 선장본으로 29×18.2cm 크기로 무광 무선 무래로 필사본이다. 책의 표지는 좌측 상단에 큰 글씨로 ‘邸井書’로 서명이 기록되어 있으며 우측 상단에 적은 글씨로 ‘韻書’라는 편명이 기록되어 있다. 본문 1장 1면에 ‘韻書’라는 편명 제목에 이어 <경세성음수도> 도식이 나온다.
- (2) <개합사장(開合四章)>이라는 책은 역시 필사본으로 28.7×18.3cm 크기로 <저정서(邸井書)>와 동일하다. 역시 무광 무선 무래 필사본으로 <저정서(邸井書)>와 동일한 필체로 표지의 우측 상단에 <개합사장(開合四章)>으로 되어있다. 표지 이면에는 “丁丑正月 十八”이라는 기록과 함께 한시 한편이 이 본문은 31운모를 나열한 다음 <개합정운제일장(開合正韻第一章)>이라는 도표가 나온다.
- (3) 필사본의 연대를 추정할만한 확실한 기록이 어디에도 없다.

기본 서지정보가 바깥에 따라 내용 구조도 바뀔 수밖에 없다. 기존의 필사본 자체가 정식 출판된 책이 아니라서 구조가 모호한 부분이 있었고 각 학자마다 내용 구조도를 조금씩 달리 제시 하곤 했다. 기존 구조도 가운데 부록을 분리시킨 정경일(2002: 365)을 중심으로

기준: 정경익(2002: 365) 외      수전야·이사균(2014a: 167)

구성

經世聲音唱和圖	經世聲音數圖
訓民正音圖解	律呂唱和圖
	序
	初聲圖
	初聲配經世數圖
	中聲圖
	中聲配經世數圖
	終聲圖
漢字音	總說
	漢字音韻圖
附錄	中聲今俗之變
	我國韻三聲總圖
	日本韻三聲總圖

韻解	經世聲音唱和圖	經世聲音數圖
	訓民正音圖解	律呂唱和圖
		序
		初聲圖
		初聲配經世數圖
		中聲圖
		中聲配經世數圖
	終聲圖	
開合四章	開合四章	總說
		開口正韻
		開口副韻
		合口正韻
		合口副韻
		中聲今俗之變
		我國韻三聲總圖
附錄		日本韻三聲總圖

같은 구조는 한자음 관련 부분의 제목이 『開合四章』으로 설정되는 차이가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구조는 핵심 구조로서 세부 구조가 드러나지 않는다. 세부 구조와 더불어 내용 글자 수를 함께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3> ‘저정서’ 세부 구조와 한자 수(제목 뺀)

핵심 구조		하위 구조		글자수
韻解	經世聲音唱和圖	經世聲音數圖		544자
		(序)(제목 자체는 없음)		281자
		原聲音之數		365자
		各聲中韻書隸終聲之數		139자
		律呂唱和圖		202자
		(설명)		83자
		律呂唱和聲音有字標者之數		413자
	訓民正音圖解	序		293자
		初聲圖		
		初聲配經世數圖		98자
		初聲解	字母分屬	367자
			七音解	158자
			五音所屬	219자
			象形	172자
			象唇舌	392자
			四音皆自宮生	407자
			五音變聲	1,168자
			辨似	155자
			厝位	208자
			清濁	250자
		中聲圖		16자
		中聲配經世數圖		71자
		初聲合中聲爲字之例		33자
		訓民正音字次序		23자
		終聲合中聲爲字之例		12자
		中聲解	圓圖	565자
			方圖	230자
			象形	322자
			關翕	84자
			定中聲標	281자
		終聲圖		60자
		終聲解	象數	147자
			等位	223자
			分攝	262자
			音攝終聲	249자
			入聲	875자
			語辭終聲	441자
開合四章	開合四章	總說		213자
		切韻		281자
		歷代韻書		400자
			廣韻三十六字母	66자
			韻會三十五字母	69자
			洪武正韻三十一字母	77자
			韻解三十六字母	123자
		開口正韻	開口正韻第一章	783자
		開口副韻	開口副韻 第二章	1,341자
		合口正韻	合口正韻第三章	779자

		合口副韻	合口副韻第四章		441자	859자
		中聲今俗之變			244자	
附錄		我國韻三聲總圖			252자	
			初聲		200자	
			中聲		28자	
			終聲		20자	
		日本韻三聲總圖			246자	
			初聲		70자	
			中聲		23자	
				終聲		
합계						16120자

기본 구조도를 통해 이 책의 의도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중국 운서를 바탕으로 하는 ‘경세성음수도, 율려창화도’를 제시한 후 ‘훈민정음도해’를 통해 한자음을 ‘개구사장’으로 재정립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훈민정음도해’ 부분이 양적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52.2%나 되는 데다 질적으로 보더라도 훈민정음해례본의 해례와 같은 완결성과 독창성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면 한자음 정리가 집필 대상이지만 훈민정음도해 부분이 가장 체계적으로 가장 많이 집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측면 때문에 이 책이 한자음에 대한 책인데도 훈민정음 연구서로 긍정 평가를 해온 것이다.

<표-4> ‘저정서’ 글자수 구성 비율

차례	글자수	비율(% , 반올림)
경세성음창화도	2027자	12.6
훈민정음도해	8417자	52.2
개합사장	4817자	29.9
부록	859자	53.3
합계	16120자	

### 3. 연구사에 드러난 <운해훈민정음>에 대한 다면 평가

신경준을 비롯한 실학자들의 훈민정음 연구에 대한 평가는 최현배(1942)에서와 같은 긍정적 평가가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박태권(1976: 183)에서와 같은 부정적 평가도 있다.

<운해훈민정음>이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조선어학회에서 9회에 걸쳐 활자본을 연재하면서부터이다. 활자본 교열 책임자였던 정인보(1937)의 해제는 짧지만 이 책에 대한 본격적인 평가인 셈이다. 정인보는 이 책은 훈민정음 연구로서 기이하고 오묘하다고 하면서 훈민정음 연구 분야의 중흥조(中興祖)로 받들고 숭상해도 과할 것이 없다고 극찬했다. 이러한 긍정 평가는 최현배(1942)로 이어졌다. 최현배(1942/1960: 290)에서도 한글이 생겨난 지 305년 만에 진리를 파낸 업적으로 “제집 학문으로 향한 학적 노력은 확실히 한글갈(정음학)의 중흥자라 할 만하다.”고 내세웠다. 중국쪽의 허동진(1998: 162)에서는 정음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비교적 깊이 있게 연구하여 성과를 올린 저서로 평가했다. 권재선(1989: 131)에서는 훈민정음 체제를 기저체계로 하는 보편성운 체제를 세우고 이것을 정밀전사체계와 도해이론으로 발전시켜 독자적인 이론을 개척했다고 평가했다.

특정 측면을 부각시킨 긍정 평가도 있다. 유창균·강신항(1961: 71)에서는 훈민정음 창제 이후 가장 고도로 상형설을 전개 발전시킨 것으로 보았다. 다만 이때의 상형설은 자연과학적 관찰에 의한 상형보다는 오행론에 맞춘 역학적 상형인 것이다.

김윤경(1948/1954: 4판: 267)에서는 오음 분류나 상형 등은 원래부터 비과학적인 공상인 역학설(易學說)에 토대한 기술이라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부정적 평가의 맥은 강신항(1967)으로 이어져 예전의 평가들이 이 책의 내용을 완전히 파악하여 이해하지 못하고 <운해>의 앞부분에 실린 <훈민정음도해> 부분만을 중시한 잘못에서 비롯한 것으로 “旅藪의 목적은 韻圖를 작성하여 自己가 바로잡았다고 생각하는 한자음을 표시하는 데 있었다.”고 규정하고 훈민정음은 한낱 “한자음을 위한 발음기호의 존재에 지나지 않았다고 할 수도 있다”고 보았다. 김민수(1982: 167)에서도 정음은 발음 기호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중흥조로 본 정인보(1938), 최현배(1942) 등의 평가는 과찬되었다는 것이다. 또 다른 부정적 평가는 음양오행설과 결부시킨 것을 불합리한 것으로 보는 견해로 박태권(1976: 183)에서는 음양오행설에 중독되었다는 표현을 써가며 부정적으로 보았다.

양면적 평가로는 북한 쪽 연구를 들 수 있다. 김병제(1984: 144)에서는 신경준의 연구는 음운론 측면에서는 큰 성과를 거두었으나 음양오행설을 끌어들이는 것은 부정적으로 보았다. 안경상(2005: 107-108)에서도 말소리와 글자에 대한 분석이 체계적이지만 주역 이론에 기초하여 언어학적 분석을 하여 비과학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은 부족한 점으로 보았다.

현대 언어학 측면에서 양면적 평가를 내린 연구로는 김석득(2009: 202-204)이 두드러진다. 신경준은 국어연구사에서 음소의 정의를 내린 최초의 학자이지만 음소와 음성 및 글자를 혼동하였고, 초성의 분류와 설명이 비교적 정확하지만 초성을 역의 오행(五行) 오장(五臟)에 공식적으로 합리화시킨 것은 무리라고 보았다.

박종국(2012: 217)에서는 훈민정음의 소리의 원리를 역학적으로 설명한 것은 <훈민정음> 해례와 비슷한 것으로 정력적인 저술이지만 형이상학적 기술이 앞선 것은 흠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평가를 종합해 보면 긍정 평가는 훈민정음 해례본의 해례를 보지 않은 상황에서 그 체제나 원리에 근접해 들어간 연구 태도와 성과에 집중되어 있다.<sup>4)</sup> 부정 평가는 음양오행 등의 동양의 역학 철학을 지나치게 내세운 것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이 논문은 오히려 그러한 양면적 평가 대상이 되는 두 요소를 결합한 것이 오히려 세종의 정음 문자관을 계승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긍정 평가의 핵심이 되어야 함을 밝히려는 것이다. 음양오행론은 당대의 보편적 세계관이었을 뿐 아니라 천지자연의 소리를 문자로 담기 위한 전략이기도 했다.

주요 논지를 연도순으로 배열하면 다음과 같다.

김윤경(1938). <朝鮮文字及語學史>. 조선기념도서출판관.

최현배(1942). <한글갈>. 정음문화사.

유창균·강신항(1961). <국어국문학강좌>. 민중서관.

김윤경(1963). <새로 지은>국어학사>. 을유문화사.

4) 최현배(1982: 300)는 “신공은 ‘훈민정음해례’도 보지 않고서 여러 방면으로서 첫소리 글자의 풀본뜨 기법을 주장하였을 뿐 아니라, 나아가야 전연 창시적으로 가운데소리글자까지 모두 풀본뜨기로써 풀이하였으니, 신공의 한글갈은 참으로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 유창균(1969). <신고국어학사>. 형설출판사.
- 김석득(1975). 실학과 국어학의 전개-최석정과 신경준과의 학문적 거리. <동방학지> 16. 연세대 국학연구원. 117-143쪽.
- 김석득(1975). <한국어 연구사>(상, 하). 연세대출판부.
- 박태권(1976). <국어학사 논고>. 샘문화사.
- 강신항(1979). <國語學史>. 보성문화사.<sup>5)</sup>
- 김민수(1980). <신국어학사>. 일조각.
- 김형주(1981). <國語學史>. 학문사.
- 김민수(1982). <신국어학사(전면개정판)>. 일조각.
- 최현배(1982). <한글갈(고친판)>. 정음문화사.
- 김병제(1984). <조선어학사>.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권재선(1988). <국어학 발전사>. 우골담.
- 배운덕(1988). 신경준의 운해 연구: 사성통해와 관련하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유창균(1988). <國語學史>. 형설출판사.
- 강신항(1992). 訓民正音韻解와 申景濬. <訓民正音과 國語學>. 전남대출판부.
- 박종국(1994). <국어학사>. 문지사.
- 이토 히데토(伊藤英人)(1995). 申景濬의 『韻解訓民正音』에 대하여. <국어학> 25. 국어학회. 293-306쪽.
- 김완진·정광·장소원(1997). <국어학사>.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 허동진(1998). <조선어학사>. 한글학회.
- 김일(2001). 신경준의 <훈민정음운해>와 그의 역학적 언어관. <중국조선어문 루게> 113호. 김립성민족사무위원회. 23-26쪽.
- 권택룡(2002). <訓民正音韻解> 籀攝·山攝之研究. <東一文化論叢> 10집. 東一文化獎學財團. 1-14쪽.
- 박태권(2002). <국어학사 연구>. 세종출판사.
- 정경일(2002). <한국 운서의 이해>. 아카넷.
- 배운덕(2005). <우리말 韻書의 研究>. 성신여자대학교 출판부.
- 장소원·이병근·이선영·김동준(2003). <조선시대 국어학사 자료에 대한 기초연구>. 서울대학교 한국학 장기기초연구비지원 연구과제 결과보고서.
- 김영주(2004). 少論系 學人의 言語意識 研究.: <正音> 研究를 중심으로. <東方漢文學> 27집. 동방학문학회. 291-320쪽.
- 이상혁(2004). <조선후기 훈민정음 연구의 역사적 변천>. 역락.
- 이상혁(2004). <훈민정음과 국어연구>. 역락.
- 안경상(2005). <조선어학설사>. 사회과학출판사.
- 김석득(2009). <우리말 연구사>. 태학사.
- 정경일(2009). 한자음 표기와 한글의 위상. <한국어학> 42호. 한국어학회. 1-25쪽.
- 박종국(2012). <우리 국어학사>. 세종학연구원.
- 이토 히데토(伊藤英人)(2012). 旅菴의 한자음-그 한국적 특성과 보편성-. <여암 신경준 선생 탄신 30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논문집>. 전남순창군. 65-90쪽.

5) 강신항(1979·1986: 개정판·1988: 개정증보판). <國語學史>. 보성문화사.

이상규(2014). 여암 신경준의 저정서(邸井書) 분석. <어문론총> 62호 한국문학언어학회.  
153-187쪽.

#### 4. 세종의 정음 문자관<sup>6)</sup>

세종의 정음 문자관의 핵심은 문자는 들리는 모든 소리를 쉬우면서도 과학적으로 적을 수 있는 문자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문자를 만들기 위해 세종은 성리학적 세계관과 고대의 정음 문자관에서 그 지혜를 빌려 왔다.

세종의 정음 사상은 보편성과 특수성을 아울러 중요하게 여기는 성리학 사상을 문자를 통해 제대로 드러내어 더욱 발전시킨 것이다. 문중양(2006: 43)에서 지적했듯이 성리학은 보편적인 ‘천지지성(天地之性)’과 특수성을 강조하는 ‘기질지성(氣質之性)’을 함께 중요하게 여기는 사상체계이다. ‘이일분수(理一分殊)’라는 말에서 드러나 있듯이 각 개체(특수성)에는 보편적 원리가 담겨 있고, 보편성은 각 개체의 특수성을 통해 드러난다.<sup>7)</sup> 이는 개체간의 동질성만을 강조하거나 차이만을 더 강조하는 것이 아닌, 개체간의 같음과 다름을 아울러 강조하는 것이다.

중화의 성리학자들이나 조선의 사대부들은 이러한 세계관을 존중하고 떠받들었으나 실제로는 관념에 그치거나 실제 삶으로 온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세종은 중화의 질서를 존중하고 받아들이되 조선만의 하늘, 조선만의 소리, 조선만의 문자를 주목하고 그 실체와 가치를 드러냈다. 천문에서의 칠정산내편(1441), 음악에서의 아악보(1430), 문자에서의 훈민정음(1446)이 바로 그런 세계관의 실제 결과물이었다. 더 나아가 세종은 우리의 관점으로 천문학을 체계화 하고(제가역상집, 1445), 모든 한자음의 표기 체계를 정비하고(동국정운, 1448) 더 나아가 중국이 천 년 이상 해결하지 못한 소리 적기를 해치운다(홍무정운역훈, 1455).

보편성과 특수성 중심의 성리학적 세계관은 <훈민정음> 해례본 정인지 서문에 잘 드러나 있다.

(1) 천지자연의 소리가 있으면 반드시 천지자연의 문자가 있다. 그러므로 옛 사람이 소리를 바탕으로 글자를 만들어서 만물의 뜻을 통하고, 천지인 삼재의 이치를 실었으니 후세 사람들이 능히 글자를 바꿀 수가 없었다.(有天地自然之聲, 則必有天地自然之文. 所以古人因聲制字, 以通萬物之情以載三才之道, 而後世不能易也.) 『훈민정음』 정인지서

(2) 사방의 풍토가 구별되므로 말소리의 기운 또한 다르다. 대개 중국 이외의 딴 나라 말은 그 말소리에 맞는 글자가 없다. 그래서 중국의 글자를 빌려 소통하도록 쓰고 있는데, 이것은 마치 모난 자루를 둥근 구멍에 끼우는 것과 같으니, 어찌 제대로 소통하는데 막힘이 없겠는가? 요컨대 모든 것은 각각의 처한 곳에 따라 편안하게 할 것이지, 억지로 같게 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然四方風土區別, 聲氣亦隨而異焉. 蓋外國之語, 有其聲而無其字. 假中國之字以通其用, 是猶枘鑿之鉏鋸也. 豈能達而無礙乎. 要皆各隨所處而安, 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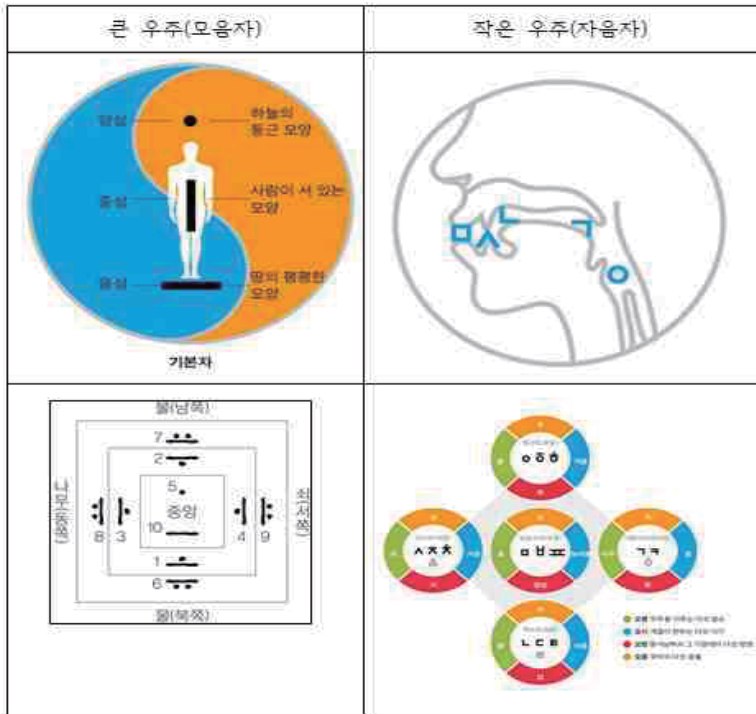
6) 세종의 정음 문자관의 맥락에 대해서는 김슬옹(2014)에서 총체적으로 규명하였다.

7) 성리학적 언어관에 대해서는 강신항(2003년: 17-30) 참조.

可强之使同也)

이렇게 보편적인 세계와 차이로서의 세계가 모두 존중받기 위해서는 음양이 조화로워야 하며(음양조화), 이와 기가 잘 어울려야 하며(이기지묘), 하늘과 땅과 사람이 맡은 바 역할을 하면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삼재지도). 이러한 사상을 말소와 문자에 철저히 적용한 것이 세종의 정음 문자판이다. 중국은 성운학을 통해 학문과 사상으로는 이러한 문자관을 체계화하였으나 말소리를 제대로 적을 수 없는 문자의 한계로 명실상부한 문자관을 이루지는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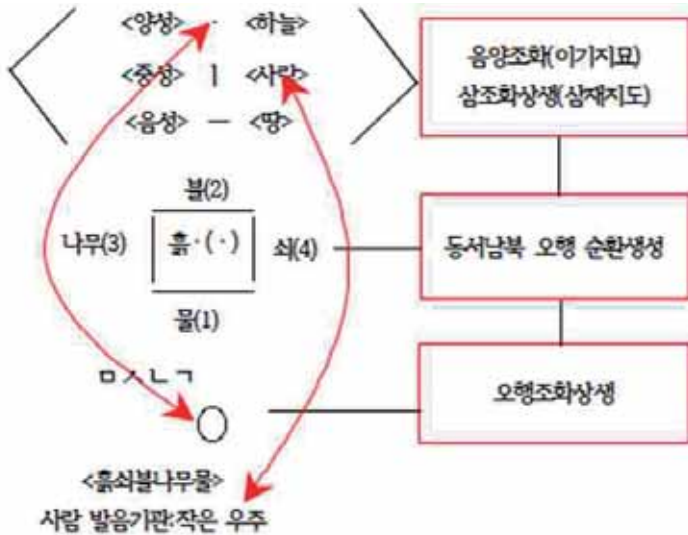
세종이 정음 사상을 실현한 문자를 만들기 위해서 전통의 음양오행 철학, 음악이론, 상수 이론 등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림-1> <훈민정음> 해례본에 나타난 음양오행과 수리론

상수 이론과 음악과 철학 이론 등은 동양의 전통을 따르고 상형 그 자체도 역시 마찬가지다. 단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상형 전략에서 고대 정음판이 이미지 상형에 머무른 반면에 세종은 발성 이치에 따른 과학적인 상형을 했다는 점이다.

또한 중국 고대 정음판에서는 문자 사용 주체에 대한 고려와 실제 소통 문제가 빠져 있는데 세종의 정음 문자에서는 이런 점이 철저히 검토되고 적용되어 그야말로 실제 소통에서 가장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정음 문자 창제와 반포에 성공한 것이다. 곧 보편성과 특수성의 융합 원리와 자연주의 철학과 과학 생성주의의 융합 원리를 바탕으로 새로운 문자 창제와 보급에 성공했다.



<그림-2> 훈민정음의 자모음 기본자에 적용한 음양 오행론(김슬옹, 2014: 31)

## 5. 신경준의 정음 문자관

### 1) 보편 문자관

신경준의 정음 문자관의 핵심은 바로 세종이 상형 과학 전략과 음양오행 철학 전략을 철저히 결합한 정음 문자관을 거의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또 다른 역사적, 맥락적 의미는 세종의 그런 문자관을 해설한 책인 <훈민정음>(1446) 해례본을 보지 않은 상황에서 훈민정음 문자를 통해 그런 문자관을 구축한 것이다.

훈민정음에 대한 연구는 제자 원리 측면에서 <훈민정음>(1446) 해례본이 발견되기 전의 연구와 발견 된 후의 연구로 나뉜다. 이렇게 해례본이 기점이 되는 것은 해례본 자체가 훈민정음의 핵심 기원이 되기 때문이고 그런 중요한 문헌이 어느 때부터인가 안 보이었다가 1940년에 와서야 발견되기 때문이다.

물론 이 책의 일부(어제 서문, 예의, 정인지 서문)는 세종실록에 수록되었고 어제 서문과 예의는 1459년(세조 5년)에 <월인석보>에 실려 이와 관련된 언급이나 연구는 많지는 않지만 이어져 왔다. 그러나 창제의 배경과 원리 등을 자세히 기술한 해례는 이 책이 발견되기 전까지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언제부터 공개 장소에서 안 보이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이 책을 대상으로 한 언급이나 직접적인 연구조차 없다. <청장관전서>라는 백과사전을 펴낸 이덕무조차 다음과 같이 문창살 모방설을 전하면서 잘못된 한자 자형 기원설을 적어 놓았을 정도이다.

(1) 세속에 전하기를 “장헌대왕(莊憲大王 장헌은 세종대왕의 시호)이 일찍이 변소에서 문살을 배열(排列)하다가 문득 깨닫고 성삼문(成三問) 등에게 명하여 창제(創製)하였다.” 한다.

(2) 훈민정음에 초성(初聲)·중성(終聲)이 통용되는 8자는 다 고전(古篆)의 형상이다. ㄱ 고문(古文)의 급(及)자에서 나온 것인데, 물건들이 서로 어울림을 형상한 것이다. ㄴ 익(匿)자에서 나온 것인데, 은(隱)과 같이 읽는다. ㄷ 물건을 담는 그릇 모양인데, 방(方)자와 같이 읽는다. ㄹ 전서(篆書)의 기(己)자이다. ㅁ 옛날의 위(圍)자이다. ㅂ 전서의 구(口)자이다. ㅅ 전서의 인(人)자이다. ㅇ 옛날의 원(圓)자이다. ㅊ 위아래로 통하는 것이니, 고(古)와 본(本)의 변절이다. 변절(翻切)·세속에서는 언문(諺文)으로 반절(反切)이라 하여 반(反)자를 배반한다는 반(反)자로 읽고 반절(反切)의 반(反)자 음(音)이 변(翻)인 줄은 알지 못한다. 1행(行)에 각각 11자이다.



<그림-3> <훈민정음(1446)> 해례 본 입체 구조도(빨간색: 세종실록 수록 부분, 보라색: 전해된 부분, 별표: 1940년 해례본 발견으로 처음 알려진 부분)

<훈몽자회>(1527)을 통해 훈민정음 보급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최세진조차도 이 책에 대한 또는 해례의 주요 내용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제대로 된 연구조차 이루어지지 않다가 17-19세기에 실학자들의 훈민정음 연구가 나오게 된다. 당연히 해례본을 보지 못한 상황에서의 연구였고 그래서 더욱 이런 연구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sup>8)</sup> 더욱이 신경준의 ‘훈민정음도해’ 연구는 해례를 보지 않은 상황에서 그에 준하는 연구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두루 알려진 사실을 다시 상세히 언급하는 것은 신경준의 훈민정음 연구의 가치는 <훈민정음(1446)> 해례본 연구가 지속 발전하지 못하고 아주 빠른 시기에 단절되었다는 데서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해례본이 1940년에야 발견되었다는 의미와는 조금 다른 관점이다. 그 단서는 세조가 1459년에 직접 펴낸 <월인석보> 수록 훈민정음 언해본에서 찾을 수 있다. 해례본 가운데 서문과 예의만이 번역과 주석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해례본 보급과 연구의 발전 측면이지만 핵심 내용을 담고 있는 해례의 연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해례본의 연구와 가치 평가가 일정 부분 단절되었음을 보여주는 반증이기도 하다.

세조는 왕자 시절부터 훈민정음을 반포 작업에 핵심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석보상절> 등의 저술을 통해 매우 큰 훈민정음 발전 공로를 남긴 사람이기도 했다. 해례본의 내용을 가장 잘 알고 더욱 보급해야 할 실권자이기도 했다. 간경도감을 설치하여 불경언해서를 직접 널리 펴내고 퍼뜨린 것은 훈민정음 발전 측면에서 대단한 공로를 남긴 것이기는 하지만 해례본의 일부만을 언해한 것을 펴낸 것은 역설적이게도 해례본이 단절되는 역효과를 낸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해례본이 언제부터 사라졌는지는 알 수 없다. 반포 이후에 해례본이 어떻게 보급되고 어떤 영향을 끼쳤으며 어떻게 보급되었는지 전혀 기록이 없기 때문이다. 연산군의 언문 탄압 때 많이 사라졌다 하더라도 그 이전에 충분한 연구와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 먼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만일 해례본의 해례가 해례본 관련 주제들이 살아 있는 동안에 언해되었거나 연구되었다면 연산군의 언문 탄압의 영향이 아무리 컸다 하더라도 1940년 해례본이 발견되기까지 무려 449년이나 해례를 보지 못한 역사와 연구의 단절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신경준의 정음관은 훈민정음도해 부분 서문으로 밝혀 놓았다.

우리 겨레는 옛날부터 세속에서 써오던 문자가 있었으나 그 수가 완전하지 않고, 그 모양도 짜임새가 없어 그 문자로 어떤 말을 하거나 쓰기에 모자랐다.<sup>9)</sup> 그런데 1446년(정통 병인년)에 우리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을 지었는데 그 예는 반절법의 뜻을 취하고, 그 모양은 서로 연결하여 바꾸고 한 배(획)를 더하는 방법을 응용하였다. 그 글자의 점과 획은 매우 간결하나 맑은 소리와

8) 김민수(1982: 168)에서 “여암은 <훈민정음해례>를 보지 못하고 자형의 발음기관상형설을 창안하였다. 전에는 이런 견해가 따로 없어서 가장 훌륭한 연구로 평가되었지만, 이제 ‘해례’와 다른 하나의 가능한 상형설로 보게 되었다.”

9) 이때의 속용문자가 가림토문자와 같은 것인지 이두 김민수(1982: 168)에서의 주장처럼 이두를 가리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가림토문이라 하면 단 한 건도 쓰인 증거가 없는 문자를 세속에서 두루 쓴 것처럼 표현할 리가 없고 이두로 보면 쓰기 시작한 시기가 비교적 명확(삼국시대)하고 18세기에도 각종 행정 문서로 쓰고 있는 상황인데 왜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가가 의문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도 이두설이 더 타당해 보인다.

탁한 소리, 열린 소리와 닫힌 소리 그리고 첫소리·가운뎃소리·끝소리 세 소리가 빛나게 보이니 마치 하나의 그림자와 같다. 그 문자 수는 많지 않지만 두루 쓰이며, 글을 쓰기가 매우 편하고, 배우기도 매우 쉬우며, 온갖 말을 낱말이 모두 쓸 수 있다. 비록 부녀자나 아주 어린 아이들이나 어리석은 이라도 모두 이 글자를 써서, 그 말을 전달하고 그 뜻을 통할 수 있다. 이는 옛 성인도 밝혀 얻지 못한 것이며 온 천하를 통틀어 없는 것이다.<sup>10)</sup>

여기서 주목할 점은 “그 모양은 서로 연결하여 바꾸고 한 배(획)를 더하는 방법을 응용”라고 한데서 알 수 있듯이 훈민정음 제자 원리를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간결한 점과 획으로 이루어진 훈민정음으로 “맑은 소리와 탁한 소리, 열린 소리와 닫힌 소리”와 같은 보편적인 말소리의 속성을 문자로 효율적으로 자연스럽게 표기할 수 있다는 점과 우리말의 ‘첫소리·가운뎃소리·끝소리 세 소리’의 특성을 그대로 적을 수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보편적 우수성을 강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다른 나라 문자를 비교하기도 했다.

<표-5> 아홉 나라의 여덟 글자채 비교(번역 재구성)

나라	明	王	愼	德	四	夷	威	賓
인도(西天)	𑖀	𑖄	𑖂	𑖆	𑖈	𑖊	𑖌	𑖎
여진(女眞)	ᡤᡠ	ᡤᡠᡵᡠ	ᡤᡠᡵᡠ	ᡤᡠᡵᡠ	ᡤᡠᡵᡠ	ᡤᡠᡵᡠ	ᡤᡠᡵᡠ	ᡤᡠᡵᡠ
몽골(韃靼)	ᠮᠤ	ᠮᠤᠨ	ᠮᠤᠨ	ᠮᠤᠨ	ᠮᠤᠨ	ᠮᠤᠨ	ᠮᠤᠨ	ᠮᠤᠨ
위궤(高昌)	𐰇	𐰇	𐰇	𐰇	𐰇	𐰇	𐰇	𐰇
아랍(回回)	ا	ا	ا	ا	ا	ا	ا	ا
티베트(西番)	ཨ	ཨ	ཨ	ཨ	ཨ	ཨ	ཨ	ཨ
타이족(百夷)	ᦺ	ᦺ	ᦺ	ᦺ	ᦺ	ᦺ	ᦺ	ᦺ
미얀마(緬甸)	မ	မ	မ	မ	မ	မ	မ	မ
팔백족 <sup>11)</sup> (八百)	ᦹ	ᦹ	ᦹ	ᦹ	ᦹ	ᦹ	ᦹ	ᦹ
덧붙임								
일본(日本)	あ	い	う	え	お	か	き	く

위와 같은 비교를 통해 신경준은 “여러 나라에는 나라마다 사용하는 문자가 있다. 고려 충숙왕 때에 원나라 공자가 위구르문자를 썼는데,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 알지는 못하지만 아홉 통역자가 ‘죽오문’이라는 옛 문자를 쓴 것을 보건대 모두 거칠고 어지러워서 규칙(일관성)이 없음이 분명하다.”<sup>12)</sup>하여 규칙성을 보편적 문자의 중요한 잣대로 삼았다. 그래서 “훈

10) 東方舊有俗用文字,而其數不備,其形無法,不足以形一方之言,而備一方之用也.正統丙寅,我 世宗大王製訓民正音,其例取反切之義,其象用交易變易加一倍之法,其文點畫甚簡,而清濁闕翕初中終音聲,燦然具著,如一影子,其爲字不多,而其爲用之周,書之甚便,而學之甚易,千言萬語,纖悉形容,雖婦孺童駉,皆得以用之,以達其辭,以通其情,此古聖人之未及究得,而通天下所無者也. \_운해 훈민정음

11) 벼마와 태국 사이에 거주했던 어떤 종족이라 하나 그 실체를 알 수 없어 한자음을 현대음으로 읽어 적음.

12) 諸國各有所用文字,高麗忠肅王時,元公主所用畏吾兒,未知其如何,而以九象得所書旅獒文者觀之,皆不免荒亂無章.

민정음은 우리나라에만 혜택이 미치는 것이 아니라 천하 말소리의 큰 경전<sup>13)</sup>이라고 훈민정음 보편성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어서 ‘운해’가 세종의 뜻을 그림표이로 잇는 것임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그러나 성인(세종대왕)께서 지으신 뜻이 매우 정묘하고 또한 깊어 그 당시의 공자·맹자의 뜻을 따르는 관리들도 그것을 풀어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해 후세의 백성들도 날마다 쓰지만 말소리의 이치를 알지 못했다. 그래서 이미 밝게 깨쳐있던 것들도 다시 몰라 후회스럽게 된다. 그런데 한없이 부족한 나 같은 사람이 어찌 감히 그 오래 연구해서 얻은 그 깊디깊은 이치를 조금이라도 알까 마는 내 부족한 생각으로나마 그림표이를 만들어서 감히 선왕 세종대왕의 덕을 잊지 못하는 뜻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다.<sup>14)</sup>

이상을 종합해 보면, 이상혁(2004:55)에서 지적한 것처럼 “훈민정음은 대내적으로 고유어와 조선 한자음을 기록하는 우리 고유의 문자 체계인 동시에 보편적으로는(대외적으로는) 중국 한자음인 화음을 완전히 전사할 수 있는 기호 체계”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더욱이 온갖 말을 다 적을 수 있는 장점에 주목했다.

## 2) 다면적 입체 상형설

신경준은 정음문자관을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상형론으로 풀어냈다.<sup>15)</sup> 상형론은 줄고 김슬옹(2014)에서 밝혔듯이 동양의 정음문자관의 핵심 원리였고 세종도 기본 문자 체자 원리로 상형 이론을 적용했다. 차이가 있다면 자음의 경우 세종은 자연과학적 상형 원리만 적용했지만 신경준은 자연과학적 접근 외 역학적 상형론까지 적용하였고 더 나아가 하나의 문자에 대해 다면적인 상형론을 적용하였다.

먼저 신경준은 자음자의 발음기관 특성을 정리했다. 오음의 발음기관 위치는 언해본이나 실록본을 통해 드러나 있던 것이므로 새삼스러울 것은 없지만 이를 몸의 기관과 연결한 점이 독특하다. 이를 좀 더 정밀하게 드러내기 위해 ‘예의편’에서 드러나 있는 ‘아설순치후’의 틀을 깨고 발음기관의 순서에 따라 ‘후아설치순’으로 차례로 구성하였다.

따라서 후음은 지라[脾]에서 나와서 목구멍[喉]에서 이루어짐. 약간 어금니[牙]를 겸한다고 했고 아음은 간[肝]에서 나 어금니[牙]에서 이루어지고 설음은 심장[心]에서 나서 혀[舌]에서 이루어지고, 치음은 부하[肺]에서 나와서 이[齒]에서, 순음은 콩팥[腎]에서 나와서 입술에서, 반설검후음은 반혀[半舌]에서 나는데 목구멍[喉]을 겸하고 반치검후음은 반이[半齒]에서 나는데 목구멍을 겸한다고 했다.<sup>16)</sup>

13) 則正音不止惠我一方.而可以爲天下聲音大典也

14) 然而聖人製作之意.至微且深.當時儒臣解之而未盡.後世百姓.日用而不知.聲音之道.既明者將復晦矣.若賤臣者.何敢與知其蘊奧之萬一.而管窺蠡測.爲此圖解.以寓於數不忘之意而已.

15) 강신항(1967: 32-37), 김석득(1975, 상: 152-156), 유창균(1988: 236-243)

16) 喻○·影ㄱ·曉ㄴ·匣ㄷ屬宮土音.生於脾.成於喉而微兼牙.疑○·見ㄱ·溪ㄴ群ㄷ屬角木音.生於刊而成於牙.泥ㄴ·端ㄷ·透ㄸ·支ㄷ·孃ㄴ·知ㄷ屬澄火音.生於心.成於舌.而泥·端·透·定.爲舌頭音.孃·知·徹·澄.爲舌上音.心入·精ㅈ·淸ㅊ·邪ㅅ·從ㅆ·審ㅈ·照ㅊ·穿ㅌ·禪ㅍ·牀ㅍ屬商金音.生於肺.成於齒而心·精·淸·邪·從.爲齒頭音.審·照·穿·禪.爲正齒音.明口·幫ㅁ·滂ㅍ·並ㅍ.微ㅍ·非ㅍ·敷ㅍ·奉ㅍ屬羽水音.生於腎.成於脣而明·幫·滂·並.爲重脣音微·非·敷·奉.爲輕脣音



<표-6> 신경준의 자음자의 발음기관 설명

5음	자음자	발음 특성과 발음기관	음계	5행
후음	ㅇ 喻 ㄱ 喻 ㄱ 喻 ㄱ 喻	지라[脾]에서 나와서 목구멍[喉]에서 이루어짐. 약간 어금니[牙]를 겸함.	궁	토
아음	ㅇ 疑 ㄴ 疑 ㄴ 疑 ㄴ 疑	간[肝]에서 나 어금니[牙]에서 이루어짐	각	목
설음	설두음 ㄴ 泥 ㄴ 泥 ㄴ 泥 ㄴ 泥	심장[心]에서 나서 혀[舌]에서 이루어짐.	치	화
	설상음 ㄴ 孃 ㄴ 知 ㄴ 徹 ㄴ 澄		상	금
치음	치두음 ㄴ 心 ㄴ 精 ㄴ 清 ㄴ 邪 ㄴ 從	부하[肺]에서 나와서 이[齒]에서 이루어짐.	우	수
	정치음 ㄴ 室 ㄴ 照 ㄴ 穿 ㄴ 禪 ㄴ 牀			
순음	중순음 ㄴ 口 明 ㄴ 幫 ㄴ 滂 ㄴ 滂 ㄴ 滂	콩팥[腎]에서 나와서 입술에서 이루어짐		
	경순음 ㄴ 微 ㄴ 非 ㄴ 敷 ㄴ 奉			
반설겸후음	ㄴ 來	반혀[半舌]에서 나는데 목구멍[喉]을 겸함		
반치겸후음	ㄴ 日	반이[半齒]에서 나는데 목구멍을 겸함.		

이러한 발음기관 특성과 발음 위치 설명과 더불어 오행 상형설과 발음 과정 상형설을 내세웠다. 분별하기 좋게 표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7> 기본 자음자의 오행상형설

기본자	오음	오행상형설	
ㅇ	궁(후)	땅이 둥글고 두루 차서 사방이 모자람이 없는 꼴 (土之圓滿周編四方無缺之象)	합함(合)
ㅇ	각(아)	나무가 싹이 돋근 땅에서 솟아나는 꼴 (木之芒芽自土而湧出之象)	날랴(湧)
ㄴ	치(설)	불꽃이 퍼져 타오르는 꼴(火之炎而上燃之象)	나뉘((分)
ㄴ	상(치)	쇠가 날카로와 켜기는 꼴(金之尖銳而張決之象)	썩김(張)
ㄴ	우(순)	물이 모여 구덩이 찬 꼴(水之聚會而盈坎之象)	토함(吐)

두 상형설 모두 해례본에 그대로는 없는 내용이지만 오행상형설의 경우 세종의 정음관에서 나타나 있듯이 발음기관과 발음의 특성 설명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발음 과정 상형설도 해례본에 없는 내용이지만 자연과학적 상형을 더 깊게 적용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미음의 경우는 미음의 발음과정을 정확히 관찰하여 적용하고 있다. 해례본에 나오는 미음에 대한 제자원리(순음 ㄴ은 입(口) 꼴을 본떴다<sup>17)</sup>)설명을 잘못 이해하여 일부 언어학자들과 교과서 편찬자들이 잘못된 그림(입 벌린 그림)으로 드러낸 것에 비하면 신경준의 설명은 오히려 더 합리적이다. 권재선(2014: 8)의 설명처럼 ‘ㄴ’은 자음이 숨길의 통로인 입술을 완전히 막고 연구개에서 کوت길을 띄어 숨이 코로 나가게 하는 소리이므로 ‘입술이 합한 꼴’을 본떠야 한다. 아래 표

而兼齒.來ㄴ屬半德.半火音.生於半舌而兼喉.日ㄴ屬半商.半金音.生於半齒而兼而兼喉.운해훈민정음 ‘자모분속’

17) 唇音口 象口形

는 2012년 김인정 고등학교 교과서 그림만 모아 놓은 것이다(김진희: 2012).

<표-8> ‘口’ 상형도 모음(교과서)

차례	교과서	순음(口)	차례	교과서	순음(口)
1	미래엔컬쳐		5	디딤돌	
2	천재교육 (김종철 외)		6	지학사 (박갑수 외)	
3	창비		7	더텍스트	
4	금성		8	교학사 (조남현 외)	

<표-9> 기본 자음자의 발음 과정 상형설(분석 상형)

기본자	오음	발음 과정 상형	처음소리(初聲)	끝남소리(終聲)
ㅇ	궁(후)	혀가 가운데 있고 입술은 조금 합한 것을 본뜸 (舌居中而脣微合)	ㅇ	
ㅁ	각(아)	짧은 이(ㅣ)는 혀를 약간 토하고 ㅁ을 발음할 때는 입술을 조금 합친 것을 본뜸(ㅣ時舌微吐.而 ㅁ時脣微合)	ㅣ (伊)-	- ㅁ (凝)
ㄴ	치(설)	ㅣ는 혀가 위에서 아랫 잇몸에 닿고, -는 혀가 아래에서 웃잇몸에 닿음을 본뜸(ㅣ時舌自上而抵 下脣.一時舌自下而抵上脣)	ㅣ (尼)-	- ㄴ (隱)
ㄷ	상(치)	/는 잇몸이 조금 왼쪽으로 빗기고 \는 입술이 조금 오른쪽으로 빗김을 본뜸(時脣微斜左. \時脣微斜右) <sup>18)</sup>	/ (時)-	- \ (衣)
ㅂ	우(순)	ㅂ는 ㅁ을 발음할 때 입술이 처음엔 합하였다가 열리는 모습을, ㅂ는 ㅁ을 발음할 때 입술이 닫히는 모습을 본뜸(ㅂ時脣始合旋開ㅂ時脣閉)	ㅂ (彌)-	- ㅂ (音)

이러한 신경준의 발음 과정 상형에 대해 김석득(2009: 189-190)에서는 다음과 같이 두

18) 세종이 제자 원리를 해례본에서 기술하고 있지만 참고문헌을 밝혀 놓지 않아 역사적 맥락에 대한 다양한 추론과 해석이 이루어져 왔다. 특히 “上親制諺文二十八字，其字倣古篆(임금께서 친히 언문 28자를 만드니, 그 문자는 고전을 본떴다.)” 『세종실록』 1443/12/30”과 관련해 다양한 설이 존재하는데 중국의 육서 제자 원리설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고 시옷에 대한 신경준의 설명은 그런 설과 연관되어 있다. 육서 모방설에 대해서는 김상태(2012) 참조. 필자(김슬옹, 2014)는 이때의 자방 고전은 소리를 문자에 담으려는 고대 문자관으로 보았다.

가지 점에서 현대 과학적 의미를 갖는다고 했다.

첫째, 조음체인 입술 혀를 오행 중, 가장 동적인 물불로 비유하여, 물불인 입술 혀의 조음 상태를 가장 쉽게 볼 수 있다 하고, 입술 혀 상형을 내세운 것은, 조음체의 운동 작용에 대한 정밀한 관찰력을 보인 것이다. 둘째, 소리를 심리적 실체로 파악하고, 이 심리적 실체를 조음할 때 입술과 혀를 조음체 가운데 가장 적극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인식한 것은 오늘날 조음 음성학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김석득(2009: 190)은 이와 같은 긍정 평가에도 여러 상형설로 접근한 것은 비판적으로 보았다. 이런 비판은 일리는 있지만 신경준의 다면 상형설은 모음자는 천지인을 상형하고 자음자는 발음기관을 상형하는 다중 상형 전략과는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세종의 상형 전략이 자음자와 모음자의 일관성을 보여주지 못한 반면에 신경준은 중성자에도 혀와 입술을 중심으로 한 상형 전략을 적용하는 자음과의 일관성을 보여 주고 있다.

<표-10> 모음자의 상형 원리

갈래	혀 모양새	입술 모양새	상형
.	혀를 조금 움직임(舌微動)	입술을 조금 엮(脣微啓)	모음이 처음으로 생긴 것으로 그 모양이 희미하여, 미처 확을 이루지 못함(聲之始生者 其形微, 未及成齒)
..			·를 나란히 놓음(並)
一	혀를 평평히 하고 위로 올리지도 않고 아래로 내리지도 않음(舌平而不上下)	조금 열되 여는 듯 합하는 듯이 발음(脣微啓而不開不合)	가로로 처음 생긴 것(橫之始生者)
丨	혀를 위로부터 아래로 움직임(舌自上而下)	입술을 조금 기울임(脣微斜)	세로로 처음 생긴 것(縱之始生者)
ㄱ, ㄲ	혀말기(舌卷)	입술을 오몰여 안쪽으로 들이밌(脣縮向內)	하나는 홀수가 되고, 하나는 짝수가 되어, 위로 이루어지는 것(一奇一耦上之成)
ㄷ, ㄸ	혀내밀기(舌吐)	입술을 모아 바깥으로 내밌(脣撮向外)	하나는 홀수가 되고, 하나는 짝수가 되어, 아래로 이루어지는 것(一奇一耦下之成)
ㄱ, ㅋ	혀 기울여 열기(舌斜開)	입술 기울여 열되 조금 함함(脣斜開而少合)	하나는 홀수가 되고, 하나는 짝수가 되어, 왼쪽으로 이루어지는 것(一奇一耦左之成)
ㄴ, ㄷ	혀 기울여 열기(舌斜開)	입술 기울여 열되 조금 엮(脣斜開而久開)	하나는 홀수가 되고, 하나는 짝수가 되어, 오른쪽으로 이루어지는 것(一奇一耦右之成)

### 3) 다단계 입체 생성론

신경준이 세종 정음 문자관과 일치하는 두 번째는 문자의 생성 전략이다. 세종은 다단계 생성 전략에 의해 원형문자 8자를 바탕으로 단계별로 확장하여 무려 69자의 문자를 제시했다(해례본). IPA와 같은 다양한 외국어와 사람의 다양한 말소리 표기를 위해 이현복(1981), 권계선(1999), Sek Yen Kim-Cho(김석연 2001), 진용옥 외(1999), 서정수 외(2003), 진용옥(2004), 반재원·허정운(2007), 정원수(2010), 광경 외(2011) 다양한 훈민정음식 발음기호가 등장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 때문이다.

<표-11> 훈민정음 ‘원형문자-기본문자’ 중심 글자 수 관계(김슬옹 2013ㄷ: 26)

갈래	원형문자	확장문자	기본문자	응용문자	최종
자음자	5	12	17	23	40
모음자	3	8	11	18	29
합계	8	20	28	41	69

훈민정음의 이러한 생성 원리는 다른 나라의 말소리까지도 적을 수 있는 핵심 장치이자 원리인데 신경준은 이 점에 대해 매우 높은 안목과 실제 전략을 보여 주었다.

<표-12> 신경준의 단계별 생성

기본자	1차 생성자	2차 생성자	3차 생성자	오음	오행
ㅇ	ㅇ ㅁ ㅎ ㅎ			궁	土
ㅁ	ㅁ ㄱ ㅋ ㄱ			각	木
ㄴ	ㄴ ㄷ ㅌ ㄷ	ㄴ ㅌ ㅌ ㄴ	ㄴ	치	火
ㅈ	ㅈ ㅈ ㅈ ㅈ	ㅈ ㅈ ㅈ ㅈ	ㅈ	상	金
ㅍ	ㅍ ㅍ ㅍ ㅍ	ㅍ ㅍ ㅍ ㅍ		우	水

#### 4) 입체 역이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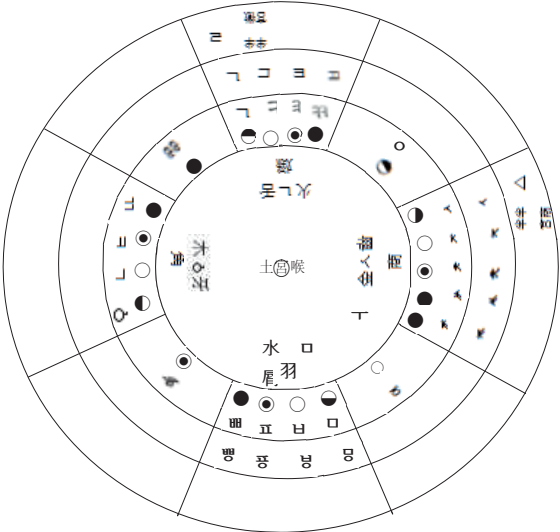
세종은 ‘천지자연지성 천지자연지문’을 철저히 이루기 위해 상형론과 음양오행론을 다음과 같이 철저히 결합했다.

<표-13> 자음의 음양오행론 분류(훈민정음 해례본 해례 내용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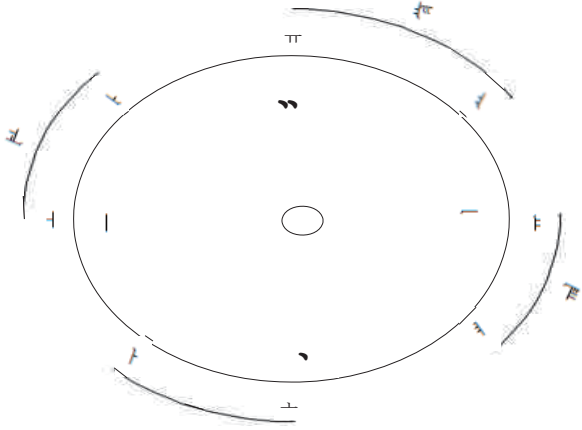
구분\오음	목소리(후음)	어금닛소리(아음)	혓소리(설음)	잇소리(치음)	입술소리(순음)
초성	ㄱ ㅋ ㅎ ㅇ	ㄴ ㄷ ㄱ ㅇ	ㄷ ㅌ ㄴ [ㄴ]	ㅈ ㅈ ㅈ ㅈ [ㅈ]	ㅍ ㅍ ㅍ ㅍ
발음기관 성질	깊고 윤택함	어긋나고 깊	예민하게 움직임	단단하고 부러짐	모지고 함함
발음 성질	허하고 통함	야무지고 싹함	구르고 날림	부스러지고 걸림	넓고 큼을 머금음
오행	물	나무	불	쇠	흙
오음	우	각	치	상	궁
사철	겨울	봄	여름	가을	늦여름
방위	북	동	남	서	중앙
오장(五臟)	콩팥(신장)	간(간장)	가슴(심장)	허파(폐장)	지라(비장)
오상(五常)	지	인	예	의	신

오행론은 동양의 보편적 사상이었지만 훈민정음과 오행의 상관관계가 자세히 쓰여 있는 해례를 보지 않은 상황에서 그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세밀하게 풀어내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신경준은 그러한 오행론을 다음 초성도와 중성도 그림을 풀어내 그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오행과 방위와 층위를 결합하여 입체적으로 시각적으로 보여줌으로써 말소리와 문자에 담긴 훈민정음 철학의 가치와 의미를 집약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림-4> 초성도(신경준)



<그림-5> 중성도

중성도의 경우는 태극 음양과 방위로 풀어내고 있다.

중양의 ○은 태극이다. 태극이 움직여 하나의 양이 생겨서 ·가 되니, 하늘이 하나인 것을 본뜬 것이고, 방위는 북쪽이다. 태극이 고요하면 하나의 음이 생겨서 …가 되니, 땅이 들임을 본뜬 것이고, 방위로는 남쪽이다.<sup>19)</sup>–줄임

가로 그은 것은 양이라 동쪽에 있고, 세로 그은 것은 음이라 서쪽에 있어서, 한 획을 세로 위에다 긋고, 한 획을 가로 아래에다 그르면 ㄱ가 되고, 한 획을 세로에다 긋고 한 획을 가로 위에다 그으면 ㄷ가 되며, 두 획을 세로 위에다 긋고 한 획을 그 아래에 그으면 ㄹ가 된다.<sup>20)</sup>

이와 같은 설명은 ‘하늘아(·)’를 모든 모음에 관통하는 것으로 본 해례본의 취지에 잘 들어맞는다. 음양의 이치는 다르지만 모음에서 하늘과 땅과 사람의 조화를 강조하면서 음양을 적용하고 합성 원리를 통해 모음자의 확장과 철학적 배치를 했던 해례의 의도를 그대로 따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일부에서 이러한 역학 이론을 중시하는 태도를 비판적으로 바라보지만 당대의 세계관으로 보면 훈민정음이야말로 역학 이론의 가치와 의미를 더 잘 드러내 주는 긍정성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것은 과학적인 상형 원리와 결합하여 문자의 가치와 의미를 더 높여 주기 때문이다.

## 5) 세종의 정음 문자관 계보에 대하여

세종의 정음 문자관은 말소리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가장 잘 반영한 가장 자연스러우면서도 과학적인 문자인 훈민정음 창제가 가능하게 한 문자관이기도 하고 실제 훈민정음이 담고 있는 문자관이기도 하다. 이러한 세종의 문자관은 신숙주를 비롯한 정음 학자들에 의해 더욱 발전되었고 최석정을 거쳐 신경준에게로 이어졌다. 신숙주의 각종 저술은 세종 기획에 의한 것이지만 신숙주를 세종의 정음 문자관을 잇는 독립된 학자로 자리매김하는 것은 다음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정음정책의 핵심 역할을 하면서 가장 많은 업적을 남긴 정음학자였기 때문이다. 최석정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므로 여기서는 생각하고 계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따로 세울 것이다.

19) 中之○太極也.太極動而一陽生.爲·.天一之象也.居北.靜而一陰生.爲·.地二之象也.居南.

20) 橫.陽也.居東.縱.陰也.居西.一縱上一橫下而爲ㄱ.一縱下.一橫上而爲ㄷ.二縱上.一橫下而爲ㄹ.

<표-14> 15세기 성운학자들의 인맥 형성 관계(조오현, 2010:372-373)

	문화번역	훈민정음 레저술	동국정운	홍무정문역훈	직해동자습
정인지		0			
최 항	0	0	0		
박팽년	0	0	0		
신숙주	0	0	0	0	0
이산(한로)	0	0	0		
이 개	0	0	0		
강희안	0	0	0		
성삼문		0	0	0	

## 6. 맺음말

조선시대 훈민정음은 해례본이 쉽게 단절될 만큼 철저한 비주류 문자였다. 훈민정음이 표현의 자연스런 도구가 되고 연구 대상이 되며 연구 과정을 담아내는 문자로 기능하기에는 많은 세월이 필요했다. 그래서 말소리를 자연스럽게 과학적으로 적고자 하는 세종의 정음 문자관은 실용으로나 학문으로나 적극적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그나마 문자의 실용적 기능의 탁월함으로 인해 지속적인 발전을 하게 되었고 실학 시대에 이르러서야 연구 대상이 되었다.

신경준의 <저정서>는 훈민정음을 직접 대상으로 삼은 것은 아니었으나 세종의 보편적 정음 문자관을 해례본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세밀하게 풀어냈다. 그 내용이 맞고 틀림을 떠나 세종의 정음 문자관의 가치와 의미를 해례를 보지 않았기에 상당 부분 새롭게 풀어내는 역설적인 효과를 보여 주었다.

## ■ 참고문헌

### 1. 1차 자료

신경준(1750/영조26). <韻解訓民正音>.

- 필자본 영인: 학선재편집부 편(2007). <訓民正音圖解>. 학선재. 송헌문화재단(2010). <훈민정음도해>. 송헌문화재단.
- 활자본1: 조선어학회(1937). <훈민정음 운해>. 9회 연재(정인보 해제): <한글> 5권 3호(1937.3월호) - <한글> 5권 11호(1937.12월호).
- 활자본(조선어학회: 1938) 영인: 대제각편집실(1985). <운해훈민정음>. 대제각(강신항 해제). 한양대학교부설국학연구원 편(1974). <訓民正音韻解/諺文志>. 한양대학교부설국학연구원(강신항 해제). 경인문화사편집실(1976). <旅菴全書.Ⅱ>. 景仁文化社.<sup>21)</sup>
- 활자본2: 숭실대학교국어국문학과 편(1987). <운해훈민정음>. 태학사(최태영 해제).
- 조선어학회(1937). <한글>지 연재 활자본.

훈민정음 운해 (1): (25~40쪽) <한글> 43호(1937. 3.) 부록

훈민정음 운해 (2): (25~40쪽) <한글> 44호(1937. 4.) 부록

훈민정음 운해 (3): (25~32쪽) <한글> 45호(1937. 5.) 부록

훈민정음 운해 (4): (19~26쪽) <한글> 46호(1937. 6.) 부록

훈민정음 운해 (5): (37~57쪽) <한글> 47호(1937. 7.) 부록

훈민정음 운해 (6): (17~26쪽) <한글> 48호(1937. 9.) 부록

훈민정음 운해 (7): (17~26쪽) <한글> 49호(1937. 10.) 부록

훈민정음 운해 (8): (17~26쪽) <한글> 50호(1937. 11.) 부록

훈민정음 운해 (9): (29~32쪽) <한글> 51호(1937. 12.) 부록

### 2. 해제

정인보(1937). <訓民正音韻解> 解題. <한글> 44호(4월호). 조선어학회. 7-8쪽.

강신항(1974). <訓民正音韻解> 解題. <訓民正音韻解>. 대제각.

강신항(1978). 申景濬 訓民正音韻解. 신동아편집실(1978). <韓國을 움직인 古典百選>. 동아일보사. 191-193쪽.

최태영(1987). <운해훈민정음> 해제. 숭실대학교국어국문학과 편(1987). <운해훈민정음>. 숭실대학교.

### 3. 일반 문헌

강신항(1965ㄱ). 신경준-국학정신의 온상. <한국의 인간상> 4권. 신구문화사.

강신항(1965ㄴ). 申景濬의 學問과 生涯. <成大文學> 11호. 成均館大學校成均語文學會. 60-69쪽.

21) 1910년에 신경준 후손 신익구(申益求)가 간행한 <여암유고(旅菴遺稿)> 13권 5책의 목활자본과 1939년 5세손 신재휴(申宰休)가 편집하고 정인보(鄭寅普)와 김춘동(金春東)이 교열하여 간행한 <여암전서> 20권 7책의 신연활자본에 아직 간행되지 않은 여러 저서를 보태어 영인한 것이다. <여암전서> 2권에 조선어학회 활자본이 영인본이 포함되어 있다.



- 강신항(1967). <韻解 訓民正音 研究>. 한국연구원.
- 강신항(1975). 여암 신경준-지리학. 문자(음운)학자. <실학논총(이율호 박사 정년기념논총)>. 전남대학교.
- 강신항(1978). <韻解 訓民正音>. 형설출판사.
- 강신항(1986/1994). <國語學史(증보개정판)>. 보성문화사.
- 강신항(1992). 韻解(訓民正音解題)와 申景潛. 전남대 어학연구소 편(1992). <훈민정음과 국어학>. 전남대 출판부. 57-87쪽.<sup>22)</sup> 토론문(고영근, 최태영) 89-95쪽.
- 강신항(1992). 훈민정음 운해와 신경준. 전남대 어학연구소 편(1992). <훈민정음과 국어학>. 전남대 출판부.<sup>23)</sup> 57-87쪽.
- 강신항(2009). <훈민정음 창제와 연구사>. 경진.
- 고동환(2003). 旅菴 申景潛의 학문과 사상. <지방사와 지방문화> 6권 2호. 역사문화학회. 179-216쪽.
- 곽경 외(2011). 한글세계화와 한글확장-한글확장자판 표준화 위원회의 2011년 연구 성과 총람. 미래형 한글문자판 표준포럼 한글확장자판 표준화 위원회.
- 권재선(1988). <국어학 발전사>. 우골담.
- 권재선(1989). <간추린 국어학 발전사>. 우골담.
- 권재선(1999) <한글 국제음성기호 연구>. 우골담.
- 권재선(2014). 자음 상형 원리와 그림폴이에 대해 다시 돌아봄. <한글새소식> 498호. 한글학회. 8-9쪽.
- 권택룡(2002). <訓民正音韻解> 臻攝·山攝之研究. <東一文化論叢> 10집. 東一文化獎學財團. 1-14쪽.
- 김동준(2007). 소론계 학자들의 자국어문 연구활동과 양상. <민족문학사연구> 35호. 민족문학사연구소. 8-39쪽.
- 김만태(2012). 훈민정음의 제자원리와 역학사상-음양오행론과 삼재론을 중심으로-. <철학사상> 45호. 서울대학교철학사상연구소. 55-94쪽.
- 김민수(1982). <신국어학사(전면개정판)>. 일조각.
- 김병제(1984). <조선어학사>.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김상태(2012). 훈민정음 제자 원리와 한자 육서의 자소론적 연구. <국어학> 63호. 국어학회. 105-128쪽.
- 김석득(1971). 한국 3대 운서의 언어학사적 의의-음소관 및 생성철학관 중심-. <인문과학> 24·25 합병호. 연세대 인문과학연구소. 1-20쪽.
- 김석득(1975). 실학과 국어학의 전개-최석정과 신경준과의 학문적 거리. <동방학지> 16. 연세대 국학연구원. 117-143쪽.
- 김석득(2009). <우리말 연구사>. 태학사.
- 김석득(2011). 최소의 최대 생성의 끈 이론 : 한글의 우리 있음과 국제화에 관련하여. <인문논총> 21. 서울여자대학교인문과학연구소. 5-33쪽.
- 김슬옹(2008). 세종과 소쉬르의 통합언어학적 비교 연구. <사회언어학> 16권 1호. 한국사회언어학회. 1-23쪽.

22) 본문 제목과 차례 제목이 다름. 차례 제목은 “훈민정음 운해와 신경준”

23) “강신항(1975). 여암 신경준-지리학. 문자(음운)학자. <실학논총(이율호 박사 정년기념논총)>”와 “강신항(1978). <韻解 訓民正音>. 형설출판사. 해제”를 가려 뽑은 글임.

- 김슬옹(2011). <세종대왕과 훈민정음학(개정판)>. 지식산업사.
- 김슬옹(2012ㄱ). 조선시대의 훈민정음 발달사. 역락.
- 김슬옹(2012ㄴ). <맥락으로 통합되는 국어교육의 길 찾기>. 동국대출판부.
- 김슬옹(2012ㄷ). <조선시대의 훈민정음 발달사>. 역락.
- 김슬옹(2013ㄱ). 세종학의 필요성과 주요 특성. <한민족문화학회> 42. 한민족문화학회. 7-42쪽.
- 김슬옹(2013ㄴ). 한글의 힘, 한글의 미래. <웹표, 마침표>(온라인 웹진). 2013.10.22. 국립국어원
- 김슬옹(2013ㄷ). 조선시대 ‘언간’에 나타난 우리말과 글의 아름다움과 가치. <나라사랑> 122집. 외솔회. 190-210쪽.
- 김슬옹(2013ㄹ). <한글 우수성과 한글 세계화>. Hangulpark.
- 김슬옹(2014). 세종의 ‘정음 문자관’의 맥락 연구. <한말연구> 35호. 한말연구학회. 5-45쪽.
- 김슬옹·남영신(2014). 누구나 알아야 한글 이야기 3+5. 문화체육관광부.
- 김영주(2004). 少論系 學人의 言語意識 研究. 1: <正音> 研究를 중심으로. <東方漢文學> 27집. 동방학문학회. 291-320쪽.
- 김완진·정광·장소원(1997). <국어학사>.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 김윤경(1938). <朝鮮文字及語學史>. 조선기념도서출판관.
- 김윤경(1948/1954: 4판). <韓國文字及語學史>. 동국문화사. 가로짜기활자전환본: 한결 金允經全集 1: 朝鮮文字及語學史(연세대학교 출판부, 1985).
- 김일(2001). 신경준의 <훈민정음운해>와 그의 역학적 언어관. <중국조선어문 루계> 113호. 길림성민족사무원위원회. 23-26쪽.
- 김진희(2012). ‘한글 창제 원리’의 교육 내용에 대한 비판적 고찰. <우리말교육현장연구> 11호. 우리말현장학회. 97-126쪽.
- 김형주(1981). <國語學史>. 학문사.
- 박종국(1994). <국어학사>. 문지사.
- 박종국(2012). <우리 국어학사>. 세종학연구원.
- 박태권(1976). <국어학사 논고>. 샘문화사.
- 박태권(2002). <국어학사 연구>. 세종출판사.
- 반재원·허정윤(2007). <한글 창제 원리와 옛글자 살려 쓰기: 한글 세계 공용화를 위한 선결 과제>. 역락.
- 배운덕(1988). 신경준의 운해 연구: 사성통해와 관련하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배운덕(2005). <우리말 韻書의 研究>. 성신여자대학교 출판부.
- 백두현(2012). 융합성의 관점에서 본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 <어문론총> 57권 10호. 한국문헌언어학회. 115-156쪽.
- 서병국(1965). 訓民正音 解例本 以後의 李朝 國語學史 是非. <논문집> 9. 경북대학교. 21-37쪽.
- 서병국(1983). <新講國語學史>. 학문사.
- 심소희(2009). <성음해>를 통해 본 서경덕의 정음관 연구. <중국어문학논집> 58호. 중국어문학연구회. 67-96쪽.
- 심소희(2012). 최석정의 <經世訓民正音圖說>연구 : <聲音律呂唱和全數圖>과 <經史正音切韻指南>의 체제 비교를 중심으로. <중국어문학논집> 73호. 中國語文學研究

會, 89-112쪽.

안경상(2005). <조선어학설사>, 사회과학출판사.

양해승(2012). <훈민정음>의 象形說과 六書의 관련에 대한 연구. <冠嶽語文研究> 37집, 서울대국어국문학과, 179-210쪽.

유창균(1969). <신국어학사>, 형설출판사.

유창균(1988). <國語學史>, 형설출판사.

유창균·강신항(1961). <국어국문학강좌>, 민중서관, 67-72쪽.

이상규(2012). 간엽 상주본 <훈민정음> 분석. <한글> 298호, 한글학회, 5-50쪽.

이상규(2014ㄱ). <훈민정음>에 대한 인문·지리학적 접근. <한민족어문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한민족어문학회, 1-18쪽.

이상규(2014ㄴ). 여암 신경준의 저정서(邸井書) 분석. <어문논총> 62호 한국문학언어학회, 153-187쪽.

이상태(2003). 한국의 역사가: 신경준. <한국사 시민강좌> 32집, 185-206쪽, 일조각.

이상혁(1998). 조선후기 훈민정음 연구의 역사적 변천.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이상혁(2004). <조선후기 훈민정음 연구의 역사적 변천>, 역락.

이승녕(1981). <세종대왕의 학문과 사상>, 아세아문화사.

이영월(2009). 훈민정음에 대한 중국운서의 영향-삼대어문사업을 중심으로-. <중국학연구> 50, 중국학연구회, 255-274쪽.

이토 히데토(伊藤英人)(1995). 申景潜의 <韻解訓民正音>에 대하여. <국어학> 25, 국어학회, 293-306쪽.

이토 히데토(伊藤英人)(2012). 旅菴의 한자음-그 한국적 특징과 보편성-. <여암 신경준 선생 탄신 30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논문집>, 전남순창군, 65-90쪽.

이현복(1981). <국제음성문자와 한글음성문자-원리와 표기법>, 과학사.

임용기(2012). 훈민정음의 한자음 표기와 관련한 몇 가지 문제. <人文科學> 96집, 연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5-44쪽.

장소원·이병근·이선영·김동준(2003). <조선시대 국어학사 자료에 대한 기초연구>, 서울대학교 한국학 장기기초연구비지원 연구과제 결과보고서.

정경일(2002). <한국 운서의 이해>, 아카넷.

정경일(2009). 한자음 표기와 한글의 위상. <한국어학> 42호, 한국어학회, 1-25쪽.

정우영(2010). ‘訓民正音解例’ 制字解의 ‘異體’와 관련된 문제. <2009년 겨울 국어사학회 전국학술대회 논문집>, 국어사학회·한국학중앙연구원 어문생활사연구소, 22-37쪽(수정 별지 1-18쪽).

정우영(2014). <訓民正音> 해례본의 ‘例義篇’ 구조와 ‘解例篇’과의 상관관계. <국어학> 72집, 국어학회, 103-153쪽.

정원수(2010). 한글표기를 통한 한국어·중국어·일본어·영어 등 4개 외국어의 효율적인 교육 방안. 이명수 편(2010). ‘한글의 세계공용문자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국회의원 이명수(자유선진당) 주최, 45-104쪽.

조오현(2010). 15세기 성운학자 계보 연구. <한말연구> 27호, 한말연구학회, 347-377쪽.

진용욱 외(1999). <국제정음기호(IPH) 표준 제정의 타당성 연구>, 한국조선단원.

진용욱(2004). 악률에 기초한 다국어 정음 표기와 정보화 문제. <세종 탄신 607돌 기념 학술대회 자료집-우리의 소리와 말은 어떻게 만났는가>, 한국국악학회·한

국어정보학회.

최현배(1942/1982). <한글갈>. 정음문화사.

허동진(1998). <조선어학사>. 한글학회.

Sek Yen Kim-Cho(2001). The Korean Alphabet of 1446: Exposition. OPA, the Visible Speech Sounds. Annotated Translation. Future Applicability  
Hwun Min Ceng Um. Humanity Books & AC Press(아세아문화사).

## [붙임] 여암 신경준(旅菴 申景濬)선생 연보(24)

- 01세 1712년 4월 15일(숙종 38) 순창(淳昌) 남산 구제(舊第)에서 아버지 신뢰(申洩, 1689~1737)공과 어머니 한산이씨(韓山李氏, 1688~) 사이에 2남3녀 중 큰 아들로 태어난다.
- 07세 1718년(숙종 44) <龍旂賦(용기부)>를 짓다.
- 08세 1719년(숙종 45) 학업을 위해 상경하다.
- 09세 1720년(숙종 46) 강화에 가다. 부모를 생각하며 <悲思曲(비사곡)>을 짓다.
- 12세 1723년(경종 03) 고향으로 돌아가다.
- 18세 1729년(영조 05) <農謳(농구)>를 짓다.
- 19세 1730년(영조 06) <遊子吟(유자음)>을 짓다.
- 21세 1732년(영조 08) 서울과 호서(湖西)를 오가며 과거준비를 위한 공부를 하다.
- 27세 1738년(영조 14) 모친을 모시고 소사(素沙)로 옮긴 후 <素沙問答(소사문답)>을 짓다.
- 29세 1740년(영조 16) <菜圃引(채포인)>을 짓다. 소사에서의 생활과 물경을 소재로 <素沙感懷(소사감회)>를 짓다.
- 30세 1741년(영조 17) 직산(稷山)으로 거처를 옮기다. <稷書(비서)>를 저술하다. 부인상을 당하다.
- 33세 1744년(영조 20) 순창으로 돌아가다. 향시에 합격하였으나 지리산을 유람하느라 두 번째 단계의 시험인 회시에 참가하지 못하다. 11월, 20세 전에 지었던 고체시(古體詩)를 산정하여 정리해 두다.
- 39세 1750(영조 26) 한자의 운도를 훈민정음으로 풀어낸 <邸井書(저정서)>, 일명 <운해훈민정음>을 저술하다.
- 43세 1754년(영조 30) 봄, 홍양호가 과거시험을 관리하던 증광시 향사에서 ‘차제책(車制策)’으로 급제하다. 여름, 두 번째 시험인 회시에 합격하자 서울로 홍양호를 찾아가 교분을 맺다.
- 46세 1757년(영조 33) 휘릉(徽陵) 별검(別檢)이 되다. 성균관 전적(典籍)을 거쳐 예조와 병조의 낭관으로 임명되다.
- 49세 1760년(영조 36) 정언이 되다. 이어 이조의 낭관을 거쳐 장령이 되다. <瞻鶴亭十景>을 짓다.
- 51세 1762년(영조 38) 서산(瑞山) 군수(郡守)가 되다.

24) 신현구(申獻求) 위음 행장(여암전서)과 홍양호(洪良浩) 위음 묘비명, 남산구려기(南山舊廬記), 조선 왕조실록 등을 바탕으로 고령신씨대종회와 고전번역원 등에서 작성한 연표 가운데 공적인 내용만 보완하고 다듬은 것이다.

- 52세 1763년(영조 39) 충청 도사(都事)가 되어 시험을 담당하다. 도관찰사의 요청으로 어려운 재판을 해결하다. 정언에 제수되다.
- 53세 1764년(영조 40) 공물을 배로 나르는 일을 감독하다. 9월, 장령이 되다. 겨울, 장연(長淵) 현감이 되다.
- 54세 1765년(영조 41) 2월, 임금의 뜻을 받들어 <民隱詩(민은시)> 를 지어 올리다. 헌납이 되고, 곧이어 통례(通禮)가 되다.
- 56세 1767년(영조 43) 사간이 되었으나 외방에 있어 임금의 긴급 명령에 참석하지 못한 일로 민천(沔川)에 유배되다.
- 58세 1769년(영조 45) 4월, 사간이 되다. 종부사(宗簿寺) 정(正)이 되다. 명을 받들고 강화에 가서 선원각(璿源閣)을 수리하다. 홍봉한(洪鳳漢)의 천거로 비극 낭청이 되다. <輿地便覽(여지편람)>을 감수하다.
- 59세 1770년(영조 46) 장악원(掌樂院) 정(正)이 되다. 「東國文獻備考(동국문헌비고)」를 편찬할 때에 「輿地考(여지고)」 27권의 편찬을 담당하다. 특별히 동부승지로 승진하고, 이어 병조참지가 되다. 최익남(崔益男)의 상소와 관련되어 은진(恩津)에 유배되었다가 곧 수원(水原)으로 이배되다.
- 60세 1771년(영조 47) 봄, 다시 승지가 되고, 곧 북청(北靑) 부사가 되다.
- 62세 1773년(영조 49) 좌승지가 되었다가 곧 강계(江界) 부사가 되다. 가을, 순천 부사가 되다.
- 63세 1774년(영조 50) 여름, 제주 목사가 되다.
- 64세 1775년(영조 51) 과일 공납을 늦게 하고 제술(製述) 장계를 올리지 않은 일로 파직되다.
- 68세 1779년(정조 03) 영조의 애도 기간이 끝나자 순창 남산리(南山里)로 돌아가다. <蘊眞亭八景(은진정팔경)>을 짓다.
- 69세 1780년(정조 04) 세 차례 승선(承宣) 벼슬에 임명되었으나 상소를 올리고 나가지 않다. <小蟲十章(소충십장)>을 짓다.
- 70세 1781년 5월 21일 졸하다.
- 1910년(순종 04) 목활자로 문집을 간행하다.(홍양호 서)

## □ 토론 □

### “신경준, <邸井書> ‘훈민정음도해’의 정음 문자관에 대하여”에 대한 토론문

김상태(청주대)

안녕하세요. 김슬옹 선생님의 토론을 맡은 청주대학교 김상태입니다.

우선 김슬옹 선생님께서 새롭게 조명하신 세종의 정음 문자관을 중심으로 ‘훈민정음도해’의 맥락적 가치와 역사적 의미를 조명하신 글입니다. 새로운 시각으로 ‘훈민정음도해’의 가치를 살펴 본 매우 의미 있는 글이라 생각합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제가 느낀 두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토론자의 역할을 할까 합니다.

첫째, 이 글은 세종의 정음 문자관과 신경준의 정음 문자관을 비교하면서 두 문자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힘으로써 ‘운해훈민정음’의 가치를 찾은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종의 정음 문자관’과 ‘신경준의 정음 문자관’을 비교하는데 있어 기준이 매우 모호하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세종의 정음 문자관’에서 정음 문자관의 커다란 특성을 첫째, “세종의 정음 사상은 보편성과 특수성을 아울러 중요하게 여기는 성리학 사상을 문자를 통해 제대로 드러내어 더욱 발전시킨 것이다.”, 둘째, “음양오행 철학, 음악 이론, 상수 이론 등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였다.”, 셋째, “문자 사용 주체에 대한 고려와 실제 소통에서 가장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정음 문자 창제”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경준의 정음 문자관’은 하위 항목으로 다섯 개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 보편 문자관은 “상형 과학 전략과 음양오행 철학 전략”, 둘째, 다면적 입체 상형설은 “상형론으로 풀어냈다.”, 셋째, 다단계 입체 생생론은 “신경준이 세종 정음 문자관과 일치하는 두 번째는 문자의 생성 전략이다.”, 넷째, “상형론과 음양오행론”에 대해 서술하고 있습니다. 신경준의 정음 문자관에서는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이 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두 대상을 비교하는 기준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준을 먼저 제시하고 그 이후 공통적인 부분과 차이점을 서술하면 훨씬 좋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준을 문자적인 특성과 철학적인 특성으로 구분하면 더 좋지 않을까 제안해 봅니다.

둘째, ‘신경준의 정음 문자관’ 하위 항목에 ‘세종의 정음 문자관 계보에 대하여’는 신경준의 정음 문자관과는 연관성이 적어 보입니다. 이 부분과 3장 ‘연구사에 드러난 <운해훈민정음>에 대한 다면 평가’를 합쳐서 ‘세종의 정음 문자관 계보와 <운해훈민정음> 연구사’로 정리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운해훈민

정읍'에 대한 기존의 연구 특성을 더 드러내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토론을 말기에 부족한데 혹시 저의 코멘트 중에 다소 불편한 점이 있다면 많이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연결어미, 종결어미에 나타난 ‘-오-’\*

-이형태 재고-

정수현(건국대)

## 차 례

1. 서론
  2. 중세국어 문헌에 나타난 ‘-샤-’
  3. 중세국어 문헌에 나타난 ‘-과-’
  4. 정리
- 참고문헌

## 1. 머리말

15세기 문헌에서 선어말어미 ‘-오-’는 ‘-ㄴ’, ‘-ㄹ’, ‘-ㅁ’ 앞에 선접하여 명사구 내포문을 구성하는 데에 관여하기도 하지만 ‘-오-’는 연결어미와 종결어미에도 나타난다. 그렇지만 명사구 내포문 구성에 쓰인 ‘-오-’의 기능은 명확하게 밝힐 수 있을 만하지만 연결어미, 종결어미에 쓰인 ‘-오-’는 그렇지 않다. 명사구 내포문에서는 거의 필수적으로 나타나지만 연결어미의 ‘-오되’와 ‘-오려’, 종결어미의 ‘-오마’를 제외한 나머지 연결어미와 종결어미에서는 이미 15세기에 ‘-오-’의 유무 대립으로 구문을 나누어 볼 수 있을 만큼 소멸하는 과정에 있다. 한편, 동일 형태의 동일 기능에 주목하여 ‘-오되’ 구문을 기반으로 하여 어미에 관여하는 ‘-오-’가 형태소적 분포 환경이 동일하다면 즉, 동명사형 어미 ‘-ㄴ, -ㄹ, -ㅁ’ 앞에 오는 ‘-오-’라면 기원적으로 동일한 형태소이고 따라서 동일한 원리로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정수현(2011)에서는 이러한 기준과 근거에 따라 선어말어미 ‘-오-’가 관여하는 어미의 형태들을 제시하면서 그의 이형태로 볼 수 있는 목록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sup>1)</sup>

- -샤되, -샤, -샅, -샅
- -다라, -다이다, -다니, -단

\* 이 발표문은 정수현(2011)에서 제시한 연결어미, 종결어미 목록에 관해 꾸준히 논의를 계속해 가는 연구 과정 중의 하나인데 그 주된 논점이 되는 것은 3장의 ‘-과-’와 관련된 내용이다. 그러나 선어말어미 ‘-오-’의 이형태로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샤-’를 발표 내용에 넣은 것은 선어말어미 ‘-오-’의 이형태 설정 문제에 있어서 전반적인 논의를 하고자 함을 의도하였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제시하는 2장의 ‘-샤-’와 관련된 내용은 정수현(2013)의 논의를 일부 다시 꾸린 것임을 밝힌다.

1) 정수현(2011)에서 제시한 ‘-오-’와 관련된 어미 목록은 다음과 같다.

- 연결어미에 쓰인 ‘-오-’  
-오니, -오되, -오려, -오리니, -노니
- 종결어미에 쓰인 ‘-오-’  
-오라, -오이다, -오니라, -노라, -노이다, -오리라, -오리이다, -논가, -노닛가, -온가, -오리잇가, -오리잇고, -오마



- -가라, -가니, -가니오, -가뇨
- -과라, -과이다
- 이로라, 이로니, 이로딕, 이룬, 이룰, 이룸

여러 학자들이 ‘-오-’가 ‘-시-’, ‘-터-’, ‘-거-’와 함께 나타나면 ‘-샤-’, ‘-다-’, ‘-가-’로 쓰인다고 할 뿐 위의 이형태들에 대한 설명은 아직도 설명이 충분하지 못했다. 특히 ‘-과-’와 ‘-로-’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물론 이에 대한 음운론적 설명이 필요하다.<sup>2)</sup>

본 발표문은 15세기 문헌을 대상으로 하여 ‘-오-’의 이형태로 ‘-아-’를 설정할 수 있을지에 대해 검토하는 과정에 있다. 위의 이형태 목록 중에서 그 형태소 분석이 비교적 명확한 ‘-샤-’는 구문 분석을 통해 ‘-아-’로 실현된 ‘-오-’에 대해 인식해 보고, ‘-과-’ 구문은 아직 명확하게 결론을 짓지 못한 까닭에 기존의 논의들을 다루어 보고 그에 조금은 비판적인 시각으로 접근해 볼 것이다.

## 2. 중세국어 문헌에 나타난 ‘-샤-’<sup>3)</sup>

‘-샤딕, -샐, -살, -삼’ 꼴로 나타나는 ‘-샤-’ 구문을 분석하여 보겠다. ‘-샤-’는 선어말어미 ‘-오-’가 나타날 자리에 주체 높임 선어말어미 ‘-시-’와 결합한 형태로 나타나므로 선어말어미 ‘-오-’가 관여한 구문의 기능과 같다.

<[-시-+-오-+-ㄴ]>

- (1) 無量劫으로서 하산 修行이 이제 와 넘거시이다(석상 3:25)
- (2) 우리 父母 | 듣디 아니하산 고든 釋迦太子 | 직죄 奇特<sup>하</sup>실씨(석상 6:7)
- (3) 化人은 世傳入神力으로 드외의 하산 사랴미라(석상 6:7)
- (4) 須達이 닐오딕 니르산 양으로 호리이다(석상 6:24)
- (5) 그 브리산 사랴미 王의 와 슬보딕(석상 11:32)

<[-시-+-오-+-ㄹ]>

- (5) 그 道 | 眞正<sup>하</sup>샤 모락살 法 업스샤미 正遍知이라(법화 1:37)
- (6) 梵行이 <sup>하</sup>마 서시며 하살 이를 <sup>하</sup>마 일우샤(법화 2:43)

<[-시-+-오-+-ㅁ]>

- (8) 브르디 아니<sup>하</sup> 法輪을 그우리샤 그우리샤문 놔도 조차 어딜에 <sup>하</sup>시니(석상 13:4)
- (9) 곳기름 마시샤문 貴<sup>하</sup> 德行으로 六根 드트를 조키 하샤를 나토시교(석상 20:11)
- (10) 원일 다솔와 地獄苦를 나토샤미 이는 俗諦를 브르시니라(월석 8:29)
- (11) 本來入 生이라 <sup>하</sup>마리니 如來菩薩이 本來入 修行이 서르 마즌 일들 니르샤미라(월석 8:43)

위의 구문들은 모두 명사구 내포문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다음의 예문들에서는 ‘-

2) 임흥빈(1981)은 ‘-오-’의 이형태로 ‘-아-’가 존재했다는 가설을 내놓는다.

3) 앞의 각주 1번에서도 밝혔듯이 정수현(2013)의 내용을 요약 발췌하여 기었다.

오딧'와 함께 나타났다.

<[-시-+-오딧]>

(12) 太子 | 니르샤딧 네 求ᄃᆞ는 이리 乃終내 受苦를 묻 여회리니(석상 3:33)

(13) 𐏃 鬱頭藍弗이라 홀 仙人 잇는 딧 가샤 非非想處定을 三年 니기고 너기샤딧 仙人익  
이리 굴근 結이샤 엽거니와(석상 3:36)

‘-오딧’는 ‘-온딧/울딧’에서 각각 ‘-ㄴ-, -ㄹ’이 탈락이 되면서 굳어진 연결어미로 ‘-오딧’ 구문은 기원적으로 통사 구조상 명사구 내포문이었음은 이미 밝혀진 것인데, 이는 ‘-오-’가 명사구 내포문 표지라는 주장의 근거가 되고 접속문은 내포문에서 기원했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위의 예문들에서와 같이 선어말어미 ‘-오-’는 주체 높임 선어말어미 ‘-시-’와 결합할 때 ‘-샤-’로 실현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실현 현상은 어간에 ‘시’를 포함한 단어에서의 실현이 선어말어미 ‘-오-’와 함께 실현될 때와는 다르다. 다음의 예는 15세기 문헌에 나타난 ‘이시다’, ‘시다’와 선어말어미 ‘-오-’와 함께 실현된 구문들이다.

<[이시-/시-+-오딧]>

(14) 우리 祖上에서 쏘더신 화리 마초아 이쇼딧(석상 3:13)

(15) 佛土 디나가 世界 이쇼딧 일후미 淨瑠璃오(석상 9:2)

<[이시-/시-+-오-+-ㄴ]>

(16) 이 모미 가 이술 딧를 아디 못ᄃᆞ야(두언 11:2)

(17) 짓기서 모다 술 期約을 아디 못ᄃᆞᆫ식(두언 22:47)

위에서 보듯 어간의 ‘시-’와 결합하는 경우에는 ‘이쇼딧/이술/술’ 등으로 나타난다. 이는 같은 선어말어미 ‘-오-’가 선어말어미 ‘-시-’와 결합할 때와는 다른 것이다. 이는 같은 음운이어도 그 실현이 다르다는 것은 선어말어미 ‘-오-’가 선어말어미 ‘-시-’와 결합하기 때문으로도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대어 ‘게시다’의 옛말인 ‘거시다’ 구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실현된다.

<[거시-+-오딧]>

(18) 得大勢여 네 無量無邊 不可思議 阿僧祇劫 디내야 부테 거샤딧(석상 19:26)

(19) 일후미 娑婆 | 니 그에 부테 거샤딧(석상 19:40)

<[거시-+-오-+-ㄴ]>

(20) 釋迦牟尼佛와 多寶如來와 寶塔 中에 師子座에 안자 겨산 양도 보스ᄃᆞ며(석상 19:40)

(21) 부테 火化入 法을 밍 마ᄃᆞ샤ᄃᆞ 모매 겨산 三昧力을 나토시며(법화 6:154)

<[거시-+-오-+-ㅁ]>

(22) 오래 世間에 즐겨 겨샤미 못ᄃᆞ리니(석상 3:26)

(23)居는 살씨니 起居는 상네 겨샤미라(월석 18:79)

(24) 法이 심기산 덕 겨샤물 證홀 섯르미라(법화 1:20)

현대어 ‘계시다’의 어간이 ‘계시-’인 것과 같이 ‘겨시다’의 어간도 ‘겨시-’라면 ‘겨쇼딧/겨손/겨샷’ 등으로 나타나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위의 예문에서 보다시피 ‘겨샤딧/겨산/겨샷’으로 나타나고 있다. ‘겨쇼딧/겨손/겨샷’로 나타나지 아니하고 ‘겨샤딧/겨산/겨샷’으로 나타난 이유는 ‘겨시다’ 어휘의 특징이 작용했을 듯싶다. 사실 ‘겨시다’의 어원에 대해서는 ‘겨시다’는 ‘겨다’에서 온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sup>4)</sup> 존재를 나타내는 ‘겨다’에 주체 높임 선어말어미 ‘-시-’가 결합하여 쓰이다가 존재를 나타내는 ‘이시다’와 ‘겨다’의 혼재로 인하여 ‘이시다’가 많이 쓰이게 되면서 존재의 높임을 나타내는 데에 ‘겨시다’가 주로 쓰였고, 이와 같은 이유로 ‘겨다’가 아닌 ‘겨시다’로 굳어졌다고 보는 견해이다. 이를 토대로 한다면 ‘겨시다’의 경우에만 ‘겨시-’를 어간으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겨샤딧/겨산/겨샷’으로 실현되는지에 대해 약간의 해명을 할 수 있을 듯하다.

다음과 같이 ‘쇼니, 슈라, 쇼라’ 등이 보이는 구문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도 되어야 한다. ‘시’가 마치 주체 높임 선어말어미로 보이기 때문이다.

(25) 서르 마조 보니 마초아 내 ㄱㄹ ㄱㅅ 病ᄃ야쇼라(두시-초 22:27)

(26) 날호야서 屈原 宋玉을 스랑ᄃ고 아스라히 荊州 衡山에 누어쇼라(두시-초 23:34)

(27) 靑 소리 六合에 두퍼쇼딧 녀가는 비치 𑖦모 殘微ᄃ도다(두시-초 22:41)

위의 예문들은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25') 病ᄃ야쇼라→[病ᄃ+-야+ 시+-오니]

(26') 누어쇼라→[눕+-어+ 시+-오니]

(27') 두퍼쇼딧→[똥+-어+ 시+-오니]

위의 예문을 현대어로 해석하면 “병하여 있다”, “누워 있다”, “똥이 있는데” 정도가 된다. 따라서 주체 높임 선어말어미 ‘-시-’로 볼 수 없고 용언의 어간에 연결어미 ‘-어’가 붙어 뒤의 말 ‘이시다’와 연결되어 쓰인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때의 ‘시’가 주체 높임 선어말어미 ‘-시-’가 아니므로 ‘-샤-’로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설명을 통해 선어말어미 ‘-시-’가 선어말어미 ‘-오-’와만 결합할 때만 ‘-샤-’로 나타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여기에서 우리는 조심스레 선어말어미 ‘-오-’는 다른 선어말어미와 결합할 때 ‘-아-’로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 볼 수 있을 것이다.<sup>5)</sup>

4) 이태영(1987)은 16세기의 언간에 나타나는 동사 ‘겨다’와 19세기 및 20세기 초의 소설에 나타나는 ‘겨’, 현대 방언에서 나타나는 ‘겨’의 사적 변천 과정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겨’에 대한 해석은 통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는 ‘겨’는 이미 중세국어 이전의 이두에서부터 나타나는 형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겨다’는 ‘겨시다’, ‘있다’와 함께 고찰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겨’는 이두에서는 대개 ‘견(在)’으로 읽혔다. 한편 중세국어의 문헌에서 동사 ‘겨다’는 거의 쓰이지 않았는데 이는 문헌의 성격이 기인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중세국어에서 ‘겨시다’의 어간을 ‘겨시-’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근대국어에서 ‘겨오시다, 겨옵시다’ 등의 동사가 쓰이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겨시-’를 어간으로 볼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5) 물론 이러한 가설을 세울 수 있으려면 음운론적 설명이 반드시 필요하다. 아직 쉽게 결론을 내릴 수는 없겠지만 선어말어미끼리 통합될 때 각각의 성조의 영향을 받아 ‘-아-’로 실현되는 것이 아닐까 싶다.

### 3. 중세국어 문헌에 나타난 ‘-과-’

중세국어에서 ‘-과-’는 ‘-과라’, ‘-과이다’, ‘-관딕’, ‘-관더’, ‘-과더’, ‘-과딕’ 등에 나타난다. 이러한 ‘-과-’는 비교적 제한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기능을 파악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앞선 연구들을 간략히 살펴보자면 허웅(1975)에서는 ‘-(으)니-’와 대립하는 ‘-과-’를 1인칭 활용의 어미로 보았고, 고영근(1981)에서는 확인법과 감동법의 선어말어미 ‘-오-’의 활용형이라고 하면서 ‘-과-’를 ‘-거-’와 ‘-오-’의 통합형으로 파악하였다. 한편 장요한(2006)에서는 종결어미에 쓰인 ‘-과-’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는데 ‘-과-’가 나타나는 구문의 주어가 1인칭이라고 해서 ‘-과-’를 ‘-거-’+‘-오-’로 분석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 ‘-과-’를 더 이상 분석할 수 없는 하나의 단위로 보고 통사적 성격 및 의미에 대해 관찰하였다. 또, ‘-과-’는 두시언해를 제외하고는 모든 예가 인용구문에 나타나며 그 중에서도 ‘니르-’ 화법 구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백두현(1997)에서는 15세기 문법에서는 확인법 ‘-거-’가 ‘-오-’와 통합하면 ‘-과-’ 또는 ‘-가-’가 되지만 석독구결에서는 ‘-과-’와 ‘-가-’에 대응하는 구성은 나타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전정래(1991)에서는 ‘-과라’, ‘-과이다’를 종결어미에 관여한 ‘-오-’와 관련한 형태로 파악하였지만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고 목록만 제시하였고 다른 ‘-과-’가 관련된 형태는 제외하였다.

이 장에서는 ‘-과-’와 관련된 구문을 15세기 문헌의 구문을 통해 살펴 보면서 ‘-과-’를 연구한 논문들의 내용을 토대로 ‘-과라’, ‘-과이다’, ‘-관딕’, ‘-관더’, ‘-과더’, ‘-과딕’에서 각각의 ‘-과-’가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인지 판단하는 기초를 마련해 보고자 한다. 한편으로 ‘-과-’가 관련한 어미들 중에서 ‘-오-’의 이형태로 설정할 수 있는 형태는 어떤 것인지도 논해 보고자 한다. 아래의 3.1부터 3.3까지의 분류는 가장 형태적으로 유사한 것끼리 묶은 것이고 연구를 거듭해 가면서 그 분류는 달라질 수 있음을 밝힌다.

#### 3.1. -과라/-과이다

허웅(1975)에서는 ‘-과-’를 1인칭 활용의 어미로 보았다. 한편, 고영근(1981)에서는 확인법과 감동법의 선어말어미 ‘-오-’의 활용형이라고 하면서 ‘-과-’를 ‘-거-’와 ‘-오-’의 통합형으로 파악하였다. 그러나 중세국어에서 ‘-가-’ 형태 또한 ‘-거-’와 ‘-오-’의 결합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만약 ‘-과-’도 ‘-거-’와 ‘-오-’의 결합으로 본다면 같은 형태의 결합이 둘로 나누어져 설득력이 조금 떨어지는 듯싶다. 장요한(2006)에서도 네 가지의 이유를 들어서 확인법으로서의 ‘-과-’에 대해 회의적인데 그 중 한 가지 이유로 ‘-가-’ 형태는 의문문, 명령문, 접속문 등에 자유롭게 나타나지만 ‘-과-’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점을 들고 있다.<sup>6)</sup> 장운희(2002)에서는 ‘-과라’의 ‘-과-’를 ‘-거-’와 ‘-오-’로 분석하였고 화자의 확정적인 양태성과 함께 그것이 화자 자신과 관련된 것임을 표시한다고 하였다.

다음은 15세기 문헌에 나타난 ‘-과라’ 구문이다.

(28) 다들고 죽개 너기샤되 나라 니슬 아득를 흠마 빅여 아바놉 願 일우과라 흐시고(석상 3:25ㄱ)

6) 나머지 세 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다.(장요한(2006:99))

- (1) ‘-거-’와 ‘-오-’가 붙어서 ‘-과-’가 된다는 것은 음운론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하다.
- (2) ‘-거-’의 변이 형태인 ‘-어-’, ‘-나-’, ‘-야-’와 ‘-오-’의 통합형은 나타나지 않는다.
- (3) ‘-과-’에 선행하는 어간이 대부분 타동사이다.

- (29) 圍繞<sup>호스</sup>맏<sup>는</sup> 양도 보고 다 ㅁ장 깃거 네 업딘 이를 언과라 ㅎ다니(석상 19:40ㄴ)
- (30) 어즈러 ㅎ나토 得道 묻게 ㅎ고 魔王이 ㅁ장 깃거 닐오디 徧多이 說法을 잘 해두티과라 ㅎ  
다니(월석 4:20ㄴ)
- (31) 오<sup>늘</sup>날<sup>나</sup> 如來<sup>스</sup> 德이 크산 주를 아습과라(월석 4:25)
- (32) 窮子ㅣ 깃거 네 업딘 이를 得과라 ㅎ아(월석 13:19ㄴ)
- (33) 내 前生애 여러 가짓 罪 이실씨 아드리 이런 受苦를 ㅎ계과라(월석 21:219ㄴ)
- (34) 師子座에 안자 제 慶賀<sup>하</sup>야 닐오디 내 이제 흰히 즐겁과라(법화 2:137ㄴ)
- (35) 오늘 이 모든 大會와 쯔 내 다 ㅎ마 보습과이다 智德의 健히 化<sup>하</sup>산 이를 ㅎ마 보습과라  
니르시니(법화 4:169ㄴ)
- (36) 聖賢<sup>스</sup> 글왈 닐거 빅호는 이리 므스것고 오늘 後애사 기리 붓그러부미 업과라(삼강 충:24)
- (37) 滄溟에 늘구메 와 든니노니 朱紱로 平生을 저브리과라 어스르메 새 수폴로 가매 놀게 가빅  
야오를 울워러 브르 보노라(두시-초 3:45ㄴ)
- (38) 구슬로 링ㅁ른 신 시는 客이 드외디 묻<sup>하</sup>야셔 ㅎ마 머리 센 늘그닐 보과라(두시-초 5:43ㄴ)
- (39) 이제 이 굴<sup>하</sup>니 나사가거나 물러오거나 호물 길 녀든노매 브리과라(두시-초 6:53ㄴ)
- (40) 萬里엿 巴州 渝州<sup>스</sup> 놀애를 세 히를 眞實로 빅브르 들과라(두시-초 7:14ㄴ)
- (41) 隱居<sup>하</sup>야 廬山<sup>스</sup> 惠遠의게 나사가고져 ㅎ다니 글 빗내 ㅎ는 湯休上人을 처썬 맛보과라(두  
시-초 9:26ㄴ)

위의 (34)번의 예문에서의 ‘-과-’는 이승녕(1968)은 현재완료, 과거로 해석하였다.<sup>7)</sup> 그렇  
지만 장요한(2006)에서는 이를 시제적인 요소가 아닌 양태적인 요소로 파악하였다. 한편 허  
웅(1975)에서는 확실성을 나타내는 형태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는 장요한(1996)에서 지  
적하고 있는 것과 같이 대립관계에 있는 ‘-(으)니-’ 구문과는 달리 감탄문과 평서문에서만  
나타난다는 점에서 조심스러운 점이 있다. 그러나 허웅(1975)의 해석과 같이 주어와 화자  
자신인 경우에 쓰이기 때문에 ‘-오-’가 관여하는 종결어미와 관련 있게 ‘-과-’가 해석이 되  
더라도 설명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장요한(1996)에서는 ‘-과라’가 ‘-오-’와 관련이 없을 가  
능성에 대해 언급하기도 하였다. ‘-오-’ 뒤에서 ‘-다’가 ‘-라’로 변동이 되는데 ‘-과라’의 경  
우에도 ‘-라’로 실현이 되기 때문에 인정법과 연관 짓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한 것이다. 이에  
‘-다’가 ‘-라’로 변동이 되는 조건으로 ‘-오-’가 필수적이지 않은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장  
요한(2006)에서는 ‘-과-’는 감탄문과 설명문에서만 나타나고 구문이 주로 화자의 정서 상태  
를 표현하는 것으로부터 수식을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과-’는 화자의 정서적 표현을  
담아 서술하는 감탄의 어미라고 추정하였다.

다음은 15세기 문헌에 나타난 ‘-과이다’ 구문이다.

- (42) 父母하 出家<sup>하</sup> 利益을 이제 ㅎ마 得<sup>하</sup>과이다 ㅎ고(석상 11:37ㄴ)
- (43) 내 아래 供養<sup>하</sup>습다가 이제 쯔 親近<sup>하</sup>습과이다(석상 20:15ㄴ)
- (44) 내 王 말썬 들쭈고사 내 므스미 씩<sup>하</sup>들과이다(석상 24:29ㄴ)

7) 장요한(2006)에서 다시 가져옴.

- (45) 죽사랏 어리에 버서날 이를 알와이다(석상 11:3ㄴ)  
 (46) 큰 善利를 어더 그지업슨 보비를 아니 求하야셔 얼죽과이다(월석 13:6ㄴ)  
 (47) 다오물 得호니 生死 큰 저푸물 내 이제 다 벗과이다(월석 25:79ㄴ)  
 (48) 王 마를 들즈보니 선와이다(월석 25:134ㄴ)  
 (49) 그 믅스미 便安호미 바를 곁하야 내 들즈고 疑心스 그므를 긋과이다(법화 2:24ㄴ)  
 (50) 衆生의 아비 득와샤 어엿비 너기샤 饑益히시느니시니 우리 아빋 福慶으로 오늘 시러  
 世尊을 맞나습과이다(법화 3:115ㄴ)  
 (51) 오늘 이 모든 大會와 쯔 내 다 하마 보습과이다(법화 4:169ㄴ)  
 (52) 내 네 아릭 供養하습고 오늘 쯔 도로 親히 뵈습과이다(법화 6:150ㄴ)  
 (53) 仙이 曰호되 知和尚法力이 廣大하과이다(육조 상:8ㄴ)  
 (54) 仙선이 닐오되 和尙상 法법력이 덩고 크샤물 아습과이다(육조 상:9ㄴ)

정수현(2011)에서는 ‘-과라’에 ‘-이-’가 함께 쓰인 형태로 파악하고 있다.<sup>8)</sup> 본 발표문에서 집중하여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과-’가 ‘-오-’와 관련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어미에 관여하는 ‘-오-’와 동일한 기능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과-’를 더 분석할 수 있는지이다.

### 3.2. -관딛/-관더

고영근(1981)에서는 ‘-관딛’ 구문을 ‘-관딛’가 종속절이 되면 앞에 의문사가 오고 이에 일치하여 주절은 의문형으로 끝나는 문형을 가진 종속적 연결어미로 파악하였다. 안병희·이광호(1990)에서는 ‘-관딛’를 의문문의 전제를 나타내는 의미로 파악하면서 동명사어미 ‘-ㄴ’이 형식명사 ‘ㄷ’에 결합된 형태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보았다.

정재영(1996)에서는 ‘-관딛’을 이미 문법화가 완성되어 일정한 기능을 가지고 항상 일정한 문맥에서만 사용되기 때문에 하나의 접속어미로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도 선어말어미 ‘-거-’와 ‘-오/우-’의 통합형인 ‘-과-’를 분석해 낼 수 있다면서 [[[-거+오+ㄴ]#ㄷ]+익]>[-관딛]>[-관딛’로 분석했다. 또한 그 의미 기능을 ‘-관딛’의 기원적인 통사적 구조체의 성격에서 찾았는데 처격이 통합된 ‘ㄷ’ 명사구 보문 구성의 통합형 접속어미로, 선행문과 후행문의 명제 내용의 화용론적인 관계가 인과 관계임을 말하였다.<sup>9)</sup>

다음은 15세기 중세국어 문헌에 나타난 ‘-관딛’ 구문이다.

- (55) 世尊하 이 菩薩이 엇던 도흔 根源을 시르며 어쩐 功德을 닷관딛 能히 이 큰 神通力을 뒤시며 엇던 三昧를 行하느니잇고(석상 20:40ㄴ)  
 (56) 世尊이 아래 므슴 功德을 흐시관딛 이런 한 塔을 世尊 위하스바 이르스 브리잇고(석상 24:9ㄴ)  
 (57) 너희 그리 뵈고래 이셔 므슴 煩惱를 몬 뿌려 브리관딛 得道를 몬하엿는다(석상

8) 정수현(2011)은 15세기 문헌을 바탕으로 하여 형태소적 분포 ‘-오-’ + ‘-ㄴ,-르,-ㄹ’을 기준으로 하여 명사구 내포문 구성과 연결어미, 종결어미와의 상관성을 알아본 연구였다.

9) 정재영(1996:162)에서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사실상 있을 수 있는 일, 또는 있었던 것으로 인식한 사건이나 사태를 담화 전제하고, 그 내용의 결과를 확인하려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접속어미.”

24:26ㄱ)

- (58) 하늘하 太子ㅣ 므스 罪 거시관디 이리 득외어시뇨 호고 절하야 보내며 모골 메여 설  
버 주그니도 잇더라(석상 24:51ㄴ)
- (59) 世尊하 이 菩薩이 엇던 善本을 시므시며 엇던 功德을 닷그시관디 能히 이 큰 神通力  
이 거시며 엇던 三昧를 行히시느잇고(월석 18:75ㄱ)
- (60) 더 부터의 묻조보디 엇던 行願을 지스시관디 이 相을 得히시니잇고(월석 21:18ㄱ)
- (61) 이 엇던 神靈스 德 이시관디 내 시르를 누기시느고(월석 21:21ㄴ)
- (62) 世尊하 地藏菩薩이 여러 劫부터 오매 各各 엇던 願을 發호시관디 이제 世尊스 브즈  
러니 讚歎하샤를 납습느니잇고(월석 21:49ㄴ-월석 21:50ㄱ)
- (63) 익 男子아 엇던 이를 爲하야 길헤 든다 엇던다른 術을 뵈관디 能히 한 毒을 이끓다  
(월석 21:118)
- (64) 묻내 기려 닐오디 내 언맛 恩分이 잇관디 이런 천라호로 감거시뇨 호고(월석 22:60ㄴ)
- (65) 이 獄爰 衆生은 前生에 므스 罪業을 짓관디 이런 受苦를 호느뇨(월석 23:78ㄴ)
- (66) 目連이 득라 드니 獄卒이 미러 내며 닐오디 스승니미 엇던 사르미시관디 주버느로  
이 門을 여르시느니잇고(월석 23:84ㄱ)
- (67) 比丘ㅣ 부터긔 슬보디 이 達尼迦ㅣ 아래 엇던 業을 시프관디 瓶沙王이 이리 赦하느  
니잇고(월석 25:29ㄴ)
- (68) 王이 무르샤디 이 아기 엇더니완디 늘그녀 허필 안고 이리도록 우느다(월석 8:101ㄱ)
- (69) 나느 一切 衆生 아니완디 어엿비 아니 너기샤 내 바블 아스시느니잇가(월석 11:4ㄱ)
- (70) 地藏菩薩摩訶薩이 因地에 엇던 行을 지스며 엇던 願을 세완디 不思議爰 이를 能히  
일우니잇고(월석 21:15ㄴ)
- (71) 스승니미 엇던 사르미완디 우리 地獄門 알픽 와 거시니잇가(월석 23:82ㄱ)
- (72) 이를 비러 理 불교매 엇데 올터 몬관디 구퓍여 墟에 걸여 외다 흐리오(법화 3:156ㄴ)
- (73) 世尊하 이 妙音菩薩이 善根을 기피 심거시니와 世尊하 이 菩薩이 엇던 三昧에 住호  
시관디(법화 7:32ㄱ)
- (74) 또 食이 제 아룁던텐 곧 늑믹 食이 곧거니 엇데 네게 분관디 맛 아느다 일홈흐리오  
(능엄 3:27ㄴ)
- (75) 大德은 어느 方을 브터 오관디 키 我慢을 내느뇨(육조 중:101ㄱ)

다음은 15세기 중세국어 문헌에 나타난 ‘-관더’ 구문이다. 15세기 문헌 중에서 ‘-관더’가 나타난 구문은 하나뿐이다. 장요한(2006)에서는 ‘-과-’를 더 이상 분석할 수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관더’를 ‘-과-’+ ‘-느더’(감탄법 어미)로 분석하고 있다.<sup>10)</sup>

- (76) 오날날 地獄門 알피져 아기와 서르 보관더 내 獄中에 이셔 罪 니버 辛苦하야(월석

10) 장윤희(2002)에서도 ‘-느더’는 화자의 놀라움이나 감탄과 함께 확정적 인식의 양태성도 동시에 표현되는 감탄법 어미로 정의하였다.

## 3.3. -과더/-과디여

이기중(1990)에서는 ‘-고져’와 ‘-과더’의 의미 기능을 살펴보았는데 이들은 형태소 재분석을 할 경우 재분석된 형태소들이 개별적으로 의미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현대국어의 ‘-고자’처럼 하나의 고착된 어미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또한 ‘-과더’의 의미 기능은 바람에 의미 초점이 있는데 ‘-과더’ 구문이 내포문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과더’의 ‘-과’는 ‘-고’와 ‘-아’의 기능으로 명사와 내포문을 이루는 어미로 기능한다고 하였다. 만약 이기중(1990)의 견해가 맞다면 ‘-과더’는 ‘-과라, 과이다’의 ‘-과-’와는 다른 것이며 따라서 중세국어 ‘-오-’와 관련된 어미에서는 제외가 된다. 고은숙(2005)에서는 중세국어에서 ‘-과더’ 구문의 상위문 종결어미로는 평서법 종결어미와 의문법 종결어미만 온다는 결과를 내었다. 이현희(1988)에서는 ‘-과더’가 상대(청자)를 그 주어로 요구할 수 있기는 하나 중세국어에서 그것이 ‘-과더’의 본질적인 성격은 아니라고 보았다.

다음은 15세기 문헌에 나타난 ‘-과더’ 구문이다.

- (77) 時節이 便安<sup>호</sup>고 녀르미 득외며 福이 오고 厄이 스러디과더 <sup>호</sup>노니(월석 1:月釋序25ㄴ)
- (78) 衆生을 念<sup>호</sup>되 즐거본 이를 조차 즐겨호몰 得과더 <sup>호야</sup> 恭敬<sup>호야</sup> 慰勞<sup>호는</sup> 믋스미오  
(월석 9:42ㄱ)
- (79) 各各 너고되 부터 안조신 되 눕고 머니 願<sup>호</sup>든 如來神通力으로 우리들홀 다 虛空에  
잇게 호시과더 <sup>호</sup>더니(월석 15:85ㄱ)
- (80) 後에 行境 毗沙門 解<sup>마</sup>차 行에 가과더 <sup>호</sup>시니 그럴썩 이에 고틀히시니라(월석 18:14ㄱ)
- (81) 文殊는 願<sup>호</sup>샤되 世尊이 神通力으로 妙音을 나토시과더 <sup>호야</sup>시닐(월석 18:76ㄴ)
- (82) 惡趣에 이셔 여회여 나디 問<sup>호야</sup>야 福力으로 苦惱를 救<sup>호야</sup>야 싸혀과더 不瞞 싸히 업서  
宿世 骨肉 더브러 닐어 方便을 지셔 惡道를 여회오져(월석 21:95ㄱ)
- (83) 生死<sup>호</sup> 제 내 마를 信受<sup>호야</sup> 버서나디 問<sup>호</sup>히 업서 큰 利益을 얻과더 <sup>호</sup>노이다(월석 21:128ㄴ)
- (84) 또 願<sup>호</sup>호되 地藏菩薩이 큰 慈悲 마조샤 나를 기리 擁護호시과더 <sup>호</sup>면(월석 21:166ㄴ)
- (85) 부텨 法에 열구를 혈며 비출 허르샤몬 俗에서 달아 慚愧 잇과더 <sup>호</sup>시니(월석 25:20ㄱ)
- (86) 四德을 썩리 일위 樂土스 기폰 道에 가물 得과더 <sup>호</sup>라노니(법화 서:17ㄴ)
- (87) 文殊ㅣ世尊이 神通力으로 妙音을 爲<sup>호야</sup>야 現호시과더 願<sup>호</sup>커시닐(법화 7:17ㄴ)
- (88) 내 姒ㅣ姒는 남지니 누의라 禮란 아니 마르치고 도르혀 내티일 형더글 호과더 <sup>호</sup>느  
니(삼강 열:2)
- (89) 貞婦ㅣ김죽 主將스고 닐오되 나를 어루려 <sup>호</sup>샤몬 죽드록 이대 섬기과더 <sup>호</sup>시는 뜨  
디니(삼강 열:21)
- (90) 섯구미 믋스매 불휘 <sup>호야</sup> 어려이 싸혈 거신 전츠로 부테 싸혀시과더 願<sup>호</sup>히니라(능엄 2:22ㄱ)



- (91) 이엔 쯔 慧力이 定에 너머 다 서르 글우미 잇는 전츠로 ㄹ티 가지과더 흥시니라 큰  
쁘든 科 곤흥니라(능엄 9:73ㄴ)
- (92) 쁘들 지손 頰에 닐오디 般若 기푸몬 한 劫에 맞나미 얼우니 分을 조차 讚歎흥야 사  
겨 眞宗에 맛과더 흥노라(반언 66ㄱ)
- (93) 如斯ㅣ라 흥다가 寸陰이 잇거든 서르 보물 드리우과더 흥노라(영가 下:107ㄱ)
- (94) 나라해서 모로매 사호물 行흘 더어니와 사르몬 戈鋌을 그치시과더 스랑흥놋다(두시-  
초 20:4ㄴ)

안병희(1967)에서는 ‘-과더’를 ‘-고저’의 혼효형이라고 하였고, 허용(1975)에서는 통사적 환경을 살펴 ‘-시-’가 ‘-과더’ 앞에 올 수 있다는 것과 희망을 나타내는 ‘브라-’, ‘원흥-’ 등과 쓰이며 ‘-과더’ 뒤에 ‘흥-’가 온다고 했다. 고영근(1981)에서는 ‘-과더’는 예정상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이유기(2001)에서는 ‘-과더’를 평서법 종결어미로 보았다. 석주연(2003)은 17세기 이후의 ‘-과더’가 명령법 어미가 된 이유를 ‘-과더’가 지니는 상위문과 하위문 주어의 불일치 특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았는데 내포문과 모문이 연결어미로 통합되어 있는 경우 두 절의 주어가 비동일 지시적일 때 두 절 사이의 통사 의미적 긴밀성과 의존성이 더욱 낮아지게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고은숙(2005)에서는 연결어미 ‘-과더’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 통사적으로 그 변화 과정을 살폈는데, 16세기에 ‘-과더’가 직접 화법 구문이 아닌, 간접 화법 구문에도 사용되는 예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과더’ 구문의 하위문 주어로 제삼자가 아닌 상대도 오게 되면서 명령법 어미로 기능하게 만들었다고 하였다. 또한 ‘-과더’가 종결어미로 기능하는 예는 근대국어에서 처음 나타난다고 하였다.<sup>11)</sup>

다음과 같이 ‘-이라’ 등과도 나타난다.

- (95) 邪正을 돌흘 닛과데라(능엄 7:15ㄱ)
- (96) 後入 行境 비샤몬 解 ㄹ차 行에 가과데시니(법화 6:118ㄴ)
- (97) 우헛 諸善 닛고몬 衆生이 一切 苦를 여회오 究竟樂을 得과데시니라(영가 서:10ㄱ)
- (98) 시혹 菩薩을 추샤몬 쁘든 秘藏에 모다 가 다 佛乘에 들와데시니(영가 下:71ㄱ)

다음은 15세기 문헌에 나타난 ‘-과디여’ 구문이다.

- (99) 오닐날 一切 諸天이 願흥스보디 出家흥샤 聖人入 道理 빅흥시과디여 흥느이다(석상 3:26ㄴ)
- (100) 그저디 모뎃는 大衆들히 이 말 듣좁고 흥뵈 닐오디 一切 衆生이 다 버서나과디여 願흥노이다(석상 11:3ㄴ)
- (101) 布施를 아래두고 더흥며 父王과 臣下왜 나를 보고져 흥시과디여 흥노이다(월석 20:86ㄱ)
- (102) 더주슴뵈 지손 그를 퍼 보니 다시 이 츙흥과디여 스랑흥노라(두시-초 20:34ㄱ)

11) 고은숙(2005)에서 17세기 이후로는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되다가 19세기 이후에 소멸하게 된다고 하였다.

(103) 崆峒에 밀히 니갯느니 님궂 軍師를 마르시과덕여 願호노라(두시-초 22:28-22:29)

고은숙(2005)에서는 ‘-과더’가 공식적으로 매우 다양한 형태로 실현된다고 하면서 ‘-과덕여’가 ‘-과더’와 형태상으로도 유사하고 기능에 있어서도 동일하여 이형태로 볼 가능성이 있지만 나타나는 환경이 상보적이지 않아 ‘-과덕여’를 ‘-과더’의 이형태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 4. 정리

지금까지 15세기 문헌을 대상으로 하여 연결어미와 종결어미에 나타난 ‘-오-’의 이형태로 추정되는 형태들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선어말어미 ‘-오-’는 주체 높임 선어말어미 ‘-시-’와 결합할 때 ‘-샤-’로 실현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이러한 실현 현상은 어간에 ‘시’가 있는 즉 ‘이시다’와 ‘시다’가 선어말어미 ‘-오-’와 함께 실현될 때와는 다를 것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선어말어미 ‘-오-’는 선어말어미와 결합할 때 ‘-아-’로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같은 과정으로 ‘-과-’ 또한 풀어낼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는 3장을 통해 여러 학자들의 견해들을 살펴 보면서 고민해 보았지만 답을 얻기에는 상당히 어렵다. 쉽게 풀자면 기존의 견해들을 따라 ‘-과-’를 ‘-거-’와 ‘-오-’의 결합으로 설명하면 되겠지만 ‘-거-’와 ‘-오-’ 같은 형태가 결합하는데 그 결과가 ‘-가-’, ‘-과-’ 둘이라는 설명이 조금은 설명력이 떨어지게 느껴진다. 만약 이 분석이 맞는 것이라면 왜 두 가지 형태로 존재하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이다.

본 발표문을 통해서 ‘-과-’에 관한 연구에 대한 문제점과 방향을 잡은 기준을 세워 보았다. (1) ‘-과-’ 구문의 공통점이 있는가? 의미적인 공통점, 통사적 공통점이 있는가? 만약 동일 기능을 찾을 수 없다면 해당 형태는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2) 15세기의 ‘-과-’는 분석 가능한가? (3) 분석이 가능하다면 ‘-거-’+‘-오-’인가? ‘-거-’와 ‘-오-’ 같은 형태가 결합하는데 그 결과가 ‘-가-’, ‘-과-’ 둘이라는 설명이 조금은 설명력이 떨어지는 듯하다. 그렇다면 (4) 선어말어미 ‘-거-’가 아니라 ‘-고-’와의 결합일 가설은 제기할 수 없는가? 고대국어에 ‘-고-’가 있기는 하지만 문헌의 제한으로 증명을 해내지 못할 수 있다. 백두현(1997) 연구에서처럼 석독구결에서는 ‘-과-’와 ‘-가-’에 대응하는 구성은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과-’와 관련한 문제에 단서를 잡아내고자 여러 문헌과 논문들에 천착하고 있는 중이지만 그래도 이 문제가 풀릴지는 의문이다. 지금까지 연구 결과로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정도에 그칠 수밖에 없을 것 같기 때문이다. 위에서 제시한 기준과 그리고 앞으로 새롭게 마련할 기준들에 따라 면밀하게 검토하기만을 바랄 뿐이다.

아직도 풀어내지 못한 이형태의 문제가 더 남아있다. ‘이로라, 이로니, 이로디, 이룬, 이룰, 이룸’의 문제이다. 이 또한 쉬운 문제는 아닐 것이다. 그렇지만 지정사가 어찌하여 ‘-오-’와 쓰일 때 ‘-로-’가 되는지의 문제를 설명하여 풀어낸다면 선어말어미 ‘-오-’의 그 기원적 쓰임과 중세국어 우리말의 언어 변화 모습의 과정을 조금 더 설명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 참고문헌

### 1. 문헌 자료

문헌명	연도	약호
석보상절	1447	석상
월인석보	1459	월석
능엄경언해	1461	능엄
법화경언해	1463	법화
선종영가집언해	1464	영가
반야심경언해	1464	반언
원각경언해	1465	원각
두시언해	1481	두시-초
삼강행실도	1460년 경	삼강
남명집언해	1482	남명
육조법보단경언해	1496	육조

### 2. 논문 자료

- 고영근(1981), 『중세국어의 시상과 서법』, 탑출판사.
- 고영근(1987), 『표준 중세국어문법론』, 탑출판사.
- 고은숙(2005), 「연결어미 ‘-과-’의 통시적 고찰」, 『형태론』 7권 1호, pp.1-21.
- 김유범(2007), 『중세국어 문법형태소의 형태론과 음운론』, 월인.
- 백두현(1997), 「고려 시대 석독구결에 나타난 선어말어미의 계열관계와 통합관계」, 『구결연구』 제2집, 구결학회, pp.27-95.
- 석주연(2003), 『노걸대와 박통사의 언어』, 태학사.
- 안병희(1967), 「문법사」(한국어 발달사 中), 한국문화사대계 V (고대 민족문화연구소), pp.166-259.
- 안병희·이광호(1990), 『중세국어문법론』, 학연사.
- 이기종(1990), 「중세국어 ‘-고져/-과더’의 의미 기능」, 『한남어문학』 16, pp.153-166.
- 이태영(1987), 「동사 ‘겨다’의 문법화 과정」, 『한국언어문학』 25, 한국언어문학회, pp.67-84.
- 이현희(1986), 「중세국어 내적 화법의 성격」, 『한신논문집』 3, pp.1-37.
- 임흥빈(1981), 「선어말 {-오/우-}와 확실성」, 『한국학논총』,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pp.91-134.
- 장요한(2006), 「어미 ‘-과-’의 의미 기능에 대한 고찰」, 『한민족어문학』 제49호, 한민족어문학회, pp.95-118.
- 장윤희(2002), 『중세국어 종결어미 연구』, 태학사.

- 전정례(1991), 「중세국어 명사구 내포문에서의 ‘-오-’의 기능과 변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수현(2011), 「선어말어미 ‘-오-’의 기능과 변천-명사성의 약화와 그 기능 변화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 정수현(2013), 「선어말어미 ‘-오-’의 이형태 고찰」, 『겨레어문학』 50집, 겨레어문학회, pp.317-339.
- 정재영(1996), 『의존명사 ‘ㄷ’의 문법화』, 태학사.

## □ 토론 □

### “연결어미, 종결어미에 나타난 ‘-오-’이형태 재고”에 대한 토론문

안신혜(건국대)

이 논문은 15세기 문헌을 대상으로 하여 ‘-오-’의 이형태로 ‘-아-’를 설정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이다. 여기에서는 ‘-샤-’ 구문과 ‘-과-’ 구문을 통해 이형태 설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선어말어미 ‘-오-’는 주체 높임 선어말어미 ‘-시-’와 결합할 때 ‘-샤-’의 형태로 나타난다. 선어말어미 ‘-시-’와 ‘-오-’의 결합형은 ‘-쇼-’로 나타나야 할 텐데 ‘-쇼-’가 아닌 ‘-샤-’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은 ‘-오-’의 이형태로 ‘-아-’를 설정하는 데 강한 근거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은 ‘-오-’의 이형태로 ‘-아-’를 설정하는 과정을 ‘-샤-’ 구문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주체 높임 선어말어미와의 결합형이 아닌 ‘겨시다’와 ‘-오-’의 결합이 ‘겨샤-’로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서도 ‘겨시다’의 어원이 ‘겨다’임을 밝혀 논란의 여지를 없애고 있다. 또 자칫 주체 높임 선어말어미와의 결합형으로 보일 수도 있는 ‘쇼니, 슈라, 쇼라’의 경우도 주체 높임 선어말어미가 아닌 ‘이시다’가 연결된 것임을 보여 설명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에 이어 ‘-과-’가 관련한 어미들을 들어 ‘-과-’가 어떤 형태들의 결합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이 논문은 ‘-오-’의 이형태로 ‘-아-’를 설정하는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과-’ 구문에 대한 많은 연구자들의 이론을 설명하여 ‘-과-’를 어떻게 분석할지에 대하여 논의를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과-’에 대하여 최대한 많은 학자들의 이론을 소개하여 독자로 하여금 여러 가지 방향에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발표자의 논의를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오-’의 이형태로 ‘-아-’를 설정함에 있어서 ‘-샤-’를 통해 설명하고 있는데, 선어말어미 ‘-시-’와 선어말어미 ‘-오-’의 결합은 ‘-샤-’로 나타나고, 어간의 일부인 ‘-시-’와 ‘-오-’의 결합은 ‘-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렇게 선어말어미끼리의 결합과 어간과 선어말어미의 결합의 실현이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흔한 것인가.

둘째, ‘-과-’의 경우는 이 논의에서 말하는 형태소적 분포에 맞지 않는데 목록에 넣은 이유가 무엇인가.

셋째, 3장 ‘-과-’의 분석에서, ‘-과-’를 ‘-거-’와 ‘-오-’의 결합형이 아닌 ‘-고-’와의 결합형일 가능성을 설명하는 이론을 소개하고 있다. 그렇다면 발표자는 ‘-거-’가 아닌 ‘-고-’로 생각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고-’가 무엇인지에 대해 묻고 싶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뒤에 이어질 연구에 대해서도 묻고 싶다.

이상으로 미흡하지만 토론자의 궁금한 점을 묻는 것으로 토론을 마치려 한다.